

2010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0년판 「한·중」 동북아역사재단 연구편람집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우리 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그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 학계에서 진행 된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은 2007년판, 2008년판, 2009년판에 이어 간행되는 네 번째 편입니다.

한·중 양국은 유사 이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년 한·중 양국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거기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갈등이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때로는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 문제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편람집 역시 그 일환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2010년에는 중국에서 한국전쟁(‘항미원조전쟁’ 또는 ‘조선전쟁’으로 지칭) 60주년을 조명한 단행본들이 집중적으로 출간되고 관련 학술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이 발표한 제1차 국가 고고유적공원 명단 12개 항목에 ‘집안고구려 국가고고유적공원’이, 제1차 국가고고유적공원 후보 명단 23개 항목에 ‘발해 중경 고고유적공원’이 각각 포함되었는가 하면, 조선족 회혼례와 판소리 등이 국가급 무형 문화재로, 조선족 전통 장례가 성급 무형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集安市 文物 답사 중에 고구려 고분 23기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매해 발간하는 이 연구편람집이 중국에서의 한국 역사 연구가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 이와 관련한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인해 촉발된 한·중 양국 사이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의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한·중 역사 문제의 경과

한·중 역사 문제 관련 주요 일지 | 11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 성과물

1) 주요 단행본

- (1) 총설 | 21
- (2) 선사~고대(백제·신라) | 26
- (3) 고구려 | 29
- (4) 발해 | 32
- (5) 고려~조선 | 33
- (6) 근현대 | 37

2) 주요 연구 논문

- (1) 『东疆学刊』(10년 1기~4기) | 54
- (2) 『东北史地』(10년 1기~6기) | 54
- (3) 『博物馆研究』(10년 1기~4기) | 55
- (4) 『北方文物』(10년 1기~4기) | 55
- (5) 『史学集刊』(10년 1기~6기) | 56
- (6) 『社会科学战线』(10년 1기~10기) | 56
- (7) 『中国边疆史地研究』(10년 1기~4기) | 56
- (8) 기타 | 57

3) 주요 논문 요약

- (1) 『东疆学刊』 | 61
- (2) 『东北史地』 | 68
- (3) 『博物馆研究』 | 111

| 일러두기 |

1. 이 편람집은 2010년에 발간된 『2009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이어 제작된 것이다.
2. 『2009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수록된 내용의 뒤를 이어 2010년 12월까지 전개된 한·중 역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학술 활동 내용과 유관 저술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학술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목차를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일부는 선별 작업을 거쳐 내용을 요약해 두었다.

- (4) 『北方文物』 | 116
- (5) 『史学集刊』 | 124
- (6) 『社会科学战线』 | 131
- (7) 『中国边疆史地研究』 | 143
- (8) 기타 | 153

3 한·중 역사 관련 학술 활동 및 언론 동향

1) 학술회의

- (1) 국내 학술회의 | 227
 - 학술회의 일람표 | 227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31
- (2) 중국 학술회의 | 283
 - 학술회의 일람표 | 283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85

2) 언론 동향

- (1) 한국 측 동향 | 298
 - 신문 | 298
 - 방송 | 304
- (2) 중국 측 동향 | 306
 - 신문/잡지 | 306

3) 국내 학술연구 논저

- (1) 도서 | 319
- (2) 논문 | 325
 - 학위 논문 | 325
 - 일반 논문 | 327

1
한·중 역사 문제의 경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중 역사 문제 관련 주요 일지

| 2001년 |

2001.06.04~06.06. 중국 長春에서 〈東北邊疆歷史와 現狀研究 공작〉 좌담회 개최. 왕뤄린(王洛林, 당 중앙위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및 관계자 100여 명 참석

| 2002년 |

2002.01~02. 동북공정 영도소조와 전문가위원회 구성. 제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북경)

2002.04.09. 중국 長春에서 〈高句麗歷史研究〉 학술 좌담회 개최. 마다정(馬大正), 리다룽(李大龍) 등 전문가 20명 참석

2002.04. 2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북경)

2002.07.09~07.13. 중국 長春과 通化에서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과 吉林省 社會科學院的 공동 주관으로 〈제2기 東北疆域의 歷史와 現狀 및 高句麗 학술토론회〉 개최. 10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2003년 |

2003.06.23. 중국 『光明日報』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라는 시론이 게재

2003.08.05~08.09. 중국 黑龍江省 黑河에서 3차 전문가위원회 개최

2003.08.23~08.24. 중국 延吉에서 〈高句麗·渤海 문제 학술 토론회〉 개최.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 등 관련 전문가 25명 참석

2003.09.19.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 기관이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5개년 계획의 고구려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보도 [일본 毎日新聞]

2003.10.09~10.13. 중국 集安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공동 주최로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주년 및 3차 전국고구려학술토론회〉 개최

2003.11. 한국 언론·학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의 심각성 인식

2003.12.09.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 한국 역사학계 17개 학회 ‘올바른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사 관련 학회 공동성명’ 발표

2003.12.13. 정부, 고구려사연구센터 건립, 지원 결정

| 2004년 |

2004.02.04. 고구려사연구재단 추진위(위원장 김정배) 발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004.03.01. 고구려연구재단 출범
- 2004.03.29. 한·중 외교장관회담. 반기문 장관 방중. 역사 왜곡 우려 표명
- 2004.06.10. 고구려연구재단 현판식 및 개소식
- 2004.07.01.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 문화유산 공동 등재
- 2004.07.05. 중국 언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보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의 역사 소개 코너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
- 2004.07.09. 정부, 중국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고구려사 입장 요구.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한 것에 항의
- 2004.08.09~08.10. 중국 延吉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延邊大 공동 주최로, <고구려역사문제>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厲聲) 등 전문가 30여 명 참석
- 2004.08.24. 한·중 외교차관 면담. 고구려사 문제 관련 '구두 양해 사항'에 합의(1. 중국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2. 양국 학계 간 공동 학술회의 조기 개최 추진 등)
- 2004.10.07.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구두 양해 사항의 성의 있는 이행 촉구
- 2004.12.21~12.23.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공동 주최,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가치> 한·중 학술회의 개최(북경)

※ 東北工程

사업 명칭: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추진 기관: 中國社會科學院 산하 邊疆史地研究中心

사업 기간: 2002년 02월 28일~2007년 02월

사업 과제: 중국 동북3성 지역(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 문제가 주요 연구 대상. 110개 과제 선정

총 사업비: 1,500만 위안(약 23억 원)

| 2005년 |

- 2005.02.04.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05.03.07. 고구려연구재단,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추진 등 남북 공동 역사 연구 및 역사 왜곡 대응 합의
- 2005.04.05~04.07. 미국 Harvard大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5.04.20. 국회, 제1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 2005.06.12~06.16.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리귀창(李國強) 등 방한. 고구려연구재단과 한·중 학술회의 실무회의

- 2005.06.20. 국회, 제2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 2005.07.19~07.30. 고구려연구재단, 북한 사회과학원·유물보존지도국 등과 함께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첫 공동 조사 실시
- 2005.08.04~08.05. 중국 延吉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東北工程辦公室과 延邊大 中朝韓日關係史研究中心 공동 주최로 <고구려 역사와 문화> 학술 토론회 개최.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2005.08.16. 중국 吉林省, 백두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 발족(일명 장백산[백두산]공정)
- 2005.09.08. 국회, 제3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 2005.10.19. 국회, 제4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
- 2005.10.11~10.12.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공동 주최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한·중 학술회의 개최(수원)
- 2005.11. 한·중 정상회담, APEC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국빈 방문
- 2005.12.08. 국회, 제5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아차산 유적 보존, 동구릉 세계 문화유산 추진)

| 2006년 |

- 2006.04.13. 대만 정부 僑務委員會 산하 全球華文網絡教育中心이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파문 [국민일보]
- 2006.05.10. 북·중 접경의 중국 吉林省 白山市 雲峰댐 수몰 지역에서 고구려 시기 고분 2,000여 기와 성터 발견 [연합뉴스 등]
- 2006.05.28. 중국, 일본에 '渤海石碑' 반환 요구 [일본 朝日新聞]
- 2006.06. '唐朝 渤海國 上京龍泉府 유적 보호 조례', 중국 黑龍江省 常務委員會의 심의 통과
- 2006.07. 중국, 백두산·발해 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한국일보 등]
- 2006.08. 고구려연구재단 해산
- 2006.09.05. 중국, 동북공정 관련 서적 18권 발간
- 2006.09.10~09.11. 중국 延吉에서 <고구려 문제>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 2006.09.10.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공정' 유감 표명. 원자바오 총리는 재발 방지 약속. 2004년 동북공정 관련 구두 양해 존중 표명(ASEM 회의)
- 2006.09.12. 동북공정 저지 30여 개 단체 연합, 범국민연대 결성. 각종 민간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연이어 저지 운동 및 결의 발표
- 2006.09.15.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동북공정 中 정부 견해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말함

- 2006.09.28.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헌판식, 공식 출범
- 2006.10.13.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방중(원자바오 총리, 2004년의 구두 양해 사항 존중 입장 표명/ 후진타오 주석, 2004년 구두 양해 사항 이행 약속/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회원장 접견)
- 2006.11.16.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장백산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관련국과의 협의하에 추진하겠다.” 라고 밝힘
- 2006.11.27.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대학원생, 이어도가 중국령이라며 한국이 설치한 해양과학기지를 철거할 것을 촉구. 주권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결성을 추진 [newsis]

| 2007년 |

- 2007.01.31~02.02. 長春 동계 아시안 게임 시상식에서 한국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 적힌 종이를 퍼들며 중국 측의 항의를 불러옴. 중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에 대해 한국 선수단은 유감을 표명,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
- 2007.03.24.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延邊大에 東北邊疆地區國情調研基地 설립
- 2007.04.05~04.06.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방중, 천자구이(陳佳貴)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등과 한·중 역사 문제에 대해 논의
- 2007.04.10~04.11.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 국회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
- 2007.06.03. 중국 7월 중 동북공정 연구 성과를 총결산하는 회의를 갖기로, 최종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연합뉴스]
- 2007.07.20~07.21. 일본 규슈[九州大] 한국연구센터와 미국한국평의회(IKS)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변경역사 연구> 국제회의가 후쿠오카에서 개최됨.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 쑤진지(孫進己) 등이 참석
- 2007.09.10. 중국 『東北史地』(2007.04.)에 “고구려 28대 국왕의 왕릉 모두가 集安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됨
- 2007.10.19. 중국 吉林省 성급 연구 기지 설립안 통과. ‘십일오(十一五)’(2006~2010년) 계획 기간 중 通化師範大의 고구려 문화 연구 기지와 延邊大의 발해 문화 연구 기지가 해당 분야의 중점 연구 기지로 확정 [연합뉴스]
- 2007.11.07. 중국의 신화 연구자, 단군신화가 黃帝 집단의 곰 토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 [연합뉴스]
- 2007.11.18. 중국 吉林省 소재 발해 상경성 유적의 발굴과 기초 복원 작업이 종료 [KBS 1TV]
- 2007.11.23~11.24.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인민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제12차 한·중 미래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중 협력’·‘한중 FTA’·‘한중 상호 인식의 제고’의 3가지

주제를 토의

- 2007.12. 중국, 동북공정 연구 결과 『高句麗王陵通考』를 홍콩 香港亞洲出版社에서 출간
- 2007.12.10. 한·중 총리회담 한덕수 장관 방중,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역사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2007.12.17~12.18.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과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공동 주최. <고구려 초기 역사 연구> 한·중 고구려 역사 학술회의 개최(북경)

| 2008년 |

- 2008.01.1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자료센터 개소
- 2008.02.12. 한국 홍보가 서경덕, 『뉴욕 타임즈』에 ‘고구려는 한국 역사’ 광고 [중앙일보]
- 2008.02.26. 북한 학계,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력하게 비판 [중앙일보]
- 2008.03.14. 국사편찬위원회·한국고대학회 공동으로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한국 고대사 인식’을 주제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술회의 개최
- 2008.04.15. 중국, 북경-백두산 간 직통 기차 노선 신설 추진 [아시아투데이]
- 2008.04.23.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과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
- 2008.04.29~04.30. 중국 유학생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을 이유로 서울 한복판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옹호, 한국 국민의 反中 감정 야기
- 2008.05.21~08.23. 동북아역사재단·서울대박물관 공동으로 서울대박물관에서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전시회 개최. 이어 강원대박물관(2008.09.01~2009.01.31)에서 순회 전시
- 2008.06.14. 동북아역사재단,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및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성균관대에서 ‘동아시아사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2008.07. 중국, 동북공정 연구 결과 『唐代渤海國五京研究』를 홍콩 香港亞洲出版社에서 출간
- 2008.07.02~07.03.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2008.08. 중국인의 ‘험한’ 정서 현재화, 한중 우호 관계의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 [동아일보]
- 2008.08.08. 중국, 이어도의 영유권 주장, 외교 분쟁화 우려 [중앙일보]
- 2008.08.11~08.13. 캐나다 UBC에서 국제고려학회 주최로 ‘동북공정과 고구려에 대한 학술 워크숍’ 개최
- 2008.09. 동북공정 연구결과 『簡明高句麗史』, 『吉林通史』(3책), 『明代東北域研究』, 『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 등 6종 8책을 長春 吉林人民出版社에서 출간
- 2008.09.04~09.05. 동북아역사재단,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 2008.11.0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연구소, '한국사에서의 변경, 변경으로서 한국(The Frontier in Korean history, Korea as the Frontier)'을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2008.11.11~11.12.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공동 주최, <졸본 시기 고구려역사연구> 한·중 고구려 역사 학술회의 개최(제주)
- 2008.12.05~12.06.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지식 교류와 역사 기억'을 주제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8.12.10. 동북아역사재단, '韓·中·日 학계의 한중 관계사 연구와 쟁점'을 주제로 배재학당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8.12.22~12.23. 동북아역사재단·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 공동으로 '한·중·일의 전쟁 유적을 평화의 초석으로'를 주제로 부산누리마루에서 동북아평화벨트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2009년 |

- 2009.02.10~04.12. 동북아역사재단·서울대박물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에서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순회 전시. 이어 계명대박물관(09.17~10.17)에서 순회 전시
- 2009.02.13~02.14.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1919년: 동아시아 근대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3·1운동 및 5·4운동 9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04.09~04.10. 국회의원회관 전시실에서 '간도 분쟁 400년사-사진으로 보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 사진자료 전시회' 개최
- 2009.04.16.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간도협약 체결 100년 학술 정책 토론회> 개최
- 2009.05.19. 서울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홍보관' 개관
- 2009.05.25. 강릉단오제위원회, '아시아 단오 문화 소통과 발전-韓·中 단오 문화의 차이와 다름'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 개최
- 2009.06.10~06.11. 동북아역사재단, '古代 文字資料로 본 東亞細亞의 文化 交流와 疏通'을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06.12. 반중·혐한은 왜곡된 감정, 양국 문화 이해 노력 필요 [한국일보]
- 2009.06.16~07.05. 동북아역사재단,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몽골-투루크벨트 순회 전시' 개최. 이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문화회관 박물관(07.22~08.20),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 화인아트뮤지엄(09.15~10.02)에서 순회 전시
- 2009.06.17~06.18.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국제 관계와 변경 문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07.24~07.25. 중국 長春에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길림성 사회과학원 주최로 요녕성 사회과학원과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후원 아래 '2009년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 학술 토론회' 개최. 북경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전문가 60명이 참가하여 40여 편의 논문 발표

- 2009.07.10. 속초에 국내 첫 '발해역사관' 개관
- 2009.08.25. 중국 吉林省에서 발해 황후 묘지 2기 발굴,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발간 『고고(考古)』(2009-6)에 발굴성과 소개 [연합뉴스]
- 2009.09. 중국, '중국 조선족 농악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
- 2009.09. 동북아역사재단, 북한 남포시 소재 고구려 시대 강서대묘 3D(3차원) 영상으로 구현
- 2009.09.19~09.20.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공동으로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을 주제로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10.06.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중국의 동북공정 비판 [한국경제]
- 2009.10.26~10.27. 동북아역사재단, 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11.03.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 신설
- 2009.11.06~11.07.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을 주제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11.07. 고구려발해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공동으로 '古代 東北亞의 種族과 文化'를 주제로 부산 경성대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09.12.04. 동북아역사재단·경북대 한중교류연구원 공동으로 '13~14세기 동아시아와 고려·대원 관계의 성격 탐구'를 주제로 경북대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년 |

- 2010.02.03. 중국 山東박물관 개관, '압록강은 말한다-丹東 역사 문화 전시'라는 주제로 문화 전시
- 2010.03. 중국, 조선족 전통 장례를 성급 무형 문화재로 지정
- 2010.03.24~03.25. 동북아역사재단, '안중근 동양평화론-그 사상과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안중근 순국 100주기 추모 국제 심포지엄을 하얼빈에서 개최
- 2010.05. 중국, 延邊박물관 국가 2급 박물관으로 승급
- 중국, 延邊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씨름, 그네, 가야금 예술,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등 5개 항목을 제3차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목록에 편입
- 2010.05.07. 고구려발해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渤海 中京 時期的 歷史와 文化'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06.26. 중국 長春사범학원 滿族문화연구소, 전국 '장백산 문화와 만주족 문화 연구 토론회 및 제2회 만족 문화 연구 기구 연석회의'를 長春에서 개최. 중앙민족대학, 길림대학, 길림성사회과학원, 요녕성민족연구소 등 수십 개 기관의 70여 명의 전문가 참여
- 2010.07.11~07.12. 중국, 點校本 24史 및 『清史稿』 修訂 프로젝트 제4차 편찬업무회의가 上海 復旦大學에서 개최, 2012년 말까지 수정 초고를 완성하고, 2015년 말까지 전체를 출판할 계획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 성과물

- 2010.07.20. 장백산관리위원회,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길림성도서관 공동 주최로 長春에서 '길림성 제6차 장백산문화 토론회' 개최
- 2010.07.31. 중국장성학회, 장성 沿線의 市·縣정부 공동 주최로 丹東의 虎山長成에서 '장성 보호 만리길' 행사 개최
- 2010.08.04. 동북아역사재단, '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한반도 100년'이라는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독도연구소 개소 2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08. 중국 集安市, 문물 답사 중 시 서남쪽 12킬로미터 麻線鄉 上活龍村 4組 북측 산골짜기 및 산 중턱 비탈에서 고구려 고분 23기 발견
- 2010.10.05~10.06. 국제고려학회와 러시아극동국립대학 한국학대학 및 발해고고학연구소 공동 주최,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동아시아 세계와 발해-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블라디보스톡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10.09. 중국 국가문물국, 제1차 국가고고유적공원 명단(12개 항목) 및 제1차 국가고고유적공원 후보 명단(23개 항목)을 발표, 전자에 '集安 고구려 국가고고유적공원', 후자에 '渤海 中京 고고유적공원'이 각각 포함
- 2010.10.13~10.14.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山東大學과 공동으로 제11회 중국 한국학 학술 대회를 威海市 산둥 대학에서 개최
- 2010.10.21. 고구려발해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 발해의 문화와 위상'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11.05.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과 평화-사회, 국가, 세계'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연구 포럼 국제 학술회의 개최
- 2010.11.12. 중화인민공화국국사학회, 중국군사과학학회 군사역사분회 공동 주최로 북경의 당대(當代) 중국연구소에서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60주년 기념 학술보고회' 개최
- 2010.11.29. 동북아역사재단, '영원한 삶-한국 고대 왕국, 고구려 고분 벽화전'이라는 주제로 고구려 고분벽화 터키 전시회를 이스탄불 오르타코이 미술관에서 개막
- 2010.12.10.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항일전쟁사학회와 공동으로 '근현대 전쟁의 기억과 동북아 미래의 평화'라는 주제로 北京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 국제 학술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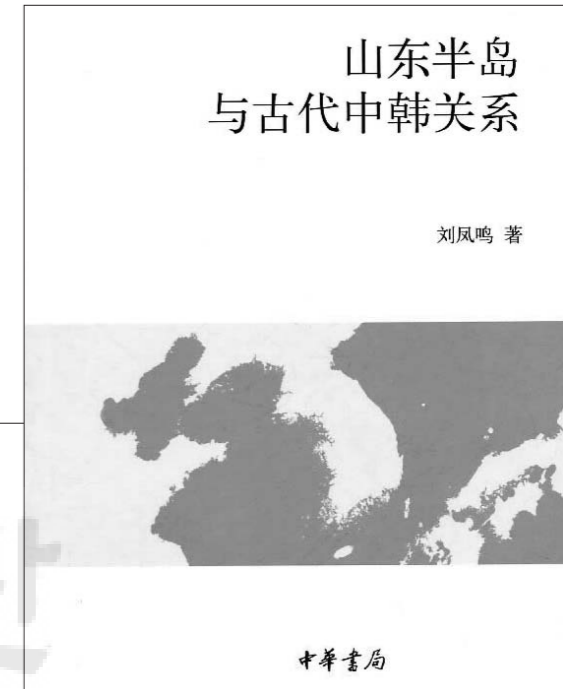
1) 주요 단행본

(1) 총 설

山东半岛与古代中韩关系

刘凤鸣 著, 中华书局, 2010年

『산둥반도와 고대 중한 관계』, 류펑밍 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目次

序一
序二
序三
前言
先秦时期与古代朝鲜
颍夷, 古青州与朝鲜半岛
一. 颍夷与古青州
二. 青州颍夷辽东半岛说
三. 青州颍夷活跃在山东半岛
四. 青州颍夷, 赐谷与曰主之地
五. 山东半岛与朝鲜半岛的史前文化交流

齐国“通利末之道”与“朝鲜之文皮”
一. 齐国的“通利末之道”, 使“齐冠带衣履天下”
二. 齐国开办海外贸易活动, “有朝鲜之文皮”
三. 齐国“越海而东, 通于九夷”, 开辟了东方海上丝绸之路

秦·汉与古朝鲜·三韩时期
隋·唐与高丽·新罗时期
宋·元与高丽时期
明·清与李氏朝鲜时期
跋

목차

서一
서二
서三
머리말
선진 시기와 고대 조선
와이, 고청주와 한반도
一. 과이와 고청주
二. 청주우이 요동반도설
三. 산둥반도에서 청주우이의 활약
四. 청주와이, 양곡과 왕주의 땅
五. 산둥반도와 한반도의 선사 시대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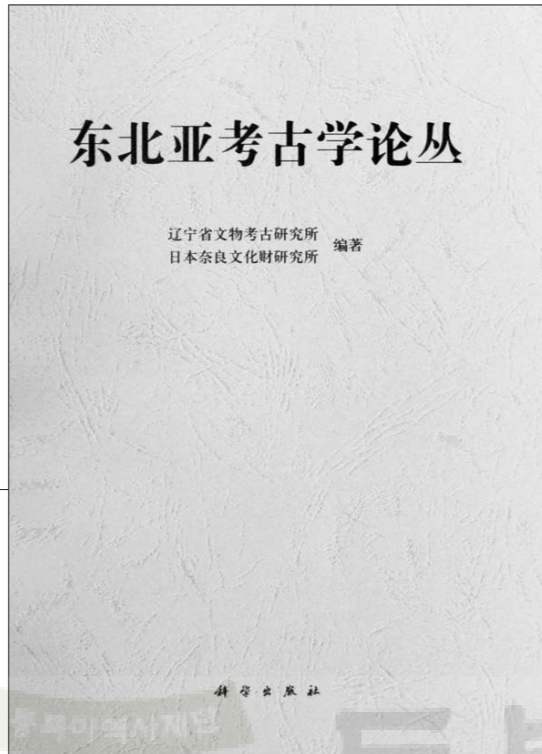
제국의 '말업(상업) 진작의 길 개척'과 '조선의 문피'
一. 제국이 말업 진작의 길을 열어 천하에 관, 락, 옷, 신을 공급하다
二. 제국이 해외 무역 활동을 시작하고 '조선의 문피'를 얻다
三. 제국이 '바다를 건너 동으로 가서 구이와 교류하여', 동방 해상 실�크로드를 열다

진·한과 고조선·삼한 시기
수·당과 고려·신라 시기
송·원과 고려 시기
명·청과 이씨 조선 시기
발문

东北亚考古学论丛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日本奈良文化财研究所 编, 科学出版社, 2010年

『동북아 고고학 논총』,
 라오닝성문화고고연구소·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 편



| 目次 |
|--|
| 序 |
| 序二 |
| 與石棚有关的幾個问题的探讨 |
| 《遼阳壁画墓群》学习笔记 |
| 从三座壁画墓的发现看遼东、三燕、高句丽壁画墓之间的关系 |
| 五女山城與日本古坟出土的铁铤比较研究 |
| 朝阳老城北大街出土的3~6世纪莲花瓦當初探 |
| 喇嘛洞铁工初论-兼议中国慕容鲜卑、朝鲜三国时期和日本古坟时代铁器葬俗的一致性與差异性 |
| 高桥鞍的复原及有关问题 |
| 日本古坟时代马具三则 |
| 关于慕容鲜卑墓地遗址的基本数据收集與研究 |
| 北票喇嘛洞墓地出土鎏金铜人面饰考 |
| 关于喇嘛洞出土的铜镜 |
| 中国古代北方民族的冠 |
| 鲜卑的金属带具 |
| 关于遼寧省出土的三燕金属带具 |
| 三燕及日本出土铁制刀剑的比较研究 |
| 关于东亚甲冑的谱系 |
| 关于三燕地区出土的马具-以鞍具和轡銜为中心 |
| 中国、韩国、日本出土马冑和马甲 |
| 遼西地区鲜卑墓出土陶器的考察 |
| 古代墓葬随葬品的荧光X射线检测报告 |

| 目次 |
|---|
| 머리말 |
| 머리말 2 |
| 고인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 |
| 《요양 벽화 묘 군》에 대한 학습 필기 |
| 3기의 벽화 묘 발견으로 본 요동·삼연·고구려 벽화 묘 사이의 관계 |
| 오녀 산성과 일본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 화살촉 비교 연구 |
| 조양로성 북대가에서 출토된 3~6세기 연화 와당에 대한 초보적인 탐색 |
| 라마동 철공예에 대한 초론-중국 모용 선비, 조선 삼국 시기와 일본 고분 시대의 철기 장례 풍속의 일치성과 차이점에 대해 함께 논의 |
| 말안장의 복원 및 그와 관련된 문제 |
| 일본 고분 시대 마구의 3칙 |
| 모용 선비 묘지 선정의 기본 데이터 수집과 연구에 관하여 |
| 베이파오 라마동 묘지에서 출토된 금과 동으로 도금된 인면 장식에 대한 고찰 |
| 라마동에서 출토된 동 거울에 관하여 |
| 중국 고대 북방 민족의 모자 |
| 선비의 금속 허리띠 |
| 요녕성에서 출토된 삼연의 금속 허리띠에 관하여 |
| 삼연과 일본에서 출토된 철제 도검의 비교 연구 |
| 동아시아 갑주의 계보에 관하여 |
| 삼연 지구에서 출토된 마구에 관하여-말안장과 재갈을 중심으로 |
| 중국·한국·일본에서 출토된 말 투구와 말 갑옷에 관하여 |
| 요서 지구 선비 묘에서 출토된 도기에 대한 고찰 |
| 고대 묘장 수장품의 형광 X사선 검측 보고 |

中国古代北方民族体育史考

黄聪 著, 人民出版社, 2010年

『중국 고대 북방 민족 체육사 고』, 황총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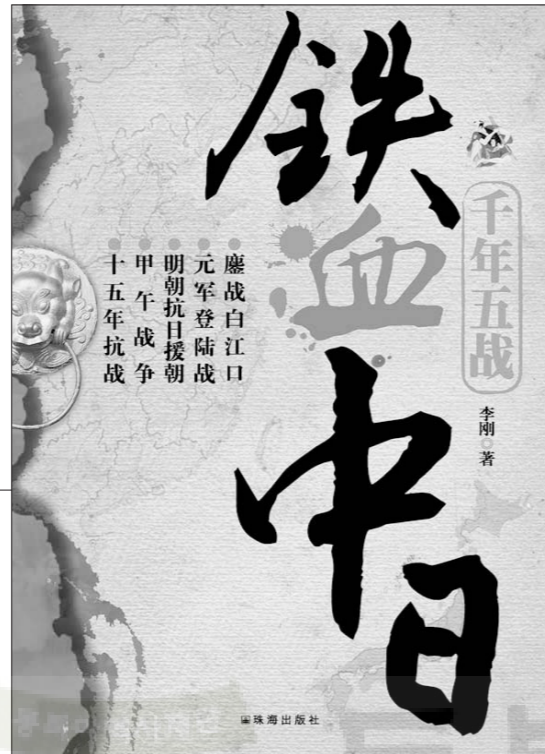
| 目次 |
|------------------------|
| 绪论 |
| 上编 |
| 第一章, 古代北方民族体育的起源和萌芽 |
| 第二章, 古代北方民族体育的初步发展 |
| 一, 夫余和高句丽的体育活动 |
| 二, 肃慎、挹娄、勿吉的体育活动 |
| 第三章, 古代北方民族体育的全面发展 |
| 一, 高丽、百济、新罗、林靺与渤海的体育活动 |
| 第四章, 古代北方民族体育的兴盛与衰落 |
| 下编 |
| 第五章, 摔跤考 |
| 第六章, 马球考 |
| 参考文献 |

| 目次 |
|---------------------------|
| 서론 |
| 상편 |
| 제1장, 고대 북방 민족 체육의 기원과 맹아 |
| 제2장, 고대 북방 민족 체육의 초보적인 발전 |
| 1. 부여와 고구려의 체육 활동 |
| 2. 숙신·읍루·물길의 체육 활동 |
| 제3장, 고대 북방 민족 체육의 전면적인 발전 |
| 1. 고려·백제·신라·림국과 발해의 체육 활동 |
| 제4장, 고대 북방 민족 체육의 흥성과 쇠락 |
| 하편 |
| 제5장, 씨름고 |
| 제6장, 마구고 |
| 참고 문헌 |

铁血中日

李刚 著, 珠海出版社, 2010年

『전쟁 중·일』, 리강 저



| | |
|---|---|
| <p>第三章 明万历“抗日援朝”战争——一场准现代国际战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日本特色的改朝换代 二. 中朝两国战前实录 三. 日军攻陷朝鲜“三都” 四. 情报不准, 导致明军出师不利 五. 中日巅峰对决: 血战平壤 六. 日军陷入全线被动 七. 不该发生的议和 八. 明军被迫再度赴朝作战 九. 新世界的诞生 <p>第四章 甲午中日战争——谁拒绝变革, 谁被历史严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1868年, 明治日本华丽转身 二. 中国的大变局时代 三. 近代中国最丢人也最丢钱的战争 四. 元军大清帝国在行动 五. 不同的结果, 不同的观感 六. 一个时代的侧记: 清政府从未承认琉球(冲绳)属于日本 <p>第五章 “十五年抗战”——一部血染的历史教科书</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国民政府抗战方针的致命缺陷 二. 1931年, 日本在中国东北豪赌 三. 血浴中华, 全面抗战终启动 四. 战略相持与反攻 五. 战争责任: 日本至今无法回避 六. 再看“菊花”与“刀” 七. 日本右翼成功“潜伏” | <p>제3장. 명 만력제의 '항일원조' 전쟁-준 현대적 국제 전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특유의 정권 교체 2. 전쟁 전 명-조선 양국의 실록 3. 일본군이 조선의 '3도'를 함락시키다 4. 부정확한 정보가 명군의 출병을 불리하게 만든다 5. 명-일 대결의 최고봉: 평양 혈전 6. 일본군이 전 전선에서 수동적 입장에 빠지다 7. 일어나면 안 될 화의 8. 명군이 재차 조선으로 출병하게 되다 9. 신세계의 탄생 <p>제4장. 갑오 청일 전쟁-변혁을 거부한 자가 받은 역사의 엄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68년, 명치 일본의 화려한 변신 2. 중국의 대변국 시대 3. 근대 중국 최대의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전쟁 4. 원군 대청 제국 행동하다 5. 상이한 결과, 상이한 견해 6. 한 시대의 취재기: 청 정부가 결국 오키나와의 일본 귀속을 승인하다 <p>제5장. '15년 항전'-피로 물든 역사 교과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당 정부 항전 방침의 치명적 결함 2. 1931년, 중국 동북에서 일본이 큰 도박을 걸다 3. 피로 물든 중화, 전면적 항전이 마침내 시작되다 4. 전략의 대립과 반격 5. 전쟁의 책임: 일본은 지금까지 멋대로 회피해 왔다 6. '국화'와 '칼'을 다시 보다 7. 일본의 우익이 '잠복'에 성공하다 |
|---|---|

| | |
|--|---|
| <p>目次</p> <p>第一章 鏖战白江口: 大和军团挑战大唐远征军</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中国“第二帝国时代” 二. “海归派”助推日本腾飞 三. 剪不断, 理还乱: 百济与新罗 四. 不能不说高句丽 五. 大唐远征军开赴百济战区 六. 洛阳城里的日本人 七. 日本在忙什么 八. 中日千年第一战 九. 日本人的忧虑 十. 因为失败, 所以虚心 <p>第二章 元军东征-“上帝之鞭”折不断武士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幕府”是怎样炼成的? 二. 蒙古人的奋斗 三. 忽必烈很生气 四. 元军首次东征-日本胜得莫名其妙 五. 元军二次东征-日本真的打败了 六. 元日关系“政冷经热” 七. 战争给幕府埋下危机种子 | <p>목차</p> <p>제1장. 백강구 혈전: 대화 군대가 대당 원정군에 도전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의 '제2제국 시대' 2. '해의 유학파'가 일본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다 3.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정리해도 여전히 어지럽다: 백제와 신라 4. 고구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당 원정군이 백제의 전장으로 출동하다 6. 낙양성의 일본인 7. 일본은 무엇 때문에 다급했나? 8. 중·일 천 년 간의 첫 번째 전쟁 9. 일본인의 우려 10. 실패가 겸허를 만든다 <p>제2장. 원군의 동정-'상제의 채찍'은 무사의 칼을 부러뜨릴 수 없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막부'는 어떻게 단련되었나? 2. 몽골인의 분투 3. 쿠빌라이가 분노하다 4. 원군의 1차 동정-일본이 영문도 모르게 이기다 5. 원군의 2차 동정-일본이 진정으로 승리를 얻다 6. '정치적 냉각과 경제적 열기'의 원-일 관계 7. 전쟁이 막부에 위기의 씨앗을 심다 |
|--|---|

(2) 선사~고대(백제·신라)

入唐三韩人研究

姜清波, 暨南大学出版社, 2010年

『입당 삼한인 연구』, 창정보 저



目次

前言

第一章 三韩人的入唐概况

第一节 高丽人入唐概况

一、唐朝之前中原与高丽之间的人口流动情况

二、高丽人大规模迁入唐朝内地

第二节 百济人入唐概况

一、唐以前中原和百济之间的人口流动情况

二、百济人大规模迁入唐朝内地

第三节 新罗人入唐概况

一、唐以前新罗和中国之间的人口流动情况

二、唐代新罗人进入中国概况

第二章 入唐三韩使者考论

第一节 入唐高丽使者考论

一、高丽遣使入唐概况

二、对高丽遣使入唐的三阶段分析

三、乾封三年之后的高丽国存在状况探析

第二节 入唐百济使者情况考论

一、百济遣使入唐概况

二、百济王室成员充任入唐使者的原因

第三节 入唐新罗使者情况考论

一、新罗遣使入唐概况

二、新罗入唐使者的作用

목차

머리말

제1장 삼한인의 입당 개괄

제1절. 고려인의 입당 개괄

1. 당 이전 중원과 고려 간의 인구 이동 상황

2. 고려인이 대규모로 당 내지로 옮겨짐

제2절. 백제인의 입당 개괄

1. 당 이전 중원과 백제 간의 인구 이동 상황

2. 백제인이 대규모로 당 내지로 옮겨짐

제3절. 신라인의 입당 개괄

1. 당 이전 신라와 중국 간의 인구 이동 상황

2. 당대 신라인의 중국 진출 개괄

제2장 삼한의 입당사자 논고

제1절. 고려의 입당사자 논고

1. 고려의 입당사자 개괄

2. 고려의 입당사자에 대한 3단계 분석

3. 건봉 3년 이후의 고려 존재 상황 분석

제2절. 백제가 당에 사자를 보낸 정황에 대한 논고

1. 백제의 입당사자 개괄

2. 백제 왕족이 입당사자를 맡은 이유

제3절. 신라가 당에 사자를 보낸 정황에 대한 논술

1. 신라의 입당사자 개괄

2. 신라 입당사자의 역할

第四节 新罗对唐纳质宿卫述论

一、新罗纳质宿卫的初因

二、新罗入唐宿卫者的职能演变

三、新罗纳质宿卫的过程和宿卫学生概况

四、新罗宿卫者在唐期限

五、新罗宿卫者的作用

六、总结

第三章 入唐的原百济,高丽王室以及权臣事迹考论

第一节 唐朝对原百济王室,高丽王室及权臣的安置

一、唐对百济王室的安置措施探析

二、唐对高丽王室及权臣泉氏家族安置措施探析

第二节 高丽王室后裔和百济王室后裔在唐(武周)朝事迹述论

一、高丽王室后裔事迹考论

二、百济王室后裔事迹考论

第三节 高丽权臣泉氏家族成员在唐(武周)的不同命运

一、泉男生墓志略考

二、泉男产与泉献诚在唐事迹比较略

三、对武则天评价问题的管见

第四章 两《唐书》列传记载的三韩籍蕃将事迹述考

第一节 两《唐书》立传记载的高丽人仕唐事迹述考

一、高仙芝事迹考略

二、王思礼仕唐事迹述考

三、割据的李正己家族

제4절. 신라의 대당 납질·숙위 논술

1. 신라가 당에 납질·숙위하게 된 당초의 원인

2. 신라 납질·숙위의 임무 변화

3. 신라 견질 숙위의 과정과 숙위 학생 개황

4. 신라 숙위자의 제당 기한

5. 신라 숙위자의 역할

6. 총결

제3장. 입당한 백제, 고려 왕실 및 권신의 사적 논고

제1절. 당조의 백제, 고려 왕실 및 권신에 대한 안치

1. 당의 백제 왕실 안치 조치에 대한 분석

2. 당의 고려 왕실 및 권신 천씨 일가 안치 조치에 대한 분석

제2절. 고려·백제 왕실 후예의 당(무주)에서의 사적 논술

1. 고려 왕실 후예의 사적 논술

2. 백제 왕실 후예의 사적 논술

제3절. 입당 후 고려 권신 천씨 일가의 서로 다른 운명

1. 천남생 묘지 고찰

2. 천남산과 천현성의 재당 사적에 대한 비교 고찰

3. 무축천에 대한 필자의 평가

제4장. 양 『당서』 열전에 기록된 삼한 반장의 사적 총고

제1절. 양 『당서』에 입전된 고려인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평술

1. 고신지 사적에 대한 고찰

2. 왕사례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평술

3. 할거한 이정기 일가

第二节 史书中列传记载的百济人事迹述略

一、两《唐书》·黑齿常之传及学界的有代表性的研究成果概述

二、黑齿俊事迹述略考

三、对黑齿常之冤狱昭雪之事的分析

四、黑齿家族其他成员事迹述考

第五章 未被史书列传记载的三韩籍蕃将事迹述考

第一节 散见于史籍记载的仕唐唐三韩人

一、有关高延寿,高惠真的几个问题

二、高文简,高拱毅降唐及降唐原因

三、沙吒忠义之族出及事迹考-兼及沙吒相如的仕唐事迹

四、似先義逸事迹略论

第二节 志石资料和笔记小说中所见的三韩人事迹考

一、高性文家族的事迹考

二、高玄事迹考

三、高足西事迹考

四、沙吒(吒)利的仕唐事迹述论

五、难元庆事迹述论

六、李元佐事迹

七、张詠,金清事迹

第六章 参与发动或平定唐朝宫廷政变的三韩人

第一节 唐中宗时期参与(平定)宫廷政变的三韩人

第二节 参与唐玄宗宫廷政变的三韩人

一、王毛仲的仕唐事迹

二、李仁德的仕唐事迹

三、王景耀(耀)的仕唐事迹

四、小结

제2절. 사서 열전에 기록된 백제인의 사적 약술

1. 양 『당서』 흑치상지전 및 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서술

2. 흑치준 사적 약고

3. 흑치상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석

4. 흑치 일가의 사적 검토

제5장. 사서 열전에 기록되지 않은 삼한 반장의 사적 총고

제1절. 사서에 산견되는 당조 정내 삼한인

1. 고연수·고혜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2. 고문간·고공의 투항과 그 원인

3. 사타총의 가계 및 사적 고찰-사타상여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4. 사신의일의 사적 약론

제2절. 묘지 자료와 필기 소설에서 보이는 삼한인의 사적 고찰

1. 고성문 가족의 사적 고찰

2. 고현의 사적 고찰

3. 고족유의 사적 고찰

4. 사타리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논술

5. 난원경의 사적에 대한 검토

6. 이원좌의 사적

7. 장영·금청의 사적

제6장. 당조 정변에 참여한 삼한인

제1절. 당 중종 시기 정변에 참여한 삼한인

제2절. 당 현종 시기 정변에 참여한 삼한인

1. 왕모종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2. 이인덕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3. 왕경요의 당 조정에서의 사적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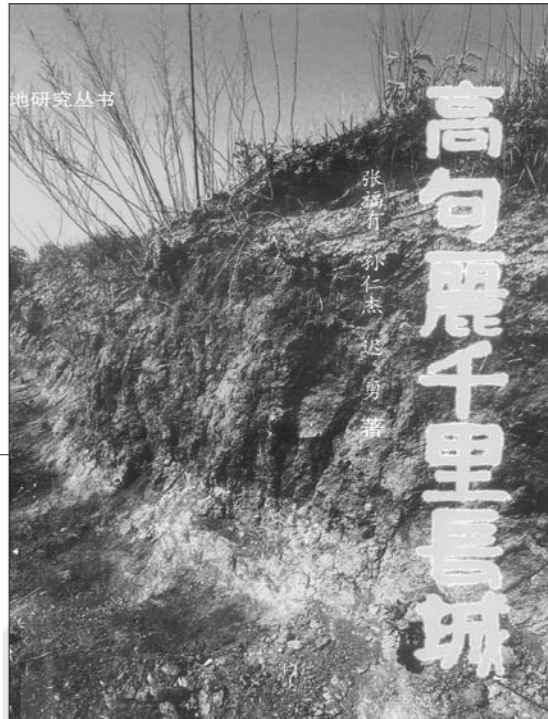
| | |
|---|---|
| <p>第七章 唐朝商业领域内的三韩人</p> <p>第一节 三韩使者在民族、国家交往中的商人成分</p> <p>第二节 三韩商人阶层在唐朝的活动</p> <p>第三节 唐朝境内与新罗商人有关的物产、地名及事迹</p> <p>第八章 入唐的三韩僧人</p> <p>第一节 卷入政治事务的三韩僧人</p> <p>第二节 与三韩僧侣有关的唐朝地名</p> <p>第三节 入唐三韩僧侣的汉语水平考辨</p> <p>第四节 三韩僧侣在唐的其它事迹</p> <p>第九章 唐朝的三韩籍奴婢-兼论唐代的新罗奴与昆仑奴的比较[附：试论唐代的押新罗、渤海两蕃使]</p> <p>第一节 由战俘而被变为唐朝奴婢的三韩人略论</p> <p>第二节 试论被劫掠贩卖以及因灾荒而入唐为奴的三韩人</p> <p>第三节 入唐的新罗奴与昆仑奴比较探析</p> <p>总结</p> <p>附录：试论唐代的押新罗、渤海两蕃使</p> <p>参考文献</p> <p>附记</p> | <p>제7장. 당조 상업계의 삼한인</p> <p>제1절. 민족·국가 교류에서 삼한 사자의 상인적 성격</p> <p>제2절. 삼한 상인의 당조에서의 활동</p> <p>제3절. 신라 상인과 관련된 당조 경내의 생산품, 지명 및 사적</p> <p>제8장. 입당한 삼한 승려</p> <p>제1절. 정치에 휘말린 삼한 승려</p> <p>제2절. 삼한 승려와 관련된 당조 지명</p> <p>제3절. 입당 삼한 승려의 중국어 수준 고찰</p> <p>제4절. 당에서의 삼한 승려 사적</p> <p>제9장. 당조의 삼한 노비-당대의 신라 노비와 곤륜노의 비교[부록: 당대의 신라, 발해 양 번사]</p> <p>제1절. 포로로 잡혀 당조의 노비가 된 삼한인 약론</p> <p>제2절. 약탈로 팔리거나 기근으로 입당해서 노비가 된 삼한인</p> <p>제3절. 입당한 신라 노비와 곤륜 노비의 비교 분석</p> <p>종결</p> <p>부록: 당대의 신라, 발해 양 번사</p> <p>참고 문헌</p> <p>후기</p> |
|---|---|

(3) 고구려

高句麗千里長城

張福有·孫仁杰·迟勇 著, 吉林人民出版社, 2010年

『고구려천리장성』, 장푸여우·쑤런제·치용 저



| 目 次 | 목 차 |
|-----------------------------|--|
| 上編 緒論 | 상편 서론 |
| 第一章 文献記載 | 제1장 문헌 기재 |
| 第二章 研究情况 | 제2장 연구 현황 |
| 第三章 系統調查研究緣起 | 제3장 계통 조사 연구 배경 |
| 中編 調查 | 중편 조사 |
| 第一章 吉林省德惠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 | 제1장 길림성 덕혜시 경내 노변강 성벽 유적 조사 |
| 第一节 松花江镇松花江村老边岗城墙遗迹起始点调查 | 제1절 송화강진 송화강촌 노변강 성벽 유적 시작 지점 조사 |
| 第二节 邢大桥村老边岗屯遗迹调查 | 제2절 형대교촌 노변강 마을 유적 조사 |
| 第三节 边岗乡西边岗村, 东边岗村遗迹调查 | 제3절 변강향 서변강촌, 동변강촌 유적 조사 |
| 第四节 春林堂屯及西南沿着老边岗墙基走向的村屯遗迹调查 | 제4절 춘림당 마을 및 서남쪽으로 노변강 벽토대를 따른 촌마을 유적 조사 |
| 第五节 德惠市同太乡至农安县鲍家小桥村遗迹调查 | 제5절 덕혜시 동태향에서 농안현 포가소교촌까지의 유적 조사 |
| 第六节 德惠市境老边岗城墙基遗迹调查小结 | 제6절 덕혜시경 노변강 성벽 토대 유적 조사 소결 |
| 第二章 吉林省农安县境内老边岗城墙遗迹及调查 | 제2장 길림성 농안현 내 노변강 성벽 유적 및 조사 |
| 第一节 前岗乡三合村老边岗屯遗迹调查 | 제1절 전강향 삼합촌 노변강 마을 유적 조사 |
| 第二节 华家镇团林子村西边岗屯遗迹调查 | 제2절 화가진 단림자촌 서변강 마을 유적 조사 |
| 第三节 龙王乡边岗屯及其它遗迹调查 | 제3절 용왕향 변강 마을 및 기타 유적 조사 |
| 第四节 三岗乡安乐村李家屯遗迹调查 | 제4절 삼강향 안락촌 이가 마을 유적 조사 |
| 第五节 农安县境内老边岗城墙基遗迹调查小结 | 제5절 농안현 내 노변강 성벽 토대 유적 조사 소결 |

| | |
|---|--|
| <p>第三章 吉林省公主岭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及调查</p> <p>第一节 双城堡镇大牛圈屯,西边岗屯等遗迹调查</p> <p>第二节 八道沟村,边岗屯,黄花村等遗迹调查</p> <p>第三节 怀德镇陈家村边岗屯遗迹调查</p> <p>第四节 公主岭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小结</p> <p>第四章 吉林省梨树县,四平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及调查</p> <p>第一节 小城市镇土龙村二里界屯,船口村北岗屯等遗迹调查</p> <p>第二节 小城市镇柳家屯村金边岗屯遗迹调查</p> <p>第三节 万发镇幸福村灵神庙及所经之遗迹调查</p> <p>第四节 梨树镇北老壕村遗迹调查</p> <p>第五节 南老壕村遗迹调查</p> <p>第六节 四平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p> <p>第七节 梨树县,四平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小结</p> <p>第五章 辽宁省昌图县境内老边岗城墙遗迹及调查</p> <p>第一节 上,中,下夹槽遗迹调查</p> <p>第二节 毛家店镇泉眼村壕里屯遗迹调查</p> <p>第三节 下二台乡幸福村西边屯遗迹调查</p> <p>第四节 双庙子镇样子村吴树壕屯遗迹调查</p> <p>第五节 泉头镇泉头村塔东屯,泉头镇红山村,太平乡二台子村遗迹调查</p> <p>第六节 辽宁省昌图县境内老边岗城墙遗迹小结</p> <p>第六章 明长城与老边壕重合与相关地名的调查</p> <p>第一节 明长城与老边壕重合后的走向</p> <p>第二节 老边壕即老边岗城墙基是否在西老边村过辽河</p> | <p>제3장 길림성 공주령시 경내 노변강 성벽 유적 및 조사</p> <p>제1절 쌍성보진 대우권 마을, 서변강 마을 등 유적 조사</p> <p>제2절 팔도구촌, 변강 마을, 황화촌 등 유적 조사</p> <p>제3절 회덕진 진가촌 변강 마을 유적 조사</p> <p>제4절 공주령 시내 노변강 성벽 유적 조사 소결</p> <p>제4장 길림성 이수현, 사평시 내 노변강 성벽 유적 및 조사</p> <p>제1절 소성자진 토룡촌 이리계 마을, 선구촌 북강 마을 등 유적 조사</p> <p>제2절 소성자진 류가 마을촌 급변강 마을 유적 조사</p> <p>제3절 만발진 행복촌 영신묘 및 경유한 유적 조사</p> <p>제4절 이수진 북노호촌 유적 조사</p> <p>제5절 남노호촌 유적 조사</p> <p>제6절 사평시 내 노변강 성벽 토대 유적 조사</p> <p>제7절 이수현, 사평시 내 노변강 성벽 유적 조사 소결</p> <p>제5장 요녕성 창도현 내 노변강 성벽 유적 및 조사</p> <p>제1절 상, 중, 하 도랑 유적 조사</p> <p>제2절 모가점진 천안촌 호리 마을 유적 조사</p> <p>제3절 하이태향 행복촌 서변 마을 유적 조사</p> <p>제4절 쌍묘자진 양자촌 오수호 마을 유적 조사</p> <p>제5절 천두진 천두촌 탐동 마을, 천두진 홍산촌, 태명향 이태자촌 유적 조사</p> <p>제6절 요녕성 창도현 내 노변강 성벽 유적 소결</p> <p>제6장 명 장성과 노변호 종합과 관련 지명의 조사</p> <p>제1절 명 장성과 노변호 종합 후의 방향</p> <p>제2절 노변호 즉 노변강 성벽 토대가 서노변촌에서 요하를 넘는지 여부</p> |
|---|--|

| | |
|--|---|
| <p>第五章 千里长城的性质</p> <p>第六章 千里长城线上的山城</p> <p>第七章 千里长城与明长城的差异</p> <p>第八章 千里长城与柳条边的差异</p> <p>第九章 千里长城的历史作用</p> <p>第十章 保护千里长城的重要意义</p> <p>参考文献</p> <p>高句丽千里长城遗迹调查统计表</p> <p>附卷</p> <p>1.李健才：东北地区中部的边岗和延边长城</p> <p>2.李健才：唐代高丽长城和扶余城</p> <p>3.李健才：再论唐代高丽的扶余城和千里长城</p> <p>4.王健群：高句丽千里长城</p> <p>5.梁振晶：高句丽千里长城考</p> <p>6.冯永谦：高句丽千里长城建置辨</p> <p>7.冯永谦,崔艳茹：高句丽千里长城西南至海段考古调查报告</p> <p>8.魏存成：高句丽晚期长城</p> <p>9.孙志升：唐代高丽政权修筑的千里长城</p> <p>后记 张福有 孙仁杰 迟勇</p> | <p>제5장 천리장성의 성질</p> <p>제6장 천리장성 선상의 산성</p> <p>제7장 천리장성과 명 장성의 차이</p> <p>제8장 천리장성과 류조변의 차이</p> <p>제9장 천리장성의 역사적 작용</p> <p>제10장 천리장성 보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p> <p>참고 문헌</p> <p>고구려 천리장성 유적 조사 통계표</p> <p>부권</p> <p>1. 동북 지역 중부의 변강과 연변 장성</p> <p>2. 당대 고려 장성과 부여성</p> <p>3. 당대 고려의 부여성과 천리장성에 대한 재논의</p> <p>4. 고구려 천리장성</p> <p>5.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고찰</p> <p>6. 고구려 천리장성 건립에 대한 분별</p> <p>7. 고구려 천리장성의 서남에서 해안까지의 고고 조사 보고</p> <p>8. 고구려 후기 장성</p> <p>9. 당대 고려 정권이 건축한 천리장성</p> <p>후기 장푸여우·쑤런제·처용</p> |
|--|---|

| | |
|--|---|
| <p>第七章 营口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p> <p>第一节 大石桥市旗口镇,高坎镇遗迹调查</p> <p>第二节 老边区柳树镇小边村,后岗子村遗迹调查</p> <p>第三节 老边区柳树镇前岗子遗迹调查</p> <p>第四节 营口市境内老边岗城墙遗迹调查小结</p> <p>第八章 沿辽河中下游左岸分布的高句丽山城及其调查</p> <p>第一节 龙潭寺山城</p> <p>第二节 青龙山山城</p> <p>第三节 催阵堡山城</p> <p>第四节 石台子山城</p> <p>第五节 塔山山城</p> <p>第六节 燕州城山城(岩州城)</p> <p>第七节 英城子山城</p> <p>第八节 高丽城山城</p> <p>第九节 海龙川山城</p> <p>第十节 朝阳寺山地</p> <p>第九章 其它与边岗相关的地名调查</p> <p>第一节 榆树县境内叫边,老边村屯的地名调查</p> <p>第二节 舒兰市境内清柳条边起始点遗迹调查</p> <p>下编 综述</p> <p>第一章 “边”的含义</p> <p>第二章 边岗的建筑结构</p> <p>第三章 边岗即“高句丽千里长城”的依据</p> <p>第四章 千里长城的起点,止点与走向</p> | <p>제7장 영구시 내 노변강 성벽 유적 조사</p> <p>제1절 대석교시 기구진, 고간진 유적 조사</p> <p>제2절 노변구 류수진 소변촌, 후강자촌 유적 조사</p> <p>제3절 노변구 류수진 전강자 유적 조사</p> <p>제4절 영구시 내 노변강 성벽 유적 조사 소결</p> <p>제8장 요하 중하류를 따라 원연에 분포한 고구려 산성 및 그 조사</p> <p>제1절 용담사 산성</p> <p>제2절 청룡산 산성</p> <p>제3절 최진보 산성</p> <p>제4절 석태자 산성</p> <p>제5절 탐산 산성</p> <p>제6절 연주성 산성(암주성)</p> <p>제7절 영성자 산성</p> <p>제8절 고려성 산성</p> <p>제9절 해룡천 산성</p> <p>제10절 조양사 산성</p> <p>제9장 기타와 변강 관련 지명 조사</p> <p>제1절 유수현 내 가변, 노변촌 마을로 불리는 지명 조사</p> <p>제2절 서란시 내 청류조변 시작 지점 유적 조사</p> <p>하편 종합서술</p> <p>제1장 ‘변’의 함의</p> <p>제2장 변강의 건축 구조</p> <p>제3장 변강 즉 ‘고구려 천리장성’의 근거</p> <p>제4장 천리장성의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과 방향</p> |
|--|---|

(4) 발해

失落的渤海古国

林攀 著, 华龄出版社, 2010年

『잃어버린 발해 고국』, 린판 저



(5) 고려~조선

朝鲜燕行使与朝鲜通信使
使节视野中的中国·日本

夫马进 著, 上海古籍出版社, 2010年

『조선 연행사와 조선 통신사
-사절의 시각에서 본 중국·일본』, 푸마진 저



| 目次 | 목차 |
|--|---|
| <p>第一编 发现渤海国</p> <p>一、揭开历史的封印</p> <p>二、雕栏玉砌应犹在-上京风情</p> <p>三、渤海简史</p> <p>第二编 渤海建国历程</p> <p>一、寻访渤海古国遗址</p> <p>二、故土英魂-渤海的国王们</p> <p>三、鸿胪井见证的历史-渤海国与唐王朝的亲密关系</p> <p>四、渤海国政治和经济概况</p> <p>第三编 游历渤海国</p> <p>一、兴隆寺里话菩提</p> <p>二、风光如画的镜泊湖</p> <p>三、渤海古墓探幽</p> <p>第四编 随风而逝的文明</p> <p>一、渤海国的衰落</p> <p>二、渤海国灭</p> <p>三、短命的东丹国</p> <p>四、花落归谁家?</p> <p>五、辽国时期的渤海城池</p> <p>六、渤海遗风</p> <p>后记 渤海国, 渤海人</p> <p>附录</p> <p>渤海国大事记</p> | <p>제1편 발해국 발견</p> <p>1. 역사의 봉인 벗기기</p> <p>2. 호화로운 궁전이 여전히 있다-상경 풍경</p> <p>3. 발해의 간단한 역사</p> <p>제2편 발해의 건국 과정</p> <p>1. 발해 고국의 유적지를 탐방하다</p> <p>2. 고토의 영령-발해의 국왕들</p> <p>3. 홍려정이 증명하는 역사-발해국과 당 왕조의 친밀한 관계</p> <p>4. 발해국 정치와 경제 개황</p> <p>제3편 발해국을 돌아다니다</p> <p>1. 홍룡사 보리를 말하다</p> <p>2. 풍광여화의 징포후</p> <p>3. 발해 고분을 심오하게 탐구하다</p> <p>제4편 바람을 따라 사라진 문명</p> <p>1. 발해국의 쇠락</p> <p>2. 발해국 멸망</p> <p>3. 짧은 운명의 동단국</p> <p>4. 꽃이 떨어지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는가?</p> <p>5. 요국 시기의 발해 성지</p> <p>6. 발해의 유풍</p> <p>후기 발해국, 발해인</p> <p>부록</p> <p>발해국 연표</p> |

| 目次 | 목차 |
|---|--|
| <p>中文版序言</p> <p>第一部 十六七世纪燕行使对中国的观察</p> <p>第一章 万历二年朝鲜使节对“中华”国的批判</p> <p>一、引言</p> <p>二、许蔚和赵宪</p> <p>三、“中华”的现实(一)</p> <p>四、“中华”的现实(二)</p> <p>五、结语</p> <p>第二章 赵宪《东还封事》中所见的中国情况报告</p> <p>一、引言</p> <p>二、中国报告与实际的见闻(一)</p> <p>三、中国报告与实际的见闻(二)</p> <p>四、结语</p> <p>第三章 闵鼎重《燕行日记》中收录的《王秀才问答》</p> <p>一、引言</p> <p>二、闵鼎重的中国旅行</p> <p>三、对《王秀才问答》的分析</p> <p>四、结语</p> <p>第二部 十八九世纪燕行使与通信使进行的学术讨论与学术交流</p> | <p>중국어판 서언</p> <p>제1부 16~17세기 연행사의 중국 관찰</p> <p>제1장 만력 2년 조선 사절의 “중화”국 비판</p> <p>1. 머리말</p> <p>2. 허봉과 조헌</p> <p>3. ‘중화’의 현실(1)</p> <p>4. ‘중화’의 현실(2)</p> <p>5. 결어</p> <p>제2장 조헌 《동환봉사》에서 본 중국 상황 보고</p> <p>1. 머리말</p> <p>2. 중국 보고와 실제적 견문(1)</p> <p>3. 중국 보고와 실제적 견문(2)</p> <p>4. 결어</p> <p>제3장 민정중 《연행일기》에 수록된 《왕수재문답》</p> <p>1. 머리말</p> <p>2. 민정중의 중국 여행</p> <p>3. 《왕수재문답》에 대한 분석</p> <p>4. 결어</p> <p>제2부 18~19세기 연행사와 통신사가 진행한 학술 토론과 학술 교류</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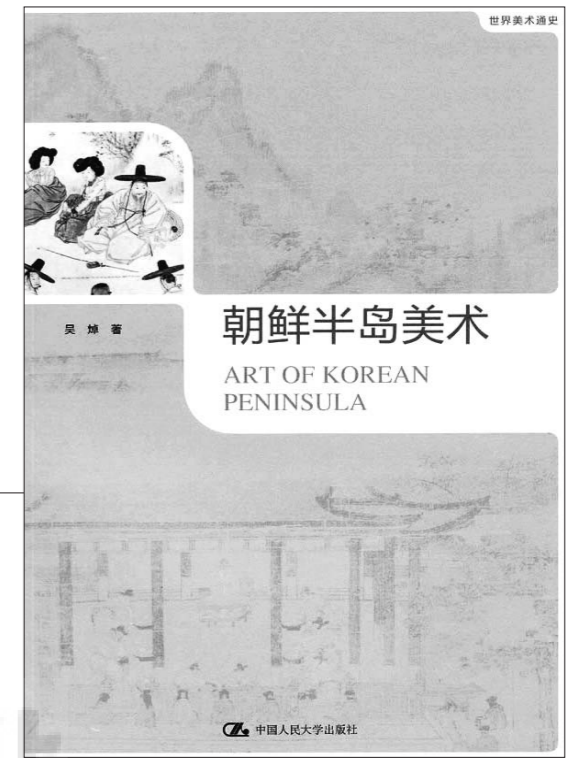
| | |
|---|---|
| <p>第四章 朝鲜燕行使申在植《笔谭》所见汉学与宋学的论争及其周边</p> <p>一. 引言</p> <p>二. 申在植和他的《笔谭》</p> <p>三. 汉宋之争</p> <p>四. 汉宋议论的周边</p> <p>五. 结语</p> <p>第五章 朝鲜通信使对日本古学的认识-兼及朝鲜燕行使对清朝汉学的理解</p> <p>一. 引言</p> <p>二. 往路: 大坂以西的古学情报</p> <p>三. 在江户对古学认识的加深</p> <p>四. 返程再经大坂</p> <p>五. 结语</p> <p>第六章 1746年的朝鲜通信使与日本的徂徕学</p> <p>一. 引言</p> <p>二. 对徂徕学的进一步认识-以收集徂徕学著作为中心</p> <p>三. 对徂徕学派校勘学和重刊古典典籍认识的加深</p> <p>四. 朝鲜通信使回国后对徂徕学的介绍</p> <p>五. 笔谈记录中所见朝鲜通信使对徂徕学说的反应和评价</p> <p>六. 结语</p> <p>第七章 朝鲜通信使与日本的典籍-以古学派校勘学的著作和古典籍为中心</p> <p>一. 引言</p> <p>二. 1748年朝鲜通信使与日本的典籍</p> <p>三. 1764年朝鲜通信使与日本的典籍</p> <p>四. 日本典籍向朝鲜的流传</p> <p>五. 结语</p> | <p>제4장 조선 연행사 신재식《필담》에서 본 한학과 송학의 논쟁 및 그 주변</p> <p>1. 머리말</p> <p>2. 신재식과 그의 《필담》</p> <p>3. 한송 간 논쟁</p> <p>4. 한송 논의의 주변</p> <p>5. 결어</p> <p>제5장 일본 고학에 대한 조선 통신사의 인식-및 청조 한학에 대한 조선 연행사의 이해</p> <p>1. 머리말</p> <p>2. 여정: 오사카 서쪽의 고학 정보</p> <p>3. 에도에서 고학에 대한 인식 심화</p> <p>4.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를 다시 경유</p> <p>5. 결어</p> <p>제6장 1746년의 조선 통신사와 일본의 조래학</p> <p>1. 머리말</p> <p>2. 조래학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인식-조래학 저서 수집을 중심으로</p> <p>3. 조래학과에 대한 교감학과 재간행한 고대 서적 인식의 심화</p> <p>4. 조선 통신사 귀국 후 조래학에 대한 소개</p> <p>5. 필담 기록에서 본 조래학설에 대한 조선 통신사의 반응과 평가</p> <p>6. 결어</p> <p>제7장 조선 통신사와 일본의 서적-고학과 교감학의 저서와 고서적을 중심으로</p> <p>1. 머리말</p> <p>2. 1748년 조선 통신사와 일본의 서적</p> <p>3. 1764년 조선 통신사와 일본의 서적</p> <p>4. 조선으로의 일본 서적 전파</p> <p>5. 결어</p> |
|---|---|

| | |
|--|--|
| <p>第八章 1765년 홍대용의 연행과 1764년 조선 통신사-양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정"의 체험을 중심으로</p> <p>一. 引言</p> <p>二. 홍대용 연행의 목적과 국내의 충격</p> <p>三. 홍대용과 통신사 원중거 등의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관찰 유사성</p> <p>四. 홍대용과 원중거가 체험한 중국과 일본의 '정'</p> <p>五. 결어</p> <p>第三部 燕行录与使朝鲜录</p> <p>第九章 日本现存朝鲜燕行录书目提要</p> <p>一. 引言</p> <p>二. 考订目的</p> <p>三. 书目提要</p> <p>第十章 使琉球录与使朝鲜录</p> <p>一. 引言</p> <p>二. “册封使录”与“使琉球录”</p> <p>三. 使朝鲜录书目提要</p> <p>四. 使琉球录与使朝鲜录的特</p> <p>五. 结语</p> <p>附录 越南如清使范芝香撰《鄞川使程诗集》所见清代中国的汪喜孙译者跋(伍跃)</p> <p>原载书籍·杂志一览</p> <p>索引</p> | <p>제8장 1765년 홍대용의 연행과 1764년 조선 통신사-양자가 중국과 일본에서 "정"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p> <p>1. 머리말</p> <p>2. 홍대용 연행의 목적과 국내의 충격</p> <p>3. 홍대용과 통신사 원중거 등의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관찰 유사성</p> <p>4. 홍대용과 원중거가 체험한 중국과 일본의 '정'</p> <p>5. 결어</p> <p>제3부 연행록과 사조선록</p> <p>제9장 일본에 현존하는 조선 연행록 도서 목록의 개요</p> <p>1. 머리말</p> <p>2. 고경 목적</p> <p>3. 서록 개요</p> <p>제10장 사유구록과 사조선록</p> <p>1. 머리말</p> <p>2. '책봉사록'과 '사유구록'</p> <p>3. 사조선록 도서 목록 개요</p> <p>4. 사유구록과 사조선록의 특징</p> <p>5. 결어</p> <p>부록</p> <p>역자 발문</p> <p>원문 서적·잡지 편람</p> <p>색인</p> |
|--|--|

朝鮮半島美術

吴焯 著,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0年

『조선 반도 미술』, 우쥬 저



目次

第一章 历史概说

第二章 史前及古朝鲜时期的美术

第三章 乐浪郡时期的美术

第四章 高句丽美术

第1节 建筑

第2节 佛教遗迹

第3节 壁画墓

第4节 工艺美术

第五章 百济美术和伽耶美术

第1节 国都与宫室建筑

第2节 陵墓

第3节 佛教建筑

第4节 佛教造像

第5节 伽耶美术

第六章 新罗美术和统一新罗美术

第1节 都城和宫室苑池建筑

第2节 庆州地区的墓葬

第3节 佛教遗迹

第4节 绘画与书法

第5节 工艺美术

第七章 高丽美术

第1节 宫室与王陵

第2节 佛教遗迹

목차

제1장. 역사 개설

제2장. 선사 및 고조선 시기의 미술

제3장. 낙랑군 시기의 미술

제4장. 고구려 미술

제1절. 건축

제2절. 불교 유적

제3절. 벽화묘

제4절. 공예 미술

제5장. 백제 미술과 가야 미술

제1절. 수도와 궁궐 건축

제2절. 농묘

제3절. 불교 건축

제4절. 불교 조소

제5절. 가야 미술

제6장. 신라 미술과 통일신라 미술

제1절. 도성과 궁궐 연못 건축

제2절. 경주 지역의 묘장

제3절. 불교 유적

제4절. 회화와 서예

제5절. 공예 미술

제7장. 고려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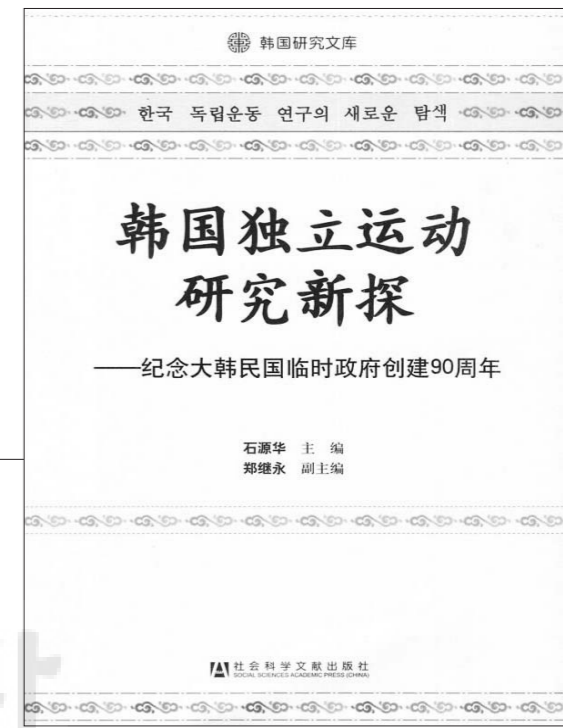
제1절. 궁궐과 왕릉

제2절. 불교 유적

| | |
|--|--|
| 第3节. 绘画 第4节. 书法 第5节. 瓷器 第6节. 金属工艺 第八章. 李朝美术 第1节. 王都与宫室建筑 第2节. 佛教遗迹 第3节. 绘画 第4节. 书法 第5节. 瓷器 第6节. 漆器 图版目录 | 제3절. 회화 제4절. 서예 제5절. 자기 제6절. 금속 공예 제8장. 조선 미술 제1절. 수도와 궁궐 건축 제2절. 불교 유적 제3절. 회화 제4절. 서예 제5절. 자기 제6절. 칠기 도판 목록 |
|--|--|

(6) 근현대

韩国独立运动研究新探
 石源华 主编,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年
 『한국 독립운동 연구에 대한 새로운 탐구』, 스완화 주편



| 目次 | 목차 |
|---|--|
| 序言 纪念大韩民国临时政府创建90周年国际学术会议 大韩民国临时政府领导层异动及其生态变化 论大韩民国临时政府的三大历史意义 大韩民国临时政府与韩国光复军在韩国民族运动史上的地位 大韩帝国皇室独立意志探讨 金九特务队研究 朴殷植与韩国独立运动-纪念大韩民国临时政府成立90周年暨朴殷植诞辰150周年 李东宁与大韩民国临时政府的关系 重庆时期的大韩民国临时政府外长赵素昂 李承晚委任统治外交探析 论金元凤韩国独立运动的思想路线 一位韩国独立运动活动家在中国-柳子明与上海立达学园 大韩民国临时政府为何以上海为驻地 试论大韩民国临时政府在上海的宣传活动 百年石库门千载民族魂-从上海大韩民国临时政府旧址见韩国独立运动精神 论20世纪30年代韩国独立运动在南京的军事人才培养活动 论大韩民国临时政府与中国广东护法政府的关系 论重庆时代的大韩民国临时政府 战后武汉地区韩人集中遣返过程初探 | 머리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층의 특수 행위 및 그 생태 변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대 역사적 의의를 논함 한국 민족운동사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지위 대한제국 황실의 독립 의지에 대한 연구 토론 김구의 '특우대' 연구 박은식과 한국 독립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과 박은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이동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 중경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 이승만의 위임통치 외교 분석 김원봉의 한국 독립운동 사상 노선을 논함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가-유자명과 상해 입달학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상해에 설립되었는가? 상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 활동 시론 백년 석고문 천년 민족혼-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옛 터로 보는 한국 독립운동 정신 1930년대 한국 독립운동, 남경에서의 군사 인재 배양 활동을 논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광둥 호법 정부의 관계를 논함 중경 시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논함 전후 무한 지역 한인 집중 소환 과정의 초보적 고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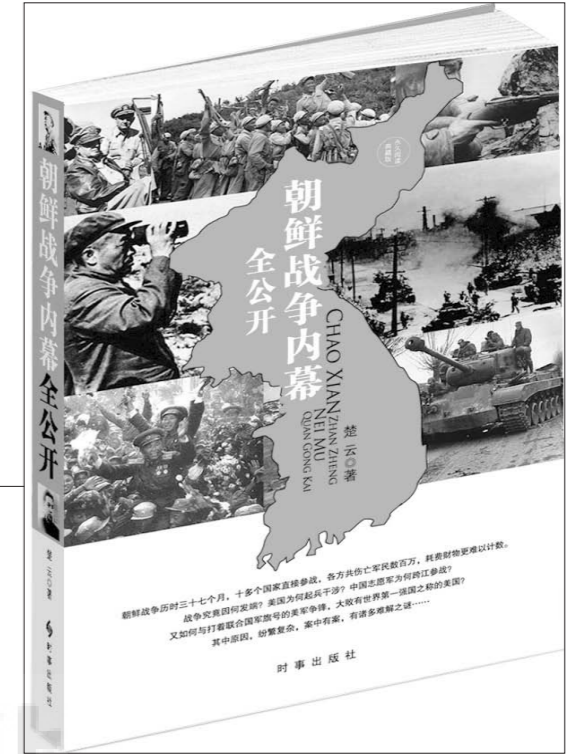
试论朝鲜民族革命者在中国东北抗日斗争中的“双重使命”及其历史地位
 大韩民国临时政府抗日复国宣传活动述评
 “九一八”事变前后《申报》对韩国救亡运动的同情与支持
 战时联合国首脑会谈中的韩半岛问题-从信托统治案到三八线划定对《朝鲜总督府禁止单行本目录》的分析研究
 “金九与中韩关系”国际学术研讨会
 金九与中国国民党交往述论
 金九与中国共产党
 金九与韩国反日独立运动左翼派别的关系
 金九在上海的活动述论
 论金九与重庆时代的抗日复国独立运动
 《新华日报》有关金九报道述评
 金九的民族主义思想与韩国独立运动-读金九自叙传《白凡逸志》
 金九与大韩民国临时政府驻华代表团
 纪念朝鲜义勇队创建70周年国际学术会议
 朝鲜义勇队的产生与发展
 朝鲜义勇队内部党派及组织系统沿革
 朝鲜义勇队的抗日活动及其历史作用
 论朝鲜义勇军与中国共产党
 朝鲜义勇队与中国国民党
 朝鲜义勇队与大韩民国临时政府
 朝鲜义勇军司令武亭将军在中国
 中国境内韩国独立运动的重要史料《东方战友》
 朝鲜义勇队与日本战俘团体关系研究
 1945年10月朝鲜义勇队先遣队入朝及其受挫

중국 동북 항일 투쟁에서의 조선 민족 혁명가의 '이중의 사명' 및 그 역사적 지위 시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광복 선전 활동 논평
 '9·18' 사변 전후 『신보』의 한국 구국 운동에 대한 동정과 지지
 전시 연합국 수뇌 회담에서의 한반도 문제-신탁 통치안부터 38선 확정까지
 『조선 총독부 금지 단행본 목록』의 분석·연구
 ‘김구와 한중 관계’ 국제 학술 연구 토론회
 김구와 중국 국민당의 교류 논술
 김구와 중국 공산당
 김구와 한국 반일 독립운동 좌익파의 관계
 김구의 상해 활동 논술
 김구와 중경 시대의 항일 구국 독립운동을 논함
 김구와 관련된 『신화일보』 보도 논술
 김구의 민족주의 사상과 한국독립운동-자서전 『백범일지』 열독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중 대표단
 조선 의용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조선 의용대의 창설과 발전
 조선 의용대 내부 당파 및 조직 계통 연혁
 조선 의용대의 항일운동 및 그 역사적 역할
 조선 의용군과 중국 공산당
 조선 의용대와 중국 국민당
 조선 의용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에서의 조선 의용군 사령 무정 장군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료 『동방전우』
 조선 의용대와 일본 포로 단체의 관계 연구
 1945년 10월 조선 의용군 선발 중대의 입관 및 그 좌절

朝鲜战争内幕全公开

楚雲 著, 时事出版社, 2010年

『조선전쟁 내막 전 공개』, 추원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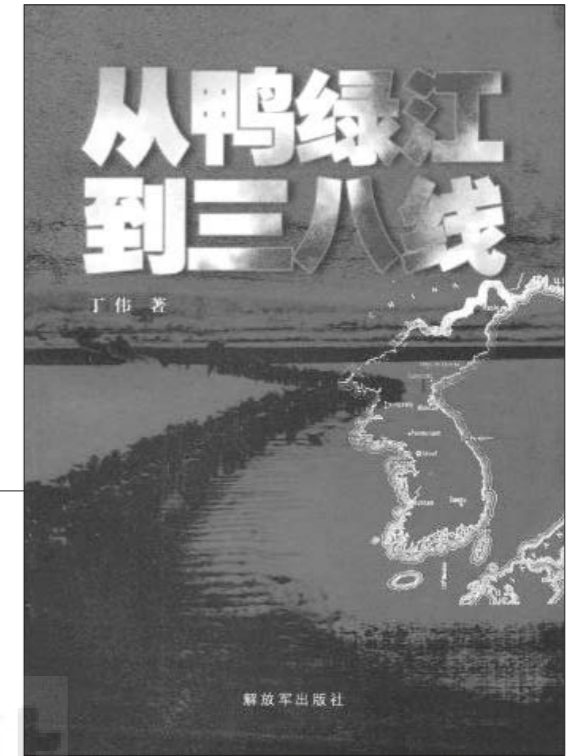
| 目次 | 목차 |
|--------------------|--------------------------------|
| 第一章. 金日成秘访苏联中国 | 제1장.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다 |
| 第二章. 杜勒斯巡察三八线 | 제2장. 딜레스가 38선을 순찰하다 |
| 第三章. 三八线上枪声急 | 제3장. 38선 상의 긴급한 총성 |
| 第四章. 杜鲁门令出兵台海 | 제4장. 트루먼이 타이완에 출병을 명하다 |
| 第五章. 金日成挥师南下 | 제5장. 김일성이 군대를 지휘하여 남하하다 |
| 第六章. 周恩来礼赠金日成 | 제6장. 저우언라이가 김일성에게 선물을 주다 |
| 第七章. 沃尔克遣使求教 | 제7장. 워커가 사람을 보내 구원 요청을 하다 |
| 第八章. 阿尔蒙夜袭仁川 | 제8장. 알몬이 밤에 인천을 습격하다 |
| 第九章. 请救兵朴宪永访华 | 제9장. 박헌영이 구원병을 청하려 중국을 방문하다 |
| 第十章. 毛泽东拜彭德怀为将 | 제10장. 마오쩌둥이 평터화이를 장군으로 임명하다 |
| 第十一章. 远东王奇占平壤 | 제11장. 위엔둥왕이 평양을 탈점하다 |
| 第十二章. 彭德怀扎营大榆洞 | 제12장. 평터화이가 대유동에 주둔하다 |
| 第十三章. 故意示弱志愿军加撤 | 제13장. 고의로 약함을 보여 지원군이 더욱 줄어들다 |
| 第十四章. 毛岸英大榆洞捐躯 | 제14장. 마오안잉이 대유동에서 희생하다 |
| 第十五章. 宋时轮设计十面埋伏 | 제15장. 송시룬이 겹겹이 매복하여 포위하기로 계획하다 |
| 第十六章. 杜鲁门挥师原子弹 | 제16장. 트루먼이 원자탄을 휘두르다 |
| 第十七章. 艾奇逊为艾德禮釋疑 | 제17장. 딘 애치슨이 에틀리 때문에 의심을 풀다 |
| 第十八章. 周恩来约会潘尼迦 | 제18장. 저우언라이가 파니카와 만나기로 약속하다 |
| 第十九章. 彭德怀部署新攻势 | 제19장. 평터화이가 새로운 공세를 안배하다 |
| 第二十章. 李奇微接替沃尔克 | 제20장. 리지웨이 워커의 임무를 넘겨받다 |
| 第二十二章. 骄纵敌将韩先楚兼守水原 | 제22장. 교만한 적장 한센추가 수원 수비를 포기하다 |
| 第二十三章. 邓多华用兵横城外 | 제23장. 등다화가 횡성 밖의 군사를 지휘하다 |
| 第二十四章. 远东王又出狂言 | 제24장. 위엔둥왕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말을 하다 |
| 第二十五章. 彭德怀袭取加平城 | 제25장. 평터화이가 가평성을 습격하여 탈취하다 |

| | |
|------------------------|--|
| 第二十六章, 以十當一彭德懷县里得手 | 제26장,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평터화이가 현 내 관청을 손에 넣다 |
| 第二十七章, 解方向毛泽东汇报战况 | 제27장, 흐름을 이해한 마오쩌둥이 전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다 |
| 第二十八章, 马克克倡言论和平 | 제28장, 마리카가 언론 평화를 주창하다 |
| 第二十九章, 来凤莊初议和李克农呕心血 | 제29장, 해봉장 첫 평화 담판에서 리커농이 피를 토하다 |
| 第三十章, 假谈真打李奇微夏季大进攻 | 제30장, 리지웨이와 하계 대 공습을 하다 |
| 第三十一章, 李奇微定计空中大绞杀 | 제31장, 리지웨이가 공중 대공습을 계획하다 |
| 第三十二章, 罗伯特丧魂伤心嶺 | 제32장, 로버트가 상심의 고개에서 낮을 놓다 |
| 第三十三章, 来凤莊完成使命 | 제33장, 래봉장에서 사명을 완성하다 |
| 第三十四章, 美国飞机播撒苍蝇跳蚤 | 제34장, 미국 비행기에서 파리와 벼룩을 뿌리다 |
| 第三十五章, 利在持久彭德懷築地下长城 | 제35장, 평터화이가 지하 장성을 쌓다 |
| 第三十六章, 克拉克空袭中朝边 | 제36장, 클라크가 중국과 조선의 변경을 공습하다 |
| 第三十七章, 留恋白宫哈里酸溜溜 | 제37장, 백악관에 미련을 둔 해리는 씹쓸하다 |
| 第三十八章, 敲山震虎杜勒斯力劝艾克放蒋出笼 | 제38장, 덜레스가艾크에게 장제스를 석방해 줄 것을 권하다 |
| 第三十九章, 破壤谈判李承晚扣押战俘 | 제39장, 이승만의 전쟁 포로 구금 담판이 깨지다 |
| 第四十章, 签约停战克拉克发悲叹 | 제40장, 클라크가 정전 협정에 비탄을 표출하다 |

从鸭绿江到三八线

丁伟 著, 解放军出版社, 2010年

『압록강에서 38선까지』, 당웨이 저



| 目次 | 목차 |
|---|--|
| 第一章, 从内战到国际性战争 亚洲的火药桶爆炸了 外来干涉 美军踏上朝鲜半岛 扩大战争 | 제1장,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아시아의 화약통 폭발하다 외래 간섭 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다 전쟁의 확대 |
| 第二章, 被迫奋起抵抗 保卫东北边防 麦克阿瑟5000:1的一场赌博 战争在逐步升级 决策出兵 | 제2장, 부득이 분기하여 저항 동북 국경을 수비하다 맥아더 5,000:1의 한판 도박 전쟁이 점차 확대되다 출병 결정 |
| 第三章, 从鸭绿江到清川江 中国人民志愿军跨过鸭绿江 出国第一仗 一场中国式的“葬礼” 东线阻击战 声威大震 | 제3장, 압록강에서 청천강까지 중국 인민 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다 출국 첫 전투 중국식의 ‘장례’ 동부 진선 저지전 위세를 크게 떨치다 |
| 第四章, 扭转朝鲜战局 圣诞节前结束战争 “刚门” 最好的圣诞礼物 新中国代表首次登上国际讲坛 | 제4장, 한국전쟁 전황의 전환 성탄절 전에 전쟁을 종결하라 ‘강문’ 가장 좋은 성탄 선물 신중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국제 강단에 올라서다 |
| 第五章, 突破三八线 一场全新的战争 骗局 必须越过三八线 初试锋芒 | 제5장, 38선을 돌파하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 속임수 반드시 38선을 넘어야 한다 처음 시험해 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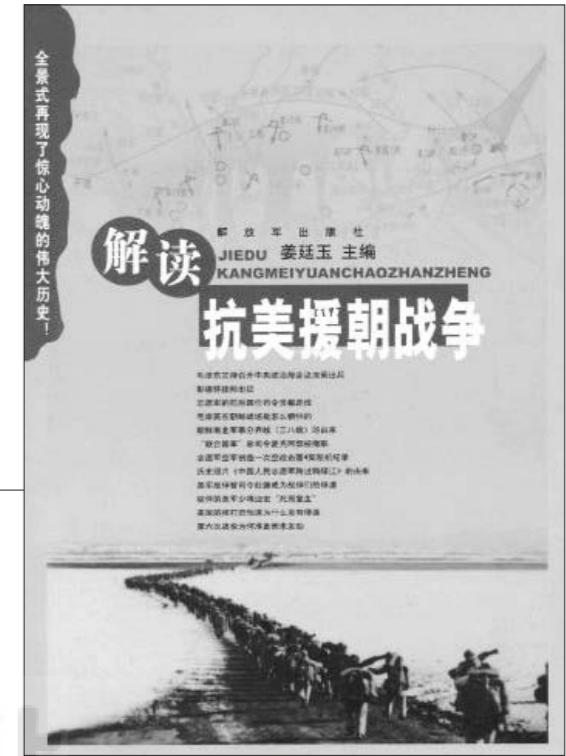
| | |
|--|--|
| <p>第六章 积极防御</p> <p>侵略者的谎言</p> <p>战斗在汉江西岸</p> <p>挥师横城</p> <p>运动阻敌</p> <p>第七章 大举出击</p> <p>麦克阿瑟：我们终于快回家去了</p> <p>李奇微：南朝鲜军队的作为使我感到苦恼</p> <p>汉城面临第二次危机</p> <p>稳定战线</p> <p>第八章 转入相持</p> <p>像一群猎狗那样到处寻找线索</p> <p>充分准备持久作战</p> <p>海空军优势补偿论</p> <p>李奇微：至少要用二十年才能到达鸭绿江</p> <p>攻岛作战</p> <p>第九章 钢铁运输线</p> <p>美国空军实施“绞杀战”</p> <p>鹰击长空</p> <p>美国空军的“死亡之谷”</p> <p>范佛里特：共产党创造了惊人的奇迹</p> <p>地下长城</p> <p>第十章 罪恶的细菌战</p> <p>“不爆炸的炸弹”</p> <p>铁证如山</p> <p>可耻的失败</p> <p>第十一章 针锋相对</p> <p>巨济岛</p> <p>全线战术反击</p> <p>拔掉“钉子”</p> | <p>제6장. 적극적 방어</p> <p>침략자의 거짓말</p> <p>한강 양안에서의 전투</p> <p>횡성으로 군사를 이동시키다</p> <p>적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p> <p>제7장. 대거 출격</p> <p>맥아더: 우리가 마침내 집으로 곧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p> <p>리지웨이: 남한 군대의 행동은 나를 고민스럽게 한다</p> <p>제2차 위기에 직면한 서울</p> <p>전선을 안정시키다</p> <p>제8장. 상호 대치하는 상황으로</p> <p>한 무리의 사냥개처럼 곳곳에서 단서를 찾다</p> <p>충분한 지구전 준비</p> <p>해공군 우세 보상론</p> <p>리지웨이: 최소한 20년은 되어야 압록강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p> <p>섬 공격 전투</p> <p>제9장. 강철 운수선</p> <p>미국 공군이 보급 차단 전략을 실시하다</p> <p>매가 날개를 펼쳐 날다</p> <p>미국 공군의 ‘죽음의 골짜기’</p> <p>벤플리트: 공산당이 놀랄 만한 기적을 만들어냈다</p> <p>지하 장성</p> <p>제10장. 죄악의 세균전</p> <p>‘폭발하지 않는 폭탄’</p> <p>명확한 증거</p> <p>수치스러운 실패</p> <p>제11장. 첨예한 대립</p> <p>거제도</p> <p>모든 전선의 전술은 반격</p> <p>‘못’을 뽑다</p> |
|--|--|

| | |
|--|---|
| <p>第十二章 扬威上甘岭</p> <p>范佛里特的“摊牌作战”</p> <p>坑道英雄</p> <p>钢铁堡垒</p> <p>第十三章 胜利实现停战</p> <p>惩戒</p> <p>最后的一击</p> <p>和平万岁</p> <p>凯旋</p> <p>结语 让历史告诉未来</p> | <p>제12장. 위세를 떨친 상감령 전투</p> <p>벤플리트, ‘손에 권 모든 패를 내보이며 싸우다’</p> <p>경도의 영웅</p> <p>강철 같은 보루</p> <p>제13장. 승리는 휴전을 가져왔다</p> <p>징계</p> <p>최후의 일격</p> <p>평화 만세</p> <p>개신</p> <p>맺음말 역사에게 미래를 말하게 하라</p> |
|--|---|

解读抗美援朝战争

姜廷玉 主编, 解放军出版社, 2010年

『항미원조 전쟁 연구』, 장팅위 주편



| | |
|---|--|
| <p>前言</p> <p>第一部分 重要事件解读</p> <p>从1950年6月25日朝鲜内战爆发到1953年7月27日停战协定签订,都发生了哪些重要事件?这些事件是怎样发生的?它产生什么影响?最后结局如何?</p> <p>朝鲜南北军事分界线(三八线)的由来</p> <p>朝鲜内战是如何爆发的?</p> <p>美国是怎样出兵干涉朝鲜内政的?</p> <p>美国第七舰队是怎样入侵中国台湾海峡的?</p> <p>美国操纵下组建“联合国军司令部”</p> <p>美国空军飞机是如何轰炸中国东北边境城镇的?</p> <p>美国军队仁川登陆</p> <p>美军越过“三八线”</p> <p>中央军委为什么要组建东北边防军?</p> <p>中国人民志愿军是如何组成的?</p> <p>志愿军出征前向祖国人民宣誓</p> <p>首批中国人民志愿军部队跨过鸭绿江</p> <p>抗美援朝纪念日是为什么是10月25日?</p> <p>中国人民保卫世界和平反对美国侵略委员会是怎样成立的?</p> <p>中朝联合司令部的职能和作用是什么?</p> <p>中朝两军高级干部会议的主要内容是什么?</p> <p>为何要成立中朝联合铁道军事运输司令部?</p> <p>中朝空军联合司令部的主要任务是什么?</p> | <p>目次</p> <p> 머리말</p> <p> 제1부분. 중요 사건 해석</p> <p> 1950년 6월 25일 한국 내전의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 체결에는 모두 어떠한 중요 사건들이 발생했나? 이 사건들은 왜 발생했나? 발생 후 어떤 영향을 주었나? 최후의 결과는 어떠했나?</p> <p> 한국 남북 군사 분계선(38선)의 유래</p> <p> 한국 내전은 왜 발발했나?</p> <p> 미국은 어떻게 출병하여 한국 내정에 간섭했나?</p> <p> 미국 제7함대는 어떻게 중국의 대만 해협에 침입했나?</p> <p> 미국의 조종 하에 ‘유엔군 사령부’가 조직되다</p> <p> 미국 공군기는 왜 중국 동북 변경 도시를 폭격했나?</p> <p> 미국 군대의 인천 상륙</p> <p> 미군이 ‘38선’을 넘다</p> <p> 중앙군사위원회는 왜 동북 국경 수비군을 편성하려 했는가?</p> <p> 중국 인민 지원군은 어떻게 조직되었나?</p> <p> 지원군이 출정에 앞서 조국의 인민에 선서하다</p> <p> 첫 번째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다</p> <p> 항미원조 기념일은 왜 10월 25일인가?</p> <p> 중국 인민 세계 평화 보호·미국침략반대위원회는 어떻게 성립되었나?</p> <p> 북-중 연합 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p> <p> 북-중 양국군의 고위 간부 회의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p> <p> 왜 북-중 연합 철도 군사 운수 사령부를 성립하려 했나?</p> <p> 북-중 공군 연합 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p> |
|---|--|

| | |
|---|---|
| <p>成立中朝东·西海岸联合指挥部的原因 中朝联合游击支队为什么没有深入南朝鲜开展游击战?</p> <p>志愿军司令部都先后移驻过哪些地方? 志愿军的坑道防御作战体系是如何形成的? 志愿军的坑道防御体系主要有哪些优势? 什么是志愿军“三位一体”的后勤保障体制? 志愿军后勤部队为保障抗美援朝战争的胜利作出了重要贡献</p> <p>志愿军以炒面代干粮的由来 志愿军在抗美援朝期间开展立功运动 朝鲜政府给中国人民志愿军颁发了多少勋章和奖章? 中国人民赴朝慰问团慰问志愿军 全国人民在抗美援朝运动中捐献多少飞机? 广大工人农民开展劳动竞赛支援抗美援朝 抗美援朝期间中国青年踊跃参加志愿军 中美两军是如何实现兵力调配与补充的? 美国的核打击预谋为什么没有得逞? 停战谈判五项议程是如何产生的? 谈判双方在军事分界线问题上是如何争论与斗争的? 在战俘遣返问题上谈判双方是如何争论与斗争的? 朝鲜停战协定签字 志愿军战俘为何没有全部遣返? 志愿军爱护朝鲜的一山一水一草一木 志愿军从朝鲜全部撤军问题是如何提出的? 志愿军从朝鲜分批撤军回国</p> | <p>북-중 동·서해안 연합 지휘부 성립의 원인 북-중 연합 유격 부대는 왜 남한 깊숙이 들어가 유격전을 전개하지 않았나? 지원군 사령부가 전후로 이동하여 주둔한 곳은 모두 어디인가? 지원군의 경도 방어 전투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원군의 경도 방어 체계는 주로 어떤 점이 우수했나? 지원군 ‘삼위일체’의 병참 보장 체제란 무엇인가? 지원군 병참 부대가 한국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한 공헌을 하다 지원군이 북음면으로 비상식량을 대체하게 된 이유 지원군이 항미원조 기간 동안 입공 운동을 전개하다 북한 정부는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훈장과 휘장을 얼마나 수여했나? 중국 국민이 위문단을 보내 지원군을 위문하다 전 중국의 국민들은 항미원조 운동 중 모두 몇 대의 비행기를 기부했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노동 경쟁을 전개하여 항미원조를 지원하다 항미원조 기간 동안 전국 청년들이 앞다투어 지원군에 참가하다 중-미 양국군은 군사력의 이동 배치와 보충을 어떻게 실시했나? 미국의 핵 공격 사전 모의는 왜 실현되지 못했나? 휴전회담의 5개 의사 일정은 어떻게 생겨났나? 회담 쌍방은 군사분계선 문제에서 어떻게 논쟁하고 투쟁했는가? 전쟁 포로의 송환 문제에서 회담 쌍방은 어떻게 논쟁하고 투쟁했는가?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지원군 전쟁 포로는 왜 모두 송환되지 못했는가? 지원군, 한반도의 자연 하나하나를 아끼고 보호하다 지원군이 북한에서 모두 철군하는 문제는 어떻게 제기된 것인가? 지원군, 북한에서 몇 조로 나누어 철군하여 귀국</p> |
|---|---|

| | |
|---|---|
| <p>毛岸英是怎样牺牲的? 彭德怀为何不愿接受朝鲜授予的“一级国旗勋章”? 杨根思被迫授“特级英雄”称号 黄继光舍身堵枪眼 孙占元与敌同归于尽 “登高英雄”杨连弟是如何牺牲的? 邱少云是怎样牺牲的? 伍先华被迫授“一级爆破英雄”称号 胡修道被授予“一级英雄”称号 杨育才指挥奇袭“白虎团” 杨春增是怎样牺牲的? 李家发以胸膛堵住敌人机枪射孔 许家朋挺身扑向敌人暗堡射孔 被俘的美军少将迪安“死而复生” 麦克阿瑟在威克岛作出中国不会出兵的错误判断</p> <p>美国第8集团军司令沃克在败退途中身亡 “联合国军”总司令麦克阿瑟被撤职 美国总统杜鲁门为何谋求谈判停战? 美军战俘营司令杜德缘何成为战俘们的俘虏? 第三部分, 重要战役战斗解读 抗美援朝战争都发生了哪些重要战役战斗, 这些战役战斗有什么特点? 对战局产生了怎样的影响? 作战双方在战场上都运用哪些战法?</p> <p>第四部分, 重要文物解读</p> | <p>마오안잉은 어떻게 희생되었나? 펑더화이는 왜 북한이 수여한 ‘일급 국기훈장’ 받기를 원치 않았나? 양근쓰, ‘특급 영웅’ 칭호를 수여받다 황지광, 목숨을 바쳐 총구를 막다 쑤잔위엔, 적과 함께 죽다 ‘登高英雄’ 양런디는 어떻게 희생되었나? 추샤오윈은 어떻게 희생되었나? 우셴화, ‘일급 폭파 영웅’ 칭호를 추서받다 후슈다오, ‘일급 영웅’ 칭호를 수여받다 양위차이, ‘백호단’ 기습을 지휘하다 양춘젠은 어떻게 희생되었나? 리자파, 적의 기관총 총구를 가슴으로 막다 쉬자펑, 적의 병거 총구로 용감히 몸을 내던지다 포로가 된 미군 던 소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 맥아더, 웨이크 섬에서 중국은 출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다 미국 제8군 사령관 워커, 패퇴 도중 사망하다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해임되다 미대통령 트루먼은 왜 협상을 통해 휴전을 모색했나? 포로수용소 사령관 도드는 왜 전쟁 포로들의 포로가 되었나? 제3부분, 중요 전역 및 전투 해석 항미원조 전쟁에서 발생한 주요 전역과 전투는 무엇이며, 이러한 전역과 전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것은 전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전쟁에 참여한 쌍방은 어떤 전술을 구사했나? 제4부분, 중요 문물 해석</p> |
|---|---|

| | |
|--|--|
| <p>首都人民欢迎志愿军凯旋 朝鲜政府和人民用哪些形式纪念志愿军的丰功伟绩? 第二部分, 重要人物解读 在战争中双方是怎样运筹和较量的? 志愿军英雄人物是如何英勇战斗的? 美军的几个将领最后是怎样黯淡结局的? 毛泽东是如何主持召开中央政治局会议决策出兵的? 周恩来秘密访问苏联与斯大林主要商谈了什么? 彭德怀被确定挂帅出征 为什么说毛岸英是中国人民志愿军的“第一个志愿兵”? 彭德怀入朝后与金日成首次会晤的主要内容是什么? 毛泽东是怎样调整志愿军入朝后作战部署的? 毛泽东关于第二次战役战略指导方针是什么? 毛泽东为什么主张第二次战役后越过“三八线”再打一仗 毛泽东为什么指示必须立即准备发起第四次战役? 彭德怀回国后向毛泽东主要汇报了哪些内容? 毛泽东对美英军打小歼灭战思想是怎样提出的? 毛泽东主持制定边打边谈方针 中朝谈判班子的主持人是谁? 毛泽东是如何指导停战谈判的? 毛泽东部署反登陆作战准备 周恩来带头为志愿军炒炒面 志愿军的前后四任司令员都是谁?</p> | <p>수도의 국민이 지원군의 개선을 환영 북한 정부와 국민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군의 위업을 기념했나? 제2부분, 중요 인물 해석 전쟁에서 쌍방은 어떤 계책을 가지고 겨루었나? 지원군의 영웅들은 어떻게 용감하게 전투했나? 미군의 몇몇 고급 장교들은 최후에 어떤 압당한 결말을 맞았나? 마오쩌둥은 왜 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여 출병 결정을 했나? 저우언라이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논의한 것은 무엇이었나? 펑더화이가 지휘권을 잡기로 결정하고 출정하다 왜 마오안잉을 중국 인민 지원군의 ‘첫 번째 지원병’이라고 하는가? 펑더화이가 북한에 입국한 후 김일성과 가진 첫 번째 회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마오쩌둥은 지원군이 북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부대 배치를 조정했나? 마오쩌둥의 제2차 전역에 관한 전략 지도 방침은 무엇인가? 마오쩌둥은 왜 제2차 전역 후 ‘38선’을 넘어 제3차 전투할 것을 주장했는가? 마오쩌둥은 왜 반드시 즉시 제4차 전역 개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나? 펑더화이는 귀국 후 마오쩌둥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나? 미·영군에 대한 마오쩌둥의 소 섬멸전 사상은 어떻게 제시된 것인가? 마오쩌둥, 전쟁하면서 회담하는 방침을 제정하는 것을 주장하다 북·중 담판 소그룹의 진행자는 누구인가? 마오쩌둥은 휴전회담을 어떻게 이끌었나? 마오쩌둥, 상륙에 맞서 전투 준비를 안배하다 저우언라이, 지원군을 위해 숭선하여 북음면을 북다 전후로 지원군 사령관에 임명된 4명은 누구인가?</p> |
|--|--|

麦克阿瑟与朝鲜战争

王天成 著, 解放军出版社, 2010年

『맥아더와 조선전쟁』, 왕텐청 저



目次

- 朝鲜战争历史课题的一次新探索(代序)
 麦克阿瑟与朝鲜战争起因进程与结局(引言)
 一、麦克阿瑟征太平洋, 进占日本与南朝鲜
 (一) 征太平洋对日作战, 进占并改造日本
 (二) 进占南朝鲜扶植李承晚上台执政
 二、麦克阿瑟率“联合国军”侵略朝鲜
 (一) 朝鲜内战爆发
 (二) 杜鲁门派美军侵略朝鲜
 (三) 美国海军第七舰队侵入中国台湾海峡
 (四) 联合国安理会通过非法决议要求会员国支援南朝鲜军作战
 (五) 毛泽东对美国提出严重警告
 (六) 金日成指挥人民军奋起决战
 (七) 李承晚的南朝鲜军溃不成军
 (八) 美国实施第68号作战计划
 (九) 杜鲁门任命麦克阿瑟为“联合国军”司令
 三、麦克阿瑟指挥美军登陆仁川, 切断朝鲜人民军后路
 (一) 美第8集团军坚守釜山
 (二) 麦克阿瑟访问台湾与蒋介石密谋联合行动
 (三) 美国空军猖狂轰炸中国边境城镇
 (四) 麦克阿瑟视察南朝鲜为挽回败局寻找对策
 (五) 麦克阿瑟把赌注下在仁川登陆
 (六) 力排众议, 仁川登陆计划获批准
 (七) 麦克阿瑟坐镇指挥仁川登陆
 (八) 美军重占汉城切断人民军后路

목차

- 조선 전쟁 역사 과제에 대한 새로운 탐색(서문을 대신하여)
 맥아더와 조선 전쟁 원인·경과와 결말(머리말)
 一、맥아더의 태평양 전쟁 후 일본과 남한 점령
 (一) 태평양 전쟁의 대일 작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과 개조
 (二) 남한 점령 후 이승만 집권의 육성
 二、맥아더가 지휘하는 ‘유엔군’의 조선 침략
 (一) 조선 내전 발발
 (二) 트루먼의 조선 침략 미군 파견
 (三) 미국 해군 제7함대의 중국 대만 해협 침입
 (四)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합법적 결의로 회원국에게 남한군 지원 작전을 요구
 (五) 미국에 대한 마오쩌둥의 엄중한 경고
 (六) 김일성이 지휘하는 인민군의 분투
 (七) 이승만 남한군의 궤멸
 (八) 미국이 실시한 제68호 작전 계획
 (九) 트루먼이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
 三、맥아더의 인천 상륙 지휘, 조선 인민군 퇴로 절단
 (一) 미국 육군 제8군의 부산 방어
 (二) 맥아더의 대만 방문과 장제스와의 연합 행동 밀약
 (三) 미국 공군의 중국 변경 도시 무차별 폭격
 (四) 남한 시찰을 통한 맥아더의 패국 민회용 대책 추구
 (五) 맥아더의 인천 상륙 도박
 (六) 다수 의견 배척 후 비준을 획득한 인천 상륙 작전
 (七) 맥아더가 직접 지휘한 인천 상륙
 (八) 미군의 서울 수복으로 인해 절단된 인민군의 퇴로

四、麦克阿瑟挥师越过三八线, 引发中美在朝鲜直接交战

- (一) 金日成请求毛泽东出兵支援
- (二) 周恩来警告: 美军越过三八线中国将出兵参战
- (三) 美国无视中国领导人的警告
- (四) 毛泽东艰难做出抗美援朝出兵决策
- (五) 毛泽东任命彭德怀为志愿军司令员
- (六) 彭德怀率大军隐蔽入朝
- (七) 杜鲁门与麦克阿瑟威克岛会晤, 对中国出兵可能性的判断与决策

五、麦克阿瑟向鸭绿江发动攻势遭围堵歼灭, 溃退三八线南

- (一) 彭德怀与金日成首相会晤
- (二) 麦克阿瑟妄图用成吉思汗兵法征服全朝鲜
- (三) 彭德怀确定运动中歼敌
- (四) 志愿军重创美国王牌军
- (五) 麦克阿瑟命令赶在鸭绿江冰封之前占领全朝鲜
- (六) 彭德怀枕下常放两本书阅读, 摸透了对手的脾气秉性, 决定诱歼骄兵
- (七) 麦克阿瑟发动结束朝鲜战争的最后攻势, 承诺让美国士兵回家过圣诞节
- (八) 多国军队大决战拉开序幕
- (九) 志愿军第38军奔袭三所里, 龙源里, “尖起门打狗”
- (十) 双层围堵歼灭美国王牌军
- (十一) 志愿军第9兵团围歼美第10军
- (十二) 麦克阿瑟惊呼遇到全新的战争, 难以驾驭新局面

六、麦克阿瑟提出把战争扩大到中国大陆与杜鲁门发生战略指导重大分歧

- (一) 麦克阿瑟乞求蒋介石派军赴朝鲜为美军解围
- (二) 美军全线崩溃, 退往三八线以南
- (三) 麦克阿瑟预谋对朝实施核袭击
- (四) 杜鲁门下令美军退守三八线稳住阵脚
- (五) 毛泽东电令彭德怀乘胜打过三八线
- (六) 麦克阿瑟主张把战争扩大到中国大陆遭到杜鲁门的拒绝
- (七) 麦克阿瑟准备拿出绝对对付政府

七、麦克阿瑟公开抗命被杜鲁门撤掉所有职务

- (一) 麦克阿瑟“壮志”难酬, 公开挑战总统权威
 - (二) 华盛顿勃然大怒, 不再容忍麦克阿瑟公开抗命
 - (三) 杜鲁门以异常程序撤掉麦克阿瑟所有职务
 - (四) 麦克阿瑟接到通知, 心绪混乱, 说杜鲁门患上恶性高血压
 - (五) 麦克阿瑟返回美国, 结束他52年的戎马生涯
- 八、战争双方进行停战谈判, 最终达成停战协议
- (一) 中朝军队进行运动战, 机动防御和阵地战, 战线稳定在三八线附近
 - (二) 杜鲁门谋求和谈停战
 - (三) 李奇微挑选谈判代表, 交战双方开始停战谈判
 - (四) 美国新任总统艾森豪威尔为实现竞选誓言谋求朝鲜停战
 - (五) 麦克阿瑟向新任总统提出结束朝鲜战争新计划

四、맥아더가 지휘한 군대가 38선을 넘음으로써 조선 내에서 중국·미국 간에 직접 교전 유발

- (一)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파병 지원을 요청
- (二) 지우언라이의 경고: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파병하여 참전할 것
- (三) 중국 지도자의 경고를 무시한 미국
- (四) 마오쩌둥이 고생 끝에 내린 항미원조 전쟁 파병 결정
- (五) 마오쩌둥이 평터화이를 지원군 사령관으로 임명
- (六) 평터화이가 이끈 대군의 조선 진입
- (七) 트루먼과 맥아더가 웨이크 섬에서 회견하고 중국 출병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

五、맥아더가 압록강을 향해 발동한 공세가 포위 섬멸됨, 38선 이남으로의 궤주

- (一) 평터화이와 김일성 수상의 회견
- (二) 맥아더의 칭기즈 칸 병법 운용을 통한 전 조선 정복 망상
- (三) 평터화이, 가동 중 적군 섬멸 계획 확정
- (四) 지원군의 거듭된 미군 정예군 격파
- (五) 압록강이 얼기 전에 전 조선을 점령하라는 맥아더의 명령
- (六) 평터화이가 늘 머리말에 책 두 권을 놓고 읽었으며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여 교만한 군대를 유인하여 섬멸하기로 결정함
- (七) 맥아더가 조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발동하며 미국 병사들이 성탄절을 집에서 보낼 것이라고 약속함
- (八) 다국적 군대의 대결전 서막이 열리다
- (九) 지원군 제38군이 삼소리와 용원리를 급습하여 “문을 잠그고 개를 때리다.”
- (十) 이중으로 포위되어 섬멸된 미국 정예군
- (十一) 지원군 제9병단의 미 육군 제10군 포위 섬멸
- (十二) 완전히 새로워진 전쟁을 만나 놀라고 새 국면을 통제하기 어려워진 맥아더

六、맥아더가 전쟁을 중국 대륙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여 전략 지침에서 트루먼과 중대한 불일치를 일으킴

- (一) 장제스에게 조선에 파병하여 미군의 포위를 풀어줄 것을 맥아더가 요청
- (二) 미군 전선의 대붕괴와 38선 이남으로의 후퇴
- (三) 맥아더의 중국 조선에 대한 핵 공격 실행 모의
- (四) 트루먼의 미군에 대한 38선 수비와 내적 정비 명령
- (五) 마오쩌둥이 평터화이에게 승기를 틈타 38선을 넘을 것을 명령
- (六) 맥아더의 중국 대륙으로의 전쟁 확대 주장과 트루먼의 거절
- (七) 맥아더가 정부에 제출할 절묘한 한 수를 준비함

七、맥아더의 공개 항명과 트루먼의 직무 해임

- (一) 장대한 포부가 이뤄지지 않자 맥아더가 대통령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
 - (二) 워싱턴이 대노하여 맥아더의 공개 항명을 다시 용납하지 않음
 - (三) 트루먼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맥아더의 모든 직무를 해임함
 - (四) 맥아더는 통지를 접수한 후 마음이 혼란해져서 트루먼이 악성 고혈압이 발생했다고 말함
 - (五) 미국 귀국 후 52년 간의 군인 경력을 마친 맥아더
- 八、전쟁 양측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어 마침내 휴전협정이 성립됨
- (一) 중국·조선 군대가 기동전·기동 방어전·진지전을 진행하여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고정됨
 - (二) 트루먼의 휴전회담 교섭 모색
 - (三) 리지웨이가 회담 대표로 선발되어 교전 양측이 휴전회담을 개시함
 - (四) 미국 신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 조선에서 영예로운 휴전 모색
 - (五) 맥아더가 신임 대통령에게 조선 전쟁 종결을 위한 새 계획을 제출

| | |
|--|---|
| <p>(六)李承晚进行捣乱,和谈陷入危机 (七)클라크准备秘密搞掉绊脚石 (八)艾森豪威尔实施胡萝卜加大棒政策,迫使李承晚配合谈判实现停战 (九)毛泽东,彭德怀决定再给李承晚一次沉重打击,为和平打开通路</p> <p>(十)停战协议签字麦克阿瑟与朝鲜战争 (十一)停战时刻 (十二)麦克阿瑟最后岁月对朝鲜战争往事仍耿耿于怀</p> <p>九. 结语:几个问题的回顾见证思考与启示 (一)麦克阿瑟在朝鲜战争中的战略失误 (二)杜鲁门-麦克阿瑟之争与美国全球战略的重点 (三)所谓麦克阿瑟派特工“绑架”毛岸英真相</p> <p>(四)彭德怀在朝鲜战争中的卓越军事指挥 (五)毛泽东在大战略决策时刻-中国出兵抗美援朝决策内幕 (六)朝鲜战争的历史地位与对现实的重要启示</p> <p>附录 后记</p> | <p>(六)이승만이 소란을 일으켜 위기에 빠진 평화 회담 (七)클라크가 비밀리에 장애물을 처리할 준비를 함 (八)아이젠하워가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실시하여 이승만에게 회담에 호응하여 휴전이 실현되도록 압박 (九)마오쩌둥·펑더화이가 이승만에게 심각한 타격을 다시 주어 평화 회담 타개의 수단으로 삼자고 결정 (十)휴전협정이 조인, 맥아더와 조선 전쟁 (十一)휴전 시각 (十二)만년에도 조선 전쟁에 대해 여전히 불만스러웠던 맥아더</p> <p>九. 결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고·증언·생각과 시사점 (一)조선 전쟁 중 맥아더의 전략적 실수 (二)트루먼-맥아더의 싸움과 미국 세계 전략과의 중첩 (三)소위 맥아더가 특수 요원을 파견하여 마오안잉을 '납치'했다는 말의 진상 (四)조선 전쟁 중 펑더화이의 탁월한 군사 지휘 (五)대전략 결정 때의 마오쩌둥-중국의 항미원조 파병 결정의 내막 (六)조선 전쟁의 역사적 지위와 현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p> <p>부록 후기</p> |
|--|---|

朝鮮1950

刘峥 著, 人民出版社, 2010年

『조선 1950』, 류정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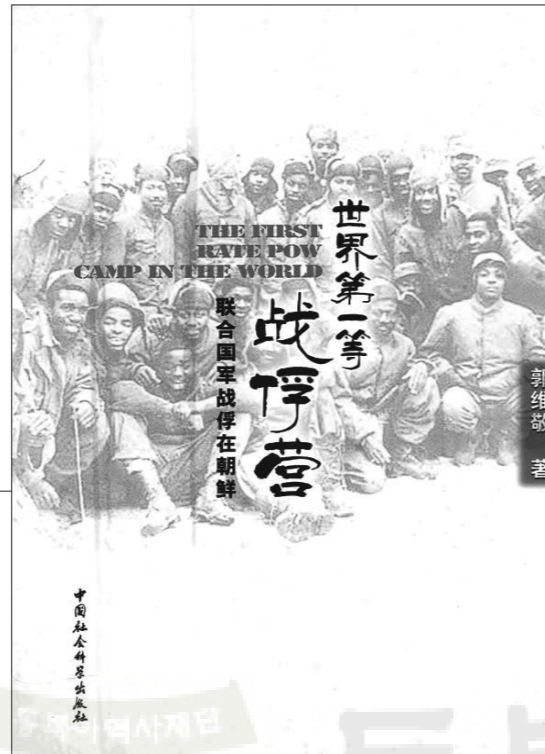


| 目次 | 목차 |
|--|---|
| <p>引子</p> <p>第一章, 仁川登陆</p> <p>第二章, 东北边防军</p> <p>第三章, 台湾: 错失的机遇</p> <p>第四章, 艰难的抉择</p> <p>第五章, 风雨鸭绿江</p> <p>第六章, 狭路相逢</p> <p>第七章, 云山: 中美军队的首次较量</p> <p>第八章, 黄草岭, 赴战岭</p> <p>第九章, “美国黑人团”</p> <p>第十章, 攻守飞虎山</p> <p>第十一章, 补给线</p> <p>第十二章, 诱敌北进</p> <p>第十三章, 圣诞节攻势</p> <p>第十四章, 冻馁长津湖</p> <p>第十五章, 土耳其旅的噩梦</p> <p>第十六章, 生死“闸门”</p> <p>第十七章, 血战松骨峰</p> <p>第十八章, 回归“三八线”</p> <p>主要参考文献</p> | <p>머리말</p> <p>제1장. 인천 상륙</p> <p>제2장. 동북 변방군</p> <p>제3장. 대만: 잃어버린 기회</p> <p>제4장. 어려운 선택</p> <p>제5장. 고난의 압록강</p> <p>제6장.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p> <p>제7장. 원산: 중국·미국 군대의 최초 대결</p> <p>제8장. 황초령, 부전령</p> <p>제9장. ‘미국 흑인단’</p> <p>제10장. 비호산 공방</p> <p>제11장. 보급선</p> <p>제12장. 적을 북쪽으로 유인하다</p> <p>제13장. 성탄절 공세</p> <p>제14장. 장진호에서의 추위와 굶주림</p> <p>제15장. 터키 여단의 악몽</p> <p>제16장. 생사의 ‘갭문’</p> <p>제17장. 송골봉 혈전</p> <p>제18장. ‘삼팔선’으로의 회귀</p> <p>주요 참고 문헌</p> |

世界第一等战俘营：
联合国军战俘在朝鲜

郭维敬 著，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0年

『세계 일등의 전쟁 포로 경영: 조선의 유엔군 전쟁 포로』, 귀웨이
징 저



目次

- 前言
原版《序言》
原版《作者的话》
- 第一章 中国人民志愿军俘虏管理处的设立
一、历史的见证
二、奉命前往俘虏处
四、丰富多彩的战俘生活
五、有口皆碑的业绩
- 第二章 火线上宽待战俘
一、渊源长久的优良传统
二、打消战俘的恐惧心理
三、前线送还伤病战俘与释放战俘
四、西方媒体无法回避的事实
五、两名战俘的自述
- 第三章 组建战俘营的艰难历程
一、刻不容缓的艰巨任务
二、碧潼战俘营艰难创立
三、我对战俘营的最初印象
四、闯过“过渡阶段”的难关
五、土耳其语翻译难觅
- 第四章 联合国军战俘众生相
一、娇惯的美国战俘
二、重实际的英国战俘
三、淳朴的土耳其战俘
四、其他国家战俘生活拾遗

목 차

- 전언
원판 「서언」
원판 「저자의 말」
- 제1장. 중국 인민 지원군 포로 관리처의 설립
1. 역사적 증거
2. 명을 받아 포로 관리처로 가다
4. 풍부하고 다채로운 전쟁 포로의 생활
5. 칭송이 자자했던 업적
- 제2장. 전장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관대한 대우
1. 연원이 오래된 좋은 전통
2. 전쟁 포로의 공포심 해소
3. 전선에서의 부상 전쟁 포로 송환과 전쟁 포로 석방
4. 서방 매체에서 회피할 수 없었던 사실
5. 전쟁 포로 두 명의 자술
- 제3장. 전쟁 포로수용소 건설의 험난한 역정
1. 잠시도 늦출 수 없었던 막중한 임무
2. 벽동 전쟁 포로수용소의 지난한 창립
3. 전쟁 포로수용소에 대한 나의 첫인상
4. '과도 단계'의 난관을 지나다
5. 터키어 통역 찾기의 어려움
- 제4장. 유엔군 전쟁 포로의 각양각색
1. 응석받이 미국 전쟁 포로
2. 현실 중시의 영국 전쟁 포로
3. 순박한 터키 전쟁 포로
4. 기타 국가 전쟁 포로의 생활 모습

- 第五章 中央关怀,战俘营换新貌
一、战俘营迎来第一个春天
二、羁绊与误区
三、俘管工作步入正轨
四、周恩来总理指示和思想解放
- 第六章 世界第一等战俘营
一、衣、食、住,用在战俘营
二、救死扶伤的人道主义
三、战俘的民主组织-俱乐部
四、召开俱乐部代表大会
- 第七章 沸腾的战俘营生活
一、花样繁多的文体娱乐活动
二、“奥林匹克”运动大会
三、图书馆和读书求知
四、帮助战俘扫除文盲
- 第八章 没有铁丝网而战俘营
一、节日欢庆与宗教活动
二、与亲人联系的纽带-通信
三、写作园地与战俘办报热
四、日常管理和相互关系
五、处理违纪战俘,重在教育
- 第九章 一名美联社记者的奇遇
一、抓住一名记者身份的俘虏
二、记者亲历的战俘生活
三、新闻摄影史上的创举
- 第十章 肖华,杜平二将军前来巡查
一、将军们的印象
二、将军们在敌军工作会议上
三、会议代表难忘的参观

- 제5장.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 전쟁 포로수용소가 일신하다
1. 전쟁 포로수용소가 첫 번째 봄날을 맞이하다
2. 속박과 잘못된 인식
3. 본 궤도에 오른 포로 관리 업무
4.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와 사상 해방
- 제6장. 세계 일등의 전쟁 포로수용소
1. 전쟁 포로수용소의 의식주
2. 죽음에 처한 자를 구하고 상처 입은 자를 돌본 인도주의
3. 전쟁 포로의 민주적 조직-클럽
4. 클럽 대표 회의 개최
- 제7장. 고조에 달한 전쟁 포로수용소의 생활
1. 다양한 문예 체육 오락 활동
2. '올림픽' 운동 대회
3. 도서관과 독서를 통한 지식 탐구
4. 전쟁 포로의 문맹 해소를 돕다
- 제8장. 철조망이 없는 전쟁 포로수용소
1. 명절 경축과 종교 활동
2. 친척과 연계하는 끈-통신
3. 문예 창작 마당과 전쟁 포로 신문 발간 열기
4. 일상 관리와 상호 관계
5. 기율 위반 전쟁 포로 처리에 있어 교육을 중시하다
- 제9장. 미국 연합 통신사 기자와의 우연한 만남
1. 기자 신분의 포로를 잡다
2. 기자가 직접 겪은 전쟁 포로 생활
3. 신문 촬영 사상 전례 없던 시도
- 제10장. 샤오화, 두 평 두 장군이 순찰을 오다
1. 장군들의 인상
2. 적군 공작 회의에서의 장군들
3. 회의 대표의 잊을 수 없는 참관

- 第十一章 和平工程,世界相助
一、“碧潼世界大学”
二、八方来客共促和平工程
三、让战俘自己来教育自己
四、和平喜讯传遍四海
- 第十二章 中国人民志愿军-经过考验的真诚朋友
一、欺骗宣传不攻自破
二、“上校所说的根本没有发生”
三、“更像个客人”
四、“奇遇记”
五、“各种诺言都得到兑现”
六、“我们在第三战俘营中的生活”
- 第十三章 联合红十字会小组走访我志愿军战俘营
一、联合红十字会小组的成立
二、联合红十字会小组北组到中国人民志愿军战俘营
三、参观碧潼战俘营总医院
四、访问工作圆满结束
- 第十四章 遣返纪实
一、周全细致的遣返安排
二、遣返时刻见真情
三、士兵战俘和将军战俘的肺腑之言
四、信守停战协定,劝说遣返
五、反差强烈的遣返画面
- 第十五章 美方欲盖弥彰的谎言和暴行
一、汉莱妖言惑众,自找麻烦
二、联合红十字会小组走访双方战俘营的反差
三、美方继续迫害遣返的朝、中战俘
四、从惊恐忌讳到如临大敌

- 제11장. 평화 공정, 세계가 서로 돕다
1. '벽동 세계 대학'
2.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평화 공정을 촉진하다
3. 전쟁 포로가 스스로를 교육하게 하다
4. 평화의 소식이 사해로 널리 퍼지다
- 제12장. 중국 인민 지원군-검증받은 진실한 친구
1. 기만 선전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다
2. "상교가 말한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더 손님 같은 사람'
4. '우연한 만남의 기록'
5. "각종 허락이 모두 실행되다."
6. '제3전쟁 포로수용소에서 우리의 생활'
- 제13장. 유엔 적십자회 소그룹이 우리 지원군 전쟁 포로수용소를 방문하다
1. 유엔 적십자회 소그룹의 성립
2. 유엔 적십자회 소그룹 북조가 중국 인민 지원군 전쟁 포로수용소를 방문하다
3. 벽동 전쟁 포로수용소 총 병원 참관
4. 작업을 참관하고 원만하게 종결하다
- 제14장. 송환 현장 기록
1. 주도면밀한 송환 준비
2. 송환 시기에 보았던 진실
3. 사병 전쟁 포로와 장군 전쟁 포로의 진심에서 우러난 말
4. 휴전협정을 지켜 송환을 권유하다
5. 강렬한 대비의 송환 모습
- 제15장. 미국 측이 감추려다가 더욱 드러난 거짓말과 폭행
1. 한라이가 요언으로 대중을 미혹하려다 스스로 말썽을 부르다
2. 유엔 적십자회 소그룹이 방문한 양측 전쟁 포로수용소의 대비
3. 미국 측이 송환할 조선-중국 전쟁 포로를 계속 박해하다
4. 놀라고 기피하는 것에서 잔뜩 긴장하는 데 이른다

第十六章 种瓜得瓜,引起心灵创伤

- 一, 美国“心灵创伤”的由来
- 二, 美军费尽心机的解释处处碰壁
- 三, 美、英战俘拒绝遣返的声明
- 四, 朝鲜战争30年后合众社的报道

第十七章 美国战俘回国后的磨难

- 一, 出于恐惧戒备防范
- 二, “洗脑论”真相大白

第十八章 “我选定到中国一生无悔!”-访和平战士温纳瑞斯

- 一, 畅叙近半个世纪的沧桑
- 二, 深情难忘中国人民志愿军
- 三, “到中国寻找理想”
- 四, 中美民间大使风尘仆仆传友情
- 五, 温纳瑞斯的晚年与家庭
- 六, 尾声

第十九章 他们至老难忘情

- 一, 从战俘到北约北欧军总司令
- 二, 采访留居中国的战俘
- 三, 30年后纽约奇遇

第二十章 中美关系史上的一段佳话

第二十一章 板门店停战谈判代表团回眸

- 一, 一段令人自豪的回忆
- 二, 一项创历史纪录的谈判斗争
- 三, 美方无可言说的苦果
- 四, 理性与暴力的最后较量

重要附录

附录一 朝鲜谈判中的战俘遣返

附录二 接管战俘的岁月

附录三 一段值得记忆的经历——管理联合国军战俘

附录四 一名中国军人在美军战俘营的生死历程
原版《后记》

제16장. 종과득과, 심리적 상처를 야기하다

1. 미국의 '심리적 상처'의 유래
2. 미군이 온갖 수를 다 써서 곳곳의 장벽을 해석하다
3. 미국·영국 전쟁 포로가 송환 거부 성명을 내다
4. 조선 전쟁 30년 후 UPI 통신사의 보도

제17장. 미국 전쟁 포로 귀국 후의 시련

1. 공포에서 나온 경계와 방비
2. '세뇌론'의 진상을 말하다

제18장. “내가 중국을 택한 것에 후회는 없다!”-평화의 전사 베너리스를 만나다

1. 근 반세기의 풍상을 말하다
2. 잊기 힘든 중국 인민 지원군의 두터운 정
3. “중국에 와서 이상을 찾다.”
4. 중국·미국 민간 대사로 떠돌면서 고생하며 우정을 전하다
5. 베너리스의 만년과 가정
6. 에필로그

제19장. 그들이 노년에도 잊을 수 없는 정

1. 전쟁 포로에서 NATO 북유럽 군 총사령관이 되기까지
2. 중국 거류 전쟁 포로를 탐방하다
3. 30년 뒤 뉴욕에서의 우연한 만남

제20장. 중국·영국 관계사에서의 한 미담

제21장. 판문점 휴전회담 대표단의 회고

1. 자부심을 주는 회상 한 조각
2. 역사 기록으로 남을 회담 투쟁
3. 미국 측의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결과
4. 이성과 폭력의 최후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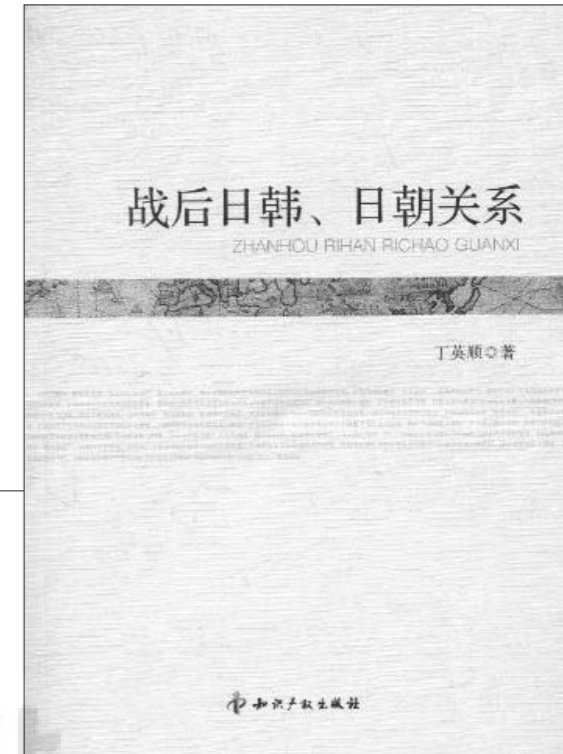
중요 부록

부록1. 조선 회담 중의 전쟁 포로 송환

부록2. 전쟁 포로 인수 관리의 연월

부록3. 기억할 만한 경력-유엔군 전쟁 포로 관리

부록4. 미군 전쟁 포로수용소에서 한 명의 중국 군인의 생사 역정
원판 「후기」



战後日韩,日朝关系
丁英顺 著, 知识产权出版社, 2010年
『전후 일한, 일조 관계』, 딩잉순 저

| 目次 | 목차 |
|-----------------------|---------------------------------|
| 第一章 日本对朝鲜半岛的殖民统治 | 제1장. 조선 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 |
| 第一节 日本吞并朝鲜半岛 | 제1절. 일본의 조선 반도 병탄 |
| 第二节 日本对朝鲜半岛的殖民统治政策 | 제2절. 조선 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 |
| 第二章 战后日本对朝鲜半岛政策的定位 | 제2장.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 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 |
| 第一节 日美轴路线的定向作用 | 제1절. 일미 기본 노선의 목표 확정 역할 |
| 第二节 南北分裂中的阵营选择 | 제2절. 남북 분열 중에서의 진영 선택 |
| 第三章 冷战时期日韩,日朝关系 | 제3장. 냉전 시기 일한·일조 관계 |
| 第一节 日韩邦交正常化谈判 | 제1절. 일한 국교 정상화 회담 |
| 第二节 邦交正常化之后的日韩经济交流 | 제2절. 국교 정상화 이후의 일한 경제 교류 |
| 第三节 日朝关系的曲折发展 | 제3절. 일조 관계의 곡절과 발전 |
| 第四节 日韩合作及日朝摩擦 | 제4절. 일한 협력 및 일조 마찰 |
| 第四章 冷战后日韩,日朝关系 | 제4장. 냉전 후 일한·일조 관계 |
| 第一节 冷战后日韩关系的重新调整 | 제1절. 냉전 후 일한 관계의 새로운 조정 |
| 第二节 日朝邦交正常化谈判 | 제2절. 일조 국교 정상화 회담 |
| 第三节 朝鲜半岛南北关系新走势 | 제3절. 조선 반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추세 |
| 第四节 《美朝核框架协议》的签订与日本 | 제4절.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의 조인과 일본 |
| 第五章 21世纪初日韩,日朝关系 | 제5장. 21세기 초의 일한·일조 관계 |
| 第一节 日韩关系问题不断,历史摩擦频起波澜 | 제1절. 끊임없는 일한 관계 문제, 파란 많은 역사 마찰 |
| 第二节 日朝邦交正常化谈判仍举步维艰 | 제2절. 여전히 진척이 어려운 일조 국교 정상화 회담 |
| 第三节 “六方会谈”与日朝关系 | 제3절. ‘6자 회담’과 일조 관계 |
| 第六章 结语 | 제6장. 결어 |
| 附表 | 부표 |
| 参考文献 | 참고 문헌 |

2) 주요 연구 논문

(1) 『东疆学刊』(10년 1기~4기)

| | | |
|---------|--------|---------------------------------|
| 朴美兰 | 2010.1 | 20世纪90年代以来延边朝鲜族人口负增长原因探析 |
| 朴婷姬·吕秀一 | 2010.1 | 论解放前中国东北朝鲜人社会与在日朝鲜人社会的特点及其形成的原因 |
| 孙卫国 | 2010.2 | 朝鲜王朝矣王庙创建本末与矣王崇拜之演变 |
| 魏志江 | 2010.2 | 论韩国独立运动的主要团体、政党在广东的独立活动 |
| 潘物和·何方 | 2010.3 | 论古代朝鲜的“两班”及其文化特点 |
| 权赫子 | 2010.3 | 朝鲜时代科试律赋考述 |
| 朴今海·姜善 | 2010.3 | 东北朝鲜族近代反日民族教育的兴起 |
| 许辉勋 | 2010.3 | 中国朝鲜族民俗的文化特点之宏观考察 |
| 石俊杰 | 2010.3 | 英美在朝鲜战争问题上分歧与合作的原因 |
| 徐东日 | 2010.4 | 朝鲜朝燕行使臣笔下清朝中国形象的嬗变及其内因 |
| 方民镛 | 2010.4 | 李鸿章对朝鲜的“以夷制夷”政策与《朝美条约》的订立 |
| 金华林·郝方龙 | 2010.4 | 试析图们江地区国际合作的开发型经济水平 |

(2) 『东北史地』(10년 1기~6기)

| | | |
|------------|--------|------------------------------|
| 祝立业 | 2010.1 | 近年来关于高句丽中期都城问题研究评述 |
| 姜维东 | 2010.1 | 高句丽献鱼却敌传说-高句丽传说考源之三 |
| 辛时代 | 2010.1 | 唐代安东都护府行政级别与废置时间问题探析 |
| 张利锁·宫岩 | 2010.1 | 辽代辽河流域渤海人的社会状况 |
| 肖瑶·王蕙存 | 2010.1 | 李成梁家世源流考 |
| 赵俊杰 | 2010.1 | 4~7世纪大同江、载宁江流域封土石室墓调查与研究成果综述 |
| 李东·戴春·李喜德 | 2010.2 | 试论与夫余相关的古史中的(?)族与貊族 |
| 崔龙国 | 2010.2 | 集安高句丽壁画的服饰审美剖析 |
| 刘文健 | 2010.2 | 高句丽与南北朝朝贡关系变化研究 |
| 赵永春·厉永平 | 2010.2 | 辽代女真与高丽朝贡关系考论 |
| 程远 | 2010.2 | 长白山大森林的哲思 |
| 孙炜冉 | 2010.2 | 浅谈唐罗战争中的“买肖城之战” |
| 张福有·孙仁杰·迟勇 | 2010.3 | 高句丽千里长城调查要报 |
| 彭善国 | 2010.3 | 蛟河七道河村渤海遗址属性辨析 |
| 董学增 | 2010.4 | 夫余文化遗存的发现、基本面貌及命名之我见 |
| 尚武 | 2010.4 | 集安麻线上活龙山西墓群调查与研究 |

| | | |
|-------------|--------|-----------------------------|
| 张碧波 | 2010.4 | 感日卵生-高句丽族源神话-兼及《东明王篇》的解析 |
| 姜维东 | 2010.4 | 高句丽始祖传说中河伯女内容探源-高句丽传说考源之四 |
| 赵红梅 | 2010.4 | 乐浪郡变更轨迹考 |
| 陈军·宁勇 | 2010.4 | 夫余简论 |
| 荀凤栖 | 2010.5 | 启动长白山文化建设工程-在长白山文化研讨会上的书面讲话 |
| 张福有 | 2010.5 | 大力推进长白山文化研究与建设 |
| 李新全 | 2010.5 | 高句丽建国传说史料辨析 |
| 王志敏 | 2010.5 | 高句丽故地与第二玄菟郡考 |
| 华阳 | 2010.5 | 浅谈高句丽民族的厚葬习俗 |
| 张哲·何方媛 | 2010.5 | 南北朝之前高句丽与中原王朝关系研究 |
| 赵欣 | 2010.5 | 日本对渤海国的认知与研究 |
| 于丽群·贾素娟·韩安生 | 2010.6 | 以东团山遗址出土陶器为例试析汉文化对夫余文化的影响 |
| 刘炬 | 2010.6 | 关于高句丽早期历史研究体系的几点看法 |
| 薛海波 | 2010.6 | 试论北燕与高句丽的政治关系 |
| 于春英 | 2010.6 | 百济与南北朝朝贡关系研究 |
| 赵智滨 | 2010.6 | 关于唐代熊津都督府的几个问题 |

(3) 『博物馆研究』(10년 1기~4기)

| | | |
|-----|--------|---------------------------|
| 姜维东 | 2010.1 | 高句丽延优传说 |
| 苗威 | 2010.2 | 以朝鲜古代史早期阶段为中心谈朝鲜通史的认识体系 |
| 刘子敏 | 2010.3 | 评高句丽源于“商人说” |
| 聂景刚 | 2010.4 | 承载历史 面向未来-关于建立中国朝鲜族博物馆的设想 |
| 董学增 | 2010.4 | 古代夫余人的物质生活 |

(4) 『北方文物』(10년 1기~4기)

| | | |
|-----|--------|-----------------------|
| 梁玉多 | 2010.1 | 定安国小考 |
| 范恩实 | 2010.1 | 辽东石棚渊源研究 |
| 赵红梅 | 2010.2 | 玄菟郡经略夫余微议 |
| 郑永振 | 2010.2 | 对渤海的建国年代和建国地的讨论 |
| 王勇 | 2010.3 | 渤海上京城出土的马球与渤海人的马球运动 |
| 张明皓 | 2010.3 | 浅析高句丽古坟壁画中的建筑形象 |
| 朱国忱 | 2010.3 | 重大收获 丰硕成果-祝贺《渤海上京城》出版 |
| 郑永振 | 2010.4 | 论渤海国的建国集团与国号、年号 |
| 赵虹光 | 2010.4 | 渤海上京城研究补遗 |

(5) 『史学集刊』 (10년 1기~6기)

| | | |
|--------|--------|-----------------------------|
| 张全超·朱泓 | 2010.1 | 靺鞨人种考 |
| 刁书仁 | 2010.1 | 景泰、天顺年间建州三卫女真与明朝、朝鲜的关系 |
| 王子今 | 2010.2 | 秦汉时期渤海航运与辽东浮海移民 |
| 杨军 | 2010.4 | 东夫余考 |
| 任方 | 2010.4 | 美国国家安全委员会第73号系列文件对朝鲜战争走向的影响 |
| 魏存成 | 2010.5 | 玄菟郡的内迁与高句丽的兴起 |
| 杨军 | 2010.6 | 试析朝鲜李朝文人疆域史观之误-以对安市城的认识为中心 |

(6) 『社会科学战线』 (10년 1기~10기)

| | | |
|-------------|---------|-------------------------------------|
| 郭美英·王艳坤·祝立业 | 2010.1 | 近年来中国高句丽研究述评 |
| 史少博·姜虹 | 2010.3 | 韩国利用儒家思想进行“孝”教育 |
| 宋福娟 | 2010.3 | 对夫余史中某些问题的探讨 |
| 赵红梅 | 2010.3 | 西汉经略朝鲜半岛北部政策嬗变 |
| 陈玉梅·赵光远 | 2010.5 | 新时期大图们江地区开发与东北亚经济技术合作研究 |
| 董立延 | 2010.5 | 日本参与大图们江经济技术合作现状与趋势 |
| 吴可亮 | 2010.5 | 蒙古参与图们江地区经济技术合作的现状与前瞻 |
| 刁书仁 | 2010.5 | 李朝孝宗“反清复明”活动及其影响-兼论东亚“华夷秩序”的裂变 |
| 汪燕岗 | 2010.5 | 论韩国汉文小说的整理及研究-以中国大陆、台湾地区的研究为主 |
| 郭平 | 2010.6 | 多民族统一国家形成的文化根源探究-从清王朝对北方镇山的祭祀谈起 |
| 杜君·白艳 | 2010.6 | 简述1930年代中共对东北境内朝鲜共产主义者的政策 |
| 刘亚非·黄千 | 2010.7 | 高句丽美术考古的最新成果-初评《高句丽古墓壁画研究》 |
| 苗威 | 2010.8 | 关于穆、谟或穆谟的考辨 |
| 张岩·黄定天 | 2010.9 | 近代中、日、朝“被迫开国条约”之比较 |
| 邓峰 | 2010.10 | 试论朝鲜停战谈判的缘起-兼谈结盟政治对中国外交的影响 |
| 祝曙光 | 2010.10 | 朝鲜战争与东北亚格局 |
| 蒋戎 | 2010.10 | 靺鞨参与营州事变的原因及其东奔 |
| 王生 | 2010.10 | 试析韩国政治民族主义对21世纪初朝韩关系发展的影响 |
| 蒋立文 | 2010.10 | 挖掘满族优秀文化 构建和谐华夏文明-“全国长白山与满族文化研讨会”综述 |

(7) 『中国边疆史地研究』 (10년 1기~4기)

| | | |
|--------|--------|-------------------|
| 陈龙·沈载权 | 2010.1 | 朝鲜与明清表笈外交问题研究 |
| 郑春颖 | 2010.1 | 《后汉书·高句骊传》史源学研究 |
| 李鸿宾 | 2010.2 | 古今中国之衔接-疆域观察的一个视角 |

| | | |
|---------|--------|----------------------------------|
| 张永江 | 2010.2 | 国家、民族与疆域-如何研究中国古代疆域史 |
| 刘正寅 | 2010.2 | “大一统”思想与中国古代疆域的形成 |
| 李方 | 2010.2 | 开阔思路,深化中国边疆史研究 |
| 杜芝明·黎小龙 | 2010.2 | “极边”、“次边”与宋朝边疆思想探析 |
| 赵智滨 | 2010.2 | 熊津都督府陷落始末-兼论唐罗战争的爆发 |
| 廉松心 | 2010.2 | 清朝同治年间鸭绿江中上游地区的社会状况-以《江北日记》为中心 |
| 赵欣·曲晓范 | 2010.2 | 近代英国皇家地理学会对长白山主峰地区的科学考察 |
| 刁书仁 | 2010.4 | 正统年间建州左卫西迁考实-兼论东亚地区女真与明朝、李氏朝鲜的关系 |
| 张杰 | 2010.4 | 清前期吉林满族与朝鲜边境贸易述论 |

(8) 기타

| | | | |
|--------------------|-----------|---------|---|
| 『甘肃社会科学』 | 舒健 | 2010.5 | 蒙元时期高丽来华使臣接待考述 |
| 『江苏社会科学』 | 杨心珉·刘恒武 | 2010.2 | 从浙东海交活动看两宋政权对高丽政策的转变与得失 |
| 『考古』 | 刘明·陈山·李龙彬 | 2010.12 | 沈阳市石台子高句丽山城蓄水设施遗址 |
| 『求是学刊』 | 杨军 | 2010.6 | 靺鞨人的迁徙与渤海国 |
| 『军事历史』 | 高广国·田新宇 | 2010.4 | 试论抗美援朝战争中停战谈判的博弈 |
|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 郑红英 | 2010.2 | 试论高丽恭愍王的即位与改革背景 |
| 『吉林教育』 | 张媛 | 2010.25 | 浅谈东北民族地域文化背景下的渤海国音乐 |
|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 黄松筠 | 2010.4 | 中国古代藩属制度与睦邻政策 |
|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 刘信君 | 2010.5 | 中朝与中越朝贡制度比较研究 |
| 『洛阳师范学院学报』 | 韩香兰 | 2010.1 | 论清代中朝边务纠纷与“间岛案”问题 |
| 『兰州教育学院学报』 | 张郁萍 | 2010.5 | 略论唐与渤海之间的质子关系 |
| 『兰州学刊』 | 石少颖 | 2010.7 | “名分外交”的困境-以朝鲜仁祖时期“斥和”与“主和”论争为中心 |
|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 杨艳秋 | 2010.2 | 《大明会典》《明史》与朝鲜辨诬-以朝鲜王朝宗系辨诬和“仁祖反正”辨诬为中心,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
| 『南宁职业技术学院学报』 | 全信子 | 2010.4 | 民族学视野下的朝鲜族传统饮食文化及其传承 |
| 『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李鹏 | 2010.5 | 国内近三十年元丽人员往来研究概述 |
| 『廊坊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 马志兴 | 2010.5 | 浅析明朝遣往朝鲜文官使者的出身 |
| 『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崔鲜香 | 2010.1 | 高丽女性在高丽与蒙元关系中的作用 |
| 『农业考古』 | 董智·谭红毅 | 2010.4 | 农业文明背景下的唐代渤海国皇家园林探析 |

| | | | |
|----------------------|------------|---------|------------------------------------|
|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刘凤鸣 | 2010.5 | 押新罗渤海两蕃使与东方海上丝绸之路的繁荣 |
|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周霞 | 2010.5 | 元朝时期的山东半岛在与高丽海上商贸交往中的重要作用 |
| 『大家』 | 杨世新 | 2010.7 | 略论隋唐朝与朝鲜三国的文化交流 |
| 『大众文艺』 | 李廷青 | 2010.14 | 918-1392, 中国人在韩国 |
| 『东北之窗』 | 杨军 | 2010.1 | 夫余国,和金缕玉衣一起消失 |
| 『东岳论丛』 | 朱法武 | 2010.1 | 论明神宗与援朝御倭战争 |
| 『东岳论丛』 | 金禹彤 | 2010.8 | 高丽礼制研究 |
| 『东岳论丛』 | 韩梅 | 2010.9 | 韩国古代文人眼中的中国-以《朝天记》,《朝京日录》,《入沈记》为中心 |
| 『满族研究』 | 刁丽伟 | 2010.4 | 渤海上京文化研究的回顾与思考 |
| 『满族研究』 | 尤文民 | 2010.1 | 中华民族构建中的朝鲜族社会 |
| 『牡丹江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卢伟 | 2010.5 | 渤海国佛教遗迹发掘及其佛教的传布考 |
| 『牡丹江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张高·姜华昌 | 2010.6 | 牡丹江师范学院渤海史研究述评(上) |
| 『牡丹江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葛中明 | 2010.6 | 试论渤海国的归属问题-驳苏联学者谬论 |
| 『文教资料』 | 崔坚 | 2010.2 | 论明建文朝与朝鲜的政治关系 |
| 『文博』 | 王蕙贞·冯楠·宋迪生 | 2010.6 | 高句丽石质文物风化的保护方法研究 |
| 『文博』 | 张彦 | 2010.5 | 唐高丽遗民《高饶苗墓志》考略 |
| 『文学界(理论版)』 | 徐凤仙 | 2010.9 | 高丽女子对元丽文化的影响 |
| 『美术大观』 | 依晓雷·李传刚 | 2010.11 | 渤海国遗址建筑文化探究 |
| 『博物馆研究』 | 刘子敏 | 2010.3 | 评高句丽源于“商人说” |
| 『北方论丛』 | 范恩实 | 2010.1 | 勿吉兴亡史探微 |
|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 王霞 | 2010.1 | 试论八世纪前半叶新罗在东北亚的地位 |
|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 李善洪 | 2010.1 | 清初朝鲜表笺问题研究 |
| 『史林』 | 周向峰 | 2010.5 | 周隋之际对高句丽册封的改易与隋丽关系之走向 |
| 『丝绸之路』 | 赵斌 | 2010.24 | 贞观乾陵六十一番臣像中的新罗人 |
| 『社会科学研究』 | 林开强 | 2010.1 | 清王朝国家疆域边界意识简析 |
| 『社会科学辑刊』 | 孙卫国 | 2010.6 | 《史记》对朝鲜半岛史学的影响 |
| 『社会科学辑刊』 | 朱法武 | 2010.2 | 壬辰战争中朝鲜对中日议和立场探析 |
| 『绥化学院学报』 | 王继红 | 2010.4 | 隋唐对外汉语教学史考 |
|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芦敏 | 2010.3 | 宋与高丽官方交易物品杂考 |
| 『延边教育学院学报』 | 权红 | 2010.2 | 朝鲜战争对中国深而远的影响 |

| | | | |
|---------------------|------------|---------|--------------------------------------|
| 『延边大学学报』 | 孙昉 | 2010.1 | 论清代中朝宗藩关系的非成文契约性及其更张 |
| 『延边大学学报』 | 王志伟 | 2010.4 | 试论近代朝鲜半岛地缘战略地位的变迁及其日韩合并 |
| 『延边大学学报』 | 林坚 | 2010.2 | 朝鲜(韩)民族源流与民族意识浅见 |
| 『艺术设计研究』 | 臧迎春·任潋 | 2010.3 | 高句丽和汉、魏晋南北朝古墓壁画中出现的加髻研究 |
| 『人民论坛』 | 黄朴民 | 2010.29 | 朝鲜半岛的“三国演义” |
| 『历史教学』 | 赵炳林 | 2010.4 | 再论大祚荣政权的族称和国号问题 |
| 『辽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 逢杏花 | 2010.5 | 明朝对李氏朝鲜的冠服给赐 |
| 『长春理工大学学报(高教版)』 | 赵炳林 | 2010.1 | 高句丽的民族构成述论 |
| 『长春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 李晓光·陶常梅 | 2010.9 | 晚清中韩关系走向近代外交的历程 |
| 『才智』 | 郭威·李忠芝 | 2010.17 | 肃慎、挹娄与魏晋南北朝的朝贡关系 |
|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 王晔 | 2010.12 | 由武功到文治-试论辽代渤海高模翰家族的转变 |
| 『前沿』 | 赵炳林 | 2010.9 | 高句丽灭亡后的人口流向考 |
| 『前沿』 | 王传奇 | 2010.16 | 试析李氏朝鲜“事大”政策本质之变化 |
| 『齐齐哈尔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关庆凡·崔建伟 | 2010.1 | 19世纪末中日两国对朝鲜政策探析 |
| 『中国名城』 | 熊东旭·葛翠玉·董智 | 2010.11 | 城市化语境下古城遗址的保护与经营-唐代渤海国都城遗址保护性开发的策略思考 |
| 『中国文物科学研究』 | 张秋艳 | 2010.3 | 集安市高句丽王城国内城南城垣遗址本体保护工程设计分析 |
| 『中国音乐』 | 金士友 | 2010.4 | 渤海音乐钩沉 |
| 『中外法学』 | 张春海 | 2010.4 | 论唐律对朝鲜王朝前期法制之影响-以“华化”与“土俗”之关系为中心 |
| 『知识就是力量』 | 王德恒 | 2010.7 | 三国和“海东盛国”时的东北亚丝路 |
| 『清史研究』 | 杨军 | 2010.1 | 清代中朝边境贸易中的“揽头” |
| 『清史研究』 | 陈尚胜 | 2010.2 | 试论清朝前期封贡体系的基本特征 |
| 『通化师范学院学报』 | 徐栋梁 | 2010.1 | 从开国传说看高句丽文化的渊源 |
| 『通化师范学院学报』 | 李春祥·潘秀珍 | 2010.5 | 《三国史记》史论研究 |
| 『通化师范学院学报』 | 宋娟 | 2010.7 | 高句丽都城环境初探 |
| 『通化师范学院学报』 | 李春琴 | 2010.7 | 高句丽教育的特点研析 |
| 『通化师范学院学报』 | 耿铁华 | 2010.7 | 新版《中国大百科全书》高句丽词条误释说明 |
| 『通化师范学院学报』 | 陆丽华 | 2010.11 | 好太王碑证史与补史作用 |
| 『通化师范学院学报』 | 苗威 | 2010.11 | 高句丽移民后裔高仙芝史事考 |
| 『学术交流』 | 赵红梅 | 2010.12 | 从朝鲜半岛到辽西-汉晋之际乐浪郡变迁 |
| 『学习与探索』 | 郭素美 | 2010.2 | 渤海的主体民族及其来源 |
| 『学习与探索』 | 梁玉多 | 2010.2 | 渤海遗民的流向-以未迁到辽内地和辽东的渤海遗民为中心的考察 |

| | | | |
|-------------------|-------------|---------|------------------------|
| 『现代国际关系』 | 王生 | 2010.2 | 试析当代韩国民族主义 |
| 『华侨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刘冉冉 | 2010.3 | 朝鲜王朝历史上的汉语教师郑先甲及其后裔研究 |
| 『黄河科技大学学报』 | 齐廉允 | 2010.5 | 由“联合”到“拒入”：南宋初年高丽政策的转向 |
| 『黑龙江民族丛刊』 | 何鑫 | 2010.2 | 论渤海国与黑龙江流域书法史的肇端 |
| 『黑龙江民族丛刊』 | 王禹浪·王文轶·王宏北 | 2010.2 | 辽东半岛高句丽山城概述 |
| 『黑龙江史志』 | 赵炳林 | 2010.3 | 箕氏朝鲜及相关问题再考证 |
| 『黑龙江史志』 | 陈振龙 | 2010.5 | 渤海国与唐朝和日本的友好交往 |
| 『黑龙江史志』 | 王贵明 | 2010.15 | 率宾之马考 |
| 『黑龙江史志』 | 赵卫华·金东黎 | 2010.17 | 延边地区的历史变迁及其主权归属 |
| 『黑龙江史志』 | 金金花 | 2010.23 | 13世纪蒙元与高丽关系变化及原因分析 |
| 『黑龙江社会科学』 | 杨军 | 2010.1 | 夫余始迁时间地点考 |
| 『黑河学刊』 | 郭秀 | 2010.3 | 试论高句丽墓室壁画形成的历史背景 |
| 『黑河学刊』 | 侯震 | 2010.11 | 渤海与新罗交往管窥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주요 논문 요약

(1) 『东疆学刊』

■ 2010년 제1기

20世纪 90年代以来延边朝鲜族人口负增长原因探析

20세기 90년대 이후 연변 조선족 인구 마이너스 성장 원인 분석

朴美兰 p. 60~68

1949년에서 1993년 사이, 연변 조선족 인구 성장 속도는 전국의 기타 민족에 비해 낮았지만 인구의 총량은 줄곧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3년 이래 연변 조선족 인구 통계에서 역사상 미증유의 특수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바로 인구 총량의 완만한 감소였다. 1993년 861,572명이었던 인구는 2008년 781,81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또한 출생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1996년을 기점으로 사망 인구수가 출생 인구수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에서의 인구의 자연적 마이너스 성장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였고, 따라서 연변 조선족 인구 감소는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변 조선족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요소로서 국가의 計劃出產政策이 미친 영향이다. 1970년대 이미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에 연변 조선족이 호응한 것이 마이너스 성장의 한 원인이다. 피임 방법의 선전과 보급, 그리고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이 감소하였던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의 人口流動의 방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구학에서 인구 유동은 生育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인구의 도시화와 노동력의 非農化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바쁜 생활은 기존의 자연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이는 생육 활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연변 조선족에서 생육 가능 기간의 미·기혼 여성들이 대개 대도시나 국외로 직업을 찾아 떠난 것도 특징적이다.

조선족의 교육 관념도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유교 문화의 장기적 영향으로 조선족 가정은 자녀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 출생하는 아이가 적을수록 아이에게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집중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偶然性·盲目性·任意性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결혼과 가정생활의 변화도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다.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라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婦道를 지키는 것 이외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발전에 따라 여성 스스로의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대다수 여성이 둘 이상의 출산을 꺼리게 되었다. 가정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여 조선족 사회에서 單親家庭과 독신자의 수량이 급증한 것도 한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족 구성원의 “시공간”이 확대되어 가족간의 감정이 약화되고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 2010년 제1기

论解放前中国东北朝鲜人社会与在日朝鲜人社会的特点及其形成的原因

해방 전 중국 동북 조선인 사회와 재일 조선인 사회의 특징 및 그 형성 원인

朴婷姬·呂秀一 p. 60~68

중국 조선족 사회와 재일 조선족 사회는 1910~192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이 이런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내부의 추진력과 중국 동북 및 일본의 협력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 다만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식민 통치의 결과에 근본 원인을 돌려야 한다. 내부 추진력이란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이후 실시한 일련의 식민 통치 조치가 조선 농민을 파산으로 이끌어 조선 국내의 노동력 시장에서 이들 파산 농민을 흡수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한다. 외부적 요인은 중국 동북 지역이 조선 북부 지역과 인접한데다가 조선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선 남부 지역은 일본 내지와 근접하였고, 또한 근대화 발전 중인 일본 자본가가 염가의 조선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농민이 생존의 터전을 잃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일본이나 중국으로의 이주였다.

초기 이민의 유형으로 볼 때 동북 조선인의 주류는 “自主移遷型”이었고, 재일 조선인은 생계 도모를 위한 “自主渡航型”이었다. 출신지로 볼 때 동북 지역 조선인은 조선 북부의 농민이었고, 渡日者는 남부의 농민이었다. 이주 후에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한 조선인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재일 조선인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노동자가 되었다. 이주 후 외부 환경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중국 동북 지역은 軍閥통치와 일본 세력의 영향 하에 있었고,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이었다. 경제적으로 동북 지역은 미발달한 농업경제 지역이었고, 일본은 근대공업경제지구로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조선인 사회는 상이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중국 동북 지역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선 이주민은 가족 전체가 쓰던 모든 집기를 가지고 이

주하였다. 이주 후에는 벼농사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노동의 집중과 수자원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라 同族·同郷끼리 모여 살며 농촌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와 반대로 재일 조선인 사회는 바다를 건너야 했으므로 초기에는 노동력을 팔 수 있는 건장한 남성만이 홀로 혹은 몇몇이 모여서 일본으로 향했다. 도일 후 자본주의 공장의 고용인이 되고 난 뒤에는 핵심 가족 구성원만을 데리고 왔다. 이러한 생산 생활 방식은 도시 주변 거주 지구에 재일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이 잡거하는 국면으로 인해 조선인의 일상생활·자녀 교육·일본 사회에의 적응 등이 모두 일본 사회의 제약을 받아 재일 조선인 사회의 유지와 민족문화 발전·민족 공동체 의식의 제고는 어려웠다.

■ 2010년 제2기

论韩国独立运动的主要团体·政党在广东的独立活动

광둥에서 한국 독립운동 주요 단체·정당의 독립 활동

魏志江 p. 87~92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 廣東 지역에서도 한국 독립운동의 파란만장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孫中山이 廣州에서 國民革命을 영도함에 따라 廣東 지역은 중국 근대 反帝國主義·反封建軍閥革命의 중심이 되었고, 또한 民主革命의 근원지가 되었다. 아울러 동아시아 피압박 민족이 민족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기지가 되었다. 한국 독립운동의 志士들이 廣州로 모여들어 중국 민주 대혁명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위대한 사업과 중국 혁명을 연계시켜야함을 자각하여 중국 민주 혁명의 격류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였다. 이로 인해 1920~193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단체·정당의 廣東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中韓연합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지니며, 이것이 廣東 지역 한국 독립운동의 기본 특징을 구성하였다. 中山大學과 黃埔軍官學校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운동단체·정당의 廣東에서의 활동은 한국 독립혁명을 위해 정치적·군사적 인재를 배양한 것 뿐만 아니라 廣東 지역을 한국 독립운동의 인재 양성 기지와 중국 華南 지역 독립활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비록 廣州의 한국 개개의 혁명정당·단체 간에 독립운동 이념과 정치 신조의 차이로 인하여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廣東 지역 독립운동 주요 정당 및 단체의 지도자는 마지막에는 민족 대연합을 실현하여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통일 독립운동 단체를 건립하여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韓國國民黨은 비교적 성숙한 黨憲과 독립운동의 투쟁 이념 및 건전한 組織作業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1930년대 말 廣東 지역 朝鮮民族革命黨 당원들이 “金九派” 한국국민당에 부분히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金元鳳을 수장으로 하는 조선민족혁명당과 “김구파” 한국국민당 당원들이 廣州에서 초보적인 연합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김구파” 한국국민당은 1930년대 말 기본적으로 廣東 지역의 한국 독립운동의 형세를 주도하였다.

■ 2010년 제3기

论古代朝鲜的“兩班”及其文化特点

고대 조선의 “양반” 및 그 문화 특징

潘暢和·何方 p. 14~19, 126

“양반” 및 그 문화는 고대 조선이 지닌 특유의 문화 현상이다. 양반의 기원은 고려 시기이지만, 양반 문화가 성숙하고 발전한 것은 조선왕조 시기에 이르러서였고, 그 전형적 형태는 在地兩班이었다. 16세기에 출현한 재지양반은 서울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永久世居地와 文化基地를 동시에 구성하였다. 그들은 朱子學의 가치 체계 중에서 상품경제를 멀리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신세계와 생활문화를 만들어 조선왕조의 안정적인 사회체제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 2010년 제3기

英美在朝鲜战争问题上分歧与合作的原因

한국전쟁 문제에서 영미 간 분기와 협력의 원인

石俊杰 p. 77~82, 127

한국전쟁에서 영국은 미국을 지지하여 파병·참전하였다. 그러나 양국은 전쟁 중 38선 돌파 문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제안 문제, 전쟁포로 문제 등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영국은 미국의 확전에 반대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통해 빠른 정치적 해결을 이루어 停戰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미 쌍방의 의견 분기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 빚어졌다. 우선 영국과 미국의 참전 목적이 상이하였다. 미국의 참전은 극동 지역에서 소련의 확장을 방어하고 자국의 패권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영국은 한국전쟁이 소련의 거짓 공세에 불과하며, 소련의 목적은 서방의 주의를 극동으로 돌린 후 방비가 허약해진 유럽 및 영국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의 “특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전하였다. 즉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영국은 한국전쟁이 확대되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 나토가 지닌 역량을 떠나면 극동 한반도에 집중시켜 소모시키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에서의 이익이 상이하였다. 한반도는 당시 소련과 미국이 직접 대항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만약 한반도 남부가 소련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손실을 가하는 셈이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일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이승만 정권을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영국의 전략적 중점은 유럽과 중동 및 동남아에 있었

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자본주의를 실행하여 서방으로 기울어지게 하면 소련 세력과 공산화를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영국의 참전은 공산주의에 대한 서방 “자유 세계”의 반격이라는 상징성을 지녔다.

영국과 미국의 對中國 인식과 이익 또한 차이를 지녔다. 1949년 영국과 미국은 중국의 새정권이 경제난으로 인해 서방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모스크바와는 독립된 경향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서방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보존하여 중국과 소련을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냉전의 전개에 따라 중국은 소련과의 외교에 집중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에서 쇠퇴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 트루먼 정권은 중국을 소련의 위성국이자 서방 자유세계의 적국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중국 대륙에 미국의 이익 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동구권 공산당과 성격이 다르며 독자적인 정책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적절히 지원하여 모스크바와 단절된 서방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면 소련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영국의 국가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외에 영국은 미국과 달리 홍콩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과 무역을 계속하여 중국에서 막대한 상업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2차 대전 후 피폐한 영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홍콩의 안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피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마주한 對中國政策 결정에 영향을 준 국내의 요소 역시 상이하였다. 미국은 당시 매카시즘의 광풍에 휩싸인 시기여서 대중국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52년 매카시즘 세력과 공화당 우익은 한국전쟁에서 전면적 승리를 트루먼 정부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선을 앞둔 트루먼 정권은 휴전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실용주의적 외교 전통을 지닌 노동당 정권이든 보수당 정권이든 이념보다는 실리 추구의 경향을 보였고, 이런 면에서 미국과 충돌하였다.

영미 간의 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자의 대외 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는 일치한 것이었고 소련은 공동의 적수였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은 여러 문제에서 영국과 협상하여 타협을 이끌어 내었다. 미국이 양보한 주요 원인은 비록 영국이 쇠약해졌다고는 하나 미국의 동맹 중 최강자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영미 간의 혈연적·문화적 유대로 인해 미국은 영국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맹우로 여겼다. 광범위한 국제 연계와 풍부한 외교 경험을 지닌 영국이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것이었다. 戰後의 영국은 안보·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지지에 의지하고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의 중점이자 핵심이었다. 그래서 영국은 영·중 관계보다 영·미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과의 타협은 영국에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 2010년 제4기

朝鮮朝燕行使臣笔下清朝中国形象的嬗变及其内因

조선조 연행 사신 필하의 청조 중국 인상의 변천과 그 내적 원인

徐东日 p. 6~10, 116

조선 연행 사신의 청조에 대한 인상의 感知와 묘사는 그들이 속한 조선 사회 혹은 조선 사대부 계층의 청조에 대한 總體的 想像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중국 사회에 대한 조선의 총체적 상상은 외적과의 전쟁 경험에서 촉발하였다. 즉 임진왜란으로 일본을 배척하고 明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와중에 청의 등장은 조선에 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문화를 타문화와 구별하는 민족의식이 증강되었고, 朱子學을 민족의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문화를 야만으로 폄하하였다. 아울러 조선 사대부는 조선을 小中華로 여기고 야만과 왕래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조선이 중국에 대하여 지닌 총체적 상상이었다. 이에 따라 연행사들도 청조 만주족을 야만스럽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전반 조선과 청의 조공 체제가 공고히 되고 청조가 날로 번영·발전하자 청을 적대시하는 의식도 점점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명 神宗의 救國之恩이 여전히 인지되어 있었고 그에 華夷觀이 더하여져 反淸尊明 의식이 존재하였다. 반면 일부 사대부는 청조의 정치·군사적 발전을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연행사들은 만주족을 정치·군사적 측면의 야만·난폭에서 사회문화적 의의를 지닌 醜陋·頑劣로 묘사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진입하며 청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지자 청조를 배우자는 학파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은 여전히 청을 夷狄으로 보고 거부하였다. 이 시기 조선 연행사는 청조 치하의 漢族 士大夫에 대해 복잡한 인식을 하였다. 청에 출사하는 한족 사대부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출사하지 않으면 草莽에 묻히고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출사하는 모습과 동시에 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동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아울러 한족 사대부의 화이 관념의 변화와 유가 정신의 쇠퇴를 가슴 아프게 여겼다.

그러나 경험을 한 개인의 신분이 다르거나 이국에 대한 관찰 시간과 관찰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그 연행 사신의 사행 결과물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청조 사회에 대한 관찰 시간이 길고 관찰 횟수가 많으며 관찰 수준이 뛰어난 작자의 손에서 나온 “使華錄”은 조선조 사회의 중국에 대한 총체적 상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청조 사회의 “실상”을 더욱 전면적이고도 철저하게 관찰할 수 있다.

■ 2010년 제4기

李鴻章对朝鮮的“以夷制夷”政策与『朝美条约』订立

이홍장의 조선에 대한 “이이제이” 정책과 『조미조약』의 체결

方民镛 p. 82~87, 117

李鴻章의 對朝鮮 政策은 시종 일본의 조선 침략이 부단히 증가되는 현실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반복 수정되어 실시되었다. 李鴻章의 일본에 대한 경각심은 일본의 류큐와 臺灣에 대한 침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의 류큐 침략은 李鴻章을 크게 놀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李鴻章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대적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는 일시적으로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동시에 李鴻章은 조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그는 조선을 淸의 京畿 지역과 東三省이라는 根源之地를 수호하는 藩屏으로 보고 나아가 조선 구호를 국방 전략과 근대 해군 건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삼았다.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李鴻章은 이의 시급한 타개를 위해 조선에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丁日昌이 조선을 열강들과 외교 조약을 맺게 하고 그들의 세력을 조선 내에 끌어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방법을 건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전통적인 “이이제이” 정책에 근대 서양의 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대조선 정책이었다.

李鴻章은 조선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청과 조선의 외교 형식이 크게 바뀌었다. 전통적으로 속국과의 交往을 전담하던 禮部와 함께 北洋大臣이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宗藩體制 하의 양국 교왕 형식의 연장인 동시에 근대 외교 체제와 처치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조선 정부의 기구와 직능 역시 변화하여 외교 사무의 事大司와 交隣司가 同文司로 통합되었다. 이는 굴욕적인 전통 방식의 외교 관계를 개변하겠다는 조선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러나 李鴻章은 조선과 미국 간의 회담을 주선하면서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명시하려 하였다. 李鴻章의 이러한 의지는 관철되어 조선이 조약 외 각서를 통해 미국에게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천명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李鴻章이 조선과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권유하고 주재한 목적은 열강 세력을 조선 내로 불러들여 상호간에 견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본 세력의 확장을 막아 조선에서 청조가 지닌 종주국으로서의 절대 권위와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 2010년 제1기

近年来关于高句丽中期都城问题研究评述

근년 이래 고구려 중기 도성 문제 연구에 관한 평가

祝立业 p. 37~39

문헌 기재에 의하면 고구려 정권은 일찍이 3개 지역에서 도성을 건립하였는데, 현재의 遼寧省 桓仁 지역과 吉林省 集安 지역, 북한 平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구려 역사 진행 과정에 의거하여 연구자들은 고구려 역사를 초·중·후기로 구분한다. 이들 지역에서 현존하는 城址와 문헌 중 나타난 城名 사이에는 비교 고증이 가능하여 줄곧 학계의 논쟁 초점이 되어 왔다. 현재 고구려 초기 국도(문헌 중 紇升骨城)는 일반적으로 桓仁의 五女山城으로 보거나 또한 산 아래의 下古城子古城과 함께 일종의 都城體系를 공동으로 구성하였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 후기 도성(문헌 중 平壤城, 長安城)은 일반적으로 현재 평양 지역 大城山城과 安鶴宮遺址가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중기 국도의 비정에 대해 현재 논쟁이 비교적 치열하지만 대부분은 集安 지역에 존재하였던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의 문헌에서의 명칭이 현재 정확히 어느 성지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쟁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集安 시내의 古城과 부근의 山城子山城이 고구려 중기의 국도라고 본다. 문헌 중 “尉那巖城”, “丸都城”이 山城子山城의 서로 다른 시기의 명칭이며 “平壤城”, “平壤東黃城”, “國內城”이 현재 集安 일대 압록강 右岸의 고성과 관련 있다고 본다. 孫進己는 山城子山城이 환도성이 아니라고 하며 集安 경내의 霸王朝山城이 문헌 중의 위나암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李殿福·李健才·耿鐵華는 고구려 중기 도성이 集安의 山城子山城과 고성이며 霸王朝山城이 결코 위나암성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후 각각의 학자들이 이에 대해 고증을 진행하며 논쟁하였다. 또한 문헌 중 기록된 도성 이외 일종의 離宮들에 대한 위치 비정에서도 논쟁이 전개되었다. 東川王 시기 건립된 平壤城 위치에 대해 張福有는 현재 雲峰水庫로 인해 수몰된 集安 良民古城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평양동황성의 위치를 현재 吉林省 臨江市 六道溝鎮 樺皮甸子로 비정하였다.

■ 2010년 제1기

高句麗獻魚却敵傳說-高句麗傳說考源之三-

고구려 현어각적 전설-고구려 전설 내원에 대한 세 번째 고찰-

姜維東 p. 40~43

『三國史記·高句麗大武神王本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존재한다. 즉 대무신왕 11년, 漢 遼東太守의 將兵이 공격해서 尉那巖城이 포위당하자 왕과 신료들이 회의를 열었다.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물고기를 선물하는 방법을 통해 성내에 물과 식량이 있음을 알려 한나라 군대가 퇴각하게 하였다. 이 기록은 그동안 학자들에게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로 대무신왕 11년은 後漢 光武帝 초기로 중원이 고구려를 공격할 여력이 없는 시기였다. 필자는 이미 고구려의 많은 전설이 중원 전설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밝혀 왔으며, 또한 이 전설이 나오기 전에 이미 內地에 비슷한 전설들이 존재하였음을 찾아내었다. 이 전설은 실제 내지 전설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 것이며 후세에 사람들에게 역사로 인정된 것이었다.

■ 2010년 제1기

唐代安東都護府行政級別與廢置時間問題探析

당대 안동도호부의 행정 등급과 폐치 시기 문제 탐구

辛時代 p. 46~49

唐 高宗 總章元年(668) 당은 출병하여 遼東과 한반도 북부에 할거하던 고구려 정권을 멸망시키고 같은 해에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립하고 薛仁貴를 安東都護로 처음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통치하였다. 본문은 안동도호부에 관련되어 그 등급과 폐치 시기를 탐구하였다.

1. 안동도호부의 행정 등급 문제

당이 변경 지역에 설치한 도호부에는 大都護府와 上都護府의 두 가지 구별이 있다. 대도호부는 “대도호가 1인으로 종2품이고, 副大都護가 2인으로 종3품이며, 副都護가 2인으로 정4품상이다.” 상도호부는 “도호가 1인으로 정3품이고, 부도호가 2인으로 종4품상이다.” 사료 중 안동도호부의 장관과 관련하여 기재된 것은 시종 “안동도호”라고 호칭하고 있다. “안동부대도호”의 칭호는 곧 顯王 李璣의 遙領과 밀접한 연계를 지니고 있으며 遙領 기간 중에 안동도호부의 등급이 대도호부인지 상도호부인지는 “부대도호”의 이해에 그 관건이 있다. 親王이 京師에 留任하는 상황에서 王府長史의 兼任을 통해 잠시委任된 부대도호는 諸蕃을 代理 統攝하였다. 요령 기간 중 부대도호의 임명이 처음 보이는 것은 開元 4년(716)이며 상설화된 것은 개원 8년(720) 이후의 상황이다. 이는 도호부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처사였다. 개원 15년(727) 영왕 이교가 안동도호가 됨에 따라 안동부대도호가 출현하였고 따라서 727년 이후 안동도호부가 대도호부로 승격하였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사료 상 727년 이교가 안동도호부를 요령할 때 안동도호로 호칭한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명확하다. 다시 말하면 727년 안동도호부는 여전히 상도호부인 것이다. 또한 여러 사료에서 시종 안동대도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대도호”라는 一職을 가지고 안동도호부가 대도호부라고 판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견해이다.

2. 안동도호부의 폐지

안동도호부의 폐지시기에 대한 주된 근거로는 사서에 기재된 “至德後廢(至德 연간 이후 폐지)”를 들 수 있다. 이에 지덕 3년(758)이나 上元 2년(761)을 폐지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안동도호부의 건립과 발전은 당대 동북 지역에서 실현된 통치와 당시의 특정한 역사 형세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본다. 고구려왕 高藏의 손자인 高震의 묘지명에 의하면 당에서 고진의 벼슬이 안동도호에 이르렀다. 그는 701년생으로 추정되며 773년에 사망하였다. 고진이 19세 이전인 719년에 안동도호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때부터 폐지되었다고 추정되는 761년까지 안동도호들은 그 이·취임 시기를 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진의 官歷 중에서 안동도호에 임명되었던 시기는 안동도호 侯希逸이 해임된 761년 이후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저명한 지리학자이자 지도제작자인 賈耽(703~805)은 德宗 시기 13년 동안 재상의 지위에 있었다. 『新唐書』는 가탐의 『道里記』를 인용하여 貞元 연간 요동 지역과 그 주변 정권을 기록하였다. 권43에서 각 지역까지의 거리 리수를 적었는데 환도성까지 포함되었다. 이로써 요동 지역이 정원 연간까지 당의 판도에 포함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탐은 안동도호부가 옛 漢 襄平城이라 언급하면서 이곳과 渤海의 長嶺府와 渤海王城까지의 거리 리수도 서술하였다. 안동도호부가 요동성에 위치한 시기는 676~677년으로 불과 1년인데 가탐이 이보다 더욱 긴 시간 동안 안동도호부의 治所였던 新城 등을 도호부 치소로 서술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서술이 676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676년에는 발해가 존재하지 않았고 발해가 上京 龍泉府로 천도한 것은 755년의 일이며 장령부는 더욱 늦은 시기에 출현하였다. 결국 한 양평성이 안동도호부로 지칭된 것은 가탐이 재상이 된 793~804년에 이르는 시기의 상황에서 빚어진 기록인 것이다. 이 시기는 덕종의 중흥기로 諸蕃을 평정하여 안동도호부를 옛 양평성에 복귀시킨 것이다. 가탐의 저작은 당시 매우 정밀하다는 평을 받았던 만큼 그 신뢰도가 높다. 이로써 안동도호부에 대한 “至德後廢”라는 기록은 德宗 이후에 이르러 폐지(至德宗後廢)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동도호부의 행정의 귀속에 대해서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平盧軍이 山東半島로 돌아온 후 원래 平盧節度使가 관할하던 지방행정 직능이 상실되었고 그 휘하의 盧龍軍, 平盧防禦, 本軍營田使 등과 안동도호부는 모두 幽州節度使 관할로 들어갔고 안동도호부는 요동 지역을 직접 관할하였다.

■ 2010년 제1기

辽代辽河流域渤海人的社会状况

요대 요하 유역 발해인의 사회 상황

张利锁·宫岩 p. 70~73

요 太祖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 요는 渤海族을 대구모로 천사하였고 요하 유역은 발해족의 주요 遷徙地였다. 발해족은 거란족에 비해 선진적인 생산 기술과 생활 방식을 요하 유역에 전파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족 정권의 통치 하에서 변화하고 또한 漢化하는 추세를 보였다.

1. 요대 요하 유역 발해인의 생산 상황

사료와 유물로 볼 때 발해국의 농업 생산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한 신료가 요 太宗에게 梁水 지역이 토지가 비옥하고 鐵鹽의 이익이 있는 곳이니 발해인을 옮겨 安居樂業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발해인은 이곳으로 천사되어 漢族 등과 雜居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생산력이 낮고 인구가 적은 요동 지역의 발전에 발해인이 기여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요의 역대 통치자는 요동 지역의 농업 생산을 중시하였다. 이에 농업 중시 정책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요동 지역의 농업 발전을 추동하였다. 聖宗 시기 요의 財賦를 대부분 담당하던 南京 지역이 재해를 당하자 요동 지역의 곡식을 옮겨 구제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할 만큼 요동 지역 농업이 발달하였다. 발해인의 주요 거주지였던 이곳에서 발해인이 주로 심었던 곡물은 粟·高粱·麥 등이었고 경제 작물로 麻도 재배하였다.

발해인은 猪羊馬牛 목축을 일찍부터 중시하여 요하 유역에서도 목축업을 진행하였다. 가축은 식용 이외에 무역에도 이용되었다. 또 발해인은 養馬도 즐겨서 요에 귀속된 후에도 중앙에 일정 수량의 말을 공급하였다.

발해국의 수공업 역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서 顯州의 布, 沃州의 錦, 龍州의 紬, 位城의 鐵 등이 생산품으로서 유명하였다. 요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킬 때 工匠의 약탈을 중시한 바가 있었다. 또한 요동의 발해인의 冶鐵과 “銀冶”에도 다수 종사하였다.

2. 요대 요하 유역 발해인의 습속

발해국 멸망 이후에도 발해인은 하나의 族群으로 요 一代에 계속 존재하였다. 다만 거란의 장기간 통치와 기타 민족과의 잡거로 인하여 특히 요하 유역으로 천사한 발해인의 생활 습속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본래 습속과 타민족 습속이 교류·공존하는 시대적 특성이 출현하였다. 1007년 요 성종이 中都로 천도한 해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내지인 上京 지역으로 천사한 발해인이 비교적 거란화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요하 유역으로 천사한 발해인은 본래 습속을 지니고 있었다. 분기점 이후 거란

족의 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해인 역시 한화가 확연해졌다.

혼인 습속에서 발해인은 일부일처제로 남녀가 평등하였다. 그러나 거란족과 통혼이 발생하면서 발해 여자가 거란인의 측실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거란 공주가 발해 世家大族에 출가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점점 양자간 혼인이 보편화되어가면서 거란과 혼인 형식이 비슷하여졌다. 衣服 方面에서 요대 발해인이 거란의 복식을 착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居住 方面에서도 발해인이 거란과 奚의 영향을 받아 집을 짓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禮樂制度에서는 발해인 본래 예악 제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발해인의 馬球 풍습은 전투적 풍모를 지닌 것이기에 거란의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종교 신앙 方面에서 발해인은 불교 신앙을 고수하였다. 요 후기가 되면 발해인의 한화 정도가 깊어져 다수의 시인과 문학가를 배출하였다.

■ 2010년 제1기

4~7世紀大同江·靛寧江流域封土石室墓調査与研究成果綜述

4~7세기 대동강·재령강 유역 봉토석실묘 조사와 연구 성과 종합

趙俊杰 p. 26~31

4~7세기 대동강·재령강 유역 봉토석실묘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크게 일제 강점기와 북한 시기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일제 강점기는 明治 年間에서 1916년까지의 전기와 1917~1945년까지의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 조사와 연구가 關野貞에 의해 비교적 대규모의 분묘와 벽화에 대해 이루어 졌다면 후기는 조선총독부 古跡調査委員會가 계획을 입안하여 전반적인 발굴과 조사가 이뤄졌다. 북한 시기에서는 주로 朝鮮科學院 고고학·민속학연구소가 발굴과 연구를 담당하였다. 북한·일본·한국 학계의 연구는 壁畫墓 위주로 이뤄졌고, 아울러 개별 연구와 종합 연구가 진행되어 年代와 墓主·壁畫內容·墨書題記·遺物·源流 등의 주제를 다루어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선 427년 고구려 평양 천도 이후 시기에 국한되어 4세기 초에서 5세기 초의 사회 면모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연구 대상이 벽화묘에 한정되어 벽화가 없는 분묘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셋째, 분묘의 연대 책정에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아 보충 수정의 여지가 있다. 넷째, 봉토석실묘의 문화 요소와 묘주가 소속된 민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 2010년 제2기

试论与夫余相关的古史中的濊族与貊族

부여와 관련 있는 고대사 중 예족과 맥족에 대한 시론

李东·戴春·李喜德 p. 42~44

역사 연구에 의하면 “부여 일족은 濊貉과 유관”하며 이 설은 대부분에게 인정받고 있다. “濊貉”(혹은 濊貊)은 일찍이 商周 시기에 관련 기록이 있다. 최초에는 “濊”와 “貊”이 단독으로 출현하였으나 이들은 서로 다른 族群임을 지적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각각이 여러 많은 부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 “濊”族

“濊”는 “穢”와 통하며 그 명칭은 『逸周書』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예는 稷愼(肅愼)과 良夷(현 한반도 서북부, 고대의 樂浪夷)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 발견과 사료 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예족의 활동 중심은 松花江 상중류 유역으로 보인다. 西團山 文化는 현재 사학계에서 松花江 유역에서의 전형적인 濊人 유적이라는 일치된 인정을 받고 있다. 圖們江 유역에서 발견된 유적은 團結 文化로 불리고 있다. 이 문화는 처음에 일부 학자들이 北沃沮의 것으로 귀속하였으나 후에 전체 沃沮人의 문화로 보정되었다. 단결 문화와 서단산 문화의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일부 학자는 이들을 예문화로 귀속하였다. 한반도에서도 일찍이 “夫租穢君之印”이 발견되었는데 “夫租”는 즉 “沃沮”이며 이 역시 예인으로 후대에서 칭한 東濊이며 후대에 “濊貊”으로 통칭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 “貊”族

“貊”은 “貉”이라고도 칭한다. 그 명칭은 『尙書』에 처음 보인다. 맥은 북방 지역의 민족을 널리 지칭하는 말이다. 渾江·輝發河·鴨綠江 유역에는 일종의 문화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 문화에는 아직 정식 이름이 없으나 유지의 문화적 면모로 보건대 동일한 문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문화를 “맥”족의 문화로 여긴다. 지리적 위치상 이 문화는 “예”족의 남쪽에 위치하여 지역이 서로 가깝고 문화습속 역시 비슷하다. 先秦 시기 양 민족은 서로 접근하여 융합하였다. 漢代부터 한의 정치 세력이 동북 지역으로 확장하여 공고해집에 따라 내지의 선진 문명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예”·“맥”의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일련의 전쟁과 민족 천사의 과정 역시 “예맥”의 융합을 촉진하였다.

■ 2010년 제2기

集安高句麗壁畫的服飾審美剖析

집안 고구려 벽화의 복식에 대한 심미적 분석

崔龍國 p. 45~47

집안 지역의 고구려 벽화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동북아의 예술 보고’라고 찬미되고 있다. 벽화에는 당시의 사냥, 열병, 접대, 가무 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민족의 복식 예술의 미학적 특징 또한 반영되어 있다.

① 集安高句麗壁畫의 복식 문화 - 복식 문화는 역사적 발전 상황과 풍속·종교 등 인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민족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 고구려 복식의 사회문화적 배경 : 고구려는 주변 민족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진 개방적인 민족이었고, 이와 같은 특성은 동방의 3대 종교인 불교·도교·유교를 모두 받아들여 고유한 신앙 체계를 만들게 했다. 이 중 불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도교와 유교 또한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벽화와 사료 중의 복식 형태 : 중국의 사서 중 『周書』·『北史』·『新唐書』 등은 고구려인의 복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문헌 기록과 함께 집안 지역의 고구려 벽화에는 실제적인 복식이 그려져 있다. 이 중 대표성을 갖는 벽화로는 舞踊墓의 ‘狩獵圖’에 武人들의 복식 모습이 담겨져 있다. 또 ‘舞踊圖’에는 고구려 婦女의 가무 복장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외에 角觥墓의 ‘씨름도’에 그려져 있는 전통적인 체육·오락 활동 모습을 통해 당시 복장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한편, 長川1號墓의 ‘귀족장원도’는 그 편폭의 방대함으로 고구려인의 생활 복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집안 고구려 벽화 중의 服飾美學의 특징 - 집안 고구려 벽화 중에 표현된 복식 형태는 感受性과 創造性이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나타내며 당시의 미적 감각과 생활방식에 부합되는 복장 양식이었다. 고구려인의 복식은 그 구조와 문양 및 제작 공예 등 분야에서 독특하고 뛰어난 미적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

㉠ 복식 양식의 변화와 복식에 영향을 주는 형상미의 형성 : 고구려인의 복장은 남녀를 불문하고 유목 민족의 생활과 노동에 적합한 북방 계통의 복식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일정 부분에서는 중원의 ‘袍’ 형태의 영향도 받았으며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상의가 꼭 끼고 하의가 여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복장 형태로 볼 때 上衣은 빈부·남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의의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확인된다. 고구려의 복식 양식은 여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겪는 동안 시기적으로 다른 심미 정서를 반영했고 그 자체로 소박하고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주었다.

㉡ 복식 문양의 설계에 반영된 소박한 자연미 : 고구려인의 복식 재료에 가해진 장식들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방이란 고구려인의 고유 신앙과 유·불·도교

의 관념에 나타난 우주 만물, 즉 주변 환경에 대한 모방이다. 각저묘의 ‘家居宴飲圖’의 여인들 복장에 새겨진 문양들은 적극적인 ‘自然模倣’의 결과이고, 한편 이는 당시 직물에 대한 문양 가공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공예 제작의 발전이 복식의 技術美를 확립했다 : 가위의 제작과 사용은 고구려 복식의 제작 기술이 향상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위의 보편적 사용은 의복을 재단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 금속으로 제작된 바늘(침)은 고구려 시기의 필수적인 봉제 공구가 되었고 현존 출토물에서도 종종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철제로 된 다리미와 같은 기구도 있었다.

요약하면 집안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복식 예술은 고구려의 역사·사상·문화 및 지역성이 반영되어 감수성과 창조성이 하나로 통일된 審美現像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한랭한 지역에 거주하는 북방 민족의 복식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점차 자신의 미적 특징에 걸맞는 복식 형태를 완성해 ‘天日合一’의 친화력과 미적 의미를 드러냈다. 이는 함축적이고 우아하며 자연적이라는 미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 미적 특징의 형성은 실용성과 美觀性·기술성·과학성이 서로 결합된 ‘美’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010년 제2기

高句麗與南北朝朝貢關係變化研究

고구려와 남북조 조공 관계 변화 연구

劉文健 p. 45~47

남북조 시기 고구려의 조공 활동은 매우 빈번하였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남북조 쌍방의 실력 대비 상황이 고구려 조공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원인이었다. 北朝와 고구려는 영토 면에서 인접해 있어서 북조의 고구려에 대한 태도 변화가 곧 고구려 조공 변화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었다. 이외에 고구려 스스로가 처한 “小環境”-고구려와 百濟·新羅의 관계 변화 역시 고구려와 남북조 조공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남조와 북조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변화하였다. 남조는 전략상 고구려와 연합하여 북조를 견제하기를 바랐고, 북조는 중원으로 남하함에 있어 後顧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고구려와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고구려의 남북조 조공 횟수 변화 연구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3개의 조공 관계 발전 단계를 설정하였다.

413~475년까지가 조공 관계 발전의 첫 단계로 “均等” 조공 단계로 명명하였다. 이 시기 중원에는 정권이 분립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는 대외 확장을 단행하여 “海東大國”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는 남조 宋에 21차례의 조공을 행하고, 北魏에는 20차례의 조공을 행하였다. 그런데 440~461년 사이에는 북위에 조공한 기록이 없으며 그 이전에는 겨우 4번의 조공을 하여서 전체 조

공 횡수는 비록 균등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 413~461년 동안 고구려가 북위에 단 4차례의 조공을 행하였다는 점은 양측 사이의 긴장 상태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62~475년까지 고구려가 북위에 16번의 조공을 한 것은 북위가 북방을 평정하고 남조와의 전쟁에서 절대 우위를 보인 사실의 반영이다. 이 시기 북위는 고구려에 단 1차례의 책봉만을 실시하였다.

고구려는 남조에 21차례 조공하였다. 이 단계는 고구려가 남조에 대해 가장 많은 조공을 한 시기이며 그 조공에는 명백한 군사원조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 남조 송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강성한 시기였다. 남조 송의 입장에서도 북위에 대해 견제가 되는 고구려의 지지가 필요하였다. 東晉 安帝 시기의 책봉까지 포함하여 송은 고구려에 4번의 책봉을 실시하였다. 이들 冊封號가 모두 군사적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송은 고구려에게 군사적으로 남북에서 상호 호응하여 북위를 견제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76~519년까지는 “一方傾注” 조공 단계이다. 고구려는 長壽王이 평양으로 천도하며 대외 확장의 창끝을 한반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475년 이후에는 백제와 신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고구려와 주변 정권과의 관계가 변화하자 고구려와 남북조와의 관계도 변화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의 조공 관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공 횡수의 변화로 북위에 대한 조공이 61차례인 데 비해 남조에는 겨우 6회 조공을 하였다는 점이다. 고구려는 자신이 처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위의 “授權”을 통해 동북 여러 민족 중에서의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북위 孝文帝 시기부터 고구려와 북위의 정치·예속 관계는 공고하게 되었다. 고구려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북위의 책봉이 불가결한 과정이 되었다. 이런 예속 관계를 통해 북위는 고구려를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는 고구려의 목적 중 하나였다. 양자의 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져서 북위 황제가 고구려왕을 위해 舉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고 고구려의 사신은 남조의 사신 다음가는 대우를 받았다. 또 북위는 고구려가 남조에 조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 시기 남조는 점점 쇠락하여 고구려의 조공을 겨우 6차례 받았으며, 고구려왕에게 5차례의 책봉을 하였다. 이 책봉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북위 후방에 불안 요소를 남겨 둠으로써 북위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외에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와 남조 齊와의 관계에서 “朝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가 중원 정통 왕조로 북조를 선택했다는 점을 암시한다.

520~589년까지는 “起伏變化” 조공 단계이다. 이 시기 주변 형세의 변화는 고구려에게 갈수록 압력이 되었다. 우선 북위가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다. 동위는 주변 민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고 고구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백제가 강해지고 突厥이 흥기하여 고구려는 앞뒤로 적을 맞이한 형국이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북조에 31차례, 남조에 15차례 조공을 하였다. 그중 534~551년까지 고구려는 줄곧 북조에 매년 1차례의 조공을 하였다. 520~535년까지 고구려의 남조에 대한 조공이 “小高潮”를 이루었고 그 횡수는 8차례여서 1년에 두 번 한 사례도 있었다. 북조에 대한 조공은 각국의

상황과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횡수로 이루어졌다. 남조에 대한 조공도 남조 梁의 중흥 국면에서는 늘어났으나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 시기 남조에서 고구려의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군사 전략상 원인을 제외하고 남북조는 공히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여기고 상대를 오랑캐로 비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 왕조로서의 중요한 표지인 조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양자는 책봉·賞賜 등으로 고구려를 조종하였다. 고구려는 조공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제고하고 공고히 하려 하였다. 이외에 조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조 양자 간의 국력 대비가 고구려 조공의 주요 고려 요인이었고 지리적 접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 2010년 제2기

辽代女真与高丽朝贡关系考论

요대 여진과 고려 조공 관계 고찰

赵永春·历永平 p. 55~60

거란은 건국 이전 이미 여진과 종속 관계를 건립하였다. 이후 비록 여진의 반란이 있었으나 聖宗이 고려를 공격하기 전까지 이를 모두 해결하였다. 이후 거란과 여진 사이에는 줄곧 직접적인 군현 통치와 기미 통치적인 조공 관계가 있었다. 여진은 거란과 조공 관계를 건립한 동시에 고려와의 왕래도 매우 밀접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요대 여진과 고려의 왕래가 “조공”관계임을 인정하며, 비록 이 “조공”관계가 정치적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으나 은연중에 정치적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대의 조공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첫째, 朝貢國(혹은 部族)은 受貢國의 책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等級性과 不平等性을 갖는다. 둘째, 조공국의 貢獻에는 수공국의 回賜가 따른다. 셋째, 수공국과 조공국의 交往禮儀는 엄격한 君臣禮儀 혹은 以小事大禮儀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조공 특징을 가지고 요대 여진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안에 정치적 종속성을 지닌 조공 관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太祖 14년(931) 조서에서 “北蕃의 사람은 인면수심이고 (중략) 지금 비록 복종하여 섬긴다[服事]고 하나 (후략)”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변이 여진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태조 14년 이전 고려와 여진이 접촉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여진과 고려가 “服事” 성격의 조공 관계를 고려 태조 14년 이전에 확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려사』에서 여진과 고려의 왕래 기록 중 최초의 것은 定宗 3년(948) 여진 大匡 蘇無蓋 등이 고려에 獻馬한 것이다. 이때 조공 관계가 건립된 것 같으나 실상 이후로 顯宗 2년(1011)까지 다시 여진에서 공헌한 기사가 없다. 또한 이 시기 고려의 여진에 대한 인상은 좋지 못하였고 “逐女真” 정책을 시행하여 여진과 정상적인 조공 관계를 건립할 수 없었다.

대광이란 관작도 아마 후대에 소무개에게 내려진 것을 도리어 이때 사실을 기록하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진과 고려가 정치적 종속성을 지닌 조공 관계를 건립한 것은 현종이 즉위한 해인 1010년이다. 이때 고려는 “축여진” 정책을 변경하여 여진을 조종하고 회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진과 고려의 왕래는 나날이 번영하였고 매년 여진은 고려에 공헌을 하였다. 여진이 고려에 빈번히 공헌하자 고려 역시 여진에게 관작을 내렸다. 이로써 여진과 고려 사이에는 우리가 말하는 책봉 관계가 형성되었다. 고려가 여진에게 내린 관작은 주로 형식상의 封授로 실제 관할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가 여진에게 내린 관작은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신하의 職이었다. 이는 고려가 여진을 대등한 국가로 보지 않은 것이며, 여진 또한 고려의 신하로서 불평등한 정치적 대우를 수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臣屬이 비록 형식적인 것이라도 조공의 일반 특징에 부합하며, 여진은 고려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金이 건국되자 변화가 발생하였다. 여진은 臣禮에 따라 고려와 왕래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려에게 신례에 따라 금과 왕래하기를 요구하였다.

여진과 고려의 조공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요대 여진이 고려에 조공하면서 요에 게도 조공하는 一僕二主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요에 귀부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고려에 의탁하는 것은 그다음이었다. 둘째, 여진의 고려 조공은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정치적 성격은 비교적 약하였다. 셋째, 여진의 고려 조공은 대개 여진이 주동한 것이고 또한 여진이 임의로 행한 일이었다. 넷째, 여진이 고려에 조공한 것은 쌍방의 경제·문화 교류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진의 경제·문화 발전에 평화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2010년 제2기

浅谈唐罗战争中的“买肖城之战”

나당전쟁 중의 “매소성 전투” 약론

孙炜冉 p. 53~54

나당전쟁 중 매소성 전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신당서』의 기록이 서로 달라 후일 많은 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되었다. 필자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여긴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의 장군 李謹行이 이끄는 20만 군대를 격파하고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신당서』는 이근행이 신라군을 세 번 격파하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20만 명의 군대는 과장이 심한 것이다. 다른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이근행의 군대는 4만 명 전후였을 것이다. 또한 이근행이 대패하였다면 매소성 전투 이후인 676년에 吐蕃을 상대하는 군사 지휘관으로 전임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토번에게 대패한 大非川 전투도 『신당서』에 가감

없이 기록된 점으로 볼 때 당군의 패배를 신뢰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675년 劉仁軌가 七重城에서 신라군을 격파한 후 金法敏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전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해 당에 사죄하였다. 당 조정에서 이를 상의하여 전방의 당군과 신라에 전달하였지만, 그전에 당군과 신라군이 3차례의 전투를 벌여 당군이 승리하였다.

■ 2010년 제3기

高句丽千里长城调查要报

고구려 천리장성 조사 간략 보고

张福有·孙仁杰·迟勇 p. 3~10, 13~26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27번째 왕 榮留王, 즉 建武王이 唐의 정벌을 막기 위해 당 태종 貞觀 5년(631)에서 20년(646) 사이, 다시 말해 고구려의 榮留王 14년에서 寶藏王 5년 사이의 총 16년 동안 동북으로는 부여성에서 서남으로는 해안가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천리장성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천리장성에 대한 현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천리장성과 고구려 산성과의 관계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했으며, 이는 고구려 산성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본문은 『高句麗千里長城』이라는 책의 요약본에 해당된다. 이번에 수행된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조사는 천리장성 전 구역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① 고구려 천리장성은 역사 문헌에 그 축조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신당서』의 「高麗傳」 등 중국 사료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천리장성 축조 기사가 확인된다. 이러한 기록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는 2006년 3월 四平市 문물관리국에 위탁해 길림성 지역 내 고구려 천리장성의 상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2008~2009년 사이에는 길림·요녕 두 省의 전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고구려 천리장성의 現 상태를 확인했다.

② 길림성 경내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지의 현재 상태 - 천리장성의 조사는 북에서 남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길림시 龍潭山山城에서 시작되었다. 德惠·農安·公主嶺·梨水 등지의 ‘老邊’, ‘邊崗’, ‘老邊崗’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명과 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천리장성의 존재를 확인했다. 비록 유적지의 상당수가 훼손되어 있지만 천리장성의 방향과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했다.

(1) 德惠市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총 길이 63km에 해당

① 松花江鎮 松花江村 老邊崗 성벽 유적지를 시작점으로 조사

② 邢大橋村 老邊崗屯 유적지 조사

- ㉔ 邊崗鄉 西邊崗村, 東邊崗村 유적지 조사
- ㉕ 春林堂屯과 서남쪽으로 老邊崗 담장을 따라 지나는 村屯 유적지 조사
- ㉖ 德惠市 同太鄉에서 農安縣 鮑家小嬌村에 이르는 유적지 조사

(2) 農安縣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총 길이 75km에 해당

- ㉗ 前崗鄉 三合村의 老邊崗屯 유적지 조사
- ㉘ 華家鎮 團林子村 西邊崗屯 유적지 조사
- ㉙ 龍王鄉 邊崗屯과 기타 유적지 조사
- ㉚ 三崗鄉 安樂村 李家屯 유적지 조사

(3) 公主嶺市 지역 내의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총 길이 52km에 해당

- ㉛ 雙城堡鎮 大牛圈屯과 西邊崗屯 등의 유적지 조사
- ㉜ 八道溝村, 邊崗屯, 黃花村 등의 유적지 조사
- ㉝ 懷德鎮 陳家村 邊崗屯 유적지 조사

(4) 梨樹縣, 四平市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총 길이 68km에 해당

- ㉞ 小城子鎮 土龍村 二里界屯과 船口村 北崗屯 등의 유적지 조사
- ㉟ 小城子鎮 柳家屯村 金邊崗屯 유적지 조사
- ㊱ 萬發鎮 幸福村 靈神廟와 경로 지역의 유적지 조사
- ㊲ 梨樹鎮 北老壕村 유적지 조사
- ㊳ 南老壕村 유적지 조사
- ㊴ 四平市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고구려 천리장성의 길림성 내 구간은 총 길이 258km에 달함

③ 요녕성 지역 내 고구려 천리장성 유적지의 현황

(1) 昌圖縣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총 길이 35km에 해당

- ㊵ 上·中·下夾槽 유적지 조사
- ㊶ 毛家店鎮 泉眼村 壕里屯 유적지 조사
- ㊷ 下二臺鄉 幸福村 西邊屯 유적지 조사
- ㊸ 雙廟子鎮 樣子村 吳樹壕屯 유적지 조사
- ㊹ 泉頭鎮 泉頭村 塔東屯·泉頭鎮 紅山村·太平鄉 二帶子村 유적지 조사

(2) 明 長城과 老邊壕의 결합과 관련 지명에 대한 조사

- ㊺ 明 長城과 老邊壕가 합쳐진 후의 방향을 조사
- ㊻ 老邊壕, 즉 老邊崗 성벽이 西老邊村에서 遼河를 지나는데 대해 조사

(3) 營口市 지역 내 老邊崗 성벽 유적지 조사

- ㊼ 大石橋市 旗口鎮과 高坎鎮 유적지 조사
- ㊽ 老邊區 柳樹鎮 小邊村과 後崗子村 유적지 조사
- ㊾ 老邊區 柳樹鎮 前崗子 유적지 조사

길림성과 요녕성 지역의 천리장성 총 길이를 합하면 587km에 달하고 이것은 1,174리에 해당된다. 唐의 1리는 지금에 비해 다소 짧았으니 이를 천리장성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④ 종합 인식

- (1) '邊'이라는 것은 특정 물체의 주변을 말하는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된 '邊'은 모두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한 속칭이다.
- (2) 邊崗의 건축 구조
- (3) 邊崗을 고구려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음
 - ㉠ 문헌 기록이 있음
 - ㉡ 문물 유적이 확인됨
 - ㉢ 문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형 지세가 확인됨
- (4) 천리장성의 출발점과 축조 방향
- (5) 천리장성의 성격
- (6) 천리장성의 축조선 위에 조성된 山城
- (7) 천리장성과 明 長城의 차이
- (8) 천리장성과 柳條邊의 차이
- (9) 천리장성의 역사적 작용
- (10) 천리장성의 보호가 갖는 중요한 의의
 - ㉣ 실제 유적지의 존재를 통해 문헌의 기록을 補證할 수 있음
 - ㉤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음
 - ㉥ 문물 유적을 이용해 역사의 진면목을 증명할 수 있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 제3기

蛟河七道河村渤海遗址属性辨析

교하 칠도하촌 발해 유적지의 성격 분석

彭善国 p. 27~28

七道河村遗址는 吉林省 蛟河市 天崗鎮 七道河村 북쪽에 위치하며 松花江 지류인 牯牛河에 인접해 있다. 유적지의 면적은 약 500m²로 1985년 조사, 1990년 발굴되었다. 유적지는 천장과 지면의 鋪石,

주춧돌과 계단석, 경사면 보호석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천장은 유적지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정 방향으로 동서 3.2m, 남북 2.2m이다. 천장 내부에는 장방형의 坑穴이 있으며, 길이는 1.6m, 폭은 1m, 깊이는 0.6m이다. 갱혈의 동·서·북 3면은 거칠게 다듬은 화강암 1~2개 층이 깔려 있다. 천장부의 지표면은 풍화된 화강암으로 자연 지표에 약간의 인공을 가미하여 만들었다. 천장 내부에서는 어떤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천장 주위의 벽은 가공하지 않은 화강암으로 사면을 덮었다. 남면에만 0.6m의 좁은 입구가 있어 천장 내부의 갱혈과 이어진다. 외벽의 네 모서리 아래에는 주춧돌이 있으며, 포석 외측에도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12개의 주춧돌이 있다. 계단석은 유적지 남면의 중축선에 위치하였으며 비교적 편평한 화강암석과 조약돌로 이루어져 있다.

칠도하촌 유적지에서 출토된 주요 문물은 기와와 와당이며, 이외에도 도기, 한문 비석 등이 발견되었는데 비석의 글자는 마모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유적지에서는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蓮花紋 와당의 경우 발해 와당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다. 출토된 도기 역시 전형적인 발해의 것이다.

유적지의 성격은 간략한 발굴 보고서에서는 契丹道상의 역참이거나 일종의 종교적 성격을 가진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건축의 주요 부분인 천장의 면적은 불과 7m²가량이며 천장 내에는 장방형의 갱혈이 있다. 이러한 건축은 그 구조로 보아 교통로상의 역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上京·東京 등에서 발견된 발해의 종교 시설은 그 평면 구조가 각기 다르지만 중심부에 갱혈을 조성한 건축법은 없다. 이 건물은 계단식 석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심의 갱혈은 바로 묘실이며, 소위 천장의 通道는 묘문이며 출토된 비석은 묘비일 가능성이 있다.

■ 2010년 제4기

夫余文化遺存的發現·基本面貌及命名之我見

부여 문화 유적의 발견과 기본 면모 및 명명에 대한 견해

董學增 p. 13~19

1. 부여 문화의 발견 과정

부여 문화를 최초로 발견한 李文信은 1930년대에 吉林의 東團山과 西團山에서 고대 유적을 발견하고, 출토 유물이 漢의 문물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임을 주장하였다. 1960년대에 張忠培는 길림성 교외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각기 다른 종류의 유적 3곳을 발견하였고 ‘문화1’은 신석기 시대, ‘문화2’는 청동기 시대(뒤에 정식으로 西團山文化로 명명), ‘문화3’은 초기 철기 문화로 구분하였다. 이후 발견된 대량의 先夫餘 문화와 부여 문화가 바로 ‘문화3’에 속한다. 동단산 유적의 문화층에 대한 진일보한 조사를 통해 1973년 발견된 유적에서 대량의 부여 문화 문물과 한대 문

화 문물이 발견되었다.

2. 부여 문화 유적의 기본 면모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吉林省에서는 약간의 유적과 묘지를 발굴하여 부여 문화의 특징과 전체적인 면모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이해가 시작되었다.

(1) 老河深二期 유적

1) 陶器 : 기물의 표면은 모두 무채색이며 일부는 윤을 냈다. 도기들은 원형의 주둥이가 바깥으로 굽어졌으며 어깨가 넓고 배는 북통 모양이며 고리 모양의 귀가 쌍으로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陶罐과 陶豆는 死者의 머리 위쪽의 관 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매장 시의 제사용품이며, 杯·盅·碗 등은 관 내의 인골 머리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한 明器로 추정된다.

2) 銅器 : 銅腹·銅鏡·銅帶構·淘金銅杯·銅腕飾·銅泡飾·淘金銅鈴 등으로 銅腕飾·銅泡飾·淘金銅鈴이 특징적이다.

3) 鐵器 : 鐵鈴·鐵刀·鐵錐·鐵劍·鐵矛·鐵鏟·鐵盔冑·鐵鎧甲 등이 발굴되었다. 이 중 鐵劍·鐵刀·鐵鏟 등이 특징적이다.

4) 金銀瑪瑙飾物 : 금은 귀고리가 많으며 도금한 銅絲와 산사 열매 모양의 장식 등이 있다. 이 외에 구슬 모양과 관 모양의 마노 장식이 있다.

5) 老河深二期의 묘장 구조와 장례 습속

129기의 묘가 발견되어 이 중 79개가 비교적 안정하게 발굴되었다. 관은 목재로 4~6cm 두께이다. 일반적으로 지표에서 0.5m 정도에 墓口가 있으며 豎穴式이다.

이를 종합하면, 老河深二期 문화는 구체적인 지역성과 민족성을 가진 문화 유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2) 帽兒山墓郡文化 유적

吉林省 豐滿區의 帽兒山에서 발견된 160여 기의 묘군에서는 1,000여 건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요 부장품은 관곽과 무기 및 장식품이다. 帽兒山 유적은 다량의 묘와 유물이 안정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여 문화의 기본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대의 이르고 늦음과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부여 문화가 내포한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3. 부여 문화 유적의 명명 문제

그러나 현재 老河深二期 유적이 부여 문화 유적인지, 또는 老河深 墓地가 부여 문화 유적인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식 발굴지와 특히 유적이 많았던 지점에 따라 이를 ‘老河深二期文化’라 하였다. 이 이름은 아직 학계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

둘째, 최초 발견자가 보고한 발견지에 따르고, 또한 부여 왕성의 근거지에 따르면 곧 ‘東團山文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제4기

集安麻線上活龍山西墓群調查與研究

集安市 麻線鄉 上活龍山 西墓群의 조사와 연구

尚武 p. 2~10, 32~35

2010년 5월 고구려 시기의 古郡墓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묘군은 集安市 서남쪽 12,000m 지점인 麻線鄉의 上活龍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의 산봉우리 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山西墓群’이라고 명명하였다. 산 서쪽의 북측에는 동서 양 방향에 위치한 자연 협곡이 있는데, 묘군은 이 두 개의 협곡과 산비탈에 분포하고 있다. 동쪽 협곡에 위치한 묘장을 ‘東區’, 서쪽에 위치한 것을 ‘西區’라고 부른다. 조사 공정은 묘군의 西區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순서에 의거하여 묘의 번호를 배열하였다.

총 23개의 묘장 중 ‘壇積石石壙墓’가 20개이며, 그중 6개는 ‘串墓’이다. 또한 ‘階壇積石石壙墓’가 2개, ‘階壇積石壙室墓’가 1개 존재한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西區墓群 중 1호묘는 산비탈의 中部에 위치하고 있으며, 壇積石石壙串墓의 형태이다. 남북으로 길이가 14m, 동서로 5m인데, 묘의 上部에는 長方形의 움푹 패인 옹덩이가 존재한다. 2호묘는 1호묘로부터 대략 남쪽으로 3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이고, 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6m이다. 3호묘는 2호묘로부터 남쪽으로 50m 떨어져 있으며, 壇積石石壙墓이고 대략 方形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변의 길이가 7m이고 묘장의 높이는 3m인데, 묘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편이다. 4호묘는 3호묘에서 동쪽으로 약 93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壇積石石壙墓이며 方形의 형태이고 변의 길이는 5m, 높이는 1m이다. 5호묘는 4호묘로부터 남쪽으로 3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壇積石石壙墓로 길이는 동서 6m, 남북 4m이다. 基壇石의 대부분은 파괴되었다.

6호묘는 5호묘의 북쪽 약 6m 지점에 위치하는데, 壇積石石壙墓이며 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5m, 현재 높이는 1.2m이고, 묘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다. 7호묘는 6호묘로부터 남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階壇積石石壙墓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편이다. 方形이며 동서 길이는 6m인데, 경작 활동으로 파괴되어 현재 남북의 길이는 4m, 높이는 1m이다. 8호묘는 7호묘의 남쪽 약 30m 지점에 위치하며 階壇積石石壙墓이다. 대략 方形의 모습이고, 남북의 길이는 15m, 동서 너비는 13m이며, 현재 높이는 2.5m이다. 또한 8호묘는 墓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는 석괴를 통해 묘장의 유형을 추론할 따름이다. 9호묘는 8호묘에서 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階壇積石壙室墓의 형태이다. 묘의 남북 양쪽이 경작 활동으로 파괴되어 남아 있는 묘의 경우 남북으로 9m, 동서 12m, 높이 2m의 모습이다. 특히 남북 양쪽 壙室의 위치와 현존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이 묘가 階壇積石壙室墓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墓道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10호묘는 9호묘의 남쪽 약 35m 지점에 위치해 있다. 壇積石石壙墓이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형태로, 남북의 길이는 8m, 동서의 너비는 5m이고 현재 높이는 1m이다. 묘장의 파괴가 매우 심한 편이다. 11호묘는 10호묘에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의 형태이다. 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5m이며 현재의 높이는 0.8m이다. 묘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12호묘는 11호묘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壇積石石壙串墓의 형태로 남북의 길이 10m, 동서 너비 5m, 높이는 0.6m이다. 묘의 위쪽에 남북 방향으로 2개의 움푹 패인 옹덩이가 존재하며, 墓壙의 위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13호묘는 12호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3m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串墓이다.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편인데, 남북의 길이는 10m, 동서의 너비는 5m, 길이는 0.5m이다. 14호묘는 12호묘에서 동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로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편이다. 대략 方形에 해당하며, 남북의 길이는 6m, 동서의 너비는 5m, 높이는 0.6m이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동쪽 협곡에 위치한 東區墓群 중 우선 15호묘에 대해 살펴보면, 西區의 9호묘에서 협곡을 지나 서북쪽으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형태는 壇積石石壙串墓이다. 長方形으로 남북의 길이는 10m, 동서의 너비는 5m, 높이는 1.2m이다. 16호묘는 15호묘에서 남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이고 대략 方形의 모습이다. 남북의 길이는 11m, 동서의 너비는 10m, 높이는 2m이다. 17호묘는 16호묘에서 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壇積石石壙墓이고 方形이며, 변의 길이는 6m, 현재 높이는 1.3m이다. 묘의 上封은 碎山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18호묘는 17호묘에서 남쪽으로 약 10m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이다. 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5m, 현재 높이는 1m이다. 基壇石은 대부분 0.5×0.4×0.2m에 해당하며 결실된 것이 비교적 많다.

19호묘는 18호묘에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壇積石石壙墓로 방형이며, 묘의 규모는 5×4.5×1m이다. 基壇石은 대부분 결실되었다. 20호묘는 19호묘에서 서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壇積石石壙墓이며 方形이고, 묘의 규모는 4×4.5×1m이다. 基壇石은 대부분 유실되었는데, 남아 있는 것들은 대략 0.4×0.4×0.3m에 해당한다. 21호묘는 19호묘에서 북쪽으로 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역시 壇積石石壙墓이다. 남북의 길이는 6m, 동서의 너비는 4m이고, 현재 높이는 0.5m이다. 22호묘는 19호묘의 남쪽 약 25m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串墓이다. 남북의 길이는 15m, 동서의 너비는 5m, 높이는 0.9m이다. 마지막으로 23호묘는 22호묘에서 서남쪽으로 약 5m 지점에 위치하며 壇積石石壙墓이다. 형태는 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5m, 높이는 1.2m에 해당한다. 동서 양면에 위

치한 基壇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東西 양 구역의 묘장들은 그 유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모두 碎山石을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積石墓의 형태에 해당된다. 한편 壇積石石壙墓의 기원은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階壇積石壙室墓의 연대는 대략 서기 3세기 말까지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묘의 성립 연대는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서기 4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대 규모의 階壇積石壙室墓인 8호묘의 경우, 다른 묘장들에 비해 신분 등급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上活龍山의 西墓群은 1982년 5월에 발견된 ‘上活龍山墓群’과 ‘下活龍山墓群’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며, 따라서 이들 墓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上活龍山墓群에서 발견된 묘장은 총 14개인 데, 그중 積石墓는 3개이고, 규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5개는 ‘方壇積石墓’이며, 그중 M5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나머지 6개는 ‘封土洞室墓’인데, 묘실 평면의 형태에 따라 刀形과 鏟形으로 나뉜다. 묘장의 성립 연대는 대략 남북조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封土洞室墓에서 출토된 銅鏡의 경우 唐代 中後期에 성행했던 형태이므로 해당 묘 역시 그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下活龍山墓群은 총 34개이며 모두 積石墓에 해당한다. 그중 M8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동서 너비는 7.5m, 남북의 길이는 9.5m이고, 높이는 0.5m에서 1.2m이다. 묘장의 형식과 출토 기물을 통해 봤을 때, 下活龍山墓群의 성립 연대는 대략 後漢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漢·魏 교체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上活龍山墓群과 下活龍山墓群은 묘지의 선택과 묘장의 분포 및 배열, 묘장의 구조와 건축 자재 등에서 앞서 살펴본 西墓群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 2010년 제4기

感日卵生-高句麗族源神話-兼及『東明王篇』의 解析

感日卵生-고구려족의 기원 설화와 『東明王篇』의 분석

张碧波 p. 39~43

특정 민족의 기원 설화에 있어 그 문화 내용과 형태 및 연원은 해당 민족의 귀속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근거이다. 고구려 민족 기원 설화에 대한 탐구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① 感日卵生族源神話 - 고구려의 민족 기원 설화는 광개토태왕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후 『梁書』, 「高句麗傳」에 이어졌으며, 고구려의 선조가 東明에서 나와 부여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그 후예가 고구려의 종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 민족 기원 설화는 『魏書』의 「高句麗傳」, 『北史』, 『隋書』, 『通典』, 『通志』, 『文獻通考』에 수록되었다.

④ 태양이 비춘 것에 감응하다 - 고구려의 感日卵生으로 된 민족 기원 설화는 그 원형이 부여족 동명의 민족 기원 설화에서 나왔다. 동명왕의 설화는 『論衡』의 「吉驗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후한서』와 『삼국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와 고구려 두 민족은 感日卵生의 민족 기원 신화를 통해 민족의 출현과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몽이 부여국에서 나온 것과 관련된 문화적 동일성이라 할 수 있다. 中華 문화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창세 신화로는 帝俊-帝嚳 신화, 盤古 神話, 黃帝 神話, 伏羲-女媧 신화 등이 있는데 모두 태양 신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토지·강을 세계의 형성과 인류의 번식, 씨족 생성의 주요 기반으로 보는 것은 중화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 공동 인식·공동 이념·공동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고구려의 태양신 숭배 역시 이러한 중화 민족의 태양 숭배 문화 속에 포함된다. 이외에 고구려 신화의 난생 모티브는 고대 商族에게서 이미 확인되며 새에 대한 토템도 이미 殷商민족에게 있었던 것이다. 태양과 새는 중화의 창세신과 민족 기원신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화 문화의 공통된 특징이다. 결국 고구려의 민족 기원 신화와 건국 신화는 中華의 옛 민족들이 보여 준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 중화 문화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⑥ 난생으로 출현한 주몽 - 알을 우주 생명의 근원이자 씨족 출현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중화의 옛 민족들이 공유하던 생명 의식이었다. 우주의 난생 관념은 반고 전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周의 사람들도 자신의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詩經·大雅·生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주의 시조인 后稷의 어머니 姜原이 밭자국을 밟았다가 잉태했다는 것과 주몽의 어머니가 태양빛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 接觸律 文化的 형식이며, 알로 태어났다가 버림받는 과정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은 고구려 신화에 대한 중원 문화의 영향을 말해준다. 난생 신화는 티베트인에게서도 확인되며 중화의 多元一體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③ 주몽의 어머니 하백의 딸 - 하백은 옛 황하 지역의 문화적 산물로 이것이 고구려의 민족 기원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고구려 문화 기원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하백은 본래 중화의 옛 민족 중 하나로 황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다가 점차 황하의 여러 신들 중 대표 인물로 되었다. 秦代 이후로 중화 민족이 공유하는 황하의 신으로 되어 관련 故事가 중화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이는 동이족 중 鳧夷族에 의해 동북 지역으로 전파되어 부여·고구려 민족 기원 설화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고구려와 부여가 하백을 거론한 것은 자신들과 중화 민족 간의 親緣 관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② 『東明王篇』의 解析 - 『동명왕편』은 고려 이규보가 기록한 古詩이다. 이규보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사들을 종합해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록 고사의 원시적인 내용을 담보해 내는 데 성공했지만 민족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의 내용은 사실상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명왕을 고려의 선조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東明王篇』의 내용은 동명-주몽의

탄생신화인데 반해 고구려와 동명왕을 고려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창작 의도와 시가 내용 상의 모순점을 표출했다. 총 282行, 1410字의 『東明王篇』은 내용에 근거해, 동명왕이 기이한 방식으로 탄생하는 부분, 남하하여 나라를 세우는 부분과 승천하여 신이 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東明王篇』은 신화적 내용을 이용해 고구려와 고려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詩 자체에서는 중화 문화의 天皇, 地皇 및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帝王들을 거론하며 내용을 이어가, 그 자체만으로도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중화 문화 전통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제왕들의 이름 이외에도 하백 3女の 목욕 모티브 또한 중화 문화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규보는 주몽의 기이한 출생과 걸출한 행적 등의 내용을 이용해 고려의 역사를 神化하고 현실을 理想化하려고 했다.

고구려 민족 기원 신화에 채용된 感日卵生의 태양신 숭배와 난생 구조는 중화의 옛 민족들이 공유하던 생명 기원과 민족 기원의 근원이 되는 내용으로, 동시에 중화 문화의 매력과 개성을 보여준다.

■ 2010년 제4기

高句麗始祖傳說中河伯女內容探源－高句麗傳說考源之四

고구려 시조 전설 중의 하백녀 기원 탐구-고구려 전설 기원(4)

姜維東 p. 44~47

부여의 개국 전설에는 비록 동명왕이 물고기와 자라를 부리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하백 혹은 하백의 딸에 관한 것은 없다. 그런데 고구려의 전설 중에는 하백녀가 출현하고 있다. 고구려 전설의 하백녀 관련 내용은 부여에서 전승된 것이 아니다.

① 최초의 하백녀 전설 - 고구려 시조 설화의 가장 이른 기록은 광개토태왕비에서 보인다. 이후 다소 보충된 내용이 『魏書』에서 확인된다. 이는 다시 『北史』의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최초의 하백녀 전설은 고구려인이 스스로 만들어 내어 중원 지역으로 전한 듯하다. 하백녀 전설이 고구려 시조 설화에 첨가된 것은 주몽이 水族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몽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② 內地에서의 하백 전설 - 하백은 원래 ‘黃河神’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다. 이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사는 은대 갑골문의 祭河 관련 기사에서 확인되고, 이후 『穆天子傳』, 『竹書紀年』에 수록되었으며 춘추전국시대의 저작에서도 종종 하백이 출현한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백을 위해 부인을 맞아주는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다.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龍王이 내지로 전파되기 전까지 하백은 황하 雨神의 대표 역할을 했다.

③ 내지의 하백과 고구려 하백과의 관계 - 하나의 부족이 숭배하는 신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자연 환경,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마련이다. 고구려가 발전을 시작했던 중국 동북부 지역은 큰 산

과 계곡이 많고 강이 적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하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구려인이 이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마도 고구려가 漢 郡縣 지역에서 굴기한 후 독립된 정권을 이루기 전에 漢 文化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데다가 또 건국 후에도 내지의 문벌 관념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의 족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첨가했을 것이다.

④ 고구려 멸망 이후 하백녀 전설의 변화 -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이후 신라가 한반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했다. 이치상으로 본다면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의 대부분은 중국 내지로 이주했을 것이고, 소수만이 신라로 편입된 이후 고구려의 전설도 정치체제의 붕괴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전설은 여전히 유행했고 명맥을 유지했다. 이는 왕 씨가 세운 고려가 초기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썼던 것과 관련이 있다. 초기 명칭으로 인해 고려와 고구려는 연계성이 있었지만 이 둘의 전설 내용상에는 관련성이나 연관성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많은 문인들이 海東傳說의 개조 작업에 착수해 전설들이 점차 계통화되어 정리되고 전설 속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명확해졌다. 『삼국사기』가 출현하기 이전에 『檀君記』가 해동 전설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고, 이후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 등이 고구려 전설에 대한 개조를 진행해 하백녀의 내용을 점점 풍부하게 만들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각종 전설 기사를 종합해서 고구려 전설을 만들었지만 매우 자연스럽지 못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金蛙와 解慕漱 사이의 관계와 중국사와 『海東古記』의 관련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에 비해 비교적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구려 전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해동 전설의 桓因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전설의 논리적 정합성을 위해 단군의 나이를 1908세까지 늘리는 설명을 가했다. ‘北夫餘’, ‘東夫餘’ 조항에서 하백녀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해모수와 夫婁 사이의 관계를 모순되게 설명하고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논리상 모순은 『동명왕편』의 출현을 있게 했다. 이규보는 각종 전설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운색해 『동명왕편』을 작성했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楚辭』의 내용을 채록했다. 『삼국유사』와 『동명왕편』에 기록된 해모수가 五龍車를 타고 강림한다는 것은 『魏書』나 『北史』의 내용을 차용해 서술한 것이다. 이외에도 『단군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편』이 기록하고 있는 天帝의 아들이 하백의 딸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중국 내지의 古傳說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 2010년 제4기

樂浪郡變更軌跡考

낙랑군 변천 과정 고찰

趙紅梅 p. 48~50

서한 元封 3년(B.C. 108) 무제가 군대를 파견해 위씨 조선을 평정하고 그 지역에 樂浪·眞番·臨屯·

玄菟 4개의 邊郡을 설치했다. 이를 계기로 서한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직할 통치가 실현되었다.

① 『한서』 권28下, 「지리지」에는 낙랑군과 그 관할 하에 있는 縣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다. 원봉 3년에 낙랑군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미 25개의 관할 소속 縣이 있었고 왕망 시기에 樂鮮으로 개명되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한서』가 기록하고 있는 낙랑군이 한 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의 원래 모습이었을까? 『자치통감』의 기록을 보면, 臨屯郡의 치소는 東曠縣에 있었고 현토군의 치소는 沃沮縣에 있었다고 하는데 왜 임둔과 현토군의 치소가 낙랑군의 관할 25개 屬縣에 속해 있는 것일까? 또 『자치통감』에 인용한 『茂陵書』에 나오는 靺縣이 낙랑군 25屬縣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 중 하나는 『한서』에서 전하는 낙랑군이 서한 무제가 처음으로 설치한 ‘樂浪郡’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의 관할 현은 총 몇 개인가? 또 언제 25개로 늘어났을까?

② 낙랑군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낙랑군의 연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낙랑군의 속현에 대한 『한서』, 『후한서』, 『晉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각각 25개, 18개,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떤 기록이 실제 한 무제가 설치한 낙랑군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일까? 『후한서』 권85, 「濊傳」에는 昭帝 始元 5년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고 낙랑과 현토에 병합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임둔이 낙랑으로, 진번이 현토로 병합되었다는 사실에서 東曠縣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러나 현토군의 치소 옥저현의 경우는 여전히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진번군의 모든 속현이 현토군에 편입되었다면, 어째서 현토군의 속현 중에 『茂陵書』가 기록하고 있는 진번의 15개 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③ 『후한서』 권85, 「濊傳」 중에 옥저, 예맥이 낙랑에 예속되었다가 나중에 7개 縣을 분리해 東部都尉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있다. 옥저·예맥이 낙랑군으로 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권30, 「東沃沮傳」은 원봉 2년 조선을 정벌한 후 그 지역을 4郡으로 나누고 沃沮城을 현토군으로 삼았다고 한다. 옥저성은 현토군의 첫 번째 치소이며 縣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관할 대상 민족이 동옥저였고, 임둔군의 관할 민족은 동예였다. 따라서 옥저와 예맥이 낙랑에 예속되었다는 것은 한 무제가 설치한 현토와 임둔 두 郡이 낙랑군에 병합되었음을 말한다. 즉 25개의 현을 관할하는 낙랑군에 자연스레 현토·임둔군 소속이었던 屬縣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 낙랑에서 다시 7개의 현을 분리했다고 하는데, 이 7개의 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낙랑군의 25개 현과 18개 현의 차이가 바로 이 7개의 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중 하나는 원래 현토군 소속이었고 나머지 6개는 임둔군의 관할 현이었다. 이외에 낙랑남부도위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晉書』 권14, 「지리지」에 기술된 公孫道가 낙랑군에서 7개의 현을 분리해 설치한 帶方郡에 해당된다. 이 7개 현들은 漢 四郡 중의 진번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다.

종합해 보면, 낙랑의 25개 속현 중에 낙랑동부도위의 7현과 낙랑남부도위의 7현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 현이 바로 한 무제가 처음으로 설치한 낙랑군의 속현이 된다. 이를 근거로 원봉 3년(B.C. 108)에

설치된 낙랑군의 관할 범위는 11개 현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바로 위씨 조선이 계승해 온 기자 조선의 본 지역으로 지금의 한반도 대동강 중하류 일대가 된다.

■ 2010년 제4기

夫余简论

부여 간론

陈军·宁勇 p. 51~52

① 부여의 족속과 건국

부여의 종족은 동북 지역 濊貊계열에 속하는데 고대 시기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을 유지하다 부여·고구려·옥저 등 국가의 민족을 형성했다. 『삼국지』, 「부여전」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부여는 예맥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예맥인을 통치했다. 부여가 언제 건국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략 秦漢 시기보다는 이른 전국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첫 번째 국왕은 東明王으로 전해진다.

부여가 건국을 이룬 지역에 대해 역사서들은 주로 遼東 일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지』는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위치해 현토에서 천 리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으로는 挹婁, 서로는 선비족, 북으로는 弱水와 맞닿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부여의 정치제도와 국가기구

부여의 정권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씨족제 사회를 유지했다. 당시 王은 씨족에 의해 선발되고 파면되어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다. 漢魏 시기가 되자 부여는 상당한 수준의 노예제 국가를 형성했고 강력한 지방정권으로 부상했다. 국왕은 장자상습의 세속제를 시행했다. 왕 이외에 ‘加’라는 귀족 구성원이 존재해 국가의 대사를 결정했다. 행정 구획으로 ‘道’가 있어 적게는 수백 가, 많게는 천여 가의 규모로 나누어졌다. 피통치민은 일반 평민인 ‘民’과 노예인 ‘下戶’로 구성되었다. 부여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가혹하게 법률을 적용했으며, 父權 중심적 제도를 만들었다. 계급사회였던 부여는 노예주가 사망하면 다수의 노예들이 함께 순장되는 풍습도 있었다.

③ 부여의 농업, 축산업과 수공업

부여의 통치 지역은 평지가 많고 토지가 비옥한데다 관개가 편리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했다. 따라서 농업이 부여 경제의 근원이 되었다. 묘지의 부장품으로 다수의 농기구가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여는 축산업도 발달했는데 사서에는 부여에서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구와 마구 장식이 묘지의 부장품으로 종종 발굴되고 있다. 이외에도 수공업으로 金銀器物 제도 기술이 뛰어났고 청동이나 철기 제작 능력도 상당했다.

④ 부여의 문화와 습속

부여는 난생 신화를 숭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한서』나 『삼국지』의 기록에 동명왕의 탄생 과정을 설명한 것도 원시 사회의 새 토템 숭배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복식에 대해서도 독특한 문화를 유지했다. 백색을 숭상하였으며 出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신분에 따라 옷을 입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상장의 경우 많게는 백여 명에 이르는 순장을 했으며, 槨은 있지만 棺은 없는 형태의 매장 을 했다. 복장의 기간은 오래 할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했고, 居喪 기간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행동 을 조심했다. 건축의 경우에는 城柵을 조성해 마치 감옥을 방불케 하는 員을 만들었고, 城 안에는 궁실 과 창고, 감옥 등을 만들었다. 부여인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 노랫소리가 주야로 끊이지 않았 다. 또한 제천의식이 있어 매년 특정한 날에 제사를 올렸고, 전쟁 시에는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⑤ 부여와 중원 정권과의 관계

漢魏 시기에 부여는 漢 왕조의 속국으로 현토군의 관할 통치를 받았다. 부여의 왕들은 漢의 諸侯王 에 해당되는 예우를 받으며 중원 지역과 정치적 臣屬관계를 맺었다. 빈번한 조공이 이루어졌지만 역사 서에는 중원 정권과 세 차례에 걸친 정치 대립과 전쟁을 치른 기록도 확인된다.

⑥ 부여국의 멸망

兩晉 이후 부여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太康 연간 이후에는 慕容씨들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왕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말기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고 또 勿吉의 압박으로 결국 멸망했다. 부여의 족속 중 일부는 고구려로 편입되었고, 일부는 度那河로 도망가 이름을 豆莫婁로 고 쳤다.

■ 2010년 제5기

启动长白山文化建设工程-在长白山文化研讨会上的书面讲话

장백산 문화 건설을 열며-장백산 문화 연토회 서면 담화문

荀凤栖 p. 13

오늘 길림성 제6차 장백산 문화 연토회를 개최하는데 본인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수년간 헌 신적 노력을 해 온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및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省委·省政府는 장백산 문화 건설을 매우 중요시 여겨 장백산 문화 건설 프로젝트를 2010년 省委常 委會의 중요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장백산 문화 건설 프로젝트는 길림성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 굴·보호하는 작업으로 장백산 문화에 대한 발굴·연구를 통해 非物質文化遺產의 보호와 복원을 해왔 고 장백산으로 대표되는 길림의 문화적 함의를 풍부하게 했으며 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장백산 문에 창작을 진흥하여 장백산 문화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장백산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를 건설해 장

백산 문화 산업 지대를 형성하고 장백산 문화 자원을 구체화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장백산과 관련된 산업, 즉 인삼·생수·송화석·사슴 관련 상품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장백산 문화 를 나타내는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길림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백산 문화와 여행 산업을 결합하여 장백산 문화라는 특색을 갖춘 문화 여행 산업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장백산 문화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길림성 문화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 산업 전반이 발전하 는 기초가 되며 길림성의 문화적인 힘을 키우는 근간이 됩니다. 학계와 사회 각계 인사의 공동적인 노력 으로 장백산 문화 연구는 현재까지 다수의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향후 장백산문화연구회가 장 백산 문화의 연구, 전파 및 건설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길림성의 경제 및 사회가 더욱 발전하 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0년 제5기

大力推进长白山文化研究与建设

장백산 문화 연구와 건설을 적극 추진하자

张福有 p. 3~10, 14~15

2010년 7월 19일, 長白山管委會, 吉林省長白山文化研究會, 吉林省圖書館 주최로 길림성 제6차 長 白山文化研討會가 장춘에서 개최되었다. 省委常委, 宣傳部長 荀鳳栖가 참가해 축하 말씀과 함께 각 계 층 지도자, 전문 연구자 및 애호가들의 길림성 문화 건설에 대한 관심과 지지 태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 을 전했다.

길림성 장백산문화연구회는 2000년 10월 29일에 창립되어 지난 10년간 풍성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 고 올해로 6번째 연토회를 열었으며 총 3輯의 『長白山文化論叢』을 간행했다. 또한 길림성 도서관과 협 조해 ‘長白書院’을 건립하고 長白山文化研究를 위한 서적을 기증했다. 최근 2년 동안 장백산문화연구 회는 장백산 문화의 연구와 건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었다.

① 서적 출판 : 종합적인 협동 연구 성과로 『百年苦旅』, 『劉建封評傳』, 『長白山文化論叢』, 『蕩平 嶺碑記』, 『愛國將領吳祿貞』 등을 발간했고 개인적으로 다수의 학문적 저술을 발표했다.

② 석문을 새기고 비를 세움 : 첫 번째, 劉建封의 장백산 답사 100주년을 기념해 2008년 7월 9일 曹 家溝에 비를 세웠다. 두 번째, 戊邊樓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2009년 9월 18일에 「重修吳督護祿貞去 思碑記」를 건립했다. 세 번째, 2010년 6월 4일에 길림성 장백산 문화연구회가 찬술한 『圖們江出海復 航二十周年紀略』을 防川에 만들었다.

③ 장백산의 詩詞를 풍부하게 했다. 2007년 『歷代詩人咏集安』, 2008년 『長白山池南韻』, 2009 년 『公主嶺風韻』, 『江源毓秀』를 각각 출판하고 다수의 출판물을 통해 장백산과 관련된 총 1만여 수의

詩詞를 발표했다.

④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 고고학 발굴을 통해 집안 蒿子溝 1호묘를 東川王陵으로 확인했다. 또 집안에서 출토된 陽安君 銅短劍의 양안군이 노자 李耳의 5세손 李躋, 이른바 당 고조 이연의 35세 선조라는 것을 고증했다. 집안 良民庫區에서 발견된 2,753개의 고묘와 고성 2곳이 247년 동천왕이 건축한 평양성임을 증명했다. 아울러 『集安高句麗墓葬』, 『高句麗王陵通考』, 『高句麗王陵統鑑』, 『高句麗千里長城』 등을 출간했다.

⑤ 『辭海』에 기록된 관련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인정을 받았다.

⑥ 『東北史地』를 총 46기 출판하고 동북 지역 史地 연구의 중심 무대가 되도록 했다. 7년 동안의 노력은 학술적 성과로 드러났고 국내외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장백산 문화 건설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백산문화가 길림성위의 중요 결핵 사항이 된 것 자체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王雲坤, 王珉, 孫政才 등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기했다. 이 중 荀鳳栖는 장백산 문화 건설 프로젝트를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장백산의 非物質 文化遺產에 대한 발굴과 보호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장백산 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문예 창작을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장백산 문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장백산 문화 산업 지대를 건설해야 한다. 네 번째, 인삼·생수·송화석 등 상품의 문화 요소를 극대화해 품위 있는 길림성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장백산 특색이 잘 반영된 여행 산업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주로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장백산 문화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성 단위의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백산 문화 건설을 이룰 수 있는 학술 연구를 추진해야 하고 이들의 상호 연결과 협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와 경제·사회의 발전 및 여행업과의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북사지』의 출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장백서원'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010년 제5기

高句麗建國傳說史料辨析

고구려 건국 전설 사료 분석

李新全 p. 16~21

고구려 건국 전설과 관련된 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틀림없는 고구려 건국 전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여의 건국 전설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사료 1 : 고구려 건국 전설 사료 - 현존하는 사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 사료는 광개토대왕비이다. 이는 건국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는 5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되는 集安

冉牟墓 前室 윗부분의 墨書題記가 있다. 이 두 자료보다 후대의 것으로는 551~554년 사이에 찬술된 『魏書』, 「高句麗傳」이 있다. 『魏書』는 普述水, 紇昇骨城이라고 하는 전설과 관련된 두 개의 지리 좌표를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다. 636년에 쓰여진 『周書』는 고구려 건국 전설을 간략하게 적고 있다. 659년에 만들어진 『北史』는 『魏書』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隋書』 또한 고구려 건국 전설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멸망 이후의 사료로는 고려에서 김부식이 1145년 완성한 『삼국사기』에 고구려 건국 전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卒本川', '沸流水' 등의 지리 좌표가 언급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후대 기록으로는 일연의 『삼국유사』가 있다. 이들 사료의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고구려 정권을 세운 시조는 東明(혹은 朱蒙, 鄒牟이라 함)으로 (북)부여 출신이다.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고 卵生했다. 화살을 잘 쏘고 부여의 왕실과 화합하지 못하고 淹淲 혹은 掩淲라고 불리는 강을 건너 남하해 卒本(혹은 忽本)이라는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 혹은 졸본부여라고 불리는 국가를 건설했다.

② 사료 2 : 부여 건국 전설로 보이는 사료 - 고구려의 건국 전설과 유사한 기록이 동한 초기 王充이 쓴 『論衡』, 「吉驗篇」에 보인다. 왕충의 기록은 동명(주몽 혹은 추모)의 어머니가 北夷 橐離國王의 侍婢이고 胎生했다는 점과 남쪽으로 도망가 부여의 왕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고구려 건국 전설과 상통한다. 이는 우연이라 하기 힘들고 하나의 전설이 두 가지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논형』 이후로는 魚豢이 지은 『魏略』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단지 동명(주몽)의 어머니를 高離國王의 侍婢로 했다는 점과 淹淲水를 施掩水라고 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南朝의 范曄은 『後漢書』, 「東夷傳」에 橐離國을 索離國으로 바꾸어 부여의 건국 전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梁書』, 「東夷傳」은 고구려의 선조가 東明에서 나왔다고 명기한 후 北夷 橐離國王인 東明이 부여 국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부여의 후예 중 일부가 고구려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③ 두 종류 사료에 대한 변별 - 사료 1은 고구려 건국 전설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료 2의 내용은 문제가 있다. 왕충은 부여 국왕의 侍婢를 北夷 橐離王之 侍婢라고 오기하고 있으며, 卒本夫餘와 漢魏夫餘를 혼용해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왕충 및 중원 지역의 史家들이 부여와 관련된 사실을 부여라고 단일 화해 기록한 반면, 고구려인이나 고려인은 북부여·동부여·졸본부여 등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기록한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魏略』의 기사는 裴松之가 『삼국지』, 「부여전」을 작성할 때 인용한 부분으로 배송지도 魚豢처럼 전설의 역사 사실을 알지 못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삼국지』를 지은 陳壽도 『魏略』을 봤을 테지만 신빙성에 의심이 가서 채록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범엽은 『위략』을 보충 자료로 제시한 배송지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후한서』에 『위략』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적고 있지만 이는 '掩淲水'가 '鹽難水'일 수밖에 없고 부여의 시조를 동명(주몽, 추모)으로 명기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서술이다. 일부 학자들은 왕충의 기록이 광개토대왕비문의 기록보다 앞선 것이라는 이유로 부여의 건국 전설을 믿으려고 하지만, 왕충은 변방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기록한 것이고 광개토대왕비문은 고구려인이 자신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문의 신뢰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충의 기록이 갖고 있는 모순 때문인지 『梁書』의 기록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고구려와 부여에 대해 혈연적 계승을 언급해 절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정황을 비교해 보면, 부여의 건국 전설이라고 알려진 내용들은 모두 고구려의 건국 전설이다.

■ 2010년 제5기

高句麗故地与第二玄菟郡考

고구려 고지와 제2 현토군 고찰

王志敏 p. 22~28

① 高句麗故地 - 고구려 민족의 발상지에 해당하는 고구려 고지가 어디였는가는 학계의 오래된 논쟁 주제였지만 아직까지 정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초기 고고학 조사 자료의 근거와 초기 역사가들의 관점이 반영된 遼寧 新賓, 桓因說을 지지한다. 환인설은 졸본천 혹은 졸본 지역이 환인현 구역 내에 위치했고 오녀산 아래의 渾江 연안의 계곡을 졸본천이라 여겼다. 신빈설은 고구려현과 第二玄菟郡이 신빈 구역 내에 위치했고 永陵鎮 남쪽 小城子가 고구려현과 第二玄菟郡의 옛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역사 문헌에 따르면 졸본천과 第二玄菟郡이 고구려현 지역 내에 있어 3곳이 모두 같은 곳에 있다. 또한 지리 방위 상으로도 동서가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몽이 건국하고 立都한 것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건국은 졸본천에서, 입도는 서쪽 산성에서 했으며 시간으로도 3년의 차이가 난다. 이외에 기존 연구의 사료 해석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忽本東岡은 卒本川의 東岡을 말하는 것이고 黃龍은 신화 속의 황룡이 아니라 桂婁部の 황룡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淹利大水는 鹽難水나 渾江이 아니라 바로 輝發河이다.

고구려 고지에 대한 고증은 고구려 민족의 기원, 建國地, 그리고 제2현토군의 郡治 등 일련의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정론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沸流水·高句麗縣·小水貂·沸流國·卒本川·涓奴部 등의 위치가 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故地는 신빈 혹은 환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가까운 通化 지역 내에 있었다. 『삼국지』의 「동이고구려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요동에서 동쪽으로 1,000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700리에 준하는 거리로 통화 일대가 이에 해당된다. 신빈과 환인은 모두 100km, 당시 기준으로 300리 떨어져 있어서 기록에 부합되지 않는다.

② 沸流水 - 비류수는 한위 시대의 渾江을 말하는 데에 이견은 없다. 다만 일부 학자는 富爾江이古 沸流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부이강은 혼강의 지류에 불과하고 단독으로 비류수가 될 수 없다.

③ 小水貂 - 『삼국지』는 소수맥을 고구려의 별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족과의 상이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중원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通化 萬發拔子(王八脖子)의 2期文化와 관련되어 있다. 소수맥은 여러 민족이 혼성되어 다양한 문화를 접목해 형성된 다원화되고 실력을 갖춘 고대 부족이었다.

④ 沸流國 - 비류국은 비류수 유역의 가장 오래된 고대 소국으로 『삼국지』에서 말하는 小水貂에 해당되며 졸본천 상류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문화적 특징으로 추적해 볼 때, 通化 萬發拔子遺址가 바로 沸流國故址에 해당된다. 졸본천에 남긴 행적은 지금의 通化江 연안의 遺蹟群에 해당된다.

⑤ 涓奴部 - 연노부는 고구려 건국 시기부터 존재해 온 5部 중 하나이다. 고구려 5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론이 다양한데 이는 고구려 건국 초와 遷都 이후의 위치가 달랐던 데다가 관련 사료가 대부분 천도 이후의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연노부는 비류수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고구려가 바로 이 지역에서 힘을 키웠다. 주몽이 흘승골성으로 천도한 후 연노부의 세력은 다소 약화되어 계루부에 대체되었다. 이후 동·서·남·북·중의 5부 형태가 형성되었으며 통화현의 강 입구와 환인의 교차 지역이 연노부와 계루부의 경계지역에 해당된다.

⑥ 高句麗縣과 第二玄菟郡 - 고구려현은 한 무제가 위씨 조선을 멸망시킨 후 소수맥과 비류국의 지역에 설치한 행정 기구로 上殷臺縣, 西蓋馬縣과 함께 현토군에 예속되었다. 漢 昭帝는 始元 5년에 현토군을 高句麗故地인 비류수 유역으로 옮겼다. 여러 역사 기록들은 고구려현이 富爾江 동쪽 通化 지역 일대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역사가들은 현토군이 昭帝 元鳳 6년에 고구려 고지로 遷徙했다고 여기도 하지만 실은 이미 천사를 한 후 원봉 6년에 현토성을 새로이 축조한 것이다. 고구려현은 소수맥과 비류국을 중심으로 縣地가 구성되었고 통화 지역에 상당한 양의 유적지가 남아 있다. 이들 유적지와 유물을 통해 당시 촌락과 인구의 밀집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유적지로는 平岡山古城과 自安山城이 있다. 평강산고성은 중원 문화와 현지 토착 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와 규모 및 등급을 봤을 때 서한 시기 高句麗縣治의 故址로 여겨진다. 자안산성은 그 형태와 출토 유물로 볼 때 漢代城과 고구려산성의 장점을 결합시킨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산성의 위치와 型制의 특징 및 유적의 등급을 고려해 볼 때 한 소제 때 內遷한 第二玄菟郡에 해당된다.

■ 2010년 제5기

浅谈高句麗民族的厚葬习俗

고구려 민족의 후장 습속 시론

华阳 p. 29~30

고구려의 厚葬 풍속은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삼국지』, 「고구려전」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곧 얼마 후 수의를 만든다. 厚葬의 풍속이 있어 금은의 재화를 死者를 떠나 보내는 데 모두 사용하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후 松柏을 줄지어 심었다.”라고 기록해 고구려의 후장 풍속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구려의 후장 풍속을 반영하고 있는 고고학적 발굴이 이어져 당시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묘의 조영 방식과 규모에서 고구려의 후장 풍속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고구려의 묘는 積石墓와 封土墓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적석묘의 경우 자갈과 바위를 이용해 지표면에 장방형의 墓基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크기의 돌과 가공한 석재를 이용해 墓葬을 감싸도록 쌓아 만들었다. 그 규모가 상당했으며 어떤 묘의 경우에는 묘의 四面을 큰 바위로 반듯한 기단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작은 돌들을 쌓아 方壇을 축조하기도 했다. 묘마다 그 크기는 달랐고 장군층의 경우는 7단으로 만들어졌으며 광개토태왕 묘는 7단을 넘는 규모로 조성되었다. 대형 적석묘에는 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護墳石이 있었는데 큰 것은 무려 60t이 넘는 것도 있었다. 또 묘에 散水, 排水管和 涵管 시설이 있어 비가 내부에 차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의 물이 묘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묘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왕조 후기가 되면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적석묘는 줄어들고 땅 위에 흙을 쌓아 만드는 봉토묘가 증가한다. 비록 흙을 쌓아 만들었지만 둘레 길이가 100~150m나 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돌을 이용해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든 작업이었다. 봉토묘에서도 여전히 석재를 사용했고 雙室과 三室墓를 만드는 형태가 발전했다. 일부에서는 墓主의 생전 모습, 출행 혹은 사냥을 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록한 벽화를 그리기도 했고 불교적 의미를 함축한 연화나 飛天 혹은 禮佛圖 등을 제작했다. 어떤 경우에는 日月星辰과 四神圖를 그려 넣기도 했다. 벽화에서 보이는 뛰어난 창작 기법과 화려한 색채는 당시 고구려인이 厚葬 풍습을 충실히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묘의 조영 방식과 규모 이외에 묘의 부장품을 통해서도 고구려인의 후장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자기, 청동기, 철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기물들도 부장품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생활 용구에서부터 생산 기구, 전쟁 무기, 교통 용구 및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수량이 다양했다. 당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부장품으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심지어 集安 禹山과 七星山의 적석묘에서는 고구려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중원의 수입물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외에 도금된 물건과 금은 장식품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광개토태왕릉에서 다양한 형태의 步搖懸葉(일종의 馬具)만 무려 87종이 발굴되었다. 당시 생산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후장 풍습은 귀족과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풍습은 고구려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다만 초기에는 국력이 제한적이고 경제 상황이 나빴던 탓에 후장을 치르는 방식이 단조롭고 외관에 신경을 많이 쓴 반면, 후기로 갈수록 국력의 발달에 힘입어 후장의 표현 형식이 다양해지고 세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다시 말해 묘의 형태상 초기의 적석묘에서 후기의 봉토묘로 변화해 갔으며 점차 묘실의 내부 장식과 벽화 등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가 중원과 접촉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漢文化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 2010년 제5기

南北朝之前高句麗與中原王朝關係研究

남북조 시기 이전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 연구

張哲·何方媛 p. 31~35

본문은 남북조 시기 이전의 중원 왕조와 고구려 사이의 관계를 〈兩漢〉, 〈曹魏와 西晉〉, 〈東晉16國〉 시기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중원 왕조에 대한 조공과 중원 왕조의 고구려 책봉 상황에 대해 논술을 가했다.

① 고구려와 兩漢 왕조와의 관계 - 한의 현토군 내에 건립된 고구려 정권은 서한과 臣屬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이 강화되자 곧 서한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왕망은 新을 세운 후 고구려를 포함한 주변 소수민족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고구려왕을 侯로 강등했다. 왕망의 정책은 고구려와 중원 왕조 사이의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갔다. 중원이 다시 혼란 상태가 되자 고구려는 점차 국력을 키워 영토를 확장했다. 기원후 14년에는 현토군 내의 高句麗縣을 공격해 점령하고 21년에는 부여, 26년에는 蓋馬國과 句茶國을 공격해 漢 낙랑군 관할 지역에서 압록강 동쪽 한반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동한은 건국 후 왕망의 정치적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소수민족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고구려도 정권 주체로서 동한 왕조와 조공 관계를 맺었다. 후한 시기 동안 총 6회의 조공이 있었는데 49년에서 109년 사이의 60년 동안에는 조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 시기 동안 평화와 대립 관계를 반복했다. 동한 초기에 고구려 대무신왕이 낙랑 지역으로 진출에 성공한 후 살수(청천강)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었다. 이후 고구려는 요동반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추진했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했고 정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관계를 복원했다.

② 고구려와 曹魏, 西晉 왕조 사이의 관계 - 東漢 말기 중원의 정세가 혼란에 빠지자 公孫度가 자립해 遼東侯가 되었고 고구려는 ‘遠交近攻’ 정책을 실시해 공손씨와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東吳와 曹魏는 공격했다. 그러나 고구려와 공손씨 정권의 관계는 곧 나빠져 209년에는 공손씨가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큰 손실을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는 동오와 조위의 세력을 빌리려는 목적으로 이들에게 조공을 보내 신속 관계를 맺고자 했다. 조위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고구려의 힘을 이용해 공손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동오 역시 적극적이었는데 고구려 세력을 이용해 조위를 견제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고구려는 233년과 235년에 두 차례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曹魏는 매우 불쾌해 했고 고구려를 중용해 魏의 使臣을 살해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는 동오와의 관계를 끊고 조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237년에는 조위에 사신을 보내고 이듬해에는 군대를 내어 魏의 공손연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 공손씨 정권의 멸망 후 고구려는 조위와 국경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다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겪은 후 246년과 247년에 조위는 毋丘儉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 공격을 명령했고, 고구려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큰 피해를 봤다. 이후 요동 지역에 대한 확장 의지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했다. 서진 건국 이후에는 고구려·부여·옥저가 東夷校尉의 통제를 받았다. 비록 서진 시기 동안 고구려의 조공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항시적으로 서진의 封官을 받아 예속 관계가 줄곧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진의 짧은 통일 시기가 지나고 남쪽에는 동진 정권이 수립되고 북방에는 여러 소수민족에 의한 국가들이 건립되고 사라졌다. 고구려는 동진에 대해서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북방의 諸國, 즉 後趙·前秦·前燕·後燕·北燕 정권에 대해 臣服의 태도를 보이고 간혹 조공을 보내기도 했다. 서진 말의 혼란기에 고구려는 요동 지역에 대한 확장을 위한 시도를 감행했고, 302~315년 사이에는 세력의 우세를 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요서 지역의 모용씨가 굴기해 있던 까닭에 자주 견제를 받아 고구려는 330년에 후조 石勒에게 사신을 보내 위협을 줄이고자 했다. 337년에 모용황이 전연을 건국해 고구려를 공격하자 수세에 몰린 고구려는 344년 결국 臣服을 선언했다. 20여 년 후에는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370년 전진이 전연을 멸망시키자 고구려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고 전진 시기에는 주로 남쪽 백제와의 싸움에 전력했다. 384년 후연이 건국한 후, 고구려와 후연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커져 가고 요동 지역을 둘러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해 요동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靺鞨·鮮卑·氐族 정권에 대해 조공을 하는 동시에 남조의 동진에 대해서도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요약해 보면, 동진 16국 시기 동안 고구려는 각 정권들 사이에서 세력의 강약에 따라 대립과 복종의 관계를 번갈아 가며 유지했다.

고구려와 중원 왕조 사이의 조공은 매우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중원이 강대해지면 시종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중원이 분열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왕조를 골라 조공을 했다. 특이한 것은 조공의 빈도수가 평화 시기보다는 전란 시기에 더 많다는 점이다.

■ 2010년 제5기

日本对渤海国的认知与研究

발해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연구

赵欣 p. 79~83

727년 9월 高仁義가 이끄는 발해의 첫 번째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해 수교의 의지를 내비쳤고 이에 일본도 引田虫麻呂를 보내 회답했다. 약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총 34번의 발해국 사절단이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은 총 13번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① 고대 일본의 발해국에 대한 인식 - 고대 일본은 발해국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고 그저 발해 使者의 소개에 의존해 발해국을 인식했다. 발해국을 고구려의 연속, 혹은 繼承國으로 이해했다.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발해를 ‘高麗’로 誤稱하기도 했다. 일본이 발해 사절단을 환영한 이유는 이들을 자

신에 대한 조공 사절로 간주해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발해는 이에 대해 특별히 트집 잡지 않아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었다. 926년 1월 거란의 耶律阿保機가 발해국을 멸망시킨 후, 그 해 11월 원래 발해의 사신이었던 裴璆가 東丹國(발해의 옛 지역에 건립되어 야율아보기의 長子에 의해 통치됨)의 사자 신분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총 3차례 방문했다.

② 근대 일본의 발해국에 대한 연구 - 일본의 발해국에 대한 관심은 18세기에 이르러 고조되었다. 德川光圀이 쓴 『大日本史』는 일본 내의 사료가 아닌 중국의 사서에 근거해 발해에 대한 서술을 했다. 이는 일본의 발해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비로소 발해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근대에 이르러 일본이 발해국에 대한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시대적 필요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발해국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단계(20세기 1930년대 이전)로 발해국의 역사적 문화 자원을 빼앗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근대 일본 학계의 발해에 대한 연구는 러일전쟁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07년 남만철로주식회사가 조사부를 설치해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1908년에는 白鳥庫吉의 건의 하에 조선 역사 지리조사부에 東京支會가 설립되어 만주와 조선민족사와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발해의 族源과 조선 역사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주목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일본군과 학자들은 발해국의 유적지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나 발해 상경 용천부유지와 三靈墳에 주목했다. 이후 간첩들을 보내 이 지역에 조사를 실시하고 유물들을 가져갔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이후 발해국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학술적 길잡이가 되었다. 1914년에 문부성의 지원으로 편찬된 백과사전 『故事類苑』은 발해국의 지위를 높여 일본과 사절 교환 관계를 가진 국가로 서술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계는 발해국 유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는 단계(1932~1945)이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발해국 유물들을 빼앗아 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시기의 발해 연구는 만주국 성립에서 動因을 얻었다. 1932년 만주국이 건국한 후 식민 통치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발해와의 교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수집했다. 만주국의 비호 아래 발해국 遺址, 예를 들어 상경 궁전 유지 등에 대한 발굴 작업을 추진해 각종 유물들을 일본으로 송출했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이 확대되자 약탈성 조사와 발굴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만주국 통치의 14년 동안 일본 학자들은 발해 유적지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을 완전히 끝내고 강제 발굴을 시도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만주국도 폐망했고 이와 함께 발해사 연구 또한 일단락되었다.

③ 당대 일본의 발해국 연구 - 20세기 1970년대 이후 일본은 발해국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된다. 渤海國史와 외교 관계가 주된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일본 학자들이 동아시아 민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일본 민족의 기원이 단순히 열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영토확장에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 일본 학자들은 한국과 중

국, 러시아 학자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발해국에 대한 일본의 연구 성과가 발해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그 주제에 따라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발해국과 관련된 通史性 저술들과 斷代史적 저작들이 있다. 이 분류에 해당되는 성과물들은 중국의 正史에 나타난 사료들을 기초로 삼고 해외 학자들의 관련 연구를 참고해 진행된 것으로 사실에 기초한 이성적인 이해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발해국의 명칭, 예속 관계, 문화 등과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관련된 성과도 매우 풍부하게 소개되었다. 세 번째는 발해국과 일본의 외교사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 주제는 일본 학자들이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고대 일본인이 사신을 통해서 발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적 조건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정치 동향, 국제 의식, 교통 수단, 무역 및 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발해국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발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특히 다수의 문물 자료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건은 일본이 발해국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이 되었다. 비록 일부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협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론의 제시와 같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제 학계에서 발해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일본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010년 제6기

以东团山遗址出土陶器为例试析汉文化对夫余文化的影响

東團山 유적 출토 陶器를 통해 살펴 본 漢文化의 夫餘文化에 대한 영향

于丽群·贾素娟·韩安生 p. 6~7, 23~25

東團山 유적은 吉林市の 동쪽 교외에 자리한 동단산 남쪽 기슭의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해발 252m, 좌우 圓形의 작은 산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은 “南城子”라고 부른다. 이곳에는 靑銅期 時代부터 漢·高句麗·渤海·遼·金까지의 문화 유적이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漢代의 유물이 가장 많다. 이 유적은 1961년 ‘吉林省重點文物保護單位’로 공포되었으며, 이후 2001년, 2002년, 2007년에 吉林省考古研究所에 의해 대규모 조사와 발굴이 진행되어 夫餘國의 유적과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부여는 중국 동북 지역의 오래된 소수민족 중 하나로 穢貊 부족에 해당되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원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骨器와 蚌器, 石器 등의 출토 유물을 통해 봤을 때, 당시 부여의 경제생활은 원시 농업과 狩獵을 위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陶器의 조형과 부분 장식 등을 보면, 이미 중원 黃河 유역의 신석기 後期와 商周 시기의 문화적 영향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前漢 시

기 부여족은 부여국을 건립하였으며, 서기 494년 고구려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600~700년을 존속하였다. 戰國에서 前漢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원의 한인들은 동북과 松花江 유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부여족의 사회 발전과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한편 後漢 시기는 부여족이 최고로 강성했던 시대로, 특히 중원 왕조와의 우호 관계가 발전하여 더욱 견고해진 시점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원의 선진 문화는 부여로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농업과 목축업, 수공업 등의 전면적인 발전을 야기하였다. 특히 부여인은 名馬·赤玉·黃金·美珠와 각종 皮毛 加工品을 중원의 漢人과 교역하였는데, 이를 통해 동북 지역의 상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조사와 발굴을 통해 출토된 東團山 유적의 도기 제품은 총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 도구와 생산 도구, 건축 재료가 그것이다. 생활 도구로는 豆·罐·碗·杯·鉢·盆·盅·盞·壺 등이 있으며, 생산 도구로는 紡輪·網墜·銅銚·鐵矟 등이, 건축 재료로는 花紋磚과 素面磚, 異型磚 및 板瓦와 筒瓦 등이 있다. 또한 재질로 분류했을 때는 夾砂陶(모래 섞인 토기)와 泥質陶(뽕질 토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夾砂陶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夾砂陶 중에서도 夾砂褐陶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夾砂灰陶와 夾砂黑陶 순이다. 泥質陶의 경우는 泥質褐陶 위주로 출토되었다. 한편 출토 도기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陶豆 품종인데, 그중에서도 ‘黑衣柱把豆’가 부여 문화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黑衣柱把豆는 속이 빈 것과 찬 것 두 종류로 나뉘며, 색깔과 광택은 겉과 속이 다른데 ‘陶胎’의 경우 대부분이 褐色이나 黑褐色, 紅褐色 등을 띤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 花紋磚과 素面磚, 異型磚도 수량이 많은 편인데, 그중 ‘長條形花紋磚’이 부여 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陶의 색깔은 紅色과 褐色, 黃褐色 위주이며, 제작 형태가 비교적 정밀한 편인데, 무늬 장식 역시 풍부하고 다채롭다.

중원 漢人의 대량 유입으로 야기된 선진 기술의 도입과 이용은 부여족 경제와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黑衣柱把豆器의 경우 표면의 鉛色 광택은 山東 龍山 文化의 ‘蛋殼陶’의 공예 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良渚 文化의 ‘黑陶衣器’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後漢 시기에는 제작이 용이한 長條磚이 畫像磚과 鋪地磚을 대신하여 주요 砌築 재료로서 기능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이에 따라 長條磚의 생산 기술 또한 전국적 범위로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물론 長條磚의 활용은 한족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 소수민족에게까지 전파되었으며, 東團山 유적에서 출토된 花紋磚의 圖案(方格紋, 菱形紋 등)을 통해서도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원의 문화는 끊임없이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에게 전파되었으며, 그 영향력을 토대로 형성된 문화상의 융합은 중원 정권의 邊疆 통일에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다.

■ 2010년 제6기

关于高句丽早期历史研究体系的几点看法

고구려 초기 역사 연구 체계에 대한 몇 가지 관점

刘炬 p. 37~43

현재 고구려의 초기 역사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체계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이 갖고 있는 많은 불명확성 때문에 우리는 보다 과학적인 새로운 연구 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① 고구려 초기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체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 첫 번째, 각 민족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설화가 활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고구려에 대한 연구의 경우는 설화적 요소를 분명한 역사 사실로 지나치게 쉽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중국의 남북조 이후의 사료와 광개토태왕비문의 사료적 근원을 분석하는 데 소홀히 하면서도 이들의 내용을 가지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설화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② 고구려의 초기 역사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들 - 첫 번째 문제, 주몽이 실제 인물이며 그가 건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 『삼국지』와 같은 시기적으로 앞선 사료에 고구려 설화가 없다는 것은 진실 기록을 중요시 하는 중국 사료 편찬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당시 아직 고구려 설화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논형』, 『후한서』에 부여 동명왕의 건국 설화가 있는데 고구려 설화가 거의 같다는 점은 이것을 채용해서 고구려 설화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주몽의 건국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아직 국가의 기틀을 잡지 못하고 원시사회의 民主遺風까지 보이기도 한다. 『삼국지』가 주로 正始 5년의 내용을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몽 건국 설화가 사실이라면 건국 이후 300년 가까이 되도록 정치 권력이 정비되지 못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도 고구려 설화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구려 설화의 내용을 의심하게 한다. 두 번째 문제, 유리명왕이 國內로 천도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까?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주로 그 지점의 정확성에 대해 주목했고 천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천도 문제와 관련해 의문점이 많다. 우선, 國內城 지역이 다른 곳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곳이 있음에도 유리명왕이 천도할 때 현지 원주민도 없었고 어떠한 저항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沸流水가 紇昇骨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국내성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들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문제, 주몽·類利·無恤의 혈연 관계가 실제 嫡親의 관계인가? 주몽과 유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하나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유리가 주몽 재위 마지막 해 4월에 부여에서 고구려로 도망치는데 그 해 9월에 사망한 주몽의 왕위를 곧바로 잇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른 하나는 『한서』, 「왕

망전』에 따르면 왕망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고구려 侯人 驪를 유인해 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고구려에는 유리가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모순되는 기사이다. 이처럼 중국 사료와 『삼국사기』의 기록이 내용면에서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大武神王 無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10세 전후에 군공을 여러 차례 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와 『위서』, 「고구려전」 그리고 『北史』, 「고려전」을 비교해 보면 如粟이라는 상호 고증이 어려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주몽·유리·무휼 사이의 관계 역시 확고부동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③ 上述한 문제에 대한 분석 -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한 대담으로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규율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대일통의 상태는 분열과 경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 무제가 위씨 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예맥인은 부락 단계의 생활을 하며 거주했을 것인데 이 과정에 갑자기 고씨 성을 가진 부락이 크게 발전을 이루어 짧은 시간 안에 예맥 군중을 대부분 통일해 700여 년이나 유지되는 왕국을 건립했다는 것은 역사적 보편 규율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역사 전설의 성질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고구려 건국 설화를 이해해야 한다. 만들어지고 재창조되며 신성화된다는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주몽·유리·무휼은 아마도 서로 다른 부락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한 고구려 민족 영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의 추앙과 필요에 의해 고구려 초기 3대 국왕으로 고착화되었다. 세 번째 문제, 고구려 초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시공좌표가 필요하다. 각 사료의 시기적 차이를 고려해 보면,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은 후세 사람들이 주몽·유리·무휼 3인의 민족 영웅을 정치적인 목적성을 갖고 祖孫 관계로 만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3가지 분석 시각을 통해 볼 때, 주몽·유리·무휼은 조손 부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락 출신의 민족 영웅으로 주몽은 흘승골성을 중심으로 한 비류수 지역에서 활동하며 공적을 세웠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유리는 국내성 지역에 활동하며 무리를 이끌고 왕망 정권의 고압정책에 맞섰던 업적이 있던 인물이었을 것이며, 무휼은 비류수 일대에서 활약한 부락수령으로 고구려 각 부족을 이끌고 예맥족의 覇主노릇을 하던 부여인들을 무찌른 전공이 있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구려 초기 역사에 대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연구 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적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초기의 고구려는 아마도 일종의 부락이 공존하고 영웅들의 각축 경쟁이 일어나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주몽·유리·무휼은 이러한 경쟁의 승리자들로 서로 다른 부락 출신이기 때문에 고씨 왕조의 조상이 아니지만, 고씨 왕조의 통치자로서 후세 사람들이 그의 지위를 만들어 냈다.

■ 2010년 제6기

试论北燕与高句丽的政治关系

북연과 고구려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시론

薛海波 p. 44~46

북연은 5세기 초 後燕 모용 씨가 요하 지역으로 퇴거한 후, 鮮卑화된 漢人 馮跋이 건립한 할거 정권이다. 당시 북위의 통일 형세가 이들에게는 큰 위협이었고 동쪽으로는 군사적 확장을 기도하는 고구려의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북연의 입장에서 북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상대적인 평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구려 입장에서 북위 사이의 중간 지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북연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했다.

① 북연의 건국과 고구려와의 정치 관계 - 建始 元年(397) 북위가 하북 지역을 점령하고 後燕의 세력은 慕容寶의 지휘 아래 요서 지역으로 옮겨 갔다. 이후 후연의 세력 범위는 축소되고 국력도 약화되었지만 주변국과의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으며 이 사이에 국력은 날로 쇠퇴해 가고 民의 생활은 점차 피폐해졌다. 이 와중에 후연 통치 집단 중 하층 계급에 속하는 中尉將 馮跋이 가족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켜 북연을 건국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는 高雲을 北燕天王으로 추대했다. 이는 풍발 자신은 신분이 낮아 威望이 모자란 데 비해 고운은 모용보의 양자로 사람들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심층적인 이유는 고운이 고구려 왕족 출신이라는 데에 있었다. 풍도는 건국 후 자신이 실권을 잡고 있었지만 고운을 군주로 추대해 이를 빌미로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의 호응을 얻어 義熙 4년(408) 고구려는 북연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

② 북연의 멸망과 고구려와의 정치 관계 - 북연 大興 元年(431) 풍발의 동생 馮弘(馮文通)이 燕天王 자리에 올라 軍政大權을 장악했다. 이때는 북위가 서쪽의 혁련씨와 북부의 유연 세력을 제압해 동쪽으로 군사적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던 시기였다. 延和 元年(432) 북위는 북연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위기 상황의 북연은 고구려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고구려는 북위 사이의 중간 지대가 유지되길 바랐고 북위의 직접적인 군사작전 대상이 되길 원치 않았다. 때문에 한편으로 북위에 대해서 사절단을 보내 우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연의 지원 요구를 받아 곧 약 2~3만의 대군을 파견해 북연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고구려는 결과적으로 북연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의 유민들을 고구려로 귀속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③ 북연 풍홍의 피살과 고구려와의 정치 관계 - 풍홍이 고구려로 피난간 후 북위는 고구려에 대해 풍홍을 보내도록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고구려는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지만 당시 군사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북위는 겉으로는 군사 행동을 고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후 고구려 내부에서는 풍홍과 고구려 왕 사이에 정치적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심화되는 과

정에서 풍홍이 피살되었다. 풍홍이 피살된 이유는 고구려 정권과의 정치적 대립뿐만 아니라 그가 南朝로 옮겨갈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남조 劉宋 또한 그의 생각에 동의해 7,000명의 군대를 파견해 마중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풍홍이 피살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내 정치 사정을 안정시키고 북연의 유민들이 고구려 사회에 편입되길 원한 고구려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있었다.

이렇게 북연 정권의 건국과 멸망 과정에서 북연 왕실인 馮氏 가족 운명의 향방은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 2010년 제6기

百济与南北朝朝贡关系研究

백제와 남북조의 조공 관계 연구

于春英 p. 47~52

백제는 漢城, 熊津, 泗沘 3곳의 왕성에 도읍을 정했었고 각 시기마다 대외 정세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조공 정책도 서로 다르게 추진되었다.

① 한성 시대의 백제와 남북조 조공 관계 - 백제의 한성 시대는 기원전 5년부터 시작해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남쪽으로 밀려날 때까지 유지된다. 중국의 남조는 劉裕가 420년 宋을 건국하면서 시작되었고 북조는 439년 북위가 북방 지역을 통일하면서 시작되었다.

② 한성 시대의 백제와 劉宋 사이의 조공 관계 - 백제와 송 사이에는 총 12번의 사신 왕래가 있었다. 처음에는 송이 외교 관계를 통한 정통성 확립의 목적으로 백제에 책봉 사신을 보냈지만 백제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개선되자 고립 상태가 된 백제가 外援의 확보를 위해 송과 조공 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조공 관계를 수립했다.

③ 한성 시대의 백제와 북위 사이의 조공 관계 - 450년 송의 북벌 기도를 저지한 북위는 북방에서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을 받던 백제는 472년 사신을 보내 북위의 고구려 공격을 요구했지만 이미 고구려와 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북위는 거절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백제는 더 이상 조공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국제 정세의 변화로 백제의 도움이 필요했던 북위가 사절을 2차례 보냈지만 모두 백제에 다다르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④ 웅진시기의 백제와 중원 왕조 사이의 조공 관계 - 고구려의 공격으로 웅진에 도움을 정한 백제는 東城王과 武寧王 시기를 거치며 다시 국력이 강성해졌다. 중국의 경우는 세력이 안정되어 있던 북위가 말기적 현상을 보이며 東魏·西魏로 분열되었고, 남조는 劉宋 이후 齊와 梁 왕조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백제의 조공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㉓ 백제와 齊·梁과의 조공 관계 - 480년 백제가 齊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한 후 총 6차례 조공 사신이 왕래했다. 이 과정에서 백제는 국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齊에 관리를 추천해 관작을 책봉해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백제는 줄곧 齊와의 관계 강화에 관심을 쏟았다. 梁이 건국된 후에도 조공을 이어갔고, 梁은 백제의 왕을 征東大將軍, 寧東大將軍 등으로 책봉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작위보다 높은 것으로 이를 통해 양과 백제의 긴밀한 조공 관계를 엿볼 수 있다.

㉔ 백제와 북조의 관계 - 475년의 요청이 거절당한 후 백제는 북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북위가 멸망한 후 동위·서위로 나누어졌는데 비록 이들이 북위 탁발씨가 아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지만, 백제는 이들과 조공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았다.

㉕ 사비 시대의 백제와 남북조 사이의 조공 관계 - 백제는 잠시 신라와 동맹을 맺었지만 얼마 후 고구려와 신라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수세에 놓였고, 중국은 북조와 남조가 통일의 형세로 점차 변해갔다.

㉖ 백제와 梁·陳의 조공 왕래 - 백제는 사비 시대 동안 남조와의 조공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梁과는 문화 교류도 강화해 공동의 종교 신앙과 유학 교육을 배경으로 공고한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陳이 건국한 후에는 총 5차례 조공 사절단의 왕래가 있었는데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梁에 臣屬했던 속국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까닭에 백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한편, 북방이 수에 의해 통일되자 수에 대한 전제의 일환으로 백제도 陳과의 조공 관계 수립에 적극성을 보였다.

㉗ 백제와 北齊·北周의 조공 왕래 - 북제와 북주 시기가 되자 백제는 이전의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조공 관계를 다시 수립했다. 북제와는 총 3차례 사신단 파견이 있었다. 당시 백제는 남조와 북조 두 왕조에 대해서 모두 조공 관계를 맺고 책봉을 받았는데 북제의 책봉 작위가 남조 陳보다 높았다. 북주가 건국한 후에는 2년 동안 2차례나 조공 사절을 보냈지만 곧 통일 왕조 수의 등장으로 조공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㉘ 맺음말 - 백제의 남조에 대한 조공 관계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문화·경제적인 요소가 컸고 남조는 국가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 반면 남조와 북조의 관계는 주로 정치·군사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조공 관계가 정치·경제·문화·군사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이것이 전환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2010년 제6기

关于唐代熊津都督府的几个问题

당대 웅진도독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赵智滨 p. 53~58

顯慶 5년(660) 당이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기존 사료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도 있다. 웅진도독부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의문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① 당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옛 땅에 웅진·마한·동명·금련·덕안 등 5개의 도독부와 대방주를 설치했다. 당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행정구역을 조정해 새로운 방식으로 구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백제는 수도를 居拔城(사비성)으로 삼고 있었으며 지방 최고 행정 체제로 五方政區를 두었다. 또한 政區 아래에는 郡級의 政區가 따로 있었다. 이를 고려해 보면, 당의 5개 도독부와 대방주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 관할구와 五方政區를 기초로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웅진도독부는 사비성 관할구에서 비롯되어 치소를 백제 수도였던 사비성에 두었다. 동명도독부는 北方에서 비롯되어 웅진성에 치소를 두었다. 덕안도독부는 東方에서 비롯되어 치소를 得安城에 두었다. 마한도독부는 中方에서 비롯되어 치소를 古沙城에 두었다. 금련도독부는 西方에서 비롯되어 치소를 周留城에 두었다. 대방주는 南方에서 비롯되어 치소를 竹軍城에 두었다.

② 麟德 2년(665) 8월 이전에 5개의 도독부와 대방주는 하나로 통일되어 웅진도독부가 되었다. 다섯 도독부의 설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독부의 면적이 내지의 州級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협소한 특징이 있다. 당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제 유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對 고구려 전선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구백제 정치 세력 간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는데 당시 신라의 왕이 계림주도독인 상황에서 백제 扶餘隆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관직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5도독부, 1州의 행정 체계를 하나의 웅진도독부 체제로 바꾸었다. 웅진도독부를 최상위에 두고 각각 熊津州·東明州·支淶州·古四州·魯山州·沙湮州·帶方州·分巖州를 설치했다. 이들 지역의 분포를 고증해 보면 옛 백제 영토를 기준으로 지금의 전라북도 동남부와 전라남도 동북부가 비어 있는데 기록이 누락된 것일 수도 있고 이 지역이 당시 신라에 이미 점령당했을 수도 있다.

③ 『신·구당서』, 『百濟傳』에 기록된 웅진도독부 함락 기사가 잘못되어 있다. 기록에 전해오는 부여용이 신라를 두려워해서 京師로 돌아왔다거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걱정해 京師에 귀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록이다. 부여용이 내지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봉선의식 참가를 위해 온 것이고 또한 이후 3품에 해당하는 太常卿의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경사를 떠나 백제 지역으로 돌아가기 힘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만약 반도로 귀향한다면 당시 백제 지역에서 대 고구려 전쟁을 수행 중이던 중2품 유인원과 명령 체계를 정립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후 당이 웅진도독부에 대

한 통치를 포기한 것은 당시 당 국내 정치와 경제적인 고려로 인해 당의 주둔군과 백제의 유민들을 내지로 옮긴 것이지 부여용 때문이 아니다.

④ 餘論 - 웅진도독부 지역이 지금의 한반도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 연구가 교차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연구성과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적지만, 관련 사료가 漢文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보다 연구 조건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3) 『博物館研究』

■ 2010년 제1기

高句麗延優傳說

고구려 연우 전설

姜維東 p. 40~43

① 『삼국사기』에 기록된 연우 전설 - 연우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데 『삼국사기』의 전설 내용과 중국의 사서 기록 사이에 중대한 모순이 발견되어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삼국사기』의 연우 전설은 김부식이 海東의 口碑 자료와 중국 사서의 기록을 결합해 만들어 낸 것이다. 『삼국사기』의 연우 전설 기록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중국의 사서인 『魏書』를 인용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于씨가 연우의 즉위를 돕는다고 하는 海東傳說 부분이다. 전설은 發岐가 무리를 이끌고 왕궁을 공격하자 연우는 궁의 수비를 맡아 대항했다가 3일째 되는 날 왕궁 점령의 어려움을 느낀 발기가 군대를 이끌고 공손씨 정권에 투항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전설의 서사적 구조와 내용에는 고구려 초기 역사적 사실이 투영되어 있는데 발기와 연우의 싸움에서 다른 國人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고구려 초기 계루부를 비롯해 각 部들의 세력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이와 아울러 고구려 후기에 權臣들이 '대대로'를 쟁탈하려는 싸움과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에는 우씨가 연우의 즉위를 돕는 내용이 없어 연우가 채용한 전설의 근원을 찾기는 힘들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가 중국 사서와 海東의 전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지나친 논리적 억지를 부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실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학자들이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야기했다. 연우의 전설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중국 역사에 나타나는 伊夷模와 位宮의 사실들을 뒤섞어 버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高句麗世系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② 중국 역사의 伊夷模가 東遷했다는 기사는 『삼국사기』 중의 연우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 중국 역사서 『삼국지』에 기록된 伯固의 사후 두 아들 拔奇·伊夷模가 벌인 왕위 다툼의 내용은 『삼국사기』의 「故國川王本紀」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김부식이 억지로 편집한 것으로 실제 『삼국지』의 내용은 연우 전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국천왕 伊夷模가 179년에 즉위하는데 이때 拔奇가 무리를 이끌고 공손강에게 투항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 반면, 山上

王位宮의 즉위 초기 發岐가 공손도에게 투항하는 것은 197년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 둘째, 拔奇와 發岐의 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둘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국천왕과 산상왕의 事迹이 너무나도 유사하다. 즉위 과정과 즉위 후의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넷째, 중국 사서 기록에 근거해 보면, 伯固와 公孫度는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伯固와 伊夷模 사이에 고국천왕이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국천왕과 산상왕 위궁(연우)은 같은 기사를 김부식이 자의적으로 나누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우선 김부식의 역사학적 자질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마도 김부식이 해동의 전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기록했다가 다시 고국천왕을 미화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 아닐까 추정된다.

③ 『삼국사기』의 고구려 王系에 대한 정리 - 중국 정사 중에는 고구려왕 伊夷模와 位宮의 사실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世系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宮-伯固-伊夷模-位宮이 증조부, 조부, 부, 아들의 관계로 되어 있는데 『후한서』에는 宮과 伯固 사이에 '遂成'이라는 인물을 넣어 宮과 伯固가 조부와 손자 관계로 된다. 이 상황에서 김부식이 『삼국지』의 인물과 『후한서』의 인물들을 모두 채록하려 하자 世系圖가 뒤엎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의 극복을 위해 김부식은 宮·遂成·伯固를 형제 관계로 처리해 宮와 位宮의 관계를 증조부와 증손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인물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김부식의 이와 같은 조작으로 인해 『삼국사기』에 많은 잘못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연우 전설이 두 가지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사례에 해당된다.

■ 2010년 제2기

以朝鮮古代史早期阶段为中心谈朝鮮通史的认识体系

조선 고대사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본 조선통사의 인식 체계

苗威 p. 63~73

1. '朝鮮史'의 위치 정립에 대해

어떤 국가든 국사는 당연히 현재 국제법에서 규정한 국경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경 내에서 발생한 역사는 모두 해당 국사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朝鮮史'는 응당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역사일 것이다. 국내의 학계에서 일부 학자는 중국 동북 지역을 한국 고대사의 영역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고조선의 종족과 강역 문제이다. 학술상의 異論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정치에 연관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정치화하고, 심지어 현재 영토와 연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역사상 고조선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대 동북 변경의 할거 정권으로, 단지 이러한 고대 부족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부분이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를 서술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할 뿐이다.

2. 한반도의 석기 시대·청동기 시대와 고대 부족 국가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길어 일찍이 구석기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에 한반도에 거주했던 고인류는 북경원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한 관계의 밀접함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5,000년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견해는 비교적 객관적이며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종결되었다.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중국 춘추 후기에 시작되어 중국의 전국 후기인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종료하였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청동기 시대의 고대 부족 국가는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한반도 동북부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고고 문화는 중국의 延邊 지역 및 牡丹江 지역 동부와 동일한 유형으로 그 주인은 肅慎族이었다. ② 해외의 '小昊之國', '羲和之國'과 '靺夷'族 등이다. 중국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동부 연해의 동이족으로 殷·周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는데, 일부 동이족이 요동반도 및 한반도로 이주하게 되었다. ③ 한반도 서북부의 '良夷'는 곧 樂浪夷로 한반도 대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고대 민족이다. ④ '古之辰國'과 기씨 조선으로, '古之辰國'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으며, 삼한이라는 명칭은 중국 요서의 '韓侯之國'에서 유래한 것이다.

3. 한반도의 철기 시대와 고대 부족 국가

한반도의 철기 시대는 전국 말기에 시작되었는데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발굴된 철기가 전국 시대 燕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철기 시대의 고대 부족 국가는 대개 3종류로 나뉜다. ① 옥저족과 동예족이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숙신은 중국 연변 지역 및 한반도 동북부에서 거주하였는데 철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일부 穢人이 이주하여 선주민이 숙신과 결합해 沃沮族을 형성했다. 옥저 북쪽의 숙신족은 읍루라 개명했는데, 이들 일부가 한반도 강원도로 남하해 東穢族이 되었다. ② 전국 말에서 서한 초에 이르러 현재의 한강 이남에 三韓族이 출현하였다. ③ 眞番은 현재의 황해도 지역에 거주하며 慈悲嶺을 경계로 고조선과 인접하였다. 위씨 조선은 서한 시기에 성립하여 한에 外臣을 칭하였다.

4. 한반도 북부의 중국 군현 시대

서한은 한반도에 蒼海郡을 설치했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창해는 곧 동해로, 창해군은 동예·동옥저 및 북옥저 지역일 것이다. 이후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4군을 설치하였다. 이들 군현은 자체적인 廢置와 고구려와의 대립 등을 거치며 314년까지 존속했다.

5. 餘論

고구려 문제에 대해 필자는 이것이 중국 고대 동북 변경 소수민족의 할거 정권이며, 중국 동북 변경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점하였으며 일부 토지와 유민이 통일신라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한국 고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중원 왕조와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 쌍방의 교류와 전쟁 등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중국의 침략으로 일괄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대 한국의 사대 외교는 역사적·변증적 인식을 해야 하며 근대의 '식민사관'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의 인식에 있어 그 기본적 전개는 북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三韓-신라와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사의 주요 노선이다.

■ 2010년 제3기

评高句丽源于‘商人说’

고구려 상인 원류설에 대한 비평

刘子敏 p. 52~58

고구려족의 원류에 관한 중국 학계의 수많은 설 중에서, 耿鐵華의 ‘商人說’이 가장 믿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겠다.

1. 고구려족의 원류를 탐구할 때, 경철화는 고구려의 ‘선조’와 고구려 자체를 혼동함으로써 상인설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예컨대 ‘成周之會’에 참석한 고구려의 선조 高夷를 고구려 자체와 동일시하여 양자를 등치시켰다. 고이는 燕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낙후한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성립하였다. 물론 고이는 고구려의 선조이고 고구려족의 원류이기는 하나, 고구려인은 철기 시대로 진입한 이후 탄생한 민족으로 고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고이 또한 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동북 지역의 원시인이 분화 발전한 민족이다.

2. 경철화가 상인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箕氏朝鮮’과 고구려가 한데 뒤섞인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고구려의 원류가 商人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자가 세운 나라가 언급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철화는 고조선에 대한 전문적 연구 없이 그의 저작에서 기자와 기자의 나라에 대해 타인의 관점을 답습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술이 오락가락하였다. 예컨대 고구려(실제로는 고이)의 분포 문제에서도 매우 모호하였다. 다음으로 기자와 ‘己其侯’ 문제에 있어서도 경철화는 명확하지 못했다. 기자는 작이지 후작이 아니며, 주 조정의 대신이지 지방 제후가 아니었다. 張碧波 역시 요서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己其侯’라는 명문은 기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3. 경철화가 고구려의 문화 습속을 모두 商의 문화로 본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는 고구려의 원류를 상으로 보면서 12개의 ‘근거’를 들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경철화는 고구려의 五部가 殷의 五方土에 영향 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오행설은 전국시대 이후 유행하였으므로 고구려 건국 이전에 전해졌을

수 없다. 고구려의 음악 공동체를 은대의 음과 연결시킨 것이나 은의 國人/野人을 고구려의 城民/谷民에 대비하고 은대 귀족의 ‘家’를 고구려의 大家·諸加와 연결한 것은 모두 논박할 가치도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된 卵生 설화나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빈번히 지내는 종교적 습속을 통해 은과 고구려의 상관성을 찾을 수는 없다. 또한 흰색의 숭상, 형제간의 계승, 厚葬 습속 등도 단지 은과 고구려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물론 부여와 고구려 습속에는 은대의 요소가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문화 전파의 결과일 뿐이다.

4. 경철화는 고구려의 고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인설을 주장했다. 먼저 고이의 문화와 고구려의 문화를 혼동하였다. 고구려의 ‘청동 문화’를 언급하였으나 고구려는 철기 시대의 민족이고 고이는 청동기 시대의 민족이다. 또 경철화는 상 문화에 앞선 紅山 文化가 동북 지역과 민족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며 고구려의 고고 문화에서 수많은 先商文化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산 문화가 고이의 선조인 北發人의 고고 문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으며, 홍산 문화 역시도 근본적으로 선상문화라 할 수 없다.

(4) 『北方文物』

■ 2010년 제1기

定安國小考

定安國 소고

梁玉多 p. 70~74

1. 정안국과 兀惹部の 관계

定安國은 발해 유민이 요의 통치에 항거해 세운 국가로 장기간 요에 저항하였다. 관련 사료가 매우 적어 정권의 구체적인 정황은 알기 어려우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兀惹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을야부는 族名이며 사료에는 遼代에 처음 보이나 적어도 발해 시기에는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을야부는 발해 이전에는 흑수말갈의 일파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가 멸망할 때 이들은 산지로 들어가 거란의 토벌을 피하였고, 928년 東丹國이 남천하고 거란의 발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자 산지에서 나와 反遼 활동을 시작하며 국가를 세우고 국호를 정안국이라 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정안국이 발해의 定理府와 安邊府에서 나온 국명이라고 보지만, 정안국의 영역은 옛 정리부와 안변부 지역만을 포함한 것이 결코 아니며, 이들 지역이 중심도 아니었다.

정안국은 대요 투쟁을 위해 북송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북송과 왕래한 국서의 내용에서 북송과 정안국이 반요 군사 동맹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986년 북송은 요를 정벌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국서의 내용처럼 정안국이 군사를 내어 협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989년과 991년 정안국은 여진의 사신 편에 북송에 조공하였는데, 북송의 요 정벌이 실패한 이후로 정안국 단독으로는 요의 세력을 막을 수 없어 992년 이후부터 1003년까지는 요에 조공하였다. 요는 을야부의 조공을 받으면서 동시에 을야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1004년에 이르러 을야부는 다시 반요 활동을 전개하였다. 요는 즉각 이를 토벌했는데, 이후 을야부나 정안국에 관련된 사료가 없다. 다만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1017년을 전후하여 정안국은 멸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안국의 兀惹人은 사료에 보이지 않는데, 여진족에 병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정안국과 을야부 양자를 별개의 반요 정치체제라고 보는데, 후술할 燕頗의 활동과 정안국이 북송에 보낸 국서를 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며 『遼史』의 兀惹城은 곧 정안국을 가리킨다.

2. 을야부의 위치

을야 혹은 정안국의 위치는 압록강 상류설, 鴨綠府설, 하얼빈 일대설 등이 있다. 그러나 정안국의 위치를 고증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① 북송과의 교류에서 여진 사신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여진과 북송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② 요의 통치 중심 지역에서 멀고 수비가 용이해야 한다. ③ 원 거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지역이어야 한다. ④ 고고학적·지리학적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상의 조건에서 보면 정안국의 중심은 현재의 綏芬河 중상류 지역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안국의 도성인 烏舍城은 현재의 五排山城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성은 1972년에 발굴되었는데, 보고서는 이를 옥저인이 읍루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오배산성은 그 수축 방식이 발해 초기의 산성이므로 발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산성의 방어 방향은 서쪽이며, 이는 발해의 상경 방면으로 발해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이러한 방어 방향이 불합리하지만 발해 멸망 후 요의 침략에 대비한 것으로 본다면 명확히 이해된다.

3. 연파의 起義

燕頗는 발해인으로 요 景宗 시기 임시로 黃龍府의 衛將이 되었다가 975년 군사를 이끌고 거란에 반란하였다. 위장이라는 직책은 『遼史』 「職官志」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정식 관명이 아니라 관습적인 호칭이었을 것이다. 연파가 군사를 끌고 황룡부에서 이탈한 이후, 거란은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발해 유민을 남쪽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연파는 정안국과 연합하여 요에 항거했는데, 송 태종은 당시 정안국왕이 烏玄明에게 국서를 내리는 동시에 연파에게도 조서를 보냈다. 995년 연파와 정안국은 합세하여 요의 鐵利部를 공격하였다. 이후 연파는 정안국과 함께 일시 요에 항복하였다가 다시 요에 항거하였다. 연파는 발해인으로 그의 군사는 대개 발해인이었을 것이며, 때문에 송과 요에서도 연파군을 발해라고 칭하였다. 開泰 연간 요 聖宗은 발해를 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遼史』 中華書局本에서는 이를 오류라 보고 高麗 정벌이라고 교감주를 작성했다. 그러나 성종이 친정한 발해는 곧 연파를 가리키는 것이다. 연파는 40년간 반요 투쟁을 지속하여 발해 유민을 고무시켰으며, 이후 발생한 大延琳의 기의 등에 영향을 주었다.

■ 2010년 제2기

玄菟郡經略夫余微議

현토군의 부여 경영에 대한 간략한 논의

赵红梅 p. 67~70

夫余는 西漢 초기에 지금의 吉林省 경내에 건립된 최초의 노예제 정권이다. 이에 대한 여러 논문에

서는 부여의 종족명·종족 원류·건국 신화·사회 성격·경제 문화·습속·지리적 위치 등을 언급하여 兩漢魏晉 시기에 중국 정부가 부여를 효과적으로 통할했다는 것을 밝혔다.

1. 기원전 75년~기원 238년-현토군이 부여왕의 장례용 옥갑을 관장함

부여라는 명칭은 『史記』 「貨殖列傳」에서 최초로 보인다. 늦어도 서한 초기에는 부여가 이미 燕의 북부에서 烏桓·穢狔·고조선 및 진번 등의 고대 국가와 병존하였으며, 한대에 전성기를 맞아 송화강 중류의 濊城과 鹿山을 중심으로 넓은 영역을 차지하였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현토군은 昭帝 시기인 기원전 82년 '句驪'의 땅으로 옮겨지면서 부여를 관할하였다. 한 왕조는 현토군을 통해 부여왕에게 玉匣을 하사하였는데, 이는 현토군의 치소가 고구려현으로 옮겨진 기원전 75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107년 현토군이 다시 內遷하였으나 여전히 옥갑의 하사를 관장하였고, 이는 공손씨 정권이 멸망한 238년까지 계속되었다.

2. 기원 121~122년-현토군이 두 차례 부여군을 파견해 고구려를 공격함

부여와 한 왕조의 왕래는 비교적 빈번하였다. 한 安帝 시기인 121년 고구려가 수천 군사로 현토군을 공격하였는데, 이에 부여왕은 아들 尉仇臺로 하여금 2만 군사를 이끌고 요격하도록 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하였다. 다음해 2월에는 부여왕이 아들을 보내 현토를 구원하여 고구려 등을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현토군이 부여군을 통해 고구려를 두 차례 공격한 것 외에도, 부여는 曹魏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군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위와 부여 간의 우호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귀속 관계 또한 입증하는 것이다.

3. 현토군에 대한 부여의 배반과 복속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부여가 줄곧 현토군의 통할 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여는 때론 낙랑과 현토군을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다시 조공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는 등 배반과 복속을 거듭하였다. 한 말 공손씨 정권이 등장하자 부여는 현토군의 통제를 벗어나 공손씨 정권에 예속되기를 청하였으며, 공손씨 정권의 멸망 후 부여는 조위 조정의 책봉을 받았으며 조위에 칭신하고 조공하였다. 역대 중원 왕조는 부여에 대해 이이제이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치적 통치 질서를 안정시켰으며, 부여의 경제 발전 수준은 주변 다른 종족보다 빠를 수 있었다.

■ 2010년 제2기

对渤海的建国年代和建国地的讨论

발해의 건국 연대와 건국 지역에 대한 토론

郑永振 p. 88~92

渤海의 건국 시기와 건국 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 사료 기재는 자세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이한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당 聖歷 연간설, 698년설, 696년설, 703년설, 684년설, 678년설 등이 있다. 건국 지역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는데, 天門嶺 전투 이전에 遼河 유역에서 震國이 성립되었다가 이후 東牟山으로 옮겨 갔다는 설과 천문령 전투 이후 挹婁의 옛 땅인 동모산에 이르러 건국을 건국하였다는 설이 있다.

건국 연대에 대해 678년설과 698년설은 『陝溪太氏族譜』·『帝王韻紀』 등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토론할 가치가 없다. 발해의 건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舊唐書』·『新唐書』·『五代會要』의 기사를 종합하면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 『구당서』는 營州를 나와 동쪽으로 이동할 때의 지도자를 대조영과 걸사비우로 기록한 반면, 『신당서』와 『오대회요』는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로 기록하였다. 둘째, 영주를 떠나 遼水를 건넌 정황에 대해 『구당서』는 구체적 정황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신당서』는 요수를 건넌 것을 인정하였고, 『오대회요』에서는 요수를 건너 고려의 옛 땅에서 칭왕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천문령을 지나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역에 대해 『구당서』는 천문령을 지나 桂樓의 옛 땅인 동모산에 도달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신당서』는 천문령을 지난 것은 기록했으나 도달한 구체적 지역을 적지 않고 단지 건국하였다고만 하였으며, 『오대회요』는 천문령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최종적으로 읍루의 옛 땅에 도달하였다고 기록했다. 넷째, 건국시의 국명과 건국 연대에 대해 『구당서』는 성력 연간 振國을 세웠다고 기록했고 『신당서』는 연대 기록 없이 국호를 震國이라 하였다고 기록했으며, 『오대회요』에는 구체적 연대와 국명이 없다. 이상 3종의 사료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충하면 건국의 과정은 다음 9개 단계로 나뉜다.

1. 이진충의 난을 틈타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영주를 떠남.
2. 요수를 건너 요동에 도착함.
3. 고려의 옛 땅에서 왕을 칭함.
4. 측천무후가 걸사비우를 許國公, 걸걸중상을 震國公에 봉하고 죄를 사면하나 걸사비우가 이를 받지 않음.
5. 측천무후가 李楷固를 보내 걸사비우를 죽임. 이때 걸걸중상은 병사하여 대조영이 지위를 계승함.
6. 대조영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의 집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도주함.
7. 이해고가 천문령으로 추격하여 양군이 크게 싸움. 이해고가 대패함.
8. 이때 거란이 돌궐에 항복하여 공격로가 단절되어 다시 토벌하지 못함.

9. 대조영이 읍루의 옛 땅인 동모산에서 건국함.

그러나 이들 사료에는 구체적인 건국 연대가 없다. 일본의 『類聚國史』에는 文武天皇 2년, 즉 698년에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李楷固가 측천무후의 명에 따라 결사비우를 죽이고 천문령에서 싸웠다는 기록과 698년 발해를 건국했다는 기록은 시기적으로 서로 모순되는데, 698년 발해가 요동에서 건국하여 震國이라 했다는 것은 걸걸증상이 영주를 떠나 고려의 옛 땅에서 칭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국명은 震國이며, 이후 결사비우와 걸걸증상이 죽고 대조영이 700년을 전후해 동모산에 이르렀다가 713년 당으로부터 渤海郡王에 봉해져 비로소 발해라 칭하였다. 비록 건국의 건국자는 걸걸증상이나 오래지 않아 병사하고, 당과 전투하고 동모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통수가 대조영이었던 것 때문에 사서에는 모두 발해의 건국자를 대조영이라 칭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을 통해 발해인들은 자신의 건국을 698년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 2010년 제3기

渤海上京城出土的马球与渤海人的马球运动

발해 상경성 출토 폴로 공과 발해인의 폴로

王勇 p. 14, 118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의 渤海 上京城 유적에서 출토된 폴로 공은 1970년대 발견되어 黑龍江省 渤海上京遺址博物館에 수장되어 있다. 공은 담황색이고 일부 붉은색을 칠한 흔적이 있으며, 재질은 상아로 직경은 6cm, 중량은 200g이다. 표면에는 무수한 타격의 흔적이 있다.

고대 폴로의 기원에 대해 사람들은 당대 이란에서 토번을 거쳐 장안 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며, 어떤 이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가장 이르기는 춘추전국 시기에서 한위 시기에 이미 유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정론은 없다. 그러나 당대 궁정에서 태종 시기 시작하여 당조가 멸망할 때까지 황제 귀족 문무 관원에서 문인, 부녀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폴로는 송요금 시기에 상당히 유행하여 명청 시기에 비로소 쇠락하기 시작했다.

발해가 상경성으로 천도하였을 때는 바로 당대에서 폴로가 유행하던 시기로, 이 스포츠는 발해로 전파되었고 그와 인접한 고려·일본 등에도 당으로부터 전파되었다. 822년 일본에 파견된 발해 사신 왕문구가 당시 일본 京城에서 거행된 대회에 참여하여 높은 실력으로 일본 궁정의 상찬을 받았다. 이 시기에 발해의 상층부 역시 폴로가 유행했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달했음을 설명한다. 발해 멸망 후 요 동경 지역의 발해인은 계속 폴로 습속을 보존하였다.

고고학 조사로 발견된 고대 폴로 공의 실물은 매우 작으나 발해 상경성에서 출토된 폴로 공은 가장 오래된 폴로 공으로 중국 폴로사 연구, 특히 폴로 공의 재질과 유형 연구에 귀중한 실물 자료가 된다.

■ 2010년 제3기

浅析高句丽古坟壁画中的建筑形象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건축 양식에 대한 분석

张明皓 p. 45~50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건축 도상을 소재로 한 벽화들이 있다. 그 주요한 소재로는 도시의 모습과 궁전 건물의 형상 등이 포함된다.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고구려의 도시 모습과 방어 시설, 도시의 구조 등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자료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도시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集安의 三室塚, 평양의 龍岡大墓, 藥水里 고분, 압록강 남안의 遼東城塚을 들 수 있다. 궁전을 벽화로 그린 주요한 고분으로는 안악1호묘, 삼실총, 通溝12호묘, 八清里古墓, 雙楹塚 등이 있다.

벽화로 그려진 도시는 대부분 方形的 平原城이다. 특히 요동성총은 내외성으로 나뉜 요동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당시 고구려 성곽의 전모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벽화에는 성벽뿐 아니라 성문과 角樓, 馬面 등을 묘사하였는데, 요동성총의 벽화에서도 역시 일정 간격의 마면과 옹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성벽에 대한 묘사는 용강대묘의 것이 가장 명확하게 남아 있다. 성벽과 闕·鷓尾에 대한 묘사에서 敦煌의 북조 벽화와 유사하며, 이는 요동성총이 북조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음을 반영한다.

궁전의 구조는 안악1호묘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고구려 궁전 건축의 중축선 중심 구조의 변화 양상은 중원 왕조의 궁전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曹魏 이후 엄격하게 남북 축선에 따라 건축된 궁전 건축은 고구려의 궁전 건물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 궁전은 주로 북위와의 교류를 통해 낙양 궁전의 구성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분벽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 및 방어 체제, 도시 건축물의 모습 등을 이해하고 궁전 구조의 주요한 특징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고구려는 건축 구조 등의 측면에서 중원 왕조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 2010년 제4기

论渤海国的建国集团与国号·年号

발해의 건국 집단과 국호 및 연호

郑永振 p. 64~69

발해의 건국 집단에 관한 문제는 발해 연구에서 민감하고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이다. 대체로 중국 학자들은 발해의 주체 민족을 말갈인으로 보며, 북한 학자들은 '高麗別種'을 고구려인으로 보며, 한국 학자들은 고구려와 말갈의 중간적 존재로 본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는 발해 건국 집단이 말갈이냐 고구려 유민이냐는 문제와 함께, 발해사를 중국사로 볼 것인가 한국사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발해 건국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는 營州의 반란과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참여했던 집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 사료에 기재된 이들에 대한 기록은 대동소이한데, 종합적으로 보면 건국 집단의 주체는 고려별종 혹은 附高麗者, 靺鞨酋 혹은 靺鞨反人, 高麗 패잔 세력 혹은 고려 집단이다. 고려 별종과 고려 패잔세력의 수장은 걸걸중상과 아들 대조영이다. 말갈추 혹은 말갈반인의 수장은 걸사비우로, 뒤에 대조영 휘하로 병합되었다. 이들 3개 집단 중 고려 패잔 세력은 고구려 멸망 후 영주로 이주된 고구려 유민으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다. 나머지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이끈 집단은 실제로는 하나의 집단이며, 모두 속말말갈이다. 그렇다면 왜 사서에서는 이들 집단을 굳이 구분하였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말갈 집단에서도 서로 다른 부락 혹은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친 집단이기 때문이다. 걸사비우의 집단은 북조 말부터 당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內附하였거나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영주에 거주한 속말말갈이며, 대조영의 집단은 말갈 혹은 속말말갈이긴 하나 고구려에 신속하여 장기간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으며 고구려 멸망 이후에 영주로 사민된 집단이며, ‘高麗別種’ 또는 ‘附高麗者’라 기록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발해의 초기 국호에 대해서는 처음에 振國 또는 震國이라 하였다가 이후 발해를 칭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래 처음의 국호를 靺鞨이라 하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관련 사료를 검토해 보면 발해인은 스스로를 振國 또는 震國이라 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 渤海靺鞨이나 靺鞨國, 高麗國, 高麗國王 등은 모두 주변 국가의 발해에 대한 호칭이며, 이는 그들이 발해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함으로써 부정확한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발해의 연호 사용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新唐書』 「渤海傳」의 기록에 따라 2대 大武藝부터 ‘仁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일부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이 대조영 때부터 ‘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확한 사료인 『陝溪太氏族譜』를 인용한 잘못된 주장이다. 金毓黻이 『渤海國志長篇』에서 대무예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현재 국내의 대부분 발해사 학자들이 받아들인 정설이다.

■ 2010년 제4기

渤海上京城研究補遺

발해 상경성 연구 보유

趙虹光 p. 70~76

1. 상경성의 궁전 조영 연대와 三朝制

상경성 宮城의 규모는 中京의 ‘西古城’에 상당하며, 발굴된 상경성 궁성 3·4·5호 궁전과 서고성의 1~5호 궁전의 구성과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서고성의 중심부에 내성의 정문이 위치한 것

과 달리, 상경성은 2호 궁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근거로 하면, 상경성의 궁성 내의 궁전은 각기 다른 건축 연대를 가지고 있다. 관련 문헌을 통해 추정하면 상경성 궁성의 2·3호 궁전은 비교적 초기의 건축물이며, 1호 궁전은 건축 연대를 확정할 수 없으나 후기에 增修·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상경성의 三朝制는 당의 장안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장안성의 궁전 건축은 太極宮과 大明宮으로 태극궁의 삼조는 남쪽부터 承天門·太極殿·兩議殿이며, 대명궁의 삼조는 含元殿·宣政殿·紫宸殿이다. 대개 상경성의 삼조제는 태극궁과 대명궁을 모방하였다고 보는데, 궁전 건축 연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定說은 없다. 발해 중경의 서고성도 비록 삼조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궁전 건축의 계획에서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상경성 궁전의 殿堂·廳堂·餘屋

『營造法式』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은 殿堂·廳堂·餘屋으로 나뉘는데, 발해 상경성의 궁전 건축물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영되었다. 상경성 제4호 궁전이 중축선 상의 주요 건물로 전당에 해당하며, 5호 궁전의 5호 房址의 구조는 廳堂에 해당한다. 궁전의 서북부에 위치한 5호 궁전 1호 房址는 餘屋에 해당한다.

3. 상경성에서 출토된 와당의 구분

상경성에서 출토된 와당은 크기에 따라 4가지로,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크기에 따른 분류로는 A형(직경 16.4~17.6cm), B형(직경 15.2~16cm), C형(직경 13~13.5cm), D형(직경 10~11.8cm)으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는 1식은 테두리가 비교적 깊고 표면의 연꽃 무늬 요철이 깊으며, 무늬의 윤곽선이 세밀하며 연밥의 모양이 두텁다. 2식은 테두리가 약간 깊으며 표면의 연꽃 무늬는 비교적 얇다. 연밥의 모양은 약간 두터우며 꽃잎 사이를 十字紋으로 장식하였다. 3식은 테두리가 얇고 표면의 연꽃 무늬도 얇다. 꽃잎과 연밥 모두 홀쭉하며 꽃잎 사이에 十字紋이 장식되어 있다.

■ 2010년 제1기

靺鞨人种考

말갈인종고

张全超·朱泓 p. 97~101

1. 말갈인종 문제에 관한 간략한 연구사

1980년대를 전후하여 구소련 학자들이 인류학의 각도에서 말갈 인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주로 遼東 지역의 트로이츠키 말갈인과 사푸카 말갈인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트로이츠키 묘지는 러시아 원동 지역의 아무르주 이바노프카에 있으며, 벨랴야강 남안에 위치한 현존 최대의 말갈 묘지이다. 1970년대 구소련은 전후 5차에 걸쳐 발굴을 진행하여 묘 210기를 발굴하였다. 묘장 연대는 唐代 중후기이다. 1977년 출판된 트로이츠키 묘지 보고서는 말갈 문화의 트로이츠키 유형을 설정하였다. 구소련의 유명한 인류학자인 바실리 미하일로비치 알렉세예프는 트로이츠키 묘지에서 확보된 60여 개의 두개골 표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말갈인은 특히 편평한 얼굴과 鼻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몽골 인종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말갈인은 두개골 특징상 시베리아몽골인에 가까우며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朱泓은 트로이츠키 묘지의 인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말갈 인종은 단순한 바이칼 유형 시베리아몽골인이 아니라 동아시아 인종과의 혼혈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푸카 묘지는 러시아 아무르주 경내에 있다. 1980년대 네스테로프 등이 중심이 되어 45기의 묘기를 발굴하였으며, 도기·청동기 등의 부장품을 발굴하였다. 이는 측정 연대에 따르면 680~858년 사이이며 부장품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략 7~9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다. 사푸카 묘지에서는 45개의 인골 표본이 발굴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말갈 인골 표본의 특징은 몽골 인종의 범주에 들어가며 많은 분석을 통해서 말갈인의 특징은 현재 遼東 인종의 특징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말갈인의 인종적 특징은 서시베리아 지역 주민의 형태에 연해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인종의 특징성이 결합했다는 것이다.

2. 말갈과 관련 고대 인종의 클러스터 분석

말갈 인종과 관련 고대 인종의 유형적 연관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 외바이칼 지역에서 발굴된 13개 인종에 대해 17개 항목에 걸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석

기~중세기 시대의 바이칼 지역 및 동북 지역 주민과 말갈 인종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3개 인종은 대체로 두 개 군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군은 말갈 인종의 사푸카와 트로이츠키 외에 신석기~중세기의 바이칼 지역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 두 번째 군은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 시대 이래의 고대 인종을 대표하고 있어 말갈 인종이 중국 동북 지역 고대 인종의 두개골 특징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이칼 지역 신석기 시대 이래의 고대 인종에 더욱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주에서 다시 분석하면 트로이츠키 말갈군과 사푸카군도 다른 범주에 속하는데, 트로이츠키군은 바이칼 지역의 석판묘 문화, 중세기 시대 및 돌궐군에 속하여 고몽골고원 유형에 가깝고, 사푸카군은 바이칼 신석기군에 속해 고시베리아유형에 일정 정도 접근하였다. 양자는 비록 같은 말갈 문화에 속하지만 그 유형의 특징은 차이를 보여 말갈 인종의 형성 과정과 복잡성, 다원성을 암시하고 있다.

3. 말갈과 관련 현생 인류의 클러스터 분석

말갈 인종과 현생 인류의 유형적 연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퉁구스·에벤키·오로치 등의 7개 인종과 8개 항목에 걸쳐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도에 따르면 9개 인종은 두 개의 군으로 나뉘는데 트로이츠키 군은 현대 바이칼 지역의 퉁구스·에벤키 등과 유사하며, 사푸카군은 나나이족과 유사하다. 트로이츠키 말갈인과 사푸카 말갈인이 각기 다른 원형에 속하며 서로 다른 민족 형성 과정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4. 몇 가지 인식

이상의 분석을 통해 말갈 인종의 바이칼 지역 및 중국 동북 지역 거주민과의 연관성 및 현생 바이칼 인종군과의 연원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인식을 얻었다.

① 종합해 말하면 말갈 인종은 특징상 고대부터 바이칼 인종의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트로이츠키 말갈인과 사푸카 말갈인은 두개골 특징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푸카 말갈인은 고시베리아 유형에 더욱 가깝지만 트로이츠키 말갈인은 고몽골고원 유형에 더욱 가깝다. 주의할 점은 사푸카 말갈 인종은 대체로 북조 말기에서 唐代, 트로이츠키 말갈인은 당대 중후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특징상의 차이는 아마도 서로 다른 인종으로 구성되어 온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이 두 부류의 말갈 문화에 남은 차이와 말갈인의 인종적 구성의 다원성을 낳았다는 것이다.

② 고대 인종의 부류 중에서 트로이츠키 말갈인과 중세기 시대 바이칼 고대 인종군과 돌궐 인종의 유형은 비교적 가까워, 이 시기 바이칼호에서 옮겨온 문화의 영향을 암시하며 고고학 연구 결과 역시 이 시기 흑룡강 연안 지역의 돌궐 계통 문물을 통해 돌궐 문화의 침투를 반영하고 있다.

③ 말갈인의 최종 귀결 문제에 대해 우리는 말갈 인종이 현대 바이칼 인종의 각 민족 형성 과정 중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트로이츠키 말갈 인종이 특히 퉁구스·에벤키 등의 민족 형성 과정에 많

은 영향을 주었으며 사푸카 말갈인은 黑龍江 유역의 나나이족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 2010년 제1기

景泰·天順年間建州三衛女真與明朝·朝鮮的關係

景泰·天順 年間 建州三衛女真과 명·조선 사이의 관계

刁書仁 p. 102~108

明 宣德 말기부터 나타난 동북 변경의 위기는 正統 연간에 심화되었다. 정통 7년(1442) 몽골의 兀良哈이 경사와 요동 사이의 요지인 山海關 동쪽의 廣寧前屯衛를 공격하였다. 명 조정은 동북 변경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여 도찰원우검도어사 王翱을 요동 제독으로 임명하는 한편, 建州三衛女真에 대한 적극적인 慰撫를 시행하였다. 정통 13년 정월, 英宗은 여진 추장에 조서를 내려 이해득실을 설명하고 여진의 변경 침략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景泰 원년(1450) 4월, 건주위 수령인 李滿住 등이 명의 변경을 침략하였다. 王翱의 거듭된 주청으로 명 조정이 여진을 공격하려 하자 건주 여진은 이를 피해 婆猪江 유역으로 이주하였다.

건주삼위가 파적강으로 이주하여 직면한 것은 생존 문제였다. 건주여진은 재해를 만나면 명 요동도사에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건주여진은 정통 2년의 습격 이래 10여 년간 관계가 단절되었던 조선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태 2년 8월, 이만주는 金納魯 등을 江界에 파견하여 조선에 식량을 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문종이 막 즉위하여 세종 시기의 대여진강정책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였다. 여진에 대한 조선의 우호적 태도는 명 조정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경태 3년 賀千秋使를 통해 조선에 내린 영종의 조서에서는 명 조정이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며 사사로운 왕래를 금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조선은 명의 조칙을 따르지 않았으며, 경태 6년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小天朝’ 조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여진을 초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진이 빈번히 조선에 조공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경태 7년 이만주는 아들 李豆里 등을 조선에 파견해 공물을 바쳤다. 『조선왕조실록』은 당시 세조가 韓確에게 ‘명이 여진 수령에 은상을 베풀어 이이제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조선이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라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통연간 이후 건주여진이 압록강 유역으로 옮긴 이래 조선은 변방의 안전을 위해 여진이 함길도를 통해 한양까지 이르도록 하였는데, 이때는 파격적으로 평안도를 통해 오게 하는 편의를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來朝하는 여진은 더욱 증가하였다.

명 조정은 조선과 건주여진과의 왕래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天順 3년 3월, 명은 영종의 조서를 조선에 보내 종주국 자격으로 조선과 여진의 왕래를 힐문하였다. 명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번속인 조선과 여진의 사적 왕래는 중반 체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며 조선은 여진에 대해 賜與할 어떤 권

리도 없었다. 세조는 이에 대해 여진이 변경을 침략할 것을 염려한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변명하였으나 명은 조선에 왕래하는 여진인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다시는 왕래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명은 건주여진의 수령에게 조칙을 내려 조선과의 왕래에 대해 경고하였다. 세조는 명에 사신을 파견해 이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이는 명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명 조정은 조선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재차 조선에 조칙을 내려 조선이 여진에 관직을 수여한 사실을 지적하며 조선은 명과의 군신 관계 외에 여진과의 횡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세조는 명 조정의 권위를 침범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시 명에 사신을 보내 이를 사죄하였다. 이와 동시에 건주여진 역시 명에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

이상과 같은 건주여진과 명·조선 사이의 관계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먼저 건주여진이 요구하는 물자를 명이 충분히 사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다음으로 여진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이의 알력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은 변경의 안정과 ‘小天朝’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진에 대한 명의 관할이 약화된 틈을 타 여진을 초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삼자 간의 관계는 정통 이래 명의 국력이 약화되어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위신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 2010년 제4기

東夫余考

동부여고

楊軍 p. 49~55

조선 시대 학자들은 東夫餘에 대해 여러 견해를 갖고 있었다. 첫째, 동부여는 후일 주몽에 의해 병탄된 沸流國이다. 둘째, 동부여는 중국 正史의 濊이다. 셋째, 동부여는 중국 정사의 夫餘이다. 넷째, 중국 정사의 부여는 北夫餘이며, 동부여는 그중 迦葉原으로 東遷한 일파이나 구체적 정황은 不明하다. 동부여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조선의 古籍에는 현재의 함경도와 양강도, 평안남도, 중국 길림성 경내, 강원도, 압록강 일대 및 중국 요녕성 동부 등 여러 설이 있었다.

동부여에 관한 한국의 가장 이른 기록은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이다. 『제왕운기』에서는 북부여 구지를 부여왕의 古都라 하고 동부여왕 金蛙를 부여국왕이라고 칭하여 북부여와 동부여를 모두 부여라고 하였다. 동부여가 중국 정사의 부여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사적에서 동부여와 부여가 통용되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대체적으로 말해 兩夫餘 혹은 多夫餘설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동부여가 북부여에서 나왔으나, 양자의 族源이 다르다고 인식한다. 이에 동조하지 않는 학자들은 3~4세기경 부여에 분열이 일어나 원래의 부여 동부를 동부여로 칭했으며, 이후 두 정권이 병립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고구려 건국 이전 이미 양 부여가 공존했다는 것이 비교적 타당한 인식이다.

광개토대왕비와 冉牟墓誌에서 주몽은 북부여 출신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동부여 출신이라고 하였다. 5세기에 이미 동부여는 고구려의 屬部가 되었음을 고려하면 광개토대왕비의 기록은 고구려의 시조가 숙부인 동부여 출신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부계 혈통에 따라 북부여 출신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늦어도 5세기 초에 완성된 고구려 왕실의 官方認識이다. 광개토대왕비에서 보이는 餘와 餘民은 부여와 부여민의 약칭으로, 이와 관련된 東海谷은 동부여의 옛 땅이다. 동해곡에 대한 사서의 기록으로 유추하면 한국 사적에 기록된 동부여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東沃沮의 분포 지역에 있었으며 이는 虛川江 유역에서 바다에 이르는 지역, 현재의 함경도와 양강도 교계 지역에 해당한다.

고구려 기록과 달리 고구려 건국 초에는 동부여의 세력이 고구려보다 강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동부여는 멸망하였고, 관구검의 침략 이후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다시 고구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이 시기 중국 사서에 기재된 부여가 동부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후 다시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가 멸망하였다. 동부여의 분포 지역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동부여는 부여 동천 시에 가장 동쪽에 거주했던 일파로, 중국 정사상의 부여와 동족이며 중국 정사에 입전된 부여가 곧 한국 사서에 기록된 북부여이다.

■ 2010년 제5기

玄菟郡の内迁与高句丽的兴起

현토군의 내천과 고구려의 흥기

魏存成 p. 47~50

『삼국지』 「고구려전」과 『후한서』 「고구려전」의 기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고구려 5부와 현토군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한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설치한 4군 중 하나인 현토군은 首縣인 고구려현 등 3개 현을 관할하였다. 고구려현은 현재의 遼寧省 新賓市 일대로, 이곳은 고구려족의 거주 중심은 아니었으나 상당히 많은 고구려족이 활동하였다. 이후 고구려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2세기 초에 현토군은 내천하였고 관할 지역도 축소되어 지금의 渾河 중상류를 경계로 하였다.

현토군의 내천 이전 고구려는 현토군 내에 속한 민족이며 정권이었고, 고구려 수령과 고구려왕은 현토군으로부터 한 왕조의 朝服을 받았고, 고구려현의 현령이 고구려인의 호적을 주관하였다. 현토군의 내천 이후는 고구려가 현토군 경내에 속하지 않았고, 고구려는 현토군으로부터 조복을 받지 않았으며, 현토군의 경계에 위치한 幘城에 조복을 두면 고구려가 이를 거두어 갔다. 이처럼 현토군의 내천 이후 고구려의 관할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고구려의 현토군에 대한 예속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조복을 매년 수령한 것 외에도, 문헌에서 여러 차례 고구려왕이 ‘求屬玄菟’ 또는 ‘屬遼東’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고구려의 세력이 강해지고 중원 정권에서 직접 고구려로 출병하게 되면서 고구려

와 중원 왕조의 관계는 현토군이나 요동군을 통한 것에서 직접 칭신하고 조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342년 慕容皝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다음 해 고구려왕이 칭신한 때부터, 고구려는 중원 왕조에 직접 책봉을 받기 시작하였다.

■ 2010년 제6기

试析朝鲜李朝文人疆域史观之误-以对安市城的认识为中心

조선 문인의 강역사관 오류에 대한 이론적 분석-안시성에 대한 인식 중심

杨军 p. 27~28

고구려 安市城은 오늘날의 遼寧省 海城市 동남쪽 15리 지점의 營城子高句麗古城이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면서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군하여 조선 문인들이 ‘東人이 守成에 능한’ 것을 언급할 때 이 전투를 즐겨 말하였다. 그러나 많은 조선 문인들은 고구려 안시성을 현재 遼寧省 鳳城縣의 鳳凰山城으로 인식했다. 조선 학자들도 이 설에 대해 갑론을박했는데 예컨대 成以性은 당 태종이 공격했던 안시성으로 전해지는데 고증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朴世堂과 李宜萬은 이에 대한 고증을 하였으나 명확히 오류를 밝히지 못했다. 당 태종의 정벌 당시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것이 후세의 민간 전설임은 분명하다. 李德懋 역시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전해지나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문인들이 이 전설에 덧붙여 봉황성이 당 안시성이라는 전설을 전파했다.

조선 문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관점의 원인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분석을 내렸다. 南九萬은 『大明一統志』를 인용하여 봉황성 柵門 밖의 봉황산을 옛 안시성이라 하는 것은 동일 지명으로 인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成海應과 黃胤錫은 조선어와 중국어의 발음 차이로 인해 생긴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안시를 고구려어의 봉황으로 이해한 이도 있었는데, 예컨대 金景善은 고구려 방언에서 큰 새를 안시라고 칭하고 현재의 방언에도 봉황을 혹 안시로 읽고 뱀을 백암이라 읽으므로 수당 시기 봉황성이 안시성, 蛇城이 백암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고구려 안시성이 한대 安市縣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봉황산 고성의 연혁에 관해 趙憲은 발해의 옛 도읍이라 하여 발해 고성으로 인식했다. 黃汝一은 봉황산 고성을 동명왕이 건축한 것으로 전한다고 하며, 고구려 고성으로 인식하였다. 요컨대 조선 문인들은 역사를 위조하여 이곳이 고구려 발해의 구지라고 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盧以漸·吳道一 모두 안시성이 봉황산에 있지 않다고 고증했으나 양자는 모두 봉황산 고성에 관련된 시에서 안시성을 사용해 회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보면, 조선 문인들은 안시성이 봉황산에 있다는 것을 널리 전파했고 아울러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

의 의도적인 왜곡이다. 조선 문인들의 심리는 조선이 고구려를 계승했고, 따라서 당시 고구려가 당에 저항했던 지방은 당연히 조선의 강역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안시성이 봉황산이라는 잘못된 설을 열심히 전파한 진정한 원인이다. 요는 조선 문인의 강역관은 잘못된 역사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조선 고대 역사와 강역의 서술이 왕왕 역사적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과대망상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조선의 고적 대부분은 조선조에 성립하여 그중에는 조선 이전의 한반도 역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 이전의 한반도 역사를 다룬 조선 문헌을 사용하여 연구할 때, 사료의 사실성에 매우 주의하여 자세히 분석해야 하며 조선 문인의 기록을 맹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6) 『社会科学战线』

■ 2010년 제1기

近年来中国高句丽研究述评

근년 중국의 고구려 연구 현황

郭美英·王艳坤·祝立业 p. 154~159

1. 정권의 귀속과 변강 이론

고구려 귀속 문제는 1980년대 이래 많은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이루어졌다. 21세기 들어 張碧波의 「关于历史上民族归属与疆域问题的再思考」, 劉子敏의 「走出高句丽历史研究的误区」·「高句丽疆域沿革考辨」, 孫進己의 「当前研究高句丽归属的几个问题」, 徐德原의 「高句丽历史与疆域归属问题补议」, 高福順의 「试论汉魏时期高句丽政权的统辖区域」 등이 발표되었다. 또 馬大正의 「中国学者高句丽归属研究评析」과 趙永春의 「关于中国古代民族内外迁徙及其归属问题」, 劉炬의 「論中国历史上少数民族政权性质的界定标准」은 고구려 귀속 문제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孫進己는 「中国民族·政权·疆域研究」에서 현재 중국 각 민족의 조상들이 역사상 건립한 정권과 그 강역은 모두 현재 중국의 역사적 강역임을 명확히 하였다. 史長樂의 「曾巩对高丽世次十问」·「王建为何定国号为高丽」·「唐明宗披露了高丽太祖王建的族籍」은 고려와 고구려가 어떠한 종족적 관계도 없음을 밝혔다.

2. 고구려 초기 역사 문제

고구려 초기 역사 문제는 그 민족 기원, 국가의 형성, 五부의 분포 등이다. 이에 대해 王綿厚는 활발히 연구를 진행해 「高夷·秽貊与高句丽」·「高句丽文化与中国东北秽貊系青铜组文化的渊源关系」·「西汉时期的高句丽‘五部’与‘第二玄菟」·「遼东‘秽貊’系青铜文化的重要遗迹及其向高句丽早期文化的传承演变」·「高句丽建国初期的‘卒本夫馱’与‘涓奴’‘桂娄’二部王族的兴衰递变」·「西汉时期的玄菟‘曩沟娄’城与高句丽早期‘南北二道’的形成」을 발표했다. 그의 핵심적인 관점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의 ‘兩江’(鴨綠江·渾江), ‘兩河’(太子河·蘇子河) 지역에서 기원했고, 5부의 형성은 주몽~대무신왕의 3대에 형성된 것으로 그 중심인 연노부와 계루부는 양강 유역의 졸본부여와 비류부 및 ‘大水貊’의 연합체라는 것이다. 李大龍의 「关于高句丽早期历史的几个问题」·「由解明之死看高句丽五部的形成与变迁」, 祝立業의 「从‘王国五部化’走向‘五部一体化’的发展历程」, 楊軍의 「高句丽早期五部考」 역시 이 분야의 연구 논문이다. 고구려 초기 문제는 오부 문제가 핵심으로 오부의 형성·발전·변화와 그 조직 형태 및 관리·분

포·민족 구성 등은 진일보한 연구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구려 초기 문제에서 고구려의 민족 기원 역시 첨예한 문제로 현재 高夷說·穢貊說·夫餘說·炎帝係說·商人說이 있다.

3. 신발견·신이론·신고증

2004년 이래 고구려 관련 중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어 연구의 깊이와 폭이 더욱 확장되었다. 張福有는 이 분야의 중요 학자로, 그의 「集安禹山3319号墓卷云纹瓦当铭文识读」·「好太王碑中的平壤城考实」·「吉林集安出土瓦当及青铜铭文释读与考证」, 張福有·孫仁傑·遲勇의 「朱蒙所葬地‘龙山’及太王陵青铜铃‘峻’字考」·「豆谷·豆谷離宮及瑠璃明王陵」·「集安蒿子沟墓地调查与东川王陵考」·「高句丽王陵通考要报」, 張福有·趙振華의 「洛阳·西安出土北魏与高句丽人墓地及泉氏墓地」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張福有·孫仁傑·遲勇의 「五年间高句丽遗迹调查与文献研究中的新收获」에서는 근년의 고고·문헌 방면의 새로운 발견들을 정리하였다. 이 외에 李健才의 「唐代泉氏家族墓地不在集安在洛陽令人信服」, 李殿福의 「高句丽贵族有回葬归莹之习俗集安五盔坟应为王陵」, 耿鐵華의 「高句丽泉氏墓地调查及其价值」, 孫仁傑의 「从泉氏墓地看高句丽的回葬」, 梁志龍의 「泉氏家族世系及其事略」, 張福有의 「高句丽第一个平壤城在集安良民即国之东北大镇-新城」·「高句丽平壤东黄城考」, 劉子敏의 「新城即平壤质疑」, 曹德全·肖景全의 「从叁国史记中的新城谈起」, 梁志龍·魏海波的 「高尔山城始筑年代考辨」 등이 있다. 현재 고구려의新城 문제가 이 분야의 가장 첨예한 문제이다.

4. 고구려 직관·관제·정치 조직

이에 대해서는 楊軍이 「高句丽中央官制研究」·「高句丽地方官制研究」를 통해 총체적 인식을 시도했다. 高福順은 「高句丽官职中的‘加’」·「高句丽中央官位等级制度的演变」·「高句丽官制中的兄与使者」를 통해 고구려 관직명에 나타난 5부 제도의 영향을 고찰했다. 이 밖에도 祝立業의 「从‘王国五部化’走向‘五部一体化’的发展历程」·「以王权为中心的高句丽政治制度考察」·「从贵族交替执政到泉氏家族专柄国政」 및 薛海波的 「高句丽早期‘那部’体制深析」, 劉炬의 「高句丽政治制度的性质·特点及成因」, 耿鐵華의 「晋封高句丽官印考略」, 鴻鵠의 「高句丽国相制度研究」, 華陽의 「浅析褥萨的产生」 등이 발표되었다.

5. 고구려 관련 문헌

2004년 이래 고구려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로는 李德山の 「简论建国以来东北古文献的整理与研究」, 鄭春穎의 「浅谈正史高句丽传的设立」, 姜維公·徐立勛의 「从叁国史记新罗本纪看金富弼对海东叁国纪年的安排」, 李大龍의 「高句丽与东汉王朝战事杂考」·「叁国史记高句丽本纪史料价值辨析」, 姜維公의 「高丽记的发现·辑佚及考证」, 趙紅梅의 「略析汉书王莽传中的高句丽纪事」 등이 있다. 『삼국

사기』 연구에서는 특히 姜維公·徐立勛·李大龍이 주목되며 鄭春穎은 중국 정사 12편의 고구려전을 분석하였다.

6. 고구려와 중원 왕조·주변 정권·민족과의 관계

고구려와 중원 왕조·주변 민족과의 관계는 고구려 연구의 중점적인 분야로서 연구 성과 역시 집중되어 있다. 2004년에만 李德山の 「唐朝对高句丽政策的形成·擅变及其原因」, 李淑英·耿鐵華의 「兩汉时期高句丽的封国地位」, 姜維公의 「南朝与北朝对高句丽政策的比较研究」, 孫玉良·孫文范의 「高句丽向朝鲜半岛扩张始末」, 厲聲·李芳의 「隋唐征伐高句丽刍议」, 祝立業의 「简论唐丽战争中的唐罗同盟与百济同盟问题」, 江維東의 「论中源王朝对高句丽政策的思想基础」·「中源王朝对高句丽册封制度研究」 등 8편이 발표되었으며, 2005년 이래로 王臻의 「高句丽同新罗百济的战和关系」, 史未央의 「高句丽与百济新罗的争覇」, 劉炬의 「论唐朝与新罗聯盟关系」, 王成國의 「略论高句丽与中源王朝的关系」, 韓昇의 「論南北朝对高句丽的册封」, 趙紅梅의 「玄菟郡经略高句丽」 등을 비롯하여 여러 학술지를 통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 성과는 조공 제도, 변경 정책, 전쟁의 성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원 왕조 및 주변 민족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 2010년 제3기

对夫余史中某些问题的探讨

부여 역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탐구

宋福娟 p. 118~121

부여의 族源 문제에 대해 중국 사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모두 貊族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부여의 원류가 맥인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지만 맥족이 언제 어디에서 동북으로 이주하여 어떻게 부여족으로 변화했는가는 고증이 필요하다.

주 초기에 한족은 이미 맥족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거주 지역은 북방으로 추정될 뿐 명확치 않으며, 周 宣王 시기에 이르러서 한족이 맥족의 영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맥족의 東遷 시기도 불명확한데 대체적으로는 전국 시기에서 진 통일 시기 사이에 北流松花江 유역으로 동천했다고 추정된다.

玄菟郡은 처음에 沃沮城에 설치되었으나 이 지역에 거주하던 맥족의 압박으로 현토군은 서쪽의 고구려현으로 옮겨 갔다. 얼마 후 주몽의 후손이 고구려현을 공략하면서 현토군은 다시 현재의 撫順 일대로 西遷하였다. 종합해 말하면 사서 등에서 기록한 주몽과 관련된 부여는 동·북·남 등의 어떤 접두어가 붙진 간에 모두 吉林·農安 일대의 부여와는 무관하다. 중국 사서에서 주몽과 解氏 부여와의 관계를

해석하지 못한 역사적 연원은 부여사에 대한 잘못된 기록에서 기인한다.

사서에서 부여에 대한 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고구려 사신이 북위 世祖에게 부여는 황금의 산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農安에 위치한 부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부여가 서천한 안농은 황금 산지도 아니며 중국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가 특산물로 황금을 조공한 기사는 없다. 둘째, 晉 太康 원년에 肅愼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西川王이 達賈에게 이를 정벌하도록 하여 檀盧城을 함락시키고 부여에서 600家を 이주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단로성의 정확한 위치는 고증할 수 없으나 이와 인접한 부여라면 곧 북부여로 생각된다. 북부여는 당시 長白山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남하한 숙신의 일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 『삼국사기』의 기록 중에서는 숙신을 말갈로 쓴 경우가 많은데, 이는 김부식이 당 이후의 족명을 사용해 숙신을 칭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숙신은 신라 및 고구려와 모두 충돌하였다. 위진 시기 이래 숙신은 점차 남진하였는데 송화강 유역의 일파가 곧 粟末部로, 이들은 부여의 王城을 서천하게 했고 아울러 이 땅을 점유하였다. 동부해안가의 일파는 옥저 지역으로 들어가 곧장 장백산 동남쪽에 이르러 신라와 접경하였다. 북위 시기에 이르러 다시 한 일파 즉 安車骨, 伯咄 등이 安農의 부여로 침입하여 부여를 멸망시켰다. 이러한 정황은 대조영이 옛 나라의 영역을 근거지로 하여 건국한 사실과 관련하면 매우 명백하며, 말갈족이 장백산 지역으로 진입한 것은 절대 고구려 멸망 이후가 아니다.

■ 2010년 제3기

西汉经略朝鲜半岛北部政策嬗变

西汉의 조선 반도 북부에 대한 经略 정책의 변화

赵红梅 p. 250~253

중국 중앙 왕조의 조선 반도 북부에 대한 경략 정책은 西周 武王이 箕子를 조선에 봉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西汉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分封制 형태는 지속되었다. 漢初, 중원 정국이 불안해지자 衛滿은 조선으로 망명하여 箕氏조선을 전복하고 지방정권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사적에서는 ‘衛氏朝鮮’ 혹은 ‘衛滿朝鮮’이라고 칭한다. 『史記』 「朝鮮列傳」에는 위씨조선의 건립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漢書』와 『後漢書』, 『魏略』, 『三國志』, 『文獻通考』, 조선의 사서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衛滿이 나라를 세운 이후 위만조선은 ‘外臣’의 자격으로 漢 왕조에 귀속되었는데, 이는 西汉 왕조가 衛滿이 기자를 승계하여 受封하였다는 사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었다. 또한 대동강 중하류 일대 즉 기자조선의 관할 영역에 대한 최고 통치자의 지위를 확립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위씨조선의 건립으로부터 패망에 이르기까지 대략 삼대에 걸친 시간 동안 조선 반도 북부에 대한 西汉의 정책은 ‘分封’

에서 ‘郡縣’으로 변화되었다. 元封 3년(B.C. 108) 한 무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위씨조선을 전복하였으며, 그 疆域 및 주변 지역에 樂浪·眞番·臨屯·玄菟 등 4개의 邊郡을 설치하고, 조선 반도 북부에 대한 직할 관리와 통치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 4개의 郡이 모두 같은 해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는데, 樂浪과 眞番, 臨屯의 경우는 元封 3년에, 玄菟는 그다음 해인 元封 4년에 설치되었다.

이 중 樂浪郡의 관할 범위는 원래 기씨조선의 본토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으며, 현재의 대동강 중하류 일대가 그에 상응한다. 치소는 조선현에 있었으며 溟水·遂成·增地·駟望·屯有·鏤方·渾彌·吞列 등 총 11개의 현을 관리하였다. 臨屯郡의 관할 지역은 원래 東穢의 거주지였으며, 현재의 강원도에 해당하는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의 경계인 소백산과 죽령 일대, 북쪽으로는 함경도 定平 일대에 상당하는 지역이었다. 총 15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그중 지명을 상고할 수 있는 것들은 東曠·不而·蠶臺·華麗·邪頭昧·前莫 등 6개 현뿐이다. 한편 眞番郡은 현재 황해남북도와 경기도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치소가 있었던 靑縣을 제외하고, 昭明·列口·長岑·帶方·含資·海冥·提奚의 7개 현만 그 지명을 알 수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玄菟郡은 원래 南沃沮의 관할 구역으로 현재의 함경남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치소는 沃沮城으로 이후의 夫租縣이며, 현재의 함경남도 함흥 부근 지역에 해당한다. 이후 4군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병합과 이전을 거듭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漢書』 「地理志」 등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 ‘다민족 봉건국가’의 통일은 秦漢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변방 정책은 한무제 시기를 전후로 하여 分封制에서 郡縣制로 변화하였는데, 한4군의 설치의 조선 반도 북부에 대한 중앙 왕조의 직접 통치를 실현시킨 사건이었다. 한편 민족 구성으로 볼 때 樂浪郡은 良夷가, 眞番郡은 眞番族이, 臨屯郡은 東穢가 중심 구성원이었는데, 군현제의 실시를 계기로 조선 반도 북부의 변경 민족은 모두 군현으로 편입되었으며, ‘天下一體’의 民族一家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군현제의 실시는 조선 반도의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시켰는데, 樂浪 지역 墓葬의 풍부한 부장품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4군의 발전과 폐지는 모두 중앙 정부의 재력 상황 등에 의해 좌우되었는데, 그 결과 昭帝 始元 5년(B.C. 82) 한4군은 樂浪郡 하나로 통합되었다.

■ 2010년 제5기

李朝孝宗“反清復明”活动及其影响-兼论东亚“华夷秩序”的裂变

李朝 孝宗의 “反清復明” 활동과 그 영향-동아시아 “華夷秩序”의 변화에 대한 兼論

刁书仁 p. 107~115

孝宗 李滉는 仁祖의 둘째 아들로 光海君 10년(1619)에 태어났으며, 인조 15년(1637) 그의 형인 昭

顯世子와 함께 8년간 인질로 瀋陽에 거주하였다. 인조 23년(1645) 昭顯世자를 대신하여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650년에 국왕에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총 10년이며, 1659년 마흔 살의 나이에 병마로 인해 서거하였다. 효종은 그의 생애 동안 청조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 정복을 직접 체험했으며, ‘丙子之役’의 패배 이후 8년간의 인질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즉위 후 ‘北伐雪恥’의 신념하에 ‘反淸復明’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이념은 후세에도 계승되어 그는 ‘反淸復明’ 모범으로 추앙되었다. 본문에서는 華夷秩序의 시각에서 조선과 明朝, 淸朝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조 5년(1627) 後金의 군대에 패배한 후, 조선은 後金과 ‘兄弟之國’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1636년 후금이 국호를 淸이라 하고 황제를 칭하였으나 조선은 慶賀의 예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에 분노한 청 태종은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조선을 다시 정복하였다. 조선은 전쟁에 패배한 후 청조와 ‘君臣之盟’을 맺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형제 관계가 군신 관계로 변화함과 동시에 조선이 정식으로 청조의 속국(臣屬藩邦)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청조는 명조를 대신하여 조선과 宗主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1637년 효종은 그의 형제들과 대신들의 자제와 함께 인질로 끌려갔으며, 이후 8년간 지속된 ‘質子館’의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1641년 청조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質子館 주변의 토지를 지급하고 屯田을 직접 경작하도록 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효종 등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듯 8년간의 인질 생활은 효종으로 하여금 명조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자신의 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한 청조에 대해 분노를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

順治 2년(1645) 효종은 소현세자 등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소현세자가 죽자 종법제도에 따라 세자의 지위는 그의 장자이자 인조의 장손이 계승하게 되었는데, 조선 조정 내의 반청 세력을 의식한 청조의 반대로 효종이 세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조선 君臣의 뜻을 결합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1650년 인조가 병으로 서거하자 효종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병자년의 치욕을 잊지 않고 臥薪嘗膽하던 효종은 설욕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그는 조정에 존재하던 金自點 등의 친청파를 일소하고 反淸復明派를 중용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宋時烈이다. 또한 玉冊·志石 등에 청조의 연호를 쓰지 못하도록 명하고, 대신 天干地支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북벌을 위해 城을 정비하고 군대를 훈련시켰다. 효종에게 ‘北伐雪恥’는 그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이었으며 심지어 목숨을 버리고도 지켜야 할 義理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바로 조선 통치 계층의 주체 이념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1659년 효종이 서거하자 北伐雪恥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하지만 효종이 추구했던 북벌의 의지는 후세에 계승되어 효종은 反淸復明의 모범이자 ‘思明讓淸’의 기치로 추대되었다. 한편 이러한 反淸復明의 이념은 조선 군신들이 청조에 대한 형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착오를 야기하였는데, 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북벌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숙종 즉위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

러나 康熙 22년(1683) 청조가 대만을 통일하고 국력이 날로 강성해지자 조선의 조정은 북벌이 이미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절감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反淸復明의 이념은 思明讓淸의 春秋大義로 변화하게 되었다. 명칭의 교체(淸朝鼎革)는 17세기 중엽 동아시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華夷秩序는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 등장한 것이 바로 효종의 反淸復明 정책이었다. 물론 변화된 화이질서에 대한 격렬한 반응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특히 강남의 사대부)와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월남 등지에서도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17세기 동아시아 관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 2010년 제6기

多民族統一國家形成的文化根源探究-從淸王朝對北方鎮山的祭祀談起

다민족통일국가 형성의 문화 근원 탐구-淸王朝의 北方鎮山 祭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郭平 p. 109~112

淸代는 ‘中華民族의 多元一體 구조’ 형성이 완결된 시기이다. 또한 소수민족 집단이 중원을 통치하게 되면서 민족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고 미묘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본문은 문화의 각도에서 중국 역대 왕조가 실시했던 鎮山祭祀 制度를 살펴봄으로써 민족 융합의 근원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舜帝가 鎮山에 分封된 이후부터 鎮山祭祀는 이후 수천 년간 지속되었으며, 19세기 말 道光帝는 친히 북방의 鎮山인 醫巫閭山에 도착하여 祭祀를 거행한 마지막 황제가 되었다. 醫巫閭山은 고대 東胡의 언어로 ‘大山’의 뜻이며, 鎮山은 산 중에서 ‘重大’한 것을 지칭하는데, 아울러 한 지역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문헌에 따르면 鎮山은 漢代에 이미 ‘四方의 鎮’으로 확정되었으며, 北魏 文成帝가 和平 元年(460) 遼西로의 東巡 중 醫巫閭山에 望祭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이후 淸代까지 역대 왕조에 지속되었다. 이들 왕조는 매년 드리는 告祭 외에도 황제의 즉위나 혼인, ‘天時不順’ 등의 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황제가 친히 가거나 혹은 관리를 파견하여 醫巫閭山에서 告祭를 지냈다. 醫巫閭山은 西遼河地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동북 지역의 원시 문화인 紅山 文化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華夏文明의 근원지 중 하나에 속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각각의 민족이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발전하는 과정에는 민족의 융합과 분화가 거듭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도 醫巫閭山에 대한 제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문화의 강력한 整合力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鎮山祭祀를 살펴보는 것은 민족 융합과 華夷轉化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친히 醫巫閭山으로 가 제사를 거행했던 12명의 帝王 중 6명이 청대의 황제인데, 이는 청조가

동북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가 친히 드리는 제사 외에도 청대에는 舊制에 따라 매년 鎮山에 제사를 지냈으며, 국가의 대사가 있을 시에도 山神을 향해 告祭를 드렸다. 예를 들어 康熙帝의 경우 即位와 親政, 50세 생일과 在位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北鎮廟로 관리를 파견하여 告祭를 드렸다. 한편 청조는 ‘奉天承運’의 기치 하에 명 왕조를 대신하여 천하의 통치를 실현한 후 漢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특히 文治禮敎의 방면에서 舊制를 인습함으로써 의식 형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儒家 文化의 經典에 기록되어 있는 鎮山祭祀를 거행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천하의 합리적 주인임을 표명한 행위였다. 즉 자신이 바로 中華이며 夷狄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중국을 통치할 정당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民間에 國禮를 주입하여 문화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의도 역시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皇帝의 親祀는 中國의 ‘山嶽 文化’를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하였으며, 民間의 山神信仰이 국가의 의식 형태에 근접하도록 추동하였다.

마지막으로 鎮山 文化의 전파에 대해 살펴보면, 특히 조선과의 관계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康乾 時期는 조선과 청조의 사절이 빈번히 왕래하던 시기였는데, 조선 왕조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 燕京에 가는 것을 ‘燕行’이라 하였다. 당시 조선의 사신들은 ‘燕行錄’이라는 이름의 문헌을 다수 남겼는데, 그 기록을 통해 사신들이 醫巫閭山을 마음의 성지로 받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中華帝國의 北方鎮山이 조선과 청 양쪽의 문화 교류에 있어 상징적인 곳이었으며, 동일한 儒家 禮制의 구조 하에서 문화적 대화가 이루어진 중요한 지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제8기

关于稷、貊或稷貊的考辨

穢와 貊, 혹은 穢貊에 관한 考辨

苗威 p. 123~129

族名 혹은 地名으로서의 ‘穢’는 先秦 時期에 이미 출현하였으며, 穢人의 분포 지역은 동북아 지역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과 조선 반도에 거주하던 고대 민족 혹은 族群에 해당된다. 先秦 時期 穢人의 분포에 대해서는 그것을 직접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므로 漢代 穢族의 情況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韓穢’는 韓과 穢, 두 개의 민족을 가리키는데, 韓은 조선 반도 남부의 韓族(즉 兩漢魏晉時期의 三韓인 馬韓·辰韓·弁韓)을, 穢는 韓族의 北方에 인접해 있는 東穢를 각각 지칭한다. 漢武帝가 衛氏朝鮮을 멸망시킨 이후 東穢의 故地에는 臨屯郡이 신설되었는데, 따라서 漢代에는 東穢 외에도 夫餘와 沃沮 또한 穢族에 해당되었다. 특히 西漢 이전의 穢人은 하나의 통일된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族群 혹은 民族聯盟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헌에는 韓穢 외에도 夷穢, 穢國 등의 명칭이 보이는데, 그중 夷穢에 대해 살펴보면, ‘穢’와 ‘夷’는 동일한 의미로 朝鮮半島나 먼 지역의 민족을 가리키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古代에는 毫과 鬃, 貊이 모두 상통하였는데, 따라서 毫地가 바로 貊地 혹은 鬃地였으며, 西周 初期 燕國의 領域으로 그 북쪽 경계는 현재의 遼寧省 서부 大凌河 유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漢代의 夫餘 地區로 先秦 시기 穢人이 分布했던 지역의 일부이다. 또한 高夷는 高句麗의 故地이므로 毫地는 燕國의 동쪽이자 穢人과 高夷의 남쪽에 해당되며, 동쪽으로 고조선의 樂浪夷와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貊은 族稱 혹은 地名으로 고문헌에 자주 출현하는데, 학술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필자의 경우 貊은 특수한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 두 경우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西周 시기 穢와 貊은 遼西의 東部에서 대체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 穢가 북쪽에, 貊이 남쪽에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韓侯의 封地는 穢人과 貊人이 분포한 지역의 서부 邊緣에 위치하였다. 戰國 初期의 貊人은 현재의 柳河와 醫巫閭山의 동쪽으로부터 조선 반도의 서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貊人 최후의 소국이었던 貊國은 戰國 後期에 燕國의 遼東郡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先秦 時期의 貊人은 대부분 燕人에 융합되어 그 후예들의 경우 遼東 지역 漢族의 重要 구성 부분이 되었다. 한편 『漢書』 「王莽列傳」에도 ‘貉人’과 ‘穢貊’이라는 표현이 모두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고구려를 지칭하고 있다. 『後漢書』나 『三國志』에 기록되어 있는 貊人 역시 고구려를 의미한다. 원래 고구려의 선조는 高夷로 독립적인 종족이었으며, 穢나 貊에 모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고구려족의 형성 과정에서 高夷를 중심으로 貊人 등이 융합되었던 것 같다. 한편 貊이 일반적인 경우를 지칭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대략 中原華夏民族 외 주변의 소수 민족 전체를 일컫는 범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穢貊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특정한 의미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東濊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沃沮와 東濊 두 민족 모두를 가리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夫餘나 고구려를 의미하는 경우도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穢貊이 범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주로 동북아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계에는 고조선족이 곧 穢貊族이라는 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명확한 증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조선의 선조는 良夷, 즉 樂浪夷에 해당하며 그들은 穢나 貊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제9기

近代 中·日·朝‘被迫開國條約’之比較

근대 중·일·조선의 ‘被迫開國條約’의 비교

張岩·黃定天 p. 252~254

19세기 중엽 이전 동북아 지역의 中·日·朝鮮 3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華夷朝貢體系’ 하에서 ‘閉關自守’의 政策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동북아 지역 역시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았던 이 세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발전 과정을 겪게 되었다.

1840년에 발생했던 아편전쟁은 비단 중국과 영국 사이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라가 대표하는 동양과 서양 양대 국제 체계의 충돌이기도 하였다. 영국은 강대한 경제력과 해외 군사력(硬實力)에 의거하여 華夷朝貢體系를 타파하였으며, 아울러 강권 정치를 토대로 ‘軟權力’을 행사하며 조약 체계가 조공 체계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 페리(perry) 제독의 두 차례에 걸친 방문 이후 일본은 1854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개국 전의 일본에는 여러 차례 서양의 국가들이 왕래하였지만 일본은 鎖國정책으로 일관하며 그에 저항하던 상태였다. 사실상 일본은 華夷朝貢體系의 주변 국가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북미 대륙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일본 스스로 공격받기 쉬운 위치라는 자각을 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패자가 되려는 야심을 끊임없이 팽창시켰다. 당시는 서구의 침입으로 인해 중국이 더 이상 대국의 지위를 보존하지 못한 시기였으므로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 지위를 차지하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조선은 太平洋의 主航道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며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서방인에게는 생소한 지역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개국 후에는 조선 역시 1866년의 丙寅洋擾와 1871년의 辛未洋擾를 겪게 되었으며, 1876년 일본과의 江華島條約을 계기로 결국 개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편 3국이 맺었던 개국 조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심한 경우가 중국이 영국과 맺은 南京條約이었는데, 영국은 廣州와 廈門, 福州, 寧波, 上海 등 다섯 지역의 통상 권력을 획득하게 되어 자유무역이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最惠國待遇 또한 향유하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이를 계기로 수천 년간 지속되어온 자급자족의 자연 경제 방식이 파괴되면서 ‘半殖民地半封建社會’로 진입하게 되었다. 南京條約에 비해 강화도조약은 비교적 온건한 편에 속하는데, 물론 조약의 내용에 조선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범과 경제적 침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영토의 할양이나 배상금에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두 조약에 비해 일본이 맺은 수호조약은 그 침탈 정도가 가장 경미한 편에 속하는데, 영토의 할양과 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中·日·朝鮮 3국은 개국 조약의 강제 체결 이후 서로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중국은 치욕적인 불평등조약의 체결 이후 조공 체계의 와해와 더불어 날로 쇠약해 갔으며, 반면 일본은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 지위를 차지하고자 臺灣과 일본 등을 침략함은 물론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세계 강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조선은 1910년 ‘日韓合併條約’을 계기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 亡國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 中·日·朝鮮 3국의 서로 다른 발전 경로는 각각이 지니고 있던 내재적 요소(봉건제도의 성격, 외침에 대한 정책 등)와 외부적 요소(침략의 정도와 그 영향)의 공동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였다.

■ 2010년 제10기

靺鞨参与營州事变的原因及其东奔

靺鞨이 가담했던 營州事變의 원인과 그들의 東奔

蔣戎 p. 115~119

武則天 집권기인 萬歲通天 元年(696) 營州 지역에서는 契丹을 수장으로 하여 武周政權에 반대하는 대규모 무장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營州都督인 趙文翹이 각 소수민족의 수령을 무시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民族反抗壓迫鬥爭’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민족 관계 방면은 물론이고 唐朝 내부 정치 투쟁의 영향 또한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武則天이 권력을 찬탈하여 周를 건립한 것이 중요 원인이었는데, 營州의 靺鞨이 이 사태에 가담하게 된 최초의 목적 역시 독립적인 靺鞨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武周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사태가 전개되면서 營州의 靺鞨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마침내 渤海國을 건립하게 된다. 따라서 발해의 건국은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한 사태이지 역사적 필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營州는 북방 소수민족이 결집된 지역으로 농경문화와 유목 문화, 수렵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었으며, 더불어 漢 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가 교류하는 융합의 장이기도 했다. 따라서 營州는 중앙정권이 각 민족을 장악하고 동북 지역과 漠北(고비 사막 이북 지역) 지역을 經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활용했던 지역이었다. 한편 靺鞨은 동북 지역에서 생활하던 오래된 민족인데, 周代에는 肅慎, 後漢시기에는 挹婁·南北朝 시기에는 勿吉로 불리다 隋唐 時期에 이르러 勿吉을 대신하여 靺鞨이 민족의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이 시기 靺鞨은 큰 발전을 이루어 수십 개의 부락이 존재하였으며, ‘白山黑水(동북 지역)’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그중 주요 부락으로 7개를 들 수 있는데, 粟末部와 伯咄部, 安車骨部, 拂涅部, 號室部, 黑水部, 白山部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부락들은 모두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함은 물론 고정적인 부락 연맹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隋朝와 唐初에 걸쳐 靺鞨

人은 지속적으로 營州에 진입하였는데, 대규모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게 되었다.

營州事變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북방 소수민족이 지녔던 武周 政權에 대한 불만과 唐에 대한 그리움에 있었다. 太宗·高宗 時期 당조는 이들에 대해 은혜와 위협을 동시에 베풀었는데, 당조를 침범한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완전한 진압을 실시하는 한편, 귀부해 온 민족에 대해서는 安撫 정책을 실행하여 그들이 대량으로 '內屬'해 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당조는 그들을 전력으로 보살핌과 동시에 그들의 수령들을 존중하여 契丹, 奚, 靺鞨 등 중요 소수민족의 수령에게는 李氏 성을 수여하고 중요 관직에 봉해주었다. 하지만 武周 政權은 이와 달리 소수민족을 경시하였으므로 그들의 반감이 격해져 결국 營州事變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참여했던 민족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에 결부된 상태였으므로 견고한 戰略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營州 靺鞨族의 '東奔'에 대해서는 『舊唐書』와 『新唐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東奔集團'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乞乞仲象과 大祚榮 부자가 이끌었던 집단으로, 이들은 고구려 패망 후 營州로 이동해 온 자들이었으며, 주로 粟末部에 속한 靺鞨人이었다. 다른 한 집단은 乞四比羽가 이끌었던 靺鞨人인데, 사실상 이들이 營州事變에 가담한 후 東奔했던 主力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乞四比羽와 乞乞仲象이 營州事變 후 이끌었던 營州의 靺鞨集團은 遼水를 건너 奧婁河 지역에 거주하며 武周 政權에 대항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東奔했던 목적이 靺鞨의 舊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말갈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의도도 부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中国边疆史地研究』

■ 2010년 제1기

朝鮮与明清表箋外交问题研究

조선과 明清의 表箋 외교 문제 연구

陈龙·沈载权 p. 64~71, 152

表는 한대에 시작된 것으로 신하가 황제에게 論諫·進獻·慶賀할 때 등에 쓰였던 上行文書이다. 唐宋 이후에는 慶賀·辭免·貢物 등에 쓰였으며, 명대에는 藩屬이 進貢하거나 陳情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청조에서는 元旦, 長至, 萬壽 및 傳位, 上尊號, 冊立皇后 등의 국가 慶典에 사용되었다. 表文의 격식은 고정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四六體로 작성되었다. 箋은 後漢에서 시작되었으며, 魏晉 이후 신하가 황후나 태자 혹은 여러 왕들에게 글을 올릴 때 사용되었다. 당송대에는 황태자에게 올리는 上書에만 사용되었는데, 명정대에는 신료가 황후나 황태후를 慶賀할 때 사용되었다. 한편 청조의 康熙帝가 太子를 폐위한 이후 箋文은 신료들이 황후의 三大節을 慶賀할 경우에만 전용되었으며, 이후 청 중기에 이르러 사용이 중지되었다.

고려와 송은 정치·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외교 관계에서 表箋을 사용하였는데 조선 시기에 이르러서는 表가 명청 황제에게 올리는 상서에 전용되었다. 조선 국내에서 箋文은 吉事, 凶事, 慶事 혹은 節日に 신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이용되었으며, 명청조의 황후나 황태후 및 제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사실상 表箋 문서는 조선이 명청 황실에 대해 전용했던 중요한 '外交 禮儀 文書'였던 것이다.

명 초기 태조는 대외 관계에 있어 화평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각국과의 '表箋朝貢關係'를 확립하였다. 청조에 이르러서도 각국은 기본적으로 表箋을 올리는 명대의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조선의 경우 매년 表箋을 올리는 횟수가 적게는 세 번, 많은 경우 십 수 차례에 달하였다. 이처럼 명청의 번속국이었던 조선이 여러 차례 表箋을 올리고자 노력했던 데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하는데, 우선 정치 요인을 고찰해 보면, 조선 초기 신왕조의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왕조 정권은 무엇보다 명 조정의 승인과 지지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고려의 '事大' 외교 방침을 계승하여 명의 종주국 지위를 승인함과 동시에 명과의 외교 관계로 表箋 朝貢 방식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명태조가 關禁과 海禁 정책을 실시하면서 해외 국가의 '對華貿易'은 조공 제도로 한정되었으며, 조공 무역을 행할 시에는 반드시 表文을 올리는 것이 규정이었다. 특히 조공 무역을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이 많았으

므로 각국은 表箋을 올리는 기회를 더욱 많이 얻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은 대대로 중화 문화를 양모하였으며, 특히 조선 시기에 이르러 程朱理學이 정치 의식 형태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더욱 많은 교류의 기회를 얻고자 누차 表箋을 올렸던 것이다.

조선은 명청과의 表箋 外交 關係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따라서 表箋 文書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실상 表箋 文書의 내용과 형식은 모두 대동소이했으며, 그 기본 원칙은 이미 명초에 정식화되었다. 表箋 격식에 있어 실수를 피하고자 조선은 명청의 表箋 격식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명청의 규제에 의거해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奉正朔'은 조선의 外交表箋에 있어 중요한 격식이었으며, 表箋의 언어로는 주로 四六文이 사용되었다. 避諱 제도 또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명청과 表箋 朝貢 關係를 수립했던 여러 나라들 중, 특히 조선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表箋 문제가 대두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원·명·청의 왕조 교체기를 살펴보면, 조선과 세 왕조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적응의 문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外交 表箋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황권을 공고히 하고자 시행되었던 명청 초기의 '文字獄'과 유가 예법 문화에 대한 이해 차이 등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表箋은 宗藩 관계의 주요 도구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은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表箋이 명청과의 외교에 있어 조선이 활용했던 효과적인 책략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 2010년 제1기

《後汉书·高句驪傳》史源學研究

『後漢書』·「高句驪傳」의 연원학 연구

鄭春穎 p. 118~127, 153

『後漢書』「高句驪傳」은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그 성립 연대는 『三國志』「高句驪傳」보다 조금 느리다. 따라서 두 사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그렇다면 두 사료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일까. 필자는 이 두 사료는 물론이고 『東觀漢記』와 八家の 『後漢書』, 袁宏의 『後漢紀』 등의 문헌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後漢書』「高句驪傳」의 來源과 그 상관 관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後漢書』「高句驪傳」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관련 기사는 兩漢 및 이전 시기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총괄이라고 할 수 있다. 『後漢書』「高句驪傳」의 편찬 체계는 『三國志』의 그것과 동일한데, 두 사료 모두 자연환경과 풍속·관습, 사회제도에 대한 概述과 時事정치에 관한 簡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개술 부분을 살펴보면 『後漢書』와 『三國志』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장의 風格이나 부분 詞語의 동질성은 『三國志』가 『後漢書』의 직접적 사료 來源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한편 『三國志』「高句驪傳」의 주요한 사료 來源으로는 魚豢이 지은 『魏略』이 있는데, 만일 『後漢書』와 『三國志』의 동일한 史源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책이 그에 해당될 것이다. 『魏略』은 대체로 남송 시기에 亡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范曄이 『後漢書』를 편찬하던 시기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三國志』의 강력한 영향 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後漢書』「高句驪傳」에 『三國志』의 기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마도 『後漢書』 편찬 당시의 『三國志』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三國志』「高句驪傳」이 동일한 판본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中華書局 판본은 송대의 百衲本 등을 저본으로 한 것이며, 송대 이전의 『三國志』는 사료가 缺失되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판본의 문제 외에도 저자인 范曄의 고구려에 대한 주관, 즉 역사적 견해 역시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後漢書』「高句驪傳」에 수록되어 있는 時事 부분은 주로 고구려 정권과 중원 왕조의 왕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기사는 王莽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漢靈帝 建寧 2년(169)으로 끝나며, 총 15조의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 2010년 제2기

古今中國之銜接-疆域觀察的一個視角

古今 중국의 연결-疆域 관찰의 一個視角

李鴻賓 p. 9~12

오늘날의 관점에서 역사상의 중국 疆域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古今 사이에 명료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疆域은 명확한 경계선 내에 형성된 하나의 확정적인 지리 범위이며, 이 범위 내에 건립된 국가는 해당 강역을 통할·관리한다. 疆域의 外層 경계선이 이른바 邊界이며, 국가의 법률 보호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제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는 근대 서방국가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민족국가의 산물로, 서방민족국가의 확장 영향력이 전세계로 파급되는 것과 함께 국가 형태의 주요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반해 고대의 국가 즉 왕조 국가가 지닌 강역의 기본 특징은, 특히 중국을 사례로 보았을 때 대체로 핵심 지역인 內層과 邊緣 지역인 外層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內層은 왕조의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 통상 黃河와 長江 유역의 농경지역이 주가 된다. 이러한 농경지역의 주위, 이곳이 바로 遊牧, 半農半牧 혹은 漁獵이나 遊耕을 생계로 삼는 지역이며, 중원 농경 지역의 외곽으로, 邊緣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이러한 內外 二重性이 바로 왕조국가 강역의 기본적 특징이다.

한편 이러한 강역의 구분은 왕조 국가의 권력이 각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와 조응하는데, 권력이 직접 통제하는 범위 내의 경우, 직접적인 관리 기구가 설치되었다. 예를 들어 古典 시기의 九州나 秦대의 郡縣과 州縣, 원대 이후 시행된 行省이 바로 이러한 형태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반면 九州와 郡縣의 외곽은 간접적인 기미 지배의 형태를 취하거나 해당 지역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구가 자체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른바 ‘因地制宜’ 형태로 통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外層 지역에 대한 왕조의 기본 관리 방침이었다. 따라서 안정성이 보장되었던 內層 지역에 비해 外層 지역은 모호성과 불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한편 중국의 疆域에서 邊界의 형성과 발전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했던 民族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중국 전통 왕조 국가가 지니고 있던 疆域의 이중적 특성은 근대 시기 열강의 무력 침범과 함께 민족 국가 지배하의 영토와 주권 통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서방의 정치·군사 세력이 흥기했던 청조 중엽 무렵부터 시작되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통해 대체로 완성되었다.

■ 2010년 제2기

国家, 民族与疆域 - 如何研究中国古代疆域史

국가, 민족 疆域 - 중국 고대 疆域史를 연구하는 방법

张永江 p. 13~16

근래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두 권의 저작을 편찬하였는데, 한 권은 林榮貴 주편의 『中国古代疆域史』이고, 다른 한 권은 呂一燃 주편의 『中国近代边界史』이다. 이 두 권이 지닌 공통된 특징들을 열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 ‘대표성’에 대해 살펴보면, 전통적인 ‘邊疆學’ 연구는 ‘輿地學’과 ‘四夷’ 연구,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輿地學의 경우 주로 지도(주로 강역도)와 山水分布에 편중되어 있었다. 근대의 학과 체계가 성립된 이후 輿地學은 지리학으로 변화되었으며, 四夷 연구는 民族學과 邊疆民族史學으로 진화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內憂外患의 시기였던 20세기 전반기를 지나며 중국 疆域 역사의 변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저작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위의 두 저작은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담지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정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협작을 통해 저작을 완성하였으며,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 우선 중국의 다민족 국가 疆域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족과 변강 민족 사이의 관계라던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파생된 영토와 疆域 觀念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농경문화의 경우 疆界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유목 문명의 疆界 의식이 희박한 편인데 이러한 관

념의 차이는 강토의 관리 체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疆域 발전의 과정 중 각 문명과 민족이 행한 역사 작용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북방 유목 민족과 중원의 한족의 경우 唐 이전에는 주로 한족의 영향력이 컸다면, 唐 이후에는 유목 민족의 작용이 더 크게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학술계와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유익한 자양분을 습득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제2기

‘大一統’思想与中国古代疆域的形成

‘大一統’ 사상과 중국 고대 疆域의 형성

刘正寅 p. 16~20

大一統 思想의 기원은 三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堯舜의 시대에는 黃河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수준 높은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夏代에는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조를 건립하였다. 또한 甲骨卜辭 및 문헌기록을 통해 殷代에 이미 천하 통일 사상의 맹아적 형태가 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周는 夏商의 영토를 차지함과 동시에 부족 간의 융합과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夏人·商人·周人의 기초 위에 여타의 부족 집단을 흡수하여 華夏 민족의 모형을 형성하였다. 또한 정치와 경제·문화 각 방면의 통일 역시 추동하였다. 춘추전국 시기를 지나며 민족의 융합과 문화 교류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춘추 시기에는 夷狄이라 칭해졌던 많은 민족들이 華夏로 융합되었는데, 그 결과 전국 시기에 이르러 하나의 안정적인 고대 민족 공동체 즉 ‘華夏族’이 형성되었다. 춘추전국 시기는 정치적으로 대분열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大一統 사상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大一統 사상이 실현되기에는 객관적 현실 조건이 결핍된 상태였지만, 그에 대한 추상적 설계와 이론적 구상이 성숙한 시기로서 이론에서 현실로 나아가갈 수 있는 과도기적 조건을 마련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진한의 통일 이후 大一統 사상은 현실에서 완비된 형태로 최종 확립되었다. 진의 통일로 一統은 이상에서 현실로 변화하였는데, 한은 이러한 진의 제도를 계승하여 진의 一統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이 시기는 중국의 다민족통일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한 시기였다. 더불어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며 성립된 華夏族은 변강의 민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민족 공동체 즉 漢族을 건설하였다. 진한의 통일적 정치 구조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大一統 사상을 각인시켰으며, 이와 함께 大一統 사상 자체도 완비된 체계를 구축하며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兩漢 400여 년의 통일 시기를 통해 大一統 사상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내렸으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後漢 후기 強豪가 난립하고 지방이 할거하는 분열의 시기가 시작되었지만, 왕족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분열 상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함은 물론, 동시에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

들에게 분열은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국면일 뿐이었으며,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는 통일 국가였다.

大一統 이론을 살펴보면, 華와 夷는 상호 이동이 가능한데, 그 둘을 나누는 최종 기준은 문화, 즉 유교 사상을 주체로 한 漢文化였다. 이 문화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 華夏였으며, 부합하지 않는 것이 바로 夷狄이었다. 따라서 夷狄도 華夏로 진보할 수 있으며, 華夏 역시 夷狄으로 퇴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大一統 사상은 여러 소수민족에게 용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 아울러 그들 자신의 정치·사상적 무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위진남북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의 시기임과 동시에 민족의 대이동과 융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따라서 각 민족 간 정치·경제·문화 등의 교류와 발전이 급진전되었으며, 특히 중원에 거주하며 그 문화를 경험했던 변강의 민족들은 문화 수준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이후 수당대는 다시금 大一統이 실현된 시기였으며, 송대는 현실적으로 遼·金·夏가 변경을 압박하며 병립한 상황이었으므로 一統이 존재하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宋人은 '正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화민족의 문화적 통일은 더욱 촉진되었으며 '華夷一體'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원은 중국의 소수 민족이 건립한 전국적 성격의 정권이었다. 원은 唐末 이후 분열된 국면을 결속하고 다민족통일국가의 공고화와 발전을 추동하였다. 이후 명청대에는 변강 지역의 통일이 완성되었고, 大一統 제국의 건립과 함께 전국적 통치가 완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大一統 사상도 더욱 발전하였다.

■ 2010년 제2기

‘极边’, ‘次边’与宋朝边疆思想探析

‘极边’, ‘次边’과 宋朝 边疆사상에 관한 探析

杜芝明·黎小龙 p. 36~43, 151

특정 역사 시기의 边疆 관련 詞語는 당시 사람들의 边疆思想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詞語를 중심 소재로 하여 边疆思想을 연구하는 방법은 학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치 문제나 민족 정책, 정치 지리 등의 방면에 치중함과 동시에 대부분이 송 이전의 詞語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송대는 边疆詞語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시기인데, 极邊의 경우 唐에서 시작된 용어지만 兩宋 시기에 빈번하게 보이며, 비슷한 유형으로 次邊 역시 자주 보이는 边疆 관련 어휘이다. 极邊과 次邊은 진한 시기 '다민족통일국가'의 형성 이후 边疆思想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표지인데, 아직 관련 연구는 영세한 편이다. 본문은 이 두 詞語를 중심으로 송조의 边疆思想에 대한 탐구해 보고자 한다.

极은 역사 문헌상에서 일반적으로 極으로 쓰여 있는데, 단순히 極의 간체자로만 볼 수는 없다. 두 글자의 字意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진 시기에 极은 사상 기초상의 천하관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

되었는데, 진한 이후에는 원래의 용법을 답습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지리 지식에 기초한 범위를 제시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邊은 본래는 '邊遠'의 뜻으로 邊疆이나 邊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지리 지식의 진보와 영토 국가의 생성 및 상호간 쟁탈 등의 요인으로 인해 邊疆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极邊이 연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唐이었는데, 그것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송대였으며, 极邊의 함의에 대해 宋人은 "极邊曰被邊"이라고 표현하였다. 송인의 인식 속에 极邊의 지리 공간은 크게 두 부분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송의 疆域 중 최외곽의 州·軍 구성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外邊'이라고도 칭한 공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域內 소수민족과 인접한 지역으로 '內邊'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疆域의 변화에 따라 极邊이 지칭하는 지리 공간도 함께 변화하였는데, 따라서 极邊은 송인의 疆域과 '華夷之辨'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詞語였다. 또한 极邊은 주로 대외 군사 기능과 대내 민족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조한 것이었으며, 더불어 '政治邊疆'과 '文化邊疆(族群邊界)'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次邊 또한 송인이 자주 사용하던 邊疆詞語였는데, 次와 邊이 연칭되어 사용된 것은 송대 문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次邊에 대해서는 송인의 명확한 註解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관련 기사를 통해 그 의미를 추적해 볼 수밖에 없다. 次邊은 대체로 두 층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無邊面'과 '俯逼' 邊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次邊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近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詞語가 지칭하는 대상은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次邊은 통치 구역상 최외곽 지역으로부터 바로 다음 구역(次級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외곽 지역을 의미하는 极邊·緣邊·沿邊 등의 표현과 연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极邊과 次邊이 변강 지역의 두 층위를 표시하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极邊과 次邊은 사실상 군사적 표현으로 모두 대외 군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极邊이 주로 대외 방비 기능과,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 기능, 族群 분할 기능에 치중한 표현이라면, 次邊은 '層級 방어 기능'과 '후방 보급 기능'을 강조한 詞語이다.

■ 2010년 제2기

熊津都督府陷落始末 - 兼论唐罗战争的爆发

웅진도독부 함락의 始末 - 唐羅战争的 爆發에 대한 兼論

赵智滨 p. 56~66, 152

645~668년 사이 唐朝는 동북 변강 지역을 통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전쟁 기간 동안 당은 고구려 남부에 대한 전선을 구축하고자 신라와 연합하였으며, 660년 고구려와 결맹 국가였던 백제를 패망시켰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 역시 멸망시킨 후 나당 연합의 군사적 동맹은 그 존재 기초를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양

국은 백제의 옛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다. 사실 신라가 당과 결맹한 전략적 목적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영토를 점령하고 三韓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 후 백제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신라는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반면 唐朝는 모든 역량을 고구려 정벌에 집중해야했으므로 백제에 대한 지배 방식 또한 토벌 정책에서 안무 정책으로 변경하고, 熊津·馬韓·東明 등의 五都督府를 熊津都督府로 일원화시킨 후, 원래 백제의 태자였던 夫餘隆을 都督으로 삼아 국면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 기간 중 吐蕃은 唐朝의 전략 중점이 동북 방향에 집중된 있는 기회를 틈타 지속적으로 당조의 서부 영토를 잠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唐朝의 전략 중점은 서북 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 상황은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咸亨 원년에서 3년(670~672) 사이 신라는 지속적으로 당의 熊津都督府를 공격하였으나, 이미 군사의 주력이 吐蕃과의 접경에 주둔하고 있던 당은 동북 지역 전장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으며, 전쟁 개시와 동시에 전략의 주도권은 신라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결국 咸亨 3년 5월을 전후한 시점에 熊津都督府의 주둔군과 백성들은 내지로 퇴각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신라군이 熊津都督府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吐蕃의 작용 외에도 唐朝의 중앙 권력 구조와 내지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자연재해, 그리고 唐朝가 범했던 일련의 전략·전술상의 실수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제2기

清朝同治年間鴨綠江中上游地區의 사회狀況 - 以《江北日記》為中心

清朝 同治年間 鴨綠江 中上流지역의 사회 상황 - 『江北日記』를 중심으로

廉松心 p. 100~107, 153

清 同治 11년(1872, 조선의 高宗 9년) 조선 평안도 厚昌郡의 군수였던 趙璋顯은 崔宗範, 金泰興, 林碩根 등 3인의 첩보원을 파견하여 비밀리에 월경한 후, 압록강 北岸의 중국 경내로 잠입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탐 활동을 행한 후 『江北日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록을 남겼는데, 일기의 필자는 崔宗範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40일이었다. 그들이 첩보 활동을 벌인 곳은 厚昌郡과 인접해 있던 중국 압록강의 중상류 지역이었는데, 대체로 현재의 臨江市와 그 주변의 集安·通化·長白 등지를 포괄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본문에서는 『江北日記』의 내용을 중심으로 同治 연간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사회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清朝는 압록강 유역에 대해 장기간의 封禁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乾隆 연간에는 防守를 강화하고자 統巡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封禁 지역으로 숨어드는 流民들이 증가하자 조

신과 함께 ‘會哨制’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은 발각될 경우 중국인이든 조선인이든 바로 추방되었으며, 田과 거주지도 모두 파괴되었다. 조선 역시 변경의 백성들이 월경하여 청과의 외교적 마찰이 야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邊禁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렇지만 清朝와 조선이 실시했던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關內의 流民들과 조선 북부의 邊民들이 금령을 어기고 잠입해 들어오는 상황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유입해 들어온 대량의 유민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조직을 구성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860년에서 1869년의 기간 동안 조선 북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잔학한 봉건통치 하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농민 계층은 활로를 모색하게 위해 고향을 떠나 중국 동북 지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의 遼寧省과 吉林省 지역에는 점차 유민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초부터 1875년까지 압록강 유역은 封禁 지역에 해당했으므로 軍政 외에 민간 행정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민들의 촌락 사회가 발전하자 민간의 자치 관리 기구 및 무장 기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것을 ‘會上制’라고 하였는데, 중국의 지방 문헌에서는 ‘會房’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會上에는 중국인 大會頭와 統首는 물론이고 조선인 大會頭 등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會上制는 청정부의 행정 권력이 미치지 않아 土匪와 馬賊 등이 횡행하던 변경 지역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당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촌락 사회를 살펴보면, 滿洲人과 漢人은 집과 토지, 산업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선인은 생활이 매우 궁핍하여 열에 여덟, 아홉이 고용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농업 외에도 伐木이나 採礦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다.

■ 2010년 제2기

近代英國皇家地理學會對長白山主峰地區의 科學考察

근대 영국왕립지리학회 장백산 主峰 지역에 대한 과학적 考察

趙欣·曲曉范 p. 116~124, 153

1861년 牛莊(營口)에 무역항을 연 이후, 200여 년 동안 封禁되었던 東北 三省 지역은 점차 개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동북 각지의 지리와 생물에 관심을 두고 있던 서방의 탐험가와 모험가들이 몰려 오기 시작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활동했던 이들이 바로 英國王立地理學會였는데, 그들은 1886년부터 1915년까지 30년간 전후 4차례 중국 동북 지역으로 회원을 파견하여 長白山 主峰 지역과 內地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였으며, 풍부하고 체계적인 성과를 통해 서방 학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이들은 체계적인 탐험과 고찰을 바탕으로 長白山에 대한 국제적인 과학 고찰의 역사 기록을 개창하였으며, 서방인이 長白山에 대해 갖고 있던 여러 오류들, 즉 산의 명칭, 화산 용암지의 형태와

산의 형상, 특산 자원 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주었다. 특히 Henry Evan Murchison James가 이끌었던 1차 조사 활동이 가장 중요했는데, 長白山 主峰에 직접 등반하여 主峰의 고도를 측량하였음은 물론이고, 등산 도중 각종 식물 표본들을 풍부하게 채집하여 국제 생물 학계의 연구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英國王立地理學會는 다른 시간, 다른 경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 차례 탐구 활동을 진행하여 장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기타

● 『甘肃社会科学』

■ 2010년 제5기

蒙元时期高丽来华使臣接待考述

蒙元 시기 중국에 온 고려 사신에 대한 접대 내용 고찰

舒健 p. 76~79

조선 반도로부터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의 여정과 중국 朝廷이 이들에 대해 어떠한 接待를 하였는지, 즉 어떠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주로 明清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련 연구 성과 역시 그 시기의 것들이 두드러진 편이다. 이에 반해 蒙元时期 高麗 사신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전무한 상황인데, 상관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3~14세기는 고대 중국과 조선 반도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이다. 즉 蒙古의 급속한 흥기로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시기임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정치 구조가 새롭게 재편된 시점이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 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高麗 왕조였는데, 고려 사신이 出使했던 路線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고려에서 출발해 漠北에 도착하는 것이었다가, 忽必烈이 元朝를 건립하고 통치 중심을 초원에서 중원으로 이동한 후에는 목적지가 元의 大都로 변경되었다. 고려의 王京에서 大都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5~20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忠烈王의 경우 1279년 1월 26일에 출발하여 1월 31일에 압록강을 건넌 후, 2월 11일에 도착, 총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使臣이 入朝한 후에 받았던 대우와 관련해서는 王靜이 그의 저작 『中国古代中央客馆制度研』에서 종합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신은 入朝 후 會同館에 머물렀으며, 전담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중원의 역대 왕조들이 사신을 接待했던 방법에는 부합하지만, 元朝와 고려가 맺었던 특수한 관계까지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元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면, 前期에는 비록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신의 왕래는 여전히 지속되었는데, 관계가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는 평상시 진행되었던 使節의 왕래 외에도 고려 國王의 왕래가 자주 이루어졌다. 元朝가 ‘朝儀’를 확립하기 전에는 관리의 귀천 등등에 따른 체계적인 규정이 부재한 채 혼란스런 상태였는데, 忽必烈의 즉위 후 漢族 대신들의 부단한 호소에 의해 朝儀가 제정되었다. 그 영향으로 고려에서 入朝한 사신들 역시 元朝의 법규에 따라 接待를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숙박의 안배나 座次 등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존재하여 각 사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江苏社会科学』

■ 2010년 제2기

从浙东海交活动看两宋政权对高丽政策的转变与得失

절동 지역 해상 교역 활동으로 본 양송 정권의 대고려 정책의 전변
과 특실

杨心珉·刘恒武 p. 222~225

北宋과 南宋은 주변 이민족의 위협과 내부적인 “重文輕武”의 정책으로 인해 그 존립이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변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다. 陸路가 점차 이 민족에게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海路는 점차 兩宋 정부에 있어서 주요한 위상을 점하였고 몇몇 항구의 지위가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으니 그 대표적인 곳이 浙東 지역의 明州였다. 특히 이곳은 송과 고려 교역의 중요한 통로였다.

북송 시기의 對高麗政策은 정치적으로는 조종하되 무역에는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다. 거란이라는 공통의 적을 둔 양국의 정치적 연합은 양자에게 모두 유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송이 고려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달리 해상무역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雍熙 연간 중 반포한 “明州官券令” 이후 계속 반포된 일련의 법령은 해상무역의 제한, 특히 私人貿易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이었다. 북송이 해상무역 특히 고려와의 무역을 제한한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상인의 특성상 이익을 위해 군사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송 시기 대고려 정책은 정치적으로 배척하되 무역은 개방하는 것이었다. 金の 확장으로 인해 송에게 있어 고려가 지닌 정치·군사적 이점이 사라졌고 오히려 남송은 고려에 대해 회의와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거의 단절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많은 수입원을 잃은 남송 정부는 무역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해 稅收를 벌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명주를 통한 송과 고려의 무역은 극히 번성하였다.

북송 시기, 고려와의 정치적 우호 관계와 대량의 典籍이 고려로 유입된 상황은 모두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으니 빈번한 외교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남송 시기, 활발한 해상무역은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귀금속의 대량 유출과 그에 따른 통화 팽창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도

되었으나 오히려 민간에서 관리를 매수하여 회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였고, 이 때문에 吏治가 무너지고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 『考古』

■ 2010년 제12기

溲阳市石臺子高句丽山城蓄水设施遗址

심양시 석대자 고구려 산성의 저수 설비 유지

刘明·陈山·李龙彬
p. 41~55, 106~108, 111

석대자 산성은 요녕성 심양시 동북쪽 38km 떨어진 棋盤山 水庫 북쪽편에 위치해 있다. 1980년 심양시 문물조사에 발견된 후 1987년 고구려 시기의 산성 유지로 최종 확인되었다. 1990~1991년 심양시 문물고고공작대는 산성에 대한 시험적인 발굴을 진행했고 1997~2006년에 요녕성 문물고고연구소가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와 함께 정식의 발굴 작업을 진행해 성벽과 敵臺, 성문, 배수시설, 망대, 저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성 내에 있는 건물 유지와 성 밖의 묘장 유지를 정리했다. 이 중 석대자 산성의 저수 시설은 2000년 5월에 발견되어, 2000년 5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심양시 문물고고연구소가 저수시설 유지의 전체 모습을 복원하고 도기와 철기, 석기 등 96점의 출토문물을 수집했다.

1. 지리적 위치와 지층 퇴적 - 석대자 산성은 불규칙한 평면 모양의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고구려 산성으로 그 중앙에 저수시설 유지가 위치해 있다. 이 유지는 동서 30m, 남북 20m이며 넓이 총 600m²의 규모로 지층의 두께는 1.6~10.05m에 달한다. 지층은 크게 4층으로 분류되며 1(表土), 2(흑갈색토), 4(회갈색토)지층은 발굴 지역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3(황갈색토)지층은 간헐적으로 보인다.

2. 유적 - 석대자 산성의 저수 시설 유지는 蓄水池·攔水坝·過濾池·坡道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蓄水池는 攔水坝의 동쪽 측면에 위치하고 내벽과 攔水坝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1.8m이다. 開口는 제4층 아래에 있으며 현존하는 蓄水池 입구와 지표면은 3.5~4.5m이며 물의 평균 높이는 攔水坝보다 2m 낮게 형성되어 있다. 축수지 내의 퇴적물은 토질, 토색과 포함 물질을 기준으로 총 6층으로 구분된다. 攔水坝는 蓄水池 서쪽 측면에 위치하고 開口는 제4층 아래에 있다. 현존 유지의 攔水坝 중 가장 높은 부분과 지표의 거리는 3~4.75m에 해당된다. 坡道는 攔水坝 서쪽 측면에 위치하고 동쪽 끝이 攔水坝와 이어져 있다. 開口는 제4층 아래에 있다. 坡道 내의 지층은 총 3개 층으로 구별되며 퇴적물에는 어떠한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過濾池는 攔水坝 서쪽 측면에 있으며 坡道の 남북 양측면에는 過濾

池가 각각 한 곳 있다. 開口는 제4층 아래에 있다. 북쪽에 위치한 1호 過濾池는 남쪽의 2호보다 底部가 0.2~0.3m 높다.

3. 유물 - 석대자 산성의 저수시설 유지에서는 도기·철기·석기·골기 등 96점의 유물 중, 도기 34점(罐 3점, 杯 2점, 盤 1점, 鉢 2점, 紡輪 8점, 圓陶片 10점, 陶珠 2점, 網墜 1점, 器柄 1점, 陶器口沿 2점, 陶器破片 2건), 철기 52점(錘 7점, 鑿 1점, 鑿 3점, 提梁罐 1점, 馬具 1점, 車 1점, 甲葉 9점, 鏃 18점, 飾件 1점, 釜 1점, 構件 3점, 削 1점, 馬掌 1점, 鈎 1점, 蒺藜 1점, 鐵片 2점), 석기 8점(鉗孔石器 5점, 石斧 2점, 石臼 1점), 骨器 2점(형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하나는 끝이 두껍고 하나는 끝이 뾰족하다)이 수집되었다.

4. 결어 - 저수 시설 유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저수 시설은 석대자 산성과 함께 설치되고 폐기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시기는 연개소문이 西部長城을 건축할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613~645년 사이에 틀림없다.

• 『求是學刊』

■ 2010년 제6기

靺鞨人的迁徙与渤海国

말갈인의 이주와 발해국

杨军 p. 126~131

말갈인의 원거주지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隋書』 「靺鞨傳」과 『新唐書』 「黑水靺鞨傳」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말갈족의 원거주지는 당연히 현재의 長白山 북쪽, 張廣材嶺 동쪽·북쪽 및 黑龍江 하류의 광활한 지대일 것이다. 또한 『資治通鑑』과 『三國志』의 서술에 따르면, 夫餘가 서쪽으로 이동한 원인은 동방에서 말갈 諸部가 이동하여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여의 서진은 346년 이전이니, 늦어도 4세기 중엽, 이른 경우 기원 3~4세기 교체기에는 말갈이 원거주지를 떠나 서쪽으로 이주하였다고 보인다. 突地稽의 아들인 李謹行의 묘지명에 따르면, 第2松花江 유역의 말갈 부락은 강의 이름을 따 涑沫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바로 粟末靺鞨이다. 『魏書』 「勿吉傳」에는 5세기 중후기 이들의 활동을 짐작케 하는 사료가 기재되어있다. 이를 통해 보면 기원 3~4세기 무렵 시작된 말갈인의 이주는 대체로 東流松花江을 따라 서진하였으며, 1세기 반 후에는 말갈인이 東流松花江 양안에 널리 분포하였으며 第2松花江 계곡을 따라 남하하여 이를 따라 북상하던 고구려와 충돌하였다.

서진한 말갈 부락은 第2松花江 유역의 속말말갈과 東流松花江 유역의 伯咄靺鞨 및 安車骨靺鞨이다. 부여의 쇠락 과정에서 고구려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여의 故地로 진입하였는데, 『魏書』 「勿吉

傳」의 기록에 따르면 5세기 전반에 이들 말갈은 이미 고구려와 부여의 故地를 사이에 둔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갈이 정복한 부여의 옛 땅에서 통치자인 말갈은 정복자인 부여의 유민들과 별개의 사회조직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사회조직 내로 부여 유민들을 흡수한 고구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며, 고구려에 대한 말갈의 대항이 실패로 끝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 결과 속말말갈의 주요 구성원은 第2松花江 유역을 떠나 요서 지역으로 진입하였으며, 第2松花江과 東流松花江 유역의 말갈과 牡丹江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말갈은 고구려의 지배 하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고구려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말갈은 자신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정세 하에서 당에 의한 고구려의 멸망은 말갈인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후 몇 년간의 반란 평정에서 많은 고구려인을 중원으로 이주시켰는데, 이로 인해 말갈인은 점차 동북 지역의 새로운 지배 종족이 되었다. 그러나 당 왕조는 이러한 동북 민족 정세의 새로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말갈인을 중시하지 못했다. 말갈에 대한 당의 주요 정책은, 말갈 수령을 營州에 구금시키는 것과 안동도호부를 세워 말갈의 거주지에 기미주를 설치해 관리하는 것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당의 정책은 당연히 신흥 종족이자 당에 적의를 가진 종족인 말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조영이 거란의 반란을 이용해 동쪽으로 달아나는 원인이 되었다. 영주에서 탈출한 대조영 집단은 비록 그 수효가 적었으나 서쪽으로 이주한 속말·백돌·안거골의 말갈 3부를 포함하고 있어 松花江 유역의 말갈인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조영은 동쪽으로 달아나 肅愼의 옛 땅에 진입하여, 拂涅·白山 등의 말갈 부락과 고구려 유민의 지지를 얻어 渤海國을 건립하였다.

•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 2010년 제2기

试论高丽恭愍王的即位与改革背景

고려 공민왕의 즉위와 개혁 배경에 대한 시론

郑红英 p. 79~82

1. 공민왕의 즉위

공민왕은 忠惠王의 동생으로 열두 살 때인 1341년 몽골로 가서 宿衛에 충당되었다. 1348년 忠穆王이 요절하자 고려는 왕위 계승자로 공민왕과 忠定王을 추천하여 몽골에 간택을 요청하였고, 1349년 몽골 順帝는 충정왕을 고려 국왕으로 낙점하고 공민왕은 계속 몽골에 남아 숙위하도록 하였다. 당시 공민왕을 추천한 세력은 정통적인 권문세가와 다수의 儒臣들, 공민왕의 외척이었다. 이들은 고려와 원의 특

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親元 勢力을 위협적인 존재로 파악하였고 공민왕은 몽골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왕위를 이을 적임자로 보았다. 이들은 후에 공민왕 개혁의 지지 세력이 되었다. 충정왕을 추천한 세력은 친원 세력과 충정왕의 외척 세력이었다. 왕위 계승에 실패한 공민왕은 친원 세력의 지지가 중요함을 깨닫고 元의 공주와 혼인하고 친원 세력과 관계를 맺었다. 1351년 원이 충정왕을 폐위하고 공민왕을 세웠다. 원이 공민왕을 택한 이유는 우선 친원 세력과 충정왕 외척 세력이 갈등을 일으켜 고려 정국이 불안해졌고, 또한 준동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는 기백 있는 군주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2. 공민왕의 개혁 배경

몽골은 “강화” 이후 실질적 속국인 고려를 다방면에서 간섭하였다. 군사 측면에서는 元軍을 주둔시키고 제주도를 군사 기지화하였으며 고려 군대를 원에서 侍衛하게 하고 고려 민중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였다. 정치 측면에서 마음대로 고려 국왕을 임명·폐출하고 征東行省을 설치하였으며 고려의 官制를 개정하였다. 경제 측면에서 고려를 勒索하고 약탈하였다. 문화적으로도 몽골 문화를 강요하였다. 원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민왕이 개혁을 실행하였다.

• 『吉林教育』

■ 2010년 제25기

浅谈东北民族地域文化背景下的渤海国音乐

동북 지역 문화 배경 하의 발해 음악

张媛 p.126~131

발해의 음악은 靺鞨 음악의 양식을 기초로 하여 후기에는 당과 이웃 국가의 음악 문화를 흡수하여 그 형태를 형성하였다. 동북 지역의 문화는 말갈인의 생활 이념과 인문적 정신에 영향을 주고 말갈 음악의 독특한 특징을 규정하였으며, 말갈 음악을 주체로 더해진 발해 음악의 주된 양식을 만들어 냈다.

먼저 사계절이 분명하여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동북의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위험과 공포를 주는 동시에 용기와 지혜를 주었으며, 이러한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로 생겨난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탄생되었다. 샤머니즘 내의 샤먼 음악은 말갈 음악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동시에 발해 음악의 중요 요소이다. 다음으로 원시의 말갈인은 동북의 심산유곡과 많은 강과 호수에서 생활하면서 수렵과 어로·채집을 주요한 생산 활동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생산 활동에서 부르던 노래는 원시 음악을 형성하였다. 또한 말갈의 원시적 노래와 춤은 대부분 현실 생활의 어로와 수렵 중의 騎射에 근

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생겨난 인문적 성격 역시 말갈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다. 동북의 엄혹한 자연과 생사를 넘나드는 수렵으로 인해 형성된 말갈인의 거칠고 호방한 성격은 그 음악에도 창조적인 특성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건국 이후 왕공 귀족들이 당을 모방한 생활을 즐기면서 당의 음악이 대량으로 흡수되었다. 발해는 당을 모방해 太常寺를 설치하고, 당의 음률을 도입해 「新靺鞨」 등의 새로운 곡을 만들어 냈다.

•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 2010년 제4기

中国古代藩属制度与睦邻政策

중국 고대 번속 제도와 목린 정책

黄松筠 p. 81~87

藩屬이란 藩國과 屬國의 합칭으로 西漢의 문헌에서 최초로 기재되었다. 번속을 중앙 왕실을 방어하는 울타리로 삼는 것은 번속 제도의 기대 목적이며, 이러한 藩衛의 내향성은 번속 제도의 고유 특성이다. 번속 제도의 기대 목적과 고유 특성은 번속 대상으로 하여금 중앙 왕실의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대외 확장과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며, 睦鄰 정책을 실시한 것은 번속 제도의 기대 목적과 부합되는 논리적 선택이다.

중앙 왕조 통치자들은 일정한 이론적 기반 하에 번속 제도의 제정을 진행하였으며, 목린 정책 역시 번속 제도의 기대 목적과 고유 특성을 바탕으로 한 대외 정책이다. 즉 중앙 왕조의 안전을 도모하며 다른 세력의 침입을 방지하고, 대외 세력을 무력으로 정벌하지 않는다는 고대 번속 이론은 역대 통일 왕조가 제정한 목린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번속 제도 하에서 중앙 왕조와 번속의 예속 관계는 주로 중앙 왕조가 번속을 책봉하는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는 번속의 침입을 막고 번속을 변경의 방어막으로 삼아 다른 외국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번속 정권의 행정 장관이나 국왕은 해당 민족의 수령이나 국왕이 맡았으며 번속국의 원래 주권은 그대로 행사되어 중앙 왕조는 이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예컨대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인도를 강점하여 통치하면서 인도 인민을 억압하고 인도의 재화를 약탈한 것과, 중국 통일 왕조가 번속국에 대해 군대의 주재, 내정의 간섭과 재화의 약탈을 전혀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번속 제도와 식민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당대는 중국 봉건 왕조의 전성 시대였다. 이 시기 한반도의 고구려·백제·신라 3국은 당의 책봉을 받아들여 당과 신속 관계를 맺었다. 특히 신라는 당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의 여러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이는 이후 조선의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당대 중일 간에는 여러 차례의 사신 파견을 비롯한 대량의 문화 교류가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는 주변국과의 목린 관계의 가장 구체적인 전형을 보여준다. 이처럼 당조가 외부의 속국과 주변국에 시행한 정책은 이후 역대 통일 왕조의 목린 정책에 풍부한 유산이 되었다. 청대는 중국 최후의 봉건 왕조로, 전근대의 번속 제도가 가장 완비된 시기이기도 했다. 번속 관계 중 청조와 조선과의 전형적인 사례는 청조 번속 제도 하의 목린 정책을 잘 보여준다.

중국 고대 정권의 구성 형태와 다민족통일국가가 갖는 중화 문명의 다원적 특성으로 인해 고유의 고대 번속 제도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역대 통일 왕조가 모두 목린 정책을 실시하는 기반이 되었다.

■ 2010년 제5기

中朝与中越朝贡制度比较研究

중국-조선과 중국-베트남 조공 제도 비교 연구

刘信君 p. 76~85

중국 고대 봉건 왕조에 의해서 건설된 中外 關係시스템으로 朝貢 制度를 들 수 있다. 조공 제도가 극성을 이룬 명대에는 약 100여 개 국가가 조공을 했다. 이들은 전형적인 조공국(정기적 조공국)과 準 조공국(비정기 조공국)으로 나누어진다. 조선과 베트남은 전형적인 조공국에 해당되는 대표 국가로 이들의 조공 제도를 비교해 보자.

1. 中朝 朝貢의 기본적인 상황 - 한반도의 국가들 중 중국 고대 국가와 조공 관계를 가장 먼저 맺은 것은 백제로 남북조 시기에 조공 관계를 맺었다. 신라는 前秦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 백제와 신라는 수가 건국한 후에도 조공 관계를 유지했으며, 34년간 각각 10차례와 5차례 조공 사절단을 수에 보냈다. 수가 단명하고 당조가 건립되자 백제와 신라는 적극적으로 관계 성립을 요구했고, 당 전기에만 20차례 조공 사절단을 파견했다. 백제와 비교해 신라는 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총 96차례에 걸친 조공을 시행했고 공헌물도 매우 다양했다. 당 이후 송·요·금의 정치 관계는 고려와의 宗藩 관계에 특수성을 형성했다. 송과 요의 대립 시기에 고려는 북송에만 조공을 했고, 요는 무력을 통한 조공 관계를 만들려 했다가 결국에는 간헐적인 조공 관계만을 형성했다. 고려는 남송 효종 이후에 조공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금에 대해서는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원은 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고려와 종변 관계를 확립했고, 총 6차례 고려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다. 원과 고려의 쌍방 왕래는 무려 756차례나 있을 정도로 활발했고 이 중 고려는 479차례 사신을 보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된다. 명은 건국한 후, 조선에 사절을 보내 전통적인 종변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이후 명과 조선의 조공 관계는 밀접하게 유지되어 일반적으로 1년에 3차례씩 사신이 왕래했다. 청조는 명과 달리 무력으로 조공 관계를 실현시

켰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과 조선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청 후기 아편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침략 야욕이 현실화되면서 조공 체제가 위기를 맞이했다. 조선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과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했다. 비록 청의 호응을 받기는 했지만 청일전쟁의 실패를 계기로 결국 체제 유지의 노력은 무산되었다.

2. 中越 조공의 기본적인 상황 - 월남은 기원전 258년에 첫 번째 정권 국가인 甌雒國을 건국했다가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되고 중국의 통치를 받았다. 이후 송대에 大瞿越國이 건국되어 독립을 이루고 송에 번속이 되었다. 남송 시기에는 安南國으로 되었고 당시에 占城國도 생겨 송과 종변 관계를 맺었다. 원조는 안남을 평정한 후 다루가치를 보내 국정을 감시했으며 3년에 한 번 조공하도록 했다. 안남은 번속관계만을 인정해 納貢할 뿐 入朝하지는 않았다. 명대에는 안남과 점성 등의 국가가 명과 조공 관계를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했다. 청은 건국 후 명대의 조공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했지만 안남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후 순치 17년에 다시 조공이 이루어졌다. 건륭 52년(1786)에 청과 안남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높은 수준의 종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는 中越의 종변 관계가 파괴되었고 광서 7년(1881)을 끝으로 조공 형식은 종결되었다.

3. 中朝·中越의 朝貢 制度 비교 - 조선과 월남 모두 전형적인 조공국으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역사와 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차이점 또한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① 정치 방면 - 조선, 월남 모두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으며 중국의 연호와 역법을 사용했다. 또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중국 왕조가 이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경제 방면 - 조선과 월남은 모두 중국 황제에 대해 본국의 특산물과 皇家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헌상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 황제는 厚答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조선과 월남에 많은 생활용품을 하사했다. 이 형식을 통해 中朝·中越 간의 조공은 각자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중 조선과 월남이 더 큰 혜택을 보았다. ③ 예의 방면 - 조선과 월남은 종주국과 종변국 사이의 엄격한 예의 제도를 준수했으며 조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규정도 매우 철저하게 지켰다. ④ 군사 방면 - 조선과 월남은 모두 조공 관계를 근거로 삼아 중국 왕조에 대해서 求兵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

이상의 공통적인 측면 이외에, 조선과 월남은 중국 왕조와 조공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차이나는 부분도 있었다. ① 조선과 월남에 대한 중국 왕조의 정치적 제압 정도가 서로 달랐다. 월남은 입조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았다. ② 조선은 對 중국 무역에 있어서 勘合을 따로 받는 일이 없었으나 월남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③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공의 헌물 목록이 서로 달랐다. ④ 조공을 하는 시기와 貢期, 貢道와 규모에서 차이가 났다.

조선과 월남은 비록 모두 전형적인 조공국에 해당되어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그 역사 조건과 지리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일정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들을 분석해 보면, 조선의 조공이 월남보다 더욱 전형적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은 전형적인 조공국 중 가장 대표성을 갖는 국가인 셈이다.

■ 2010년 제1기

论清代中朝边务纠纷与‘间岛案’问题

청대 청-조선 변경 업무 분쟁과 ‘간도안’ 문제

韩香兰 p. 114~118

1. 조선인 이주민과 中朝 변경 업무 쟁론

중국 동북 지역에서 조선인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이 청 시기 청과 조선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① 경계를 넘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기는 조선인 - 역사와 지리적인 이유로 해서 조선인은 끊임없이 변경 지역을 마음대로 넘나들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엄금하기 위해 이미 後金 시기부터 회맹을 맺는 등 여러 노력들을 시도했다. 순치 원년에서 강희 50년 사이에 11차례에 달하는 변경지역 무단 이동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에 총 7차례의 경우는 청이 欽使를 조선에 파견해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변경 무단 이동과 관련된 사건 중 1685년에 발생한 三道溝 사건과 1710년에 발발한 李萬枝의 越境 살인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② 이민을 통한 변경 지역 정비와 조선인 이민의 유입 - 청이 중원에 국가를 세운 후 盛京과 吉林은 청의 ‘龍興之地’로 되어 封禁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道光 이후 제정 러시아의 영토 야욕에 대응하기 위해 청은 봉금을 풀고 이민 정책을 통한 변경 지역 정비를 추진했다. 1875년, 240여 년 이어지던 봉금이 폐지되었고 1880년 청은 吳大澂을 파견해 동북 변경 지역에 대한 관리를 진행했다. 당시 이민 정책의 대상은 漢族 유민이었지만 예전부터 불법으로 이주해 살던 조선인은 봉금 폐지 조치를 계기로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었다.

③ 中朝 변경 분류와 勘界成果 - 청의 봉금 정책 폐지 이후 조선인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유입되자 조선은 자국민의 귀환을 권유했다. 그러나 청 정부는 이민자들이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해당 지역에 대한 勘査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이민자들의 귀환 문제를 기화로 삼아 변방 지역 분류를 야기시켰다. 변경 지역의 구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청과 조선은 1885년 9월과 1887년 4월 두 차례 邊界會勘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토문강의 원류 문제와 穆碑의 성질 문제에 대한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조선은 ‘間島’의 귀속을 포함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서 조선은 중국이 위기를 맞는 상황을 이용해 ‘북방 개척’을 목적으로 한 외교 분쟁을 일으켰다. 그 중심에는 간도가 있었는데 간도라는 말은 조선인에 의해

만들어져 유통되었고, 일본인은 간도의 지칭 범위를 확대해 동간서, 서간도, 북간도 등의 말들을 만들었다. 조선은 외교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관원을 시켜 1897년과 1898년 두 차례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실사를 시행했고 간도 지역에 행정구역을 구획하고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군사적인 도발도 시도해 청조는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고 몇 차례 조선 군대의 무장 침입을 물리치기도 했다.

3. ‘간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

① 중일 간 ‘間島案’에 대한 교섭 - 일본은 간도가 조선의 범위에 속한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독일 선교사가 쓴 비망록에 ‘도문강 이북의 長柵과 도문강 사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지대가 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삼아 간도의 논쟁에 끼어들었다. 이를 계기로 1907년부터 중국과 일본 간의 간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은 ‘간도안’을 ‘東三省五案’에 포함시켜 결국 1909년 9월에 ‘東三省六案’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② ‘간도협약’의 체결과 득실 - 1909년에 체결된 ‘東三省六案’에는 ‘간도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2년간에 걸친 간도 분쟁을 종식하는 조약이자 중국 근대사에서 첫 번째의 領土未割讓 조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중국이 치른 대가는 적지 않다. 그중 吉會鐵道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중국이 권익을 잃은 사건 중 가장 타격이 큰 사안에 해당된다. 물론 청 정부는 간도 문제로 인해 중요한 권리에 해당하는 일부분 권익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는 간도의 주권을 막아 내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간도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쟁취했다는 점이다.

‘간도협약’은 일종의 불평등조약으로 비록, 국제법의 형식을 이용해 중국의 간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이를 위해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특히 ‘東三省五案’의 관련 조항에 대한 양보는 일본이 중국 동북 지역을 침략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 2010년 제5기

略论唐与渤海之间的质子关系

唐과 渤海 사이의 質子關係에 대한 약술

张郁萍 p. 15~16

渤海는 高句麗의 舊將이었던 粟末靺鞨人 大祚榮이 698년 현재의 敦化를 중심으로 건립한 하나의

少數民族政權이었다. 처음 명칭은 震이었으며, 대조영은 스스로를 震國王이라 호칭하였다. 이후 713년 대조영은 唐 王朝에 투항하여 忽汗州都督·渤海郡王으로 冊封받은 후 國號를 渤海로 고쳤다. 이를 통해 초창기 발해 정권의 경우 唐朝의 일개 地方行政 單位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발해는 확장을 거듭하고 국력을 증강하여 唐으로부터 국가의 지위를 승인받게 되었으며, 926년 契丹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229년 동안 존속하였다. 발해가 강성했을 당시에는 관할 영토에 五京과 十五府, 六十二州를 두었으며, “海東盛國”이라고 칭해졌다. 발해는 子弟들을 당으로 보내 당 왕조를 섬기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음은 물론이고 지속 시간 또한 비교적 긴 편이었다. 당의 藩屬國 중 이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들 質子는 ‘宿衛’라는 名義로 당에 거주하였는데, 당 왕조는 그들에게 매우 후한 賞賜를 베푸는 동시에 官職을 수여하였다. 그들은 당에 머물며 일정한 우대를 받았으며, 비교적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국 사이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상호 간의 정치·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으며,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다. 당에 거주하였던 발해의 질자는 전후 시기 총 14인이었는데, 그중 8인은 왕실의 구성원이었다. 이들에 대해 황제는 친히 召見·賜宴·贈物·封官晉爵 등의 혜택을 베풀었으며,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매우 관대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했던 것은 당 왕조가 자신이 지닌 宗主國의 지위와 거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북 지역의 각 민족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질자를 통해 변속국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변속국의 內政과 外交를 관리함은 물론 당에 대한 충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 『兰州学刊』

■ 2010년 제7기

‘名分外交’의困境-以朝鮮仁祖時期‘斥和’與‘主和’論爭爲中心

‘명분 외교’의 곤경-조선 인조 시기 ‘척화’와 ‘주화’ 논쟁을 중심으로

石少穎 p. 215~220

인조의 집권 이후 조선은 광해군이 시행한 ‘兩端外交’ 노선을 버리고 ‘對明義理論’을 채택해 後金 사이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명분 외교’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정묘’, ‘병자’ 두 차례에 걸친 胡亂은 조선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내부적으로 명분 외교에 대한 쟁론과 토론이 야기되었다. 인조 시기의 ‘척화’와 ‘주화’ 두 진영의 대립은 광해군 시기의 ‘兩端外交’ 논쟁 이후, 외교 노선 상에 벌어진 또 한 번의 격렬한 쟁론이었다. 척화파는 ‘氣節’을 견지했고 이는 士人들에게 격렬한 애국 정서와 문화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 내용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그저 공허한 담설에 가까웠다. 타협을 통한 화의를 주장한 주화파는 도덕적 비판을 받아 들여야 했지만 일정한 측면에서는 생존을 위한 변통을 추구해, 정치적 현실주의를 잘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며 진력을 다해 국가적 이익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척화파와 주화파가 비록 서로 대립했지만 그 정치적 목표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들 모두는 ‘사대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대부들로 ‘尊周攘夷’를 ‘興王之本’으로 간주했고 심지어는 필생의 목표로 삼기도 했다. 대외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대명의리론’에 집착해 ‘명분 외교’의 깃발을 들었으며 문화적으로는 明朝의 것을 흠모해 스스로를 ‘小中華’라 여기며 만주를 夷狄으로 간주했다. 반면 清朝에 대해 신하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고 척화파든 주화파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낙후된 민족에 신하의 예를 다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강을 통한 민족의 존엄을 고취하고자 했다. 사실상 조선이 표방한 ‘의리’와 ‘명분’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주자학과 화이관에 기반한 ‘대명의리론’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또한 단순히 명조의 ‘藩邦再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더 강렬하게 內化된 사대부들이 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고 생존을 꾸려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해당된다.

병자호란 후 청과 조선은 宗藩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선은 매우 힘든 행보를 보였다. 인조 시기 이후, 조선은 줄곧 청에 반대하고 명을 돕는다는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했지만 정치적 이상과 잔혹한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명분 외교’는 곤경을 벗어날 출로를 찾지 못했다. 때문에 조선은 文化觀의 측면에서 청조를 배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책을 조정해야만 했다. ‘척화’와 ‘주화’의 논쟁을 통해 조선은 그것이 인식상의 것이든 행동상의 것이든 戰後의 反淸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되었다. 설령 조선의 상하층 백성들이 反淸復明을 원하고 명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치 계층은 이를 억제하는 데 힘을 쏟아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조선이 明清戰爭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채택한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선의 ‘척화’와 ‘주화’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대명의리론’과 ‘명분 외교’의 전통을 견지하는 것은 조선이 내부적인 통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선의 학파가 분립되고 쟁론을 거듭했지만, ‘의리’와 ‘명분’은 시종 통치자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었다. 병자호란 후, 국가의 존엄이 추락하고 兩班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임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어떻게 ‘명분 외교’의 피해에서 벗어나 왕권의 위신을 정비할 수 있는가는 통치자가 직면한 역사적 난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 자체는 통치자로 하여금 역사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압박했다. ‘和議誤國’이 되었든, ‘斥和誤國’이 되었든 간에 이 모두는 사대부들의 당시 국가 상황에 대한 강렬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지 조선의 패전과 국가의 쇠락의 책임을 특정한 파벌에 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조선이 병자호란 이후 곧바로 ‘척화’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浮議誤國’으로 이른

바 '斥和誤國'을 대체한 변동과 절충은 결코 척화론의 正義性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자학의 '명분론'과 '의리론'이 조선의 사회, 역사적 가치 관념 중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보다 강조하고 긍정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의 통치자들이 전후의 권력을 회복하고 인심을 다잡아 내정과 외교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방편을 제공했다.

-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2기

『大明會典』, 『明史』와 朝鮮辨誣 - 以朝鮮王朝宗系辨誣和 '仁祖反正' 辨誣为中心

『대명회전』, 『명사』와 조선 변무-조선왕조 종계변무와 '인조반정' 변무를 중심으로

杨艳秋 p. 79~91

1. 『大明會典』과 조선왕조의 宗系辨誣 : 조선의 개창자 이성계가 고려왕을 폐립하고 조선을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주원장이 勅撰한 『皇明祖訓』에는 이성계를 고려의 權臣 李仁任의 아들로 오기했다. 명 홍치 연간에 편찬한 『大明會典』은 『皇明祖訓』의 기록을 따르고 있어 조선의 中宗·仁宗·明宗·宣祖은 이 기록의 정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종계변무 문제가 발생했다. 正德 13年 조선 중종은 南袞을 정사로 삼는 사신단을 파견해 처음으로 정정을 요구해 변무 문제가 시작되었다. 명 무종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정을 허락했지만 개정된 『대명회전』은 간행되지 않았고 가정 황제도 조서로써 수정을 명령했지만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중종 이후 인종은 종계변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명종 때에 이르러 다시 명에 수정 요구가 제기되었다. 중종과 명종의 요청에 대한 명의 반응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는데, 실은 가정 연간에 명조는 『대명회전』에 대한 두 차례 修訂을 했지만 이성계의 종계 문제를 고치지는 않았다. 명종 이후 선조가 왕위에 올랐고 종계변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만력 4년 장거정은 신종의 명의로 『대명회전』의 수정 작업을 지시했고 조선은 상황의 추이에 시종 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사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도했다. 결국 만력 15년 『대명회전』의 改正이 완성되고 장기간에 걸친 변무 문제가 해결되었다. 선조는 매우 기뻐했고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명회전』의 내용이 정정된 것은 없고, 다만 변무 관련 내용을 추가해 사실을 전할 뿐이었다.

2. '仁祖反正' 변무와 淸修 『明史』 : 명 天啓 3년, 조선의 궁정 정변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는 '인조반정'이 발발했다. 이에 대해 명의 野史는 형제를 살해하고 부모를 감금한 배은망덕한 행위로 서술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인조는 명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명에 사신으로

갔던 高傳川은 『兩朝從信錄』의 기술된 내용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청이 건국된 후에도 중국의 야사는 조선에 지속적으로 전해졌는데 인조반정과 관련된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에서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변무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는 청의 『明史』 찬수 과정과 연계해 전개되었다. 조선의 현종은 『明史』가 편찬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인조 대왕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곧 중단되었다가 숙종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거론되었다. 숙종의 요구에 청은 모호한 대답으로 즉답을 회피했지만 숙종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4년에 다시 사신을 통해 改述을 요구했다. 이듬해 淸 禮部의 대답은 비교적 강경했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변무의 교섭 상황은 크게 경색되었다. 당시 청의 태도는 『明史』의 편찬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데다가 삼변의 난이 아직 평정되지 못한 어지러운 국내 사정까지도 연관이 있었다. 이후 영조 또한 변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신을 통해 개정을 요청했다. 영조 2년에 조선의 사절단은 청에서 『明史』의 열전 내용을 처음으로 보면서 인조반정에 대한 변함없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각종 노력, 심지어는 뇌물을 공여하는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개정을 요구했고, 영조 6년이 된 후 『明史』 중에 수정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조 7년에는 옹정제가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明史』 중 조선의 열전 부분을 『明史』가 공식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조선에 제공했다. 영조는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 옹정 13년 『明史』의 全卷이 완성되었고 2년 후인 영조 13년에 조선은 『明史』를 하사하도록 요구했지만 청은 명확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며 거절했다. 그러나 영조 16년(건륭 5), 조선은 역관을 통해 『明史』 전권을 입수했고 기록 내용을 확인한 영조는 숙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인조반정과 관련된 변무 문제가 종식되었다.

3. 명과 청 시기 두 차례에 걸친 변무에 나타난 中朝關係 : 명 시기의 종계변무와 청 시기의 인조반정 변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조선의 군신들이 '인조반정'의 변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잘 드러난다. 즉, 청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또한 개정된 『明史』 전권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명 시기 종계변무를 시행하는 방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명 조정의 『대명회전』 수정 사실을 이유로 삼아 청의 『明史』 수정을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변무 과정에서 조선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달랐다. 명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內服'임을 자칭하고 정성을 다했으며 언사에도 매우 조심했다. 반면, 청에 대해서는 만주족에게 개술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굴욕스럽게 여겼으며 배척하는 심리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는 주희의 정통 관념 하에 생성된 조선의 중국에 대한 인식, 즉 '尊明貶淸'한다는 사상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자체가 淸 淸 시기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 『廊坊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 2010년 제5기

浅析明朝遣往朝鲜文官使者的出身

明朝에서 조선으로 파견했던 文官 사신의 출신에 대한 분석

马志兴 p. 47~50

朝鮮은 왕조 건립 이후 明 王朝와 신속하게 ‘宗藩朝貢關係’를 확립하고, 상호간 사신의 정규적인 왕래를 시작하였다. 明朝는 1393년에서 1636년까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60여 차례 文官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인원수는 97인에 달하였다. 사신은 두 왕조 사이의 유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였으므로, 문관 사신의 출신을 탐구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이 조선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明 一代에 조선에 파견했던 進士 출신의 문관 사신은 총 53인이었으며, 이는 전체 문관 사신의 5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科擧 體制 하에서 입사한 인물들이므로 대부분이 經書와 史籍을 숙달함은 물론, 학문 연구에 깊이 몰두한 자들이었고, 文學과 歌賦에도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진사 출신이 아닌 사신은 총 44인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하는데, 이 중 明經과 擧人 출신은 10명으로 非進士 출신의 23%를 점유하며, 그중 正使를 담당했던 경우는 6번이었다. 그 외 명경 혹은 거인 출신이 아니거나 출신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는 34인이며, 이들 중 정사를 담당한 사례는 9번이었다. 이처럼 조선에 파견되었던 97명의 문관 사신은 그 출신이 매우 복잡한 편인데, 특히 明初에 명경, 거인, 監生 등 非進士 출신이 파견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문관 사신이 파견되었던 주요 원인은 이들이 지닌 비교적 높은 수준의 文學修養과 政治品行에 있었는데, 明朝는 이것을 통해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명에 진사 출신의 사신이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명조의 과거제도가 날로 성숙해가던 상황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인데, 이후 非進士 출신의 사신은 中朝 왕래의 역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 『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1기

高丽女性在高丽与蒙元关系中的作用

고려와 몽원 관계에서 고려 여성의 역할

崔鲜香 p. 26~30

정치 방면에서 貢女로 간 고려 여성은 元 조정 중에 친고려 세력과 고려 국내의 친원 세력을 통해 간

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양국 간의 평화적이고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족의 이익이 위협당하면 그들 역시 고려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경제 방면에서 고려 여성은 국내에서 사회 생산 활동 참여를 통해 양국의 경제 교류 활동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몽골에서 오래 생활한 고려 여성 역시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였다. 문화 방면에서 고려 여성은 양국 간의 복식·음악·무용·유학·불교·巫教 등 사상문화의 교류를 강화하였다.

-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5기

押新罗渤海两蕃使与东方海上丝绸之路的繁荣

押新羅渤海兩蕃使와 東方해상 실크로드의 번영

刘凤鸣 p. 39~42

‘安史의 亂’ 이후 靑州에는 平盧軍節度使가 설치되었는데, 평로군절도사는 押新羅渤海兩蕃使를 겸하며 新羅와 渤海 양국과의 외교 사무도 관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五代 시기까지 지속되며 당시 동아시아 諸國의 무역 활동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신라는 원래 조선 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675년 唐朝의 지원 하에 조선 반도의 淸川江 이남 지역을 통일하였다. 발해는 당조 시기 지금의 丹東과 瀋陽, 哈爾濱 동쪽에 위치하며, 현재 조선의 淸川江 이북 지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북 지역의 강토를 포괄하였다. 평로군절도사는 조선 반도 전체에 대한 외교 사무를 담당하였으며, 동시에 관할 지역의 육로 운송은 물론 해운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당시 동북아 지역의 무역 활동 전반을 관장하였다. 한편 평로군절도사가 관할하던 지역은 당시 가장 부유한 지역에 해당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兵力을 확충하여 해당 지역에서 군림하였다.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 일행은 唐 開成 5년(840) 3월 21일 靑州에 도착하였는데, 엔닌은 자신의 일기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시 靑州가 唐 王朝와 동북아 諸國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靑州는 신라나 발해가 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필수 경로였음은 물론이고, 출입 수속을 시행하던 주요 장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엔닌의 일기에는 당시 淄靑平盧節度가 친히 엔닌 일행의 수속 과정을 처리했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교 사무를 고도로 중시했던 정황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靑州의 지방 관원과 백성들은 엔닌 일행에 대해 정성을 다해 환대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당시 山東 백성이 지녔던 우호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五代에 들어서도 靑州에는 그대로 평로군절도사가 주둔하며 압신라발해양번사를 겸하였다. 이들은 신라와 발해 등 동아시아 諸國의 외교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靑州의 대외 활동과 해외 무역은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 2010년 제5기

元朝时期的山东半岛在与高丽海上商贸交往中的重要作用

元朝 시기 고려와의 해상무역에 있어 산동반도가 지닌 주요 작용

周霞 p. 43~46

元太宗 3년(1231) 蒙古는 高麗에 침입하여 정복한 후, 통혼 관계를 통해 고려와의 밀접하고도 특수한 宗藩關係를 수립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고려의 독립을 승인하였지만, 실제로는 고려를 완전하게 통제하여 하나의 行省처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山東半島는 당시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造船·航海 기술에 힘입어 고려와의 빈번한 해상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元代의 산동반도는 고려의 麻布 제품이 판매되는 주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 絲綿織品을 수출하는 중요 기지이기도 하였다. 특히 원대에 이르러 絲織業은 산동반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달한 수공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山東은 絲織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2005년 7월 蓬萊市文物局에서는 대규모로 ‘蓬萊水城小海’ 탐색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량의 器物이 출토되었다. 그중에는 두 척의 선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선박 형태와 제조 기술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高麗의 古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蓬萊第三號古船’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의 古船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이것의 출토를 통해 산동반도가 元·明 시기 中朝 무역의 주요 통로였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산동반도에 위치한 登州港이 당시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고 발굴 성과는 元朝 시기 登州 일대가 인접 內地와 고려와의 무역 및 인적 교류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貨物의 집산지로서 그 무역 루트가 日本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 『大家』

■ 2010년 제7기

略论隋唐与朝鲜三国的文化交流

수당과 조선 삼국의 문화 교류

杨世新 p. 59

隋唐은 조선의 삼국과 광범위한 문화 교류를 가졌다. 정치제도·유학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교류가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쪽은 서로 이득을 거두었으

며 깊은 우의를 다졌다.

1. 수·당과 고구려 - 이들은 정치와 전쟁을 위주로 한 교류를 했다. 당 건국 이후, 고구려는 백제와 여러 차례 연합해 신라를 공격했고 당이 조성한 동아시아 국제 체제를 위협했다. 수 양제, 당 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당 고종은 즉위 후 ‘원교근공’의 정책을 펴서 신라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당은 總章 원년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2. 수·당과 신라 - 수·당과 신라의 교류는 그 범위가 광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일찍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詩歌와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두드러지는데 최치원의 활동은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 신라는 한자 문화를 적극 수용해 유학을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를 시스템화했다. 공맹의 학설을 신라 國學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외에 종교 분야에서는 도교가 당 전기에 한반도에 유입되었고 불교는 일찍이 남북조 시기에 신라 통치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불교는 당시 신라의 국가 종교로 채택되었고 신라는 여러 차례 사람들을 파견해 불교 공부를 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전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고 심지어는 당을 통해 천축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는 신라인도 있었다.

3. 수·당과 백제 - 백제도 고구려·신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교류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해 남조의 책봉을 받았다. 이후 다양한 교류를 갖다가 顯慶 5년, 고종이 소정방 등을 파견해 10만의 군대로 백제를 멸망시켰다.

4. 특징 - ① 수·당과 삼국의 교류는 官方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했지만 민간에서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단편적이지 않고 중층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소중한 공통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냈다. ② 문화 교류에 있어 대등함과 균등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중원의 문화가 조선 삼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당의 삼성육부 제도, 조용조 제도, 호적 제도 등은 반도 삼국에 의해 서로 다른 수준에서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와 백제는 당 조의 지방 정치제도를 모방해 전국을 州 등의 행정구역 체제로 나누었다.

● 『大众文艺』

■ 2010년 제14기

918~1392, 中国人在韩国

918~1392, 한국의 중국인

李廷靑 p. 163~164

918년에서 1392년은 중국의 五代에서 金元에 이르는 시기로 한국의 역사로는 고려 시대에 해당된

다. 이 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교류 관계는 매우 밀접했고 각 계층의 인사들이 빈번하게 왕래했다. 이 중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이 고려에서 벼슬자리를 지냈다. 비록 관련 자료의 미흡함으로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현존사료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文風을 진흥시킨 雙冀 - 쌍기는 본래 後周 사람으로 대리평사 등의 관직을 지냈다. 고려 광종 7년(956)에 封冊使 薛文遇를 수행해 고려에 왔다가 병에 걸려 임시로 체류를 연장했다. 병이 완쾌된 후 그의 才華를 알아본 고려 광종의 만류로 고려에 남아 벼슬 생활을 시작했다. 광종의 대대적인 중시를 받은 그는 元輔, 한림학사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그의 행적 중에 고려 광종에게 과거제도를 실시해 인재를 등용하자고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쌍기의 아버지 쌍철은 자신의 아들이 고려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따라 고려에 왔다. 쌍기의 후광을 바탕으로 쌍철은 고려에서 佐丞 자리에까지 올랐다.

2. 博學能文의 胡宗旦 - 호종단은 宋朝 福州 사람으로 大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는 宋 商人들을 따라 고려에 갔다. 당시 고려는 송의 선진 문화를 부러워하던 터라 송에서 온 사람들을 관료의 일부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고려 예종은 그를 총애했으며 寶文閣待制로 임명했다. 이후 그는 유가 관념을 바탕으로 고려 예종의 정치를 도왔다. 호종단은 博學聰敏할 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에도 능했다. 예종 이후에는 仁宗을 모시며 起居舍人이 되었다.

3. 용감하게 왜구에 저항한 羅世 - 나세는 원 사람으로 고려의 안전보장과 외적 퇴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 신우왕(1374~1388) 초기에 왜구의 배 50여 척이 고려에 침략을 감행했다. 이후 羅世는 고려인의 생활 안정과 외부 세력에 대한 공격을 막아 내는 데 노력했다. 여러 차례 왜구의 침범을 물리쳐 고려의 국방 사업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4. 한때를 주름잡은 印侯 - 인후는 몽골인이다. 그는 고려와 원의 聯姻 관계가 유지되는 배경 하에서 고려로 유입되었다. 인후는 고려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고려 시기 동안 많은 중국인이 고려 조정에 벼슬을 하며 고려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현재까지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본문은 한국 측의 史籍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东岳论丛』

■ 2010년 제1기

论明神宗与援朝御倭战争

명 신종과 임진왜란

朱法武 p. 53~58

萬曆 20년 4월, 일본 풍신수길은 조선에 침략을 감행했고 명은 얼마 후 두 차례에 걸친 파병을 통해 조선을 도왔다. 전쟁의 원인, 과정 및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지만 명 최고 결핵권자인 신종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현재 소략한 상태이다.

1. 전쟁 초기의 주전파적 입장 - 만력 16년 일본의 關白 풍신수길은 일본을 통일한 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 당시 정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신종이었지만 일본의 침략 의욕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만력 20년 일본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당쟁을 일삼았던 조선은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해 단지 2개월 만에 의주 지역까지 내몰렸다. 이때 조선은 명에 원군을 청하게 되고 신종은 主戰의 입장을 취하면서 요청을 수락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후 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선이 명에 대해 유지해 온 사대적 귀속 관계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공 체제의 붕괴를 명조가 원하지 않았던 것 또한 한 이유이다. 祖承訓이 이끄는 전쟁 초기 명의 원군은 현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수월한 상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평양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병부에서는 각 지역의 의견을 모아 조선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고, 신종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 다른 논의가 없도록 명령했다. 이후 신종은 宋應昌 등에게 여러 차례 조문을 내려 왜국을 몰아내 후환을 없애도록 했다. 결국 만력 21년 1월, 명과 조선의 군대는 평양에서 큰 승전을 거두었고 은 10만을 내어 노고를 치하했다. 명 신종은 조선을 도와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견실한 주전파였다. 평양대첩이 물론 현장 장수들, 송응창, 이여송 등의 활약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했던 신종의 노력 또한 역할이 크다.

2. 明과 日의 화의 기간 동안의 입장 변화 - 만력 21년 1월, 평양에서 큰 승리를 거둔 명군은 경솔한 태도로 인해 다시 수세에 몰렸다. 이때 명과 일본은 모두 군사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는데 일본이 화의를 먼저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명 신종은 和談을 허락했다. 그러나 당시 명 조정에서는 이견이 분분했고 신종 또한 명확하게 태도를 표명하지 못했다. 이후 명 조정은 일본 使者 小西飛에게 3가지 요구 사항(일본군의 전체 철군, 책봉만을 허락하고 通貢을 허락하지 않음, 앞으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맹세)을 전달하고 이종성, 양방형을 正副使로 삼는 책봉사절단을 일본에 보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남부에 주둔하며 화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부상서 石星은 일본이 다른 뜻은 없다

고 주장하며 화의를 통한 책봉을 건의했고 신종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한 후 풍신수길은 명의 책봉을 거절했고 다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해 명과 일본의 화담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이에 대해 신종은 석신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려 했다. 한편, 邢珣를 수장으로 삼아 병사를 파견해 조선을 돕도록 했다.

3. 전쟁 후기의 반성 - 화의가 무산된 후 명 조정은 10만여 명의 군대를 동원해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했다. 신종은 전쟁 초기에 가졌던 주전 태도가 화의 기간에 다소 유동적으로 변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더욱 강력한 주전 태도와 입장을 취했다. 만력 26년, 명군의 대대적인 진격이 성과없이 미궁에 빠지고 말았지만 신종은 태도의 변함없이 전쟁을 독려했다. 그러던 중 만력 27년 풍신수길의 사망으로 일본군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군은 속속 전쟁의 승전보를 올렸고, 결국 일본군의 패퇴로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났다.

4. 명 신종이 주화와 주전 사이에 태도가 변했던 원인 분석 - 전쟁의 전체 시기 동안 신종의 태도 변화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 측면을 거론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종의 외교 이념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신종의 명 중심 천하관은 오랜 기간 충성을 보여준 조선의 위기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출병을 했지만, 명에 奉貢을 위해 조선을 지난다고 한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국내외의 정세에 대해 신종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명 조정의 내부 인사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모두 부족했고, 신종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신종의 심리성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역시 태도가 변화되었던 원인 중 하나이다. 당시 국정을 등한시하면서 주색과 재물을 탐하던 변태적 성격이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신종의 태도를 갈팡질팡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0년 제8기

高麗禮制研究

고려 예제 연구

金禹彤 p. 65~69

고려가 禮制를 갖추게 되는 것은 고대 시기 조선 반도의 제도사, 정치 문화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적 완비로, 한반도 정치 문화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단초이자 표시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의 治國思想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예제는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그 자체의 규모도 상당했는데 우선적으로 五禮 체계가 구축되어 이를 통해 예제 정비의 시초를 알렸다. 고려는 중국의 예제를 공부하고 참고한 후 국내 사정에 맞춰 자신들만의 특징을 내포한 예제 구성을 확립했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한반도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치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고려 왕조는 예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첫 번째 禮書에 해당되는 『詳定古今禮』를 편찬했다. 이는 이후 왕조가 예제를 완성하고 정형화하는 데 기반을 제공했다. 한반도 내의 예제 발전에 있어 이정표와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고려 예제의 내용 - 고려의 예제가 구성되는 것은 成宗 시기에 시작되어 吉禮 체계를 갖춘 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睿宗 8년에는 '儀禮詳定所'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毅宗 시기에는 체계화된 예서인 『상정고금례』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① 高麗五禮 - 길례는 『高麗史』 기록 중 내용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가장 큰 부분으로 통치자의 정치 논리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고려 길례 중에는 園丘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래 천자의 의식이었지만 고려가 이를 변통적인 藩屬禮적 성격을 이용해 채용했다. 이외에 孔子釋奠을 실시했는데 한반도 내 공자숭배의식의 서막을 열었다. 또, 동명성왕과 箕子에 제사지냈으며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자부했다. 한편, 중국과 달리 宗廟에 왕의 모든 선조를 모시는 특이한 제도를 유지했다. 凶禮는 주로 國恤, 喪葬 및 服紀 제도와 관련되어 제정되었다. 흉례에는 불교의 영향이 컸다는 특징이 있는데 고려의 국가 정세에 따라 시행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흉례 중 五服 제도는 당의 제도와 기본적인 구조를 같이 하지만 내용상 母族과 妻族을 중시하고 長子의 服紀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특징이 있다. 軍禮는 침략과 兵役에 관련된 것이어서 중국의 예제에서 소략하게 갖춰져 있는데 고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교의 영향이 컸던 고려는 이를 더욱 간략하게 설정하고 있어 그 기본 條目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활쏘기 문화가 발달했던 고려에서 교화의 의미를 내포한 '射禮'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고려 왕조가 禮意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賓客을 맞이하는 賓禮의 경우, 『고려사』에 宋朝에 관한 기록은 없고 단지 '北朝(요·금·원)'와 '大明(명나라)'에 관한 내용만 형식의 큰 차이를 보이며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명에 관한 것은 『詳定古今禮』에서 취록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빈례의 내용은 매우 빈약한데 이는 고려가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왕권 위엄을 보이기 위한 빈례에 무관심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嘉禮는 오래 중 가장 번잡스러운 것으로 上下尊卑, 君臣關係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많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려는 가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불교와 유교의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 가례를 제정했다.

② 高麗二氏禮 - 고려 시대는 한반도의 문화가 변화되는 시기에 해당되는데 '華風(중국)'과 '土俗(고려 현지)'의 풍속이 공존하고 유·불·도의 문화가 뒤섞인 다원화된 복잡성 문화를 구성했다. 이는 고려의 예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高麗史』, 「吉禮」 중에 도교 제사를 위주로 한 '雜祀'와 「嘉禮」 중에 불교 의전을 중심으로 한 '雜儀'에서 확인된다.

2. 고려 禮制의 시행 효과와 역사적 의미 - 고려의 예제는 한반도 고대의 문화제도사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① 고려는 成宗 시기 예제를 만든 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 크게 3가지 경향을 나타냈다. 君臣朝儀

式을 강화하고 禮官 制度를 완비했다. 禮를 法에 반영시켜 시행했다. 官이 주도가 되어 ‘孝義’, ‘節婦’ 등의 관념을 선전해 禮制敎化를 시도했다.

② 고려의 예제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첫째, 한반도 내의 문화제도사가 발전하는 단초를 열어 고대 예제 발전의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慕華사상의 영향 하에서 한반도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국 유교 문화를 배우고자 했는데 고려의 예제는 한반도의 유교화를 촉진시켰다. 셋째, 고려의 예제가 발전한 것은 ‘동아시아 禮治의 정치문화권’이 형성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공통의 정치문화권 형성에 제도적 기초를 만들었고 李朝는 이를 바탕으로 禮治의 정치문화 관념을 확립했다.

■ 2010년 제9기

韩国古代文人眼中的中国-以『朝天记』,『朝京日录』,『入瀋记』为中心

한국 고대 문인의 눈에 비친 중국-『조천기』, 『조경일록』, 『입심기』
를 중심으로

韩梅 p. 51~54

1. 引言 -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朝天記』, 『朝京日錄』, 『入瀋記』 3편의 연행록을 통해 당시 조선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許葑의 『朝天記』는 1574년 선조의 명을 받고 명에 聖節使로 출사했을 당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1575년에 완성되었다. 『朝京日錄』은 1636년 金堉가 聖節千秋進賀使로 명조에 입사했다가 경험한 것을 적은 견문록이다. 『入瀋記』는 1783년 李田秀, 李晩秀가 聖節兼問安使 李福源을 따라 청조에 갔다가 지은 견문록이다. 이들 책은 각각 시기적으로 16, 17, 18세기에 해당되어 시대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彝倫將至於滅絕” - 허봉은 중국에 도착한 후 당시 불교와 도교가 유행하는 모습에 크게 놀라고 낙담했다.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 중국 문인들과의 학술 토론을 가졌는데 1574년 6월 26일 4명의 중국 학자와 대면해 양명학에 대한 학술적 격론을 나누었다. 이후 國子監 생도와도 만나 또 한 번의 양명학 토론을 했다. 두 차례의 토론을 통해 허봉은 당시 중국에 유교가 천하를 통일하는 사상이 되지 못하고 주자학이 지고무상한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양명학이 중국 문화의 주류가 된 현실에 대해 사악한 학설이 유행하니 彝倫이 끊기고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3. “天朝之事亦可憂” - 김육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명 말기로 청 만주족이 명과 조선의 육로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다. 김육은 해상으로 명에 입조했으며, 이때 청나라 군대의 강성함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김육은 『조경일록』에 명나라 문무관원의 부패상황을 묘사했다. 軍將들이 軍士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軍務에는 소홀히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외에 사신단의 이동 지역을 통치하던 지방 관리들이 사신단에 대해 요구했던 불법적인 뇌물 요구를 통렬히 비판하고 명이 망하게 될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다.

4. “國力之殷富亦可知矣” - 이복원을 수행한 이진수, 이만수는 출사의 행선지가 북경이 아니라 심양이었다. 이들은 行程이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중국 현지의 거주 기간이 다른 조선 사절단보다 길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은 주로 淸朝의 앞선 기술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내용들을 책에 기술했다. 使行 기간에 중국인 가정을 방문했다가 그들이 대접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외에 淸의 大小도시들에서 운영되던 저자거리의 번성함에 매우 놀랐으며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5. 맺음말 - 허봉, 김육 그리고 이진수, 이만수가 남긴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 내부의 모습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묘사되었다. 이것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달랐다는 점과 당시 중국(명과 청)과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상이했다는 점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비록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뭇 다르지만 이들의 기록은 중국 각 시기별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조선 문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심리 상태와 사회적 특질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滿族研究』

■ 2010년 제4기

渤海上京文化研究的回顾与思考

발해 상경 문화 연구의 회고와 생각

刁丽伟 p. 7~11

19세기 이래로 발해사 연구는 중국·러시아·북한·일본·한국 등지의 학자들에 의해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渤海學’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었다. ‘渤海文化’는 발해학의 한 부분으로서 각국 학자의 관심을 받았다. 이 중 발해 상경 문화는 발해 문화의 중요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른바 ‘海東盛國’ 문명의 가장 화려한 부분으로 칭해졌다.

1. ‘발해 상경 문화’의 涵意 : 발해 상경 문화라는 개념은 20세기 1990년대에 張高 선생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渤海 上京城 文化’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발해 상경성 문화’라는 말은 발해 시기 上京龍泉府 관할 지역에 속하는 물질문화, 정신문화, 행위 문화 및 제도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2. 발해 상경 문화 연구의 역사와 현황 : ① 발해 상경 유적지의 발견과 확정 - 발해국 멸망 이후 700여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된 탓에 상경용천부 유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 청 건륭 연간이 되어서야 『滿洲原流考』가 찬술되면서 寧古塔 서남쪽 60리 떨어진 곳의 고성(高城)이 발해 상경용천부 유지임

이 알려졌다. 이후 이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졌고 러시아와 영국 학자들에게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발해 상경성 유적지의 조사와 고고학적 발굴 - 현재까지 학계의 발해 상경 문화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발해 상경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李陳奇 등에 의해 일명 ‘四段階說’로 개괄될 수 있다. 1단계는 20세기의 1930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해 상경성 유적지에 대한 3차에 걸친 조사와 발굴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2단계는 20세기 1960년대에 해당되며 이 단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협조 체제 하에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인 활동 내용에 속한다. 3단계는 20세기 1980년대의 일로 흑룡강성 문물관리위원회에서 ‘淸整辦’라는 기구를 조직해 상경성의 궁성 유적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발굴 작업이 주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4단계인 20세기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에 이르는 기간에는 흑룡강성 문물관리연구소, 길림대학 고고학과, 목단강시 문물관리부서가 연합하여 발해 상경궁성에 대한 유물 조사를 진행했다. ③ 발해 상경 문화의 연구와 탐구 - 발해 상경 문화의 연구는 20세기 1920년대까지 소급되는데 1921년의 『寧安縣志』에 기록된 발해 상경 유적지의 조사 내용과 상경성 실측도의 작성으로 그 서막을 열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발해 상경 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총 1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발해 상경 문화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한다.

3. 발해 상경 문화 연구의 몇 가지 생각 : ① 발해 상경 문화가 발해 문화 연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지위 - 발해 상경 문화는 해동성국의 찬란한 문화 중의 중요한 부분으로 후세인으로 하여금 당시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발달된 정도를 가늠하게 해주고 전체 발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② 발해 상경 문화와 당의 중원 문화, 동북아 문화와의 관계 - 발해 상경 문화로 대표되는 발해 문화는 중원의 문화와 동아시아 주변국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③ 발해 상경 문화 연구 중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한 이론 문제 - 앞으로 발해 문화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해 상경 문화의 연구 대상을 발해 상경성으로 인해 제시된 역사적 문화유산 속에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아울러 이로 인해 반영되어진 발해 상경성의 정신, 행위, 제도적 측면의 여러 문화 현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발해 상경 문화의 연구 범위가 ‘상경용천부’의 지리적 범위를 초월함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해국의 건국을 주도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며 천도 이후의 주류 민족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다. ④ 발해 상경 문화에 담겨진 민족정신의 발굴 - 발해 민족의 정신이야말로 발해가 찬란한 문화를 창출해 ‘해동성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였다.

● 『牡丹江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5기

渤海国佛教遗迹发掘及其佛教的传布考

渤海國 불교 유적 발굴 및 그 불교의 전파에 대한 고찰

卢伟 p. 69~72

발해 유적지에서 발견된 대규모 불교 유적은 ‘盛唐 문화’의 영향 하에서 발해의 불교가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이것은 발해 불교의 전파와 그 발전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渤海 上京의 龍泉府 유적지 및 부근 지역, 즉 현재의 黑龍江省 寧安市 海鎮에서 발견된 불교 사원은 총 9곳인데, 그중 7곳은 遺址 城內에 있으며, 2곳은 城外에 위치한다. 현재의 吉林省 和龍·安圖·龍井·汪清 등에 해당하는 中京 西古城 및 부근 지역에서 발견된 불교 사원은 총 14곳이며, 대표적인 곳으로는 高產寺·軍民橋寺·龍海寺·東南溝寺 유지 등이 있다. 또한 渤海 東京 龍原府 옛 터 및 부근 지역, 즉 현재의 吉林省 琿春 일대에는 총 7곳의 불교 사원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馬滴達寺, 新生寺, 三家子良種場寺 등이 있다. 그밖에도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러시아 임해 지구에 위치한 馬蹄山寺·杏山寺·克拉斯基諾寺 유지 등 세 곳이 있으며, 조선(북한) 북부에서 발견된 사원 유적들도 존재한다. 현재 중국에서 발굴하고 있는 발해 사원 건축 유적지는 대략 네 곳이 있으며, 러시아와 조선은 각각 2곳이 존재한다. 또한 발해 유지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규격의 불상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수의 사리함도 출토되었는데, 이것 역시 盛唐 문화의 영향 하에서 발해의 불교문화가 융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기원하여 漢代에 중국으로 유입되었으며, 唐代에 이르러 최고조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唐代에는 강성한 국력을 바탕으로 불교 등을 비롯한 여러 문화가 동아시아 세계 전반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東亞佛教圈’을 형성하였다. 한편 발해는 唐과 일본, 신라의 연결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발해에서 불교는 신속하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五京 지역에서 그 추세가 두드러졌다. 불교의 광범위한 유행은 역사적·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통치 집단의 강력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다. 五京 등의 지역은 원래 고구려 관할 구역으로서 불교 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곳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발해 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역사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粟末靺鞨人은 隋에서 唐初에 이르는 시기 營州와 遼西 일대로 이주하였는데, 이곳도 불교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었으므로 粟末靺鞨人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불교의 발전을 토대로 승려는 발해 사회의 중요한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승려는 불교 활동에 종사함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는데, 釋仁貞과 釋貞素 같은 이들은 ‘日本使團’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발굴 자료들을 통해 발해에서 활동했던 주요 종파들의 행적도 추적할

수 있는데, 天台宗, 華嚴宗, 淨土宗, 密宗(眞言宗) 등이 특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法相宗이나 禪宗, 律宗 등도 당시 발해에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제6기

牡丹江师范学院渤海史研究述评[上]

목단강사범학원의 발해사 연구 현황[상]

张高·姜华昌 p. 27~30

牡丹江師範學院의 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발해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논문의 발표는 조금 늦은 1970년 후반부터였으나,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최초로 발해사 연구 과정을 개설하였다. 본교의 발해 연구 40년은 대략 1970~1980년대의 전반기와 2000년을 전후한 20년의 후반기로 나뉜다.

1970~1980년대의 20년은 다시 전반기 10년과 후반기 10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는 주로 발해사 연구의 기초를 형성하였던 시기로 張高·董振興·姜華昌·徐琳 등은 현지 답사와 학업을 병행하였다. 후반기 10년은 본교의 발해사 연구가 점차 총체적인 학제간 연구를 형성한 시기로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최초로 政治系에 渤海國史, 渤海國歷史研究 등 발해사 교과 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1986년 東北三省渤海史學術討論會를 개최하고 中國渤海史研究會가 성립됨으로써 발해사 연구 역량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연구회는 이후 발해사연구소로 발전하였으며, 2005년에는 정치계에서 歷史系가 분립하였고 2009년에는 정치계가 政法學院으로 격상되었다.

1990~2010년의 20년 동안 본교의 발해 연구 수준은 그 제고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성내 고등교육기관 중 발해 연구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였고 마침내 국외 학계로 향하고 있다. 먼저 '渤海學' 학과 설립을 주장하여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高句麗與渤海學術討論會, 渤海史學術討論會, 延邊大學第二次渤海史學術討論會, 93'中國東北與日本國際學術研究會 등 국내외 학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990년을 전후하여 『渤海上京研究』, 1993년에는 『中国古代北方民族文化史』民族文化卷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 2010년 제6기

试论渤海国的归属问题-驳苏联学者谬论

발해의 귀속 문제에 대한 시론-소련학자의 오류를 논박함

秦中明 p. 55~57

중소 분쟁이 격화되면서 소련은 극동 지역의 발해 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강화하였는데 이

는 唐代 발해의 역사를 소련 고대사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소련에는 Okladnikov, Shavkunov, Tikhvinskii, Krushanov 등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등장하여 발해사를 소련의 역사로 귀속시켰다. 1950년대에 Okladnikov는 극동의 역사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극동 지역의 민족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 그는 논지를 바꾸어 극동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 밖에서 특유의 문화를 독립적으로 견지하였다고 주장한다. 1972년 S. I. Tikhvinskii는 모스크바에서 『中国近代史』를 출간하여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 1644년 청조의 건립이며, 중국 인민들의 반제반봉건 투쟁은 청조의 침략 확장과 만주족의 정복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족 이외의 소수민족을 非中國民族으로 여겨 본래 중국의 행정구역에 속했던 黑龍江 유역·西藏·新疆 등지를 중국과 별개로 논하여 중국 소수민족 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을 부정하였다.

발해의 민족은 중국 동북의 고대 민족인 肅慎의 후예이다. 이들 속신이 挹婁-勿吉-靺鞨로 이어지는 과정은 문헌의 기재로 보나 고고학적 자료로 보나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발해는 말갈에 의해 건립된 지방정권으로 당은 713년 말갈 지역에 忽汗州를 설치하고 濛汗州도독부를 두었다. 725년 흑룡강 이북의 흑수말갈 지역에는 黑水軍을 설치하고 흑수도독부를 두었다. 이 두 도독부는 안동도호부의 관할에 있었는데, 이를 보더라도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임을 알 수 있다. 또 발해는 건국 초 당의 幽州都督府 관할이었으며 이후 평로치청절도사의 통제를 받았다.

당과 발해의 관계는 출토 문물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上京 등지에서 출토된 文字瓦와 吉林省에서 출토된 貞慧公主墓碑 등의 문물에서 발해가 漢字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정혜공주묘비의 문장은 전형적인 駢體文으로 발해의 문학 역시 당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石獅 등의 유물과 遺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 양식과 묘장 형식, 벽화에서 보이는 복식 등은 모두 발해의 문화가 당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준다.

● 『文教資料』

■ 2010년 제2기

论明建文朝与朝鲜的政治关系

명 건문제 시기 조선과의 정치 관계

崔坚 p. 104~105

1. 명 건문제 즉위 초기의 명과 조선의 정치 관계 - 건문제는 즉위 이후 내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식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조선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저 홍무제가 시행했던 기본 정책을 견지할 뿐이었다. 즉, 조선왕의 신분을 정식으로 승

인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貢馬 시기를 제한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다. 조선은 홍무제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백관들이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각별한 마음을 전달했지만, 건문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선 정종은 김사형을 파견해 건문제의 즉위를 축하하는 동시에 당시 3년 1회의 조공 빈도수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문제는 어떠한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기존의 뜻을 고수했다. 조선의 사신은 건문제의 印信만을 받아들고 귀국할 뿐이었다.

2. 靖難之役과 명·조선 정치 관계의 전환 - 건문제 즉위 초기에 실시한 삭번 정책으로 인해 연왕은 중앙에 반기를 들고 '정난지역'을 일으켰다. 명 조정과 연왕의 군대는 하북을 중심으로 3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조선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연왕이 승리할 것이라 여기지 않아 戰役의 사실을 모른 척하며 이전처럼 聖節의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점차 전황의 변화에 따라 조선은 건문제 朝廷과의 관계를 再考하기 시작했다. 이때 건문제는 연왕의 정난으로 인해 요동 지역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인식했고 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결국 요동 남부 지역의 변경 안정을 목적으로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이는 조선에 대해 國王誥命과 印信을 하사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정종의 사망 후 태종에 대해서도 고명과 인신을 하사했다. 건문 4년, 전황은 연왕의 우세로 돌아섰고 조선은 이같은 사실을 망명한 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때문에 태종은 건문제의 출병 요청을 거절했고, 戰馬貿易도 단계적으로 중지시켰다. 아울러 燕王에 대한 친선의 뜻을 내비쳤다.

3. 조선은 명의 여진 지역에 대한 세력을 확장했다 - 조선은 북방 여진족의 거주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대하기 위해 여진인의 귀속을 유도했고 민족 동화의 방식으로 여진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금하게 시행한 나머지 여진인과 조선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건문 2년, 兀良哈이 조선 慶源 萬戶 李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 상황이 고조되기도 했다. 건문 3년에는 조선이 慶源城을 완성해 북방 지역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려 했고, 이와 관련해 건문 4년, 울랑합 여진은 조선에 두 차례 조공을 했다. 조선은 울랑합 여진을 회유하는 것과 동시에 북부 지역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量田受租'를 실시해 조선체제화 하려했다. 이에 대해 明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조선의 세력 확장에 기회를 제공했다.

4. 결론 - 건문제는 긴장 상태의 지속으로 이어진 홍무제 집정 말기의 명과 조선의 긴장 관계를 변화시켰다. 비록 그 원인이 '정난지역'의 발생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건문제는 명과 조선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 국왕에게 誥命과 印信을 하사해 명과 조선 관계 개선의 걸림돌을 해결했다는 데에서 건문제 이후 명 황제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 2010년 제6기

高句麗石質文物風化的保護方法研究

고구려 석질 문물의 풍화에 대한 보호 방법 연구

王惠貞·馮楠·宋迪生 p. 76~81

고구려 유적지에 보존된 석질 유물은 그 숫자가 매우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 광개토태왕비를 시작으로 환도산성, 장군총과 고구려 古墓群이 그에 해당된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石質古墓는 총 7,929개에 달한다. 이들의 석재료는 대부분 집안성 북쪽 23km 떨어져 있는 綠水橋 주변에서 채취되었으며 화강암이 주를 이루지만 대리암과 백운암도 있다.

1. 고구려 석질 문물 풍화의 주요 요소 - '塞北의 작은 강남'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고구려 문화 유적지는 일교차가 크고 습기가 많아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① 고구려 석질 문물의 화학 성분 - 일본 이학주식회사의 D/Max-RA형 엑스광선 분석기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고구려 석질 문물의 재료는 대부분 규산염 위주의 화강암과 석회질 탄산칼슘 위주의 대리석과 漢白玉으로 이루어져 있어 풍화 속도가 매우 빠른 특징을 갖고 있다. ② 고구려 석질 문물에 대한 물의 풍화 영향 - 고구려 문화 유적지는 습도가 매우 높아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17℃임에도 습도는 80%에 이를 정도이다. 물의 영향은 대략 결빙으로 인한 파열 영향, 물의 흐름으로 인한 유실 영향, 물의 침투로 인한 파편화 영향, 폭우와 강우로 인한 기계적 풍화 영향, 溶鹽으로 인한 화학적 풍화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고구려 석질 문물의 생물적 풍화 - 석질의 표면에서는 대량의 식물·미생물, 특히 이끼나 버섯 등의 균류가 서식하여 석질의 부식을 야기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풍화는 식물의 뿌리가 성장하며 생긴 파괴적 풍화, 이끼와 균류에 의한 표면적 풍화, 미생물에 의한 변색·염색 풍화 등이 있다.

2. 고구려 석질 문물의 보호 방법 연구 - ① 석질 표면에 남아 있는 유해 물질을 세척한다. ② 석질 문물의 방독 살균을 실시한다. 살균제의 비율을 잘 맞춰 복합살균제를 사용해 안정적이고 저독성인 살균을 한다. ③ 석질 문물의 물리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료를 보호한다.

3. 고구려 석질 문물의 보호 효과 - ① 석질 문물의 색깔이 변화된다. ② 석질과 풍화 표본에 대한 보호 조치로 석질 흡수율이 변화된다. ③ 보호 조치를 한 재료의 疏水性이 향상된다.

4. 결론 - 고구려 고묘 건축군의 대표적 석질 문물 수 점에 대한 채집 분석을 통해 고구려 석재의 성질과 병해 유형 및 병해 처리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을 했다. 고구려 석질 문물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화강암과 석회질 탄산칼슘의 대리석, 한백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한 병해의 유형으로는 생물 병해, 화학 풍화 및 표면의 오염 퇴적 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 방법으로는 세척, 살균, 물리적 보호장치 강화와 방독제 첨가 등이 있다.

■ 2010년 제5기

唐高麗遺民《高饒苗墓志》考略

唐高麗遺民《高饒苗墓志》에 대한 고찰

張彥 p. 46~49

2008년 西安의 碑林博物館에는 새로운 소장품으로 唐代 墓誌 한 편이 입수되었는데, 誌蓋에는 “大唐故左領軍員外將軍墓誌”라고 적혀 있었다. 총 4행에 篆書로 되어 있었으며, 행마다 세 글자씩 적혀 있었다. 誌文은 楷書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총 14행에 최대 15자까지 적혀 있었으며 撰者나 書者는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墓誌와 誌蓋 모두 正方形으로 변의 길이는 55cm였다. 필자는 이 誌主의 신분이 唐에 이주해 온 高麗 遺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誌主인 高饒苗에 대해서는 사적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墓誌에서는 遼東人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遼東은 원래 遼東郡을 의미하는 것으로 戰國時期 燕에서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唐代의 遼東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지역 명칭으로 遼河 동쪽에서 조선 반도의 대동강 유역까지를 범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 존재했던 高麗 政權을 특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墓誌에서 高饒苗를 遼東人이라고 한 것을 통해 적어도 高氏의 原籍이 遼河 동쪽 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따라서 高麗人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誌文에서는 高饒苗를 “族高辰, 卞, 价重珣, 琪”라 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辰과 卞은 조선 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던 辰韓과 卞韓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들 지역은 漢武帝가 조선 반도 북부에 郡을 설치했을 당시, 남쪽 지역에 존재하던 部落聯盟이었다. 또한 誌文에는 高饒苗에 대해 “背滄海而來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滄海는 원래 漢代의 滄海郡을 지칭하는 것으로 蒼海郡이라고도 하였으며, 그 위치는 조선 반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高饒苗의 원적은 조선 반도 북부에 속해 있었으며, 이는 곧 그가 唐初의 高麗人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한 편 墓誌는 唐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 유민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誌文의 기재에 의하면 高饒苗는 당으로 투항한 이후 당의 관직을 수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사망 시점인 咸亨 4년(673)까지 長安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唐으로 이주해 온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는데, 史籍과 기존에 출토된 고려 유민의 墓誌에 근거해 봤을 때, 그 시기는 고려에 내분이 발생했던 시점, 즉 唐 高宗 乾封연간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文学界(理论版)』

■ 2010년 제9기

高麗女子对元麗文化的影响

고려 여성이 元과 고려 문화에 미친 영향

徐凤仙 p. 207~208

中韓關係의 유래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는데, 특히 元朝와 조선 반도의 교류는 매우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貢女政策’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려의 여성을 元 사회에 유입시켰던 주요한 경로임과 동시에 고려의 문화가 전파되었던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민족의 문화는 교류와 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1271년 蒙古는 국호를 元으로 개칭하면서 忽必烈이 元의 世祖로 즉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懷柔 政策을 실행하였다. 1274년 元 世祖는 자신의 딸을 高麗 忠烈王에게 시집보냈는데, 이를 시작으로 양국의 通婚 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고려 여성을 貢品으로 元朝에 헌납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중국 봉건 왕조의 역사에 있어 유일무이한 문화적 현상이다. 貢女 政策이 元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유학사상의 유입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족은 초원의 유목민족이었으므로 전통 유학사상과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비해 몽골인의 妻妾으로 헌납된 고려 여성의 경우 名門 가문의 출신들이 적지 않았으므로 ‘讀書識字’의 능력은 물론 歌舞에도 능했으며, 무엇보다 유가의 전통 도덕을 자신의 행위 규범으로 삼고 생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몽골의 귀족 관료는 물론이고 한족 사대부들에게도 보편적인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 이들 고려 여성이 元朝 사회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특히 자식에 대한 교육에서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학사상을 직접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고려 여성은 문화의 매개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두 민족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였는데, 고려의 服飾·音樂·歌舞·藝術 등이 이들을 통해 원으로 유입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美术大观』

■ 2010년 제11기

渤海国遗址建筑文化探究

발해국 유적 건축 문화 탐구

依晓雷·李传刚 p. 55~55

唐代의 渤海國은 당시 동북 지방에서 粟末靺鞨族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 및 기타 민족들을 결합하

여 세운 소수 민족의 지방 정권이였다. 唐代人은 발해의 문화에 대해 이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발해국과 唐朝가 본래 一家였음을 지적하였다. 발해국의 君主는 항상 唐 王朝의 冊封을 받았으며, 동북 지역의 藩國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많은 문헌들과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해국과 唐代의 문화가 완전히 동일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이루어진 융합과 의존 관계에 의해 창조된 결과이다. 고고 조사와 발굴을 통해 드러난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면, 발해 시기의 웅장한 건축 규모와 성대한 기세 아울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外城과 皇城, 宮城 및 관련 고적에서는 古井址와 禁苑址, 街壇址, 寺廟址, 古橋址 등을 볼 수 있으며, 주요 유물로는 石燈幢, 人石佛, 舍利函, 大石龜, 文字瓦, 雕花磚, 八寶琉璃井 등이 존재한다. 그중 清朝 康熙 32년(1713)에 재건된 興隆寺는 黑龍江省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하고 있는 고건축인데, 石燈幢과 石佛造像, 石龜가 대표적인 유물로서 이를 통해 발해의 물질문화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해의 건축과 조형예술은 唐朝 예술의 기초 위에서 더욱 진일보한 형태로 발전하여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한편 上京城 유적은 안정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인데, 唐 長安城의 양식과 구조를 모방한 것으로 총면적은 長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6km²이다. 평면은 長方形이며, 동서의 폭은 4.68km, 남북의 길이는 3.47km, 둘레는 16.3km이고, 外城과 皇城, 宮城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上京龍泉府는 발해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이었으며, 唐代 동북 지역의 중요한 名城이었다. 발해의 城은 平原城과 山城의 두 형태로 나뉘며, 京·府·州·縣의 네 등급으로 구별되는데, 平原城의 경우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비옥한 평원에 위치했다. 街道가 정비되어 있었고, 성안에는 宮殿과 官衙, 백성 거주 구역, 시장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군사상의 수요로 인해 발해는 산지에 성을 많이 건축하였는데, 山城의 경우 일반적으로 平原城을 방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대부분 石을 築城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 『北方论丛』

■ 2010년 제1기

勿吉兴亡史探微

물길 흥망사 탐구

范恩实 p. 74~78

勿吉는 남북조 시기 동북 지역의 신흥 부족으로 학계에서는 고대 동북 지역의 3대 군체 중 하나인 숙신-말갈의 발전 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본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물길의 종족과 중심 분포 지역 등 몇몇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물길의 흥기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 특별히 명확

한 성과가 없었다. 이는 주로 관련 사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물길과 말갈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러 문헌에 기재된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물길의 중심 거주 지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북위 正始 연간에 북위에 온 고구려 사신 芮悉弗이 말한 ‘勿吉에게 쫓겨난 夫餘’는 곧 410년 이후 고구려에 항복한 옛 부여(북부여 혹은 동부여)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물길의 세력은 이미 과거 부여 지역까지 남진한 것이다. 또한 북위에 入貢한 물길 사신 乙力支의 말에 따르면 당시 물길은 第1松花江 중류 지역에 분포하며, 阿什河·拉林河·第2松花江 유역을 통해 남진하였을 것이다.

영국의 민족학자 Anthony D. Smith는 전근대 사회에 존재했던 민족군의 형태를 ‘族團(Ethnic community)’이라 하고, 이는 동일한 명칭과 世系 신화·역사·문화와 영토를 가지며 동시에 명확한 신분과 집단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소가 결핍된 경우는 ‘族類(Ethnic category)’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서에 기재된 물길은 주로 족단의 개념이다. 이와 달리 말갈은 중국 사서에서 족류의 개념으로 서술된다. 사료의 기재에 따르면, 물길과 말갈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족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 보아도 북조 중·후기의 물길은 第1松花江 중류에서 점차 부여의 옛 땅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5세기 전반, 第1松花江에 거주하던 부족의 일파가 豆莫類 집단과 조우하였으며, 양 부족은 토지와 자원을 놓고 충돌하였다. 두마류 등의 원주민과 혼합·충돌의 과정을 거쳐 이들은 점차 새로운 문화적 특질을 갖게 되었으며, 농업이 발달한 부여·고구려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그들의 문화적 특색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魏書』의 기록에 따르면 武定 연간부터 조공을 계속했던 물길은 북제 시기에는 단 한 차례 조공하였는데, 이미 이 시기 말갈의 조공 기록이 있어 물길이 쇠망하고 말갈이 대신 흥기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通典』에는 말갈을 곧 물길이라 하며, 서북방으로 거란과 마주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는 第2松花江 중류의 粟末部이다. 또한 『隋書』에 기재된 고구려와의 관계를 통해 보아도 물길은 속말부와 완전히 일치한다. 즉 수대의 속말말갈이 바로 북조의 물길이다. 다만 고구려와 돌궐의 성장으로 중원 왕조와 교통이 어려워진 물길은 비로소 수대에 다시 조공하였으며, 북제 이후의 조공은 물길 족단이 아니라 말갈이라는 족류에 속하여 시행된 것이다.

-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

■ 2010년 제1기

试论八世纪前叶新罗在东北亚的地位

8세기 전반 동북아에서 신라의 지위

王霞 p. 94~97

8세기 동북아 국제사회의 중심은 당이었으므로 동북아에서 신라의 지위를 살펴보면 우선 당의 신라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의 적극적 친당 정책으로 인해 당은 이전의 羅唐戰爭으로 인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라를 “君子之國, 仁義之鄉”으로 인식하고 使臣과 宿衛質子를 매우 우대하였다. 이로 인해 양국의 문화 교류는 더욱 증가하여 신라를 동북아 사회에서 문화적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는 당시 당의 문물을 계속 수용하였던 일본이라도 따를 수 없는 지위였다.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신라가 일본에게 조공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신라의 조공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나당전쟁 시기 혹은 渤海에 대해 신라가 맞서는 시기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약소국인 신라가 자신의 실리를 위해 일본의 지원을 위해 일본이 바라는 외교 방식에 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일본 학자들이 이를 가지고 신라가 일본에 朝貢藩屬國의 의식을 지녔다고 보는 것에 회의적이다. 또한 752년에 일어났다고 하는 소위 天寶爭長 사건은 그 세부 내용을 따져 볼 때 당의 율령 체제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라의 입장에서 이를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이 시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라가 모든 국가가 모인 국제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아래임을 자인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 입장에서조차 충실한 변국인 신라를 “不蕃之臣”인 일본의 밑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 2010년 제1기

清初朝鲜表笺问题研究

청초 조선 표전 문제 연구

李善洪 p. 90~93

清初에 조선과 表箋問題가 발생한 원인은 당시 양국 간의 정치·군사상 갈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었고, 이 갈등은 자연히 외교 문서에 반영되었다. “丙子胡亂” 이후 淸 조정은 조선에게 거액의 물자와 금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조선이 군사 시설을 복구하는 것을 엄금하는 등 조선을 압박하였다. 그 목적은 明清戰爭 중에 조선이 명에게 군사 후원을 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조선을 청에게 철저히 굴종시키는 데

있었다. 청 조정은 조선이 무력에 꺾박되어 자신을 正朔으로 받들고 있지만 심중에는 명이 다시 재기할 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게다가 조선이 명을 도와 청에게 복수할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 표전 문제는 바로 청 조정이 조선을 威壓하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었다. 표전 문제가 일어난 원인 중 표전 撰述者가 문자에 대해 교정을 충실히 하지 못해 발생한 점도 있지만, 고의로 표전을 틀리게 번역하거나 표전에 쓰인 문자를 일부러 오독해서 발생한 “文字獄”과 같은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었다.

조선 표전 문제는 康熙 연간 후기 이후로 점차 적게 발생하였다. 1705년 청 禮部에서는 조선 표전의 미비함으로 인해 內閣이 纂定한 “表箋成式”을 조선에 보내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표전 문제가 줄어든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청의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청 조정의 조선에 대한 태도가 점차 온건해져 결국 惰性化 된 것과 조선 역시 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점차 버려서 양국 간의 관계가 평온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 『史林』

■ 2010년 제5기

周隋之际对高句丽册封的改易与隋丽关系之走向

北周·隋 시기 고구려에 대한 책봉의 변화와 隋·고구려 관계의 추세

周向峰 p. 57~63

고구려는 중국 고대 夫餘族에서 발원하였으며,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7세기까지 동북아 지역의 중요 정치 세력으로 기능하였다. 고구려는 역대 중원의 왕조들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대표적 표지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冊封’이었다. 冊封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北周가 北齊를 멸망시킨 후 隋가 北周로부터 선양받기까지의 4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우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北周·隋가 고구려에 封授한 官爵에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周書』와 『隋書』, 『北史』 등의 기록에 의하면, 北周 武帝 建德 6년(577)에 전통적으로 봉해졌던 ‘高句麗王(高麗王)’이 ‘遼東王’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隋 開皇 元年(581)에 이르러 ‘高麗王’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던 배경에는 각 나라가 획득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絲綢之路』

■ 2010년 제24기

当议唐乾陵六十一蕃臣像中的新罗人

당 건릉 61번신상 중의 신라인

赵斌 p. 84~88

중국에서 유일하게 두 명의 황제가 안치된 당 건릉은 능원 내에 거대한 규모의 석상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며 중국 내에서 가장 완전하고 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릉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로 翼馬, 石獅, 仗馬 등의 석상에 대해 예술사 혹은 문화교류사적 시각에서 비롯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주작문 밖에 있는 61개의 변신석상에 대한 언급은 소략하다.

본문은 건릉 주작문 앞 동쪽 석상군의 동남 방향에 있는 석상(편제번호: QLES1)을 주된 토론 대상으로 삼고 있다. QLES1석상은 비록 머리 부분이 이미 일실되고 刻文이 거의 지워졌지만 몸체 부분은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석상의 복식과 조각상태 및 석상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것이 고종, 무척천 시기 당과 빈번한 왕래를 가졌던 신라의 사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文武王 金法敏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QLES1석상의 복식 형태의 경우, 기존의 설명이 석상의 上衣에 집중되어 있다. 下衣의 모습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당대 무인의 복장과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이 석상의 모습은 흡사 장회태자 묘에서 발견된 東客使에 있는 머리에 깃털을 꽂은 사람(비록 동객사의 사자에 대해서는 조선설, 일본설, 발해설로 논쟁이되고 있지만 조선설의 개연성이 가장 크다)을 연상시키며 閻立本의 『職貢圖』에 있는 百濟使者와 유사하게 보인다.

당 건릉에 세워진 석상의 유래와 성질을 살펴보면, QLES1석상은 신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陳國燦의 연구에 따르면, 건릉의 석상 중 이름을 알 수 있는 36명의 사적을 분석해 보면 모두 무척천과 중종 시기의 사람들로 당의 서부와 북부 지역 출신들이다. 반면, 동북 지역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당과 주변 민족 사이의 교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고구려·백제·신라는 당과 빈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코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뒤쳐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특히 신라는 더욱 그러했다. 고종과 무척천 시기에 토번과 서돌궐 및 契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외에 가장 내세울 만한 전쟁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당과 신라 관계의 핵심이었던 신라왕 김법민이 석상의 한자리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당의 건릉 건축의 이념이 고종이 태종의 昭陵을 조영할 때 ‘선조의 업적을 빛나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추리에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QLES1석상이 손에 활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 근거해 보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고대 조선인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LES1석상이 나타내는 인물은 신라 문무왕 김법민이고 이는 신라인의 복식과 풍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1차 자료에 해당되므로 향후 잘 보존해야 한다.

● 『社会科学研究』

■ 2010년 제1기

清王朝国家疆域边界意识简析

청 왕조의 국가 강역 국경 의식 분석

林开强 p. 106~162

청 제국 통치 계층의 강역 국경 의식에 영향을 준 것은 주로 두 가지의 요인이었다. 첫째, 북방에서 청 제국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벌이다가 후에 담판을 거쳐 국경선을 정하였는데 이는 청 제국 통치 계층이 분명한 “북부 국경” 관념을 형성하는 것을 자극하였다. 둘째, 청 제국의 남부와 서남부에서는 역대로 중앙 왕조에 속했던 “藩屬國”과 영토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天下一王土” 관념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청 제국은 남부와 서남부에 대해서 명확한 국경 관념을 갖지 않았다. 전통적인 “王土” 관념은 중국 역대 통치 계층의 사상 중에서 확고한 것으로 중국이 근현대 “민족국가(nation-state)”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동적인 태도와 조치로써 국가 강역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 『社会科学辑刊』

■ 2010년 제6기

『史记』对朝鲜半岛史学的影响

『史記』가 한반도 사학에 미친 영향

孙卫国 p. 157~164

1. 한반도 역사상 정치와 日常에 대한 『史記』의 작용

『사기』의 한반도 전래 시기는 불명확하나 漢武帝가 古朝鮮을 멸망시켜 漢四郡을 설치한 이래 중국의 사서가 유입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삼국 시기 『사기』는 유가 경전들과 함께 君臣이 열독하는 중요 전적이 되었다. 사서 중 『사기』가 고구려인이 학습하는 중요 도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사기』는 한반도 역대 왕조가 학습하고 연구하는 중요 대상이 되어 일상과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

였다. 『사기』는 朝鮮 士人의 필독 사학 경전이었다. 학문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 심지어 평생을 두고 읽는 책으로서 조선의 사인들은 『사기』를 소상히 알고 좋아하였다. 또한 『사기』는 조선 사인이 과거를 보기 위해 읽는 중요한 입문 서적으로 『사기』의 작문을 학습하여 자신의 과거 응시 능력을 제고하였다. 梁誠之는 심지어 『사기』를 講하는 것을 과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기』는 조선 세자 교육을 위한 필독 도서였으며 국왕 經筵日講의 중요 내용이었다. 조선 국왕은 대신들이 유가 경전 못지않게 중국 사서에 정통하여 顧問에 응대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2. 『사기』의 史學 성취에 대한 조선 儒士의 평가와 인정

『사기』는 장기간 한반도 학자들에게서 높은 인정과 至高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반도 사서의 주요 체제는 모두 중국 사서를 본받은 것이었다. 사서 체제는 응당 중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한반도에서 紀傳體 사서를 편찬한다면 司馬遷의 『사기』를 모방해야만 했다. 李睟光은 『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사기』의 創制立法의 功을 긍정하고 이 창제는 “大集群書”하여 이뤄진 것이라 하였다. 둘째, 『사기』가 창설한 “制”는 百代의 표준이라고 하여 후대에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원칙적 개편은 없다고 하였다. 셋째, 『사기』의 성취로 사마천은 “史氏之良者”가 되었다고 하였고 다수의 조선 사인들은 사마천의 사학 성취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의 문학 성취에 대해 긍정하였다. 『사기』기사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긍정하여 『사기』는 유가 경전 다음으로 진실한 전적으로 여겨졌다.

3. 한반도 역사상 2대 官撰 正史의 『사기』 效法

고려 金富軾이 편찬한 관찬 정사 『삼국사기』와 조선 鄭麟趾가 편찬한 『高麗史』는 한반도 “兩大正史”로 불린다. 이 양대정사는 『사기』를 본받은 사서이다. 편찬 의도에 있어 이 양대정사와 唐宋 이후 중국 역대 정사의 편찬에는 유사성이 있다. 중국 역대 왕조는 班固 이후 모두 『사기』를 본받아 기전체 왕조사를 편찬하였고 당송 이후 이런 전대 왕조에 대한 기전체 사서 편찬은 왕조 관방의 주요 임무가 되어 신왕조의 정통성 수립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며 정치적 중요성을 지녔다. 한반도의 양대정사 역시 이와 같은 편찬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체제상으로 『사기』를 모방하여 기전체 사서로 완성되었다. 『삼국사기』는 本紀, 年表, 志, 列傳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사』는 世家, 志, 表, 傳, 目錄의 구성을 가져 『사기』의 체제와 유사하다.

4. 『사기』가 한반도 역사상 다른 사서에 미친 영향과 조선 학자의 비평

한반도에서는 역사상 편년체와 강목체 사서가 비교적 발달하였는데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 중요한 편년체 사서가 있었고 이들 사서는 『사기』의 영향을 받았다. 서거정은 『역대연표』를 편찬할 때 『사기』의 연표를 모방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강목체에서도 『사기』의 영향이 발견되는데 『동국통감』

강』의 범례에서도 『사기』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의 학자들은 『사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였다. 이수광은 30~40조에 달하는 『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학자들이 얼마나 『사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는가를 알려준다.

■ 2010년 제2기

壬辰战争中朝鮮對中日議和立場探析

임진왜란 중 중국과 일본의 강화 논의에 대한 조선의 입장

朱法武 p. 148~153

임진왜란 중, 중일 쌍방은 장기간에 걸쳐 강화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강화는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강화는 중일 양국이 중심적 위치에 있었는데, 명은 전통적 화이관에 따른 외교 이념에서 출발하여 화의의 주요 초점을 중국과 일본의 조공책봉 문제에 두려 하였다. 전쟁의 피해자인 조선은 도리어 화의의 핵심적 위치에서 빠져 있었으나, 조선은 일본의 본래 의도가 조공책봉을 원하는 데에 있지 않고, 조선을 병탄하고 나아가 중국을 침략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담에 참여하였다. 조선은 강화 회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강화를 반대하였고, 명 정부에 출병하여 왜군을 격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명은 국내 정치와 경제적 요인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일본과 강화 회담을 시작하였다. 화의에 반대하는 조선 측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선 단독으로 왜군을 驅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융통성 있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사용하여 전세의 변화와 강화 과정의 정세에 따라 회담 과정에서 강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끊임없이 변화·조정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 변화는 중국과 일본이 진행한 강화 회담의 과정과 최종적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선의 태도 변화는 조선의 외교 전략이 원칙성과 유연성이 긴밀히 결합된 것으로 양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한 실용주의적 태도였음을 드러낸다.

- 『信陽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3기

宋與高麗官方交易物品雜考

송과 고려 관방 교역 물품 잡고

芦敏 p. 143~147

송에서 고려가 수입한 관방 교역 물품으로는 우선 衣帶를 들 수 있다. 의대는 주로 고려 국왕에게

사여된 의복·장식·신발 등의 물품으로 물품 목록 중에 흔히 보이지만 그 수량은 소수였다. 송이 고려에 사여한 鞍馬 중 주요한 것은 名馬와 각종 馬具로 그 수 역시 적었다. 견직물은 중국의 전통적인 명품으로 고려와의 관방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金銀器幣도 주요 교역 물품으로 다만 다른 금속에 비해 금의 산출이 적었기에 주로 은을 위주로 한 器幣가 고려에 주어졌다. 토산물로 송은 고려에게 藥材와 茶를 사여하였다. 이외에도 소량의 樂器·祭器·玉器와 弓矢·羊畜 등을 주었다. 고려에서 송이 수입한 물품으로는 우선 의복과 이불·휘장 등을 들 수 있다. 고려는 송에게 儀仗으로서 甲兵·器仗·鞍馬 등을 바쳤다. 金銀銅器와 布帛을 바치고 토산물로서 人參·紈·유황·香油·紙筆墨·부채 등을 수출하였다.

송과 고려 관방 교역 물품에는 다음과 특징이 있다. 우선 민간 무역의 물품과 비교하여 명칭이나 실제 내용에서 모두 강렬한 “朝貢”의 색채를 띠었다. “賜”·“予”·“獻” 등의 글자가 사용되었고 그 물품 역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것보다는 사치품에 치중되어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들이었다. 둘째, 다른 국가와의 관방 무역에 비교하여 송·고려의 관방 무역은 독특한 경제·문화 요소를 체현하고 있다. 고려가 후대에 遼·金の 핍박으로 인해 納貢을 하지만 사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송을 존중하고 친근하게 여겨서 이로 인해 양국의 무역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 송과 고려의 관방 교역은 또한 당시 양국의 해외무역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해외 수입품인 象牙·玳瑁 등이 교역 물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历史教学』

■ 2010년 제4기

再论大祚荣政权的族称和国号问题

대조영 정권의 族稱과 國號 문제에 대한 재론

赵炳林 p. 68~72

역사에서 창하는 勿吉과 靺鞨은 북위와 수당 시기의 族稱으로 북위 시기에는 勿吉이라 하였고 수당 시기에는 靺鞨이라 했다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靺鞨은 말갈의 필사 오류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사료를 조사하면 이는 오류이다. 물길은 『魏書』에 처음 등장하고 靺鞨과 靺鞨은 『北齊書』에 동일한 민족처럼 등장하는데, 『북제서』는 이후 산일되어 남송 대에 『北史』에 근거해 補綴한 것으로 『北史』 중 북위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서』의 節錄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호칭은 기본적으로 모두 북위 대에 출현한 것이며, 선후 계승적 관계가 아니다.

물길은 卜書에서 따온 명칭으로 ‘不吉利’의 의미이다. 靺은 가죽으로 만든 버선이며, 鞨은 거세한

흑양이다. 이러한 글자로 보면 靺鞨은 목축업에 비교적 능하고 용맹한 외양을 묘사하면서도 關人이라는 강렬한 모욕적 의미가 담긴 명칭이다. 勿吉과 靺鞨은 모두 부여를 멸망시키고 북위의 위협이 된 靺鞨의 멸칭으로 부른 것으로 북위에서 柔然을 蠕蠕 또는 芮芮로 부른 것과 같다.

靺鞨은 본래 하나의 족칭으로 이를 대조영이 정권을 세웠을 때의 정식 국호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단지 『新唐書』의 ‘自是始去靺鞨號, 專稱渤海’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中華’가 ‘中國’이라는 국호와 같다고 보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이는 단지 渤海靺鞨이라는 호칭에서 말갈을 떼 것일 뿐이며, 靺鞨·粟末靺鞨·渤海靺鞨 등과 같은 족칭으로 국호가 아니다. 또한 사서에 보이는 震國과 振國이라는 명칭을 말갈 혹은 ‘靺鞨國’의 俗稱으로 보는 견해 역시 옳지 않다. 震國이라는 명칭은 무척천이 걸걸중상을 震國公으로 봉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震은 동방을 의미하므로 진국공이란 걸걸중상을 동방 민족의 수령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振國이라는 국호에 대해 북한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지만 이는 震國의 필사 오류일 뿐이다.

또한 당이 대조영을 渤海郡王에 책봉했는데, 이는 大氏의 地望이 발해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조영의 부친 이름이 걸걸중상임을 감안하면 대조영의 성씨는 冒姓일 것이다. 그들의 족칭이 발해말갈 혹은 발해이므로 그 조상을 발해군의 명족인 大氏에 가탁한 것이다. 발해라는 명칭이 대조영 정권의 국호로 한·중·일의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한 언어적 상황 하에서 운용된 것이다. 예컨대 송에서 李元昊를 西平王에 봉했다고 해서 西夏 정권의 국호가 西平이 아닌 것처럼, 당이 대조영을 渤海郡王에 봉했다고 해서 대조영 정권의 국호가 渤海가 될 수는 없다. 대조영 정권의 정식 국호는 震國이다.

● 『辽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 2010년 제5기

明朝对李氏朝鲜的冠服给赐

이씨조선에 대한 明朝의 冠服 하사

遼杏花 p. 18~22

明朝의 李氏朝鮮에 대한 冠服 하사는 明朝와 朝鮮의 ‘外交禮儀制度’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의 역대 ‘冠服給賜制度’를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明朝는 당시의 정치적 수요와 조선의 실제 정황을 근거로 각각의 인원에 대해 서로 다른 品級의 冠服을 하사하였는데, 이는 明朝와 조선의 ‘朝貢藩屬關係’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明朝의 等級尊卑에 대한 觀念과 關係 制度를 반영한 것이었다. 明朝 건립 후, 朱元璋은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어 璽書를 하사하고 高麗王 王顥을 봉하였다. 이는

고려가 명의 '進貢國'이 된 것을 의미하였다. 1393년(洪武 26), 李成桂가 高麗 王氏를 대신하여 李氏王朝을 세우고, 국호를 朝鮮으로 변경하였다. 건국 이후 조선은 명과의 朝貢關係를 중시하였으며, 明朝는 冠服을 하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두 왕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朝貢藩屬關係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 글은 『明實錄』과 『明會典』, 『禮部志稿』 등 明代의 典籍를 基礎로 冠服 하사의 원인과 그 특징들을 분석한 것이다.

明朝가 李氏朝鮮에 대해 冠服을 처음 하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永樂 年間이었다. 그 후 朝鮮의 國王이 즉위하거나 使臣이 來朝할 경우 明朝는 매번 冠服을 하사하였으며, 그 대상 인원과 사여 횟수는 다른 나라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대외 관계에 있어 요구되었던 '禮儀文化'의 존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封建社會에서 禮는 인간들의 사상과 언행을 온전히 제약하는 존재였으며, 따라서 통치자는 禮儀 文化를 통해 행위를 규정하고 국가를 다스리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朱元璋 역시 明朝를 건립한 이후 禮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국내의 군신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서의 宗主 地位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明朝의 건립 이후 冠服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약이 확립되었으며, 朝貢藩屬關係에 속해 있던 대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永樂 元年 朝鮮의 國王에게 하사했던 冠服으로는 金印, 誥命, 冕服, 九章, 圭玉, 佩帶 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冠服의 하사는 중국의 역대 왕조가 실시했던 제도를 계승한 것이었는데, 무엇보다 明朝의 威儀와 종주국 지위를 체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明朝의 藩屬國 중 조선은 朝貢의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였는데(통계에 의하면 永樂 年間 조선의 조공 횟수는 총 89회로 평균 매년 4회 정도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明朝는 조선의 王室이나 사신에게 가장 많은 수의 冠服을 하사하였다. 明朝는 冠服 하사 제도를 위해 완비된 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했음은 물론 엄격한 조직 관리 제도와 체계를 제정하였으며, 신분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給賜 儀式을 규정하였다. 조선인 중 冠服 급여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國王과 王妃, 世子 등의 王室 人員과 來朝했던 使臣이었는데, 특히 王室에 대한 하사가 빈번했으며 冕服과 玄圭絳紗袍, 王佩, 玉帶 등의 물품이 하사되었다. 일반 使節에 대해서는 文武官의 朝服과 公服이 지급되었는데, 관위에 따라 서로 다른 品級의 冠服이 하사되었다. 한편 왕실에 대한 冠服의 사여는 國王의 冊封과 결합하여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國王의 지위와 그의 통치를 정식으로 승인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조선에 대한 明朝의 宗主國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 행위라 할 수 있다.

• 『長春理工大学学报(高教版)』

■ 2010년 제1기

高句麗的民族構成述論

고구려의 민족 구성

趙炳林 p. 169~170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로 당시 遼海 지역 민족을 집대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貊과 高句麗가 고구려의 양대 민족으로 전자가 主體民族이고 후자가 王族이었다. 이 외에 穢, 夫餘, 沸流, 沃沮, 荇, 古朝鮮, 漢, 百濟, 新羅, 契丹, 突厥, 肅慎, 倭 등의 민족이 있었다.

• 『才智』

■ 2010년 제17기

肅慎, 挹婁與魏晉南北朝的朝貢關係

숙신·읍루와 위진남북조의 조공 관계

郭威·李忠芝 p. 191~192

肅慎은 息慎 혹은 稷慎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동북 지역의 옛 민족 중 하나이다. 先秦 시기 역사서에 이미 이들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은 남북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이어 거주했다. 漢魏 시기에는 읍루라는 명칭이 점차 출현하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이를 숙신의 다른 이름이라 여겼다. 이들은 변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주 중원 지역에 조공을 했다.

1. 위진 시기의 숙신과 읍루 - 漢代 이후 숙신족의 상황은 『晉書』에서 확인된다. 畜牧과 수렵 생활을 했으며 소규모의 농업을 경영했다. 여름에는 巢居하고 겨울에는 穴居하며 돼지고기를 주로 먹었다. 동물 가죽과 천을 이용해 의복을 만들었고 부계씨족 사회를 이루었다. 문자는 없었으며 자유연애를 했다. 土葬을 주로 했으며 殉葬의 풍습도 있었다. 비성문법의 법규가 있었으며 간단한 군사 무기를 이용했다. 위진 시기에는 중국 동북의 臨海 지역에서 활동했다. 읍루는 한위 시기 숙신의 다른 이름으로 일부에서는 숙신의 한 지류라고 여기기도 한다. 읍루의 활동 지역에 대해서는 『삼국지』, 『후한서』에 기록이 전해오고 있으며 북으로는 러시아와 동쪽으로는 일본해(동해)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 읍루는 농업과 가축을 했으며 수렵에도 종사했다. 君長은 따로 없으며 읍락마다 大人이 있어 분산된 부락 거주 상태에 있었다. 원시적인 사회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2. 숙신·읍루와 위진 왕조의 조공 관계 - 일찍이 선진 시대부터 숙신과 중원 왕조 사이의 조공 관계

가 시작되었고 전설에 따르면 요순 시대부터 조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서주시기 무왕, 성왕, 강왕 때 3차례의 조공이 있었으며 당시 숙신은 거주지를 동북의 땅으로 인식했다. 이후 진한 시기에는 조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曹魏 시기에 조공이 다시 재기될 때까지 1200여 년간 조공이 중단되었다. 위진 시기 숙신이 중원 왕조에 조공한 기록이 다수 확인되는데 조공이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에 대해서는 기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조위 시기에 조공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靑龍 4년으로 추정된다. 이후 조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三國, 晉 시기에는 총 7차례의 入貢이 시행되었다. 晉 이후에는 남조 宋과 북조의 北齊에 각각 1차례 조공 기사가 보인다. 이 중 북제의 조공 기록은 숙신이 중원 왕조에 시행한 마지막 조공 관련 기사에 해당된다. 정리해 보면, 위진남북조 시기 숙신족의 중원 왕조에 대한 조공은 삼국에 2차례, 晉에 5차례 남북조에 2차례 총 9차례가 확인된다. 조공물은 대부분 숙신의 특산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읍루와 중원 왕조의 교류 관계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읍루가 부여에 신속 관계에 있으면서 부여의 저지를 받아 중원 지역 왕조와 관계를 수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태평환우기』는 읍루가 중원 왕조와 교류를 맺는 것이 曹魏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삼아 자료 상에 나타난 숙신의 조공 기사를 읍루의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 『赤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 2010년 제12기

由武功到文治-试论辽代渤海高模翰家族的转变

武功에서 文治로-遼代 발해 高模翰 가족의 변화에 대한 试论

王晔 p. 3~5

遼代의 高模翰 가족은 비거란인(非契丹人)으로서 軍功을 통해 貴族世家가 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그들 가족 구성원의 墓誌와 典籍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들이 武功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文治와 科擧를 통한 入仕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 상황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는 혈연적·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漢化의 결과인 동시에 遼代 과거제도의 발전과도 관련이 깊다. 高模翰 가족은 遼 初期의 重臣이었던 渤海人 高模翰과 그 후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赫赫한 戰功으로 인해 太祖와 太宗의 신임을 받으며 대대로 遼 朝廷에서 武職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거란 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宋과 遼가 '澶淵의 盟'을 체결하면서 대규모 전쟁이 종식되어 국가가 평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자 家勢가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들은 점차 文事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가문을 중흥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高模翰 가족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인데 필자가 파악

한 현재의 연구 성과로는 『辽代渤海世家大族考述』과 『世家大族与辽代政治』에 수록된 王善軍의 글과 『辽代朔州高氏的两方墓志』에 수록된 劉俊喜의 글이 있다.

高模翰의 出身은 '渤海 高氏'로 발해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직을 맡았던 大姓이었다. 『遼史』 「高模翰傳」에 따르면 그들은 특히 遼의 太宗 시기에 뛰어난 戰功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전쟁이 종식되고 장기적인 평화 시기가 도래하자 전형적인 '비거란 軍功 貴族'이었던 高模翰 가족은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遼代에 비거란 계열의 世家大族은 그들의 정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란 귀족, 특히 왕족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渤海의 王族인 大氏나 漢人 世家大族이었던 玉田 韓氏가 거란 황실과 빈번한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高模翰 가족은 고려의 王女와 혼인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혼 대상이 대부분 太原 劉氏, 扶風 馬氏, 平昌 孟氏 등 보통의 漢人士紳 집안이었다. 따라서 거란 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 高模翰 가족이 家勢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결국 그들의 후손은 儒學을 학습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과거의 전국적 시행과 그로 인해 야기된 '科擧家族(擧人 이상의 功名을 획득하고 전국 혹은 지방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家族)'의 흥기라는 시대적 정황이 빚어낸 결과였다.

• 『前沿』

■ 2010년 제9기

高句麗灭亡后的人口流向考

고구려 멸망 후 인구 이동 고찰

赵炳林 p. 104~106

總章 元年,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인의 反唐 정서와 독립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 고구려 유민에 대한 강제성 이주 정책을 실시했다. 약 350만 명에 달하는 고구려인에 대한 향방을 확인해 보자.

1. 당으로 遷徙한 고구려인 - 당은 고구려 유민에 대해 總章 원년,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등 20여만 명을 당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는 규모가 가장 큰 遷徙로 약 20~25만 명이 이동했다. 總章 2년에 또 한 번 2만 8천3백 호 규모의 이주를 시행했고 약 14만 1천5백여 명에 해당했다. 儀鳳 2년에는 고구려 유민들의 復國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보장왕 등을 요동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가 보장왕이 고구려 復國 세력과 밀통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내지로 이주시켰다. 이들 이주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약 40만의 고구려인이 당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숫자는 고구려 멸망 당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규모였다.

2. 신라로 옮겨간 고구려인 - 고구려인은 신라의 침략에 의해 귀속되거나 자발적으로 신라에 투항하거나 전쟁 중에 신라에 포로로 잡혀 신라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주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후 총 164개의 고구려 군현이 신라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한다. 여기에 거주하던 고구려인은 자연히 신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신라에 투항한 고구려인은 總章 2년, 咸亨 원년과 4년, 5년 그리고 儀鳳 2년, 上元 元年 신라에 투항했다. 적게는 수 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왕족에서 패잔병 등 다양한 계층이 신라로 이주했다.

3. 발해국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 -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일부 고구려인을 요동 영주 지역에 이주시켰는데 이들은 만세통천 연간에 거란의 반란을 틈타 대조영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곧 발해인이 되었다. 이외에 고구려의 원래 지역에 남아 거주하던 고구려인의 일부가 발해국으로 들어가 발해인이 되었다. 이들 유민의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4. 돌궐로 도망간 고구려인 - 당시 돌궐의 세력이 강성해서 요동 지역에 한정해 보면 당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때문에 북방 민족들이 돌궐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었으며 고구려는 돌궐과 일정 시간 동안 盟國의 관계를 유지했다. 혼인을 통한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자신의 피신처로 돌궐을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했으며, 비록 남아 있는 기록은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고구려 유민들이 돌궐로 이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 고구려 막리지 高文簡 등은 돌궐에서 정치적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개원 연간에는 돌궐에 있던 일부 고구려인이 당에 귀의하는 사건도 있었다.

5. 거란에 유입된 고구려인 - 실제 사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 고구려와 거란이 처해 있던 지리적 근접성과 돌궐의 쇠락 이후 거란이 흥성해지지는 정치적 흥망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일군의 고구려인이 거란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당과 거란의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조건은 고구려 유민을 유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발해의 건국 전 거란은 고구려 유민이 이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 대상이었다.

6. 일본으로 옮겨간 고구려인 - 고구려는 멸망 전 일본과 宗藩 관계를 유지했으며, 일본은 수·당 시기에 중국 왕조와 대등 외교를 펴고자 했다. 이는 고구려와 일본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고구려인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속일본서기』에는 고구려인 1,799명이 일본에 옮겨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실재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7. 전쟁 후 피살된 고구려인 -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당조와 신라에 대항해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 상당수의 고구려인이 兵禍에 사망했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그 일부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 2010년 제16기

试析李氏朝鮮‘事大’政策本质之变化

이씨조선 ‘사대’정책 본질의 변화 분석

王传奇 p. 124~128

조선의 이씨 왕조는 14~20세기 동안 중국의 명·청과 교류하면서 시종 ‘事大’를 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국가 사회 전반에 사대의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사대의 행위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이씨 조선과 사대주의 - 홍무 25년(1392), 이성계는 요동의 明軍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씨 조선 왕조를 개창했다. 이후 이성계는 명에 국호와 衣冠典制를 요청하는 등 고려의 親元 정책에서 변화해 明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명 태조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이성계가 고려의 왕을 시해하고 개국을 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그저 조공의 시기를 정하는 수준의 관계만을 맺었다. 그런데 이후 조선의 貢馬의 품질과 언사의 수준 문제 및 유민호환 문제 등으로 명과 조선 관계는 악화되었고 명은 조선의 사신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영락제 때에 이르러 해소되었고 사대의 관계가 양국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명 시기 조선의 사대 행위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전기와 후기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2. 李朝 事大 성질의 변화 - 명과 조선의 관계는 건문제 시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해 조선이 중국의 의관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락제 시기에 들어서면 양국의 관계가 정식으로 우호적인 상태로 발전했다. 영락제 즉위 초기부터 승정제 말기, 명이 멸망할 때까지 조선은 줄곧 사대의 원칙으로 稱臣과 納貢을 했고 명은 조선에 대한 우대 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사대 행위는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변화를 보인다.

① ‘事大保國’ : 영락 연간에서 만력 초기까지 - 조선 선조 시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사대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획득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사대 원칙을 유지했다. 완전한 종속이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대를 펴는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은 명조의 정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조의 감시를 피해 다른 정치 세력과 비밀적 외교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명조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영토 분쟁으로 야기된 경계 심리는 장기간 지속되었다. 결국 이 시기 동안 조선은 겉으로는 臣服을 나타내고 각종 사절단을 보내는 등 사대의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명에 대한 抗拒心理를 유지했다. 이때의 사대 행위는 ‘保國’을 위한 것이었지 명에 대해 진정으로 복종하고 신하 노릇을 한 것은 아니다.

② ‘君父之國’ : 만력 연간 이후 - 조선의 사대 행위는 조선 宣祖 시기에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때부터는 명을 진정한 ‘君父’의 나라로 간주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역사 사실로부터 확인이 가능

한데, 우선 조선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明實錄』에 기재된 이성계 관련 기사의 정정 요구를 명이 수락했다는 데 있다. 이는 조선의 적극적인 사대의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외에 임진왜란 당시 명조가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8년간 조선을 도와주게 된 것은 조선이 명에 대한 사대의 실질적인 내용을 전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임진왜란 후 조선은 자신이 명조의 번속국임을 철저히 각인하고 명에 대해서 ‘君父之禮’를 채택했다. 이는 조선인의 사유나 제사 행위에 반영되었는데 조선인은 자신을 明朝의 子國으로 여겼으며 이조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明朝와 神宗에 대한 제사를 올리기가 했다.

결론 -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의 본질은 만력 연간을 기준으로 큰 전환을 겪는다. ‘事大保國’의 행위 원칙에서 명조를 ‘君父之國’으로 떠받드는 형태로 변환되었다. 만력 연간 이후에 형성된 사대의 관념과 사유 형태는 명이 멸망한 이후에도 근 백여 년간 이어졌다. 淸 康熙 50년 이후 명조의 잔존 세력들이 모두 소멸되고 명조가 부흥할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자 비로소 淸에 대해서 ‘事大’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맺었다. 이때의 사대는 선조 이전의 ‘保國’을 중심으로 한 개념의 사대에 해당된다.

● 『中国名城』

■ 2010년 제11기

城市化语境下古城遗址的保护与经营-唐代渤海国都城遗址保护性开发的策略思考

도시화의 상황 하에서 古城 유적의 보호와 경영-唐代 발해국 都城 유적의 ‘보호성 개발’에 대한 방법 고찰

熊東旭·葛翠玉·董智 p. 55~59

현재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구한 역사 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古城 유적에 대한 위협은 이미 막대한 규모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와 발전 사이의 모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유적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유적의 보호와 도시 건설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이며, 다른 하나는 유적의 보호와 개발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성 유적의 보호와 도시 발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渤海國 都城 유적과 주변 지역의 도시 건설·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가 발전을 선도하고, 발전이 보호를 촉진한다.”라는 구상을 실현해 보고자 한다.

上京龍泉府 유적은 唐代 渤海國의 都城 유적이다.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渤海國 최초의 都城은 현재의 吉林省 敦化市에 건립된 敖東城이며, 이후 현재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으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두 곳 모두 당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都城으로 경제 번영은 물론이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발

전을 이룬 곳이었다. 大祚榮과 그 후예들은 唐의 문화를 숭상하여 儒學을 제창하고 ‘文治’를 표방하였으며, 都城의 형태 역시 唐朝의 長安을 모방하여 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해의 古城 유적을 보호하는 것과 개발 사이에는 어떠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주변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관광 산업의 발전 및 토지의 대량 수요가 발생하여 유적 조성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열악한 환경과 인구의 혼잡, 무질서한 건설 계획 등이 엄중한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유적을 개발하여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매우 미비하고 지명도 또한 낮다는 점이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호성 개발’이다. 즉 역사문화와 공간 구조, 자연지리 등 각각의 방면과 도시 발전의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조화시켜 유적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도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 『中国音乐』

■ 2010년 제4기

渤海音乐钩沉

발해 음악 탐구

金士友 p. 96~98

발해는 唐朝 시기 동북 지역에 건립되었던 하나의 지방정권이었는데, 중원과 조선 반도, 일본 열도에 인접해 있던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주변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음악 역시 매우 중요한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즉 발해의 음악은 민족 고유의 음악 형태와 문화적 근간을 보유하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의 음악에도 다양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발해와 일본의 왕래는 中·日 양국 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표지인데, 음악에 있어 그 특징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발해 고유의 음악 형태에 관해 살펴보면, 발해의 粟末靺鞨은 靺鞨族의 한 분파이므로 오래된 말갈 음악을 계승·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음악에 내재해 있는 민족 고유의 특징을 구축하였다. 여기에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음악 형태를 완성하였는데, 이는 唐朝가 발해를 통치하는 데 실행했던 개방 정책이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시킨 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무엇보다 발해는 중원의 문화를 숭상하였는데, 738년 唐朝의 제도를 모방하여 三省六部를 설치하였으며, ‘唐禮’를 준거로 삼아 봉건 질서와 儒家 도덕관념, 봉건 등급의 예악 제도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官方 음악 기구’ 즉 太常寺를 설치하여 郊廟禮儀와 음악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 吉林省 和龍縣에서 출토된 ‘貞孝公主墓壁畫’에서는 樂工

이 琵琶, 箏篋, 拍板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악기들은 모두 唐代에 燕樂에서 사용하던 것들로 당시 정치·경제·문화 등의 방면에서 唐이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발해는 중원의 문화는 물론이고 新羅와 百濟 및 高句麗 문화, 일본 문화 등을 흡수하여 다원적이며 개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특징은 음악 형태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中外法学』

■ 2010년 제4기

论唐律对朝鲜王朝前期法制之影响-以‘华化’与‘土俗’之关系为中心

唐律이 조선왕조 前期 法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함-‘華化’와 ‘土俗’의 관계를 중심으로

张春海 p. 587~599

1392년 李成桂는 高麗王朝를 대신하여 朝鮮王朝를 건립하고, 즉위 敎書에서 “前朝之季, 律無定制……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이때부터 大明律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 기본 법전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조선왕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華化政策’을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사회, 문화, 풍속 등의 각 부문은 明代의 그것과 상이한 특징을 지녔으므로 大明律로는 조선 사회의 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없었다. 즉 明代의 법률과 조선의 土俗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충하고 대체하기 위한 자료로 唐律이 활용되었다. 현재 唐律과 조선 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려왕조에 대한 唐律의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면 唐律이 조선 법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唐律은 신라와 고려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조선 반도에 유입되었는데, 특히 高麗律은 唐律을 모방하여 제정한 것으로 『高麗史』 「刑法志」 서문에는 “高麗一代之制, 大抵皆仿乎唐; 至於刑法, 亦采唐律, 斟酌時宜而用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건립 이후 문화 전반에 걸쳐 華化 政策을 시행하였지만, 明의 제도와 조선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므로, ‘華化’와 ‘土俗’ 사이에도 복잡한 관계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서 唐律은 그 합리성의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특히 ‘奴婢制度’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大明律은 “重其所重, 輕其所輕”의 특징, 즉 ‘刑民錢穀’의 방면에 있어서는 唐律에 비해 엄중하였으며, ‘禮樂敎化’에 있어서는 그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는데, 이것은 조선의 오래된 土俗, 즉 輕刑과 名敎의 엄격한 시행이라는 전통과는 특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왕조는 본국의 정황과 唐律의 조항을 결합하여 大明律의 내용을 보완·대체하였다. 이처럼 唐律이 조선의 법제

에 있어 특수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중국의 古制로 광의의 ‘華制’에 해당하였으며, 따라서 唐律을 채용하는 것이 왕조 차원에서 진행했던 華化 政策과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唐律은 일찍이 고려 전기부터 조선의 법률 체계에 유입되었으므로, 이미 400여 년간 조선의 土俗과 융합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즉 ‘華制’와 ‘土俗’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唐律이 담당했던 이러한 보완 작용은 大明律을 직접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 『知识就是力量』

■ 2010년 제7기

三国和“海东盛国”时的东北亚丝路

삼국과 ‘해동성국’ 시기의 동북아 실크로드

王德恒 p. 40~41

중원의 실크로드가 동북아 지역으로 진입한 시점은 漢·魏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三國志』 「魏志·夫餘傳」에 명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南北朝 시기까지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으로의 실크로드가 재개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唐 武則天 聖曆元年(698) 李盡忠과 孫萬榮의 봉기를 틈타 粟末靺鞨人 大祚榮은 현재의 吉林省 敦化縣 敖東城에 震國을 건립하고 스스로 震國王이라 칭하였다. 이후 국호를 발해로 변경하고 唐朝의 屬國이 되어 進貢의 義務를 부담하였는데, 朝貢을 바칠 경우 唐朝는 恩賞을 하사하였다. 이를 통해 발해의 경제는 크게 번영하였으며, 일본과 고려를 상대로 한 대외 무역도 매년 수십여 차례 왕래할 정도로 발달하여 발해는 ‘海東盛國’이라 칭해졌다.

발해는 唐朝에 대한 朝貢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돌아올 때에는 대량의 賞賜物, 즉 絲綢, 錦袍, 絹帛, 錦采, 襲衣, 綾羅, 繡綢, 絲布 등을 가지고 왔다. 통계를 살펴보면, 발해가 唐朝에 조공한 횟수는 총 140여 차례이며, 이 외에 後梁이나 後唐에도 10여 차례 조공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기록이지만 朝貢에 대한 賞賜로 絲綢가 지급된 사례 역시 수십여 건 확인할 수 있는데, 또한 대량의 상인들도 幽州로 와서 名馬, 貂皮, 中藥, 北珠 등을 이용하여 絲綢產品과 교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대량의 絲綢가 동북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발해를 거쳐 黑龍江, 우수리강, 아르군강 양안은 물론이고, 바이칼 호수 및 조선, 일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2010년 제1기

清代中朝边境贸易中的‘攬頭’

청대 중-조 변경무역의 ‘攬頭’

杨军 p. 109~114

攬頭란 청康熙 연간 조선 사신단의 화물 수송과 鳳城 柵門에서 이뤄진 변경 무역을 독점했던 중국 상인들이다. 청의 입정 후 조선 貢使는 자신들의 물품과 ‘八包貿易’의 화물을 북경까지 운반하기 위한 수송대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攬頭(조선 사료에서는 攔頭라 표기함)라는 상인 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다. 강희 29년(1690) 胡朝輔 등 상인 12명은 盛京 戶部에 건의하여 조선 사신단의 화물 수송 독점을 비준 받았으며, 이들이 최초로 남두라 불렸다. 남두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1689년, 1690년, 1720년 등의 견해가 있으나 호조보 등이 남두의 시작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들은 조선 사신들에게 받은 수송비의 일부로 ‘車軍’이라 불리는 수송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부분의 차액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강희 29년부터 강희 61년(1722)까지 85차례의 조선 사신 사행을 통해 최소 25만 냥의 수익을 거두었다. 강희 39년(1700), 남두는 또한 鳳城 邊門에서 사신단을 상대로 8일간의 무역을 실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이것이 조선 사서에 기록된 柵門後市이다. 이를 통해서 남두는 약 600만 냥의 수익을 거두었다.

남두의 성립 이후, 이들이 수송을 독점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들의 독점으로 인해 요동 지역의 雇軍과 상인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되었으며, 이들은 연명으로 남두를 고발하고 정부에 남두의 독점권을 박탈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 입장에서는 남두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편리하였으나, 점차 남두가 독점권을 이용해 운반비를 올리면서 조선 역시 청 정부에 남두의 독점권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후 옹정제가 즉위하여 남두의 독점권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조선 사신단은 자유로이 운반 노동자를 고용하고 邊民·상인들과 자유무역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두의 해체 이후, 남두 상인 胡嘉佩가 청 정부로부터 용자한 은 6만 냥을 상환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호가패가 청 정부로부터 진 부채보다 호가패가 조선 상인에게 받지 못한 대금의 액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청 정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선에 압력을 가했으며, 이는 영조 즉위 초기에 일종의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되어 양국 외교 관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 2010년 제2기

试论清朝前期封贡体系的基本特徵

청 전기 조공 체제의 기본적 특징에 대한 시론

陈尚胜 p. 86~94

청이 최초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대상은 조선이었다. 1636년 皇太極은 조선에 청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선을 공격하고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황태극이 조선에 청변을 요구한 직접적인 목적은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끊어 병력을 명의 침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조와 琉球·安南·呂宋과의 정치적 접근은 청군이 福建省으로 진격할 때에 시작되었는데, 청조가 유구 등의 국가와 조공 관계를 맺은 것은 명조의 전통에 기초하였으나, 사실 새로이 자신과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南明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청이 안남의 莫氏 정권 및 黎朝와 조공 관계를 맺은 것 역시 서남방의 변경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었다. 暹羅와의 관계 역시 명조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으나 남방 변경에서 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섬라 측은 무역의 이익을 위해 주동적으로 조공 관계를 체결하였다. 남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는 청조가 西藏에 대한 관리권을 확립한 후 이의 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新疆의 평정 후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관계 수립을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청조가 조공 체제를 구축한 최초의 목적은 후방의 안전·남명 세력의 확대 방지·새로운 정권의 안정·서부와 남부 변경의 안정 등 스스로의 안전과 변경의 안정을 위해서였다. 이처럼 안전한 방어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조 조공 체제의 첫 번째 특징이다. 또한 주변의 인접국들과만 조공 체제를 구축한 명과 달리 청조는 域외의 정권과도 조공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러한 周鄰性이 청조 조공 체제의 두 번째 특징이다. 청조는 명조처럼 禮部에서 조공 업무를 주관하게 한 외에, 理藩院을 설치하여 일부 조공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청이 예부와 이변원에 조공 업무를 나누어 관장케 한 사실은 청의 통치자들이 조선 등의 국가는 예의라는 수단을 통해 관계를 처리하나, 주로 서북 변경의 각 부족들은 무력이라는 수단이 개재되어야 비로소 藩屬化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Mark Mancall이 지적한 대로 東南新月型和 西北新月型的 두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 청조 조공체제의 세 번째 특징이다. 또 청조는 이러한 많은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음에도 사신단이 왕래하였던 국가들은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국가들뿐이라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다.

■ 2010년 제1기

从开国传说看高句丽文化的渊源

개국전설로 본 고구려 문화의 연원

徐栋梁 p. 88~89, 92

高句麗 민족의 기원과 건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며 그 기원에 대해서도 夫餘說, 穢貊說, 炎帝族係說, 高麗說, 商人說이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문학 및 문화 기원의 각도에서 본다면 고구려 문화와 中原 문화는 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고구려 문화는 漢族 문화의 특징을 명확히 지니고 있으며 이는 농후한 농업적 특색으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개국전설 중에서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중원 문화가 고구려 문화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구려 개국전설 중에 포함된 卵生神話와 河伯傳說 등 여러 전설은 중원 殷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난생설화는 殷商 시조 출생신화인 “玄鳥生商”과 극히 유사하다. 알이 버려진 것은 周의 시조 后稷에 대한 신화와 거의 같다. 또한 河는 黃河의 專稱으로 하백이 황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구려 민족이 황하 유역에 거주하였을 리는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중원 문화가 고구려로 유입되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0년 제5기

『三国史记』史论研究

『삼국사기』 사론 연구

李春祥·潘秀珍 p. 37~42

『三國史記』 중 史論 31편은 『삼국사기』의 역사관과 史學思想을 반영한다. 이 특징은 『左傳』과 『史記』 중 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春秋筆法의 영향을 받아 『삼국사기』의 사론은 亂臣賊子를 공격하고 君臣之道를 선양하는 특징을 지닌다. 金富軾이 사론에서 甄萱·弓裔를 맹렬히 비난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左傳』·『史記』의 영향을 받아 『삼국사기』 사론은 “史外之事”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金歆遠傳」의 사론에서 신라 花郎徒에 관한 간략한 정황들을 서술하여 화랑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셋째, 『삼국사기』 사론은 중원 왕조를 正統으로 삼는 正統史觀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敬順王紀」 사론에서 중원 왕조를 正統으로 삼기며 늘 朝聘 사신을 파견해야만 비로소 중원 왕조의 禮儀之邦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또

唐太宗의 고구려 공격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사론도 존재한다. 넷째, 『삼국사기』 사론 중에서 新羅·高句麗·百濟 같은 偏邦小國은 마땅히 중원 왕조의 封建禮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구려 太祖王이 중원의 嫡長子 왕위 계승의 제도를 따르지 않았고 이처럼 중원의 예법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결정으로 인해 변란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다섯째, 仁政의 실행과 以民爲本의 愛民思想을 주장하였다. 孟子의 사상적 영향으로 인정과 애민을 실행하여 國泰民安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男尊女卑의 봉건사상을 지녔다. 善德王에 대한 평가에서 남존여비의 시각으로 비평을 진행하여 여자가 왕이 되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하였다. 일곱째, 시대와 사학 기초의 제한으로 인해 사론 중에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예를 들면 商나라 임금인 外丙·仲壬에 대해 착오를 범하고 있다. 여덟째, 신라·고구려·백제 모두가 中華民族의 조상에서 기원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신라의 시조신화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삼황오제 중 小昊金天氏의 후예라서 김씨로 성을 정하였다고 보았다. 아홉째, 사론에서 자식된 몸으로서 응당 부모에게 孝를 다해야하지만 거기에 일정한 정도를 두어야 愚孝를 범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고구려 好童 왕자의 자살을 우효의 예로 들었다. 열째, 사서에서 記事의 표준 그리고 중국 史書에 대한 찬양과 불교 반대 등의 측면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陳壽가 『三國志』에서 曹魏와 西晉의 입장에서 조위의 제왕을 本紀로 편성하고 蜀·吳의 군주를 列傳으로 편성한 것처럼, 김부식은 고구려와 고려의 입장에서 고구려·백제의 군주는 王으로 칭하고 신라는 “鄙野之語”인 거서간·마립간을 사용하였다. 중국 고대 사서에서 고구려·백제·신라에 대한 관련 사료를 보존해 준 것에 대해 찬탄하였다. 불교에 대한 반대도 표출하여서 신라 망국의 원인으로 꼽았다.

■ 2010년 제7기

高句麗都城環境初探

고구려 도성 환경 초탐

宋娟 p. 13~15

학자들이 고구려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도성 환경의 시각으로 본 연구는 적다. 고구려 초기 도성은 紇升骨城으로 『三國史記』에 의하면 “도양이 비옥하고 山河가 險固하다.”라고 하였는데 초기 도성의 자연지리는 고구려에게 농업을 위주로 하되 漁獵을 병행한 경제 생산 활동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또한 산하가 험고하다는 점으로 볼 때 도성의 방어 기능을 고구려가 중시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다. 중기 도성인 國內城은 사서의 기록으로 볼 때 흡승골성보다 우월한 자연환경을 지녔고 이 자연환경이 천도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후기의 도성인 平壤城은 평원에 건설되어 정치·경제·외교의 중심이었고 大城山城을 축성하여 방어 기능을 강화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산이 많고 전쟁이 많았으며 자연환경이 고구려 도성 건설에 준 영향은 크고 지속적이었으나 사회 환경의 영향은 시대에 따른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었다.

고구려 도성 환경에서 추출한 특정한 성격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의 유사점에서 도성들은 특정 위도·경도 상 서로 접근해 있다. 또 자연환경에서도 산의 南麓에 위치하며 水資源이 풍부하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고구려 도성들은 주변에 두 개의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도성 환경의 선택에 있어서도 고구려의 발전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즉 국가의 발전에 따라 더 나은 자연환경 입지를 찾아 나갔고 군사적으로도 증원 왕조 등과의 전쟁을 통해 방어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 2010년 제11기

好太王碑证史与补史作用

호태왕비의 사료 증명과 사료 보충 작용

陆丽华 p. 5~6

好太王碑는 高句麗 제19대 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墓碑로 서기 414년에 고구려 도성 國內城 동쪽 언덕에 건립되었다. 높이는 6.39m이고 넓이는 1.34~2.00m로 한 덩이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方柱 형태로 4면에 漢字 隸書로 44行, 1775字의 碑文이 새겨져 있다. 風雨로 마모되어 현재 판독 가능한 글자는 1600자 전후이다.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며 앞부분은 고구려 건국 전설과 최초 세 王의 전승과 호태왕 통치 시기의 사회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중간 부분은 호태왕 통치 시기의 東征西討의 戰績인 총 6회의 전쟁과 2차례의 군사 순행을 기술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호태왕의 守墓 煙戶의 數量·來源 및 그 관련 제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호태왕비 내용이 史書 證明과 사서 補充의 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사서 증명 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고구려 건국 전설에 대한 인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호태왕비는 고구려 건국의 전설을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論衡』·『周書』·『通典』·『三國史記』 등 각종 사서에 등장한 고구려 건국 전설을 확인해 준다. 호태왕비의 또 다른 사서 증명 작용으로 고구려 여러 왕들의 世系를 확인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문은 최초 3왕의 순서를 鄒牟王, 儒留王, 大朱留王이라고 기술하고 그로부터 17世孫이 호태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비록 재위 연대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 세계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보여준다.

호태왕비의 사서 보충 작용은 여러 방면에서 보이는데, 그 예로서 호태왕 시기의 통치 상황, 호태왕 시기의 군사 활동, 고구려 守墓 煙戶 및 그 관련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와 新羅·百濟·倭의 관계일 것이다. “辛卯年條” 혹은 “辛卯年句”는 반세기 동안 중국·북한·한국·일본 학자들의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신묘년(391) 기사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동북아 지역 諸國 사이

의 戰事 정황을 보여주며 이는 당시 정치·경제·문화 교류 등과 관련되어 사서에서 결락된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10년 제11기

高句麗移民后裔高仙芝史事考

고구려 이민 후예 고선지 사적 고찰

苗威 p. 1~4

兩『唐書』『高仙芝傳』을 보면 고선지와 그 부친 高舍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고사계는 “本”高句麗人이며 그 이주 지역이 隴右 지역이라는 점이다. 고사계의 관직을 보면 그가 본래 무장이며 당에 들어 온 이후 중임을 맡았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寶藏王 모반 사건으로 그 측근이 河南, 농우로 이주했다는 것을 보면 이 시기 고사계의 가족 역시 농우로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고사계 가족은 고구려 상층 계급에 속하였을 것이다. 둘째, 고선지가 20여 세에 고사계를 수종하여 安西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에서 고사계는 이 시기 5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가 開元 전기로 대략 728년인데 고사계의 출생 시기는 아마도 678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해 보장왕 모반사건이 발생하여 고구려인이 다시 천사되었으므로 고사계는 이민 무리 중 가장 연소한 자였거나 혹은 농우에 도착한 후 오래지 않아 출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선지가 당의 농우에서 태어난 자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고선지의 외모가 뛰어난고 무예가 출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최초의 관직은 軍功이 아닌 父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兩『唐書』와 『자치통감』을 통해 고선지의 사적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직 역임 상황을 알 수 있다. 부친의 음자로 遊擊將軍에서 시작하여 차츰 軍공으로 승진하여 최종적으로 密雲郡公에 이르렀다. 둘째로 고선지의 주요 戰事를 알 수 있다. 고선지는 勃律國 정벌, 羯師國·石國 정벌, 大食과의 탈라스 전투, 安史의 亂 진압 등에서 싸워 전공을 올렸다.

우리는 고선지를 통해 고구려 이민·이민 후예가 당에서 어떻게 仕宦 생활을 하였는가를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고선지는 儒者의 기질을 지닌 무장이었다. 둘째, 고선지는 부하에 대해 “以貌取人”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고선지는 무장으로 지휘 능력이 뛰어나 부하들의 지지를 받았다. 넷째, 고선지는 재물을 聚斂하는 수완이 있었다. 이외에 역사인물로서 고선지 역시 다중적 성격이 있었고 비교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탈라스 전투 전 西域 諸國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패전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다른 당시 인물들처럼 환관 高力士에게 아첨한 점도 들 수 있다.

■ 2010년 제12기

从朝鲜半岛到辽西-汉晋之际乐浪郡变迁

조선 반도에서 요서까지-한과 진시기 낙랑군의 변천

赵红梅 p. 177~179

서한 무제가 위씨 조선을 멸망시킨 후 옛 위씨 조선의 疆域에 낙랑·임둔·진번·현토 4개의 郡을 설치하였는데, 이 중 낙랑군의 경우는 여러 차례 변천을 겪게 되었다. 낙랑에 속해 있는 25개의 縣 중 ‘樂浪東部都尉(領東 7현을 말함)’의 7개 현과 ‘樂浪南部都尉(帶方郡을 말함)’의 7개 현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의 현이 당초 한 무제가 설치하였던 낙랑군에 해당된다. 기원전 108년(元封 3)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낙랑군에 소속된 11개의 현이 차지하는 범위는 틀림없이 위씨 조선이 계승해 내려온 기씨 조선의 本土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의 한반도 대동강 중하류 유역을 말한다. 『한서』 권28下, 「지리지」의 기록에는 모두 25개의 현이 낙랑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왕망 집정 시기에 樂鮮郡으로 개명되기도 하였던 낙랑군을 말하는 것이다. 이 25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낙랑군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 昭帝가 四郡을 整合한 후의 낙랑군에 해당된다. 현재 사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초대 낙랑군 태수는 劉憲이다. 正始 6년에 이르면 총 18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낙랑군이 지금의 한반도 북부 지역에 존속되었다. 이와 같은 낙랑군의 설치와 유지 상황에 대해, 특히 낙랑군의 최고 장군인 낙랑태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료를 통해서 총 13명의 낙랑태수를 열거할 수 있다. 이들을 시기 순으로 배열해 보면, 劉憲, 王調, 王遵, 吳鳳, 張岐, 涼茂, 鮮于嗣, 劉茂, 張統, 裴嶽, 鞠彭, 游鯁, 趙隗를 들 수 있다. 이 13명의 낙랑 태수가 바로 낙랑군의 최고 행정장관에 해당된다. 이들 중에 관료 집안 출신으로는 吳鳳과 裴嶽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다. 오봉은 吳祐의 큰 아들이고 祖父 吳恢는 南海太守를 지낸 적이 있다. 배의는 아버지 裴靚이 西晉의 司隸校尉에 임명된 적이 있다. 현존하는 기록에서 낙랑태수가 되기 전에 맡았던 관직이 확인되는 사람으로는 涼茂와 裴嶽를 들 수 있는데, 양무는 泰山太守에서 낙랑태수로 轉官했고 배의는 遼東相에서 낙랑태수가 되었다. 한편 낙랑태수를 거친 후 관직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로는 양무와 鞠彭이 있다. 낙랑태수를 거친 후 양무는 魏郡太守, 甘陵相으로 옮겼으며 國璜은 낙랑태수에서 물러난 후 大長秋로 임관했다.

■ 2010년 제2기

渤海的主体民族及其来源

발해의 중심 민족과 그 근원

郭素美 p. 230~233

旅順 黄金山の 『鴻臚井石刻』은 발해사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이는 당의 홍려경 崔忻이 714년 敕持節宣勞靺鞨使로 임명되어 대조영을 책봉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세운 것이다. 그의 직명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대조영 정권의 명칭은 말갈이었으며, 이는 발해의 건국 집단이 명확한 말갈 족속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당과 신라, 일본 역시 대조영 집단을 말갈 또는 말갈 국으로 호칭하였다. 이러한 사료적 근거는 발해의 주체 민족이 고구려라는 설을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의 태도도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

이처럼 발해의 주체 민족은 말갈이며, 왕실 대씨는 말갈 7부의 하나인 粟末部 출신이다. 말갈은 속신계로, 그 종족은 속신-읍루-물길-말갈로 계승되어 다른 계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말갈의 전신인 물길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부여의 옛 땅인 粟末水(松花江 중상류) 지역에 진입하여 예맥계인 부여족과 융합되었다. 중원 왕조 역시 이러한 관계로 인해 수에 내부한 속말말갈 수령 突地稽를 夫餘侯로 삼은 것이다. 속말말갈을 근원으로 하는 발해의 풍속이 고려나 거란과 같았다거나, 말갈의 언어가 東胡 계통인 室韋와 같았다는 것은 민족 융합의 결과이다. 몇 개 민족이 결합해 탄생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은 그 근원이 된 여러 민족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해에 부여의 遺俗이 남아 있다.’라고 기록될 수 있었다.

■ 2010년 제2기

渤海遗民的流向

발해 유민의 행방

梁五多 p. 233~236

발해 멸망 후, 발해의 유민들 일부는 거란의 강제 이민 정책에 의해 내지와 요동으로 사민되었다. 거란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유민은 여진으로 투항하거나 산지로 숨어들어 저항을 계속했으며, 일시 거란에 투항했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종류의 발해 유민은 兀惹人·燕頗部渤海人·蒲盧毛朶渤海人과 五節度熟女眞이다. 烏야인은 일반적으로 拂涅部로 알려져 있으며, 발해 초기에 발해에 귀속되었다. 발해 멸망 시 이들은 이미 거의 발해화되어 많은 발해 유민을 규합하였으며, 定安國을 세워 거란

의 통치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올라인의 대부분은 정안국 멸망 이후 거란과 여진에 흡수되었다가 元 정권 하에서 한족에 융합되었다. 한편 발해 멸망 후 압록강 하류 지역으로 남하한 여진은 현지의 발해 유민과 결합하여 양자의 특징을 공유한 五節度熟女眞이 되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여진에 흡수되었다. 다른 한편, 발해 출신으로 요에 반란을 일으킨 燕頗가 규합한 발해 유민도 있었다. 이들은 정안국과 연합하여 반요 활동을 전개했으나 결국 멸망했고, 이후 이들 세력은 여진족에 흡수되었다. 마지막으로 蒲盧毛朶 지역의 渤海人이 있는데, 蒲盧毛朶는 長白山脈의 오지로 발해인이 난을 피하기 적합한 장소였다. 이 지역은 많은 여진인이 거주하였으며, 자연히 이곳의 발해인 역시 결국 여진에 흡수되었다.

발해 멸망 후 東丹國과 거란의 통치를 피해 발해인이 고려로 달아났으며, 반요 투쟁에 실패한 적지 않은 발해인 또한 고려로 망명하였다.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의 전란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가 황폐하여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이러한 발해 유민의 유입은 遼가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는데, 『高麗史』의 기재에 따르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다. 또한 발해 출신임이 명확하지 않은 유민 기사 중에서도 中·大·烏 등 발해의 성씨와 多干伊·多干陵 등 말갈풍의 성씨가 많아, 고려로 유입된 발해 유민은 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가 가능한 수효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들 유민들 중의 소수는 다시 遼에 약취되어 요동 지역으로 되돌아갔으나, 기록에 누락된 수효를 감안하면 실제 발해 유민의 숫자는 상당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대략 10여 만에서 20만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현재의 한민족을 형성하였다.

● 『黄河科技大学学报』

由‘联合’到‘拒入’: 南宋初年高丽政策的转向

‘연합’에서 ‘입조 거절’로: 南宋 초기 고려에 대한 정책의 변화

齐廉允 p. 45~49

12세기 초, 女眞이 흥기하여 遼와 北宋을 멸망시킨 후, 고려에 대해서도 ‘朝貢稱臣’할 것을 강요하자 동아시아 대륙은 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력이 미약하였던 南宋은 高麗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고려에 대해 취해왔던 주도적인 외교 관계를 방기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고려의 入貢 요구를 거절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일종의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高麗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외 정책의 수축은 이후 백여 년의 시간 동안 宋과 고려의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규정하였다. 南宋의 고려에 대한 소극적 대외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선 南宋 조정에서 고려로 보낸 使臣의 횡수가 대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南宋에서 고려에 사

신을 파견한 것은 총 8회로 그중 4차례는 商人이 使臣을 겸한 경우였다. 이는 北宋 중후기에 사신을 파견한 횡수에 비해 볼 때, 현저히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고려에 파견된 사절의 官階 역시 하락하였는데, 이마저도 禮節性的 聘問과 소식의 교환을 위한 행위였을 뿐, 외교적 사안과 관련된 정책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한편 南宋 조정에서는 入朝한 고려의 사신에 대해서도 그 接待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 심지어 여러 차례 ‘卻貢’ 즉 사신의 방문을 殿門이나 國門 밖에서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高麗에 대한 南宋의 정책은 ‘주도적인 연합’에서 ‘入朝에 대한 거절’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兩宋 교체기에 시작되었는데, 南宋 초기에 들어서서 더욱 명료한 형태로 고정되었다. 물론 이것은 南宋의 취약한 국력에 근원한 현상이므로 대외 정책의 제정과 실시는 바로 국력의 강약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黑龙江民族丛刊』

■ 2010년 제2기

论渤海国与黑龙江流域书法史的肇端

발해국과 흑룡강 유역 서법사의 시작

何鑫 p. 102~105

黑龍江 流域의 書法史는 7세기의 渤海靺鞨에서 시작하였다. 이 시기 발해말갈은 唐 王朝의 中原 지역과의 빈번한 왕래와 부단한 학습 과정 중에서 자기들의 서법 인재를 배양하였다. 王室에서 工匠에 이르기까지 書法家들이 많았으며, 발해말갈의 서법 작품에서 서체와 풍격, 형식 및 書寫 목적에서 모두 상당한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

■ 2010년 제2기

辽东半岛高句丽山城概述

요동반도의 고구려 산성 개술

王禹浪·王文铁·王宏北 p. 95~100

404년 遼東 지역을 점령한 이후, 고구려는 遼陽을 중심으로 하여 요동반도에 수십 개의 성을 수축하였다. 614년 수양제의 3차 고구려 정벌 시에, 산둥반도에서 출발한 수군은 먼저 요동반도 大黑山의 卑沙城을 점령하여 서해를 통해 평양성을 직격하고자 하였다.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정벌 시에 당군이 요동성을 점령하기는 했으나 안시성과 건안성은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요동반도에 구축

된 고구려 산성의 방어선이 매우 견고함을 알 수 있다. 요동반도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으며 해안선이 복잡하다. 고구려는 요동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살려 58개의 성을 요동반도에 수축하여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들 산성은 규모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둘레 3km 이상은 A형, 둘레 2~3km는 B형, 둘레 1~2km는 C형, 둘레 1km 이하는 D형, 둘레가 불명확한 것은 E형이다. A형에 속하는 요동반도의 산성은 大連市 大黑山山城·普蘭店市 巍霸山城·普蘭店市 西山山城·庄河市 後石城山城·庄河市 城山山城·蓋州市 高麗城山山城·蓋州市 高麗城子村山城·蓋州市 赤山山城·大石橋市 龍川山城·岫巖縣 高句麗山城·鳳城市 鳳凰山山城의 11개로, 이 중 大連 지역에 5개, 營口 지역에 4개, 鞍山 지역과 丹東 지역에 각기 1개씩 분포해 있다. 이들 산성은 고구려의 요동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B형에 속하는 성은 普蘭店市 老白山山城·瓦房店市 瓦房店山城·瓦房店市 龍潭山山城·瓦房店市 馬圈子山城·瓦房店市 崗崗山山城·大石橋市 馬圈子山山城·蓋州市 東山山城·海城市 英城子山城·岫巖縣 土城山山城·岫巖縣 松樹溝山城·岫巖縣 清涼山山城·岫巖縣 老城溝山城의 12개로, 大連 지역에 5개, 營口 지역에 2개, 鞍山 지역에 5개씩 분포해 있다.

C형에 속하는 성은 모두 16개로, 鞍山과 丹東 지역에 각기 6개씩, 大連 지역에 1개, 營口 지역에 3개가 분포해 있다. D형에 속하는 14개의 성은 鞍山 지역에 7개, 營口 지역에 4개, 大連 지역에 2개, 丹東 지역에 1개가 분포해 있다. 이 중 둘레 300m 미만의 것은 8개, 둘레 300~500m의 것이 4개, 500m 이상의 것은 2개이다. 성의 전체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E형의 5개 성은 普蘭店市, 瓦房店市, 丹東市, 鞍山市, 岫巖縣에 각기 1개씩 분포해 있다.

이들 고구려 성은 절대 다수가 하천을 끼고 있으며, 특히 하구와 가까이 위치한 성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요동반도에 위치한 58개의 성 중에 57개가 하천을 끼고 있으며, 이 중 55개가 하구와 가깝다.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성인 大黑山山城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하면 모든 성이 하천 가까이에 세워진 셈이다. 이처럼 고구려가 대다수의 산성을 하천 및 하구 가까이에 세운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요동반도는 수륙교통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長白山脈이 남진하여 산지와 구릉이 많은 요동반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하천이 水源과 교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고구려는 요동의 통치력 강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요동반도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중원왕조가 주로 해로를 통해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2010년 제3기

箕氏朝鮮及相關問題再考證

기자조선 및 관련문제 재고증

趙炳林 p. 173~174

기자조선은 고조선의 시초 왕조이다. 기자는 실존 인물이며 周 武王 11년에 遼東으로 갔다가 무왕 13년에 주에 왔다. 주는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봉하였으나 기자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기자조선의 역사는 결락되었지만 世系 일부가 남아 있기에 기자조선이 실존하여 857년간 존속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자조선은 서쪽으로 淸川江 이남, 동쪽으로 러시아 연해 지역 이남, 남쪽으로는 辰國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였다.

■ 2010년 제5기

渤海國對唐朝和日本的友好交往

발해의 대당·대일 우호왕래

陳振龍 p. 11, 15

渤海의 사회경제는 생산 방식이 다양하여 선진적인 농업 생산품과 정교한 수공업품을 생산하였으며, 지역적 특색을 지닌 목축업과 수렵업·어업도 발달하였다. 이 중 熟銅과 率賓馬는 중원에서 특히 환영받았다.

발해는 당에 활발히 조공하여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다. 조공과 상업 무역을 통해 발해에서 중원으로 운반된 물품은 모피·동물·猛禽·수산물·약재·금·은·동·직물·공예품 등으로 다종다양하였다. 발해의 조공에 대해 당은 매번 回賜하였다. 회사한 주요 물품은 金銀器皿·袍服冠帶·각종 직물과 약재, 식량 등으로 발해 상류층의 소비 수요는 있으나 발해에서 공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발해의 일본 사신 파견 역시 일종의 특수한 관방 무역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발해와 일본의 왕래에서 발해가 35차례 사신을 파견하였고, 일본의 답방은 13차례였다. 발해와 일본의 교류는 처음에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른 필요에서 출발하였고, 무역의 전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발해 정권이 안정되고 귀족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발해 사절단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으며, 발해 사절단은 어느 정도 무역 상단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2010년 제17기

延边地区的歷史变迁及其主权归属

연변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그 주권의 귀속

赵卫华·金东黎 p. 51~52

1. 延邊 지역의 민족 변천과 조선의 이민

圖們江 북안의 延邊 지역은 예부터 중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모두 華夏族이 통치하였고, 圖們江 유역의 원주민인 穢貊族과 함께 중국에 귀속된 지방정권이였다. 이후 예맥계 민족이 주체가 된 고구려가 흥기하여 현재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반부를 장악했으며, 고구려 멸망 이후 거주민 대부분은 중국 내지로 사민되어 漢 민족에 융합되었다. 고구려의 옛 땅은 말갈족의 거주지가 되었는데, 이후 말갈의 지파가 여진족으로 발전하여 延邊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遼·金·元을 거쳐 明 永曆 연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왕조의 판도 내에 있었다. 명 成祖의 양보로 조선은 처음으로 圖們江 남안까지 동북 변경을 확장할 수 있었고, 圖們江은 中朝 양국의 실질적인 경계선이 되었다. 19세기 중반 조선에 재해가 연이어 일어나 조선인이 圖們江·압록강을 넘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상당 부분은 延邊 지역에 집중되었다. 1867년과 1881년 두 차례에 걸쳐 청은 禁畝를 해제하고, 월경한 조선인의 호적을 작성하고 琿春·敦化 두 현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하였다. 이는 延邊 지역의 조선족이 延邊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며, 아울러 결국 중국 정부의 관할하에 들었음을 말한다.

2. '間島' 명칭의 유래와 간도 문제의 발생 원인

갑오전쟁 후 일본은 延邊 지역을 노리며 '間島'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延吉·汪清·和龍·琿春의 4개 현을 포함하였으며, 간도는 일본과 한국에서 延邊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조선통감부의 간도파출서 훈령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은 청의 재판에 복종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사이토 마코토가 군사를 이끌고 延邊을 침략하였을 때 주중 일본공사 대리 아베 모리타로는 '간도가 중국의 영토인지 한국의 영토인지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통감부에서 인원을 파견해 간도의 한국 인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도 문제는 이처럼 일본제국주의 침략에서 발생한 것이다.

3. 관할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본 延邊 지역의 주권 귀속

延邊 지역은 한대에 현토군의 관할을 받았으며, 주요 거주민은 부여족·고구려족·옥저족·한족 등으로 이후 고구려가 흥기하여 수당대에 중국의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북부 및 현재 러시아의 일부를 아우르는 동북아 지역의 강국이 되었다. 고구려 민족의 근원은 三韓 부락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고구려족은 예맥계통에 속해 있다. 예맥족은 동이의 지파이고, 동이는 화하족의 3대 근원으로, 商 역시

동이족이 세운 것이다.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주민 대부분은 내지로 사민되어 중화민족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의 출토 문물을 통해서도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역이 동일한 문화 계통이며, 한반도 남부는 별개의 문화 계통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延邊 지역은 소수민족 지방정권인 발해와 거란의 관할 대상이 되어 이후 줄곧 여진인이 거주하였고, 현재 한국인의 선조가 이곳에서 생활한 일은 결코 없었다. 명대에 들어서야 조선은 처음으로 圖們江 이남의 토지를 영유하게 되었다. 일부 사료에서 고구려를 고려라고 기록한 것을 들어 고구려와 고려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860년대에 들어서 조선의 난민들이 延邊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후 조선을 대신한 일본과 청의 조약에서도 신중국 성립 후 북한과의 경계 확정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영토의 경계로 하였다. 따라서 延邊 지역을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다.

■ 2010년 제23기

13世紀蒙元与高丽关系变化及原因分析

13세기 몽원과 고려 관계 변화 및 원인 분석

金金花 p. 15~16

蒙元和 한반도 高麗 정권 사이의 관계는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양측은 13세기 초에 접촉하기 시작하여 이후 반세기 동안 “戰”에서 “和”로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각 부족을 통합하여 그 세력을 신장하였다. 당시 고려는 崔氏 무신정권 통치기였다. 1211년 고려 熙宗이 금에 보낸 사신 金良器가 通州에서 몽골 군대와 조우하여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몽골과 고려 사이의 최초 접촉이었다. 1216년에는 몽골이 배반자를 공격하여 고려의 경내에 침입하였다. 1218년 몽골군이 다시 고려에 진입하여 結盟하였다. 1225년 고려에 파견된 몽골 사신이 귀국 도중 살해되자 몽골군이 이를 고려의 소행으로 여겼으나 칭기즈칸의 사망으로 연기되었다가 1231년(몽골 太宗 3) 고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1257년까지 몽골은 고려에 대해 6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실시하였고 1258년(몽골 憲宗 8) 고려는 최씨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사자를 몽골에 파견하여 항복한 후 태자를 몽골에 보내 朝見하기로 하였다. 1259년 몽골 현종이 사망하고 내전이 발발하자 고려 태자는 쿠빌라이에게 조건하여 그의 환심을 샀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화평의 기초가 닦였다.

■ 2010년 제1기

夫余始迁时间地点考

부여의 최초 천도 시기와 지점 고찰

杨军 p. 2, 129~131

『史記』 「匈奴列傳」에서 匈奴의 지배 지역에 대해 “左方王將居東方，直上谷，東接穢貉，朝鮮”이라고 하고 楊信이 흉노에 사신으로 나갈 때의 기록에서는 “東拔穢貉，朝鮮以爲郡”이라 하였다. 양신은 기원전 107년에 사신으로 갔으니 “東拔穢貉，朝鮮以爲郡”는 기원전 108년 漢이 조선을 멸망시킨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기록의 조선은 衛滿朝鮮이다. 위만조선은 본래 한반도 서부인 大同江 이남에 위치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동북부 穢人 小國을 정복하였다. 따라서 민족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맥과 조선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이를 보면 흉노와 조선 사이에는 기타의 정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흉노가 통제할 가장 동쪽 지역은 東胡의 烏桓·鮮卑의 기원지였으며, 위만조선의 서북부는 그 후 정복된 “예맥”이다. 이로써 볼 때 오환·선비의 거주지와 예맥족의 분포 지역은 인접해 있었다.

『사기』 「貨殖列傳」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南通齊，趙，東北邊胡。上谷至遼東，地踔遠，人民希，數被寇，大與趙，代俗相類，而民雕悍少慮，有魚鹽棗栗之饒。北鄰烏桓，夫餘，東縮穢貉，朝鮮，眞番之利。” 이를 보면 상곡군에서 요동군까지 지역의 동북부는 흉노의 거주지였고 북부는 오환·夫餘의 거주지이고 동부는 예맥·조선·眞番의 거주지였다. 즉 오환·부여는 遼西·右北平 이북 지역에 거주했었다.

『後漢書』 「烏桓鮮卑傳」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及武帝遣驃騎將軍霍去病擊破匈奴左地，因徙烏桓於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五郡塞外。” 즉 오환의 南遷과 “霍去病擊破匈奴左地”는 관련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漢驃騎將軍之出代二千餘里，與左賢王接戰，漢兵得胡首虜凡七萬餘級，左賢王將皆遁走，驃騎封於狼居胥山，禪姑衍，臨翰海而還。” 광거병은 대군에서 출발하여 2천여 리를 행군하여 좌현왕을 격파하고 오환을 遷徙시킨 후 다시 單于庭으로 향한 것이 분명하다. 즉 오환 거주지는 좌현왕과의 전장 부근일 것이므로 오환 거주지와 한 대군과의 거리는 2천여 리일 것이다. 한대 1리를 325m로 계산하면 700km 이상이다. 전술한 위치와 거리를 종합하면 오환의 거주지는 內蒙古自治區 錫林郭勒盟 東烏珠穆沁旗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오환이 長城 부근으로 천사되었으므로 한과 오환 사이에는 어떤 부족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여는 오환 이북에 존재하였을 것이다. 王沈의 『魏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鮮卑自爲冒頓所破，遠竄遼東塞外，不與餘國爭衡，未有名通於漢，而由自與烏丸相接。” 이 때문에 학자들은 선비의 초기 거주지가

오환 이북이었을 것으로 본다. 부여는 松嫩平原으로 東遷할 수 있었으므로 선비와는 동서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大興安嶺 산맥 중부의 東麓에서 남으로 綽爾河 유역, 북으로 甘河 유역, 동으로 嫩江 골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여의 동천 시기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서 밝힌 기원전 59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기』 「조선열전」에 의하면 위만이 진번·臨屯 등의 소국을 쳐서 복속시켰다고 하였다. 위만조선의 건립은 한 惠帝·高后 시기였으므로 진번·임둔의 정복은 혜제 시기보다 늦을 수 없다. 따라서 『사기』 「화식열전」의 기록에서 진번과 조선이 병렬되니 이 기사와 시기는 혜제 재위 시기 이후일 수 없다. 같은 문장에서 오환과 부여가 병렬되니 역시 같은 시기의 상황이다. 이로 볼 때 최소한 혜제 재위 기간에는 부여가 아직 동천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기』 「平準書」·『漢書』 「地理志」·『한서』 「武帝紀」 등의 기록을 볼 때 한은 늘 조선·예맥을 드나들던 상인 彭吳를 이용하여 濊君 南閼 등 28만 人을 위만조선에서 이탈시켜 滄海郡을 만들었다. 28만 인은 戶당 5인으로 계산하면 5만 6천 호에 달한다. 이는 『三國志』 「東夷傳」에 기록된 강원도에 분포한 예맥인이 2만 호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서로 맞지 않는다. 『후한서』 「濊傳」의 기록으로 볼 때 武帝 元朔 元年에 귀부한 남려의 부족은 후세의 예·옥저·고구려의 분포지를 포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지이자 창해군이 설치된 곳은 지금의 鴨綠江·渾江 유역이다. 『삼국지』 「동이전」에 적힌 호구수를 보면 고구려는 3만 호이고 예맥은 2만 호이며 옥저는 5천 호여서 그 총합이 남려의 부족 호구수와 비슷하다. 즉 남려가 이끈 부족은 후대의 고구려·옥저·예맥이며 이를 통칭하여 예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부여가 濊地로 천입한 것은 반드시 한 창해군이 설치되기 이전의 사건일 것이고 이 일은 기원전 128년 이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족이 동천하여 건국한 사건은 바로 『論衡』에서 말한 東明이 橐離國에서 분리하여 건국한 사실이며 대략 기원전 188년에서 128년 사이에 발생하였다.

■ 2010년 제11기

渤海与新罗交往管窥

발해와 신라 교왕 관견

侯震 p. 70~71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그 30년 후인 698년 渤海國이 건립되어 그 영토는 남으로 신라와 맞닿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해와 신라는 200여 년간에 걸친 交往을 하게 되었고

이 교왕 기간 동안 교류·대치·지원 요청 등의 모습을 보였다.

1. 교왕 초기의 상호 이용 - 大祚榮은 발해를 건국한 후 唐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역시 전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외부 세력의 원조가 필요하였기에 막 건국된 발해를 연합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라는 대조영에게 “五品大阿餐之職”을 내렸고 대조영은 비로소 신라의 藩臣이 되었다.

2.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시기 - 당 中宗이 대조영을 위무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707), 점차 발해는 당의 靺鞨府州가 되었고 이에 따라 발해와 신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발해의 국력이 발전하며 宣王 시기 “南定新羅, 北伐海北諸部”라는 기록이 있어 발해가 신라에 무력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신라 역시 이 시기 동안 10~20년 간격으로 발해에 대한 군사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비록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니나 전운이 양국 변경에 감돌았던 것이다.

3. 外交 儀禮, 文化 方面에서 雙方의 다툼 - 발해와 신라는 외교 의례, 문화 등의 方面에서 양보 없는 다툼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당에의 조공 시 外交爭長과 쌍방 인원이 당에서 참가한 科擧 “賓貢排名”에서의 다툼이었다. 발해의 발전과 신라의 쇠미에 따른 이런 다툼은 양국 간의 不睦을 반영하는 모습이었다.

4. 신라에 대한 발해의 지원 요청 단계 - 916년 耶律阿保機가 契丹 정권을 건립한 후 발해는 거란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발해는 외부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신라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거란에 협력하여 발해 공격의 상을 받았다. 발해국이 멸망하면서 200여 년에 걸친 신라와 발해의 관계가 끝을 맺었다.

을 주어 陰陽·四神 등 고구려 묘실 벽화의 주된 소재를 제공했다. 또한 고구려 왕과 귀족은 주변국과의 전쟁을 통해 주변 문화 및 중원 문화와 접촉하여, 중원 왕조의 대규모 묘장과 묘실 벽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고구려는 주변국 및 중원 왕조와의 전쟁을 통해 많은 한인 포로를 노획했는데, 이들 일부는 송환되었으나 일부는 고구려에 융합되었다. 이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 사업에 종사했는데, 한족 건축 장인과 화공 등은 고구려 벽화의 성행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2010년 제3기

试论高句丽墓室壁画形成的历史背景

고구려 묘실 벽화 형성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시론

郭秀 p. 46~47

고구려 묘실 벽화는 4~7세기의 것으로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군사·민속 등의 方面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풍부하다. 이러한 벽화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은 고구려 정권의 건립, 漢 문화의 영향과 전파, 주변국과의 전쟁, 漢族의 개입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고구려 정권이 형성되어 漢을 비롯한 중원 왕조와 끊임없이 교류하여 臣屬하면서 조공과 책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의 사상·문화·도덕 및 예술 관념이 전파되었으며, 漢代 묘장 습속이었던 벽화가 전파되었다. 다음으로 漢代에 발전한 음양참위설이 고구려로 전파되고, 이후 남북조 시기에는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러한 사상들이 고구려 민족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묘장 습속에도 영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한·중 역사 관련 학술 활동 및 언론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2010년 한·중 역사 관련 학술 활동 및 언론 동향

1) 학술회의

(1) 국내 학술회의 | 227

- 학술회의 일람표 | 227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31
- ### (2) 중국 학술회의 | 283
- 학술회의 일람표 | 283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85

2) 언론 동향

(1) 한국 측 동향 | 298

- 신문 | 298
- 방송 | 304

(2) 중국 측 동향 | 306

- 신문/잡지 | 306

3) 국내 학술연구 논저

(1) 도서 | 319

(2) 논문 | 325

- 학위 논문 | 325
- 일반 논문 | 327

1) 학술회의

(1) 국내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 월 | 일 | 제 목 | 주 제 |
|--------|-------|------------------------------------|---|
| 2010년도 | | | |
| 1 | 23 | 신라사학회, 제89회 학술 발표회 | |
| 2 | 4~5 | 한국고대사학회, 제23회 합동 토론회 | 한국 고대사 연구와 역사지리 고증 |
| | 4~5 | 동양사학회, 제29회 동계 연구 토론회 | 동아시아 역사상의 지적 교류 |
| | 18 | 한림대 한림과학원, 동아시아 개념 소통 워크숍 | 인권과 동아시아 |
| 3 | 27 | 고구려발해학회, 정기 국내 학술회의 | |
| | 19 | 동양학연구소, 제11회 연구 과제 국제 학술회의 |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 |
| | 19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년 춘계 학술회의 | |
| | 20 | 한국여성사학회, 제34회 월례 발표회 | |
| | 22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제3차 콜로키움 | '한일조약(1965년)'과 한일 관계사 인식 |
| 4 | 30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260회 월례 발표회 | |
| | 2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제11회 콜로키움 | 바닷길을 통한 문화 교섭 : 아랍-중국-신라의 사회 경제적 방정식 |
| | 10 | 중국사학회, 제66회 학술 대회 | 중국사에서의 지역사회 |
| | 15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 콜로키움 | 필연의 몰수 계임을 넘어서 : 한국/동아시아 문학과 역사 이해의 과제 |
| | 17 | 국제한국사학회, 제8회 월례 발표회 | |
| | 17 | 대구사학회, 2010년 기획 학술 대회 | 역사와 관광 |
| | 23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6회 독립운동사 연구자 대회 |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
| 5 | 23 | 부산대 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 제2회 국내 학술 대회 | 문화의 번역과 반역 : 근대 동아시아와 서구의 만남 |
| | 23~24 |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 제2회 국제 학술 대회 | 유럽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사로(Global History beyond Eurocentrism) |
| | 24 | 한국사학사학회, 제90회 연구 발표회 | |
| | 24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제128회 정기 학술 세미나 | |
| 5 | 1 | 조선시대사학회, 제98회 월례 발표회 | |
| | 4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콜로키움 | 한중일 역사 관계의 현황 : 역사 쟁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
| | 7 | 고구려발해학회, 제51차 국제 학술회의 | 渤海 中京時期的 歷史와 文化 |
| | 8 | 한국고대사학회, 제114회 정기 발표회 | |
| 5 | 11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11차 사회 인문학 포럼 | 1950~1960년대 동아시아 지식·지식장의 재구성 |

| 일 | 제 목 | 주 제 |
|-------|---|--|
| 15 | 중앙아시아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 대회 | |
| 20 | 서울대 규장각 HK 사업단, 제1회 학술 대회 | |
| 22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1회 월례 발표회 | |
| 27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제4회 백제 문화 콜로키움 | 백제사 연구와 중국 사료 |
| 27 | 서강대 동아연구소, 제1회 인문 동아시아 포럼 | 우리 역사 다시 보기 |
| 28 | 한국고전번역원, 2010년도 상반기 정기 학술 대회 | 한국 고전적 표점 사업의 현황과 과제 |
| 28~29 | 제53회 전국 역사학 대회 | 식민주의와 식민 책임 |
| 29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월 월례 발표회 | |
| 1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8차 사회 인문학 워크숍 | 비대칭적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전통 질서의 재인식 |
| 1, 8 |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창립 기념 제1차 학술 대회 | 동아시아 속의 전쟁과 아산만 |
| 4 | 한국고대학회, 2010년 춘계 학술 대회 | 일제 강점기와 우리 문화유산의 오늘 |
| 11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해외 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 |
| 12 | 한국고대사학회, 제115회 정기 발표회 | |
| 12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학술 대회 | |
| 12 | 중국사학회, 제67회 학술 발표회 | 중국 사회경제사의 이해 |
| 17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 학술회의 | 지식의 근대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
| 18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제 학술 대회 | 동아시아 해양 교류 |
| 19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64회 연구 발표회 | |
| 19 | 국제한국사학회, 제1회 국제 학술회의 | 21세기 국제 한국사 연구 : 쟁점과 전망 |
| 21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제 학술 대회 | 동아시아 도서 해양과 인문학 |
| 21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제7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 | 경계초월자와 도시 연구 : 지구화 시대의 매체, 이주 |
| 25 | 호남사학회, 정기 학술 대회 | |
| 25 |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차년도 군사 제도사 및 강역에 관한 연구 학술 토론회 | 한국 군제사의 군사사적 이해 |
| 25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 학술 회의 |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방향 : 국내외 경험, 선전 정책 그리고 성격 한국전쟁기의 국내외 경험과 선전 정책 한국전쟁의 성격과 평가 |
| 26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2회 월례 발표회 | |
| 1~4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 동아시아, 횡단하는 생활사 |
| 6~7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 동아시아 근대 아카데미즘의 형성과 국가 권력 |
| 22~23 |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100년) 식민주의적 한국 고대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

| 일 | 제 목 | 주 제 |
|-------|--|--|
| 11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인문한국사업단, 제7회 HK 워크숍 | 동아시아 술수학 지식의 교류와 전파 |
| 19 | 국사편찬위원회, 경술국치 100년 제46회 한국사 학술회의 | 애국지사 현창 어떻게 할 것인가 : 역사의 경험에서 배운다 |
| 24~25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제8차 국제 학술 회의 | 동아시아 담론과 대안적 근대의 탐색 대안적 근대와 도시 |
| 27 | 역사학회, 2010 하계 심포지엄 | 근대 이행기의 군주제 |
| 4 | 조선시대사학회, 제100회 월례 발표회 | |
| 8~9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 대회 | 국내 항일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 사적지 관리와 활용 |
| 9~12 | 중국사학회, 제11회 국제 학술 대회 겸 제68회 학술 발표회 | 教育을 통해 본 中國史 |
| 10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 왕조 의궤 학술 심포지엄 | 의궤 조사의 성과와 활용 의궤와 동아시아 국가 기록의 전통 의궤를 통한 조선 문화사의 복원 |
| 11 | 한국사연구회, 제278차 연구 발표회 | |
| 25 | 한국사학사학회, 제93회 연구 발표회 | |
| 30 | 민주학회, 연세대 국학연구원 국제 학술회의 |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과 문화 체험 |
| 30~2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세계대백제전 국제 학술회의 | 교류 왕국, 대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 |
| 2 | 경인민속학회, 제4차 학술회의 | 경인 지역 공동체 문화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해체 2 :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 5 | 백석대 유관순연구소·(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관순 열사 순국 9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 유관순 평화 정신의 현대적 조명 |
| 9 | 한국사상사학회, 제141차 월례 발표회 | |
| 15~16 | 제8회 4개 권역 역사학회 공동 학술 대회 | 역사 속의 산 |
| 21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
| 21 | 고구려발해학회, 국제 학술회의 | 동아시아에서 고구려, 발해의 문화와 위상 |
| 22 | 한국사연구회, 2010년 10월 국제 학술대회 |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 농민 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
| 22 | 고구려발해학회, 학술회의 | 발해 해양사와 21세기 환동해 교류 |
| 26 | 한국근현대사학회, 안중근 순국 100년 학술 대회 | 안중근 연구 100년의 쟁점과 과제 |
| 26~27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 세계의 바위그림, 그 해석과 보존 |
| 29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 60주년 학술 대회 |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반응 |
| 29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용의 기원 : 오래된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
| 30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 '한국병합'의 세계사적 재조명 : 국제적 환경과 인식 |
| 30 | 동양사학회, 추계 학술 대회 |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 재조명 |

| 월 | 일 | 제 목 | 주 제 |
|----|-------------------|---|--|
| 11 | 6 | 동국사학회, 한중연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0년 추계 학술회의 | 여행기를 통해 본 동서양의 교류와 소통 |
| | 5~6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연구 포럼 국제 학술회의 |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과 평화: 사회·국가·세계 |
| | 12 |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제9회 호서 명현 학술대회 | 丹齋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運動 |
| | 12 | 이화사학연구소, 제35회 정기 학술 대회 | 1920~1930년대 동아시아 모던 문화와 근대 체험: 도시 대중과 일상생활 |
| | 13 |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제13회 국제 학술 대회 |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경계·주체·문화 |
| | 13 | 한국고대사학회, 제17회 정기 발표회 |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
| | 13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10 해외 동포 민족 문화·교육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부산 국제 심포지엄 | 동북아의 '민족 학교' 우리말 교육의 현황과 과제 |
| | 19 | 역사학회, 2010년도 추계 학술 대회 | 역사상의 首都와 別京 |
| | 19 | 한국목간학회, 제5회 정기 학술 대회 | |
| | 20 | 국제한국사학회, 제12회 월례 발표회 | 헤어스타일의 혁명과 동양 삼국: 조선의 단발령을 중심으로 |
| | 25~26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 국제 학술회의 | 동아시아 '국제주의'의 복원을 위해서 |
| 27 | 중앙아시아학회, 국제 학술 대회 | 동아시아 고대 문화 속의 흉노 | |
| 12 | 3~4 | 동아시아고대학회, 제42회 학술 대회 | 강과 동아시아 문명 |
| | 10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415회 국학 연구 발표회 | |
| | 11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사학회 합동 학술 대회 | 단군과 고조선사 연구 |
| | 11 | 신라사학회 학술 대회 | 장보고의 해상 활동과 신라사 |
| | 11 | 중국사학회, 제69회 학술 대회 | 역사상의 중국과 한국 |
| | 17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13차 월례 발표회 | |
| | 17 |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0년 학술회의 | 동북아 국제 정세와 韓·滿 지역 국가의 대외 교섭 |
| | 18 | 한국사학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 | 역사주의를 다시 본다 |
| | 20 | 부산경남사학회, 12월 학술 대회 | |
| | 23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제11회 백제 문화 콜로키움 | 백제 고고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1월 학술 발표

▣ 신라사학회 제89회 학술 발표회

- 일시: 2010년 1월 23일
- 장소: 서강대 다산관 209호
- 사회: 이부오(백석고)
- 고구려 대무신왕대 정치 동향과 대외 관계// 발표: 김미경(연세대)/ 토론: 최희수(누리미디어)
- 진공 충담과 태조 왕건// 발표: 정동락(대가야박물관)/ 토론: 정선용(충북대)

■ 2월 학술 발표

▣ 제23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 토론회

- 주제: 한국 고대사 연구와 역사지리 고증
- 일시: 2010년 2월 4일~5일
- 장소: 충북대 인문대 시청각실(3층 361호)

<2월 4일>

○제1부 사회: 전덕재(경주대)

- 역사지리 연구 방법론// 발표: 이민부(한국교원대)
-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지리 고증// 발표: 박현숙(고려대)/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제2부 사회: 강봉룡(목포대)

- 백제와 마한의 역사지리 고증// 발표: 권오영(한신대)/ 토론: 정재윤(공주대)
- 신라와 가야의 지리 고증// 발표: 백승옥(부산박물관)/ 토론: 이형기(해양박물관 건립추진단)

* 특별 발표: 동북아 역사 지도 편찬 사업의 진행과 그 의미

<2월 5일>

○제3부 사회: 김창석(강원대)

- 고조선과 한사군의 역사지리 고증// 발표: 송호정(한국교원대)/ 토론: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 발해의 지리 고증// 발표: 김종복(성균관대)/ 토론: 윤재운(대구대)

○제4부 종합 토론 좌장: 임기환(서울교대)

- 참여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김태식(홍익대), 노중국(계명대), 주보돈(경북대), 양기석(충북대), 한규철(경성대)

▣ 동양사학회, 제29회 동계 연구 토론회

- 주제: 동아시아 역사상의 지적 교류

• 일시: 2010년 2월 4일~5일

• 장소: 경남 사천시 남일대 리조트

• 주최: 동양사학회

• 주관: 경상대 사학과, 인문학연구소

<2월 4일>

○제1부 사회: 강길중(경성대)

- 慧超 『往五天竺國傳』의 발견과 8대탑// 발표: 남동신(서울대)

• 명청 중국의 외국어 교육과 조선통사// 발표: 정혜중(이화여대)

• 청말 정치 사상의 중서 융합과 유가 정치사상의 변화-전통 유가 정치사상의 근대화// 발표: 이춘복(중앙대)

○제2부 사회: 윤병남(서강대)

- 일본 고대 국가 형성기의 知的 유통과 독점-4~7세기를 중심으로-// 발표: 이재석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제국주의 하 유교이데올로기의 변용-식민지기 조선의 경학원 운영을 중심으로-// 발표: 류미나(국민대)

<2월 5일>

- 제3부 종합 토론 좌장: 김승태(아주대)
토론자: 신성곤(한양대), 홍성구(경북대), 최병욱(강원대), 이근우(부경대), 박삼현(건국대)

■ 한림대 한림과학원 동아시아 개념 소통 워크숍

- 주제: 인권과 동아시아
- 일시: 2010년 2월 18일
- 장소: 춘천 라데나 콘도

○ 1부 사회: 이경구(한림대)

- 인권의 보편성과 정치성// 발표: 황정아(이화여대)
- 주권과 인권-인권 담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 연구-// 발표: 최지영(한림대)
- 유교 사상과 인권의 관계// 발표: 喬淸擧(중국 난카이대)/ 통역: 고재석(성균관대)

○ 종합 토론 사회: 양일모(한림대)

■ 고구려발해학회 정기 국내 학술회의

- 일시: 2010년 2월 27일
- 장소: 경희대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최근 경기 남부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발표: 안신원(한양대)/ 토론: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 벽화 고분의 명문과 피장자 문제// 발표: 정호섭(고려대 박물관)/ 토론: 공석구(한밭대)

-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발표: 양시은(서울대 박물관)/ 토론: 황보경(세종대)

- 발해 연화문 와당의 형태 분석을 통한 고구려 와당의 계승성 검토-발해 서고성 출토 연화문 와당을 중심으로-// 발표: 김희찬(경희대)

■ 3월 학술 발표

■ 제11회 동양학연구소 연구 과제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
- 일시: 2010년 3월 19일
- 장소: 단국대 죽전 캠퍼스 법학관 319호

○ 주최: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 2010년 춘계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회의

- 일시: 3월 19일
- 장소: 한양대 HIT 6층(608호)
- 주최: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

○ 오전 발표 사회: 박수밀(한양대)

- 대한 제국기 운동회의 수용과 사회적 기능-근대 운동 담론의 형성과 국민 통합의 기제-// 발표: 김현숙(충남대)/ 토론: 김주리(동덕여대)
- 중국 근대 통속 도서 연화화의 특성과 의미 탐색// 발표: 안창현(한양대)/ 토론: 한상정(홍익대)

○ 오후 발표 사회: 송원찬(한양대)

- 전시되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의 여행-1930

- 년대 만주 수학여행기를 중심으로-// 발표: 우미영(한양대)/ 토론: 김진량(스리랑카 켈라니아대)

- 봉급생활과 여가 문화의 대중화-‘치인의 사랑’으로 보는 근대 일본의 여가 문화-// 발표: 강우원용(한양대)/ 토론: 이경희(상명대)

- 근대 이행기 중국인 여가 활동 속의 연회 활동// 발표: 안상복(강릉대)/ 토론: 이정재(서강대)

- 20세기 초 일본의 근대 관광과 조선-일본 여행협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 조성운(동국대)/ 토론: 성주현(독립기념관)

○ 개별 및 종합 토론 사회: 박찬승(한양대)

■ 제34회 한국여성사학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3월 20일
- 장소: 이화여대 인문관 105호
- 사회: 정혜중(이화여대)

- 박인덕의 현실 인식과 사회 활동-1920년대 말~1930년대 초를 중심으로-// 발표: 김성은(서강대)/ 토론: 윤정란(숭실대)

- 계급 해방 속의 창기 해방-1950년대 상하이시의 금창(禁娼) 사업-// 발표: 장수지(연세대)/ 토론: 박정애(숙명여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제3차 콜로키움

- 주제: ‘한일조약’(1965년)과 한일 관계사 인식
- 연사: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 시간: 2010년 3월 22일
- 장소: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제260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3월 30일
- 장소: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1층 강의실
- 사회: 김형목(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근대 중국인의 안중근 의거에 대한 인식// 발표: 서단(중국 복단대)/ 토론: 손염홍(건국대)
- 황병길의 생애와 독립운동// 발표: 김주용(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토론: 박결순(충북대)
- 당진 대호지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참여인 분석// 발표: 김남석(호서고)/ 토론: 이정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4월 학술 발표

■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제11회 콜로키움

- 주제: 바닷길을 통한 문화 교섭-아랍-중국-신라의 사회 경제적 방정식-
- 일시: 2010년 4월 2일
- 장소: 한국해양대 합관 세미나실(214호)
- 주최: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해항도시의문화교섭학연구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중국사학회 제66회 학술 대회

- 주제: 중국사에서의 지역사회
- 일시: 2010년 4월 10일
- 장소: 미암유물전시관
- 제1부 사회: 김석우(원광대)
- 『三國志』와 삼국 시대의 정통론에 대해서//

- 발표: 박영철(군산대)/ 토론: 이윤화(안동대)
- 唐代 遊牧民의 步戰// 발표: 서영교(중원대)/ 토론: 김성한(조선대)
- 제2부 사회: 최진규(조선대)
 - 명말 동남 연해의 해상 세력-정지룡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 한지선(전남대)/ 토론: 윤성익(경희대)
 - 노걸대를 통해 본 명청대 상업 관행// 발표: 홍성화(성균관대)/ 토론: 박혁순(목포대)
 - 명청대 절강성 소흥 지역의 역사 인물과 그 역사 환경// 발표: 최병수(충북대)/ 토론: 이영섭(연세대)
-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 콜로키움
 - 주제: 필연의 몰수 게임을 넘어서-한국/동아시아 문학과 역사 이해의 과제-
 - 일시: 2010년 4월 15일
 - 장소: 정석학술정보관 대회의실
 - 발표: 김홍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 국제한국사학회 제8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4월 17일
 - 장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1층 강연실
 - 사회: 손철배(성균관대)
 -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질서와 '한중 관계' 서술// 발표: 윤영인(영산대)/ 토론: 허홍식(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 ▣ 대구사학회 2010년 기획 학술 대회 '역사와 관광'
 - 일시: 2010년 4월 17일
 - 장소: 경북대 우당교육관 101호
 - 제1부 사회: 김종건(경북대)
 - 기조 강연: 황보영조(경북대)
 - 어떤 르네상스 상인의 유적 답사 여행// 발표: 임병철(신라대)/ 토론: 최영태(대구대)
 - 제2부 사회: 변정심(경북대)
 - 한말 일제 시대 일본인의 한국 여행에 비친 한국// 발표: 이규수(성균관대)/ 토론: 하우봉(전북대)
 - 한말 일제 시대 한국인의 일본 여행에 비친 일본// 발표: 박성용(영남대)/ 토론: 하세봉(한국해양대)
 - 엔닌(圓仁)의 求法 여행과 唐 문화 체험// 발표: 이유진(숭실대)/ 토론: 이병로(계명대)
 - 그랜드 투어 vs 매스 투어리즘// 발표: 설혜심(연세대)/ 토론: 김중락(경북대)
 - 제3부 종합 토론 사회: 이문기(경북대)
- ▣ 제6회 독립 운동사 연구자 대회
 - 주제: 독립 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일시: 2010년 4월 23일
 - 장소: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 주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제1분과: 국권 수호 투쟁 사회: 최기영(서강대)
 1. 의병 전쟁// 발표: 한준호(안동독립운동기념관)/ 토론: 박성순(단국대)
 2. 계몽 운동// 발표: 이계형(대한민국역사

- 기념관)/ 토론: 천지명(국가보훈처)
- 제2분과: 국내 독립 운동 사회: 박결순(충북대)
 1. 1910년대 국내 독립 운동// 발표: 박경목(서대문역사관)/ 토론: 서동일(국가보훈처)
 2. 1920년대 국내 독립 운동// 발표: 윤효정(고려대)/ 토론: 오대록(독립기념관)
 3. 1930~40년대 국내 독립 운동// 발표: 강운정(안동대)/ 토론: 조진(동국대)
- 제3분과: 국외 독립 운동 사회: 반병률(한국외대)
 1. 러시아// 발표: 윤상원(고려대)/ 토론: 김대용(국민대)
 2. 중국// 발표: 유필규(독립기념관)/ 토론: 최병도(서울시립대)
 3. 미주// 발표: 윤종문(서강대)/ 토론: 손동유(기록관리시스템연구소)
- 종합 평가 사회: 김상기(독립기념관)
- ▣ 부산대 고전번역, 비교문화학연구단 제2회 국내 학술 대회
 - 주제: 문화의 번역과 반역-근대 동아시아와 서구의 만남-
 - 일시: 2010년 4월 23일
 - 장소: 부산대 인덕관
 - 동아시아론과 정전 연구// 발표: 허정(부산대)
 - 번역에 나타난 미국 선교사의 중국화 전략-Education in Japan에서 <文學興國策>으로의 전변-// 발표: 김소정(부산대)
 - 근대 한국어 형성에서 번역과 규범의 역

- 할// 발표: 서민정(부산대)
- 종합 토론/ 권명아(동아대), 주홍(부산외대), 이상혁(한성대)
- 그리스-로마 고전과 유럽 중심주의-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안재원(서울대)
- 조선에서의 일본어 문학의 형성과 (비)동시성-잡지 『韓半島』와 『朝鮮之實業』을 중심으로-// 발표: 박광현(동국대)
- 구한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 발표: 김종갑(건국대)
- 식민지 조선인의 하얼빈 표상-문화적 혼종성과 내셔널리즘-// 발표: 이승원(한양대)
- 종합 토론// 이효석(부산대), 한기형(성균관대), 하상복(부산대), 이용일(부산대)
- ▣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 제2회 국제 학술 대회
 - 주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사로(Global History beyond Eurocentrism)
 - 일시: 2010년 4월 23일~24일
 - 장소: 이화여대 이화-SK텔레콤관 컨벤션홀
 - 주관: 이화여대 지구사연구소
 - 공동 주최: 역사교육연구회, 문화사학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 〈4월 23일〉
 - 사회: 염운옥(이화여대)
 - 기조 발표: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종족사에서 인류 전체의 역사로-// 발표: 데이비드 크리스천(이화여대 지구사연구소 초빙 석학)
 - 집단중심주의를 넘어 보편사로-문제와 도

전-// 발표: 외른 뤼젠(에센대)/ 토론: 임상우(서강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 전략과 다중심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찰-// 발표: 강정인(서강대)/ 토론: 김기봉(경기대)

〈4월 24일〉

사회: 정병준(이화여대)

·지구사를 위한 보편의 모색// 발표: 김용우(이화여대)/ 토론: 강선주(경인교대)

·다양한 유럽 중심의 역사와 해결책들// 발표: 제리 벤틀리(하와이대)/ 토론: 이영석(광주대)

·탈중심화하기-세계를 그리고 역사들-// 발표: 아리프 딜릭(오레건대)/ 토론: 김동택(성균관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의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 발표: 백옥경(이화여대)/ 토론: 마이클 김(연세대)

·종합 토론 사회: 데이비드 크리스천

■ 한국사학사학회 제90회 연구 발표회

·일시: 2010년 4월 24일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1세미나실

·사회: 윤휘탁(경기대)

·부사년(傅斯年)의 역사 인식// 발표: 김창규(전남대)/ 토론: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자치통감강목』의 서법과 한국사 서술// 발표: 김남일(한중연)/ 토론: 허태용(성균관대)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제128회 정기 학술 세미나

·일시: 2010년 4월 24일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지리학 탐구 대상으로서의 문학 작품과 지리학 연구 수단으로서의 문학 작품// 발표: 이은숙(상명대)

·동북아 역사지도의 편찬 현황과 방법// 발표: 김유철(연세대)

■ 5월 학술 발표

■ 조선시대사학회 제98회 월례 발표회

·일시: 2010년 5월 1일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2 세미나실

·사회: 송양섭(충남대)

·오리 이원익과 두 개의 대동법// 발표: 이정철(한중연)/ 토론: 박현순(서울대)

·仁祖反正 후 明에 파견된 冊封奏請使의 활동// 발표: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오수창(서울대)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콜로키움

·일시: 2010년 5월 4일

·장소: 고려대 청산·MK문화관 201호

·주최: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주제: 한중일 역사 관계의 현황-역사 쟁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발표: 신연성(동북아역사재단)

■ 고구려발해학회 제51차 국제 학술회의

·주제: 渤海 中京時期的 歷史와 文化

·일시: 2010년 5월 7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

·주최: 고구려발해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제1부 사회: 윤재운(대구대)

·서고성터 궁궐 유적 검토// 발표: 양정석(수원대)/ 토론: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중국의 ‘西古城’ 보고서 비판// 발표: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제2부 사회: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의 발해 유산 정비 현황과 문제점// 발표: 이병건(동원대)/ 토론: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중경 시기의 도성 체제와 서고성// 발표: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제3부 사회: 박아림(숙명여대)

·서고성터 발해 문자 유무와 ‘文字瓦’// 발표: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정현숙(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발해사에서 ‘중경 시기’의 의미// 발표: 한규철(경성대)/ 토론: 김종복(성균관대)

○종합 토론 사회: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대사학회 제114회 정기 발표회

·일시: 2010년 5월 8일

·장소: 경희대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사회: 송호정(한국교원대)

·신라 지방관아의 위치에 대한 검토-상주·양주·강주를 중심으로-// 발표: 박성현(서울대)/ 토론: 김재홍(국립중앙박물관)

·5기 전후 국제 정세와 고구려의 평양 천도// 발표: 장종진(서강대)/ 토론: 공석구

(한밭대)

·망덕사와 관련 사찰의 본질// 발표자: 장활식(부산대)/ 토론자: 이영호(경북대)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11차 사회인문학 포럼

·주제: 1950~60년대 동아시아 지식·지식장의 재구성

·일시: 2010년 5월 11일

·장소: 연세대 학술정보관 6층 세미나실

·주최: 연세대 국학연구원 HK 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제1부 사회: 신주백(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1950년대 중국 지식장의 추이 고찰-호적 사상 비판 운동(1954~55) 전후를 중심으로-// 발표: 조미원(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1950년대 동아시아 자유주의 사고 체계 재검토// 발표: 조정란(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토론: 문명기(인천대), 오병수(성균관대)

○제2부 사회: 서은주(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1950~1960년대 잡지와 지식인-사회 운동 관계망-// 발표: 이경란(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론과 경제개발계획// 발표: 정진아(건국대)/ 토론: 이봉범(동국대), 이귀옥(한성대)

○종합 토론

■ 중앙아시아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 대회

·일시: 2010년 5월 15일

-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9층 대회의실
- 오전 발표 사회: 정재훈(경상대)
 - 쿠빌라이 정부의 大都 건설과 역참 교통 체계 구축// 발표: 고명수(덕성여대)/ 토론: 설배환(서울대)
 -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의 지위 변화에 따른 이중 언어 사용 행태 연구-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발표: 성동기(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토론: 우덕찬(부산외대)
- 오후 발표 사회: 김장구(동국대)
 - 중국 내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에 대한 재고찰// 발표: 정완서(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 김혜원(국립중앙박물관)
 - 唐代 직물에 나타난 중앙아시아 錦에 관한 연구// 발표: 신혜성(이화여대)/ 토론: 윤양노(중부대)
 - 중국 남서부의 북방 초원계 문화 요소의 고찰// 발표: 강인욱(부경대)/ 토론: 윤희원(국립대구박물관)
- ▣ 서울대 규장각 HK 사업단 제1회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5월 20일
 - 장소: 서울대 인문대 제2신양관 국제 회의실
 - 제1부 사회: 황재문
 - 영조대 체제 정비와 『續大典』 편찬// 발표: 정호훈/ 토론: 최성환(서울대)
 - 영조대 의례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발표: 송지원/ 토론: 임민혁(한국학중앙연구원)
 - 제2부 사회: 황재문
 - 영조대 均役海稅의 제도와 실제-『輿地圖

- 書』의 실증 분석-// 발표: 조영준/ 토론: 박현순(서울대)
- 영조대 『瑤源系譜紀略』의 수정과 목판 간인// 발표: 조계영/ 토론: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 『家政』을 통해 본 18세기의 사생활// 발표: 이숙인/ 토론: 이봉규(인하대)
- 영조대 대청 사행의 운영과 인식// 발표: 연갑수/ 토론: 원재연(수원교회사연구소)
- 종합 토론 사회: 오수창(서울대)
-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1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5월 22일
 - 장소: 서강대 다산관 2층 209호
 - 사회: 조범환(서강대)
 - 고구려의 평양 천도와 신라의 선택// 발표자: 김병곤(동국대)/ 토론자: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 삼국 시대 향로 연구// 발표자: 이용진(동국대)/ 토론자: 이연재(문화재청)
-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제4회 백제 문화 콜로키움
 - 주최: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 일시: 2010년 5월 27일
 - 장소: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 205호
 - 주제: 백제사 연구와 중국 사료
 - 발표: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 ▣ 서강대 동아연구소 제1회 인문 동아시아 포럼
 - 주제: 우리 역사 다시 보기
 - 발표: 허성도 교수(서울대 중문학과)
 - 일시: 2010년 5월 27일

- 장소: 서강대 다산관 D209호
- ▣ 한국고전번역원 학술 대회
 - 주제: 한국 고전적 표점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0년 5월 28일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주최: 한국고전번역원
 - 주제 발표 1
 - 한국 고전적 표점의 현황과 과제// 발표: 김연중(고려대)/ 토론: 이규옥(한국고전번역원)
 - 이십오사 점교본(신교본)이 중국학의 세계화에 끼친 영향[二十五史點校本(新校本)對於中國學的世界化之影響]// 발표: 簡錦松(대만 국립중산대)/ 토론: 김경호(성균관대)
 - 주제 발표 2
 - 승정원일기 표점 사례 검토// 발표: 박은희(한국고전번역원)/ 토론: 이근호(국민대)
 - 표점과 현토의 비교 분석// 박종천(충북대)/ 토론: 장원철(경상대)
 - 종합 토론 좌장: 김시업(성균관대)
- ▣ 제53회 전국 역사학 대회
 - 일시: 2010년 5월 28일~29일
 - 장소: 고려대
 - 주최: 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한국사연구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 〈5월 28일, 고려대 국제관 국제회의실〉
 - 공동 주제: 식민주의와 식민 책임
 - 오전 발표 사회: 박진빈(경희대)
 - 서양 식민주의의 유산// 발표: 박지향(서울

- 대)/ 토론: 김택현(성균관대)
- 일본형 식민주의의 전개와 구조// 발표: 함동주(이화여대)/ 토론: 박진우(숙명여대)
- 일본의 식민 지배와 식민지 조선의 이중 사회화// 발표: 박찬승(한양대)/ 토론: 김희곤(안동대)
- 오후 발표 사회: 지수걸(공주대)
 - 식민지 조선 경제의 제도적 유산// 발표: 김낙년(동국대)/ 토론: 정병욱(국사편찬위원회)
 - 일제의 식민 지배, 유산, 책임과 역사 교육// 발표: 박진동(교육과정평가원)/ 토론: 김한중(교원대)
 -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法’// 발표: 김창록(경북대)/ 토론: 심희기(연세대)
 - 21세기 세계사 지평을 열기 위한 질곡의 20세기 한반도 인식// 발표: 정태현(고려대)/ 토론: 오미일(부산대)
- 종합 토론 사회: 서중석(성균관대)
 - 〈5월 29일, 분과 발표〉
 - 한국사부(교양관 110호): 한국사연구회
 - 주제: 일본인의 식민지 조선 조사 활동과 조선 인식
 - 오전 발표 사회: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동경지학협회의 조사 활동과 조선 인식// 발표: 최혜주(한양대)/ 토론: 이규수(동국대)
 - 근대 일본의 구관 조사와 식민지 법 인식// 발표: 이승일(한양대)/ 토론: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 오후 발표 사회: 장규식(중앙대)

- 일제 강점기 小田内通敏의 ‘朝鮮部落 調査’와 朝鮮統治 인식// 발표: 김태웅(서울대)/ 토론: 전중환(경인교대)
- 일제하 조선고적연구회의 고적 조사 활동과 한국사 인식// 이순자(숙명여대)/ 차순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동경제국대학의 토속, 인류학적 조선 조사// 발표: 최석영(단국대)/ 토론: 김인덕(성균관대)
- 한국사부(교양관 202호): 한국역사연구회
주제: 한국 역사 속의 외세
○오전 발표 사회: 여호규
· 漢郡縣 지배의 역사적 성격// 발표: 송호정(한국교원대)/ 토론: 윤용구(인천 도시개발공사)
-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발표: 김종복(성균관대)/ 토론: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 오후 발표 사회: 박종린(이화여대)
· ‘친원’과 ‘반원’을 넘어서-13~14세기 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이익주(서울시립대)
- 일제의 식민 통치 논리와 그 모순-신민과 국민의 사이-// 발표: 이태훈(연세대)/ 토론: 전상숙(국민대)
- 한국전쟁기 미국의 북한 점령 정책과 통치권 문제-평양과 양양 지역의 행정부 구성 비교-// 발표: 한모니까(가톨릭대)/ 토론: 양영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국사부(교양관 104호): 한국사학회
주제: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
○발표 사회: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 효종대 승정원의 조직 운영과 논의 구조// 발표: 강성득(한국고전번역원)/ 토론: 최재복(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일기』 경연 기사의 특징// 발표: 윤훈표(연세대)/ 토론: 조준호(실학박물관)
- 『승정원일기』 속의 천변재이 기록// 발표: 박권수(서울대 규장각)/ 토론: 정성희(실학박물관)
-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소현 세자의 死因// 발표: 신명호(부경대)/ 토론: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 英·正祖代 豊山 洪鳳漢 家門의 復興과 沒落// 발표: 김영민(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이미선(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사회: 고성훈(국사편찬위원회)
- 동양사부(교양관 209호): 동양사학회
○오전 발표 사회: 차예원(연세대)
· 秦漢代 擇日術의 유행과 보편화 과정-出土 日書와 曆日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금재원(경북대)/ 토론: 최진묵(서울대)
- 南朝의 王言 敕의 출현과 그 전개// 발표: 양진성(연세대)/ 토론: 신성곤(한양대)
- 오후 발표 사회: 김지환(고려대)
· 건륭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봉금-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발

- 표: 이훈(고려대)/ 토론: 구범진(서울대)
- 학술과 救國의 사이-顧頡剛의 ‘學術 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발표: 하주형(서울대)/ 토론: 오병수(성균관대)
- 荻生徂徠의 인간학-身體의 규율과 도덕의 행방-// 발표: 이기원(강원대)/ 토론: 고희탁(연세대)
- 서양사부(교양관 304호): 한국서양사학회
주제: 서양사 속의 제국과 식민주의
○오전 발표 사회: 김남섭(서울산업대)
· 熱帶 自然과 帝國: 18세기를 世界史的 觀點에서 바라보기// 발표: 이종찬(아주대)/ 토론: 이종흡(경남대)
- 오후 발표 사회: 임병철(신라대)
· 식민주의와 ‘인간 동물원(Human Zoo)’-‘호텐토티의 비너스’에서 ‘파리의 식인종’까지-// 발표: 이재원(연세대)/ 토론: 이용우(동덕여대)
- 적(?)과의 동침-일차 대전기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對 러시아 이미지 창출-// 발표: 박원용(부경대)/ 토론: 이내주(육군사관학교)
- 제국의 해체-영국과 프랑스의 ‘탈식민화’ 비교-// 발표: 이용재(전북대)/ 토론: 이용석(광주대)
- 고고학부(교양관 602호): 한국고고학회
주제: 고려·조선 시대의 주거와 마을
○오전 발표 사회: 김종일(서울대)
· 대전 상대동-중동골 고려 시대 건물지 유적-// 발표: 강태정(백제문화재연구원)

- 수원 호매실 지구 유적 내 조선 시대 주거지// 발표: 김지혜(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울산 약사동 평산 유적// 발표: 김경화(울산문화재단연구원)
- 오후 발표 사회: 김무중(중부고고학연구소)
· 화성 남양동 조선 시대 마을 유적// 발표: 박지희(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수원 광고 택지 개발 사업 지구 내 유적// 발표: 김진영, 이상희(기호문화재단연구원)
- 화성 매송 야목리 조선 시대 마을 유적 발굴 조사 개보// 발표: 김현준, 박세원, 유형석(국방문화재단연구원)
- 서울 한양 도성 내부의 조선 시대 유적 발굴 조사 현황과 성과// 발표: 박준범(한강문화재단연구원)
- 고창 무장 읍성의 성벽과 건물지// 발표: 양해웅(호남문화재단연구원)
- 밀양 교동 충혼탑 부지 유적// 발표: 황철주(우리문화재단연구원)
- 과학사부(교양관 311호): 한국과학사학회
○오전 발표 사회: 박진희(동국대)
· 야콥 폰 익스킬의 둘레 세계와 사이버 공간// 발표: 김재영(이화여대)/ 토론: 고인석(인하대)
- 20세기 전후의 삼체 문제// 발표: 이호중(수원대)/ 토론: 이관수(동국대)
- 오후 발표 1 사회: 전용훈(한국천문연구원)
· 아담 스미스의 자연관과 뉴턴 체계에

- 대한 이해// 발표: 김지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정원(전북대)
- 북으로 간 의사들// 발표: 황상익(서울대)/ 토론: 강호제(이화여대)
- 오후 발표 2 사회: 임종태(서울대)
 - 식민지 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설치와 정착// 발표: 전찬미(서울대)/ 토론: 김연희(연세대)
- 역사교육부(교양관 203호): 역사교육연구회
 - 오전 발표 사회: 은정태(홍익대)
 - 稻葉岩吉의 ‘滿鮮史’와 ‘朝鮮’// 발표: 정상우(서울대)/ 토론: 류시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베트남 역사의 ‘탈식민주의’ 방법론-프랑스 식민 시기에 대한 베트남 역사학자들의 접근법-// 발표: 노영순(한국해양대)/ 토론: 윤대영(인하대)
 - ‘망각’에서 ‘성찰’ 그리고 ‘마주보기’로-역사 공통 교재의 제작을 중심으로-// 발표: 박중현(양재고)/ 토론: 서용희(Old Dominion Uni.)
 - 오후 발표 사회: 최병택(공주교대)
 - 10학년 역사 교과서 일제 강점기 분야의 내용 구성과 그 특징// 발표: 남한호(선주교)/ 토론: 김정인(춘천교대)
 - 중등학교 일제 강점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 김광규(석천여고)/ 토론: 조동근(혜화여고)
 - 일제 강점기 관련 평가 문항의 타당도와 역사상// 발표: 오정현(휘경여고)/ 토론: 백은진(서울대)

- 종합 토론 사회: 류승렬(강원대)
- 미술사부(교양관 605호): 한국미술사학회
 - 오전 발표 사회: 장진성(서울대)
 - 조선 후기 冥界佛畫 現王圖 연구// 발표: 김윤희(불교문화재연구소)
 - 水鐘寺 석탑 봉안 1493年銘 왕실 발원 불상군 연구// 발표: 박아연(이화여대)
 - 일본 근대 회화의 조선 표상에 관한 再考-후지시마 다케지의 <花籠>을 중심으로-// 발표: 김정선(동국대)
 - 오후 발표 사회: 정은우(동아대)
 - 朝鮮 前期 甘露王圖 圖像 研究// 발표: 박정원(동국대)
 - 15~16세기 朝鮮 白磁에 보이는 明代 磁器의 影響// 발표: 이현정(국립고궁박물관)
 - 천은사 삼장보살도 화기와 성중 도상의 해석// 발표: 탁현규(경인교대)
- 경제사부(교양관 404호): 경제사학회
 - 오전 발표 사회: 선재원(평택대)
 - 식민지기 중소 공업의 자금 조달 문제// 발표: 김대현(서울대)/ 토론: 이명휘(이화여대)
 - 동진강 수리 조합과 벽골제// 발표: 허수열(충남대)/ 토론: 수순열(전북대)
 - 오후 발표 사회: 선재원(평택대)
 -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정책에서의 공업 기지 계획// 발표: 박영구(부산외대)/ 토론: 이상철(성공회대)
 - 조선 후기 고물 및 농토 가격 추세// 발표: 차명수(영남대), 홍제한(서울대)/

- 토론: 박기주(성신여대)
- 호서사학회(교양관 109호)
 - 주제: 역사상의 천도와 신도시 건설
 - 오전 발표 사회: 지수걸(공주대)
 - 사비 천도의 배경과 시행 과정에 대한 고찰// 발표: 정재운(공주대)/ 토론: 강종원(충청남도역사문화원)
 - 고려 공양왕대의 천도론// 발표: 이형우(인천대)/ 토론: 홍영의(숙명여대)
 - 오후 발표
 - 정조대 華城 신도시 건설의 정치 사회적 의미-華城에 대한 表象을 중심으로-// 발표: 이근호(국민대)/ 토론: 최성환(서울대)
 - 商周 시기 都邑과 遷都에 관한 考察// 발표: 박재복(대전대)/ 토론: 김정열(동북아역사재단)
 - 중심과 주변의 문제로서 수도(首都)-전후 독일의 수도 논쟁 1949~1998-// 발표: 이용일(부산대)/ 토론: 권오중(한국외대)
- 도시사학회(교양관 208호)
 - 주제: 식민 지배와 도시 문제
 - 제1부 사회: 민유기(광운대)
 - 식민지 도시 권력의 통치성과 도시 문제의 가시화-담론과 현실의 간극-// 기조 발표: 김백영(광운대)
 - 홍콩 도시 정체성 모색의 새로운 움직임-집단 기억과 식민성을 넘어서// 발표: 장정아(인천대)/ 토론: 김종원(경희대)

- 제2부 사회: 박삼현(건국대)
 - 식민 도시 경성의 성 문제와 유곽// 발표: 김종근(캠브리지대)/ 토론: 강정숙(한국정신대연구소)
 - 1930년대 전반 국민 구제 토목 사업과 식민지 도시화// 발표: 서일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토론: 이송순(고려대)
- 제2부 사회: 박진한(인천대)
 - 종합 토론
- 한국사상사학회(교양관 305호)
 - 주제: 경계의 시대, 경계의 지식인
 - 오전 발표 사회: 정호훈(서울대)
 - 최한기 사상의 내적 계보와 그 지향// 발표: 박성순(단국대)/ 토론: 최창록(성균관대)
 - 개항 직전 강위의 현실 인식// 발표: 이현주(국사편찬위원회)/ 박은숙(서울시사편찬위원회)
 - 오후 발표 사회: 원재린(실학박물관)
 - 이건창의 조선 정치사 이해와 『당의통략』// 발표: 정두영(연세대)/ 토론: 조성산(고려대)
 - 1880년대 김창희의 심학 사상과 경세관// 발표: 노관범(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토론: 민희수(서울대)
 - 유길준의 전통과 근대-19세기 경화학자와 주자학과의 관계-// 발표: 안외순(한서대)/ 토론: 한철호(동국대)
- 한국사학사학회(교양관 310호)
 - 주제: 식민 지배와 역사 연구

- 오후 발표 사회: 김경수(청운대)
 - 森谷克己의 식민주의 植民主義 社會 經濟史學 비판// 발표: 노용필(한국사학연구소)
 - 일제 시기 단군 연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 이영화(한국학중앙연구원)
 - 식민지 시대의 실증 사학// 발표: 이장우(한국교회사연구소)
 - 항일 전쟁 시기(1931~1945) 중국 역사학계의 동향// 발표: 이재령(단국대)
 - 2차 대전 하의 유럽 역사에서 나타난 식민 개념 연구// 발표: 박지현(국사편찬위원회)
- 종합 토론 사회: 김경수(청운대)
- 한국민족 운동사학회(교양관 405호)
 - 주제: 경술국치와 한국 민족 운동
 - 오후 발표 사회: 김인식(중앙대)
 - 경술국치와 러시아 지역 한인의 민족 운동// 발표: 윤상원(고려대)/ 토론: 김주용(독립기념관)
 - 1920년대 북경 혁명사의 조직과 활동// 발표: 조규태(한성대)/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 1940년대 종교계의 비밀 결사 활동// 발표: 성주현(한양사이버대)/ 토론: 변은진(경원대)
 - 종합 토론
 - 한국역사민속학회(교양관 410호)
 - 주제: 일제하 조선 민속의 지속과 변동
 - 조선의 식민지화와 일본 대중의 오리엔탈리즘// 기조 강연: 박현수(영남대)

- 오후 발표 사회: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 20세기 전반 어촌 공동체의 운영 실태-전라도 장흥 노력도 사례-// 발표: 김경옥(목포대)/ 토론: 임학성(인하대)
 - 일제 강점기 재래 농기구의 지속과 변천// 발표: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토론: 김재호(안동대)
 - 일제 시기 경성 지역 여관업의 변화와 성격// 발표: 이채원(국립문화재연구소)/ 토론: 류시현(고려대)
 - 1920년대 한 조선 청년의 여가 및 생활 문화// 발표: 박경하(중앙대)/ 토론: 심승구(한국체육대)
 - 20세기 전반 제주 지역 민중 생활사 자료 조사와 특징// 발표: 김동진(제주대)/ 토론: 이수자(중앙대)
 - 종합 토론 사회: 주장현(제주대)
 - 한국여성사학회(교양관 411호)
 - 주제: 식민지 시대, 젠더 그리고 기억
 - 오전 발표 사회: 윤정란
 -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경험과 재현 문제// 발표: 김은경(숙명여대)/ 토론: 김명혜(전남대)
 - 일본군 성 노예에 대한 기억과 기념// 발표: 정현백(성균관대)/ 토론: 신상숙(서울대)
 - 오후 발표 사회: 이송희(신라대)
 - 일본군 위안부제 관련 역사 용어를 통해 본 일본 정부의 인식// 발표: 강정

- 숙(성균관대)/ 토론: 이남희(서울대)
- 조선인 중군 간호부의 생활 실태와 정체성// 발표: 신영숙(이화여대)/ 토론: 이꽃메(상지대)
-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5월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5월 29일
 - 장소: 고려대 교양관 405호
 - 사회: 김인식(중앙대)
 - 경술국치와 러시아 지역 한인의 민족 운동// 발표: 윤상원(고려대)/ 김주용(독립기념관)
 - 1920년대 북경 혁명사의 조직과 활동// 발표: 조규태(한성대)/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 1940년대 종교계의 비밀 결사 활동// 발표: 성주현(한양사이버대)/ 변은진(경원대)
- ▣ 6월 학술 발표
 -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8차 사회 인문학 워크숍
 - 주제: 비대칭적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전통 질서의 재인식
 - 일시: 2010년 6월 1일
 - 장소: 연세대 국학연구원 발표실
 - 발표: 함명식(길림대)
 - 사회: 박명림(연세대)
 - 주최: 연세대 국학연구원 HK 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학술 대회
 - 주제: 동아시아 속의 전쟁과 아산만
 - 일시: 2010년 6월 1일, 8일
 - 장소: 순천향대 중앙도서관 5층 동아홀

- 주최: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 후원: 아산시
- 〈제1일, 6월 1일〉
- 주제 발표 사회: 김일환(아산학연구소)
 - 백제 부흥과 아산만// 발표: 장학근(순천향대)
 - 대몽 항쟁과 아산만// 발표: 윤용혁(공주대)
- 종합 토론
- 〈제2일, 6월 8일〉
- 주제 발표 사회: 김일환(아산학연구소)
 - 임진왜란과 아산만// 발표: 김일환
 - 청일 전쟁과 아산만// 발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 종합 토론
- ▣ 한국고대학회 2010년 춘계 학술 대회
 - 주제: 일제 강점기와 우리 문화유산의 오늘
 - 일시: 2010년 6월 4일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 제1부 사회: 하문식(세종대)
 - 제2부 주제 발표
 - 금석병용기 시대의 설정과 청동기 시대의 왜곡// 발표: 이기성(한신대)/ 토론: 손준호(고려대)
 - 일제 강점기 낙랑 유적의 조사와 그 이해// 발표: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토론: 조법종(전주대)
 - 일본인의 신라 고분 조사// 발표: 김용성(중원문화재연구원)/ 토론: 차순철(경주문화재연구소)
 - 일제 강점기 한국 미술사 구축과 석굴암의

- ‘발견’// 발표: 강희정(서강대동아연구소)/ 토론: 성낙주(석굴암미술연구소)
- 제3부 종합 토론 사회: 정운용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해외 저명 학자 초청 강연회
 - 일시: 2010년 6월 11일(금)
 - 장소: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 기조 강연: 東夷 연구 서설-고고학과 역사학의 올바른 정합을 위한 제언-// 김성기(유교문화연구소)
 - 초청 강연: 殷商과 東夷의 관계에 대한 연구(論殷商與東夷之關係)// 劉緒(북경대)/ 논평: 김정렬(동북아역사재단)
- 한국고대사학회 제115회 정기 발표회
 - 일시: 6월 12일
 - 장소: 연세대 박물관 시청각실
 - 사회: 강봉룡(목포대)
 - 중국계 유물 부장 고구려 고분의 고고학적 함의// 발표: 강현숙(동국대)/ 토론: 여호규(한국외대)
 - 7세기 고구려의 대당 외교 전략과 도교 수용 문제// 발표: 김수진(서울대)/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 5세기 백제 왕권과 왜 5왕// 발표: 홍성화(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토론: 이근우(부경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6월 12일
 - 장소: 한성대 DLC
 - 사회: 조규태(한성대)
 - 김시문 일가의 상해 생활사// 발표: 김광재

- (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 재미 한인 황사용의 민족 운동// 발표: 박종연(국가기록원)/ 토론: 홍선표(독립기념관)
- 김준연의 독립운동과 해방 후 정치 활동// 발표: 김상현(서강대)/ 토론: 김인식(중앙대), 유상수(한성대)
- 중국사학회 제67회 학술 발표회
 - 주제: 중국 사회경제사의 이해
 - 일시: 2010년 6월 12일
 - 장소: 송실대 벤처관 512호
- 제1부 사회: 이유진(송실대)
 - 당대의 절도죄-준도론을 중심으로-// 발표: 박구철(부산대)/ 토론: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 明 仁宗·宣宗의 恤刑// 발표: 전영진(대구공대)/ 토론: 서인범(동국대)
- 제2부 사회: 이찬원(송실대)
 - 19세기 末(1882~1894년)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 활동// 발표: 박정현(고려대)/ 토론: 이학로(대구대)
 - 20세기 초 山西票號의 은행 개조론과 李宏齡// 발표: 정혜중(이화여대)/ 토론: 홍성화(성균관대)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 학술회의
 - 주제: 지식의 근대 기획, 미디어의 동아시아
 - 일시: 2010년 6월 17일
 - 장소: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 사회: 김경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오전 발표
 - 經典과 道의 기반: 歐陽脩와 오규 소라이

- 의 해석학의 비교 분석// 발표: 더글러스 스코니키(국립청화대)
- 『맹자』, 정치 철학적 텍스트로 읽기-사마광의 『疑孟』을 중심으로-// 발표: 이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北宋 시기 보편 원리의 추구와 사대부의 권력 기반-邵雍·王安石·程頤를 중심으로-// 발표: 민병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주희 철학 형성기의 철학적 쟁점 연구-주희의 ‘잡학변’을 중심으로-// 발표: 백민정(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오후 발표
 - 『역경』 주석과 사대부의 자기 정체성-후기 중화 제국의 사회 변화 연구-// 발표: 韓子奇(뉴욕 주립대)
 - 高麗中期 北宋儒學의 導入樣相考// 발표: 정선도(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친군연의』의 철학적 기반과 서사 문학적 지위// 발표: 신상필(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종합 토론
 -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정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전병욱(고려대 철학연구소) 및 참가자 전원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동아시아 해양 교류’ 국제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6월 18일
 - 장소: 중국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
 - 발표자 및 주제

- 천주 해외교통사박물관 연구 정황// 발표: 丁毓玲
- ‘길의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 이기훈
- 해양사의 세계사 인식 체계// 발표: 강봉룡
- 복건과 신라·고려 불교 문화 교류// 발표: 卍恩典
- 고려와 복건 지역의 불교 교류// 발표: 최연식
- 한국의 해양 민속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 이경엽
- 조선 반도-송대 천주와 일본의 통상-// 발표: 陈丽华
- 조선 시대 한·일 외교와 무역로// 발표: 鄭成一
- 고려 시대 무역선과 중국 관세// 발표: 李康汉
- 천주항의 송과 고려 무역// 발표: 王连茂
- 러말 선초 군현 통폐합과 읍치 설치 경향// 발표: 정요근
- 천주와 신라·고려 역사 문화 유적// 발표: 협은전
- 조선과 대만의 교류// 발표: 신정호
-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64회 연구 발표회
 - 일시: 2010년 6월 19일
 - 장소: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
 - 합덕 신리 교우촌과 밀양 손씨// 발표: 김성태(신리 성지)/ 토론: 서종태(호남교회사연구소)
 - 안중근 가문의 독립운동·건국 운동·민중화 운동// 발표: 오영섭(연세대 국제대학원)/ 토론: 신운룡(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 국제한국사학회 제1회 국제 학술회의
 - 대주제: 21세기 국제 한국사 연구-쟁점과 전망-(Korean Historical Studies in the Global Twenty-first Century-Issues and Prospective-)
 - 일시: 2010년 6월 19일
 - 장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411호 BRICS국제포럼장
 - 제1부 사회: 이민원(원광대)
 - 전근대 한국사 연구의 위기와 대책// 발표: 허홍식(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Sem Vermeersch(서울대), 이강한(한국학중앙연구원)
 - 2000년대 이후 한국 근대사 연구 동향// 발표: 류시현(고려대)/ 토론: 김권정(경희대), Michael Kim(연세대)
 - 일본에서의 한국 근대사 연구-식민지 근대론과 민중사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 윤해동(성균관대)/ 토론: 강효숙(진실과화해위원회), 키노시타 타카오(숭실대)
 - 제2부 사회: 윤영인(영산대)
 - 동북공정 이후 중국 역사학계의 한국사 연구 동향 분석// 발표: 김승일(동아대)/ 토론: 이평래(한국외대), 문형진(한국외대)
 - 러시아의 한국사 연구-대한 제국기를 중심으로-// 발표: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반병률(한국외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 A European Perspective on Korean History// 발표: Koen De Ceuster(Leiden 대학교)/ 토론: 백승중(건국대), 노명환(한

- 국외대)
 - 미국 外交史家들이 본 냉전의 기원과 한국 현대사-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 수정주의 冷戰史家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표: 홍현웅(서울시립대)/ 토론: 손철배(성균관대), 계승범(고려대)
 - 제3부 사회: 박정신(숭실대)
 -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동아시아 도서 해양과 인문학' 국제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6월 21일
 - 장소: 국립대만해양대
 - 발표자 및 주제
 - 동중국해와 한국 서남해 민속 문화 비교// 발표: 이경엽
 - 한국 마을제에 나타난 해양 인식// 발표: 이운선
 - 한국 초분 장례 풍속// 발표: 박종오
 - 마조 신앙과 민간 사회// 발표: 吳蕙芳
 - 한국과 대만 해양 문화 비교 연구 현황// 발표: 신정호
 - 한국 도서 해양 문학 연구의 과제// 발표: 홍순일
 - 대만 해양 문학 발전 과정과 연구 현황// 발표: 吳智雄
 - Management Plan for Sustainable Island-Case Study in UNESCO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 발표: 홍선기
 - National Survey for Uninhabited Islands in Southwestern Korea// 발표: 김재은

- 해양 영웅 영상 문화의 내용과 발전// 발표: 원용태
- 문화 산업과 지방 발전// 발표: 林谷蓉
- 18세기 한국 서남 해안 도서 지역 표류민의 추이// 발표: 김경옥
- 단절과 연결에 대한 신사유-마조에 대한 역사·인문적 사고-// 발표: 黃麗生
- 도서 지역에 대한 홀대와 우대// 발표: 卞鳳奎
- 도서·외교와 해권// 발표: 應俊豪
-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제7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
 - 주제: 경계 초월자와 도시 연구-지구화 시대의 매체, 이주-
 - 일시: 2010년 6월 21일
 - 장소: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국제회의장
 - 초국주의 이론과 실천-활용, 오용, 남용-// 기조 강연: 아리프 딜릭
 - 제1부 사회: 이현재(서울시립대)
 - 民國 시기 상하이의 저널리즘과 광고// 발표: 무라이 히로시(카나가와대)
 - 일본 제국주의와 상해 점령 시기의 미디어 문화// 발표: 진세정(이화여대)
 - 『德文新報』와 상해의 독일 거류민// 발표: 왕 웨이지양(상해사회과학원)
 - 제2부 사회: 남영호(서울시립대)
 - 경계를 넘는 샴머니즘-재일 조선인 1세대 여성의 사례-// 발표: 미야시타 료코(오사카 시립대)
 - 20세기 초(1910~1931) 인천 화교의 네트

- 워크와 사회적 공간// 발표: 김승욱(서울시립대)
- 제3부 광노완(서울시립대)
 - 급진주의자들의 도쿄(東京)로의 이동과 집중-1900년대~1920년대 동부 아시아 급진주의 대두와 확산-// 발표: 황동연(미국 소카대)
 - 코스모폴리스에서 텔런트/노동/결혼 이주-싱가포르에서 국가 권력과 시민 사회의 성장-// 발표: 브렌다 요(싱가포르국립대)
 - 토론
 - 이성백(서울시립대), 민유기(광운대), 문현아(서울대)
 - ▣ 호남사학회 정기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6월 25일
 - 장소: 조선대 본관 남측 4층 다목적 세미나실
 - 후원: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 사회: 박진철(조선대)
 - 1920년대 마거릿 생어의 중국 방문과 산아 제한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발표: 유연실(전남대)/ 토론: 김창규(전남대)
 - 6~10세기 영암 상대포의 해양 신앙// 발표: 조세인(목포대)/ 토론: 이재근(신안군 학예연구사)
 - 노사학파의 전정 개혁책// 발표: 김봉곤(순천대)/ 토론: 이종범(조선대)
 - 한민당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 발표: 임선화(광주교대)/ 토론: 유경남(전남대)

▣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차년도 군사 제도사 및 강역에 관한 연구 학술 토론회

- 주제: 한국 군제사의 군사사적 이해
- 일시: 2010년 6월 25일
- 장소: 군사편찬연구소 대회의실
- 주관: 한국미래문제연구원
- 후원: 육군군사연구소
- 협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선 전기 진관 체제의 운영-제포의 방어 체제를 중심으로-// 발표: 임용한(한국미래문제연구원)/ 토론: 장필기(국사편찬위원회)
- 조선 시대 무의 전통과 국방관// 발표: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김광수(육군사관학교)
- 조선 세종대 진법 편찬의 의의// 발표: 윤훈표(연세대)/ 토론: 김일환(순천향대)
- 조선 중종 대의 국방 대책-중종 19년 양인구축을 중심으로-// 발표: 김순남(고려대)/ 한성주(강원대)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 학술 회의

- 주제: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방향-국내외 경험, 선전 정책 그리고 성격-
- 일시: 2010년 6월 25일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중관 1층 회의실
- The Decision to Attack: Reflections on the Context in Pyongyang, Moscow, and Beijing// 기조 발표: 케슬린 웨더스비(존스홉킨스대)

○제1부 사회: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한국전쟁기의 국내외 경험과 선전 정책

- 살육 시대의 아웃라이어-한국전쟁기 화해 마을 사례-// 발표: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김동노(연세대)
-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쟁 참전 동기-『東北朝鮮人民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유병호(대련대)/ 토론: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 한국전쟁기 북한의 대남한 언론 선전 정책// 발표: 김영희(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토론: 이범수(경남대)
- 한국전쟁기 맥아더 사령부의 빠라 선전 정책// 발표: 이상호(건국대)/ 토론: 이동현(한양대)

○제2부 사회: 오만석(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제: 한국전쟁의 성격과 평가
- 북·중·소 3각 관계가 6·25 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 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기밀 해제 문서를 중심으로-// 발표: 케슬린 웨더스비(존스홉킨스대), 강규형(명지대)/ 토론: 이승현(국회 입법조사처)
- 6·25 전쟁의 명칭과 복합전적 인식// 발표: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2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6월 26일
- 장소: 서강대 다산관 2층 209호
- 사회: 전미희(국사편찬위원회)
- 당 도선과 고려 일연의 자장관 비교// 발표: 남무희(국민대)/ 토론: 박미선(대림대)
- 신라 장항리사지 사찰 입지와 석조 미술 연

구// 발표: 김명주(덕성여대)/ 토론: 주수완(고려대)

▣ 7월 학술 발표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 주제: 동아시아, 횡단하는 생활사
- 일시: 2010년 7월 1일~4일
- 장소: 대구 호텔인터블고
- 〈7월 1일〉
- 의미의 포착-생활사 도구로서의 테크놀로지[Locating Significance-Technology as a Tool for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기조 강연: Francesca Bray(Edinburgh Uni.)

Part I. 사회: 채취균(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대주제: 20세기 역사학에서 생활의 의미
- 미시, 시장, 모델-프랑스의 테스트 사례 [Micro, Market, Mode-a French Test Case]// 발표: Bruegel, Martin(INRA)
- 중국 사회 생활사에서 생활의 의미[中国社 会生活史上生活的意义]// 발표: 常建華(南開大)
- 향토 연구에서 세계 상민학(常民學)으로- 생활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郷土研究から世界常民学へ-生活史研究の新視角-]// 발표: 佐野賢治(神奈川大)
- 한국사에서 일상의 무게// 발표: 정연식(서울여대)
- 토론: 역사 속의 생활, 무엇을·어떻게·왜 연구하는가?// 좌장: 안병직(서울대)/ 토론:

고원(경희대), 김성운(본원), 남근우(동국대), 오항녕(전주대), 홍성화(성균관대)

Part II.

대주제: 시공간의 인지와 동아시아의 일상 생활

Session 1. 좌장: 우인수(경북대), 사회: 이지하(경북대)

- 주제: 시간의 표기 방법과 일상생활
- 시간의 분할 방식과 진한대 사회 생활에 관한 고찰[分段紀時制與秦漢社會生活舉隅]// 발표: 李天虹(武漢大)
- 책력(冊曆)의 증여-조선 후기 선물 정치와 생활의 활용-// 발표: 김혁(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시간 표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생활 의식 변화// 발표: 이장희(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Session 2. 좌장: 류제현(교원대), 사회: 정병호(경북대)

- 주제: 공간 인지의 표지와 일상생활
- 17~18세기 동아시아 지도의 발달과 조선인들의 지리 감성의 변화// 발표: 김기혁(부산대)
- 조선 후기 지리서의 편찬과 일상생활의 변화// 발표: 박인호(금오공대)
- 여행 기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영남 선비들의 지리 감성// 발표: 최은주(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Session 3. 좌장: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사회: 조재모(경북대)

- 주제: 생활 공간과 일상생활
- 진한대(秦漢代) 주택의 구조와 가족 생활//

발표: 윤재석(경북대)

-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류 공간과 감성// 발표: 김선경(서울대)
- 조선 후기 영남의 정자와 선비들의 향촌 생활// 발표: 오용원(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7월 3일>

Part III.

대주제: 소비 문화와 동아시아의 일상생활

Session 4. 좌장: 오명석(서울대), 사회: 김원준(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주제: 상류층의 럭셔리와 일상생활

- 모피의 해상 무역과 청대 사회[海運毛皮與清代社會]// 발표: 周湘(中山大)
- 18세기 조선 여성의 머리치장 유행과 신분과시// 발표: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 시전지(詩箋紙)를 통해 본 조선 시대 양반의 럭셔리와 생활 감성// 발표: 손계영(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Session 5. 좌장: 이훈상(동아대), 사회: 전재동(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주제: 서민층의 소비 문화와 실용 의식

- 세속으로부터의 은둔: 중국 원림(園林) 문학에 나타난 프라이버시와 일상생활(Hiding in Plain Sight: Privacy and Everyday Life in Writings in Chinese Gardens)// 발표: Kenneth J. Hammond(New Mexico state Uni.)
- 집안 재산 목록으로부터 본 일본 중세의 서민생활[家財目録から見る日本中世の庶民生活]// 발표: 久留島典子(東京大史料編纂所)
- 조선 후기 새로운 기호품 담배의 확산과 서

민 생활의 변화// 발표: 박희진(경북대)

Session 6. 좌장: 신동원(카이스트), 사회: 김명자(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주제: 서양 의료의 전파와 생활의 변화

- 주권·방역·권리-만청(晩淸)시기 검역 제도의 도입, 수립과 권력 관계 연구-[主權·防疫·權利-晩淸檢疫制度的引建及其權力關係研究-]// 발표: 余新忠(南開大)
- 일본 에도 시대의 지방 의사들에 대하여[日本の江戸時代の地方の医者について]// 발표: 田崎哲郎(愛知大)
- 19세기 종두법의 조선 전파와 민간 의료 생활의 변화// 발표: 원보영(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종합 보고] 물질문화와 일상생활// 좌장: 남권희(경북대)/ 보고: 안병직(서울대), 우인수(경북대), 류제현(한국교원대),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이훈상(동아대), 오명석(서울대), 신동원(카이스트)/ 총평: 강신표(카자흐스탄대)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 주제: 동아시아 근대 아카데미즘의 형성과 국가 권력
- 일시: 2010년 7월 6일~7일
- 장소: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7월 6일>

○제1부 사회: 임경화(성균관대)

주제: 아카데미즘의 근대 기획과 국가

- 탈정치적 학문과 국가 심성학-1910년대 문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발표: 차태근(인하대)
- 유학, 철학, 마르크스주의 1930년대 일본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상// 발표: 나카지마 다카히로[中島隆弘](東京大)
- ‘朝鮮/學’이라는 이름, 두 빨치산의 京城帝大 졸업 전후-金台俊과 朴致祐의 경우-// 발표: 황호덕(성균관대)

○제2부 사회: 민병희(성균관대)

주제: 근대 학술과 국가 권력

- 國家, 西方, 그리고 學術-中國近代學術의 形成의 세 모먼트, 1928~1952-// 발표: Yong Chen Chiang(DePauw Uni.)
- 中央研究院의 成立과 中國近代學術權力의 再編// 발표: 오병수(성균관대)
- 民國時代 學術 사회의 분기와 수렴-‘傳統派’ 錢穆과 ‘新派’ 傅斯年의 離合을 중심으로-// 발표: 오병수(성균관대)

중간 토론// 좌장: 양일모(한림대)/ 토론: 전인갑(인천대), 정다함(한양대)

<7월 7일>

○제3부 사회: 이해령(고려대)

주제: 대학 아카데미즘과 학술 운동

- 京城帝大의 朝鮮人學生과 近代韓國學의 成立-模倣과 創造 사이-// 발표: 安田敏朗(一橋大)
- 植民地 아카데미즘의 그늘-社會主義者의 傾向// 발표: 洪宗郁(同志社大)
- 植民權力과 아카데미즘-臨時歷史教科用圖書準備委員會의 活動을 中心으로-// 발

표: 장신(연세대)

- Metoikosたちの帝國-T.S.エリオット, 崔載瑞, 西田幾多郎-// 발표: 三原芳秋(同志社大)
- 植民地 朝鮮의 ‘支那文學’의 운명-동아시아 中國學의 系譜-// 발표: 천진(인하대)

○제4부 종합 토론 사회: 김현주(연세대)

토론: 박광현(동국대), 윤해동(성균관대), 류준필(성균관대)

▣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 주제: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100년) 식민주의적 한국 고대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 일시: 2010년 7월 22일~23일
- 장소: 동학산장 대회의실(공주시 반포면)

○제1부

- 일제 시기 낙랑 유적 조사의 내용과 의미// 발표: 정인성(영남대)/ 토론: 이성주(강릉대)
- 일제 시기 단군과 고조선사 연구에 대한 이해// 발표: 조법중(우석대)/ 토론: 서영대(인하대)

○제2부

- 일제 시기 고구려·발해사 연구 동향// 발표: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임기환(서울교대)
- 일제 시기 백제사에 대한 연구// 발표: 이병호(국립중앙박물관)/ 토론: 정재윤(공주대)

○제3부

- 일제 시기 신라사에 대한 연구// 발표: 이부오(백석고)/ 토론: 선석열(부산대)

- 일제 시기 가야사에 대한 연구// 발표: 남재우(창원대)/ 토론: 김태식(홍익대)
 - 일본의 동향: 발표와 토론// 발표: 이성시(와세다대)
- <7월 23일>
- 종합 토론 좌장: 노태돈(서울대)
 - 토론 참여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및 토론 초청자(김창겸, 노중국, 한규철)

■ 8월 학술 발표

-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제7회 HK워크숍
- 주제: 동아시아 술수학 지식의 교류와 전파
- 일시: 2010년 8월 11일
- 장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층 회의실
- 기조 강연 사회: 송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술수학의 기본 인식// 기조 강연: 미우라 구니오(다이토분카대)
- 술수학의 몇 가지 문제// 기조 강연: 이동철(용인대)
- 토론
- 주제 발표 1 사회: 김남일(경희대)
- 베트남 풍수서 『안남풍수(安南風水)』의 지맥설(地脈說)// 발표: 미야자키 준코(간사이대)
- 조선 후기 왕실 의례와 관상감의 택일택지(擇日擇地)// 발표: 박권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에도 시대의 역점(易占)의 전개// 발표: 나

- 라바 마사루(교세이학원고교)
- 주제 발표 2 사회: 신동원(카이스트)
- 현대 한국 술수학(術數學)의 동향과 전망// 발표: 박정윤(원광대)
- 출토 술수 문헌(出土術數文獻)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 오노 유지(호카이도대)
- 서양 점성술(占星術) 문헌의 조선 전래// 발표: 전용훈(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종합 토론

- ▣ 국사편찬위원회 경술국치 100년 제46회 한국사 학술회의
- 주제: 애국지사 현장 어떻게 할 것인가-역사의 경험에서 배운다-
- 일시: 2010년 8월 19일
- 장소: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발표 및 토론 사회: 전미희(국사편찬위원회)
- 조선 양란 이후 충신·열사에 대한 현장 정책// 발표: 지두환(국민대)
- 광복 후 애국 선열 선양 정책 재조명// 발표: 윤선자(전남대)
- 중국의 애국주의 고취와 ‘烈士褒揚’工作// 발표: 윤휘탁(한경대)
- 일본의 원호·선양 정책과 야스쿠니(靖國)신사// 발표: 김인덕(성균관대)
- 종합 토론 사회: 한상도(건국대)
- 김영두(국사편찬위원회), 김성민(국가보훈처),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이규수(경원대)

-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제8차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의 근대와 도시-그 문명사적 조망-
- 주최: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주관: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 일시: 2010년 8월 24일~25일
- 장소: 서울시립대 21세기관 2층 국제회의장 <8월 24일>
- 동아시아 문명의 재인식// 기조 강연: 조동일(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
- 제1부 사회: 조세형(서울시립대)
- 주제: 동아시아 담론과 대안적 근대의 탐색
- 토론: 배우성(서울시립대), 서재길(서울대), 광노완(서울시립대)
- 지구지역학과 ‘근대의 이중과제’-20세기 동아시아사 다시 보기-// 발표: 백영서(연세대)
- 대안적 근대로 가는 통로인가?-18~19세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지식, 종교, 타자-// 발표: Marion Eggert(Bochum Univ.)
- 애국 계몽기 신문 시조에 나타난 전통의 수용과 변용-고시조 활용 시조를 중심으로-// 발표: 조해숙(서울대)
- 서구적 근대와 동아시아의 근대, 그 정치 사상적 접근// 발표: Eun-Jeung Lee(Berlin Freie Univ.)
- 한·중 한시의 근대적 대응 양상-다산(茶山)과 정암(定庵)의 사회시를 중심으로-//

- 발표: 韓梅(山東大)
- <8월 25일>
- 제2부 사회: 이우태(서울시립대)
- 주제: 대안적 근대와 도시
- 토론: 內藤まりこ(東京大), 우동선(한국예술종합학교), 조세형(서울시립대)
- 한·중·일의 근대적 도시성의 전근대적 기원// 발표: Reinhard Zöllner(Bonn Univ.)
- 마츠오 바쇼(松尾芭蕉)에 나타난 초근대성과 반도시성// 발표: 夏石番矢(明治大)
- 근대 경성의 한옥 풍경// 발표: 송인호(서울시립대)
- 20세기 초 인천 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발표: 김승욱(서울시립대)
- 근대 도시 속에 자연의 숲 창조하기-일본과 식민도시에서 신사 구역의 변화-// 발표: 靑井哲人(明治大)
- 대도시와 아버지의 부재-켈러, 강용훈, 이미륵의 소설의 비교 연구-// 발표: 최윤영(서울대)
- 종합 토론 좌장: 이우태(서울시립대)
- ▣ 2010 역사학회 하계 심포지엄
- 주제: 근대 이행기의 군주제
- 일시: 2010년 8월 27일
- 장소: 서울대 박물관 강당
- 제1부 사회: 류한수(상명대)
- 루이 14세의 절대 군주정-절반의 성공-// 발표: 이영림(수원대)/ 토론: 최갑수(서울대)
- 오스만 제국 근대 개혁기 군주의 역할-셀림 3세에서 압뒬하미드 2세에 이르기까지

지-// 발표: 이은정(서울대, 동양사)/ 토론: 이은정(서울대, 서양사)

·포트르 대제 시기 귀족 신분의 제도화// 발표: 박지배(외국어대)/ 토론: 박상철(전남대)

○제2부 사회: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근대 중국의 황제 권력-광서제의 경우-// 발표: 김형중(서울대)/ 토론: 최희재(단국대)

·효명 천황과 '통상조약칙허' 문제// 발표: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 토론: 박훈(서울대)

·고종의 근대 국가 구상과 대한 제국의 위상// 발표: 왕현중(연세대)/ 토론: 장영숙(한양대)

○제3부 종합 토론 사회자: 주진오(상명대)

■ 9월 학술 발표

▣ 조선시대사학회 제100회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9월 4일
-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2세미나실
- 사회자: 강석화(경인교대)
- 太祖代 李芳遠과 '戊寅의 變'(제1차 왕자 난)// 발표: 한춘순(경희대)/ 토론: 강문식(서울대)
- 조선 中宗代의 북방 대책-중종 19년 野人 驅逐을 중심으로-// 발표: 김순남(고려대)/ 토론: 한성주(강원대)
- 16세기 가내 사환 노비의 同類意識과 저항-『默齋日記』를 중심으로-// 발표: 이해정(서울대)/ 토론: 이성임(인하대)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 대회

·주제: 국내 항일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 사적지 관리와 활용

·일시: 2010년 9월 8일~9일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9월 8일〉

·사적지 조사 결과 보고// 기조 발표: 김용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미국의 사적지 조사와 관리 정책// 발표: 이정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본의 사적지 정책과 역사 문화 자원의 활용 현황// 발표: 윤소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중국의 사적지 조사와 사적지 정책// 발표:

이선자(중경임시정부청사구지 진열관)

·한국의 사적지 관리 및 활용 방안// 발표: 김희곤(안동대)

·종합 토론 좌장: 김상기(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9월 9일〉

·학교 교육에서의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발표: 이해영(영덕고)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발표: 진상훈([주]쑥쑥체험)

·현충 시설에서의 사적지 현장 교육 방안// 발표: 강운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 사적지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심원섭(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례 분석을 통한 독립운동 사적지의 관광자원화 연구// 발표: 이훈(한양대)

·현충 시설과의 네트워크 및 장소 마케팅// 발표: 이무용(전남대)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판 디자인을 위한 연구보고// 발표: 김남호(상명대)

·종합 토론 좌장: 김희곤(안동대)

▣ 제11회 국제학술대회 겸 제68회 학술 발표회

·주제: 教育을 통해 본 中國史

·일시: 2010년 9월 9일~12일

·장소: 경북대

·주최: 중국사학회

·주관: 경북대 ASIA연구소

〈9월 10일〉

○제1차 발표회 기조 강연 1

사회: 임대희(한국 경북대)

·서원에서 학당으로-만청 섬서의 학정 개혁과 지방사회 변천-[從書院到學堂-晚清陝西的學政改革與地方社會變遷-]// 발표: 張萍(中國陝西師範大)

·일본의 동양사 교육과 장안의 사적[日本の東洋史教育と長安の史蹟]// 발표: 鶴間和幸(日本學習院大)

·從經精舍의 '제사 제도'를 통해 본 청대 阮元學圈의 教育 이념[從經精舍의 '祭祀制度' 觀察清代阮元學圈的教育理念]// 발표: 張壽安(臺灣中央研究院)

○제2차 발표회 분과 회의 1

◇제1분과 사회: 임병덕(한국 충북대)

·주대 教育 제도 검토[周朝教育制度探析]// 발표: 南玉泉(中國政法大)/ 토론: 金正烈(東北亞歷史財團)

·“왕관학”과 중국 고대 법률과 법학 교육[王

官學]與中國古代法律和法學教育]// 발표: 杜文忠(中國西南民族大)/ 토론: 金慶浩(韓國成均館大)

·中國兵家の軍隊 中の軍禮教育에 관한 논의[中國兵家論軍隊中的軍禮教育]// 발표: 張少瑜(中國社會科學院)/ 토론: 尹春根(中國北京大)

◇제2분과 사회: 이운화(한국 안동대)

·북송 教育家孫復及其尊王思想]// 발표: 雷家聖(臺灣逢甲大)/ 토론: 裴淑姬(韓國慶尙大)

·범조우 『제학』을 통해 본 중국 고대의 제왕교육[從範祖禹《帝學》看中國古代的帝王教育]// 발표: 申慧靑(中國北京師範大)/ 토론: 洪勝泰(中國河北大)

·范祖禹의 唐太宗 形象 재조성-송대 제왕역사 교육의 일례-[范祖禹對唐太宗形象的重塑-宋代帝王歷史教育一例-]// 발표: 梁思樂(Hong Ko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토론: 秋敎順(韓國忠北大)

◇제3분과 사회: 허원(한국 서원대)

·청말 민초 북경대학 교직원 구조의 변화// 발표: 張義植(韓國大邱大)/ 토론: 崔恩珍(韓國國民大)

·근대 섬서 서간 편찬과 민중 교육 보급[近代陝西書刊編印與民衆教育普及]// 발표: 陸三強(中國未來出版社)/ 토론: 金志勳(韓國成均館大)

·영화서원(The Anglo-Chinese College)이 중국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 발표: 姜仁

圭(臺灣 中原大)/ 토론: 盧在軾(韓國 成均館大)

○제3차 발표회 분과 회의 2

- ◇제1분과 사회: 김경호(한국 성균관대)
 - 先秦時代의 小學 研究// 발표: 安京植(韓國 釜山大)/ 토론: 朴均燮(韓國 慶北大)
 - 『주역』과 고대 교육[《周易》與中國古代教育]// 馬小能(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安洵亨(韓國 昌原大)
 - 중국 고대의 경학 교육과 법률에 대한 영향 [中國古代的經學教育及其對法律的影響]// 발표: 丁華(中國 華東政法大學)/ 토론: 韓相敦(韓國 亞洲大)
 - 흥학양사-전통 중국의 교육 법제 정신-[興學養士-傳統中國的教育法制精神-]// 발표: 範忠信(中國 中南財經政法大)/ 토론: 許增(韓國 嶺南大)
- ◇제2분과 사회: 홍성구(한국 경북대)
 - 학진과 중국 고대 교육-비각 사료 중심 고찰-[學田與中國古代教育-以碑刻史料爲中心的考察-]// 발표: 李雪梅(中國 政法大)/ 토론: 裴眞永(韓國 全北大)
 - 남송 시기 서원 문화 전승의 가치[論南宋時期書院文化傳承的價值取向]// 발표: 趙國權(中國 河南大)/ 토론: 俞垣濬(韓國 慶熙大)
 - 몽고 통치 하의 화북 사회와 “사인” 교육의 변천[蒙元統治下華北社會與“士人”教育的變遷]// 발표: 飯山知保(日本 早稻田大)/ 토론: 崔允精(韓國 慶北大)
 - 明代 地方 學校의 行政管理와 推移// 발표:

全淳東(韓國 忠北大)/ 토론: 全英珍(韓國 大邱工大)

◇제3분과 사회: 박선(한국 포항공대)

- 법학 교육과 근대 중국-북양대학 법과를 예로[法學教育與近代中國-以北洋大學法科爲例-]// 발표: 劉玉華(中國 天津醫科大)/ 토론: 李承佑(韓國 嶺南大)
- 심서법정학당과 근대 중국 서부의 법학 고등교육[陝西法政學堂與近代中國西部的法學高等教育]// 발표: 曾加(中國 西北大)/ 토론: 朴玖澈(韓國 釜山大)
-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서구 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 발표: 金慶惠(韓國 弘益大)/ 토론: 金裕利(韓國 全北大)
- 근대 중국 아동 교육 관념에서 “아동의 발견”-梁啓超·蔡元培·魯迅의 兒童教育觀念의 異相-[“兒童的發現”於近代中國兒童教育觀念-梁啓超·蔡元培·魯迅的兒童教育觀念的異相-]// 발표: 湯山トミ子(日本 成蹊大)/ 토론: 千聖林(韓國 韓南大)

〈9월 11일〉

○제4차 발표회 분과 회의 3

- ◇제1분과 사회: 최덕경(한국 부산대)
 - 한대 여자 도덕 교육-정표 중심 고찰-[試論漢代的女子道德教育-以旌表爲中心的考察-]// 발표: 韓帥(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高惠蓮(韓國 東義大)
 - 한대의 태자 교육[論漢代的太子教育]// 발표: 李庚子(韓國 慶尙大)/ 토론: 許富文(韓國 古典文化研究院)
 - 후한 삼국 양진 시기에 유행한 가전과 교육

[在後漢三國兩晉期流行的家傳與教育]// 발표: 永田拓治(日本 阪南大)/ 토론: 許明華(韓國 釜山大)

◇제2분과 사회: 유원적(한국 목포대)

- 비각 자료로 본 명대 환관 교육과 지위 상승[從碑刻資料看明代宦官的教育與地位升遷]// 발표: 齊暢(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黃根世(韓國 忠北大)
- 차소피장-명청 시기 안휘 북부 문무거사 수량 변화와 사회 변천-[此消彼長-明清時期皖北文武學士數量變化與社會變遷-]// 발표: 陳業新(中國 上海交通大)/ 토론: 權仁溶(韓國 高麗大)
- 명청 시기 산둥 운하 구역의 서원과 사회 변천[明清時期山東運河區域的書院與社會變遷]// 발표: 吳欣(中國 聊城大)/ 토론: 金亨洙(韓國 東義大)

◇제3분과 사회: 이학로(한국 대구대)

- 여학 교재상의 효도론-여효경과 내훈을 사례로-[論女學教材中的孝道-以女孝經和內訓爲例說明-]// 발표: 余慧婷(新加坡 國立大)/ 토론: 孫在賢(韓國 慶北大)
- 민국 시기의 고등 농업 교육 연구-남경금릉대학농학원을 예로-[民國時期的高等農業教育研究-以南京金陵大學農學院爲例-]// 발표: 鄭林(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姜京洛(韓國 江南大)
- 교육 이념과 계파 이익-북경대학명의회의 역사 고찰-[教育理念與派系利益-北京大學評議會的歷史考察-]// 발표: 林輝鋒(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都重萬(韓國 牧園大)

○제5차 발표회 분과 회의 4

- 정신 교육-漢魏兩晉시기 拒仕羣體에 관한 고찰-[精神的教育-一個漢魏兩晉拒仕羣體的考察]// 발표: 陳舜貞(新加坡 國立大)/ 토론: 金珍佑(韓國 高麗大)
- 과거제의 전통 교육에 대한 영향-당송대와 명청대의 비교-[科舉制對傳統教育的影響-唐宋與明清的比較-]// 발표: 屈超立(中國 政法大)/ 토론: 李萬炯(韓國 釜山大)
- ◇제2분과 사회: 이경규(한국 대구가톨릭대)
 - 明清時期 書院 講會 制度 分析-朝鮮後期 書院 講會 制度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발표: 朴鍾培(韓國 東國大)/ 토론: 李暎蘭(韓國 梨花女大)
 - 명말청초 정당 교육을 통해 본 중국 이슬람 사회의 변천[從明末清初的經堂教育看中國穆斯林社會的變遷]// 발표: 丁慧倩(中國 中央民族大)/ 토론: 金成修(韓國 Seoul 產業大)
- ◇제3분과 사회: 신태갑(한국 동아대)
 - 남경국민정부 1927~1937년 교육 입법의 역사적 동인[論南京國民政府1927~1937年教育立法的歷史動因]// 발표: 胡仁智(中國 西南政法大)/ 토론: 鄭文祥(韓國 暎園大)
 - 남경국민정부 후기 대학 법률 교육의 구상과 성과[論南京國民政府後期改進大學法律教育構想,成效及現實借鑒]// 발표: 張仁善(中國 南京大)/ 토론: 林相範(韓國 誠信女大)

○제6차 발표회 분과 회의 5

◇제1분과 사회: 서재선(한국 그리스도대)

·당·송 전환기 교육 중심의 전이 및 그 특징[唐·宋轉換時期教育中心的遷移及其特徵]// 발표: 吳富尹(韓國 仁德大)/ 토론: 崔德卿(韓國 釜山大)

·서검쌍미: 하북 번진 시기의 군 풍기, 군사 훈련과 문화 교육-763~914년을 중심으로-[書劍雙美: 河北藩鎮時期的從軍風氣、軍事訓練與文化教育-以763~914年爲中心-]// 발표: 張天虹(中國 首都師範大)/ 토론: 李永哲(韓國 嶺南大)

·묘지명 속의 송대 가훈[墓誌銘中的宋代家訓]// 발표: 高楠(中國 河北經貿大)/ 토론: 趙福鉉(韓國外大)

◇제2분과 사회: 조세현(한국 부경대)

·만청 시기 정주이학과 과거제도의 내재적 긴장[晚淸時期程朱理學與科舉制度的內在緊張]// 발표: 張昭軍(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金文基(韓國 釜慶大)

·과거제 폐지로부터 학당의 흥기까지-중국 전통 교육 근대 전형의 간난결택과 그 계시-[從科舉之廢到學堂之興-中國傳統教育近代轉型的艱難抉擇及其啓示-]// 발표: 林乾(中國 政法大)/ 토론: 朴章培(韓國 仁川大)

·교육과 이익-청대 장사부 상담현의 서원과 토지에 대한 일고찰-[教育與利益-試論清代長沙府湘潭縣書院與田產-]// 발표: 陳瑤(香港中文大)/ 토론: 尹輝鐸(韓國 韓京大)

◇제3분과 사회: 강관권(한국 계명대)

·20세기 20~30년대 中國高等師範教育의 발전-國立北平師範大學의 사례를 중심으로-[論20世紀20~30年代中國高等師範教育的曲折發展-以國立北平師範大學爲個案-]// 발표: 孫邦華(中國 北京師範大)/ 토론: 河世鳳(韓國 海洋大)

·최근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내용의 변화 분석// 발표: 김종건(韓國 慶北大)/ 토론: 李銀子(韓國 高麗大)

○제7차 발표회 기조 강연 2

◇제1분과 사회: 이석현(한국 연세대)

·王法主義와 宋代 법률 교육의 推移// 발표: 朴永哲(韓國 群山大)/ 토론: 徐銀美(韓國 釜山大)

·송대 가정 법률 교육[宋代家庭中的法律教育]// 발표: 馬泓波(中國 西北大)/ 토론: 陸貞任(韓國 高麗大)

◇제2분과 사회: 김형열(한국 동의대)

·判例判牘을 통해 본 청대 여성 교육[從判例判牘看清代女教]// 발표: 郭瑞卿(中國 政法大)/ 토론: 曹永淑(中國 華中師範大)

·청말 西安의 교육과 외국인 敎習-足立喜六의 事例를 중심으로-[清末西安的教育と外國人敎習-足立喜六を事例に-]// 발표: 村松弘一(日本 學習院大)/ 토론: 金銀洙(中國 北京師大)

◇제3분과 사회: 박강(한국 부산외국어대)

·우강 혁명 근거지의 문화 교육 법제[右江革命根據地文化教育法制初探]// 발표: 陳金全(中國 西南政法大)/ 토론: 金文禧(韓

國 釜山大)

·중국의 법학 교육을 통해 본 중국의 법제 건립-최근 60년의 역사를 중심으로-[通過中國的法學教育看中國的法制建設-以近60年的歷史爲例-]// 발표: 王立民(中國 華東政法大)/ 토론: 禹成旻(韓國 東北亞歷史財團)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조외래 학술 심포지엄

·일시: 2010년 9월 10일

·장소: 서울 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주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부 사회: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의궤 조사의 성과와 활용

·조선왕조의례 지정 학술 조사의 현황과 의의// 발표: 김지연(국립문화재연구소)

·규장각 소장 의궤의 현황과 특징// 발표: 강문식(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록 유산으로서 장서각 소장 의궤의 가치와 의미// 발표: 박용만(한국학중앙연구원)

○제2부 사회: 김지연(국립문화재연구소)

주제: 의궤와 동아시아 국가 기록의 전통

·조선 시대 의궤 편찬의 역사// 발표: 신병주(건국대)

·중국 기록물 관리의 변천과 현황// 발표: 심재권(나사렛대)

·근세 일본과 한국의 역사 기록 비교// 발표: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

○제3부 사회: 황정연(국립문화재연구소)

주제: 의궤를 통한 조선 문화사의 복원

·조선 건국 후 왕실 의례 정립과 의궤// 발표: 신명호(부경대)

·선원전 관련 의궤로 본 왕실의 궁궐 경영//

발표: 이강근(경주대)

·19세기 연향 관련 의궤와 도자// 발표: 박지영(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사연구회 제278차 연구 발표회

·일시: 2010년 9월 11일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세미나실

·사회: 차미희(이화여대)

·세조대의 여진 관계와 여진 정책// 발표: 박정민(전북대)/ 토론: 김순남(육군사관학교), 한성주(강원대)

·성호 이익의 동아시아 인식// 발표: 김지은(경북대)/ 토론: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성산(고려대)

▣ 한국사학사학회 제93회 연구 발표회

·일시: 2010년 9월 25일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1세미나실

·사회: 윤휘탁(한경대)

·이병도(李丙燾)의 『조선사개강(朝鮮史概講)』(동아일보 연재)// 발표: 조인성(경희대)/ 토론: 오항녕(전주대)

·나의 동아시아사 연구-晩秋가 되어도 무르익지 못하고 가지에 달려 있는 果實-// 발표: 박원호(고려대)

▣ 만주학회, 연세대 국학연구원 국제 학술회의

·주제: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과 문화 체험

·일시: 2010년 9월 30일

·장소: 연세대 사회과학대 연희국제회의실

·주관: 만주학회 및 국학연구원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오전 회의 사회: 신주백(연세대)

- 만주국의 민족과 인구 추계// 발표: 山中峰 央(배재대)/ 토론: 한석정(동아대)
- 근대 중국인의 동북 이민과 동북 사회의 변천// 발표: 範立君(지린사범대)/ 토론: 구범진(서울대)
- 오후 회의 사회: 김재용(원광대)
 - 근대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와 문화 체험// 발표: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반병률(한국외대)
 - 일본인의 만주 이민과 생활 체험// 발표: 蘭信三(조치대)/ 토론: 이연식(서울시사편찬위원회)
 - 민국기 화북의 조선인과 생활 체험// 발표: 김주용(독립기념관)/ 토론: 田中隆一(동남보건대)
- 종합 토론 사회: 윤상인(한양대)
- 2010세계대백제전 국제 학술회의
 - 주제: 교류 왕국, 대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
 - 일시: 2010년 9월 30일~10월 2일
 - 장소: 공주대 백제교육문화관
 - 주최: 2010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 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후원: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9월 30일〉
 - 百濟交流史의 性格과 研究成果// 기조 발표: 신형식(서울시사편찬위원회)
 -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에서 백제의 위치// 발표: 노중국(계명대)/ 토론: 이근우(부경대)
 -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연대 문제[Chronological Anomalies in the Paekche Annals

- of the Samguksagi// 발표: Jonathan Best(웨슬리언대)/ 토론: 이강래(전남대)
- 목간을 통해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木簡を通した百濟と日本]// 발표: 李成市(와세다대)/ 토론: 주보돈(경북대)
- 백제와 중국의 통교와 문화 교류[百濟通交 中国与兩國的文化交流]// 발표: 宋成有(북경대)/ 토론: 장인성(충남대)
- 백제 문화 속에 함축된 해양 문화적 요소// 발표: 윤명철(동국대)/ 토론: 강봉룡(목포대)
- 종합 토론 좌장: 이기동(동국대)
- 〈10월 1일〉
 - 백제와 삼국 좌장: 김수태(충남대)
 -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발표: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 백제족원과 여제의 융합 과정 고찰[百濟族源与丽濟交融过程之考察]// 발표: 이종훈(연변대)
 - 나제 동맹기 백제와 신라의 협력 그리고 갈등// 발표: 정운용(고려대)
 - 백제와 가야의 교류와 그 접점// 발표: 백승욱(부산시립박물관)/ 토론: 공석구(한밭대), 박현숙(고려대)
 - 백제와 중국 좌장: 양중국(공주대)
 - 唐初八書의 편찬과 百濟傳// 발표: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 중국계 백제 관료에 대한 고찰// 발표: 정재윤(공주대)
 - 백제의 副都·複都制와 동아시아[百濟の副都·複都制と東アジア]// 발표: 田中俊明

- (시가현립대)
- 백제 불교와 중국 불교-수용과 변용을 넘어 창조로-// 발표: 조정철(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이주현(한남대), 이훈(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백제와 일본 좌장: 김은숙(한국교원대)
 - 백제의 해외 활동 기록에 관한 검증// 발표: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 백제계 도래인과 일본 사회[百濟系渡來人と日本社会]// 발표: 井上滿郎(교토역사자료관)
 - 왜계 백제 관료의 실체와 그 성격// 발표: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백제와 일본-생산공인의 교류-[考古資料からみた百濟と日本-生産工人の交流-]// 발표: 坂靖(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토론: 정효운(동의대), 우재병(충남대)
- 종합 토론 좌장: 양기석(충북대)
- 10월 학술 발표
 - 경인민속학회 제4차 학술회의
 - 주제: 경인 지역 공동체 문화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해체2-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 일시: 2010년 10월 2일
 - 장소: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404호
 - 주최: 경희대 경인민속학회
 - 제1부 좌장: 김기형(고려대)
 - 군포 도마교동 상례 문화의 지속과 변화// 발표: 이상균(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오창현(국립민속박물관)

- 비이동성 도시화와 공동체 민속 문화// 발표: 강정원(서울대)/ 토론: 이정재(경희대)
- 제2부 좌장: 김종대(중앙대)
 - 단군 신화 이본 간 동이성 연구-이본 상호간의 유사성 연구 분석법 및 그에 따른 이본 비교-// 발표: 윤성찬(경희대)/ 토론: 김태우(경희대)
 - 한·중 양국의 추석에 관한 비교 분석// 발표: 양금평(경희대)/ 토론: 고복승(경희대)
- 유관순 열사 순국 9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 주제: 유관순 평화 정신의 현대적 조명
 - 일시: 2010년 10월 5일
 - 장소: 백석대 본부동 국제회의실
 - 주최: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후원: 국가보훈처, 천안시
 - 인류 평화와 유관순// 기조 강연: 김호일(안중근기념관)
- 제1부 사회: 김종표(백석대)
 - 주제: 유관순의 평화 정신
 - 유관순 열사의 정신// 발표: 이정은(독립기념관)/ 토론: 고희령(백석대)
 - 유관순의 재판에 관한 법적 고찰// 발표: 나달숙(백석대)/ 토론: 최호진(건국대)
 - 유관순과 秋瑾 비교 연구// 발표: 박충순(백석대)/ 토론: 심우영(상명대)
- 제2부 사회: 고희령(백석대)
 - 주제: 유관순 정신의 대외적 인식
 - 지역의 장소들-과거의 회상, 현재의 구성. 프랑스 유적지의 역사적·관광적 활용-[Les lieux de mémoire-souvenirs

du passé, ossature du présent Leur utilisation historique et touristique en France]] 발표: 부지[Olivier BOUZY](잔다르크연구소)/ 토론: 박윤덕(충남대)

- 유관순과 趙一曼-한·중 여성 독립운동가 비교 연구-[趙一曼与柳寬順-中韩女性反日运动家比较-]// 발표: 全信子(연변대 인문사회과학원)/ 토론: 한상도(건국대)
- 일본에서의 3·1 운동 연구 동향과 유관순// 발표: 林雄介(明星大)/ 토론: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

○제3부 사회: 김춘식(백석대)

주제: 유관순 평화 정신의 현대적 조명

- 유관순 열사 사상 형성의 교육적 배경// 발표: 이달우(공주대)/ 토론: 김종표(백석대)
- 유관순의 삶에 미친 이화학당 교육의 영향-현대 기독교 교육적 조명-// 발표: 장희영(서울여대)/ 토론: 최태연(백석대)

○종합 토론 사회: 김기창(백석대)

발표자: 이정은, 나달숙, 박충순, 부지, 全信子, 林雄介, 이달우, 장희영

▣ 한국사상사학회 제141차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10월 9일
- 장소: 서강대 다산관 209호 세미나실
- 사회: 정호훈(서울대)
- 조선 주기론 계통에서의 마음의 개념 연구// 발표: 최복희(서강대)/ 토론: 심규하(성균관대)
- 韓末 『中國魂』의 國譯과 『朝鮮魂』의 形成// 발표: 이민석(서강대)/ 토론: 김형목(독립기념관)

- 한국 근대사 서술과 기독교-교과서·개설서를 중심으로-// 발표: 한규무(광주대)/ 토론: 서진교(서강대)

▣ 제8회 4개 권역 역사학회 공동 학술 대회

- 주제: 역사 속의 산
- 일시: 2010년 10월 15일~16일
- 장소: 창원대 종합교육관
- 주최: 부산경남사학회, 대구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 주관: 부산경남사학회, 창원대 사학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재)삼강문화재연구원, 고운치과, 창원대

<10월 15일>

○제1부

- 문화과 증언으로 메운 역사의 공백-해방 공간의 빨치산 투쟁 복원 작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조 발표: 안재성(작가)

○제2부

제1분과(한국사)

사회1 김병인(전남대)

- 고구려 산성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표: 정원철(서해문화재연구소)/ 토론: 안성현(경남문화재연구원)
- 百濟의 東界戰略-大田 및 錦山 地域을 中心으로-// 발표: 최병화(가경고고학연구소)/ 토론: 백승옥(부산시립박물관)

사회2 구산우(창원대)

- 고려 시대 名山과 祭儀// 발표: 김아네스(순천대지리산권문화연구원)/ 토론: 김형수(한국국학연구원)
- 일제 시기 창원군 임야 조사서 분석과 소

유구조 변화// 발표: 강정원(부산대)/ 토론: 이윤상(창원대)

제2분과(동양사)

사회1 최진규(조선대)

- 武州山의 雲崗石窟과 北魏의 탄생 설화// 발표: 고희련(동의대)/ 토론: 안순형(창원대)
- 고대 中原의 공간과 五嶽// 발표: 이성원(전남대)/ 토론: 오준성(경북대)
- 山神이 된 역사 속의 실존 人物-田橫을 중심으로-// 발표: 김효경(한남대)/ 토론: 민정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회2 하세봉(한국해양대)

- 티베트의 산신 신앙의 특징과 현대적 변용// 발표: 박장배(인천대 인문학연구소)/ 토론: 조세현(부경대)
- 북아시아 유목민과 興安嶺// 발표: 윤은숙(경북대 아시아연구소)/ 토론: 손현숙(신라대)

제3분과(서양사) 사회: 전영섭(계명대)

- 프랑스 산맥-저항과 투쟁의 장소-// 발표: 이학수(해군사관학교)/ 토론: 장세룡(부산대)
- 스코틀랜드 고지대(Highlands)와 영국 혁명(the British Revolutions)의 수용// 발표: 김종락(경북대)/ 토론: 박순준(동의대)

○제3부 사회: 이광수(부산외대)

종합 토론

-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청산리 대첩 9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일시: 2010년 10월 21일

- 장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장
- 사회: 김용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말 의병 전쟁// 발표: 홍영기(순천대)/ 토론: 박민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1920년대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 발표: 김춘선(중국 연변대)/ 토론: 황인호(숭실대)
-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 무장 투쟁// 발표: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염인호(서울시립대)
- 1940년대 중국 관내 지방 항일 무장 투쟁// 발표: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토론: 한시준(단국대)
- 종합 토론 좌장: 김상기(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고구려발해학회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 발해의 문화와 위상
- 일시: 2010년 10월 21일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2층 세미나실
- 주최: 고구려발해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후원: 거래문화유산연구원, 속초시립박물관
- 제1부 사회: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 일제 강점기 고구려·발해 유적 조사와 그 의미// 발표: 양시은(서울대 박물관)/ 토론: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 신중국 건설 이후 발해 유적 발견과 그 의미// 발표: 정영진(연변대 발해사연구소)/ 토론: 황보경(세종대 박물관)

-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의 발굴 성과와 그 의미// 발표: 겐만(러시아과학원 극동 역사 고고민족학연구소)/ 토론: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 제2부 사회: 정호섭(한성대)
 -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발해 문화의 특징// 발표: 아카바메 마사요시(수도대 동경)/ 토론: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 고고학적 성과로 본 고구려·발해 도성의 특징// 발표: 양정석(수원대)/ 토론: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 제3부 사회: 양은경(부산대)
 - 발해 영광탑과 한반도 지역 전탑의 건축 형식 비교 연구// 발표: 이병건(동원대)/ 토론: 김왕직(명지대)
 - 발해 상경과 그 주변의 군사 방어 체계// 발표: 이동휘(연변대 발해사연구소)/ 토론: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 상경 도성 조영으로 본 발해의 천도 시기 검토// 발표: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문은순(서울역사박물관)
 - 종합 토론 사회: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 송기호(서울대), 한규철(경성대), 浜田耕策(九州大),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 ▣ 한국사연구회, 2010년 10월 국제 학술 대회
 - 주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 일시: 2010년 10월 22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 주최: 한국사연구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1부 사회: 김태웅(서울대)

- 日本資料에 나타난 日本軍 出兵의 名分과 東學農民軍 鎮壓過程 分析// 발표: 이이화(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均菴丈 林東豪氏 略歷에 나타난 北接農民軍의 移動路와 海月 崔時亨// 발표: 신영우(충북대)/ 토론: 조재곤(동국대)
- 제2부 사회: 한철호(동국대)
 - 雲揚號 事件부터 淸日戰爭까지-雲揚艦長 井上良馨의 <艦隊指揮御中> 報告書와 大本營 參謀 東條英教의 <隔壁聽談>을 소개한다-// 발표: 中塚明(나라여자대)
 - 東學農民軍을 鎮壓한 日本軍隊의 歷史史料-東京, 四國, 山口를 찾아서-// 발표: 井上勝生(호카이도대)
 - 토론: 박맹수(원광대)
- 제3부 사회: 이운상(창원대)
 - 중국의 청사공정과 동학농민전쟁의 신자료에 관하여-新編 <李鴻章全集>과 <袁世凱全集>을 중심으로-// 발표: 王曉秋(북경대)
 - 한 청국 장병의 조선 출병 기록-섭사성의 『동정일기』-// 발표: 金俊(청화대)
 - 토론: 구선희(국사편찬위원회)
- 제4부 종합 토론 좌장: 신순철(원광대)
- ▣ 고구려발해학회 학술회의
 - 주제: 발해 해양사와 21세기 환동해 교류
 - 일시: 2010년 10월 22일
 - 장소: 속초시립박물관 강당
 - 주최: 강원도민일보, 속초시
 - 주관: (사)고구려발해학회
- 제1부 사회: 윤재운(대구대)

- 고구려의 대외 외교와 동해 항로-고구려·백제·왜 3국의 상호 전략에 대한 이해를 곁하여-// 발표: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이동휘(연변대)
- 발해의 동해안 경역과 대일본 교류-동경을 중심으로-// 발표: 정영진(연변대)/ 토론: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 渤海 佛頂尊勝信仰의 展開// 발표: 임석규(일본 무사시노미술대)/ 토론: 고정은(부산외대)
- 제2부 사회: 이병건(동원대)
 - 일본에서 본 고대 환동해 교류// 발표: 아카바메(일본 수도대)/ 토론: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 동해 평화론 서설-소통 협력 공간으로서의 동해와 한반도의 역할-// 발표: 홍면기(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김진기(강원발전연구원)
- 종합 토론 사회: 한규철(경성대)
 - 참석자: 송기호(서울대), 발표자·토론자 전원
- ▣ 한국근현대사학회 안중근 순국 100년 학술 대회
 - 주제: 안중근 연구 100년의 쟁점과 과제
 - 일시: 2010년 10월 26일
 - 장소: 안중근의사기념관 집회실
 - 주최: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위원회, 한국근현대사학회
- <10월 26일>
- 제1부 사회: 김용달(독립기념관 수석연구원)
 - 안중근 연구의 허와 실// 기조 연설: 최서면(국제한국연구원)

- 한국 학계의 안중근 연구 쟁점과 과제// 발표: 장석홍(국민대)
- 일본 학계의 안중근 연구 쟁점과 과제// 발표: 한철호(동국대)
- 중국 학계의 안중근 연구 쟁점과 과제// 발표: 한시준(단국대)
- 종합 토론
- 제2부 종합 토론 사회: 윤병석(인하대)
 - 토론: 김호일(중앙대), 김상기(충남대), 최기영(서강대), 박걸순(충북대)
-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 암각화 발견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 대주제: 세계의 바위그림, 그 해석과 보존
 - 일시: 2010년 10월 26일~27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 제1부 사회: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 소주제: 발견과 연구
 -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발견의 회고와 전망// 발표: 문명대(동국대)
 - 러시아 바위그림 연구의 새로운 사항// 발표: E. 데블레트(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 제2부 사회: 김정열(동북아역사재단)
 - 소주제: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바위그림의 세계
 - 문화 변동의 맥락 속에서 남부 시베리아의 바위그림// 발표: N. 보코벤코(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토론: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 카자흐스탄의 바위그림// 발표: Z. 사마셰프(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마르굴란 기념 고고학연구소)/ 토론: 장준희(한양대)
 - 몽골의 바위그림// 발표: D. 체벤도르지(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토론: 이평래(한국외대)
 - 후고삐 동굴(일본) 암각화의 연대 추정// 발표: 오가와 마사루(나루토대)/ 토론: 송화섭(전주대)
 - 무산군 지초리 바위 벽화 유적에 대하여// 발표: 서국태(북한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대독: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토론: 강봉원(경주대)
 - 종합 토론 사회: 최광식(국립중앙박물관)
- 〈10월 27일〉
- 제3부 사회: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 소주제: 바위그림의 해석
 - 북유럽 암각화 연구 기법에서 새로운 사항// 발표: 기라 에브게니(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토론: 이상목(암각화박물관)
 - 원시 암각화 연구 방식 고찰// 발표: 폴반(영국 케임브리지대)/ 토론: 장명수(한국암각학회)
 - 망자(亡者)는 어디에 있는가?- 청동기 시대 몽골 알타이 암각화 해석 연구-// 발표: E. 야콥슨(미국 오레곤대)/ 토론: 정동찬(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
 - 메타언어-바위그림의 공간과 제제의 상징성// 발표: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이하우(한국선사미술연구회)

- 제4부 사회: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 주제: 바위그림 보존 방안
 - 암각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 전략// 발표: 앙 소피 히겐(노르웨이 외스트폴 주 문화유산부)/ 토론: 김성배(문화재청)
 - 암각화와 이에 대한 관리 책임, 조사, 보호 및 보존 대책, 그리고 네 가지 관련 사례// 발표: 크누트 헬츠코크(트롬쇠대)/ 토론: 임권웅(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고부스탄(Gobustan) 암각화 문화 지형에 대한 보호, 보존 및 관리// 발표: 말라하트 파라조바(아제르바이잔 고부스탄 국립역사 예술 야외박물관)/ 토론: 남금우(계명대)
 - 새 코아 박물관과 코아 계곡 바위그림 보존에 대하여// 발표: 안토니오 바타르다(Bournemouth University 보존과학교)/ 토론: 신미아(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울산 암각화 지역의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의 현황과 과제// 발표: 허권(한국 유네스코 평화센터)/ 토론: 장호수(충북문화재단 연구원)
 - 종합 토론 사회: 이용조((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전쟁 60주년 학술대회
- 주제: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반응
 - 일시: 2010년 10월 29일
 - 장소: 대우학술재단 세미나2실
 - 주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제1부 사회: 이달순(수원대)
 - 주제: 전통 시대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개입

- 동이 3국을 바라보는 당 태종의 시선// 발표: 신복룡(건국대)/ 토론: 정병준(동국대)
 - 임진왜란과 명의 역할// 발표: 한명기(명지대)/ 토론: 이삼성(한림대)
- 제2부 사회: 홍순호(이화여대)
 - 주제: 한국전쟁기 한반도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개입
 - 한국 문제의 국제 갈등과 중국 개입-역사, 이론, 전망// 발표: 박명림(연세대)/ 토론: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 휴전 후 '중국군 위협론'과 한미의 대응// 발표: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토론: 오규열(서울디지털대)
 - 중·소 공동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북중 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1956~1958)// 발표: 박종철(경상대)/ 토론: 최만원(조선대)
- 제3부 사회: 김성주(성균관대)
 - 주제: 북한 정세 변화와 중국의 대북 정책
 - 북한 급변 사태와 중국의 군사 개입// 발표: 박창철(국방대)/ 토론: 신상진(광운대)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와 과제-// 발표: 이상현(세종연구소)/ 토론: 서주석(국방연구원)
-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일시: 2010년 10월 29일
 -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본관 소회의실
 - 강연자: 馮時(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 주제: 용의 기원-오래된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 학술회의
- 주제: '한국 병합'의 세계사적 재조명-국제적 환경과 인식-
 - 일시: 2010년 10월 30일
 - 장소: 고려대 국제관 국제세미나실
 - 주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 제1부 사회: 송규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주제: '병합'에 대한 열강의 정책과 인식
 - 미국 대통령 태프트의 대일 특사 외교와 한일 병합 조약의 법적 추인, 1910~1911// 발표: 최정수(한양대)/ 토론: 김원수(서울교대)
 - '한일 병합'에 대한 러시아인의 반응-러시아 언론에 비친 한국 이미지-// 발표: 이고르 예르마첸코(세인트 페테르부르크 사범대)/ 토론: 민정현(고려대)/ 번역: 김종현(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 일본 역사학의 식민지 인식-조선사를 중심으로-// 발표: 小川原宏幸(日本 明治大)/ 토론: 방광석(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제2부 사회: 배항섭(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주제: '병합'을 바라본 국내외 반응
 - 고종의 한일 병합 저지 계획과 연해주 망명 정부(1909~1910)// 발표: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허동현(경희대)
 - 일제의 '대한 제국 강제 병합'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와 논평// 발표: 權赫秀(中國 東北師範大 歷史文化學院)/ 토론: 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영국과 미국 주요 신문에 나타난 ‘한국 병합’// 발표: 김지형(문화재청)/ 토론: 리안유(고려대)
 · ‘한일 병합’ 전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국내외 한인 언론의 인식// 발표: 최덕수(고려대)/ 토론: 최기영(서강대)

○제3부 종합 토론 사회: 김도형(연세대)

■ 동양사학회 추계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10월 30일
 · 장소: 고려대 서관(문과대학)
 · 주최: 동양사학회
 · 주관: 고려대 사학과·역사교육과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고려대 문과대·사범대

○중국 고대사/장소 서관 314A호

오전 사회: 김병준(한림대)

오후 사회: 정하현(공주대)

· 戰國時代 楚地域의 巫俗과 巫儀// 발표: 박봉주(서울대)/ 토론: 이명화(한양대)
 · 한비자의 法과 術의 관계 재조명// 발표: 양순자(고려대)/ 토론: 임병덕(충북대)
 · 張家山 漢簡 算數書의 “程”과 중국 고대 기술과 생산의 표준화// 발표: 최진묵(서울대)/ 토론: 김진우(고려대)

○중국 중세사/장소 서관 314B호

오전 사회: 최재영(서울대)

오후 사회: 김중섭(서울시립대)

· 後漢魏晉 鎮墓文의 종교적 특징-道敎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발표: 조성우(서울대)/ 토론: 김선민(연세대)

· 唐前期 皇帝 巡幸과 府兵의 동원-墓誌銘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최진열(동덕여대)/ 토론: 김호(고려대)

· 唐代 藩鎮의 攝職// 발표: 이영철(영남대)/ 토론: 정병준(고려대)

· 唐宋 春秋學의 방법론 비교 연구-〈春秋〉에 대한 기본인식과 三傳의 활용을 중심으로-// 발표: 홍승태(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토론: 김석우(원광대)

○송요금원사/장소 서관 316A호

오전 사회: 김위현(명지대)

오후 사회: 김용완(충남대)

· 당송 시기 妾의 생활-夫妾 관계의 계약적 특성을 중심으로-// 발표: 최해별(이화여대)/ 조복현(충남대)

· 五代 시기 거란과의 전쟁과 외교// 발표: 김상범(한국외대)/ 토론: 박지훈(경기대)

· 송-서하 간 전쟁의 발발 배경과 그 성격// 발표: 유원준(경희대)/ 토론: 오원경(숙명여대)

· 북송 神宗朝의 대외 교역 정책과 高麗// 발표: 김영제(단국대)/ 토론: 나영남(한국외대)

· 10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발표: 이근명(한국외대)/ 토론: 육정임(경희대)

○명청사/장소 서관 307호

오전 사회: 서인범(동국대)

오후 사회: 정철웅(명지대)

· 明 中期의 八陣論 분석-八陣合變圖說을 중심으로-// 발표: 홍을표(강원대)/ 토론:

강원목(육군사관학교)

· 清代 ‘懷慶藥商’의 對外進出과 商業네트워크// 발표: 이민호(한국한의학연구원)/ 토론: 정혜중(이화여대)

·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기후 변동// 발표: 김문기(부경대)/ 토론: 염정섭(한림대)

· 南通·昆山·蘇州 지역의 ‘破血湖 儀式’에 대해// 발표: 송요후(인천대)/ 토론: 이경룡(세종대)

· 雍正帝의 동북 변경 통치// 발표: 김선민(고려대)/ 토론: 송미령(전북대)

○중국 근현대사/장소 서관 317호

오전 사회: 이은자(전북대)

오후 사회: 유용태(서울대)

· 19세기 말 조선의 중국인 거류지와 운영 체제// 발표: 박정현(고려대)/ 토론: 이옥련(인하대)

· 중국 민주 동맹의 좌절과 선택-국공 내전 시기 제3세력의 독자성 모색// 발표: 손승희(인천대)/ 토론: 이재명(단국대)

· 냉전 시기 호적과 중국의 반공적 자유주의// 발표: 오병수(성균관대)/ 토론: 조경란(연세대)

· 한국의 중국 여성사 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 천성림(한남대)/ 토론: 이성이(서울여대)

○일본사/장소 서관 316B호

오전 사회: 남기학(한림대)

오후 사회: 함동주(이화여대)

· 聖스러움과 女帝-善德과 皇極의 즉위 배경-// 발표: 김선민(숙명여대)/ 토론: 김은

숙(교원대)

· 장군 미나모토 요리이에(源賴家)와 겐지장군관(源氏將軍觀)// 발표: 김영(한국외대)/ 토론: 신미나(고려대)

· 일본 근세의 도시와 재해-막부의 사후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 최은석(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전간기 일본의 산파와 출산 정치// 발표: 이수진(연세대)/ 토론: 이은경(서울대)

· ‘脫亞論’ 讀法// 발표: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방광석(성균관대)

■ 11월 학술 발표

■ 동국사학회 한중연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0년 추계 학술회의

· 개최: 동국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주제: 여행기를 통해 본 동서양의 교류와 소통

· 일시: 2010년 11월 6일

· 장소: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 후원: (주)한집디자인

○오전 사회: 서인범(동국대)

· 혜초의 눈에 비친 8세기 인도·중앙아시아·중국// 발표: 정병삼(숙명여대)/ 토론: 김영미(이화여대)

·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국외 여행기 찬술// 발표: 권덕영(부산외대)/ 토론: 조인성(경희대)

○오후 사회: 고성훈(국사편찬위원회)

· 플라노 드 카르피니의 몽골 인식과 그 한

계// 발표: 김장구(동국대)/ 토론: 최형원(한국외대)

• 맨드빌(Mandeville)의 여행기-중세 말 세계의 이미지-// 발표: 성백용(한남대)/ 토론: 남종국(동국대)

• 초대 조선 교구장 브뤼기에르(Bruguière) 주교의 여행기// 발표: 조현범(한국교회사연구소)/ 토론: 안중철(인하대)

• 개화~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 발표: 김상민(명지대)/ 토론: 양홍석(동국대)

○종합 토론 사회: 김상현(동국대)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연구 포럼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과 평화-사회, 국가, 세계

• 일시: 2010년 11월 5일~6일

• 장소: 그랜드힐튼 호텔

• 공동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연구포럼

<11월 5일>

○Session I

panel 1-1 사회: 김용덕(광주과학기술원)

주제: 동아시아 지역 秩序와 平和의 可能性

• 극동 위생 사업의 전개와 일본의 국제기구 외교-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 발표: 安田佳代(東京大)

• 1937년 지적 협력 국내위원회 총회에 있어서의 일본과 중국-국민 문화·지역·국제적 문맥// 발표: 齋川貴嗣(Heidelberg Uni.)

• 日本의 韓國併合을 둘러싼 國際環境과 大韓帝國 外交의 醜절// 발표: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 토론: 신규환(연세대),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panel 1-2 사회: 배경한(신라대)

주제: 葛藤에서 和解로의 길

• 현실 정치와 역사 연구-중국 대륙에서의 장제스 연구(1949~2000)-// 발표: 진홍민(절강대)

• 국제 문화와 세계 공화국-도모나가 산주(朝永三十郎)와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발표: 芝崎厚士(駒沢大)

• 조화형 신앙 모델의 역사적 구성-중국 신앙의 실천 논리를 중심으로-// 발표: 李向平(화동사범대)

• 토론: Daqing YANG(George Washington Uni.), 박진우(숙명여대)

○Session II

panel 2-1 사회: 荒井信一(茨城大)

주제: 동아시아의 歷史敍述과 平和의 길

• 남경 대학살의 역사 기억과 동아시아 평화-전쟁 상처 치유를 중심으로-// 발표: 張連紅(南京師範大)

• 동아시아의 역사 구성, 외교, 국제 관계 이념과 미래 전망// 발표: 周永生(中國外交學院)

• 일·중 역사 인식 문제의 심원-1910~40년대의 교과서 문제-// 발표: 川島眞(東京大)

• 동아시아 歷史에서의 相互認識-신라 崔致遠과 송 徐兢의 견문기를 중심으로-// 발

표: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이은자(전북대), 오병수(성균관대)

panel 2-2 사회: 吳密察(臺灣成功大)

주제: 東아시아의 戰爭과 和解

•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배상 책임// 발표: 원성희(광주사범대)

•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다른 역사 기술과 동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 발표: 姜義華(上海復旦大)

• 일·한 관계와 일·중 관계의 연동-한국 합병 전 '고문 정치'가 대중국 21조에 미친 영향// 발표: 楊典錕(國立臺灣大)

• 韓國戰爭, 베트남 戰爭의 記憶과 參戰의 惡循環// 박태균(서울대)

• 토론: 류용태(서울대), 박경석(인천대)

<11월 6일>

○Session III

panel 3-1 사회: 步平(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주제: 東아시아 相互理解와 平和

• 일·중 우호와 팬더 신화// 사회: 家永眞幸(東京大)

• 갑오전쟁(청일전쟁) 이전 일본 관찰자의 '중국 서술'-중국 문화, 교육의 쇠락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발표: 李長利(中國社會科學院)

• 동아시아 民衆史의 可能性-한·일 민중사의 遭遇-// 발표: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함동주(이화여대), 배향섭(고려대)

panel 3-2 사회: 김도향(연세대)

주제: 東아시아의 平和構想과 思想的 摸索

• 타원·균형·평화·협력-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종합 안전 보장 전략-// 발표: 王新生(北京大)

• 중국인의 눈으로 본 일본 평화 운동-'인민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발표: 徐志民(中國社會科學院)

• 韓國 近現代 平和運動論 探索-民族運動과 民主化運動을 中心으로-// 발표: 신주백(연세대)

• 토론: 김희곤(안동대), 박순원(성균관대)

▣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제9회 호서명현 학술대회

• 주제: 丹齋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運動

• 일시: 2010년 11월 12일

• 장소: 충남대 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대전광역시

• 주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단재 신채호의 민족 운동과 사상// 기조 강연: 이만열(숙명여대)

• 단재 신채호의 생장과 학문// 발표: 김상기(충남대)/ 토론: 권대용(대경대)

• 신채호의 언론 활동// 발표: 최기영(서강대)/ 토론: 박정규(청주대)

• 신채호의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발표: 한시준(단국대)/ 토론: 이호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근대 일본, 중국의 '무사도'론과 신채호의 '화랑'론// 발표: 박찬승(한양대)/ 토론: 김기봉(경기대)

• 신채호 문학의 전개 양상// 발표: 홍혜원(충남대)/ 토론: 김화선(배재대)

- 단재 신채호 철학 사상의 유학적 이해// 발표: 송인창(대전대)/ 토론: 김문준(건양대)
- 단재 신채호 생각지의 활용 제고 방안// 발표: 박결순(충북대)/ 토론: 이성우(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 종합 토론 좌장: 김희곤(안동대)
토론: 권대웅, 박정규, 이호룡, 김기봉, 김화선, 김문준, 이성우
- 이화사학연구소 제35회 정기 학술 대회
 - 주제: 1920~30년대 동아시아 모던 문화와 근대 체험-도시 대중과 일상생활-
 - 일시: 2010년 11월 12일
 - 장소: 이화여대 인문관 111호
 - 주최: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사학과, 이화인문과학원(HK사업단)
 - 후원: 포니정재단
 - 사회: 정병준
 - 다이쇼기 일본의 근대적 생활경험과 이상적 여성상-『슈후노토모(主婦之友)』를 중심으로-// 발표: 함동주(이화여대)/ 토론: 원지연(전남대)
 -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샐러리맨 가정의 경제 활동과 문화 생활// 발표: 김영숙(전북대)/ 토론: 홍양희(한양대)
 - 『新家庭』 잡지에 나타난 1930년대 초 상하이 중산층 주부의 일상과 근대성(Modernity) 구축// 발표: 최은진(국민대)/ 토론: 김승욱(서울시립대)
 - 1920~30년대 상하이 근대 매체와 대중 영화-『良友畫報』를 중심으로-// 발표: 정혜중(이화여대)/ 토론: 이병인(전남대)

-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제13회 국제 학술 대회
 - 주제: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경계·주체·문화
 - 일시: 2010년 11월 13일
 - 제1부 사회: 김계자(경원대)
 - 한국 근대 동양·민족 담론의 이중 구조와 국가상-『황성신문』을 중심으로-// 발표: 김윤희(경원대)/ 토론: 서동주(서울대)
 - 1930~40년대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한간, 대일합작, 아시아주의-// 발표: 황동연(미국 소카대)/ 토론: 정문상(경원대)
 - 사회: 양지영(경원대)
 - 일제 통치하 대만의 미술 교육 정책// 발표: 楊盟哲(대만 타이페이교육대)/ 토론: 유수정(고려대)
 - 지역·국가·지방, 또는 인종·국민·집단; 음악의 분류에 함축된 정치적 의미와 음악에 있어서의 정체성 형성// 발표: 헤르만 고체프스키[Hermann Gottschewski](도쿄대)/ 토론: 오희숙(서울대)
 - 제2부 사회: 권희주(경원대)
 - ‘탈’의 상상력-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변용-// 기조 강연: 윤상인(한양대)
 - 제3부 사회: 박진수(경원대)
 - 부정과 생성의 논리-춘원과 루쉰의 전통관-// 발표: 權赫律(중국 지린대)
 - 동아시아 문학과 근대적 아동의 표상// 발표: 최성실(경원대)
 - 내셔널리즘은 극복 가능한가// 발표: 纈纈厚(아마구치대)
 - 식민지 체험자의 기억 속의 ‘제국’과 ‘식민지’-후지카이(不二會)를 중심으로-// 발

- 표: 이규수(경원대)
- 종합 토론: 류시현(전남대), 변은진(경원대), 이영섭(경원대), 판카즈 모한[Pankaj Mohan](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대사학회 제17회 정기 발표회
 - 주제: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 일시: 2010년 11월 13일
 - 장소: 경기도 남양주 실학박물관
 - 사회: 조법중(우석대)
 -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 체계// 발표: 이만열(숙명여대)
 -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의의// 발표: 조인성(경희대)
 - 고조선사·한사군 연구// 발표: 송호정(한국교원대)
 - 고구려사·백제사 연구// 발표: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 삼한사·가야사 연구// 발표: 문창로(국민대)
 - 신라사 연구// 발표: 채미하(경희대)
 - 발해사 연구// 발표: 김종복(성균관대)
 - 종합 토론: 김경수(청운대), 김수태(충남대), 박대재(고려대), 박인호(금오공대), 송기호(서울대)
- 2010 해외 동포 민족 문화·교육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부산 국제 심포지엄
 - 주제: 동북아의 ‘민족 학교’ 우리말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일시: 2010년 11월 13일
 - 장소: 부산 민주공원 소공연장
 -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동포넷

- 제1회의 사회: 정승천(동포넷)
 - 주제: 재중·재러 동포의 우리말 교육의 과제와 대안
 - 조선족 학교의 우리말 교육 실태와 과제// 발표: 서동위(연길 제13중)
 -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우리말 교육 실태와 과제// 발표: 김계르만(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토론: 조남은(대연중), 성동기(부산외대), 예동근(부경대)
- 제2회의 사회: 신정화(동서대)
 - 주제: 재일 조선인 우리말 교육의 과제와 대안
 - 재일 조선인 우리말 교육의 실태와 과제// 발표: 박환나(큐슈대)
 - 재일 한국학교 우리말 교육의 실태와 과제// 발표: 변미양(오사가 한글교실)/ 토론: 배덕호(KIN, 지구촌동포연대), 김동렬(대구 KYC), 김령순(전 조선학교)
- 제3회의 사회: 진희관(인제대)
 - 주제: 재외 동포 우리말 교육 지원 체계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
 - 발제 1: 임재홍(교육과학기술부)
 - 발제 2: 강성봉(재외동포신문)
 - 토론: 국내외 참석자 전원
- 2010년도 역사학회 추계 학술 대회
 - 주제: 역사상의 首都와 別京
 - 일시: 2010년 11월 19일
 - 장소: 서울대 인문대 7동 3층 304호 대회 의실
 - 주최: 역사학회
 - 제1부

- 신라의 王京과 小京// 발표: 전택재(단국대)/ 토론: 여호규(한국외대)
- 조선 시대 한양의 수도성-공간 표현, 조직, 도시 위상을 중심으로-// 발표: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토론: 전우용(서울대병원)
- 원·명·청 시대 首都 北京과 陪都의 변천// 발표: 조영현(홍익대)/ 토론: 최재영(서울대)
- 제2부
 - 근대 일본의 帝都 탄생-교토에서 도쿄로-// 발표: 박삼현(건국대)/ 토론: 이은경(서울대 일본연구소)
 - 이중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역사성// 발표: 기계형(한양대)/ 토론: 오두영(강남대)
 - 유일한 수도 파리// 발표: 박용진(서울대)/ 토론: 최향란(성신여대)
- 한국목간학회 제5회 정기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11월 19일
 - 장소: 충남대 박물관
 - 사회: 김창석(강원대)
 - 목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문자 문화// 발표: 권인한(성균관대)/ 토론: 김영욱(서울시립대)
 - 6세기 신라 금석문의 서체// 발표: 정현숙(월전미술관)/ 토론: 이성배(충남대)
 - 태안 마도 2호선 발굴 목간의 현황과 내용// 발표: 임경희(국립해양유물전시관)/ 토론: 이병희(한국교원대)
 - 손영중, 『고구려사』(전5책, 2007·2008)에

- 소개된 새로운 문자 자료// 발표: 윤용구(인천도시개발공사)/ 토론: 공석구(한밭대)
- 총평: 주보돈(경북대)
- 국제한국사학회 제12회 월례 발표회
 - 주제: 헤어스타일의 혁명과 동양 삼국-조선의 단발령을 중심으로-
 - 일시: 2010년 11월 20일
 - 장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307호
 - 사회: 박정신(숭실대)
 - 발표: 이민원(원광대)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 국제 학술회의
 - 주제: 동아시아 '국제주의'의 복원을 위해서
 - 일시: 2010년 11월 25일~26일
 - 장소: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 대회이실
 - 주최: 인하대 BK21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한국학연구소(HK), 상하이대학 당대문화연구중심, 니이가타현립대
 - 文學-munhak, bungaku, wen xue// 기조 발표: 최원식(인하대)
 - 중국 근대 사상 속의 '아시아' 의식// 기조 발표: 王曉明(상하이대)
- 세션 A 제1부 사회: 심원섭, 이희환(인하대)
 - 주제: 교차하는 동아시아 문화
 - 근대 표준어 의식의 형성 과정// 발표: 안명철(인하대)
 - 근대 전환기 한국어와 중국어// 발표: 한성우(인하대)
 - 규스타브 르봉의 일본 수용 양상과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발표: 波田野節子(니이

- 가타현립대)
 - 최정희 『천맥』을 다시 읽는다// 발표: 山田佳子(니이가타현립대)
 - 한국 근대 아동 문학에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 발표: 원종찬(인하대)
 - 안석영과 岡本一平(오카모토 잇페이)// 발표: 신명직(구마모토학원대)
 -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소설과 영화-〈아랑은 왜?〉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비교// 발표: 김동식(인하대)
 - 패널 토론: 전형준(서울대), 김만수(인하대), 장윤희(인하대)
- 세션B 제1부 사회: 김진택, 윤진현(인하대)
 - 주제: 동아시아 문학의 상호 참조와 자기 반영
 - 신소설 작가들의 사회 진화론 수용 양태 연구// 발표: 유봉희(인하대)
 -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노라'-〈사랑과 죄>-// 발표: 최인숙(인하대)
 - 1930년대 이원조 문학 비평의 지향점// 발표: 양재훈(인하대)
 - 백석의 중국 체험// 발표: 왕염려(인하대)
 - 김사량의 작품과 일본-'소화 10년대 문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발표: 곽형덕(와세다대)
 -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의 번역 상황 및 전망// 발표: 성미강자(인하대)
 - 조선 문학가 동맹과 탈식민화// 발표: 존 그레이트(시카고대)
 - 1950년대 북한 아동 문학과 동아시아// 발표: 마성은(인하대)
 - 패널 토론: 신두원(민족문화사연구소), 박

- 세희(세종대)
 - <11월 26일>
 - 세션A 제2부 사회: 우경섭, 이호현(인하대)
 - 주제: 동아시아 사상/연대의 역동성
 - 19世紀 後半 응우옌 쩌엥 토의 '천하대세론'(1863)과 응우옌 로 짜익의 '천하대세론'(1892)-신세대의 등장과 사상적 전변-// 발표: 윤대영(인하대)
 - 19세기 말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의 동아시아 전통 사회 분석// 발표: 黃永福(베트남 남방지속발전연구소)
 - 근대 시기 베트남과 한국의 외래 문화 수용// 발표: 李春鍾(베트남 사회과학원)
 - 양계초가 번역한 동아시아-〈가인기우〉의 유통을 中心으로-// 발표: 백지운(인하대)
 - 武田泰淳·주체성·공공 영역// 발표: 히토쓰바시대[坂井洋史]
 - 식민지가 상상한 동아시아// 발표: 윤영실(인하대)
 - 아시아 상상의 가능성-50~60년대 중국 작가의 세계 시야-// 발표: 郭春林(통지대)
 - 고별·망각·방기된-20세기 아시아 인민 저항 속의 '국제주의'-// 발표: 靳大成(중국사회과학원)
 - 항일투쟁기 한중 인적 연대-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과 중화민국 정부 요원과의 관계를 中心으로-// 발표: 權寧俊(니이가타현립대)
 - 동아시아 '감정 구조'에 관한 시론-대만 日本 그리고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 발표: 汪宏倫(대만중앙연구원)

- 패널 토론: 최병욱(인하대), 임춘성(목포대), 류준필(인하대)
- 세션B 제2부 사회: 차인배, 윤진현(인하대)
- 주제: 통합적 문화·역사 의식의 실천으로서의 동아시아
- 근대 조약 체제와 조선 지역민의 해양 경계 인식-한반도 서해 지역 조·청민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황은수(인하대)
- 19세기 후반 조선을 바라본 서양인의 두 시선-로스와 그리피스-// 발표: 이영미(인하대)
-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관계// 발표: 데렉 크레머(토론토대)
- 식민지 조선 신여성의 자유 연애 현상과 담론 분석// 발표: 曹佑林(도쿄대)
- 탈북자 이슈로 보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 발표: 松岡佳奈子(도쿄대)
- 현대 서안의 '아시아 의식' -성당 환상을 둘러싸고-// 발표: 王昱娟(상하이대)
- 동아시아 속의 한류 현상-소프트파워 외교를 통한 한국 이미지 향상-// 발표: 마리안 델가도(필리핀 딜리만대)
- 패널 토론: 안중철(인하대), 김현석(인하대)
- ▣ 중앙아시아학회 국제 학술 대회
- 주제: 동아시아 고대 문화 속의 흉노
- 일시: 2010년 11월 27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주최: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중앙아시아학회
- 주관: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 부경대 인

- 문사회과학연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 협찬: 세계철출판사, 사회평론
- 제1부
- 흉노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 구축을 겸하여-// 발표: 강인욱(부경대)
- 흉노 귀족 계층 무덤의 연구// 발표: G. 에렉젠(몽골 과학아카데미)
- 제2부
- 흉노 제국의 정착민-이불가 성지 유적의 예-// 발표: 니콜라이 크라딘(러시아 과학아카데미)
- 차람 제국의 흉노 귀족 고분 유적// 발표: 세르게이 미나에프(러시아 과학아카데미)
- 제3부
- 秦 통일 이전의 내몽고 중남부 지역의 문화 다원화와 그 역사적 배경// 발표: 왕립신(길림대)
- 자바이칼 지역의 최근 흉노 연구// 발표: 바 이르 다쉬발로프(러시아 과학아카데미)
- 제4부
- 일본에서의 흉노 고고학 연구// 발표: 우스키 이사오(삿포로 학원대)
- 광활한 초원과 흉노인의 생존-고고학 증거를 중심으로-// 발표: 윤형원(국립대구박물관)
- 토론 좌장: 김호동(서울대)
- 박양진(충남대), N. 바트볼르드(몽골 과학아카데미), 장은정(국립중앙박물관)

- ▣ 12월 학술 발표
- ▣ 동아시아고대학회 제42회 학술 대회
- 주제: 강과 동아시아 문명
- 일시: 2010년 12월 3일~4일
- 장소: 인하대 5호관 남025호 강당
- 주관: 동아시아고대학회
- 후원: 인하대
- 〈12월 3일〉
- 강과 동아시아 문명// 기초 발표: 소재영(연변 과기대)
- 강과 축제-龍船競舟를 중심으로-// 발표: 이승수(중앙대)/ 토론: 정연학(국립민속박물관)
- 요하 문명과 동아시아 고대사// 발표: 우실하(항공대)/ 토론: 김선자(연세대)
-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과 한반도의 강// 발표: 강봉룡(목포대)/ 토론: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 북한강 유역 철기 시대 주거지에 대한 고찰// 발표: 박성우(인하대)/ 토론: 김상열(인천시립박물관)
- 명청대 장강 하류의 문예 부흥에 대하여// 발표: 권석환(상명대)/ 토론: 전보옥(광운대)
- 〈12월 4일〉
- 중국과 한국의 九曲歌 비교// 발표: 이효숙(강원대)/ 토론: 안장리(한중연)
- 고대 동아시아 문학과 漢水// 발표: 이상준(인천대)/ 토론: 박상현(경희사이버대)
- 〈吉野讚歌〉에 있어서의 산과 강의 이미지// 발표: 윤영수(경기대)/ 토론: 사이토(명지대)

- 동아시아 문명과 강해 도시들의 위상-형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 윤명철(동국대)/ 토론: 이재범(경기대)
- ▣ 연세대 국학연구원 제415회 국학 연구 발표회
- 일시: 2010년 12월 10일
- 장소: 연세대 국학연구원 회의실
- 주최: 연세대 국학연구원
- 후원: 한국연구재단
- 『問槎餘響』과 『日觀唱酬』 所載 南玉의 酬應詩 比較研究// 발표: 진영미(연세대)
- 중일 교류에 있어서 조선 통신사의 작용[朝鮮通信士 中日文化交流中的作用]// 발표: 徐毅(南通大)
- 1763년 필담 자료를 통해 본 에도에서의 문인 교류// 발표: 구지현(연세대)
- 연행록과 동사록의 체제와 편찬 과정 비교 고찰// 노경희(연세대)
- 朝鮮 丙子通信士 眼中에 비친 日本 社會, 曹命采의 <봉사 일본서문견록>을 중심으로// 발표: 徐東日(延邊大)
- 텐나 2년 통신사의 필담 창화-필어창수의 규제와 후지산 시-// 발표: 箕輪吉次(경희대)
- 후쿠오카 번과 통신사// 발표: 高橋吉次(福岡大)
- 토론: 임채명(단국대), 김정신(연세대), 정영문(숭실대), 강지희(연세대), 田阪正則(경희대), 허경진(연세대), 민덕기(청주대)
-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사학회 합동 학술 대회
- 주제: 단군과 고조선사 연구
- 일시: 2010년 12월 11일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세미나실

- 사회: 강봉룡(목포대)
- 청동기 시대 요동과 한반도의 교류// 발표: 이청규(영남대)/ 토론: 송호정(한국교원대)
- 동아시아 삼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비교// 발표: 서영대(인하대)/ 토론: 김성환(실학박물관)
- 위만 조선 사료에 대한 재검토// 발표: 서영수(단국대)/ 토론: 조법중(우석대)
- 고대사 교육과 박물관// 특별 강연: 최광식(국립중앙박물관)

▣ 신라사학회 학술 대회

- 주제: 장보고의 해상 활동과 신라사
- 일시: 2010년 12월 11일
- 장소: 서강대 가브리엘관 109호
- 주최: 신라사학회, 해상왕장보고연구원
- 주관: 신라사학회
- 후원: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제1부 사회: 조범환(서강대)
 - 개회식
- 제2부 사회: 조범환(서강대)
 - 주제: 장보고의 해상 활동 탐구
 - 청해진의 해상 방위와 군사 운용// 발표: 신성재(해군사관학교)/ 토론: 김대중(전쟁기념관)
 - 장보고와 청해진의 비교사적 고찰-청해진의 역사적 성격 및 해적을 중심으로-// 발표: 이영(한국방송통신대)/ 토론: 권덕영(부산외대)
 - 당대 호시와 장보고의 대당 교역// 발표: 정병준(동국대)/ 토론: 이현숙(이화여대)
- 제3부 사회: 김병곤(동국대)

- 역사와 문학을 보는 관점-장보고계 역사 소설의 비교 및 전망-// 발표: 송희복(진주교대)/ 토론: 이재범(경기대)
-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연구// 발표: 이민수(육군사관학교)/ 토론: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제4부 사회: 김병곤(동국대)

- 주제: 신라의 역사와 대외 진출
-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수군 기지 추정// 발표: 김창겸(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김덕원(명지대)
- 8세기 동아시아의 교역과 법륜사의 백단향// 발표: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토론: 이유진(숭실대)

- 중국 평양 신라묘 기록과 현황// 발표: 박현규(순천향대)/ 토론: 장일규(국민대)
- 총평: 김문경(해상왕장보고연구원)

▣ 중국사학회 제69회 학술 대회

- 주제: 역사상의 중국과 한국
- 일시: 2010년 12월 11일
- 장소: 인하대 문과대 교수회의실
- 제1차 발표회 사회: 임병덕(충북대)
 - 北魏 思维像 圖像// 발표: 고혜련(동의대)/ 토론: 김원경(수원대)
 - 무술변법시기 호남성 지식인의 서원 개혁 구상// 발표: 이영란(이화여대)/ 토론: 이영옥(성신여대)
- 제2차 발표회 사회: 이준갑(인하대)
 - 譯官 홍순언(1530~1598)과 朝明外交// 발표: 김영숙(인하대)/ 토론: 우경섭(인하대)
 - 개항 이후 煙台무역의 추이와 성격(1864

- ~1911)// 발표: 유창(인하대)/ 토론: 김형열(동의대)
- 조선왕조실록에 비친 내륙 아시아 정세// 발표: 홍성구(경북대)/ 토론: 박장배(인천대)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13차 월례 발표회

- 일시: 2010년 12월 17일
- 장소: (재)선학원 2층 회의실
- 주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사회자: 이병욱(고려대)
 - 宋代 理學에 미친 佛敎의 영향// 발표: 김진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토론: 김용남(성균관대)
 - 고려 후기 승려들의 유교관의 변천 과정-성리학 도입 전후와 관련하여-// 발표: 이덕진(창원전문대)/ 토론: 이정주(단국대)
- 종합 토론

▣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10년 학술회의

- 주제: 동북아 국제정세와 韓·滿 지역 국가의 대외교섭
-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일시: 2010년 12월 17일
- 장소: 한국외대 이문동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
- 제1부 사회: 문형진(한국외대)
 - 馬具를 통해본 高句麗와 前燕의 문물 교류// 발표: 정동민(한국외대)/ 토론: 장은정(국립중앙박물관)
 - 渤海와 靺鞨 諸部の 對唐交涉// 발표: 김중복(성균관대 박물관)/ 토론: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 10세기 동북아 국제 정세와 거란의 요동 정책// 발표: 나영남(한국외대)/ 토론: 조복현(중앙대)
- 14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발표: 윤은숙(경북대)/ 토론: 김순자(한신대)

○제2부 사회: 여호규(한국외대)

- 종합 토론
- ▣ 한국사학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대회
 - 주제: 역사주의를 다시 본다
 - 일시: 2010년 12월 18일
 - 장소: 서강대 국제지역문화원 세미나실
 - 주최: 한국사학사학회
 - 주관: 서강대 사학과

○제1부 사회: 육영수(중앙대)

- 역사주의와 반역사주의// 기초 발표: 이한구(성균관대)
- 계몽과 역사주의// 발표: 최호근(고려대)
- 역사주의의 위기-에른스트 트렐치의 서구 문명 위기 위식-// 발표: 임상우(서강대)

○제2부 사회: 박인호(금오공대)

- 중국에서의 역사주의// 발표: 최병수(충북대)
- 중국의 근대화와 역사주의// 발표: 김수영(국민대)
- 한국에서의 역사주의 수용-이기백 한국사학 연구의 초석-// 발표: 노용필(한국사학연구소)
- 우리 시대에서 역사주의란 무엇인가?// 발표: 김기봉(경기대)

○제3부: 종합 토론 사회: 육영수(중앙대)

▣ 부산경남사학회 12월 학술 대회

- 일시: 2010년 12월 20일

- 장소: 한국해양대 종합관
 - 주최: 부산경남사학회,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대
- <제1분과>
- 제1부 사회: 김승(한국해양대)
- 도시와 국가의 길항 관계에 대한 현대사적 고찰-연구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 우양호(한국해양대)/ 토론: 문경주(부산대)
 - 동아시아 해항 도시의 이문화 공간 형성과 국가 정책-부산시 초량동 중화 거리에 대한 통시대적 고찰을 통해-// 발표: 구지영(한국해양대)/ 토론: 하세봉(한국해양대)
- 제2부 사회: 이광수(부산외대)
- 부산 차이나타운의 가로 경관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성과 국가주의의 길항성// 발표: 김나영(한국해양대)/ 토론: 김형열(동의대)
 - 산동인에서 대만 국민으로-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발표: 안미정(한국해양대)/ 토론: 이창호(한국학중앙연구원)
- <제2분과>
- 제1부 사회: 이용일(부산대)
- 明의 海禁政策과 泉州人の 海上活動-成化年間 泉州市船司 廢止 이후를 중심으로-// 발표: 최낙민(한국해양대)/ 토론: 민경준(부산대)
 - 식민 시기 프랑스 제국의 식민 정책과 해항 도시 사이공의 크로스보더성과의 관계// 발표: 노영순(한국해양대)/ 토론: 김종욱(청

- 운대)
- 제2부 사회: 최은순(한국해양대)
- 1871년 마르세유 코뮌 연구-해항 도시의 코뮌적 자치와 국가 권력의 충돌-// 발표: 현재열(한국해양대)/ 토론: 이학수(해군사관학교)
 - 혼종적 정체성의 해항 도시: 식민과 탈식민, 내셔널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사이의 홍콩-〈아비정전 阿飛正傳〉·〈중경삼림 重慶森林〉에 나타난 도시 이미지 분석-// 발표: 이송이(한국해양대)/ 토론: 박노중(동의대)
- 제3부 좌장: 류교열(한국해양대)
- 종합 토론 및 폐회
- ▣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제11회 백제 문화 콜로키움
- 주제: 백제 고고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주최: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 일시: 2010년 12월 23일
 - 장소: 공주대 인문사회과학대학 111호
 - 백제 고고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 임영진(전남대)/ 토론: 연구자·학생 및 일반 시민

(2) 중국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 월 | 일 | 제 목 | 주 제 |
|---|-------|--|---|
| 1 | 16~17 | '사회, 경제, 관념사의 시야로 본 고대 중국' 국제 청년 학술회의[“社会,经济,观念史视野中的古代中国”国际青年学术会议] | 사회, 경제, 관념사의 시야로 본 고대 중국 |
| 3 | 25~26 | 동북3성 조선어문 협력 연석회의[东北三省朝鲜语文协作联席会议] | 각 성의 2009년도 조선어문 사업 현황, 동북 3성의 협력 사업 회고, 협력 사업 중 발생한 문제 분석, 향후 협력 작업의 노력 방향에 대한 논의, 금년의 협력 사항 협의 |
| 4 | 19 | 제1회 고고학과 교차 문화유산 포럼[首届考古学与跨文化遗产论坛] | 3세기~6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출토된 '교차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평가 |
| 5 | 25 | 길림성 만주족 문화 및 관광 문화 심포지엄[吉林省满族文化暨旅游文化研讨会] | 만주족 문화의 특색과 가치, 만주족 문화와 길림 장춘 관광, 민족의 모습과 지역의 형상, 무형 문화재의 관점에서 본 만주족 샤머니즘, 만주족 문화와 장백산 관광, 만주족 문화 생태 공원 조성에 관한 구상, 만주족 문화와 관광 문화의 관계, 장백산 동북 항일 연합군 관광 항목 건설에 관한 건의 |
| 6 | 15~17 | '운현인' 두개골 화석 발견 2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郿县人”头骨化石20周年国际学术研讨会] | |
| | 18~20 | 2010년 중국고고학회 동북 편구회[2010年中国考古学会东北片区会] | 동북 및 내몽골 동부 고고의 과거·현재·미래 |
| | 22 | 제1회 한중일 국제 우호 문화 학술 포럼[韩中日国际学术论坛] | 장보고와 법화 사상 |
| | 22 | 도문강 문화 포럼[图们江文化论坛] | 도문강 문화의 발전, 도문강 관광 문화 브랜드의 정립 등 |
| | 25~27 | 2010년 북방 민족 발전 포럼[2010年北方民族发展论坛] | 소수 민족과 민족 지구의 안전하고 신속한 발전 촉진, 조화로운 민족 관계 촉진, 민족 지구의 안정 확보 |
| 8 | 26~28 | 장백산과 만주족 문화 심포지엄[长白山与满族文化研讨会] | 장백산 문화 및 만주족 문화의 보호와 계승 문제 |
| | 7~11 | '중국 고대 북방 민족 변강과 장성 문화 연구' 고위급 심포지엄[“中国古代北方民族疆域与长城文化研究”高层论坛] | 중국 고대 북방 민족 변강과 장성 문화 연구 |
| | 9~11 | '청대 정치와 국가 인식' 국제 학술 대회[清代政治与国家学术研讨会] | 청대 국가와 민족 인식, 청대의 정치 문화, 청대 정치 제도 및 사회 변천 등의 문제 |
| | 13~15 | 고대 위진 무덤과 하서 역사 문화 국제 학술회의[高台魏晋墓与河西历史文化国际学术研讨会] | 고대 위진 무덤, 낙타성 유적, 하서 역사 문화 및 실크로드 역사 문화 등 |
| 8 | 20 | '중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 학술회의 | 중국 발전과 조선 반도 평화 및 발전 |
| | 21 | 제1회 곤륜 문화와 서왕모 신화 국제 학술 포럼[首届昆仑文化与西王母神话国际学术论坛] | 곤륜 문화와 서왕모 신화 |

| 월 | 일 | 제 목 | 주 제 |
|----|-------|---|---|
| 8 | 25~27 | '오르노스 청동기와 초기 동서방 교류-북방 통로' 국제 학술회의[鄂尔多斯青铜器与早期东西方文化交流国际学术研讨会] | 북방 초원의 통로, 동서방 문화 교류와 오르노스 청동기 등 |
| | 29~30 | 전국 제11회 고고와 문물 보호 화학 학술 회의 [全国第十一届考古与文物保护化学学术研讨会] | 고고와 문물 보호에 대한 신기술 |
| | 30~1 | '만화-역사와 현상' 국제 학술 심포지엄[“满学-历史与现状”国际学术研讨会] | 역사와 현상 |
| 9 | 4~5 | '청대 정치 제도와 민족문화' 학술 심포지엄[“清代政治制度与民族文化”学术研讨会] | 청대 정치 제도와 민족문화 |
| | 15 | 제9회 중일한 박물관 국제 심포지엄[第九届中日韩博物馆国际学术研讨会]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
| | 27~29 | 제3회 세계 유학 대회[第三届世界儒学大会] | 유학 문화와 조화로운 세계 |
| 10 | 7~8 | 흑룡강성 동쪽 변강 우수리강 문화 포럼[黑龙江省东疆乌苏里江文化论坛] | |
| | 13~15 | 제2회 중국 문자 발전 포럼[第二届中国文字发展论坛] | 문자와 민족문화 |
| | 14~16 | '변계 문제와 서남 변경 안정' 학술 심포지엄[“边界问题暨西南边疆稳定”学术研讨会] | 변계 문제와 서남 변경 안정 |
| | 23~24 | 변강 발전 중국 포럼 2010[边疆发展中国论坛2010] | 발전 방식의 변혁과 새로운 메커니즘 창조 |
| 11 | 28~31 | 제2차 국제 궁정 유적 박물관 포럼[第二届国际宫廷遗址博物馆论坛] | 궁정 박물관 진열 전시의 특수성 |
| | 12 | 중국 인민 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60주년 기념 학술 보고회[纪念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出国作战周年学术报告会] | 항미원조의 전략 결정 및 신중국에 대한 중요한 의의, 항미원조와 신중국의 국방 건설, 항미원조의 정치적 영향과 그 당시의 의의, 항미원조와 국내 경제의 건설 등 |
| | 28 | 도문강 구역 다변 합작 개발 추진 전략 포럼[图们江区域多边合作开发推进战略论坛] | 도문강 구역의 교통 체계 편제 전략, 도문강 구역의 개발과 동북아 구역 발전의 관계, 도문강 구역의 다변 합작 개발 배경 문제 등 |
| 12 | 4 | 제1회 동북아 민족문화 포럼[第一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 | 세계화와 구역 시야 중의 동북아 민족문화, 동북아 지구의 민족문화 교류와 문화 인식, 동북아 민족문화와 교류사, 동북아 민족문화 발전 방향 등 |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1월 학술 발표

▣ '사회·경제·관념사의 시야로 본 고대 중국' 국제 청년 학술회의[“社会, 经济, 观念史视野中的古代中国”国际青年学术会议]

- 주제: 사회·경제·관념사의 시야로 본 고대 중국
- 일시: 2010년 1월 16일~17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칭화대 인문사회과학학원 역사학과
- 참가자: 중국과 타이완을 비롯하여 일본·한국·싱가포르 등 17개의 유명 대학에서 온 54명의 역사학 전공자

〈1월 16일 오전〉
주최위원장 주제 보고

-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야// 발표: 李学勤(베이징칭화대)
- 지역성과 초지방성[地方性与跨地方性]// 발표: 李卓颖(신주칭화대)
- 중국 역사상의 장기-질병의 구축, 환경 변천 및 제국의 융합-[中国历史上的瘴-疾病构建, 环境变迁以及帝国的融合-]// 발표: 杨斌(싱가포르국립대)

〈1월 16일 오후〉

- 선진 진한사[先秦秦汉史] 전장 제1장
총평: 李若晖(复旦대)
- 사회자: 陈颖飞(베이징칭화대[北京清华大]출토문헌과보호센터)
- 원시 개천설부터 수리 개천설까지의 논의 [从原始盖天说到数理盖天说]// 발표: 梅政

清(칭공대)/ 토론: 雷中行(베이징칭화대)

- 한대 여성 정표의 역사적 관점[汉代表女性的历史透视]// 발표: 韩帅(베이징사범대)/ 토론: 张静(싱가포르국립대)
- 3종의 '자연' 관념을 통해서 본 한나라와 위나라의 사상 변천[论三种“自然”观念透视下的汉魏思想变迁]// 발표: 张静(싱가포르국립대)/ 토론: 韩帅(베이징사범대)
- 사상의 불일치가 관점 유간의 일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思想不一致能否认郭店儒简出于一派吗?]/ 발표: 刘光胜(베이징칭화대)/ 토론: 张茹娇(싱가포르국립대)
- 진나라의 정치 상황을 통해 『려씨춘추』의 중사 현상에 대해 논의[从秦国政治情势论《吕氏春秋》的重土现象]// 발표: 张茹娇(싱가포르국립대)/ 토론: 刘光胜(베이징칭화대)

〈1월 16일 오후〉

- 위진 남북조, 수, 당, 송, 원사[魏晋南北朝隋唐宋元史] 전장 제1장
총평: 刘后滨(중국런민대)
- 사회자: 李毅婷(베이징칭화대)
- 수나라와 당나라의 정중제 탐구[隋唐丁中制探源]// 발표: 徐畅(중국런민대)/ 토론: 张天虹(서우두사범대)
- 당대 관원의 부모 守喪과 해관 제도의 특징 [唐代官员父母守丧与解官制度的特点]// 발표: 金正植(베이징칭화대)/ 토론: 张雨(중국런민대)
- 당대 양관생과 과거 연구[唐代两馆生与科

· 举研究// 발표: 林生海(서우두사범대)/ 토론: 徐畅(중국런민대)

· 천성 『옥관령』 송 46조의 형성 분석[天圣《狱官令》宋46条形成试析]// 발표: 张雨(중국런민대)/ 토론: 林生海(서우두사범대)

· 당대 향리제하 이정의 치안 유지 활동에 관해[关于唐代乡里制下里正的治安维持活动]// 발표: 石野智大(메이지대)/ 토론: 赵璐璐(베이징칭화대)

<1월 16일 오후>

명청사[明清史] 전장 제1장

총평: 龙登高(베이징칭화대)

사회자: 彭波(베이징칭화대)

· 명대 몽원 복식 유물에 대한 고찰[明代的蒙元服饰遗存考]// 발표: 罗玮(서우두사범대)/ 토론: 陈冠华(신주칭화대)

· 명나라 중엽, 강남 진신의 ‘식산욕망’으로의 관념 전환 하에서 일어난 사상 충돌[明中叶江南缙绅“殖产欲望”观念转折下的思想冲突]// 발표: 陈冠华(신주칭화대)/ 토론: 吴静芳(청공대)

· 명나라 중후기, 부역 개혁 중의 주현 관원과 지방 사회 연구[明中后期赋役改革中的州县官员与地方社会]// 발표: 陈瑶(홍콩중문대)/ 토론: 张纯宁(청공대)

· 변동 중인 명대 후기 徽州 사회[变动中的明代后期徽州社会]// 발표: 张纯宁(청공대)/ 토론: 陈瑶(홍콩중문대)

· 명말 청초의 사회 적선 관념과 자식을 구하는 염원의 연관성[明末清初社会积善观念与求子愿望的连结]// 발표: 吴静芳(청공대)

대)/ 토론: 罗玮(서우두사범대)

<1월 17일 오전>

선진 진한사[先秦秦汉史] 전장 제2장

총평: 侯旭东(베이징칭화대)

사회자: 陈颖飞(베이징칭화대)

· 천하 관념과 주나라 초기의 都 雒邑 건설[天下观念与周初之建都雒邑]// 발표: 钟春晖(베이징대)/ 토론: 雷晋豪(타이완대)

· 서주 말기 왕조 군사의 풍파와 좌절[西周晚期王朝军事的波折与顿挫]// 발표: 雷晋豪(타이완대)/ 토론: 钟春晖(베이징대)

· 진한 시기 ‘데릴사위’와 ‘女户’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秦汉时期“赘婿”和“女户”的综合考察]// 발표: 李欣(베이징사범대)/ 토론: 项峰(베이징칭화대)

· 하남 지구 한대 사회의 병행 발전[河北地区汉代社会的双轨发展]// 발표: 王海(베이징사범대)/ 토론: 张天虹(서우두사범대)

· 한간으로 본 변경 지역 수소의 육식 소비[汉简所见边地戍所的肉食消费]// 발표: 赵宠亮(중국런민대)/ 토론: 王海(베이징사범대)

<1월 17일 오전>

위진 남북조, 수, 당, 송, 원사[魏晋南北朝隋唐宋元史] 전장 제2장

총평: 方诚峰(베이징칭화대), 林鹄(베이징칭화대)

사회자: 李毅婷(베이징칭화대)

· 소학의 성립과 그 정치론[小学의成立和其政治论]// 발표: 윤인숙(성균관대)/ 토론: 刘成群(베이징칭화대)

· 중고 시대 이후 상장례 제도의 변화[中古以降丧葬礼制的下移]// 발표: 王铭(베이징칭화대)/ 토론: 许若茜(중앙민주대)

· 집단 여흥, 은둔과 다원 숭배[娱群遁世与多元崇拜]// 발표: 许若茜(중앙민주대)/ 토론: 范洋达(신주칭화대)

· 원대 모든 색의 호계를 바꾼 원인과 정황[元代诸色户计改色的原因与情况]// 발표: 范洋达(신주칭화대)/ 토론: 王水涣(中华书局)

· 원대 신한 이학의 ‘唯朱是宗’에서 ‘唯朱是宗’으로의 전향[元代新安理学从“唯朱是宗”到“和会朱陆”的转向]// 발표: 刘成群(베이징칭화대)/ 토론: 匡钊(베이징칭화대)

<1월 17일 오전>

명청사[明清史] 전장 제2장 A조

총평: 仲伟民(『청화대학학보』편집위원)

사회자: 李阳(베이징칭화대)

· 민간 습속과 국가의 개입-청나라 말기 관제 혼인 증명서의 보급-[民间习俗与国家介入-清末官制婚书之推行-]// 발표: 吴佩林(중국런민대)/ 토론: 魏兵兵(싱가포르국립대)

· ‘풍류’와 ‘풍속’-‘외설적인 연극’과 청나라 말기 상해의 공공 오락-[“风流”与“风化”-“淫戏”与晚清上海公共娱乐-]// 발표: 魏兵兵(싱가포르국립대)/ 토론: 吴佩林(중국런민대)

· 청나라 말기 학자의 『천연론』 자연 지식에 대한 이해[晚清士人对《天演论》自然知识的理解]// 발표: 雷中行(베이징칭화대)/ 토론: 梅政清(청공대)

· 건국 시조 신성성에 대한 중국인의 관념-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中国人对建国始祖神圣性的观念-与韩国和日本的事例比较-]// 발표: 김종성(성균관대)/ 토론: 赵容俊(베이징칭화대)

· 경강상인 김세만의 활동과 상인으로서의 성질[京江商人金世万的活动和作为商人的性质]// 발표: 안길정(성균관대)/ 토론: 하원수(성균관대)

<1월 17일 오전>

명청사[明清史] 전장 제2장 B조

총평: 张勇(베이징칭화대)

사회자: 谭红艳(베이징칭화대)

· 장실제의 가학 분석-역사철학의 관점 비교-[章实斋的“家学”辨析-比较历史哲学的视域-]// 발표: 顾晓伟(푸단대)/ 토론: 袁剑(프라이부르크대)

· 경학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일례-경제사조 영향 하의 『오례통고』 수용사-[由经入史之一例-经世思潮影响下的《五礼通考》接受史-]// 발표: 张涛(베이징칭화대)/ 토론: 顾晓伟(푸단대)

· ‘국어’의 흥망-청조 ‘만주어 사고’의 변이에 대한 약술-[“国语”兴亡-清朝“满语思路”的流变略论-]// 발표: 袁剑(프라이부르크대)/ 토론: 赖钰匀(베이징칭화대)

· 도본 『십육국춘추』고 [屠本《十六国春秋》考]// 발표: 梶山智史(메이지대)/ 토론: 张齐明(중국런민대)

· 단방의 금석품 수집과 청나라 말기의 전시 문화[端方的金石收藏与晚清展示文化]// 발

표: 赖钰匀(베이징칭화대)/ 토론: 张涛(베이징칭화대)

<1월 17일 오후>

선진진한사[先秦秦汉史] 전장 제3장

총평: 廖名春(베이징칭화대)

사회자: 陈颖飞(베이징칭화대)

• 출토 자료로 본 서주 왕조와 제후의 관계 [从出土资料看西周王朝和诸侯的关系]// 발표: 冈本真则(와세다대)/ 토론: 张德良(베이징칭화대)

• 서한 시기 관내후의 성립과 그 변화[西汉时期关内侯的成立及其变化]// 발표: 植身智志(와세다대)/ 토론: 李欣(베이징사범대)

• 갑골 문자에서 보이는 무속인의 건축 무술 활동[甲骨文所见之巫者的建筑巫术活动]// 발표: 赵容俊(베이징칭화대)/ 토론: 冈本真则(와세다대)

• 方鼎을 사용하지 않은 시대에 대한 재탐구 [不方鼎时代再探]// 발표: 张德良(베이징칭화대)/ 토론: 赵容俊(베이징칭화대)

• 주마루 오간으로 본 곳간 관계 문서와 재정 시스템[走马楼吴简所见库关系簿与财政系统]// 발표: 谷口建速(와세다대)/ 토론: 赵宠亮(중국런민대)

<1월 17일 오후>

위진 남북조, 수, 당, 송, 원사[魏晋南北朝隋唐宋元史] 전장 제3장

총평: 宁欣(베이징사범대)

사회자: 李毅婷(베이징칭화대)

• 북주 무제 시기의 삼교 논쟁[北周武帝时期的三教论谈]// 발표: 曾尧(타이완대)/ 토론:

侯海洋(서우두사범대)

• 사헌성 부자와 번진 위박[史宪诚父子与藩镇魏博]// 발표: 张龙(베이징대)/ 토론: 胡耀飞(산시사범대)

• 『황정경』 연구사와 당대 수도의 전형[《黄庭经》研修史与唐代修道转型]// 발표: 李平(베이징칭화대)/ 토론: 曾尧(타이완대)

• 당나라 중후기 묘지에 기록된 질병과 의료 [中晚唐墓志中的疾病与医疗书写]// 발표: 侯海洋(서우두사범대)/ 토론: 李平(베이징칭화대)

• 양주에서 금릉까지-군정 중심 지역 이원화의 시각에서 본 오당의 선대-[从扬州到金陵-军政中心地域二元化视角下的吴唐禅代-]// 발표: 胡耀飞(산시사범대)/ 토론: 张龙(베이징대)

<1월 17일 오후>

명청사[明清史] 전장 제3장

총평: 陈争平(베이징칭화대)

사회자: 雷中行(베이징칭화대)

• 청대 전기 순염어사 파견 제도의 변천[清代前期巡盐御史差遣制度的变迁]// 발표: 王士铭(신주칭화대)/ 토론: 席会东(베이징대)

• 『예동황하전도』와 옹정조의 하천 정책[《豫东黄河全图》与雍正朝河政]// 발표: 席会东(베이징대)/ 토론: 林子雅(청공대)

• 청대(1723~1850) 호서관 세수 변화와 소주 경제 지위의 관계[清代(1723~1850)浒墅关税收变化与苏州经济地位之关系]// 발표: 林子雅(청공대)/ 토론: 王士铭(신주칭화대)

• 근세 소작농의 독립성 실증 연구[近世佃农的独立性实证研究]// 발표: 彭波(베이징칭화대)/ 토론: 张湖东(베이징칭화대)

<1월 17일 오후>

역사지리 전장

총평: 韩茂莉(베이징대)

사회자: 谭红艳(베이징칭화대)

• 역사 시기 수려강의 수계 변천 및 관련 문제 연구[历史时期疏勒河水系变迁及相关问题研究]// 발표: 张景平(베이징칭화대)/ 토론: 陈倩(베이징대)

• 『정양교소거기』 비석과 천교 지구의 환경 변천[《正阳桥疏渠记》碑与天桥地区的环境变迁]// 발표: 陈倩(베이징대)/ 토론: 李硕(베이징칭화대)

• 명청 시기 북악으로 제사를 옮긴 사건의 지식사 배경[明清北岳移祀事件的知识史背景]// 발표: 牛敬飞(베이징칭화대)/ 토론: 张瑞龙(중국런민대)

• 청대 관화본 전국여도 제작에 대한 고찰- 옹정 시기 15개 성의 소총도를 중심으로-[清代官绘本全国舆图绘制考察-以雍正时期15省小总图为中心-]// 발표: 李明喜(베이징대)/ 토론: 牛敬飞(베이징칭화대)

• 유유의 후진 정벌 “수군출석문” 변정[刘裕伐后秦“水军出石门”辨正]// 발표: 李硕(베이징칭화대)/ 토론: 张齐明(중국인민대)

3월 학술 발표

▣ 동북3성 조선어문 협력 연석 회의[东北三省朝鲜语文协作联席会议]

• 주제: 각 성의 2009년도 조선어문 사업 현황, 동북 3성의 협력 사업 회고, 협력 사업 중 발생한 문제 분석, 향후 협력 작업의 노력 방향에 대한 논의, 금년의 협력 사항 협의

• 일시: 2010년 3월 25일~26일

• 장소: 중국 장춘

• 참가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주임과 부주임, 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요녕성 민족사무위원회 부 순시원 등 간부와 산하의 민족사무위원회에 속하는 조선어문 관련 종사자

4월 학술 발표

▣ 제1회 고고학과 교차 문화유산 포럼[首届考古学与跨文化遗产论坛]

• 주제: 3~6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출토된 ‘교차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평가

• 일시: 2010년 4월 19일

• 장소: 난징대

• 주관: 난징대

• 참가자: 한신대, 인제대, 서울여자대, 충북대, 서강대, 부경대 및 연구 기관의 전문가와 학자를 비롯하여 난징대, 난징박물관, 난징사범대의 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

■ 5월 학술 발표

▣ 길림성 만주족 문화 및 관광 문화 심포지엄[吉林省满族文化暨旅游文化研讨会]

- 주제: 만주족 문화의 특색과 가치, 만주족 문화와 지린 장춘 관광, 민족의 모습과 지역의 형상, 무형 문화재의 관점에서 본 만주족의 샤머니즘, 만주족 문화와 장백산 관광, 만주족 문화 생태 공원 조성에 관한 구상, 만주족 문화와 관광 문화와의 관계, 장백산 동북 항일 연합군 관광 항복 건설에 관한 건의
- 일시: 2010년 5월 25일
- 장소: 중국 길림성
- 주관: 길림성 관광문화촉진회, 이통 만주족 자치현 관광국
- 참가자: 길림성의 민속 문화와 관광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학자

■ 6월 학술 발표

▣ '운현인' 두개골 화석 발견 2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郿县人”头骨化石20周年国际学术研讨会]

- 일시: 2010년 6월 15일~17일
- 장소: 중국 운현
- 주최: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성문물국, 십연시 정부
- 주관: 성박물관, 성고고연구소, 운현 정부
- 참가자: 미국, 한국 및 중국과학원, 국가문물국, 베이징대, 난징박물관 등에서 온 50여 명의 전문가

▣ 2010년 중국고고학회 동북 편구회[2010年中国考古学会东北片区会]

- 주제: 동북 및 내몽골 동부 고고의 과거·현재·미래
- 일시: 2010년 6월 18일~20일
- 장소: 중국 장춘
- 주최: 중국고고학회
- 주관: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 참가자: 중국고고학회 이사장과 부이사장, 국가문물국 문물보호여고고사 사장,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고궁박물관의 동북 고고 연구 종사자, 동북3성과 내몽골 지구의 고고연구소 지도자 및 지린대 변강고고연구소

〈주제 발표〉

- 청동기 시대 고고학 문화의 구계 유형[青铜器时代考古学文化的區系類型]// 발표: 王洪峰(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 고구려, 발해 고고학 연구의 회고와 생각[高句丽、渤海考古學研究的回顾与思考]// 발표: 宋玉彬(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 과학적인 지도와 이성적인 참여-길림성 고고 참여 하의 대유적지 보호 사업-[科學指導、理性參與-談吉林省考古參與下的大遺蹟保護工程-]// 발표: 唐音(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 내몽골 동남부 고고학 연구의 현상과 과제[內蒙古東南部考古學研究的現狀與課題]// 발표: 曹建恩(내몽골자치구문물고고연구소)

- 몽골국 유목 문화 유물에 대한 개술[蒙古國游牧文化遺存概述]// 발표: 陈永志(내몽골자치구문물고고연구소)
- 한나라가 요녕에 사군을 설치하기 이전 이곳의 고고학적 문화와 과제[遼寧漢四郡以前本地的考古學文化與課題]// 발표: 華玉冰
- 요녕 지역 고구려 고고의 회고와 전망[遼寧地區高句麗考古的回顧與展望]// 발표: 李新全
- 한당 시기 요녕성의 고고[遼寧省漢唐時期的考古]// 발표: 田立坤
- 흑룡강의 구석기 유물 분포·연대 및 공예 유형[黑龍江旧石器遺存的分布、年代和工藝類型]// 발표: 李有騫
- 신석기 시대부터 남북조 시기까지 흑룡강 고고학 문화의 편년 계보[黑龍江新石器時代至南北朝考古學文化的編年譜系]// 발표: 張偉
- 흑룡강의 발해와 요금 고고에 대한 개술[黑龍江渤海、遼金考古概述]// 발표: 趙永軍
- 동북 지구 고인골 연구의 새로운 진전[東北地區古人骨研究的新進展]// 발표: 朱泓
- 중국 동북 지역 구석기 고고 연구의 새로운 진전[中國東北地區舊石器考古研究的新進展]// 발표: 陳全家
- 동북 지구 신석기 시대 고고학 문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東北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的時空框架]// 발표: 趙賓福
- 청동기 시대 동북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 구계 문제[東北青銅器時代考古學文化區系問題]// 발표: 朱永剛

- 동북·내몽골 요금원의 고고학적 현상과 문제[東北、內蒙古遼金元的考古現狀與問題]// 발표: 彭善國

▣ 제1회 한·중·일 국제 우호 문화 학술 포럼[韓中日国际学术论坛]

- 주제: 장보고와 법화 사상
- 일시: 2010년 6월 22일
- 장소: 산둥성 적산 법화원
- 주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장보고역사 연구회, 입석사
- 참가자: 한·중·일 세 나라에서 온 학자

▣ 도문강 문화 포럼[图们江文化论坛]

- 주제: 도문강 문화의 발전, 도문강 관광 문화 브랜드의 정립 등
- 일시: 2010년 6월 22일
- 장소: 중국 도문시
- 주최: 연변주 인민정부, 길림성려유국, 길림성경제기술
- 주관: 연변주위선전부, 도문시위원회와 시 정부
- 참가자: 관련 전문가, 학자, 당정 책임자

▣ 2010년 북방 민족 발전 포럼[2010年北方民族发展论坛]

- 주제: 소수 민족과 민족 지구의 안전하고 신속한 발전 촉진, 조화로운 민족 관계 촉진, 민족 지구의 안정 확보
- 일시: 2010년 6월 25일~27일
- 장소: 중국 장춘
- 주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주관: 길림성민족위원회

▣ 장백산과 만주족 문화 심포지엄[长白山与满族文化研讨会]

- 주제: 장백산 문화 및 만주족 문화의 보호와 계승 문제
- 일시: 2010년 6월 26일~28일
- 장소: 길림성 장춘시
- 주최: 장춘사범학원 민족문화연구소
- 참가자: 중앙민주대, 난카이대, 지린대, 둥베이사범대, 헤이룽장대, 네이멍구 민주대, 다롄대, 장춘대, 길림성사회과학원, 요녕성민족연구소 등 수십 개 기관과 7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

■ 8월 학술 발표

▣ '중국 고대 북방 민족 변강과 장성 문화 연구' 고위급 심포지엄[“中国古代北方民族疆域与长城文化研究”高层论坛]

- 주제: 중국 고대 북방 민족 변강과 장성 문화 연구
- 일시: 2010년 8월 7일~11일
- 장소: 중국 적봉
- 주최: 중국진한사학회
- 주관: 네이멍구 건설청 노동보험 비용 관리 센터, 적봉학원 역사문화학원
- 참가자: 중국런민대, 중국사회과학원, 둥베이사범대, 지린대, 베이징대, 허난대, 정저우대, 수조우대, 쉬저우사범대, 난징사범대, 지린사범대, 헤이룽장대, 장춘이공대, 적봉학원, 한국 경북대에서 온 30여 명의 전문가

▣ '청대 정치와 국가 인식' 국제 심포지엄[清代政治与国家学术研讨会]

- 주제: 청대 국가와 민족 인식, 청대의 정치 문화, 청대 정치 제도 및 사회 변천 등의 문제
- 일시: 2010년 8월 9일~11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 참가자: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타이완 등에서 온 60여 명의 학자

▣ 고대 위진 무덤과 하서 역사 문화 국제 학술 회의[高台魏晋墓与河西历史文化国际学术研讨会]

- 주제: 고대 위진 무덤, 낙타성 유적, 하서 역사 문화 및 실크로드 역사 문화 등
- 일시: 2010년 8월 13일~15일
- 장소: 중국 장액시 고대현
- 주최: 중국 공산당 고대현 위원회, 고대현 정부, 감숙성돈황학회, 돈황연구원문헌소, 하서학원 등
- 협찬: 중국돈황석굴보호연구기금회, 감숙성 박물관고고연구소, 감숙성박물관, 란저우대 돈황학연구소, 감숙성역사학회, 란저우상학원돈황문화연구소 등
- 참가자: 한국, 일본, 홍콩의 대학 및 중국사회과학원 등에서 온 70여 명의 전문가

▣ '중국 발전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 학술회의

- 주제: 중국 발전과 조선 반도의 평화 및 발전
- 일시: 2010년 8월 20일
- 장소: 중국 장춘

- 주최: 장춘한국학연구소
- 참가자: 장춘한국학연구소, 한국 원광대 평화연구소, 한반도중립화연구소에서 온 연구자

▣ 제1회 곤륜 문화와 서왕모 신화 국제 학술 포럼 [首届昆仑文化与西王母神话国际学术论坛]

- 주제: 곤륜 문화와 서왕모 신화
- 일시: 2010년 8월 21일
- 장소: 중국 시닝
- 참가자: 국내외에서 온 2백여 명에 가까운 전문가

▣ '오르노스 청동기와 초기 동서방 교류-북방 통로' 국제 학술회의[鄂尔多斯青铜器与早期东西方文化交流国际学术研讨会]

- 주제: 북방 초원의 통로, 동서방 문화 교류와 오르노스 청동기 등
- 일시: 2010년 8월 25일~27일
- 장소: 중국 네이멍구
- 주최: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오르노스 시민 정부, 네이멍구자치구박물관, 영국 케임브리지대
- 주관: 오르노스시문화국, 오르노스청동기박물관, 네이멍구자치박물관
- 참가자: 영국, 독일, 러시아, 몽골, 한국, 일본, 미국, 헝가리 및 중국의 전문가와 학자

▣ 전국 제11회 고고와 문물 보호 화학 학술회의[全国第十一届考古与文物保护化学学术研讨会]

- 주제: 고고와 문물 보호에 대한 신기술
- 일시: 2010년 8월 29일~30일
- 장소: 중국 지린성 장춘시

- 주최: 중국화학학회 응용화학위원회고고, 문물보호화학과학위원회
- 협찬: 지린대 변강고고연구센터,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진시항병마용박물관, 지린성문물고고연구소

- 참가자: 베이징대, 시베이대, 지린대, 중국과학기술대, 중국국가박물관, 고궁 박물관, 중국문화유산연구원, 지린성문물고고연구소, 몽골고고연구소, 신장문물고고연구소 등 48개 단위에서 온 1백여 명의 대표

▣ '만학-역사와 현상' 국제 학술 심포지엄[“满学-历史与现状”国际学术研讨会]

- 주제: 만학-역사와 현상-
- 일시: 2010년 8월 30일~9월 1일
- 장소: 베이징사회과학원
- 주최: 베이징사회과학원
- 참가자: 일본, 미국, 타이완, 중국 학자 30여 명

■ 9월 학술 발표

▣ '청대 정치 제도와 민족문화' 학술 심포지엄 [“清代政治制度与民族文化”学术研讨会]

- 주제: 청대 정치 제도와 민족문화
- 일시: 2010년 9월 4일~5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베이징대 명청연구센터
- 참가자: 중국사회과학원, 베이징대, 중국런민대, 중앙민주대, 난카이대, 랴오닝대, 랴오닝당안관, 헤이룽장대, 허난과기대 등에서 온 30여 명의 전문가

문가와 학자

〈9월 4일 오전〉

사회자: 徐凱, 趙志強

- 청대 정치 제도 구축과 민족문화 발전의 관계[清代政治制度建設與民族文化發展之關係]// 발표: 趙志強(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청대 제도사 연구의 두 가지 인식[清代制度史研究中的兩點認識]// 발표: 劉風雲(중국 런민대 청사연구소)
- 청대 만주 귀족이 중원 문화의 관점을 받아들인 데 관한 논의[論清代滿洲貴族認同中原文化之管見]// 발표: 滕紹箴(중국 사회과학원 민족학과 인류학연구소)
- 건륭조 『대청회전칙례·이번원칙례』 고본과 관련하여[有乾隆朝《大清會典則例·理藩院則例》稿本]// 발표: 達力扎布(중양 민주대)
- 청대 관원의 팔기 사무에 대한 관리 제도[清代部院對八旗事務的管理制度]// 발표: 杜家驥(중국 난카이대 중국사회사연구소)
- 조선의 『동문회고』에 나온 청조 관련 사료와 그 가치[朝鮮《同文彙考》中的清朝史料及其價值]// 발표: 徐凱(베이징대)

〈9월 4일 오후〉

사회자: 劉風雲, 達力扎布

- 남부 부지에 대한 고변[南府府址考辨]// 발표: 王政堯(중국 런민대 청사연구소)
- 청대 관원의 업무 평가인 “사격팔법” [清代官員考課中的“四格八法”]// 발표: 常越男(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청대 총독대학사에 대한 간단한 비평[清代總督大學士簡論]// 발표: 河瑜(중국 런민대 청사연구소)

· 청대 성경 장군과 각 직권 부문의 권력 운영 문제 분석[清代盛京將軍與各職權部門權力運作問題探析]// 발표: 張丹卉(랴오닝대)

· 청대의 시위 선발과 관리에 대한 시론[試論清代侍衛的選官與管理]// 발표: 黃圓晴(베이징대)

사회자: 王政堯, 杜家驥

· 청초 몽골의 좌우익 문제[清初蒙古的左右翼問題]// 발표: 哈斯巴根(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병장유수”와 청초 색륜부에 대한 관리[所謂“兵將留守”與清初對色倫部的管理]// 발표: 韓狄(랴오닝대 역사학원)

· 『禮親王代善第十一女郡主滿文冊命』에 대한 분석[《禮親王代善第十一女郡主滿文冊命》解析]// 발표: 張虹(랴오닝성 당안관)

· 청대 황권과 국사 편찬[清代皇權與國史纂修]// 발표: 崔軍偉(하남과기대 당안관)

· 『清代誥敕命制度探析』의 내용 개요 [《清代誥敕命制度探析》內容提要]// 발표: 程大鯤(랴오닝성 당안관)

〈9월 5일 오전〉

사회자: 河瑜, 趙令志

· 홍루의 꿈은 어디서 깨는가? [一夢紅樓何處醒]// 발표: 吳紀新(중국 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 청대 동북 만족 구역 문화에 대한 논의[清代東北滿族區域文化述論]// 발표: 張杰(랴오닝대)

오닝대)

· 청말 베이징 열보강보사에 대한 고찰[清末北京閱報講報社考]// 발표: 王鴻莉(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청초 문헌인 『盛京述見』에 대한 고찰과 논의[清初文獻《盛京述見》考論]// 발표: 武玉梅(랴오닝대 역사학원)

· 동북 근해 민족의 수륙 일체적 관념[東北近海民族水陸一體的觀念]// 발표: 戴光宇(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미국의 신청사 연구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漫談美國新清史研究]// 발표: 張婷(미국 존스홉킨스대)

사회자: 吳紀新, 張杰

· 『閑窗錄夢』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閑窗錄夢》雜考]// 발표: 趙令志(중양민주대 역사문화학원)

· 위만 시기 일본 학자가 ‘만주 지역’에서 수집한 민요[偽滿時期日本學者在“滿洲地區”搜集的民謠]// 발표: 曉春(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조선이 유흥치를 토벌한 사건과 그 영향 분석[淺析朝鮮討伐刈興治事件及其影響]// 발표: 陳昱良(베이징대)

· 만학에 대한 두 가지 의견 [滿學二議]// 발표: 徐丹俚(베이징시 사회과학원 만학연구소)

· 최근 5년간 청나라 말기 정치사 연구의 동태와 성과에 대한 총론[近五年來晚清政治史研究的動態和成果綜述]// 발표: 岑大利(중양당교 문사부)

▣ 제9회 중·일·한 박물관 국제 심포지엄[第九屆中日韓博物館國際學術研討會]

- 주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 일시: 2010년 9월 15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중국 서우두박물관과 선양고궁박물관, 일본 강호동경박물관, 한국 서울역사박물관
- 참가자: 일본 강호동경박물관, 한국 서울역사박물관, 중국 서우두박물관, 선양고궁박물관, 네이멍구박물관, 쓰촨박물관, 창청박물관의 대표와 베이징 지구 박물관 관계자 1백여 명

▣ 제3회 세계 유학 대회[第三屆世界儒學大會]

- 주제: 유학 문화와 조화로운 세계
- 일시: 2010년 9월 27일~29일
- 장소: 중국 산둥성 취푸
-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산둥성 인민정부
- 주관: 중국예술연구원, 산둥성 문화청, 중국 공자기금회, 국제유학연합회, 지닝시 인민정부, 공자연구원
- 참가자: 중국, 한국, 일본 등 16개 국가와 지역, 그리고 86개 유학 연구 기구에서 온 4백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 10월 학술 발표

▣ 헤이룽장성 동쪽 변강 우수리강 문화 포럼[黑龍江省東疆烏蘇里江文化論壇]

- 일시: 2010년 10월 7일~8일
- 장소: 중국 후린시

- 주최: 후린시 당과 시정부, 지시시 문광신국, 지시시 명인협회
- 참가자: 31명의 관련 전문가와 학자
- ▣ 제2회 중국 문자 발전 포럼[第二届中国文字发展论坛]
 - 주제: 문자와 민족문화
 - 일시: 2010년 10월 13일~15일
 - 장소: 중국 허난시
 - 주최: 중국문자박물관, 중국은상문화학회, 중국문자학회
 - 참가자: 국내외와 영국, 일본, 한국 등에서 온 50여 명의 고문자학,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관련 전문가와 학자
- ▣ '변계 문제와 서남 변경 안정' 학술 심포지엄["边界问题暨西南边疆稳定"学术研讨会]
 - 주제: 변계 문제와 서남 변경 안정
 - 일시: 2010년 10월 14일~16일
 - 장소: 중국 광둥
 - 주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센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학원 변방학과
 - 참가자: 국내외 각 대학과 연구소에서 온 9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 ▣ 변강 발전 중국 포럼 2010[边疆发展中国论坛 2010]
 - 주제: 발전 방식의 변혁과 매커니즘 창조
 - 일시: 2010년 10월 23일~24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중앙민주대
 - 주관: 중앙민주대 중국소수민족연구센터
 - 후원: 교육부 사회과학사, 국가민족사무위원

- 회 교육과학기술사,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민족발전연구소
- 참가자: 전국 50여 개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온 1백여 명의 학자
- ▣ 제2차 국제 궁정 유적 박물관 포럼[第二届国际宫廷遗址博物馆论坛]
 - 주제: 궁정박물관 진열 전시의 특수성
 - 일시: 2010년 10월 28일~31일
 - 장소: 중국 장춘
 - 주최: 중국자금성학회
 - 주관: 위만황궁박물관
 - 참가자: 한국국립고궁박물관, 중국자금성학회, 베이징고궁박물관, 선양고궁, 위만황궁박물관에서 온 20여 명의 대표
- ▣ 동북아역사재단 11월 학술 발표
 - ▣ 중국 인민 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60주년 기념 학술 보고회[纪念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出国作战周年学术报告会]
 - 일시: 2010년 11월 12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중화인민공화국 국사학회, 중국군사과학학회, 당대중국연구소
 - 참가자: 张全景, 许永跃, 张启华, 张翔, 李殿仁 등 노동지와 중앙문헌연구실, 중앙당사연구실, 군사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당대소, 중국런민대, 베이징사범대 등에서 온 전문가 및 교사와 학생 2백여 명
 - 연구 성과
 - 항미원조의 전략 결정 및 신중국에 대한 중

- 요한 의의[抗美援朝的战略决策及其对新中国的重要意义]// 발표: 李捷
- 항미원조와 신중국의 국방 건설[抗美援朝与新中国国防建设]// 발표: 齐德学
- 항미원조의 정치적 영향과 그 당시의 의의[抗美援朝的政治影响及其在当下的意义]// 발표: 刘国新
- 항미원조와 국내 경제의 건설[抗美援朝与国内经济建设]// 발표: 董志凯
- 항미원조 전쟁과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건설[抗美援朝战争与人民解放军的现代化建设]// 발표: 曲爱国
- 항미원조와 중국의 외교 그리고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지위[抗美援朝与中国外交及中国的大国地位]// 발표: 丁明
- 항미원조 전쟁 후 세계 역사상의 지위와 작용[抗美援朝战争在战后世界历史中的地位和作用]// 발표: 张顺洪
- 항미원조와 중미 관계[抗美援朝与中美关系]// 발표: 黄平
- ▣ 12월 학술 발표
 - ▣ 제1회 동북아 민족문화 포럼[第一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
 - 주제: 세계화와 구역 시야 중의 동북아 민족문화, 동북아 지구의 민족문화 교류와 문화 인식, 동북아 민족문화와 교류사, 동북아 민족문화 발전 방향 등
 - 일시: 2010년 12월 4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최: 중앙민주대 민족학과사회학학원, 연변

- 대 민족연구원
- 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참가자: 중국, 한국, 일본에서 온 30여 명의 학자
- ▣ '종이의 길' 제4회 동아시아 종이 보호 국제 학술 심포지엄["纸之路"第四届东亚纸张保护国际学术研讨会]
 - 주제: 비단길의 종이 연구와 보호, 전통 종이 기술 보호와 전승
 - 일시: 2010년 12월 6일~8일
 - 장소: 중국 란주
 - 주최: 연합국교과문조직주화대표처, 중국문화유산연구원, 간쑤성박물관, 간쑤성문물고고연구소
 - 주관: 중국문물보호기술협회, 중국화하문화유산기금회, 일본국보수리장식사연맹, 한국장식연구회, 동아문화유산보호학회
 - 후원: 국가문물국, 간쑤성문물국
 - 참가자: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몽골 등에서 온 18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2) 언론 동향

(1) 한국 측 동향

● 신문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2010. 01. 07 | 동아일보 | 당나귀와 모험을? 고구려를 느껴 볼까? |
| 2010. 01. 15 | 동아일보 | 단군과 을지문덕 |
| 2010. 01. 18 | 중앙일보 | 운산 수수밭서 격투 끝에 첫 중공군 포로 붙잡아 |
| 2010. 01. 23 | 조선일보 | 고구려인, 상갓집에서 풍악 울렸다 |
| | 한국일보 | 한국 생활사, 시대의 틀 없이 들여다봤죠 |
| | 조선일보 | 용맹의 전통 놀이 석전이 금지되다 |
| 2010. 01. 25 | 한겨레 | 한·중 이간질에 한 방 먹인 '이봉창 의거' |
| 2010. 01. 26 | 조선일보 | 삼화로 보는 安 의사 공판... 눈앞인 듯 생생 |
| | 한겨레 | 중국인 올분도 달랜 윤봉길의 '도시락 폭탄' |
| 2010. 01. 27 | 조선일보 | 쓰레기 널린 고구려 성터... 고분 위엔 전깃줄이 지나가고... |
| 2010. 01. 29 | 조선일보 | 1936년 '백두산 탐험' 기획으로 민족의식 고취 |
| 2010. 01. 30 | 서울신문 | 공자가 신화를 떨치겠다고? |
| | 중앙일보 | 고구려 고분 속 염제 중국에선 '한족의 신' 신화도 동북공정? |
| 2010. 02. 03 | 동아일보 | 中, 백두산 인근에 원전 추진 |
| | 경향신문 | 중, '세계 유산' 백두산에 원전 건설 |
| | 중앙일보 | 중국, 백두산 부근에 원전 짓기로... 왜 |
| 2010. 02. 05 | 동아일보 | 시아 넓혀야 보이는 한중일 협력 |
| | 한겨레 | 일본군 진격에 밀려... 임정, 난징 떠나 창사로 |
| 2010. 02. 06 | 한국일보 | 옛 고구려 땅에서 만난 한민족 음식 문화 |
| 2010. 02. 08 | 한겨레 | 중, 731부대 유적지 세계 문화유산 등록 추진 |
| | 중앙일보 | 731부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
| 2010. 02. 09 | 중앙일보 | 한·중·일 역사 쟁점 7가지 동북아역사재단, 온라인 강좌 |
| 2010. 02. 10 | 동아일보 | 선비 한자 표기 '仙仁' 감안 땀 기록상 최초의 선비는 단군 |
| | 조선일보 | 한국 문화 DNA는 선비 정신 |
| | 한겨레 | 일본군에 쫓겨 광저우·포산 거쳐 씌수이행 |
| 2010. 02. 12 | 경향신문 | 2,000여 년 역사의 중국 군주제 붕괴 |
| 2010. 02. 18 | 조선일보 | 18세기 실학파에서 21세기 복합파까지 |
| 2010. 02. 19 | 경향신문 | 몽골과 한반도 암각화 얼마나 닮았나 |
| 2010. 02. 27 | 한겨레 | 단군은 '옛 시리아의 신' 황당하다고? |
| | 조선일보 | 발해, 그 이전에 대조영 아버지의 '진국'이 있었다? |
| 2010. 03. 01 | 한겨레 | 한·중·일 역사 '편견 교육' 벗자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 한겨레 | 중·일 '발해는 중국의 속국' |
| | 한겨레 | 중 '3·1 운동'-한 '난징 학살' 침묵 |
| | 조선일보 | 인간적 약점도 안 숨긴 안중근 일대기 그 앞엔 어떤 정치 타령의 여지도 없다 |
| | 한겨레 | 공통의 역사 인식, 한·중·일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
| 2010. 03. 07 | 조선일보 | 고구려 후신(後身) 발해는 천문명 전투 결과였다 |
| 2010. 03. 09 | 조선일보 | 우리 안의 '연암 DNA'로 중국을 다시 보라 |
| | 한국일보 | 동북아역사재단 발해 유적 조사 보고서 발간 |
| 2010. 03. 13 | 동아일보 | 문화가 21세기 경쟁력... 90년간 문화주의 제창한 東亞정신이어야 |
| | 조선일보 | 발해의 역사·문물·풍습... 무엇이든 물어 봐 |
| | 중앙일보 | 전쟁의 시대, 소현 세자는 인간의 고독을 보았구나 |
| | 조선일보 | '간도의 대통령' 김약연 |
| 2010. 03. 23 | 국민일보 | 유해는 어디에... |
| 2010. 03. 24 | 조선일보 | 안중근 의사 유해 韓中日 공동 발굴 |
| | The Korea Times | Where Are Ahn's Remains? |
| 2010. 03. 25 | 국민일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내달부터 본격 추진 |
| | 한국일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中·日과 공조 추진 |
| | 한국일보 | 뤼순 감옥 뒷산 29일간 발굴 허사... "日, 진정성 있는 답변을" |
| | 서울신문 | 안중근 동양 평화론은 유엔보다 10년 앞선 구상 |
| | 조선일보 | 5월 韓·中·日 정상회담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거론 |
| | 조선일보 | 거사 후 "코레아 우라!"... 최후까지 동양 평화 염원 |
| | 조선일보 | 조국에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 유해 조국에 없다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 |
| | 조선일보 | 安 의사 '동양 평화론'에 깊이 공감 |
| | 서울신문 | 안중근 의사 사형 집행 장소 찾은 증손자 |
| 2010. 03. 26 | 국민일보 | 국내외서 대대적 추모식 |
| | 동아일보 | 中, 安의사 추모 행사 첫 공식 승인 |
| | 한겨레 |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뤼순 감옥서 남북 공동 추모식 |
| | 한겨레 | "조국 안장" 유언... '뤼순 감옥 뒷산' 유해 발굴 먼 길 |
| | 국민일보 | 뤼순 흙 가져다 서울 가묘에 뿌렸죠 |
| | 동아일보 |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광복회 주관 추모 제향 |
| | 동아일보 | '戒愼' 끝없는 자기 성찰... '欲保東洋' 동양 평화 큰 뜻 펼쳐 |
| | 서울신문 | 정의의 화신... 한·중 합작 영화 만들자 |
| | 서울신문 | 中 감옥서 치마 풀어 만든 태극기 간직 |
| | 세계일보 | 中·日서도 추모 열기 뜨겁다 |
| | 서울신문 |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후 중국 대륙이 열광 安 의사는 벗 같은 존재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 서울신문 | 남북, 뤼순 감옥서 첫 안중근 추모제 |
| | 세계일보 | 中 뤼순 감옥서 추모 행사 |
| | 조선일보 | 5세기 고구려 고분 9기 무더기로 발견 |
| 2010. 03. 27 | 한국일보 | 南北 “안 의사 만세” 순서 한마음 합성 |
| | 한겨레 | 동아시아 공동체 주춧돌로 안중근 재평가 |
| | 국민일보 | 남북, 한·중·일 잇는 평화의 상징물 기대 |
| | 한겨레 | 안 의사 유해 찾아오도록 최선의 노력 |
| | 동아일보 | 뤼순서 올려 퍼진 ‘우리의 소원은 통일’ |
| | 조선일보 | 상해 臨政 청사 복원 터 앞에서 안 의사 동상 제막 |
| 2010. 03. 29 | 동아일보 |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 안내 표지판조차 없다니... |
| | The Korea Times |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Resisted Colonial Rule |
| 2010. 03. 30 | 한겨레 | 난징·뤼순, 기억과 망각 |
| | 시민일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韓·中·日 함께 나서야 |
| 2010. 04. 05 | 한겨레 | 안중근은 한국인이 아니다 |
| 2010. 04. 07 | 서울신문 | 국사를 국가 계승사로 봐야 동북공정 대응 |
| | 세계일보 | 임진강 고랑포구 역사 공원 된다 |
| 2010. 04. 10 | 조선일보 | 中,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협조” |
| | 조선일보 | 신라 5등급 벼슬받은 발해 대조영의 ‘굴욕’ |
| 2010. 04. 13 | 한국일보 |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 간행 |
| 2010. 04. 14 | 세계일보 | 중화사상의 중국인들 외국을 어떻게 보았을까 |
| | 중앙일보 | 한·중·일 뭉치면 EU보다 강해... 새 아시아 시대 함께 열자 |
| 2010. 04. 15 | 동아일보 | 고려 북서쪽 경계는 만주 지역 |
| 2010. 04. 17 | 조선일보 | 한·중·일 황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사 |
| | 동아일보 | 고려를 지켜낸 참군인의 표상 양규를 아시나요 |
| 2010. 04. 21 | 서울신문 | 외교부 당사자 中서 안 의사 유해 발굴 협조 요청 |
| 2010. 04. 23 | 문화일보 | 중국 정사 외국전 2차분 6권 발간 |
| 2010. 04. 28 | 한겨레 | 백제 - 중국 남조 ‘닭은꼴 유물들’ 어떤 인연? |
| 2010. 04. 29 | 국민일보 |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제주한 사·은 19로군 후원회 병기 책임자 중국인 향차도 씨 |
| 2010. 05. 03 | 한국일보 | 당나라 군대 |
| 2010. 05. 10 | 조선일보 | 중국이 日보다 역사 왜곡 더 해... 마오쩌둥은 독재자·학살자였다 |
| | 서울신문 | 마오기념관은 중국의 야스쿠니 |
| 2010. 05. 14 | 한국일보 | 측우기, 中이 원조라는 주장은 낭성 |
| | 서울신문 | 백두대간만이라도 지키자 |
| 2010. 05. 17 | 조선일보 | 고선지는 과연 고구려인이었나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2010. 05. 18 | 중앙일보 | 조선족 100년 발자취 100권짜리 책으로 만듭니다 |
| | 조선일보 | 안창호의 국외 망명 |
| 2010. 05. 20 | 세계일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단 본격 가동 |
| 2010. 05. 24 | 세계일보 | 만주족과 한민족은 사실상 같은 뿌리 |
| 2010. 05. 27 | 천지일보 | 동북공정의 틀은 식민사학자들이 제공 |
| 2010. 05. 28 | 서울신문 | 중국의 신동진주의와 역사학계의 책임 방기 |
| 2010. 05. 31 | 경향신문 | 3국 정상 평화와 안정 유지 합의가 뜻하는 것 |
| | 조선일보 | 韓·日·中 정상회의가 東아시아의 구심점 되려면 |
| 2010. 06. 08 | 한겨레 | 발해인 새긴 중국 사리함 일본서 공개 |
| 2010. 06. 09 | 조선일보 | 동아시아 三國 이해야 비로소 건전한 삼각관계 |
| 2010. 06. 16 | 조선일보 | 우리가 흘려버리고 있는 진짜 고구려 |
| 2010. 06. 17 | 한겨레 | ‘자치통감’ 294권 집념의 완역, 완간 |
| 2010. 06. 18 | 국민일보 | 백두산 화산 폭발 중심으로 지역 문명사 다시 써야 |
| | 매일신문 | [문화칼럼] 중국의 동북공정과 통일 |
| 2010. 06. 21 | 경향신문 | 발해 초토화시킨 백두산 화산 폭발의 미스터리 |
| | 세계일보 | 백두산 폭발로 대제국 발해 멸망 |
| | 내일신문 | 안중근 열사 ‘단지동맹터’도 잊혀져 |
| | 중앙일보 | 중국 대학생들이 ‘중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 침략한 적 없다’고 믿는 까닭은 |
| | 동아일보 | 백두산 폭발 |
| 2010. 06. 30 | 조선일보 | 발해 성터 연추리를 아십니까 |
| | 한국일보 | 고구려의 기상 광개토대왕비 |
| 2010. 07. 06 | 서울신문 | 中, 김좌진 장군 순국지에 백야 광장 개관 |
| 2010. 07. 07 | 중앙일보 | 고구려 옛 땅에 다녀와서 |
| 2010. 07. 08 | 중앙데일리 | Reflections on the Goguryeo spirit |
| 2010. 07. 12 | 동아일보 | 왜구는 元-明 교체기 혼란의 산물 |
| 2010. 07. 20 | 동아일보 | 안중근 의사, 태극기 쥐고 남산에 |
| 2010. 07. 21 | 조선일보 | 청 붕괴, 일본 대륙 침략 본격화 |
| 2010. 07. 22 | 조선일보 | 뤼순 감옥에서, 법정에서, 영웅의 숨결 느껴졌습니다 |
| 2010. 07. 27 | 서울신문 | 中 이정도일 줄 화들짝 동북공정 본격 대응 나선다 |
| | 서울신문 | 남중국해 |
| 2010. 07. 29 | 문화일보 | 한·중·일 역사 현안들 3년간 수업 한 적 없다 |
| 2010. 08. 02 | 강원일보 | 고구려 유적지 탐방하며 한민족 자긍심 느껴요 |
| | 조선일보 | 벽화 속 고구려 무사, 속초서 부활 |
| | 강원도민일보 | 찬란했던 발해 역사 감상하세요 |
| 2010. 08. 05 | 중앙일보 | 중국 침략 위해 조선인의 반 화교 정서 부추긴 일제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2010. 08. 06 | 조선일보 | 몽골 근대 의학의 선구자 이태준 |
| 2010. 08. 10 | 중앙일보 | 엔벤에 가면 역사가 보인다 |
| 2010. 08. 11 | 조선일보 | '동아시아 역사 옴부즈맨' 도입해 분쟁 방지 |
| 2010. 08. 12 | 세계일보 | 中 "日, 한국에만 사죄 담화" 부글부글 |
| 2010. 08. 16 | 조선일보 | 낙랑군 지배 지역서 고구려 벽화 고분 첫 발굴 |
| | 한국일보 | 평양서 고구려 벽화 고분 첫 발견 |
| | 중앙일보 | 모래 위의 누각 만주국, 45년 8월 일제 패망과 동시에 붕괴 |
| | 조선일보 | 日보다 심한 中 역사 왜곡 |
| | 천지일보 | 강서중묘 무덤벽화 100여 년 만에 최초 공개 |
| 2010. 08. 17 | 국민일보 | 고구려 강서중묘 '사신도' 실물 크기 모사도 첫선 |
| 2010. 08. 18 | 동아일보 | 한중일 미래들, 협력-상생 말하다 |
| 2010. 08. 19 | 한겨레 | 군위안부, 난징 대학살 ... 서로의 역사 너무 몰라 |
| | 한겨레 | 3국 지도 교사들 공동 역사 교육으로 새 미래 열어야 |
| 2010. 08. 20 | 서울신문 | 고구려 고분에 들어선 듯 |
| 2010. 08. 27 | 동아일보 | 고조선, 한강 문명권이 세워 |
| 2010. 08. 30 | 중앙일보 | 한·중·일 역사 바로 세우기 또 결실 |
| | 조선일보 | 뤼순 203 고지서 본 것 |
| 2010. 09. 10 | 동아일보 | 광개토 대왕은 바다까지 점령했다 |
| 2010. 09. 15 | 경향신문 | 중국사 공부, 창문으로 집안 들여다보는 일 |
| 2010. 09. 27 | 세계일보 | 발해의 풍습·건축은 고구려 복사판 |
| | 세계일보 | 중국 역사의 유명 인물 중심 44가지 사건 오류·진실 탐구 |
| | 경향신문 | 한·중·일 시민 단체 발간 역사 교과서 중·일 일부 학교서 부교재로 사용 |
| 2010. 09. 28 | 경향신문 | 중국, 중국 위협론 촉발 않는 지혜 필요하다 |
| 2010. 09. 29 | 중앙일보 | 2,000년 중국 지안 고구려 벽화 도굴 김종춘 고미술협회장이 돈 주고 지시 |
| 2010. 10. 03 | 천지일보 | 단군 이야기, 신화·설화 아닌 한민족 역사 |
| 2010. 10. 04 | 동아일보 | 아편전쟁 굴욕 상징 임칙서 170년 만에 굴기의 영웅으로 |
| 2010. 10. 05 | 중앙일보 | 중·일 분쟁 해결 위해 이달 한·중·일 정상회담 열자 |
| 2010. 10. 07 | 조선일보 | 고구려 영토, 한반도 내로 축소하고 발해를 당나라 지방 정권이라 하고 |
| 2010. 10. 08 | 세계일보 | 이달 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
| | 한겨레 | 중국의 '오만'을 다시 읽다 |
| 2010. 10. 11 | 동아일보 | 中, 고구려 역사 현장 곳곳 왜곡... 소름 끼친다 |
| 2010. 10. 12 | 아주경제 | 중국 내 한국학 학술 대회 열린다 |
| 2010. 10. 13 | 조선일보 | 백두산의 속살을 엿보다 |
| | 서울신문 | 칭기즈칸, 발해 공주를 사랑했다? |
| | 경향신문 | 중국의 한글공정 네티즌 부글부글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 세계일보 | '동북공정' 이어... 中 이번엔 '한글공정' 논란 |
| 2010. 10. 15 | 서울신문 | 중국의 한글공정 |
| | 국민일보 | 古代史 교육 바로 하려면 |
| 2010. 10. 19 | 동아일보 | 국내 언론 첫 中총리 단독 회견... 韓-中교류 디딤돌 놓다 |
| | 한국일보 | 일제강점기 在朝 일본인 연구 활발 학계 '식민 권력의 본질 파악에 필수' |
| 2010. 10. 22 | 강원도민일보 | 발해 역사 문화 축제 오늘 개막 |
| 2010. 10. 25 | 중앙일보 | 9차례 투옥 식민지 지식인 안재홍, 백두산에서 무엇을 보았나 |
| | 중앙일보 | 중국의 정체성 |
| | 세계일보 | 동북아 안정과 국태민안 |
| 2010. 10. 26 | 조선일보 | '安 의사 유해 발굴 안간힘' 아직 결정적인 단서 없어 |
| | 조선일보 | 한글·동북공정을 거꾸로 생각하자 |
| 2010. 10. 27 | 한국일보 | 하얼빈 의거 현장 등 그날의 모습 생생히 |
| | 중앙일보 | 명나라 기녀를 둘러싼 홍순언과 석성의 기묘한 인연 |
| 2010. 10. 29 | 조선일보 | 발이 된 의자왕의 모 한민족 비운의 古代史 문헌 땅, 낙양 |
| | 조선일보 | 삼학사와 60만 조선 인질의 억울한 흔백은 어디에 |
| | 조선일보 | 조선 선비 최부가 탔던 경향 대운하 뱃길, 최치원·의천도 다녔던 물길 |
| 2010. 11. 01 | 중앙일보 | 정의로 둔갑한 '항미원조' 전쟁 |
| | 중앙일보 | 중공군 참전이 없었더라면 |
| | 국민일보 | 동북아 안정에 역행하는 중국 |
| | 중앙일보 | 천하 대세를 읽는 중국의 눈이 아쉽다 |
| 2010. 11. 09 | 중앙일보 | 헤이그에서 서울까지 |
| 2010. 11. 11 | 내일신문 | 외규장각 도서 반환, 감정 앞세운다고 되나 |
| 2010. 11. 18 | 조선일보 | '발해만'은 틀리고 '보하이만'이 맞다고? |
| 2010. 11. 19 | 한겨레 | 한국, 중·일과 다자 연합 필요 서독 '동방 정책' 모델 삼아야 |
| | 한겨레 | 개별 국가사 뛰어넘어 '공동 역사 인식' 가져야 |
| 2010. 11. 23 | 국민일보 | 동아시아 공동체 의식 결집들은 무엇인가? |
| 2010. 12. 02 | 동아일보 | 동아시아 공동체 절실... 한·중 갈등 해소 공감대 키워야 |
| 2010. 12. 07 | 세계일보 | 중국 조선성 |
| 2010. 12. 10 | 조선일보 | 얼굴 붉힌 한·중 미래 포럼 |
| | 국민일보 | 동북아 연대는 미래의 희망이자 기회다 |
| 2010. 12. 11 | 조선일보 | 청 봉괴, 일본 대륙 침략 본격화 |
| 2010. 12. 16 | 조선일보 | 고구려 고분벽화 '주작도' |
| | 조선일보 | 도굴된 고구려 벽화가 한국에 中, 우리 정부에 반환 협조 요청 |
| 2010. 12. 20 | 세계일보 | 청나라 최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군주 |
| | 동아일보 | '실크로드와 둔황' 특별전 개막... '왕오천축국전' 본 관람객들 감동 |

| 날 짜 | 신문명 | 내 용 |
|--------------|------|--|
| | 동아일보 | 1300년 전 실�크로드 걸었던 혜초의 발자취를 만나다니... |
| 2010. 12. 22 | 조선일보 | 고구려 시대 성곽 유적 첫 복원 |
| | 동아일보 | '센카쿠식 갈등' 韓中 간에도 터지나 |
| 2010. 12. 24 | 경향신문 |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대한 우려 |
| 2010. 12. 28 | 중앙일보 | 토끼가 달에 산다는 이야기, 고구려 벽화에도 나오죠 |
| 2010. 12. 30 | 한겨레 | 베이징·선양·단둥서 '역사의 흔적'을 좇다 |
| | 문화일보 | '활쏘기 동북공정'까지... 中의 끝없는 역사 야욕 |
| | 한겨레 | [길을 찾아서] 베이징·선양·단둥서 '역사의 흔적'을 좇다 / 이이화 |

● 방송

| 날 짜 | 방송사명 | 내 용 |
|--------------|--------|---------------------------------|
| 2010. 01. 31 | NEWSIS | 중국의 동북공정 반대 집회 |
| | NEWSIS | 스톱! 중국 문화 동북공정! |
| 2010. 03. 14 | FOCUS | 한·중·일 과거사, 청산 아닌 화해로 풀어야 |
| 2010. 03. 26 | 연합뉴스 | 中, 안중근 추모 행사 첫 공식 승인 |
| 2010. 03. 29 | MBC | 안중근 100주년 '추모 열기'... 뤼순 감옥서 추모식 |
| 2010. 03. 30 | 연합뉴스 | 中, 만리장성 확장에 '지구 정성(?)' |
| 2010. 04. 12 | 연합뉴스 |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 정사 외국전' 번역 출간 |
| 2010. 04. 13 | NEWSIS | 송서부터 북사까지 중국 정사 외국전 6책 나왔다 |
| 2010. 04. 20 | 연합뉴스 | 당국자 뤼순 답사... 안 의사 유해 발굴 '길 닦기' |
| 2010. 05. 03 | 뉴스타운 | 中 베이징구서 漢 고분군 발굴 |
| 2010. 05. 18 | 시사HN | '만만디' 중국의 야금야금 동북공정 |
| 2010. 05. 26 | YTN | 중국 CCTV, 동해를 일본해로 방송 |
| 2010. 06. 08 | 연합뉴스 | 中, 고구려 유적지 '고고 유적 공원' 지정 |
| 2010. 06. 10 | NEWSIS | 고구려 역사 탐방 참가자 모집 |
| 2010. 06. 11 | 연합뉴스 | 고구려성 사진 자료집 |
| 2010. 06. 13 | NEWSIS | 중국 지린성 고구려 성곽들, 사진 376장으로 |
| 2010. 06. 17 | 연합뉴스 | 발해, 왜 멸망했을까 |
| | 연합뉴스 | 동북공정 끝난 게 언젠데... 中 학계 요지부동 |
| 2010. 06. 22 | NEWSIS | 고구려의 제천 의식과 관계가 있는 국동대혈 |
| 2010. 07. 13 | 연합뉴스 | [문화소식] 中 청소년 초청 한국 역사 탐방 |
| 2010. 07. 14 | NEWSIS | 중국 청소년들 초청, 미래 친한파 만든다 |
| 2010. 07. 27 | 연합뉴스 | 김을동, "中 고구려·발해 유적지 '일본해' 표기" |
| 2010. 08. 03 | 연합뉴스 | [문화소식]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한반도 100년' |

| 날 짜 | 방송사명 | 내 용 |
|--------------|--------|-----------------------------|
| 2010. 08. 05 | NEWSIS | 근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와 한반도 100년 |
| 2010. 08. 09 | 연합뉴스 | 中 30년 만에 '역사' 손질...다른 의도 없나 |
| 2010. 08. 17 | SBS | 고구려 벽화의 진수 '강서중묘' 백 년 만에 공개 |
| 2010. 08. 24 | 데일리안 | 한·중·일 역사학자 울릉도에 모인다 |
| 2010. 09. 01 | 연합뉴스 | 中 역사 수정되면 韓민족은 黃帝의 후예 |
| | 연합뉴스 | [인터뷰] 中 역사 수정 연구 우실하 교수 |
| 2010. 09. 03 | 연합뉴스 | 中, '고구려성 논란' 만리장성 정비 |
| | NEWSIS | 평양 낙랑구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 발견 |
| | NEWSIS | 평양서 5세기 벽화고분 발견 |
| | NEWSIS | 평양서 고구려 고분벽화 발견 |
| 2010. 09. 06 | 연합뉴스 | 中, 조선인 투쟁 '항일 투쟁사'로 인정 |
| 2010. 09. 19 | 연합뉴스 | 中, 釣魚島 문제 '韓 독도 전략'서 배워야 |
| 2010. 10. 12 | 연합뉴스 | 중국 내 한국학 학술 대회 13일 열려 |
| 2010. 10. 13 | 연합뉴스 | 중국 내 한국학 학술 대회 웨이하이서 개막 |
| | 연합뉴스 | 중국은 한국학을 왜, 어떻게 공부하나 |
| 2010. 10. 14 | YTN | 동북공정으로 사라져 가는 고구려 산성들 |
| 2010. 10. 20 | NEWSIS | 독립기념관 청산리대첩 90주년 학술 심포지엄 |
| 2010. 11. 25 | 연합뉴스 | [신간]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
| 2010. 12. 10 | 연합뉴스 | 中 '화평 굴기', 동북아 평화에 도움 |
| 2010. 12. 15 | 연합뉴스 | 중국, 한국에 '도굴 고구려 벽화' 반환 요청 |
| 2010. 12. 28 | 연합뉴스 | 한·중 문화 교류 접점 中 산동성 불상 연구 |
| | 연합뉴스 | [신간] 요하 문명의 확산과 동북아 청동기 문화 |

(2) 중국 측 동향

● 신문/잡지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1.04 | 中华收藏网 | 네이멍구, 동아시아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폐허지, 2009년 전국 6대 고고 발견에 선정 内蒙古 东亚保存最好废墟 入选2009全国六大考古新发现 |
| | 人民网 | '중국 서예' 무형 문화유산 대표적 목록에 포함 中国书法列入非遗代表作名录 |
| 2010.01.08 | 黑龍江新聞網 | 동북역사문화연구센터 현판식 열고 한위 부락 유적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함 东北历史文化研究中心揭牌深入研究汉魏部落遗址 |
| 2010.01.09 | 인터넷 길림신문 | 엔벤을 달구는 태권무 연변을 달구는 태권무 |
| 2010.01.15 | 吉林省政府网 | 2009년 지린성 문화 사업 건설 상황 2009年吉林省文化工作建设情况 |
| 2010.01.23 | 인터넷 길림신문 | 두만강 출해 관광 개발로 항로의 원활한 소통 점차 확대해야 두만강 출해 관광 개발로 항로의 원활한 소통 점차 확대해야 |
| 2010.01.28 | 인터넷 길림신문 | 백산시 장백산 민족 가무단 설립 백산시 장백산 민족 가무단 설립 |
| | 吉林日报 | 장백산 문화 발전 번영시켜 창지투의 개발과 건설 추동 发展繁荣长白山文化 推动长吉图的开发和建设 |
| 2010.02.01 | 인터넷 길림신문 | 연길조선족예술단 민족 가무 복장 전시서 대상 수상 연길조선족예술단 민족 가무 복장 전시서 대상 수상 |
| 2010.02.02 | 新华网黑龍江频道 | 『헤이룽강대계강백촌기행』 출판 발행 《黑龙江大界江百村纪行》出版发行 |
| 2010.02.04 | 新华网遼寧频道 | 환련현, 세계 문화유산지로서의 새로운 모습 조성 桓仁县打造世界文化遗产地新形象 |
| | 人民网 | 단둥박물관 개관 丹东博物馆开馆 市领导薛恒赵连生为博物馆鸣锣 |
| | 中國經濟網 | 한국 매체, 장백산 원전, 북한으로 송전 가능할 것으로 추정 韩媒猜长白山核电站可能向朝鲜输电 |
| 2010.02.04 | 桓仁县信息中心 | 환련현, 세계 문화유산지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 打造世界文化遗产地新形象 |
| 2010.02.08 | 光明日报 | 홍산 문화 연구 전문가 뇌광진-고대인 왕래 능력 과소평가 역사 연구에 불리 红山文化研究专家雷广臻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2.12 | 인터넷 길림신문 | 백년 발해진 세계 엑스포에 나선다 백년 발해진 세계 엑스포에 나선다 |
| 2010.02.20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상모춤 용담모희서 인기 몰이 조선족 상모춤 용담모희서 인기 몰이 |
| 2010.02.23 | 人民网天津视窗 | 설날 여행 가이드-전국 중점 보호 문물 발해국 유적지 春节旅游指南：全国重点保护文物渤海国遗址 |
| 2010.02.24 | 黑龍江文化信息网 | 조선족 인민 문화관이었던 하얼빈시 조선족 예술관 설립 60주년 哈尔滨市朝鲜族艺术馆迎60华诞 其前身是朝鲜人民文化馆 |
| | 延边日报 | 엔벤주 공연 단원,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소수민족 무형 문화유산 공연' 참가 延边州演员赴京参加中国少数民族非物质文化遗产展演 |
| | 中國吉林网 | '조보명 선생 문고' 곧 열려 '曹保明先生文库'即将启动 |
| 2010.03.01 | 新华网吉林频道 | '장백산 문화 연구 순례'의 제1회 전람회 곧 시작 “长白山文化研究巡禮”首展將启 |
| | 博寶网 | 저장성 양저박물관, '홍산 문화 옥기 정품전' 관람객 3만 명 넘어서 浙江省 良渚博物院“红山文化玉器精品展”观众逾三万人次 |
| | 汪清縣委宣傳部 | 왕칭현 상모춤 예술단, 베이징 용담 모희 공연에서 금상 수상 汪清县象帽舞艺术团喜获北京潭庙会展演金奖 |
| 2010.03.02 | 人民网 | 공동 역사 연구와 국제 관계-역사 장벽을 뛰어넘는 공통된 인식 축적 共同歷史研究与國際關係-累积共识超越歷史鴻沟 |
| 2010.03.03 | 長江日報 | 정협위원, 박물관을 세워 활자 인쇄술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건의 政协委员建议：建博物馆证明活字印刷术源于中国 |
| | 省文化廳 | 랴오닝성 제3차 전국 문물 조사 사업, 단계적 성과 거둬 我省第三次全国文物普查工作取得阶段性成果 |
| 2010.03.04 | 인터넷 길림신문 | 길림시 갑골문화회 설립 길림시 갑골문화회 설립 |
| | 延边日报 | 조선족 장고춤, 북경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환영 만찬 무대에서 공연 朝鲜族长鼓舞在京登上元宵节联欢晚会舞台 |
| 2010.03.09 | 인터넷 길림신문 | 이승숙 위원 : 중국 조선족 박물관 건립 주장 리승숙 위원 : 중국 조선족 박물관 건립해야 |
| 2010.03.11 | 吉林新聞網 | 통화시 '길림 팔경'에 포함 후 여행 수입 40% 증가 入围“吉林八景”通化旅游收入增加近四成 |
| 2010.03.13 | 北京晨报 | 국가문물국 국장 : 고고유적공원 4곳 조성 계획 國家文物局局長：4处考古址公園正在筹建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3.16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무용《아리랑》상해 박람회에 간다 조선족 무용《아리랑》상해 박람회에 간다 |
| 2010.03.18 | 人民网 | 공통된 문화 인식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 共同文化认知是东亚共同体的基石 |
| 2010.03.21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조선족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
| 2010.03.22 | 內蒙古新聞網 | 네이멍구 사회과학원 합작 항목 '북강공정' 비준받아 內蒙古社會科學院合作項目“北疆工程”获批立项 |
| 2010.03.23 | 中國新聞網 | 한국,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위해 일본에 자료 제공 요청 韩为挖掘刺杀伊藤博文志士遗骨要日提供资料 |
| 2010.03.25 | 中國吉林網 | 지린성 국가 장성 보호 공정 항목 조에 가입 我省加入國家長城保護工程項目組 |
| 2010.03.29 | 經網綜合 | 중국이 동진하여 도문강을 개발하고 북한을 돕는 것은 미국 등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 中国“东进”开发图们江援助北韩意在抗衡美国 |
| 2010.03.30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전통 장례 성급 무형 문화재로 조선족 전통 장례 성급 무형 문화재로 |
| 2010.04.02 | 中国民族报 | 조선족 무형 문화유산관 완공 임박 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馆即将完工 |
| | 国家民委网站 | 동북 3성 조선어문협회 연석회의 장춘에서 개최 东北三省朝鲜语文协作联席会议在长春召开 |
| 2010.04.03 | 环球网 | 한국 매스컴,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내용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 中国历史书中韩国内容在减少 |
| 2010.04.04 | 吉林总队通化支队 | 통화 소방서, 고구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박물관 안전 점검 通化消防检查博物馆安全 保护高句丽古文化遗产 |
| | 騰迅新聞 | 한국 국회의원 중국·러시아와 공조하여 일본 교과서 문제 대응할 것 제의 韩国议员倡议与中俄一起应对日本教科书问题 |
| 2010.04.08 | 天水在线 | 이백은 한국인이 절대 아님 李白：并非韩国人 |
| | 인터넷 길림신문 | 6월 제5회 장백 조선족 민족 문화 관광제 개최 예정 6월 장백의 매력 널리 알린다 |
| 2010.04.09 | 珲春熱線 | 한국 주 심양 총영사 신형근 훈춘 방문 韩国驻沈阳总领事馆总领事辛亨根来珲考察 |
| 2010.04.12 | 中国广播网 | 네이멍구 적봉은 한전 농업(旱作農業)의 기원지 內蒙古赤峰为旱作农业起源地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4.16 | 中国日报 | 헤이룽장 성, 가장 주목할 만한 100곳 선정 결과 발표 黑龙江100个最值得去的地方评选结果揭晓 |
| | 인터넷 길림신문 | 6개국이 함께 펼치는 『두만강 축제』 6개국이 함께 펼치는 『두만강 축제』 |
| | 延邊信息港 | 『엔벤 조선족 자치주 여행 조례』 공포 실시 『延边朝鲜族自治州旅游条例』公布实施 |
| 2010.04.20 | 인터넷 길림신문 | 왕걸, 고구려 벽화 원모습 생생히 살려내 왕걸, 고구려 벽화 원모습 생생히 살려내 |
| 2010.04.23 | 扬子晚报 | 한국, 남경의 육조 시대 유물 발견 韩国发现南京的六朝遗物 |
| 2010.04.24 | 人民网 |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항일 무장 부대 창건 1932年4月25日 金日成创建抗日武装 |
| | 吉林日报 | 지린성 소수민족 고적 협력 사업 성과 현저 吉林省少数民族古籍协作工作成果显著 |
| 2010.04.25 | 인터넷 길림신문 | 엔벤주 역사과 현장교류회 룡징고등학교에서 열려 연변주 역사학과 현장교류회 룡징고중서 |
| 2010.04.28 | 인터넷 길림신문 | 중국 조선족의 첫 무형 문화유산 전시관 도문에 선다 중국 조선족의 첫 무형 문화유산 전시관 도문에 선다 |
| 2010.04.29 | 凤凰网 | 고대 말갈인의 자수 세계 박람회 전시 中国古代鞋鞣刺绣将亮相世博会 |
| 2010.05.04 | 华夏经纬 | 북한, 한국이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려는 여성들을 저지했다고 성토 朝鲜谴责韩国阻挠女性举行研讨会讨论慰安妇问题 |
| 2010.05.06 | 齐鲁晚报 | 한국 대유학자 정몽주 명대 신라인 집단 거주지 방문 韩国大儒“郑梦周”遍访明代新罗人聚集区 |
| | 长春晚报 | '장백산 문화'를 품평함 品“长白山文化” |
| 2010.05.07 | 韓國文物信息网 | 제1회 고고학과 교차 문화유산 포럼 난징대학에서 개최 首届考古学与跨文化遗产论坛在南京大学举行 |
| 2010.05.13 | 东北网 | 731부대 유적지, 세계 문화유산 신청이 가장 좋은 보호 방법 731遗址独有世界最大细菌战遗址群 申遗是最好保护 |
| 2010.05.19 | 延邊信息港 | 엔벤박물관 국가 2급 박물관으로 승급 延边博物馆晋升国家二级博物馆 |
| 2010.05.22 | 인터넷 길림신문 | '선족'이라는 잘못된 조선족 호칭 근절 요청 조선족을 '선족'이라는 잘못된 호칭 근절 요청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전통 과자 제조 공예 성급 무형 문화재에 선정 조선족 전통 과자 제조 공예 성급 무형 문화재로 |
| 2010.05.23 | 新华网吉林频道 | 홍산 문화 연구회 길림에서 현판식 红山文化研究会在吉林揭牌 |
| 2010.05.24 | 中国新闻网 | 주 중국 대사관 : 한국 교수가 이백이 한국인이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 라고 함 韩驻华使馆:韩教授称李白是韩国人等报道不实 |
| | 京华时报 | 일본군 731부대 피해자 대부분 항일 지사로 신분 확인됨 日军731部队部分受害者身份确认 多数为抗日志士 |
| 2010.05.25 | 延边信息港 | 『엔벤 조선족사(延邊朝鮮族史)』 정식 출판 『延邊朝鮮族史』正式出版发行 |
| | 新华网 | '지린성 만주족 문화 및 관광 문화 워크숍' 개최 吉林省满族文化暨旅游文化研讨会召开 |
| 2010.05.26 | 黑龙江日报 | 헤이룽장 성 무형 문화유산 6종 국가급 문화유산 목록에 추가 등록 黑龙江省六项“非遗”再登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名录 |
| | 中国吉林网 | 지린성 우수 무형 문화유산 상해 엑스포에서 선보여 我省优秀非物质文化遗产项目将亮相上海世博会 |
| 2010.05.28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씨름 등 5가지 항목 국가 무형 문화재에 조선족 씨름 등 5가지 항목 국가 무형 문화재에 |
| | 인터넷 길림신문 | 지린성 상해 세계 박람회에 우수한 무형 문화재 전시 吉林성 상해 세계 박람회에 우수한 무형 문화재 전시 |
| 2010.05.31 | 北方新闻网 | 홍산 문화 및 거란·요 문화 연구 기지, 적봉학원에서 현판식 红山文化暨契丹辽文化研究基地在赤峰学院挂牌 |
| 2010.06.03 | 延边信息港 | 엔벤주 무형 문화유산 전시단, 엑스포 참가 我州非物质文化遗产展示团赴世博会 |
| | 中国新闻网 | 엑스포, 지린 활동 주간 개막, 전통 민속 공연 차례대로 선보여 世博吉林活动周拉开帷幕 传统民俗表演轮番亮相 |
| 2010.06.04 | 正义网-检察日报 | 웅신(熊神) : 잊혀진 신앙과 신화 熊神:被遗忘的信仰与神话 |
| 2010.06.06 | 新华网吉林频道 | 고구려 왕성·왕릉 제1차 국가 유적 공원이 될 가능성 있어 高句丽王城王陵遗址有望成为首批国家考古遗址公园 |
| 2010.06.08 | 农博网 | 세계급 무형 문화유산인 조선족 농악무, 엑스포에서 선보여 世界级非物质文化遗产 朝鲜族农乐舞亮相世博会 |
| 2010.06.09 | 延边信息港 | 왕칭조선족예술단, 정식 설립 汪清朝鲜族艺术团正式成立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6.10 | 延边信息港 | 엔벤박물관 오늘 기공 延边博物馆今日破土动工 |
| 2010.06.12 | 东北新闻网 | 홍산 고고학 오제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红山考古能证明确有五帝时代[组图] |
| 2010.06.15 | 인터넷 길림신문 | 『중국 조선족 혁명 투쟁사』 한국어 번역판 출판 『중국 조선족 혁명 투쟁사』 조선어 번역문 출판 |
| 2010.06.17 | 인터넷 길림신문 | 지린시 조선족 민속 문화제 문화 향기 물씬 길림시 조선족 민속 문화제 문화 향기 물씬 |
| 2010.06.20 | 新民网 | 장백산 자연 박물관 개관 长白山自然博物馆开门纳客 |
| 2010.06.22 | 汪清县委宣传部 | 엔벤주 무형 문화유산 항목 순회 공연 왕청에서 폐막 州非物质文化遗产项目巡回演出在汪清圆满落幕 |
| | 西陆尖锐前线 | 60년대 중국과 북한이 반목한 내막 震惊!六十年代中国和朝鲜翻脸内幕竟然是这样! |
| 2010.06.24 | 新华网山东频道 | 제1회 한·중·일 국제 우호 문화 학술 포럼 츠산 개최 首届中韩日国际友好文化学术论坛在赤山举行 |
| 2010.06.25 | 文化部 | 지린성 문화청 장바오종(張寶宗) 부청장, 엔벤 주에 무형 문화유산 보호 사업 점검 吉林省文化厅张宝宗副厅长在延边州调研非物质文化遗产保护工作 |
| 2010.06.26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회혼례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목록에 조선족 회혼례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목록에 |
| 2010.06.27 | 人民网 | 중국, 한국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1951年,中国错失结束朝鲜战争的良机? |
| | 人民网 | 해방군 소장 한국전쟁 중 중국 지원군 18만 명 희생되었다고 발표 解放军少将称抗美援朝中国志愿军牺牲18万人 |
| 2010.06.28 | 흑룡강신문 | 전성 조선족 중소학교 민족 전통문화 교육 회의 개최 전성 조선족 중소학교 민족 전통문화 교육 회의 개최 |
| 2010.06.29 | 遼寧新聞 | 고궁박물관 '한국 봄' 일어 故宫博物院刮起“韩国风” |
| 2010.06.30 | 华夏经纬网 | 조공과 책봉, 중국 고대의 외교 제도 朝贡与册封 中国古代的外交制度 |
| 2010.07.01 | 中华网 | 한국, 빗속에서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한 일본의 행위 강력하게 성토 韩国:雨中示威强烈声讨日军强征慰安妇行径(图) |
| | 第一金融网 | 1941년 조선인, 아스쿠니 신사 참배 1941年朝鲜人参拜靖国神社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민족 전통 체육 종목 대를 잇기 어려워 유감 조선족 민족 전통 체육 종목 대를 잇기 어려워 유감 |
| 2010.07.02 | 中國文物信息网 | '동북 및 내이명구 동부 고고의 과거·현재·미래' 학술 토론회 장춘 개최 “东北及内蒙古东部考古的过去、现在与未来”学术研讨会在长春召开 |
| | 中國民族新聞網 | 아리랑의 노래, 장지락과 중국 혁명의 이야기 阿里郎之歌-张志乐和中国革命的故事 |
| 2010.07.07 | 凤凰网 | 중국·미국·러시아·북한·한국의 중등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中美俄朝韩五国中学教科书如何描述朝鲜战争? |
| 2010.07.08 | 中国民族新闻网 |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 현 현장 정형일 : 문화 산업으로 경제 발전 선도 长白朝鲜族自治县县长郑亨日:用文化舞台带动经济发展 |
| 2010.07.09 | 搜狐 | 일본, '한국 강제 징용자'에게 개인 배상 할 수도 있음을 암시 日本暗示可对“韩国强制征用者”进行个人赔偿 |
| 2010.07.13 | 中国经济网 | 한국 학자 공자를 '세계인'이라고 언급 韩国学者称孔子应是“世界人” |
| 2010.07.15 | 搜狐 | 일본 식민지 점령 100주년 : 한국 168명의 친일파 후손 재산 몰수 日本殖民占领100周年:韩没收168名韩奸后代财产 |
| 2010.07.19 | 延邊信息港 | 중국 조선족 무형 문화재 전시관 시공 끝나 中国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展览馆修建完毕 |
| 2010.07.20 | 新文化报 | 장백산 문화 연구와 건설 대대적으로 추진 大力推进长白山文化研究与建设 |
| 2010.07.21 | 搜狐 | 한반도 병합 100년 후, 일본 수상 한국에 사과할 수도 吞并朝鲜半岛百年后 日相或将向韩国道歉? |
| | 新浪, 吉林 | 장백산 아래에 100만 년 전의 중유 동굴 있어 长白山下藏百万年溶洞 |
| 2010.07.22 | 新浪, 吉林 | 읍루 왕성으로 본 부여 왕국 从挹娄王城看夫余王国 |
| | 凤凰网 | 한중 영해 분쟁 : 중일간보다 분쟁 면적 더 커 中韩领海争端:比中日间争议面积更大 |
| | 延邊信息港 | 도문강 문화 포럼 개최 전문가들 도문에 대하여 논의 图们江文化论坛召开 专家图们论剑 |
| 2010.07.26 | 人民网 | 유봉군(劉鳳君) 교수의 골각문(骨刻文) 서울 강연에서 한국 학자의 인정받아 刘凤君教授赴首尔演讲 骨刻文获韩国学者肯定 |
| 2010.07.29 | QQ | 중국 학자 한국전쟁 연구의 최신 성과 中国学者研究朝鲜战争的最新成果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7.30 | 中國民族新聞網 | 도문강 조선족 농경 문화의 근원을 보호하자 保护图们江朝鲜族农耕文化的“根”和“源” |
| 2010.08.08 | 扬州网 | 쑤커즈 '양주 강단'에서 한중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 孙科志昨日登“扬州讲坛”阐释中韩文化关系 |
| | 新华网内蒙古频道 | 국내 최대 규모의 홍산 문화·요나라 문화 전문 박물관 개관 国内规模最大 红山文化和辽文化主题博物馆开放 |
| 2010.08.09 | 인터넷 길림신문 | 중앙민족대학교 한국어학 후학 양성 연수회 진행 중앙민족대학교 한국어학 후학 양성 연수회 진행 |
| 2010.08.10 | 人民网 | 네이멍구 츠핑시 제5회 홍산 문화 정상 포럼 개막 内蒙古赤峰市第五届红山文化高峰论坛开幕 |
| 2010.08.11 | 中国新闻网 | 한국 언론 한일병합은 무효이며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증거 제시 韩国媒体出示证据称韩日合并无效 不符合国际法 |
| 2010.08.12 | 北方新闻网 | 홍산 문화 및 양사오 문화 등 처음으로 문명 단계 진입 红山文化及仰韶文化等最早进入了文明阶段 |
| 2010.08.16 | 深圳商报 | 중국 용 토템 문화의 기원을 찾아 : 홍산 문화 옥룡(玉龍) 가장 완벽 寻找中国龙图腾文化的源起:红山文化玉龙最完备 |
| 2010.08.17 | 环球时报 | 조선 명성황후의 비참한 죽음 및 미궁에 빠져 있는 진짜 모습 朝鲜明成皇后日本惨死真相及真容百年未解之谜 |
| 2010.08.19 | 四川新闻网 | 한국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목재 '노' 발견 韩发现新石器时代木制船桨 距今约7000年 |
| 2010.08.20 | 环球时报 | 100년 전 G20 화보 공개, 한국 학자 고종의 자리 배치에 불만 百年前G20画报公开 韩学者不满韩高宗排位(图) |
| | 牡丹江日报 | 제2회 목단강시 조선족 경박호(鏡泊湖) 민속문화제 개막 第二届牡丹江市朝鲜族镜泊湖民俗文化节开幕 |
| 2010.08.25 | 通化日报 | 집안시 고구려 고분군 발견 集安市发现一处高句丽墓群 |
| | 中国新闻网 | 학자 : 중국 민족 신화는 동아시아 신화학 연구의 귀중한 자원 多国学者:中国民族神话是东亚神话学研究宝贵资源 |
| 2010.08.27 | 中国新闻出版网 | 악록서사(岳麓書社)판 역사 교재 한국의 대학에 처음으로 수출 与韩大学签约 湘版历史教材首次走出国门 |
| | 인터넷 길림신문 | 연변 조선족 농악무 유네스코 항목 증서 발급받아 연변 조선족 농악무 유네스코 항목 증서 발급받아 |
| 2010.08.29 | 인터넷 길림신문 | 중국 조선족 역사 문화 동호회 발족 중국 조선족 력사 문화 동호회 발족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9.01 | 环球网 | 한국 교수, 한국인이 염황(炎黃)의 자손으로 실증될까 우려 韩国教授担忧韩国人或被证实为炎黄子孙 |
| | 环球网 | 한국 누리꾼 중국 역사 수정에 불만, 고대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강했다고 함 韩网民不满中国修订历史 称古代韩国远比中国强 |
| | QQ | 후난성에서 출판된 역사 교과서, 한국 대학 교재로 채택된 것은 상징적 湘版历史教材走进韩国大学课堂 成标志性事件 |
| 2010.09.02 | 中华收藏网 | 한국 학자 :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발견했다고 韩国学者称 : 发现世界现存最古老的金属活字 |
| | 新华网 | 한국, 중국의 역사 수정으로 염황(炎黃)의 자손으로 분류될까 우려 韩不满中国修订历史 怕被列为炎黄子孙 |
| 2010.09.03 | 搜狐 | 북한 : 독특한 고구려 벽화고분 발굴 图文 : 朝鲜挖掘出独特的高句丽壁画墓穴 |
| | 环球网 | 중국 변경 장성 보수에 한국 고고학계 불만 표시 中国维修边界长城 韩考古界表示不满 |
| | 搜狐 | 한국이 최고의 금속활자 본을 발견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인쇄 발명지가 바뀔 수 도 있다고 韩国称发现最古老金属活字 或为争夺印刷发明地 |
| 2010.09.06 | 新華網遼寧頻道 | 문화유산 보호 사업의 강화와 그 성과 공유 加强文化遗产保护工作 成果共享 |
| | 北青网 | 역사 교과서 잘못된 점이 있는가? 历史教科书 有错吗? |
| | 四川电视台 | 북한, 조형이 독특한 4세기 고구려 벽화묘 발굴 朝鲜挖出高句丽壁画墓穴 造型独特来自公元4世纪 |
| 2010.09.07 | 黑龙江新闻网 | 30m 대형 발해국 석등탑 징보사오진(鏡泊小鎮)에 우뚝 솟을 예정 30米巨型渤海国石灯塔将屹立镜泊小镇 |
| | 红网 | 츠여우(蚩尤) 문화 홍보 대사 선발 대회, 장사 지구 직접 선거에서 미녀 13명 진출 蚩尤文化形象大使选拔赛长沙赛区海选 13位美女晋级 |
| 2010.09.09 | 新華網黑龍江頻道 | 하얼빈시 소수민족문화관 건립에 3천만 위안 투자 哈市投资三千万修建少数民族文化馆(所) |
| 2010.09.10 | 博宝网 | 조선족 무형문화유산관 개관 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馆开馆 |
| 2010.09.11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 중국 지원군 원조 60주년 기념우표 발행 조선, 중국 지원군 원조 60주년 기념우표 발행 |
| 2010.09.13 | 인터넷 길림신문 | 경희대학교 충민주동문회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 한국경희대학교 충민주동문회 신흥무관학교 옛터 답사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09.14 | 新华网 | 집안 광개토태왕 서예관 낙성 및 광개토태왕 국제 서예전 개최 集安好大王书法馆落成好大王国际书法展举行 |
| 2010.09.15 | 网易 | 제9회 한·중·일 박물관 국제 학술 대회 베이징에서 열려 第九届中日韩博物馆国际学术研讨会在北京举行 |
| 2010.09.16 | 人民网天津视窗 | 한·중·일, 역사로 상처를 메워야 亚洲周刊 : 受害心态妨和解 中日韩弥合历史伤痕 |
| | 延边新闻网 | '엔벤의 가을' 제1회 도문강 조선족 농악 축제 개막 '延边之秋'首届图们江朝鲜族农乐节开幕 |
| 2010.09.17 | QQ | 중국 침구 세계 문화유산 신청, 한국의 반대에 부딪혀 中国针灸申遗遭韩国反对 |
| 2010.09.20 | 新浪 | 한국 언론, 요녕 본계(本溪) 박씨는 한국인의 후예라고 보도 韩媒体称我辽宁本溪朴氏为韩国人后裔 |
| 2010.09.24 | 新广网 | 한국인이 보는 중국 조어도 사건 韩国人看“中日钓鱼岛事件” |
| 2010.09.29 | 东北网 | 태극기 창제자의 거처, 친일파의 집이었다고 韩国旗创制者住所被指曾为亲日派房产(图) |
| 2010.09.30 | 新华网内蒙古频道 | 『중국 조선족 혁명 투쟁사 전시회』 시작 『中国朝鲜族革命斗争史展览』开展 |
| 2010.10.02 | 中国新闻网·保定新闻 | 주중한국대사, 바오딩에서 한·중 역사 관계의 증거를 찾아 韩国驻华大使古城保定寻找韩中历史关系见证(图) |
| 2010.10.08 | 新浪 | 한국 언론 매체 세계 각국 교재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기록 나열 韩国媒体罗列世界多国教材对韩错误记载 |
| 2010.10.09 | 网易新闻 | 위가와포(魏家窩鋪) 홍산 문화 취락 유적 야외 발굴 수확 많아 魏家窝铺红山文化聚落遗址野外发掘收获不小 |
| 2010.10.13 | 环球时报 | 전문가 소위 '한글 강점'설 반박 조선어는 중국 법정 언어라고 주장 专家驳斥所谓“霸占韩文”说 称朝鲜语是中国法定语言 |
| 2010.10.14 | 环球网 | 한국 국회의원, 중국이 '한글을 강점'하려고 한다는 한국 매체의 보도는 오해라 고 함 韩媒臆测中国欲“霸占韩文” 韩议员称是误会 |
| 2010.10.18 | 인터넷 길림신문 | 연변민족전통예절문화원 엔지시공원소학교에서 전통 예절 특강 진행 연변민족전통예절문화원 연길시공원소학교에서 전통 레절 특강 진행 |
| 2010.10.20 | 吉林省文化廳 | 집안 고구려 고고 유적 공원 제1차 국가 고고 유적 공원 명단 등재 集安高句丽考古遗址公园被列入首批国家考古遗址公园名单 |
| 2010.10.23 | 新华网 | 정말로 한자 문화권에 일본과 한국을 포함할 수 있을까? “汉字文化圈”真能涵盖日韩吗(图)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10.25 | MSN中国 | 한국 매체, 애국 열사 안중근을 처형한 후 일본은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보도 韩媒：爱国烈士安重根就义后日本举行贺宴 |
| 2010.10.26 | 安徽广播网 | 동북 이인전(东北二人转)은 흥산 무속 문화에서 기원 纪连海：东北二人转起源于红山巫文化 |
| | 인터넷 길림신문 | 북한 정부,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 60돌 성대히 기념 조선 정부, 중국인민지원군 입조 참전 60돌 성대히 기념 |
| 2010.10.27 | 国务院新闻办公室 | 한·중 연구 기구, 주자학 교류 협력 협의서에 서명 中韩研究机构签署朱子学交流合作协议 |
| 2010.10.28 | 新浪 | 사회과학원 전문가, 현재 갑골문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 중이라고 社科院专家称甲骨文正在申报世界遗产 |
| | 新华网内蒙古频道 | 5만여 폭의 암각화가 발견된 음산 암각화 세계 문화유산에 신청 예정 已发现岩画5万多幅 阴山岩画将申报世界文化遗产 |
| | 网易 | 장백산 지역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구석기 시대 말기 인류 유적 발견 长白山区发现东北亚规模最大的旧石器时代晚期人类遗址 |
| | 搜狐 | 한·중 전문가 장춘에서 궁정박물관의 진열 전시에 대하여 논의 中韩专家在长春探讨宫廷博物馆的陈列展示 |
| 2010.11.01 | 山西出版传媒网 | 중국출판집단 : 한국전쟁 도서 출판 아직도 부족 中国出版集团：朝鲜战争图书出版仍有空白 |
| 2010.11.02 | QQ | 선생님의 '거짓말' : 중국 교과서 중의 '잘못' 老师的“谎言”：中国教科书中的“错误” |
| | 凤凰网 | 한국 언론, 중국이 대장금과 아리랑을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고' 보도 韩媒竟称中国将大长今、阿里郎“据为己有” |
| 2010.11.04 | 人民网天津视窗 | 천진, 항미원조 역사 연구회 개최 图文：天津抗美援朝历史研究会召开 |
| 2010.11.07 | 呼倫貝爾日報网 | 장백산 천지로 본 북·중 경계 문제의 역사 근원, 모택동의 '매국' 행위에 대하여 논함 从长白山天池看中朝边界问题的历史根源，兼论伟大统帅的“卖国”行径 |
| 2010.11.10 | 猫扑 | 온라인 게임 『무신(武神)』 자료의 세계 지도 『武神』资料之世界地图 |
| 2010.11.11 | 博宝网 | 일본이 강탈해 간 한국 고적 1,205책, 원래 주인에게 돌아올 예정 1205册被日抢走朝鲜古籍将物归原主 |
| | 延邊日報 | 왕칭 상모춤 예술단 금상 받아 왕칭 상모춤 예술단 금상 받아 |
| 2010.11.13 | 中国新闻网吉林新闻 | 집안 고구려 고고 유적 공원 제1기 국가 고고 유적 공원 선정 集安高句丽考古遗址公园入选首批国家考古遗址公园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11.14 | 延邊日報 | 『중국 조선족 통사』 출판 기념회 개최 『중국 조선족 통사』 출판 기념회 개최 |
| | 文汇报 | 송교인과 『간도 문제』 宋教仁与『间岛问题』 |
| 2010.11.15 | 北京日报 | 왕효추(王晓秋) : 중화 문화는 한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王晓秋：中华文化是怎样影响日韩的 |
| 2010.11.17 | 新华网广西频道 | 중의 침구와 경극, 연합국 교과문 조직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록 中医针灸京剧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非遗名录 |
| | 中國經濟网 | 한국 대목장 등 3건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성공 韩国大木匠等三项申遗成功 |
| 2010.11.21 | 인터넷 길림신문 | 조선족 문화,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 조선족 문화,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 |
| 2010.11.22 | 重庆晨报 | 중의 침구·경극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명단에 포함 中医针灸、京剧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非遗名录 |
| 2010.11.23 | 光明日报 | '중국 인민 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60주년 기념 학술 보고회' 베이징 개최 纪念中国人民志愿军抗美援朝出国作战60周年学术报告会在京举行 |
| 2010.11.26 | 江南时报 | 한국, 세계 유산 종묘 기념 은화 발행 韩国发行世界遗产首尔宗庙纪念银币 |
| 2010.11.27 | 凤凰网 | 헤이룽장, 민간 문물 감찰원을 모집하여 유적 보호 강화 黑龙江招募民间文物监察员加强遗址保护 |
| 2010.11.28 | 新华网内蒙古频道 | 대형 선사 시대 흥산 문화 유적 내몽고 옹우특기에서 발견 大型史前红山文化遗址在内蒙古翁牛特旗被发现 |
| 2010.11.29 | 中华收藏网 | 대형 선사 시대 흥산 문화 유적 네이멍구 옹우특기(翁牛特旗)에서 발견 大型史前红山文化遗址在内蒙古翁牛特旗被发现 |
| | 인터넷 길림신문 | 두만강 지역 다변 합작 개발 포럼 장춘 개최 두만강 지역 다변 합작 개발 포럼 장춘서 |
| 2010.11.30 | 인터넷 길림신문 | 도문 『조선족 전통 예절 교육』 강습 활동 진행 『조선족 전통 예의 교육』 강습 활동 도문서 |
| | 辽宁日报 | 흥산 문화 3D만화영화 촬영 예정 红山文化要拍成3D动画电影 |
| | 人民网 | 헤이룽장성 박물관 원시 석촉(石鏃) 전시회 개최 黑龙江省博物馆举办远古石鏃展览 |
| 2010.12.01 | 中國文物信息网 | 『랴오닝 고대 문물전』 한국 경기박물관 전시 『辽宁古代文物展』赴韩国京畿道博物馆展出 |

| 날 짜 | 출 처 | 내 용 |
|------------|----------|--|
| 2010.12.02 | 中华收藏网 | ‘중화 제일룡(中華第一龍)’ 고고 신발견 : 용의 기원은 농업 경제와 무관 “中华第一龙”考古新发现: 龙的起源与农业经济无关 |
| 2010.12.06 | 凤凰网 | 근 4백 년에 걸친 조선족 역사를 담은 『중국 조선족 사료 전집(中國朝鮮族史料全集)』 출판 『中国朝鲜族史料全集』出版 涵盖朝鲜族近400年历史 |
| 2010.12.07 | 新华网 | 한국 재야 사학 주류로 침투 노력 韩国“在野史学”力争向主流渗透 |
| | 人民网 | 한국의 매 훈련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의 계시 韩国驯鹰入选非遗的启示 |
| | 东北新闻网 | 환인 문물 유적 4백여 곳 또 발견 桓仁又发现400余处文物遗迹 |
| 2010.12.15 | 晨网 | 중국, ‘한국 측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훔쳐간 중국 동북의 고분벽화’ 반환 요구 韩方雇人盗窃我国东北古墓壁画 中方要求返还 |
| 2010.12.16 | 安徽广播网 | 차하이(查海) 유적과 홍산 문화(紅山文化) : 중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용’ 발견 查海遗址与红山文化: 发现中国最原始的“龙” |
| | 인터넷 길림신문 |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출간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출간 |
| 2010.12.17 | 21CN | 한국 누리꾼, 중국이 벽화를 요구하니 고구려 이전의 땅과 맞바꾸자고 韩网民: 中国要壁画 拿高句丽以前土地交换 |
| | 凤凰网 | 한국 학자의 고구려 역사 왜곡으로 중국 네티즌들 들끓어 新闻背景: 韩学者歪曲高句丽历史引中国网民哗然 |
| 2010.12.21 | 新华网 | 북한 고려 시대 도요지 유적 발견 朝鲜发现高丽时期陶瓷窑遗迹 |
| 2010.12.22 | 中国湘西 | 화원(花垣) 전국 치우(蚩尤) 문화 연구 기지가 됨 花垣成为全国蚩尤文化研究基地 |
| 2010.12.27 | 北国网 | ‘랴오닝 고대 문물전(遼寧古代文物展)’, 한국에서 전시 “辽宁古代文物展”赴韩国展出 |
| 2010.12.28 | 中國文物信息网 | ‘실크로드 대 문명전’ 한국 개막 “丝绸之路大文明展”在韩开幕 |
| 2010.12.30 | 凤凰网 | 한국 청나라 때부터 중국 경시 朝鲜从清朝开始轻视中国 |

3) 국내 학술연구 논저

(1) 도서

| 저 자 명 | 서 명 | 출 판 사 | 연 도 |
|-------------------------|---|---------------|---------|
| 가린미하일롭스키 | 러시아인이 바라본 1898년의 한국, 만주, 랴오둥 반도-가린-미하일롭스키의 여행기-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1 |
| 가토 기요후미 | 대일본제국 붕괴-1945년 일본의 패망과 동아시아- | 바오출판사 | 2010.08 |
| 강돈구·윤용복·고병철·박미라 | 현대 중국의 한국종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12 |
|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담론의 공간으로서 동아시아 | 역락 | 2010.03 |
| 고병철 외 | 간도와 한인종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4 |
| 광복회 | (22인의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만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기 | 선인 | 2010.06 |
| 구범진·이지영 | 국역 동문휘고 범월사료(2)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8 |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동아시아 용관묘 | 학연문화사 | 2010.06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동아시아 고대사지 비교연구(11)-금당지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2010.12 |
| 국사편찬위원회 | 대한민국입시정부자료집39-중국 보도 기사- | 국사편찬위원회 | 2010.12 |
| 국사편찬위원회 | 해외사료총서22-일본·중국 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 보고- | 국사편찬위원회 | 2010.12 |
| 국제안중근기념협회·반무충·김파 | 백년의 얼 충혼 안중근 | 백암 | 2010.03 |
| 권오중·윤재석·김경호·윤용구·이성제·윤선태 | 낙랑군 호구부 연구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 고대 동아시아 불교 문헌의 새로운 발견 | 씨아이알 | 2010.08 |
| 김경표 | 발해건축사론 | 기문당 | 2010.08 |
| 김남호 | 중국조선족 전통음악 대중음악론 | 민속원 | 2010.11 |
| 김두진 | 한국고대사의 창을 통해 민족문화 보기 | 서경문화사 | 2010.06 |
| 김범송 |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 역락 | 2010.12 |
| 김선자·김윤성·박규태·차옥승 | 동아시아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10.08 |
| 김성근 | 朝·淸 외교관계 변화연구 | 한국학술정보 | 2010.03 |
| 김영범 | 혁명과 의열-한국독립운동의 내면- | 경인문화사 | 2010.04 |
| 김예경·김우준·정갑영·전설매·정상화 | 중국 조선족의 중간 집단적 성격과 한중 관계 | 백산자료원 | 2010.08 |
| 김인희 |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 푸른역사 | 2010.12 |
| 김정배 |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2010.11 |

| 저자명 | 서명 | 출판사 | 연도 |
|----------------------|--|--------------------|---------|
| 김종식 | (正史) 고구려 1-5권 | 우리영토논쟁사연 구소 보학당 | |
| 김주미 | 한민족과 해속의 삼족오 | 학연문화사 | 2010.12 |
| 김준엽 선생 기념 서 편찬위원회 |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 아연출판부 | 2010.11 |
| 김지훈 외 |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김파 | 천추의 충혼 안중근 | 백암 | 2010.03 |
| 김형중 |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1 |
| 김희선 | 동아시아 도성제와 고구려 장안성 | 지식산업사 | 2010.01 |
| 노성태 | 독립의 기억을 걷다-만주·연해주 답사기- | 한울 | 2010.02 |
| 독립기념관 | 중국 신문 안중근 의거 기사집 | 독립기념관 | 2010.12 |
| 동국대학교 문화 학술원 한국문화 |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10.01 |
|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 동아시아 불교의 근대적 변용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10.09 |
| 동북아역사재단 | 북사 외국전 역주(상)·(하)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3 |
| 동북아역사재단 | 위서 외국전 역주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3 |
| 동북아역사재단 | 주서·수서 외국전 역주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3 |
| 동북아역사재단 | 남제서·양서·남사 외국전 역주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3 |
| 동북아역사재단 |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5 |
| 동북아역사재단 |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발해와 일본-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5 |
| 동북아역사재단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I-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연구 재검토-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1 |
|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0 |
| 동북아역사재단 |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 경인문화사 | 2010.04 |
|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동북아역사재단 | 송서 외국전 역주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3 |
| 동북아역사재단 |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 고서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2 |
| 동아시아재단·제 주평화연구원 |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 오름 | 2010.12 |
| 미야 노리코 |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 소와당 | 2010.10 |
| 민희식 |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접수하다-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블루리본 | 2010.05 |
| 박노자 | 거꾸로 보는 고대사-민족과 국가의 경계 너머 한반도 고대 사 이야기- | 한겨레출판 | 2010.09 |
| 박도 | 영웅 안중근-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의 자취를 찾 아서- | 눈빛 | 2010.03 |
| 박승준 | 한국과 중국 100년-격동의 외교 비록- | 기파랑 | 2010.03 |

| 저자명 | 서명 | 출판사 | 연도 |
|---------------|---|--|---------|
| 박영석 |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 독립운동 | 국학자료원 | 2010.06 |
| 박원길 | 조선과 몽골-최덕중·박지원·서호수의 여행기에 나타난 몽 골 인식- | 소나무 | 2010.03 |
| 박윤준·정승진 | 아시아 건축의 이해 | 서울하우스 | 2010.09 |
| 박은옥 | 고려당악 | 문사철 | 2010.02 |
| 박정진 | 단군신화에 대한 신연구 | 한국학술정보 | 2010.01 |
| 박제가 | 정유각집 | 돌베개 | 2010.02 |
| 박찬승 | 민족·민족주의 | 소화 | 2010.05 |
| 박태걸 | 중국에서 본 한국 | 아름다운사람들 | 2010.08 |
| 박환 | 김좌진 평전 | 선인 | 2010.04 |
| 배경석 | 廣開土大王碑 | 서예문인화 | 2010.11 |
| 백제문화개발연 구원 | 한·중 백제 문화유산 비교 연구-중국 南京·北京 지역 博物 院(館)을 중심으로- | 백제문화개발연구 원 | 2010.12 |
| 서병국 | 발해제국사-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인 34가지 증거- | 한국학술정보 | 2010.09 |
| 서병국 | 대동이탐구 | 한국학술정보 | 2010.08 |
| 서연호 |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 東文選 | 2010.03 |
| 서의식 | 한국고대사의 이해와 국사교육 | 혜안 | 2010.03 |
| 석길암 |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 불광 | 2010.06 |
| 성현식 | 천년 만에 밝혀진 안시성과 살수 | 지샘 | 2010.10 |
| 선즈화 |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 선인 | 2010.03 |
| 손경순·이흥구 | 한국궁중무용총서11-현천화·만수무·최화무·고구려무· 선유락- | 보고사 | 2010.09 |
| 손미경·신용섭 | 부여 여인 이야기-여인을 중심으로 본 우리 고장 역사 탐방- | 여우별 | 2010.10 |
| 손영홍 | 근대북경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한인사회의 변천과 성격 을 밝히다- | 역사공간 | 2010.11 |
| 송기호 | 말 타고 종 부리고-신분세계와 유포피아- |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 2010.01 |
| 송기호 | The Clash of Histories in East Asia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 tion | 2010.04 |
| 송동건 | 고구려와 흉노 | 진명출판사 | 2010.08 |
| 송일훈 | 한·중·일 격투무예 연구 | 한국학술정보 | 2010.08 |
| 수원박물관 | 조천증행록 | 수원박물관 | 2010.10 |
| 신동준 | 조선국왕 vs 중국황제-시대를 뛰어넘는 권력의 법칙- | 위즈덤하우스 | 2010.11 |
| 신명호 | 황후 삼국지-세 황후는 어떻게 근대 동아시아를 호령했 는가- | 다산초당 | 2010.04 |
| 신용하 |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 | 지식산업사 | 2010.08 |
| 신정훈 | 동아시아 역사 5가지 궁금중 | 이담북스 | 2010.11 |

| 저자명 | 서명 | 출판사 | 연도 |
|-------------|---|----------|---------|
| 신현 | 심행일기-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 푸른역사 | 2010.08 |
| 阿桂 외 | 欽定 滿洲原流考(상)·(하) | 글모아출판 | 2010.04 |
| 안재홍 | 정민 교수가 풀어 읽은 백두산 등척기 | 해냄 | 2010.10 |
| 염인호 | (또 하나의)한국전쟁-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 역사비평사 | 2010.05 |
| 원재훈 | 안중근, 하얼빈의 11일 | 세계절출판사 | 2010.03 |
| 윤명철 | 고구려 겨울 | 학연문화사 | 2010.06 |
| 윤명철 | 고구려 소리 | 학연문화사 | 2010.06 |
| 윤영인 외 | 외국 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1 |
| 윤은숙 |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웃치진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 | 소나무 | 2010.03 |
| 윤인진·박상수·최원오 |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 아연출판부 | 2010.10 |
| 윤재운·장희홍 | 한국사를 움직인 100인-단군부터 전태일까지 한국을 바꾼 사람들- | 청아출판사 | 2010.12 |
| 윤지원 |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의 아류인가? | 소나무 | 2010.06 |
| 장시동 |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1) | 신서원 | 2010.06 |
| 장시동 | 송원시대의 고려사 자료(2) | 신서원 | 2010.12 |
| 이근명 |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이근철 | 간도의 초상 | 엠에드 | 2010.03 |
| 이다 | 반크 역사바로찾기2 | 키네마인 | 2010.03 |
| 이동진 외 | 중국 동북 연구 방법과 동향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1 |
| 이민 | 내 어린 시절-만주의 조선족 항일 여전사 회상기- | 지식산업사 | 2010.08 |
| 이서행·김정배 | 백두산-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9 |
| 이석현 |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8 |
| 이성재 | 태왕의 꿈-고구려 중흥의 군주 미천왕 평전- | 해안 | 2010.09 |
| 이성재 | 고구려성 사진자료집-중국 길림성 동부- | 동북아역사재단 | 2010.05 |
| 임을출 |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 한울 | 2010.12 |
| 이승만 | 구한말 동북아 정세와 대한제국의 최후 | 화산문화 | 2010.07 |
| 이영호 | 고구려의 낙랑 정벌 | 삼성비엔씨 | 2010.09 |
| 이영호 | 한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 | 삼성비엔씨 | 2010.09 |
| 이이화 | 백두산을 오르며 만나는 우리역사 | 리북 | 2010.06 |
| 이익주 외 |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이인철 |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 백산자료원 | 2010.02 |
| 이종걸 | 다시 그 경계에 서다-100년 전 그날, 만주 벌판을 향해 떠났던 선조들의 숨겨진 역사- | 옥당 | 2010.03 |
| 이청규 외 | 요하 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저자명 | 서명 | 출판사 | 연도 |
|----------------------------------|-------------------------------------|----------------------------------|---------|
| 이충양 | 고대 한중 교유시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10.03 |
| 이태진 외 |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 지식산업사 | 2010.12 |
| 이평래 외 |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이홍규 | 한국인의 기원 | 우리역사연구재단 | 2010.11 |
|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 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 | 인하대학교출판부 | 2010.06 |
|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 범월과 이산-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 인하대학교출판부 | 2010.07 |
| 임경석 |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1815~1945- | 논형 | 2010.07 |
| 전호근·김시천 | 번역된 철학, 착종된 근대-우리시대의 동아시아 고전 읽기- | 책세상 | 2010.03 |
| 정약용 | 역주 국조전례고-조선과 중국의 전례 논쟁에 대한 정약용의 비평- | 심산 | 2010.03 |
| 정재서 | 제3의 동양학을 위하여 | 민음사 | 2010.11 |
| 조동일 | 동아시아 문명론 | 지식산업사 | 2010.06 |
| 조성환·김현숙·천성립·김석근·김혜승 | 세계화와 동아시아 민족주의 | 책사랑 | 2010.08 |
| 조세현 |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 교류와 연대-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 창비 | 2010.12 |
| 조인성 외 |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 논저 분석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1 |
| 주돈식 | (처음 듣는) 조선족의 역사 | 푸른사상사 | 2010.08 |
| 중국해양대학교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사업단 | 근대 동아시아인의 이산과 정착 | 경진 | 2010.12 |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 장보고 해양 제국의 비밀 | 중앙일보시사미디어 | 2010.03 |
| 지춘상 | 동아시아 민속학 | 민속원 | 2010.06 |
| 최원식·백영서 |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 창비 | 2010.12 |
| 최장근 | 일본의 독도-간도 침략 구상 | 백산 | 2010.06 |
| 최정목·조원일 | 동아시아의 유학사상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0.10 |
| 최진열 | 대륙에 서다-2천 년 중국 역사 속으로 뛰어든 한국인들- | 미지북스 | 2010.03 |
| 최혜실 | 한류 문화와 동북아 공동체 | 집문당 | 2010.11 |
| 트카첸코 | 러시아-중국-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 국경-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한국고고학회 | 移住의 고고학-제34회 한국 고고학 전국 대회- | 한국고고학회 | 2010.11 |
| 한국전통문화학교·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 연해주의 발해 유적과 폰스판찌노브카(1) 주거 유적 | 한국전통문화학교·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 2010.12 |

| 저자명 | 서명 | 출판사 | 연도 |
|---------------------|-----------------------|----------|---------|
| 한림과학원 | 동아시아 개념연구-기초문헌해제- | 선인 | 2010.07 |
| 한성우 | 근대 이행기 동아시아의 언어 지식 | 인하대학교출판부 | 2010.07 |
| 한일관계사연구 논집 편찬위원회 | 동아시아 세계와 입진왜란 | 景仁文化社 | 2010.03 |
| 황병훈 | 안중근을 보다 | 해피스토리 | 2010.10 |
| 황원갑 | 인물로 읽는 삼국유사 | 청아출판사 | 2010.12 |
| 황중호 | 총마행-중원을 호령한 고구려인 이야기- | 아이필드 | 2010.08 |

(2) 논문

● 학위 논문

| 저자명 | 논문명 | 대학 | 연도 | 구분 |
|-----|---|--------------|---------|----|
| 김윤희 | 조선 후기 사행 가사의 세계 인식과 문학적 특질 | 고려대 | 2010.08 | 박사 |
| 김일학 | 中國 朝鮮族 農村 居住空間의 特性과 變遷에 關한 研究-東北 3 省의 朝鮮族 마을과 住居를 對象으로- | 한양대 | 2010.08 | 박사 |
| 김일환 | 병자호란 체험의 '재화' 양상과 의미 연구 | 동국대 | 2010.02 | 박사 |
| 김진한 | 고구려 후기 대외 관계사 연구 | 한국학중앙 연구원 | 2010.08 | 박사 |
| 김현권 | 김정희파의 한중 회화 교류와 19세기 조선의 화단 | 고려대 | 2010.08 | 박사 |
| 박경미 | 한·중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문화 연구 | 경성대 | 2010.02 | 박사 |
| 서여명 | 중국을 매개로 한 애국계몽서사 연구-1905~1910년의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 인하대 | 2010.02 | 박사 |
| 윤상열 | 高句麗 天下觀의 형성 배경 연구-지배 구조와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 연세대 | 2010.02 | 박사 |
| 윤수희 | 百濟의 人的 交流 연구-5세기를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 연구원 | 2010.09 | 박사 |
| 이주형 | 高句麗 廣開土 大王碑의 書藝 文化史의 意義와 書體美 研究 | 성균관대 | 2010.08 | 박사 |
| 조우연 | 4~5세기 高句麗 國家 祭祀와 佛教 信仰 研究 | 인하대 | 2010.08 | 박사 |
| 차성연 | 한국 근대 문학의 만주 재현 양상 연구 | 경희대 | 2010.02 | 박사 |
| 최성애 | 18·19세기 使行錄에 表現된 劍舞 '俠'의 특징 연구 | 성균관대 | 2010.02 | 박사 |
| 한준수 | 新羅 中代의 唐制 受容과 統治 體制의 정비 | 국민대 | 2010.02 | 박사 |
| 홍주희 | 龜慈樂의 傳播와 韓·中 古代 音樂에 끼친 影響 | 한양대 | 2010.08 | 박사 |
| 기경량 |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 서울대 | 2010.02 | 석사 |
| 김경화 | 고구려 유화의 기원 | 인하대 | 2010.02 | 석사 |
| 김나영 | 탈냉전기 미국의 동북아 해 비확산 정책과 북한의 대응 전략-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경북대 | 2010.08 | 석사 |
| 김상배 | 조선 후기 사군 재설치 논의와 북방 인식 | 부산대 | 2010.02 | 석사 |
| 김영석 | 삼국 시대와 당에 나타난 연화를 이용한 장신구 개발 연구 | 원광대 | 2010.02 | 석사 |
| 김인홍 | 4~5세기 고구려와 왜의 외교적 교섭에 대한 연구-『일본서기』 응신·인덕기를 중심으로- | 단국대 | 2010.02 | 석사 |
| 김지선 | 고등학교 정치 교과에서의 동북아 공동체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 부산대 | 2010.08 | 석사 |
| 김춘화 | 한·중 환술의 역사 및 연행 양상 | 고려대 | 2010.08 | 석사 |
| 남경희 | 고구려 여인의 머리 모양과 치장에 관한 연구 | 국제문화대 | 2010.08 | 석사 |
| 박경준 | 한국·북한·중국의 발해사 서술 비교 연구-중등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단국대 | 2010.02 | 석사 |
| 박규진 | 발해 석축묘 연구 | 고려대 | 2010.08 | 석사 |
| 박혜경 | 고구려 고분 벽화의 운문 연구 | 숙명여대 | 2010.02 | 석사 |

| 저자명 | 논문명 | 대학 | 연도 | 구분 |
|-----|---|----------|---------|----|
| 백솔잎 | 중학교 미술 교육의 표현 기법 지도 방안 연구-고구려 고분 벽화를 중심으로- | 단국대 | 2010.08 | 석사 |
| 백열기 | 중학교 《국사》와 《조선력사》 3의 고구려 시대 서술 비교 분석 | 계명대 | 2010.02 | 석사 |
| 송원영 | 금관가야와 광개토왕 비문 경자년 남정 기사-김해 지역 고고학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 부산대 | 2010.08 | 석사 |
| 송철수 | 삼국 시대 미륵 신앙의 수용과 신앙 형태에 대한 고찰 | 위덕대 | 2010.02 | 석사 |
| 신광철 | 한강 유역 고구려 관방 시설을 통해 본 고구려 남북 전선 주둔 부대의 성격과 군사 전략 | 고려대 | 2010.02 | 석사 |
| 양혜진 | 한·중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고구려사 서술과 내용 분석 | 국민대 | 2010.02 | 석사 |
| 오진석 | 통구 고분군 적석총의 군집 양상 연구 | 고려대 | 2010.02 | 석사 |
| 왕염려 | 白石의 '만주' 시편 연구-'만주' 체험을 중심으로- | 인하대 | 2010.08 | 석사 |
| 우묘 | 18세기 조선 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 연구-"연행록"에 나타난 화이 사상 및 복학 사상을 중심으로- | 국민대 | 2010.02 | 석사 |
| 우정희 | 동북공정에 대응한 고등학교 국사 교육 활용 방안 | 숙명여대 | 2010.08 | 석사 |
| 劉琳 | 18세기 후반 박지원의 열하 체험과 국제 질서의 변화-『열하일기』를 중심으로- | 서울대 | 2010.02 | 석사 |
| 윤원영 | 고구려 의관제의 성립과 운영 | 경희대 | 2010.08 | 석사 |
| 이승미 | 고구려 머리 모양을 통한 문화 콘텐츠 자료 연구 | 건국대 | 2010.08 | 석사 |
| 이주영 | 고구려 건국 신화의 이원적 구조와 문화 기호 | 고려대 | 2010.02 | 석사 |
| 이준설 | 발해 불상에 관한 일고찰 | 경성대 | 2010.02 | 석사 |
| 이현희 | 일제침략초기(1905~1919) 재조선 일본인의 만주인식 | 연세대 | 2010.02 | 석사 |
| 전대현 | 고구려 말기의 불교 동향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8 | 석사 |
| 정광휘 | 17·18세기 조선의 명대 당송파 수용 양상 연구 | 부산대 | 2010.02 | 석사 |
| 정명광 |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후연 정벌 | 전북대 | 2010.08 | 석사 |
| 정세웅 | 고구려의 대중관계 연구-남북조 시기를 중심으로- | 영남대 | 2010.08 | 석사 |
| 정예지 | 경신 참변기 조선인 '귀순' 문제 연구-북간도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 2010.08 | 석사 |
| 정윤경 | 고구려 권운문 와당 연구 | 고려대 | 2010.08 | 석사 |
| 정은정 | 동아시아 역사의 역사와 연행 양상 | 고려대 | 2010.02 | 석사 |
| 조나희 |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나타난 가무 배송도의 구성과 춤의 특징 분석 | 중앙대 | 2010.08 | 석사 |
| 조민규 | 고구려 태조왕의 출자와 계루부 왕통의 성립 과정 | 건국대 | 2010.08 | 석사 |
| 조은경 | 『동방전우』를 통해 본 이두산의 동방 반파시스트 국제연대론(1939~1942) | 서울시립대 | 2010.02 | 석사 |
| 채취균 | 간도 지역 기독교 학교 연구 | 한신대 | 2010.02 | 석사 |
| 최인창 | 삼국시대 중부 지역의 주거 시설 연구-주거 시설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수원대 | 2010.08 | 석사 |
| 최일례 |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 신화의 투영 맥락-비류부의 정치적 위상을 중심으로- | 전남대 | 2010.02 | 석사 |

| 저자명 | 논문명 | 대학 | 연도 | 구분 |
|-----|--|------|---------|----|
| 하인숙 |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생활사 서술에 관한 연구-근대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경남대 | 2010.08 | 석사 |
| 한정인 | 발해 정효공주묘 연구 | 숙명여대 | 2010.02 | 석사 |

● 일반 논문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강병희 | 고대 중국 건축의 8각 요소 검토-고구려8각불탑의 조망을 위하여- | 한국사상사학36 | 한국사상사학회 | 2010.12 |
| 강봉룡 | 고대 동아시아 연안 항로와 영산강·낙동강 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 도서문화36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2010.12 |
| 강봉원 |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기마민족 이론"의 재고-등자 및 재갈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강용범 | "天安艦"事件與中朝關係變化 | 동북아연구 25-2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2010.12 |
| 강원목 | 康乾 시기 江南 乞丐 문제와 '盛世'의 虛像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강인옥 |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위하여-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강정설 | 河西에서의 政權 出現과 河西의 浮上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강태호 | 중국 傳統園林의 조영 기법 | 신라문화35 |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2010.02 |
| 강현숙 | 帶金具副葬 고구려 고분의 고고학적 함의 | 한국고대사연구 59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9 |
| 고광의 | 중국의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고명수 | 쿠빌라이 정부의 大都건설과 역참교통체계 구축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고병철 | 일제 강점기 간도의 한인 종교와 민족주의-종교 민족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010.03 |
| 고병철 | 중국 상해의 교민과 한국 종교 | 정신문화연구 120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9 |
| 郭磊 | 7~8세기 唐代 역경 사업과 新羅學僧 | 동국사학48 | 동국사학회 | 2010.06 |
| 곽승훈 | 『해동고승전』 아도전 연구 | 해양문화연구4 | 전남대학교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 2010.05 |
| 구도영 | 중종대 대명외교의 추이와 정치적 의도 | 조선시대사학보 54 | 조선시대사학회 | 2010.09 |
| 구산우 | 고려 현종대의 대거란전쟁과 그 정치·외교적 성격 | 역사와 경계74 | 부산경남사학회 | 2010.03 |
| 권덕영 | 한국 고대사 관련 중국 금석문 조사 연구-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97 | 한국사학회 | 2010.03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권덕영 |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국외여행기 찬술 | 동국사학49 | 동국사학회 | 2010.12 |
| 권오성 | 중국 明代 名稱 歌曲의 한국 전래고 | 국악원논문집22 | 국립국악원 | 2010.12 |
| 권은주 |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反唐 활동과 발해 건국 | 백산학보86 | 백산학회 | 2010.04 |
| 권인용 | 명말 “朝鮮監護論”에 대한 조선의 인식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권인한 |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국어학계의 연구 동향과 과제 | 한국고대사연구 57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3 |
| 기경량 |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 한국사론56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2010.06 |
| 기수연 | 중국학계의 고조선, 한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단군학연구23 | 단군학회 | 2010.11 |
| Gilbert Rozman |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정체성과 질서 | 아세아연구142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2010.12 |
| 김경복 | 고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부엌과 식사 풍습 | 한국사학보39 | 고려사학회 | 2010.05 |
| 김경호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 한국고대사연구 59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9 |
| 김광재 | 광복 이후 상해 仁成學校의 재개교와 변천 | 한국근현대사연구 54 | 한국근현대사학회 | 2010.09 |
| 김기섭 | 唐代 호등제의 신라적 수용과 변용 | 한국고대사연구 57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3 |
| 김동길 | 1945~1950년 중·미관계와 “중국 상실론” 비판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김두진 | 한국 고대사 연구의 회고와 과제 | 한국학논총33 |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 2010.02 |
| 김락기 | 6~7세기 靺鞨 諸部の 내부 구성과 거주지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김명호 | 『열하일기』 異本の 재검토-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중심으로- | 동양학48 |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 2010.08 |
| 김문기 |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小氷期 기후 변동 | 역사와경계77 | 부산경남사학회 | 2010.12 |
| 김미영 | 동아시아 근대의 다문화적 체험과 픽션-김탁환의 「파리의 조선 궁녀 리십」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33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2010.12 |
| 김백철 | 조선의 유교적 이상국가 만들기-서주와 요순의 재인식 과정- | 국학연구17 | 한국국학진흥원 | 2010.12 |
| 김병기 | 추사 서예의 轉變과 그에 대한 중국적 영향 | 추사연구8 | 추사연구회 | 2010.12 |
| 김병모 | 중국 신석기 시대 彩陶의 장식 개념과 목적 | 선사와 고대33 | 한국고대학회 | 2010.12 |
| 김보정 | 여말선초 對明 남경사행로의 분석과 영향 | 지역과역사27 | 부경역사연구소 | 2010.10 |
| 김석우 | 魏晉時期 水軍 활동과 자연재해 | 중국고중세사연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김선민 | 後漢 大喪儀禮에서의 死者의 의복과 ‘游官衣’ 의식 | 동양사학연구 110 | 동양사학회 | 2010.03 |
| 김선민 | 건륭년간 조선사행의 銀 분실사건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김성규 | 3개의 “트라이앵글” - 북송시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대세와 그 특징에 관한 시론- | 역사학보205 | 역사학회 | 2010.03 |
| 김성남 | 청대 朝行錄 전송 현황과 특성 | 인문과학46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010.08 |
| 김성해 | 동북아 언론의 이해-한·중·일 언론의 갈등사례 보도를 중심으로- | 동아연구58 |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 2010.02 |
| 김수진 | 7세기 고구려의 도교수용 배경 | 한국고대사연구 59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9 |
| 김순남 | 조선전기 滿浦鎭과 滿浦僉使 | 사학연구97 | 한국사학회 | 2010.03 |
| 김순남 | 조선 중종대의 북방 야인 구축 | 조선시대사학보 54 | 조선시대사학회 | 2010.09 |
| 김순자 | 고려·조선-明 관계 외교문서의 정리와 분석-『吏文』,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소재 문서를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28 | 한국중세사학회 | 2010.04 |
| 김승일 | 동북공정 이후 중국학계의 한국사 연구 동향 | 한국근현대사연구 55 | 한국근현대사학회 | 2010.12 |
| 김영훈 |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萬國地理와 萬國史를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16-2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2010.07 |
| 김우철 | 鄭僑의 중국사 이해와 현실 인식 | 사총70 | 역사학연구회 | 2010.03 |
| 김원수 | 외교 혁명과 간도 협약의 국제 관계 | 백산학보86 | 백산학회 | 2010.04 |
| 김윤희 | 조선 후기 사행 가사의 창작과 정과언어적 실천의 문제 | 한국시가연구29 | 한국시가학회 | 2010.11 |
| 김일권 | 고구려 벽화의 仙과 하늘의 상상력 실재 | 美術史學研究 268 | 韓國美術史學會 | 2010.12 |
| 김정현 | 근대 동아시아의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 | 역사와실학43 | 역사실학회 | 2010.11 |
| 김종진 | 중국 역사교과서상의 한국 관련 서술내용 변화에 대한 검토-최근 초급중학 『중국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김종복 | 발해의 서남쪽 경계에 대한 재고찰 | 한국고대사연구 58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6 |
| 김종복 |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 사건의 추이 | 역사와경계76 | 부산경남사학회 | 2010.09 |
| 김종복 | 수정본 《渤海考》의 내용과 집필 시기 | 태동고전연구26 | 한림대학교태동고전연구소 | 2010.12 |
| 김종복 |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 역사와현실78 | 한국역사연구회 | 2010.12 |
| 김종섭 | 唐代 治者 입장에서 본 婚姻 | 중국고중세사연구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김종섭 | 唐代 長安文化의 한 형태 | 동양사학연구 112 | 동양사학회 | 2010.09 |
| 김종성 | 淸의 대조선 영사 파견에 관한 연구 | 중국근현대사연구46 |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2010.06 |
| 김주삼 | 북중 수교 61주년 평가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안-2012년 동북아 정세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57 | 한국동북아학회 | 2010.12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김주용 | 중국 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長沙『大公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97 | 한국사학회 | 2010.03 |
| 김진광 | 서고성의 궁전배치를 통해 본 발해 도성제의 변화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김창석 | 8세기 발해의 對日 항로와 蝦夷 | 아시아문화26 |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 2010.08 |
| 김택민 | 7~8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 | 사총70 | 역사학회 | 2010.03 |
| 김철조 | 연행 과정의 식생활 | 한국실학연구20 | 한국실학학회 | 2010.12 |
| 김형중 | 吳祿貞과 《延吉邊務報告》-100년 전의 '東北工程'? | 역사문화연구제 35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2010.02 |
| 김호동 | 몽골제국과 『大元一統志』의 편찬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김희선 | 청말(1882~1894년) 漢城 華商組織과 그 위상 | 중국근현대사연구 46 |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 2010.06 |
| 김희선 | 고구려 국내성 연구 | 백산학보87 | 백산학회 | 2010.08 |
| 김희신 | 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청일전쟁 이전 한성, 인천을 중심으로- | 명청사연구34 | 명청사학회 | 2010.10 |
| 김희신 | '漢城 開設行棧 조항 개정' 교섭과 중국의 대응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김희찬 | 발해 연화문 와당의 고구려 계승성 검토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김희찬 | 발해 연화문 와당의 문양 변화와 시기적 변천 | 백산학보87 | 백산학회 | 2010.08 |
| 나동욱 |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군사 발전과 성장 | 군사77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2010.12 |
| 남동신 | 慧超『往五天竺國傳』의 발견과 8대탐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노영구 | 【서평】 동아시아 차원의 정묘·병자호란 이해와 새로운 출발점-한명기의 『정묘·병자호란과동아시아』를 읽고- | 역사비평90 | 역사문제연구소 | 2010.02 |
| 노중국 |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와 백제의 위치 | 충청학과충청문화11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10.12 |
| 담홍매 |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 동북아연구 25-2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2010.12 |
| 渡邊 義浩 | 後漢 '유교국가'의 성립 | 중국고중세사연구 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도진순 | 안중근의 전쟁과 평화, 죽임과 죽음 | 역사와현실75 | 한국역사학회 | 2010.03 |
| 渡邊 信一郎 | 古代中國の身分制的土地所有 | 중국고중세사연구 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Dan Li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6자회담을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55 | 한국동북아학회 | 2010.06 |
| 李學堂·牛林傑 | 17~18세기 中·韓 文人 間의 문화 교류와 상호작용 현상 일고찰 | 한국실학연구19 | 한국실학학회 | 2010.06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림병덕 | 里耶秦簡을 통해서 본 秦의 戶籍制度 | 동양사학연구 110 | 동양사학회 | 2010.06 |
| 문경호 |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 한국중세사연구 28 | 한국중세사학회 | 2010.04 |
| 문옥표 | 기억과 상상의 현장-중국을 찾는 한국인 민족 역사관광- | 비교문화연구 16-1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2010.01 |
| 민덕기 |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역사와담론57 | 호서사학회 | 2010.12 |
| 민병희 | 王安石에 있어서의 道와 字 | 동양사학연구 110 | 동양사학회 | 2010.03 |
| 민후기 | 商, 西周시대 商 樣式 圖象文字의 추이 | 중국고중세사연구 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박건주 | 赤眉亂 시기의 사대부사회와 후한왕조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박경철 | 압록강 중·상류 류역 적석총 축조 집단의 존재 양태 | 선사와고대32 | 한국고대학회 | 2010.06 |
| 박근칠 | 吐魯番文獻의 流散과 整理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박대남·이송란 | 중국 隋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 한국고대사탐구 6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2010.12 |
| 박대재 | 箕子 관련 商周 青銅器 銘文과 箕子 東來說 | 선사와고대32 | 한국고대학회 | 2010.06 |
| 박동훈 |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중국 "창지투 선도고"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 한국동북아논총 57 | 한국동북아학회 | 2010.12 |
| 박명희 |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중화민국 정부의 태도 | 동양학47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2010.02 |
| 박미라 | 중국 북경 한국 종교의 현황과 과제 | 한국사상과문화 54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9 |
| 박병광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북핵 인식-1·2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통일정책연구 19-1 | 통일연구원 | 2010.06 |
| 박상수 |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동아시아 연구, '초국가적 공간'으로부터 접근하자- | 아세아연구 53-1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2010.03 |
| 박선명 | 중화민국 시기의 "간도" 인식-당시 출판된 신문 잡지의 "간도" 기사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박선희 | 홍산 문화의 복식 유물과 고조선 복식의 지속성 | 백산학보87 | 백산학회 | 2010.08 |
| 박성용 | 동북아 해양 안보와 한국 안보에의 함의 | 한국동북아논총 57 | 한국동북아학회 | 2010.12 |
| 박아림 | 中國 河南省 南陽 麒麟崗漢墓 研究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박원길 | 몽골의 친환경적 사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몽골학29 | 한국몽골학회 | 2010 |
| 박윤선 |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通好와 移那斯·麻都 | 역사와현실77 | 한국역사학회 | 2010.09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박은정 | 조청 지식인의 만남과 “知己”의 표상-『乾淨 衡筆談』- | 동방학18 | 한서대학교동양고 전연구소 | 2010.04 |
| 박재복 | 商代이전 甲骨의 특징 및 考古문화적 분류 | 중국고중세사연 구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박정민 | 조선 초기의 여진 관계와 여진 인식의 고찰 화-태조~세종대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35 | 한일관계사학회 | 2010.04 |
| 박정민 | 세조대의 여진 관계와 정책-여진인 來朝를 중 심으로- | 한국사연구151 | 한국사연구회 | 2010.12 |
| 박정현 | 19세기 말(1882~1894년) 조선 華商의 조직 과 상업 활동 | 중국사연구66 | 중국사학회 | 2010.06 |
| 박정현 |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 체제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박정현 | 1882~1894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 본 한중관계 | 중국근현대사연 구45 | 한국중국근현대사 학회 | 2010.03 |
| 박종갑 | 한국어와 중국어의 四肢 관련 다의어 대조 연구 | 민족문화논총46 | 영남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소 | 2010.12 |
| 박종서 |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 국학연구17 | 한국국학진흥원 | 2010.12 |
| 박현 | 중일 전쟁기 조선 총독부의 금 집중 정책 | 한국근현대사연 구55 | 한국근현대사학회 | 2010.12 |
| 박현규 | 浙東 연해안에서 고려인의 수로 교통-교통 유 적과 지명을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64 | 중국사학회 | 2010.02 |
| 박현규 | 浙東 연해안에서 신라인의 수로 교통-수로 유 적과 지명을 중심으로- | 신라문화35 | 동국대학교신라문 화연구소 | 2010.02 |
| 박현규 | 北京 琉璃廠 화폭과 한국 고문헌 | 동방한문화42 | 동방한문화회 | 2010.03 |
| 박환영 | 한국의 몽골 민속연구 20년 | 몽골학29 | 한국몽골학회 | 2010 |
| 박환영 | 『몽골비사』 속에 반영된 몽골의 전통의례 고찰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배경한 | 國民革命時期的 蔣介石과 汪精衛 | 동양사학연구 112 | 동양사학회 | 2010.09 |
| 배경한 | 중일 전쟁 시기 蔣介石·國民政府의 對韓政策 | 역사학보208 | 역사학회 | 2010.12 |
| 배근홍 | 唐 李他仁 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충북사학24 | 충북사학회 | 2010.02 |
| 배숙희 | 송대 동아 해외상 표류민의 발생과 송환 | 중국사연구65 | 중국사학회 | 2010.04 |
| 배우성 | 서울에 온 청의 칙사 馬夫大와 삼전도비 | 서울학연구38 | 서울시립대학교부 설서울학연구소 | 2010.02 |
| 배우성 | 만주에 관한 지식과 조선 후기 사회 | 역사학보208 | 역사학회 | 2010.12 |
| 백약천· 막효뢰 |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특징 비교-한국 어 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 한국사상과문화 53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6 |
| 백종오 | 압록강 중·상 유역 출토 고구려 유물 검토 | 단군학연구22 | 단군학회 | 2010.05 |
| 변창구 | 동아시아 지역 통합에 있어서 중·일 관계의 양면성 | 한국동북아논총 55 | 한국동북아학회 | 2010.06 |
| 변창구 | 국제통합이론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는 함의 | 한국동북아논총 56 | 한국동북아학회 | 2010.09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복기대 |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 | 단군학연구22 | 단군학회 | 2010.05 |
| 부유섭 | 燕行錄을 통해 본 康雍 年間 중국 서적 유입에 대하여 | 한문학보22 | 우리한문화회 | 2010.06 |
| 서세홍 | 秦漢法律의 編纂 | 중국고중세사연 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서영대 | 근대 동아시아 3국의 신화적 국조 인식 | 단군학연구23 | 단군학회 | 2010.11 |
| 서인범 | 조선시대 승려들의 압록강 월경사건 | 한국사상과문화 54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9 |
| 서한용 | 이덕무의 중국 문학학 인식 | 한문학논집30 | 근역한문화회 | 2010.02 |
| 선석열 |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성동기 |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러시아어와 우즈베 크어의 지위변화에 따른 언어상황의 이해와 전망-설문조사와 실질적 언어지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손과지 | 중국의 한국 4·19 혁명에 대한 인식-『人民日 報』를 중심으로- | 사총71 | 고려대학교 역사연 구소 | 2010.09 |
| 송기호 |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송미령 | 청 강희제의 황태자 경정과 그 위상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송성대 | 한·중 간 이어도海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지리 학적 고찰 | 대한지리학회지 45-3 | 대한지리학회 | 2010.06 |
| 송성유 | 백제와 중국의 通交 및 양국 간의 문화 교류 | 충청학과충청문 화11 | 충청남도역사문화 연구원 | 2010.12 |
| 송원찬 | 청대 한중 지식인 교류와 문자옥-『乾淨衡會 友錄』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 구47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 2010.05 |
| 송호빈 | 중국 正史 東夷傳과 『高麗圖經』에 나타난 고 대·중세 한국의 해양 신앙과 설화 | 연민학지13 | 연민학회 | 2010.02 |
| 송호정 |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 한국고대사연구 58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6 |
| 송호정 | 漢郡縣 지배의 역사적 성격 | 역사와현실78 | 한국역사연구회 | 2010.12 |
| 신경희 | 미국 세계사 교실 수업과 근대시기 아시아 역사 | 동아연구58 | 서강대학교동아연 구소 | 2010.02 |
| 신광철 | 고구려 남부전선 주둔부대의 생활상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신성곤 |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 동아시아문화연 구48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 2010.11 |
| 신숙 | 통일신라와 唐의 衡鳥文 연구 | 미술사연구24 | 미술사연구회 | 2010.12 |
| 신용하 | 고조선 문명권 형성의 기본 구조 | 단군학연구23 | 단군학회 | 2010.11 |
| 신용하 | 한국 '원민족' 형성과 '전근대 민족' 형성 | 사회와역사88 | 한국사회사학회 | 2010.12 |
| 신운용 | 안중근 유해의 조사·발굴 현황과 전망 | 역사문화연구36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2010.06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신은경 | 동아시아 散, 韻 혼합담론의 시원으로서의 『春秋左氏傳』에 관한 연구 | 동양학47 |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 2010.02 |
| 신주백 |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와 영토 문제 | 한국근현대사연구55 | 한국근현대사학회 | 2010.12 |
| 신채식 | 宋代「君主獨裁體制說」에 대한 異論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심재훈 | 민족주의적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그 자료 새롭게 보기 | 역사학보208 | 역사학회 | 2010.12 |
| 안귀숙 |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遼文化的 영향 | 이화사학연구40 | 이화사학연구소 | 2010.06 |
| 안대회 | 조선 후기 燕行을 보는 세 가지 시선-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19 | 한국실학학회 | 2010.06 |
| 안신원 |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안장리 | 중국 사신에 대한 서민층과 사대부 층의 인식 비교 | 역사민속학33 | 한국역사민속학회 | 2010.07 |
| 양시은 |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양시은 |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양한순 | 불교유적지 순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중국문화관광 | 비교문화연구 16-1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2010.01 |
| 여호규 | 高句麗의 太王號 제정과 國岡型 왕릉 입지의 성립 | 역사문화연구제 35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2010.02 |
| 여호규 |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 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동향 | 한국고대사연구 57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3 |
| 여호규 | 고구려 초기의 왕위 계승 원리와 古鄒加 | 동방학지150 |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 2010.06 |
| 염인호 | 중국 연변대학의 설립 및 체제 개편과 북한 | 한국학논총33 |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 2010.02 |
| 오강원 | 燕나라 遼東郡과 東遼河 유역 토착 집단의 독특한 교류방식, 二龍湖城址 | 백산학보88 | 백산학회 | 2010.12 |
| 오영섭 | 이승만의 『청일전기』 번역·간행과 자주독립론 | 한국사학사학보 22 | 한국사학사학회 | 2010.12 |
| 오재환·구사회 | 근대 시기 동양 평화에 대한 두 시각-안중근과 박영철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41 | 동양고전학회 | 2010.12 |
| 오진석 | 통구고분군 적석총의 군집 양상 연구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王恩美 | 한반도 화교들의 한국전쟁 | 역사비평91 | 역사비평사 | 2010.05 |
| 왕진중 | 朝鮮燕行使者與十八世紀北京的琉璃廠 | 동아시아문화연구47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10.05 |
| 牛林杰 | 東亞視角下的 蚩尤與 蚩尤文化 | 韓國學報21 |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2010.08 |
| 우미영 | 전시되는 제국과 피식민 주체의 여행-1930년대 만주 수학 여행기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48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10.11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우실하 | 몽골 지역 석인상의 기원과 요하문명 | 몽골학29 | 한국몽골학회 | 2010 |
| 우양호 | 동북아 해양도시의 역사적 성장요인에 관한-한국, 일본, 중국의 사례(1989~2008)- | 역사와 경제75 | 부산경남사학회 | 2010.06 |
| 우인수 | 17세기 후반 대만 鄭氏海上勢力에 대한 조선의 정보 수집과 그 의미 | 대구사학 100 | 대구사학회 | 2010.08 |
| 유권중 | 동아시아 공동체와 공존의 윤리 | 동양철학연구62 | 동양철학연구회 | 2010.05 |
| 유수정 | 잡지 『조선』(1908~1911)에 나타난 간도·만주 담론 | 아시아문화연구 19 |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2010.09 |
| 유우창 |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 한국고대사연구 59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9 |
| 유종적 | 고대 조선의 세계관과 『山海經』-조선 왕조 시기의 『天下圖』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46 |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윤내현 | 『삼국유사』와 『潛夫論』의 고조선 인식 | 단군학연구22 | 단군학회 | 2010.05 |
| 윤내현 | 고조선의 붕괴 원인 | 단군학연구23 | 단군학회 | 2010.11 |
| 윤명철 | 백제의 역사 속에 함축된 해양 문화적 요소 | 충청학과충청문화11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10.12 |
| 윤병모 | AD. 2세기 이전 고구려의 遙西 遠征 | 국학연구17 | 한국국학진흥원 | 2010.12 |
| 윤선태 | 백제의 한문 수용과 문자 생활 | 백제는총9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2010.12 |
| 윤성환 | 650년대 중반 고구려의 대외 전략과 對新羅 攻勢의 배경 | 국학연구17 | 한국국학진흥원 | 2010.12 |
| 윤영혁 | 초조대장경과 부인사-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 | 한국중세사연구 28 | 한국중세사학회 | 2010.04 |
| 윤용구 | 낙랑·대방 지역 신발견 문자 자료와 연구 동향 | 한국고대사연구 57 | 한국고대사학회 | 2010.03 |
| 윤용구 |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 한국고대사연구 60 | 한국고대사학회 | 2010.12 |
| 윤용복 | 중국 산동성의 한국종교 | 인문과학46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010.08 |
| 윤욱 | 清末 官用電報의 問題點 | 동양사학연구 112 | 동양사학회 | 2010.09 |
| 윤은숙 | 쿠빌라이와 고려 | 역사비평90 | 역사문제연구소 | 2010.02 |
| 윤은숙 | 고려의 복원(北元)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고려의 양면 외교를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윤재석 | 秦漢代 주택의 구조와 가족생활 | 동양사학연구 112 | 동양사학회 | 2010.09 |
| 윤재운 | 중국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소수민족정책과 내용 | 역사교육논집44 | 역사교육학회 | 2010.02 |
| 윤형원 | 광활한 몽골초원과 흉노인의 생존-고고학 증거를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윤휘탁 | 근대 조선인의 만주 농촌 체험과 민족인식-조선족의 이민 체험 구술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4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010.09 |
| 鷹取祐司 | 秦漢時代の文書傳達形態 | 중국고중세사연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이강한 | '친원'과 '반원'을 넘어서-13~14세기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역사와현실78 | 한국역사연구회 | 2010.12 |
| 이강한 | 고려·원간 '交婚' 법제의 충돌 | 동방학지150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2010.06 |
| 이강한 | 14세기 고려(高麗) 태묘(太廟)의 혁신과 변천 | 진단학보109 | 진단학회 | 2010.06 |
| 이강한 | '외세', '외부', 그리고 '외연'의 문제 | 역사와현실78 | 한국역사연구회 | 2010.12 |
| 이강한 | 13세기 말 고려대외무역선의 활동과 元代 '關稅'의 문제 | 도서문화36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 2010.12 |
| 이개석 | 13~14세기 여몽관계(麗蒙關係)와 고려사회의 다문화 수용 | 북현사립28 | 경북사학회 | 2010.08 |
| 이개석 | 麗蒙 兄弟盟約과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사료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 대구사학101 | 대구사학회 | 2010.11 |
| 이개석 | 元 宮廷의 高麗 출신 宦官과 麗元關係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이경구 | 한국에서 中華 의식과 기독교적 문명 의식의 비교사적 고찰 | 개념과소통6 | 한림대학교한림과 학원 | 2010.12 |
| 이경희 | 평양 지역 고구려 벽화의 '중국풍' 복식 검토-묘주 복식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0 | 한국고대사학회 | 2010.12 |
| 이기동 | 중국 진사와 및 제과에 합격한 한국인들 | 한국사시민강좌 46 | 일조각 | 2010.02 |
| 이도화 | 백제의 해외 활동 기록에 관한 검증 | 충청학과충청문화 11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10.12 |
| 이동훈 | 冬壽의 出自로 본 고구려의 낙랑군 지배 | 백산학보88 | 백산학회 | 2010.12 |
| 이명미 | 睿皇后 세력의 恭愍王 폐위 시도와 高麗國王 權-奇三寶叔 元子 책봉의 의미- | 역사학보206 | 역사학회 | 2010.06 |
| 이문기 | 嘉誌로 본 在唐 고구려 유민의 祖先 의식 변화 | 대구사학100 | 대구사학회 | 2010.08 |
| 이병건 | 발해 영광탑과 한강이남 전탑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이병철 | 연행가사(燕行歌辭)의 제언(提言)과 <연행가(燕行歌)>를 통해 본 전환기(轉換期) 조선(朝鮮) | 한국사상과 문화52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3 |
| 이부오 |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 한국고대사탐구 4 |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2010.04 |
| 이상훈 | 나당전쟁의 개전과 薛烏儒 부대 | 역사교육논집45 | 역사교육학회 | 2010.08 |
| 이선니 | 근대 중국의 조선인 인식-양계초와 황염배를 중심으로- | 중국사연구66 | 중국사학회 | 2010.06 |
| 이선정 | 『赴燕日記』에 나타난 19세기 초 중인 의관의 청 문물 인식 | 역사교육논집45 | 역사교육학회 | 2010.08 |
| 이성규 | 計數化된 人間 | 중국고중세사연구 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이성원 | 秦漢사회 樂舞의 諸相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이성제 | 中國學界의 '唐征高句麗論'과 歷史認識의 諸問題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이성형 | 燕行錄의 伯夷·叔齊 관련 한시 연구-壬亂 수습기를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31 | 근역한문학회 | 2010.08 |
| 이승란 | 중국 法門寺 地宮 茶具와 통일 신라 茶文化 | 선사와고대32 | 한국고대학회 | 2010.06 |
| 이수환 | 조선조 영남과 清代山東의 서원 비교 연구-인적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4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이승수 | 연개소문 서사의 형성과 전승 경로-연개소문의 형상과 관련하여- | 동아시아문화연구 47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10.05 |
| 이영 |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왜구-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36 | 한일관계사학회 | 2010.08 |
| 이영관·박근수·진애니 | 당건릉과 명효릉의 건축문화의 특색과 한국왕릉의 연계양상 | 한국사상과 문화51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1 |
| 이영옥 | 1840년대 청조의 풍경 하나-오랑캐의 전화로 부터 "천조" 지키기-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이영춘 | 중국 宗法의 한국 전파와 그 영향 | 韓國學報21 |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2010.06 |
| 이영호 | 金思蘭-唐을 선택한 망명자- | 북현사립28 | 경북사학회 | 2010.08 |
| 이은자 | 19世紀末 在朝鮮 未開口岸의 淸商 密貿易 관련 領事裁判案件 研究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이은정 | 17세기 초 이스탄불 마할레(거주 공동체)의 외부인에 대한 대응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이재명 | 미군정시기(1945~1948) 중국국민당 언론의 대한인식-『申報』를 중심으로- | 동양학47 |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 2010.02 |
| 이정범 |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이정빈 | 6~7세기 고구려의 쇄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 군사77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2010.12 |
| 이정은 | 국가와 종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조선족의 종족정체성-대련시 조선족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16-2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2010.07 |
| 이정훈 | 고려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과 지배 체제 | 한국중세사연구 29 | 한국중세사학회 | 2010.10 |
| 이종수 | 고고 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 교류 관계 검토 | 선사와고대33 | 한국고대학회 | 2010.12 |
| 이창기 |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 민족문화논총4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이창숙 | 燕行錄에 실린 중국 演戲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 한국실학연구20 | 한국실학학회 | 2010.12 |
| 이철성 | 조선 후기 연행 무역과 수출입 품목 | 한국실학연구20 | 한국실학학회 | 2010.12 |
| 이철우 | 단군신화에서의 구조 및 특성 연구 | 한민족문화연구 28 | 한민족문화학회 | 2010.04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이춘복 | 清末 정치사상의 中西融合과 儒家 정치사상의 近代化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이춘호 | 五胡時期 漢人王朝 冉魏와 그 性格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이춘호 | 五胡時期 慕容前燕의 建國과 그 性格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이형우 | 山東省 文登縣 赤山 新羅院의 성격 | 민족문화논총 4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이흥두 | 청나라의 조선 침공과 기마전 | 역사와실학 42 | 역사실학회 | 2010.08 |
| 이흥두 |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 군사 77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2010.12 |
| 이흥식 | 조청 지식인의 우연한 만남과 사적 교류-이해응의 『계산기정』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47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2010.05 |
| 이화승 | 關公信仰과 산삼상인의 발전 | 동양사학연구 112 | 동양사학회 | 2010.09 |
| 임상선 | 발해의 왕도 顯州와 中京치소 西古城의 관계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임영상 | 중국 조선족과 문화 산업-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발전 전략- | 백산학보 86 | 백산학회 | 2010.04 |
| 임재해 | 신시고국환 웅족 문화의 '해' 상징과 천신신앙의 지속성 | 단군학연구 23 | 단군학회 | 2010.11 |
| 임준철 | 연행록에 나타난 幻術認識의 변화와 박지원의 「幻戲記」 | 민족문화연구 5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임중혁 | 中國 古代 庶人 개념의 변화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임채홍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군사 77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2010.12 |
| 임치균 |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청나라 지배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 | 장서각 24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10 |
| 임형택 |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燕行錄 | 한국실학연구 20 | 한국실학학회 | 2010.12 |
| 장부상 | 동이문화사 서설-海岱지역 고대 문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4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2010.12 |
| 장석호 | 중앙아시아 고대 압각화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제 및 양식 비교 연구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장을연 | 清代 조선 왕실 冊封誥命과 조선 敎命의 형태 비교 연구 | 장서각 24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10 |
| 장창은 | 『삼국사기』 지리지 '高句麗故地'의 이해 방향 | 한국학논총 33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0.02 |
| 장창은 | 5~6세기 고구려의 남하와 한강 유역의 영역 확장-『三國史記』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실제 (II)- | 백산학보 88 | 백산학회 | 2010.12 |
| 赤羽目 匡由 | 동아시아에서의 고구려·발해 문화의 특징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전경선 | 중국 동북에서의 滿鐵의 정보선전활동 | 중국사연구 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전병곤 |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한중 협력 구상 | 중국학연구 54 | 중국학연구회 | 2010.12 |
| 전성홍 |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저항 운동의 원인과 중앙 정부의 대응- | 동아연구 5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2010.02 |
| 田中俊明 | 백제의 複都·副都와 동아시아 | 충청학과충청문화 11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10.12 |
| 정동훈 | 고려-명 외교 문서 서식의 성립과 배경 | 한국사론 56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2010.06 |
| 정두영 | 17세기 西人 내부의 陽明學 이해와 현실주의 정치론 | 동국사학 48 | 동국사학회 | 2010.06 |
| 정면 | 『饜蠻』의 출현과 구성 | 중국고중세사연구 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정면 | 唐代 '南中' 지역과 '西饜' | 동양사학연구 110 | 동양사학회 | 2010.03 |
| 정병준 | 당대의 호시와 장보고의 대당교역 | 중국사연구 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정석배 | 핀스판저노브카(1) 주거유적 쪽구들 연구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정선모 | 北宋 使行을 통해서 본 樸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 한국한문학회연구 46 | 한국한문학회 | 2010.12 |
| 정신철 | 중국의 민족 정책과 조선족 사회의 변화 발전 | 백산학보 86 | 백산학회 | 2010.04 |
| 정영문 | 사행록에 기록된 지방 공연 문화의 변모 양상 | 온지논총 24 | 온지학회 | 2010.01 |
| 정완서 |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정욱재 |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백두산 여행과 간도 인식-『백두산유람록』을 중심으로- | 장서각 24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10 |
| 정은정 | 元 수도권정비의 영향과 고려궁궐의 변화 | 역사와경계 76 | 부산경남사학회 | 2010.09 |
| 정은주 |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사신의 초상 | 명청사연구 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정인성 | 대방 태수 張撫夷墓의 재검토 | 한국상고사학보 69 | 한국상고사학회 | 2010.08 |
| 정일남 | 『熱河日記』燕巖形象一考 | 동방한문학 42 | 동방한문학회 | 2010.03 |
| 정재훈 | 曹魏, 西晉時期 并州 匈奴社會-五胡十六國의 전주곡-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정준호 | 중국의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중국학연구 52 | 중국학연구회 | 2010.06 |
| 정해은 | 조선 후기 이혼의 실상과 『대명률』의 적용 | 역사와현실 75 | 한국역사연구회 | 2010.03 |
| 정해은 | 정묘·병자호란 연구의 새로운 지평, 그리고 남아 있는 문제-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푸른역사, 2009) | 역사와현실 77 | 한국역사연구회 | 2010.09 |
| 정해은·박경·이정란 | 고려·조선 시대 법 운용의 실제와 『대명률』 | 역사와현실 75 | 한국역사연구회 | 2010.03 |
| 정해중 | 명청중국과 조선사행의 지적교류 | 동양사학연구 111 | 동양사학회 | 2010.06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정호섭 | 高句麗 壁畫古墳의 銘文과 被葬者에 관한 諸問題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정호섭 | 고구려 벽화 고분의 편년에 관한 검토 | 선사와고대33 | 한국고대학회 | 2010.12 |
| 정후수 | 이상적과 <歲寒圖> 관람 淸朝人士와의 교유(2) | 동양고전학연구 40 | 동양고전학회 | 2010.09 |
| 계송희 | 고구려 미술의 팔메트(Palmette) 문양 고찰 | 미술사연구24 | 미술사연구회 | 2010.12 |
| 조경란 | 현대 중국 민족주의 비판-동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 역사비평90 | 역사문제연구소 | 2010.02 |
| 조경철 | 백제 불교의 중국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사상사학36 | 한국사상사학회 | 2010.12 |
| 조민환 | 명청 서화가의 노장미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 한국사상과문화 54 | 한국사상문화학회 | 2010.09 |
| 조병한 | 청말 海防 체제와 中越 조공 관계의 변화 | 역사학보205 | 역사학회 | 2010.03 |
| 조병현 | 북방 영토 문제로 본 간도 영역-地籍學의 시각에서- | 백산학보86 | 백산학회 | 2010.04 |
| 조성산 |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의 碑學 유행과 그 의미 | 정신문화연구 119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6 |
| 조세현 | 중외조약을 통해 본 근대 중국의 해양경계-국경조약과 조차조약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74 | 부산경남사학회 | 2010.03 |
| 조영광 | 고구려 5나부의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 대구사학 98 | 대구사학회 | 2010.02 |
| 조우연 | 고구려의 왕실 조상 계사-4~5세기 '始祖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0 | 한국고대사학회 | 2010.12 |
| 조원진 | 요서 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와 기자 조선 문제 | 백산학보88 | 백산학회 | 2010.12 |
| 조이옥 | 한국 고대사의 주변-말갈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 은지논총24 | 은지학회 | 2010.01 |
| 조춘호 | '9.18'사변 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자치운동과 중국공산당 대응-민생단체와 국민부자치를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33 |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 2010.02 |
| 진성수 | 17~18세기 한·중·일 유학에서의 인간 이해 연구-王夫之·丁若鏞·伊藤仁齋를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20 | 한국한문고전학회 | 2010.06 |
| 진재교 | 越境과 敘事-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기억-『崔陟傳』 독법의 한 사례- | 한국한문학연구 46 | 한국한문학회 | 2010.12 |
| 진재교 | 조선의 更張을 기획한 또 하나의 '北學議'-『雪嶽外史』- | 한문학보23 | 우리한문학회 | 2010.12 |
| 차혜원 | 열하 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변동하는 조공 책봉 관계의 증언- | 역사비평93 | 역사비평사 | 2010.11 |
| 차혜원 | 정유재란기 명조의 파병 결정과 "공의"-『文興君控於錄』을 中心으로- | 중국사연구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천금 | 金命喜와 淸朝 文士들의 尺牘 교류-『尺牘藏集』을 中心으로- | 연민학지13 | 연민학회 | 2010.02 |
| 최덕경 | 조선시대 분묘시비와 인분-고대 중국의 분묘 이용과 관련하여- | 역사학연구40 | 호남사학회 | 2010.02 |
| 최덕경 | 동아시아에서의 糞의 의미와 人糞 실효성 | 중국사연구68 | 중국사학회 | 2010.10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최덕수 | '한국병합' 전후 동아시아 국제 환경과 한인 인문의 세계 인식 | 동북아역사논총 30 | 동북아역사재단 | 2010.12 |
| 최병욱 | 淸, 교황청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청조 관리의 인식과 실천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최봉룡 | 1920~30년대 만주 지역 한인 사회주의 운동과 종교-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2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010.03 |
| 최봉룡 | 만주국의 종교 정책에 대한 연구-국가 종교와 국가 이념의 변형을 중심으로- | 송실사학24 | 송실사학회 | 2010.06 |
| 최성은 | 동아시아 불교 조각을 통해 본 백제미륵사의 불상 | 백제문화43 |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 2010.08 |
| 최양규 | 족보 기록을 통해 본 朝·淸의 嫡庶 의식 비교 | 백산학보87 | 백산학회 | 2010.08 |
| 최윤정 | 元代 동북지방과 遼陽行省 | 동양사학연구 110 | 동양사학회 | 2010.03 |
| 최종석 | 1356(공민왕 5)~1369(공민왕 18)고려-몽골(원) 관계의 성격-'원간섭기'와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116 | 역사교육연구회 | 2010.12 |
| 최종석 | 조선 초기 "時王之制" 논의 구조의 특징과 중화 보편의 추구 | 조선시대사학보 52 | 조선시대사학회 | 2010.03 |
| 최진열 | 北魏後期 洛陽 거주 胡人들의 생활과 문화 | 중국고중세사연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최진열 | 北魏後期 胡語 사용 현상과 그 배경 | 중국고중세사연구23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2 |
| 최해별 | 唐·宋 시기 가정 내 妾의 位相 변화 | 동양사학연구 113 | 동양사학회 | 2010.12 |
| 최형원 | <Diwan Lughat at-Turk>와 <몽골비사>에 등장하는 왕명과 관직명 고찰 | 몽골학29 | 한국몽골학회 | 2010 |
| 최혜주 | 잡지 『朝鮮及滿洲』에 나타난 조선 통치론과 만주 인식-1910년대 기사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2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010.03 |
| 최희재 | 월남, 조선과 1860~80년대 청조 조공국 정책의 재조명 | 역사학보206 | 역사학회 | 2010.06 |
| 캐스린 웨더스비·강규형 |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과 정과 전후 북한 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 정신문화연구 120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9 |
| Patricia-Ebrey | 『주자가례』 속의 중국 음식 문화 | 국학연구16 | 한국국학진흥원 | 2010.06 |
| 풍이강 | 청대의 역사적 특징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하문식 | 고조선 시기 고인돌의 축조 방법 연구 | 단군학연구22 | 단군학회 | 2010.05 |
| 何淑宜 | 17~18세기 조선 사절의 중국 예속 관찰 | 국학연구16 | 한국국학진흥원 | 2010.06 |
| 한규철 | 발해 '중경'의 의미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한명기 | 이여송과 모문룡 | 역사비평90 | 역사문제연구소 | 2010.02 |
| 한명기 | 『孤臺日錄』에 나타난 明軍의 모습 | 남명학15 | 남명학연구원 | 2010.08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한영규 | 19세기 한중 문인 교류의 새로운 양상-『赴燕日記』, 「서행록」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45 | 성균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2010.02 |
| 한영규 | 『송천필담』의 明代淸言 수용 양상 | 정신문화연구 120 | 한국학중앙연구원 | 2010.09 |
| 한정수 | 고려 초의 국제관계와 年號紀年에 대한 재검토 | 역사학보208 | 역사학회 | 2010.12 |
| 한정인 | 渤海와 唐의 모제 비교 | 고구려발해연구 36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3 |
| 함영대 | 清代 학자들의 『맹자』 해석과 다산 정약용의 『孟子要義』 | 다산학16 | 다산학술문화재단 | 2010.06 |
| 허태구 | 병자호란 講和협상의 추이와 조선의 대응 | 조선시대사학보 52 | 조선시대사학회 | 2010.03 |
| 허태용 | 17·18세기 北伐論의 추이와 北學論의 대두 | 대동문화연구69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 2010.03 |
| 현광호 | 안중근의 한중일 인식-동양평화론의 배경- | 한국학논총33 |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 2010.02 |
| 현광호 | 청일전쟁 이전 시기 프랑스 외교관 플랑시의 조,청관계 인식 | 대구사학 99 | 대구사학회 | 2010.05 |
| 홍석률 | 1970년대 초 남북 대화의 종합적 분석-남북관계와 미중 관계, 남북한 내부 정치의 교차점에서- | 이화사학연구40 | 이화사학연구소 | 2010.06 |
| 홍성구 | 청 입관 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일본 | 명청사연구33 | 명청사학회 | 2010.04 |
| 홍성구 | 『조선왕조실록』에 비친 17세기 내륙 아시아 정세와 “영고탑회귀설” | 중국사연구69 | 중국사학회 | 2010.12 |
| 홍승현 | 兩漢時期 月令類 저작의 편찬과 성격 | 중국고중세사연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홍용호 | 철도 부설권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 史林35 | 수선사학회 | 2010.02 |
| 황민호 | 일제하 간도 봉기의 전개와 한인 사회 | 한국민족운동사연구65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2010.12 |
| 황민호 | 1910년대 만주 지역 한인 사회의 동향과 한인의 만주 이주 | 승실사학25 | 승실사학회 | 2010.12 |
| 황보경 | 4~6세기 북한강 유역 고분의 특징과 축조배경 고찰 | 고구려발해연구 37 | 고구려발해학회 | 2010.07 |
| 황은수 | 개항기 한중일 정기 해운망과 조선 상인의 활동 | 역사와현실75 | 한국역사연구회 | 2010.03 |
| 杨振红 | 松柏西汉墓簿籍牍考释 | 중국고중세사연구24 | 중국고중세사학회 | 2010.08 |
| Cho Hyun-soul | (The)significance of perceptions of Baekdusan in Baekdu-related myths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 E. I. Gelman | The results and meanings of the excavations of Balhae Sites in Russian Primorye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저자명 | 기사명 | 잡지명 | 발행처 | 연도 |
|--------------------|--|-----------------------------------|-------------------------------|---------|
| E. I. Gelman · 정석배 |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의 결과와 의의 | 고구려발해연구 38 | 고구려발해학회 | 2010.11 |
| G.에렉젠 | 흉노 귀족계층 무덤의 연구 | 중앙아시아연구 15 | 중앙아시아학회 | 2010.12 |
| Jo Yoong-hee | Westerners' perceptions of Baekdusan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 focusing on materials in English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 Jung Chi-Young | (The)people of Joseon's perception of Baekdusan viewed through geographical materials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 Kwon Nae-hyun |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Baekdusan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 Shin Ik-cheol | Travel to Baekdusan and its significance during the Joseon Period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 Sonja Haeussler | Descriptions of the Baekdusan and the surrounding area in Russian and German travel accounts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3-4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2010.12 |



동북아역사재단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0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초판 제1쇄 인쇄 2011년 12월 8일

초판 제1쇄 발행 2011년 12월 15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64-5 93910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